

상

2017

오 펜

작 품 집

O'PEN
CJ E&M

2017 오픈 작품집

상권

웹용 2017 오픈 작품집은

서울 한강체, KoPob 돋움체 • 바탕체, 어도비 본명조 • 본고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7

오픈

작품집

2017 오픈 드라마 스토리텔러 작품집

상권

2017 오픈 작품집 상권

1판 1쇄 인쇄 | 2017. 12. 26.

1판 1쇄 발행 | 2017. 12. 30.

발행처 씨제이이앤엠(CJ E&M)(주)

발행인 김성수

제작 오픈

편집디자인 디자인 문클

등록번호 제 2008-000114호 | 등록일자 2008. 7. 1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66 CJ E&M CENTER

전화 02-371-5501

글 강민수, 강유미, 강원영, 김동경, 노민경, 박주연, 박운서, 신수림, 신하은, 유영주,

윤조, 이소영, 이정민, 장아미, 전영선, 차연수, 최성욱, 최수현, 최지훈, 하수경

일러스트 신슬기, 최진아

교정 정지희

사진 스완 스튜디오 김승완

이미지 셔터스톡

인쇄 민언프린텍

ISBN 979-11-87565-22-2 04680

ISBN 979-11-87565-21-5(세트)

© 2017 CJ E&M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M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무단배포 금지)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34540)

상권

- 목차 004
- 작품집을 출간하며 006
- 2017 오픈의 활동 009

오픈 작품집

- 가해자...들 / 강유미 작가 후기 035
-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 김동경 작가 후기 099
- 세탁소와 향수 / 박윤서 작가 후기 169
- 삼시도 그날 밤 / 이소영 작가 후기 235
- 야생의 울자 / 전영선 작가 후기 297
- 골든 걸스 / 장아미 작가 후기 351
- 무사의 깔창 / 차연수 작가 후기 413
- 문집 / 신하은 작가 후기 485
- 직립 보행의 역사 / 최성욱 작가 후기 547
-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 박주연 작가 후기 611

하권

- 목차 004
- 드라마 제작기 007

오픈 작품집

- 낫 플레이드 / 강민수 작가 후기 051
- B주임과 러브레터 / 신수림 작가 후기 107
- 박과장의 은밀한 사생활 / 최지훈 작가 후기 177
- 소풍 가는 날 / 이정민 작가 후기 243
- 덤벼! / 노민경 작가 후기 307
-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 윤조 작가 후기 367
- 파이터 김봉숙 / 유영주 작가 후기 441
- 질투는 나의 힘 / 최수현 작가 후기 503
- 미운 사투리 소녀 / 하수정 작가 후기 567
- 오 마이 시스터 / 강원영 작가 후기 625

작품집을 출간하며



작품 완성을 위해 고된 창조의 여정을 견뎌낸 작가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전합니다.

세계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과 빠르게 유통하는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기업들은 예외없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발빠르게 반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콘텐츠의 핵심은 단연 좋은 스토리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당연함으로 2017년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합니다.

오픈은 스튜디오드래곤, CJ문화재단과 함께 재능 있는 스토리텔러들을 발굴하여,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상제작, 편성, 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오픈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과물들을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저는 재능 있는 작가들이 많이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건강한 생태계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CJ E&M은 재능 있는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창작자들이 인내의 과정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실험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진정성 깃든 긴 호흡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창작의 자양분이 되어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작가들과 함께 애정 어린 동행을 해 주신 선배 작가, 연출자, PD, 업계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작가들의 수고와 열정을 모은 이번 작품집을 통해 독자들이 창작의 통증으로 새겨진 별 같은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CJ E&M 대표 김성수

2017 오픈의 활동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M이 드라마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 CJ문화재단과 함께 재능 있는 드라마·영화 스토리텔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픈은 창작자 발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인 드라마·영화 작가 모집, 대본·시나리오 기획개발, 영상제작, 편성 및 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든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 오픈의 활동



- 여는 말 012
- 오픈 센터 014
- 2017 오픈 드라마 스토리텔러 공모전 016
- 작가 지원 프로그램
 - ① 멘토링 - 감독과의 대화 020
 - ② 미니시리즈 특강 024
 - ③ 현장 취재 026
- <드라마 스테이지> 028
- 2018 오픈의 진화 031





오픈, 이제 1년입니다. 극본 공모 접수 마지막 날이 떠오릅니다. CJ E&M 드라마 스토리텔러의 첫 걸음이 다 보니 지원 편수와 관심도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접수 결과를 보니 약 3000편의 원고가 들어와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심사부터 모든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겠다는 오픈 취지에 맞게, 드라마·영화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 40여 명이 약 3개월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차에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및 제작 총괄, 2차에는 영화 감독, 그리고 최종 3차 심사에는 유명 드라마 감독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오픈은 먼저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선배 작가들 및 감독들의 특강과 현재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감독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고 참신한 소재 발굴과 탄탄하고 치밀한 대본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경찰청, 교도소 등의 현장 취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집을 만들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오픈에 참여한 신인작가들과 제작사 간에 비즈매칭을 돕고, 오픈에 대해 궁금해하는 신인작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러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올 12월 부터 tvN에서 <드라마 스테이지>란 타이틀로 당선작 20편 중 10편이 단막극으로 제작되어 방송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작품 집필에 몰두하는 모습에 작가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업계의 선, 후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J E&M 오픈 센터장 김지일

방금 지나간 사람 누군지 알아? <아르곤>의 이윤정 감독님이야!
저기서 음악 감상하고 계신 분은 <괜찮아, 사랑이야>의 김규태 감독님이고, 오전에는
<로맨스가 필요해>의 정현정 작가님이 놀러 오셨다고 하네. 아까 단막극 대본 리딩 하려
고 송지호 배우님 왔다 가셨대!



오픈 센터는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픈 센터가 핫 플레이스가 된 건 무엇보다도 작품을 위해 밤새우는 오픈 작가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일 것입니다.

상암동 핫플레이스 오픈 센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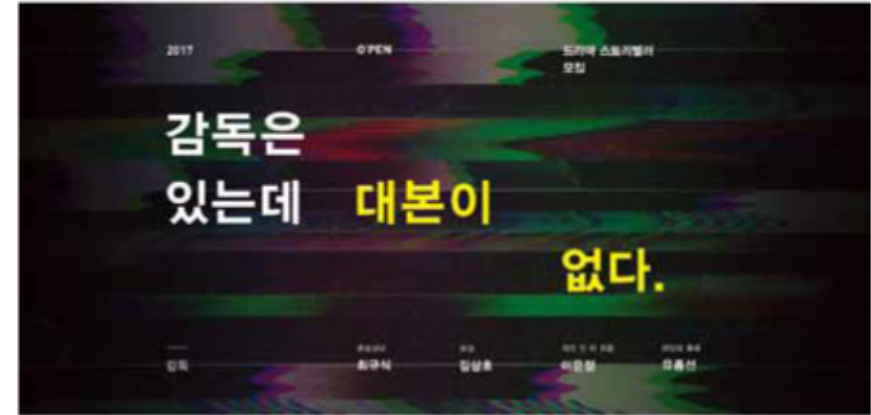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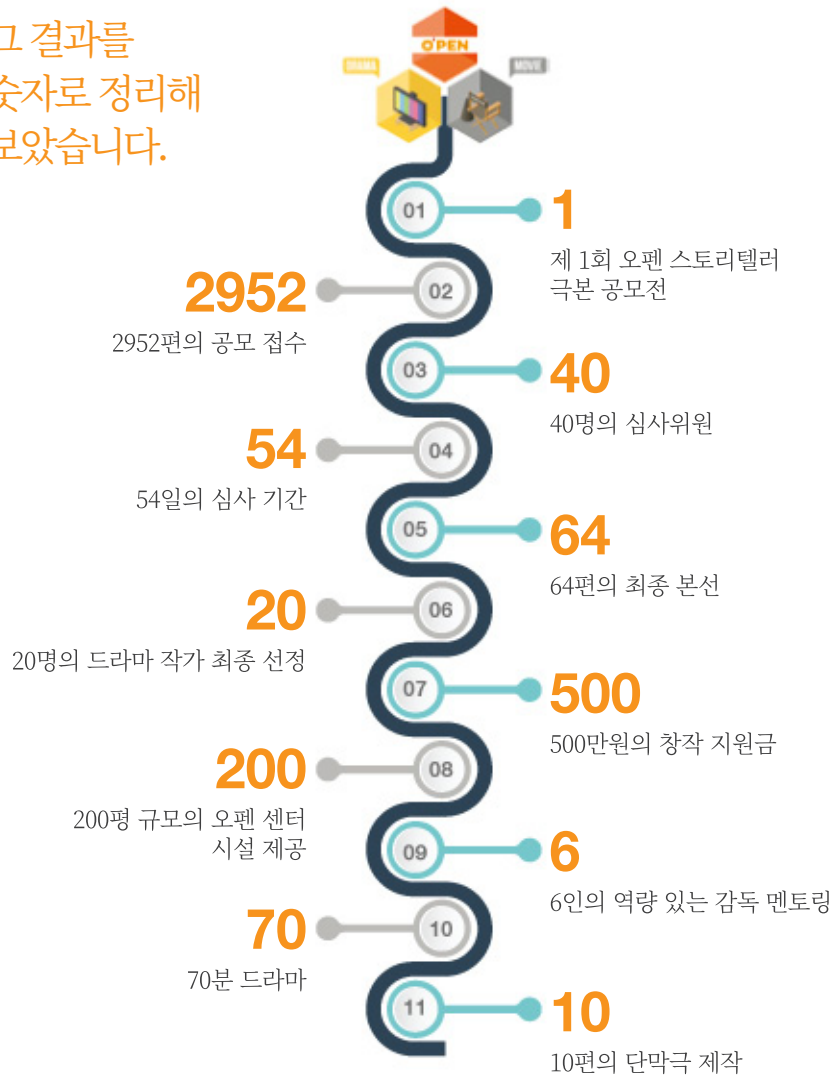
오픈 센터는 2017년 4월 18일 상암동 DDMC 17층에 200평의 규모로 오픈 하였으며, 20개의 개인 집필실과 11개의 다양한 회의실(4-20명 수용), 그리고 강의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라운지(100명 수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 센터는 늘 작가들의 열정과 꿈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감독은 있는데 대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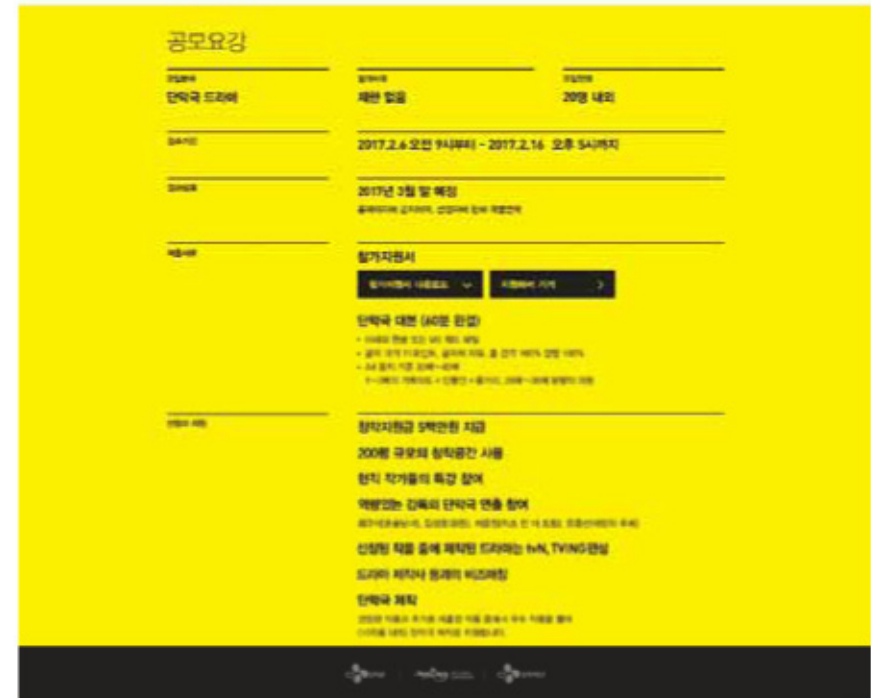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을 뽑는 만큼 많은 이가 지원하길 바라며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7 오픈 드라마 스토리텔러 공모전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작품 발굴을 위한 오픈(OPEN) 공모전(오픈 드라마 스토리텔러 공모전)은 2017년 2월 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10일간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들은 2017년 2월 16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일간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은 2017년 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10일간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은 2017년 2월 23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10일간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작가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미니시리즈 특강
현장 취재



협업하는 드라마 작업 특성상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은 작가들이 연출자와 치열하게 토론하는 '근육'이 길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좋은 감독과의 인연이 닿길 기대했습니다. 좋은 연출을 만나는 것은 작가에게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감독과의 대화>는 감독 한 명이 3~4명의 작가들과 그룹을 지어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본과 촬영, 드라마 작업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작가들의 멘토링 후기를 실었습니다. <감독과의 대화>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조금이나마 보여드리려 합니다.

2017 오픈 드라마 스토리텔러 지원사업 멘토 감독

<괜찮아 사랑이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김규태 감독

<화정> <환상의 커플>, 김상호 감독

<혼술남녀> <식사를 합시다2>, 최규식 감독

<출출한 여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윤성호 감독

<닥터 프로스트>, 성용일 감독

<빨간 선생님>, 유종선 감독



세탁소와 향수 / 박윤서

이번 멘토링 과정에서 나는 훌륭한 감독 이전에 한 품격 있는 인간을 만났습니다. 권위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멘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도식적거나 현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하듯 전해 이해가 쉽고 체화하는 데 효율적이었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선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법을 일깨워줬습니다.



김규태 감독

소풍 가는 날 / 이정민

존경하는 김규태 감독님의 멘티가 되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작업보다는 주제의 중요성, 이야기의 가치,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깊이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작가와 감독의 역할, 진정한 협동의 의미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골든 걸스 / 장아미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잊거나 소홀했던 것들, 인간과 삶에 대해 쓰는 작가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었던 몇 달의 멘토링을 깃발로 삼아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 김동경

감독님은 극의 기본인 코미디에 대한 지식을 편하게 나누어 주셨고, 제가 접해보지 못한 부분에 조언을 주신 것들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수정 방향을 의논할 때 왜 그것이 더 나은지, 왜 그것이 영상화했을 시 큰 무리인지 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이 힘겹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집필의도와 특정 씬에서 주인공의 감정이 왜 이러한지를 최대한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 했기에 작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식 감독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 박주연

좋은 언니들과 최규식 피디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무사의 깃창 / 차연수

작가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좀 더 나은 수정이 되기 위해 원작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덤벼! / 노민경

드라마를 쓰는 자세에 대해 김상호 감독님만큼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비유와 상징을 통해 얘기해 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사와 서정을 바다에 떠 있는 쪽배와 하늘의 달에 빛대 설명한 건 얘기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업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며... (feat.주인님)

문집 / 신하은

'경이로운 인연'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론과 실재를 넘나들며 명강의를 펼쳐주신 김상호 감독님, 다정한 팀원들과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경이로울 것 같습니다. 단풍이 지기 전, 영혼을 달래는 어묵탕 앞에서 다섯 명이 동창회를 가질 계획이므로.

우리 집은 맛나 된장 맛나 / 윤조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신, 김상호 감독님! 한 아이가 지구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한 아이'에게 세 번째 아빠가 있다면, 그건 분명 감독님이실 거예요.

직립보행의 역사 / 최성욱

단연 최고의 멘토셨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감독님과 5개월은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의 방대한 지식과 깊은 고찰에 기반을 둔 스무 번의 강의를 들으며 이야기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길.



김상호 감독

가해자...들 / 강유미

글만 써본 초짜이기에, 방송을 잘 아는 프로 감독님의 시각에서 내 대본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글쓰기라는 긴 여정에서 나와 비슷한 지점에 서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글동지들을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큰 수확이었습니다.

파이터 김봉숙 / 유영주

다른 것 말고 딱 하나, 단편 하나를 잘 완성시켜보자는 목표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 버전이 나오기까지 끝없는 인내심으로, 언제 만나도 넘치는 에너지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들로 이끌어주신 감독님 감사합니다!



성용일 감독

삼시도 그날 밤 / 이소영

글이 아닌 영상으로, 작가가 아닌 시청자의 시각으로, 관점을 달리해 대본을 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달라진 것은 대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성호 감독

박과장의 은밀한 사생활 / 최지훈

정말 운이 좋아 윤성호 감독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새로운 관점을 계속 제시하면서도, 내가 납득할 때까지 차분히 설명하시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내 질문에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소통왕인 면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감독님의 열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운수가 대기업에 입사할 운수라더니 여러모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운 사투리 소녀 / 하수정

윤성호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결함과 매력을 예리한 눈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에 큰 애정을 가져주셨고, 그 힘 덕분에 수정은 힘들어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최선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던 그 모든 시간이 앞으로 계속 드라마를 쓰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생의 을자 / 전영선

멘토링을 통해, 오프닝과 앞부분에서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기, 캐릭터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용기 내서 밀어붙여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치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윤성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편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종선 감독

낮 플레이드 / 강민수

초고는 1인극이고, 수정고는 2인극입니다.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1인극은 드물고, 2인극은 많이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실제 삶은 1인극에 더 가깝고, 2인극은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보편적 설득력이 있는 2인극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정을 하며 당구장 사장, 성욱의 비중을 더 키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고 결국은 감독님이 요구하는 성욱의 모습이 대본에 많이 투영되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습작만 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방송용 대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앞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오편에 감사드립니다.

오 마이 시스터 / 강원영

'쓰면 써지고 고치면 나아진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글을 쓰거나 초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에너지를 얻고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편 멘토링은 신인작가가 겪는 필연적인 우왕좌왕, 경력 피디님의 수용 가능한 방향 제시를 통해 힘들지만 즐거운 길 찾기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치면 나아진다는 의미를 한 번 더 확실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종선 감독님과 오편 스태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투는 나의 힘 / 최수현

내가 쓰고 있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한번의 강의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대본 만들기는 작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고독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시리즈를 써야 하는 작가를 위해 특강 형식의 미니시리즈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선배가 겪었던 어려움과 지혜를 나침반 삼아 긴 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미니시리즈 그것을 알려주마!>

많은 선배 작가, 감독들은 신인 시절 막막했던 심정을 떠올리며 기꺼이 달려와주었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May 5월

원동연 대표
영화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광해> 등
<천만의 비법 - 기획의 함>

최완규 작가
드라마 <허준> <상도> <울인> <빛과 그림자> <마이더스> 등
<미니시리즈 뼈대 만들기 - 플롯팅>

박재범 작가
드라마 <신의퀴즈> <굿닥터> <김과장> 등
<박탐정의 취재일기 - 직업물의 취재기법>

June 6월

정현정 작가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 <아이가 다섯> 등
<로코와 사회가 만났을 때>

김민영, 최윤선
CJ E&M 데이터인사이드팀
<트렌드 이슈, 요즘 사람들 뭐하면서 사나요?>

July 7월

이병훈 감독
드라마 <상도> <대장금> <동아> <옥중화> 등
<사극 쓰고자 할 때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장수 감독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로드 넘버원> 등
<지금 드라마계에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 드라마 기획에 대하여

August 8월

진수완 작가
드라마 <경성 스캔들> <해를 품은 달> <킬미 힐미> 등
<죽은 소제도 살려내는 심폐 소생법- 소재에 관한 이야기>

October 10월

김은희 작가
드라마 <쓰리데이즈> <시그널> <킹덤> 등
<스릴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윤선미 과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팀
<카피 이슈와 계약서 쓰는 법>

November 11월

김정수 작가
드라마 <한강수 타령> <만이> <민들레 가족> <엄마> 등
<작가로 살아갈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위해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세요?”

“환자분 겨드랑이 밑으로 가서 앉으세요!”

“한 손을 다른 손등 위로 각지 끼고 가슴 가운데를 힘껏 누르셔야 해요. 멈추시면 안 돼요!”

소방 방재청의 콜센터. 현장 취재의 긴장감과 박진감이 물려왔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응급 상황에 대한 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기본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이 되는 취재를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남부교도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증권거래소, 서울지방경찰청 등 현장을 방문해 취재하였습니다.



드라마 스테이지

20작품 중에서 10작품이 2017년 12월부터 tvN에서 <드라마 스테이지>란 이름으로 방송됩니다.

방송되는 작품은 우리의 현실을 담은 이야기들로 꾸며졌습니다. 단막으로밖에 할 수 없는 참신한 이야기를 10명의 연출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집은 맛나 된장 맛나

연출 | 김상호, 극본 | 윤조
한 아이가 지구에서 무사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작가의 기도! 처음에는 밥으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창대한, 현대판 심청전.

문집

연출 | 이윤정, 극본 | 신하은
서툰 손으로 쓴 인생 최초의 책, 문집. 그 안에는 잊고 살았던 순수한 내가 있고, 가슴 시린 첫사랑도 있다. 첫사랑 소년에게 문집을 건네 받은 소녀의 이야기.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연출 | 최규식, 극본 | 김동경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탬버린 학원에 등록한 계약직 미생! 밤에도 끝나지 않은 청춘의 임무! 장조 리듬 위를 걷는 그녀의 단조 인생.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



연출 | 윤성호, 극본 | 최지훈
낮에는 박대리, 밤에는 박작가!
로맨스 소설 작가 박대리의 이중 생활!

파이터 최강순

연출 | 성용일, 극본 | 유영주
여자라서 짓밟힌 이들의 통쾌한 응징극!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연출 | 황준혁, 극본 | 박주연
사형수들은 죽기 전에 자신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택할 수 있다. 그 음식을 만드는 한 여자의 이야기.

NOT 플레이드(NOT PLAYED)

연출 | 유종선, 극본 | 강민수
오늘도 짝어치기를 연습하는 68세의 할머니!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다.

직립 보행의 역사

연출 | 장정도, 극본 | 최성욱
늘 함께일 줄 알았던 내 남자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 열일곱, 설렘이 시작된 초능력 소녀의 첫사랑(?) 되찾기 프로젝트.

소풍 가는 날

연출 | 명현우, 극본 | 이정민
자살에 실패한 남자, 아이러니하게 유품 정리 업체 직원이 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훈훈한 감동 스토리!

B주임과 러브레터

연출 | 윤현기, 극본 | 신수림
연.알.못 그녀! 어느 날 익명의 고백 편지가 날아들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무뚝뚝 울드미스의 고난 극복기!



오픈은 더욱 정교해 질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오픈 작가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도록 감독과의 대화, 미니시리즈 특강, 현장 취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듬겠습니다.

더 많은 창작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량있는 PD, 연출자, 작가들이 더 깊게 교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작사, 방송사들과 함께 오픈 작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참신하고 실험적인 단막극을 만들겠습니다.

참신한 소재를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단막극으로 제작하여 드라마 계의 토양을 다지고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오픈은 늘 작가들 곁에 있습니다.

단막극 데뷔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픈 작가들의 재능이 더 많은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2017
오 펜
작 품 집

상권

일러두기

- 이 작품은 2017년 CJ E&M 스토리텔러 지원사업 <오펜>의 드라마 극본 공모전 당선작 20편의 원고입니다.
- 대사는 입맛을 살리기 위해 맞춤법에서 벗어난 표현도 최대한 살렸습니다.
- 본 작품 중 10편은 2017년 12월부터 tvN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방영됩니다. 아울러 대본은 방영된 드라마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가해자...들 / 강유미 작가 후기
-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 김동경 작가 후기
- 세탁소와 향수 / 박윤서 작가 후기
- 삼시도 그날 밤 / 이소영 작가 후기
- 야생의 을자 / 전영선 작가 후기
- 골든 걸스 / 장아미 작가 후기
- 무사의 갈창 / 차연수 작가 후기
- 문집 / 신하은 작가 후기
- 직립 보행의 역사 / 최성욱 작가 후기
-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 박주연 작가 후기

2017
오 펜
작품집

가해자... 들

강유미

작의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린 모두 비극의 목격자였다.

푸르스름한 배의 밑면이 서서히 가라앉더니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다.
찬란한 목숨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본 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피해자들을 돕겠다, 진실을 찾겠다 나섰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핑계 삼아 서서히 그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찾는 길은 지난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왜 세상 시끄럽게들 그러냐며 듣기 싫어했고, 그들이 원한 것
도 아닌 단원고 특례입학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본다고 소리도 쳤고, 보상금만 몇
억이라던데 그게 부족해서 이러는 거냐며 질투 섞인 비난도 했다.
분명 선의의 목격자였던 우리는 그렇게, 아픈 가슴을 헤집는 가해자가 되어갔다.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 왜 그들을 미워하게 됐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이러고 있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쁘다는 자기 합리화를 해온 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해자라고 몰아세우게 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궁금해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목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목격자와 피해자 사이 다툼의 그늘에 숨어버린 진짜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다.

등장인물

안달구(50대 중반, 남)

돈도, 백도, 뭐 하나 가진 건 없지만, 가오와 배짱을 중시하며, 리더십도 겸비한
대학기숙사 경비원 겸 길빵대리. 남는 시간 짬짬이 길빵대리를 하다가, 돈 때문
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뒤집어쓰게 된다.

권상용(30대 후반, 남)

달구를 형님으로 받들며 따르는, 소심한 대학기숙사 경비원.

아내와 평범한 행복만 꿈꾸며 살다가,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게 된다.
아내를 잃은 후, 아내 사고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안미라(30세, 여)

안달구의 철딱서니 없는 딸.

작은 키에 뚱뚱하고 인물이 없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이고 남자들에게 목을 맨다.
도박중독자인 오찬에게 빠져서, 안달구에게 인생 최고의 시련을 안겨준다.

김국화(30대, 여)

권상용의 처. 만삭의 몸으로 일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다.

강대준(30대, 남)

자신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달구에게 뒤집어써달라고 부탁한 인기 배우.

오찬(20대 후반, 남)

미라가 목을 매는 도박중독자.

흰 피부에 마르고 큰 키. 꽤 훌륭한 패션센스를 가져서 인기 많은 남자다.

김부장(40대 후반, 남)

달구와 상용 등의 경비직원들이 속한 용역업체의 관리자.

입 걸고 성격 더럽고, 경비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악덕 관리자.

그 외

최씨(50대, 여) - 잘 나가는 시댁 자랑과 남 참견질이 대화의 반절을 차지하는 대학기숙사 청소원.

경리아가씨(20대, 여) - 정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범한 20대 여성.

박씨(50대, 남) - 피해 보는 걸 싫어하고, 욕하는 데가 있는 대학기숙사 경비원.

경찰1(30대, 남) - 달구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조사한, 간간한 경찰.

경찰2(30대, 남) - 국화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

줄거리

대학기숙사 경비원 안달구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가오와 배짱이 있는 남자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가려 하지만, 철딱서니 없는 딸 미라는 이런 달구의 신념을 흔들리게 만든다.

잘생긴 남친의 도박빚을 갚아달라는 미라 때문에 심란하던 밤,

달구는 거액을 받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뒤집어써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인기 배우인 대준의 대리를 뛰다가 달구는 중간에 내렸는데, 대준이 그 이후에 사고를 내고 만 것.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음주 뺑소니가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대준은 돈으로 달구를 유혹했고, 죽겠다고 난리치던 미라를 떠올리며 달구는 이를 승낙한다.

대준의 음주 뺑소니 사고는 별 탈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정작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대준이 사고 내던 그 시각, 사실 달구는 위협운전 때문에 벌어진 사망사고를 목격한다. 붉은 스포츠카가 앞에 가던 흰색 마티즈를 위협하며 운전했고, 결국 흰색 마티즈가 계곡으로 굴러서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달구는 음주 뺑소니 사고의 알리바이 때문에 목격자로 나설 수 없었다.

목격자가 없는 마티즈 운전자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빗길 과속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하필 마티즈 운전자가 달구의 회사 동료인 상용의 부인이었다.

왜소하고 소심한 상용은 달구를 형님처럼 받들었고, 달구도 상용을 친동생처럼 챙겼다. 달구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용 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

상용은 자신의 부인이 만삭의 몸으로 과속 운전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사고 나기 전 통화에서도 이상한 차가 바짝 붙어서 위협한다고 불안해했던 국화니까.

상용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전단지도 붙이며 적극적으로 목격자를 찾아 나서자, 달구는 불안해진다. 혹시라도 자신이 목격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찌나 싫어서다. 처음, 상용의 주변인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서 달구를 불안하게 했지만, 이내 모든 관심은 사그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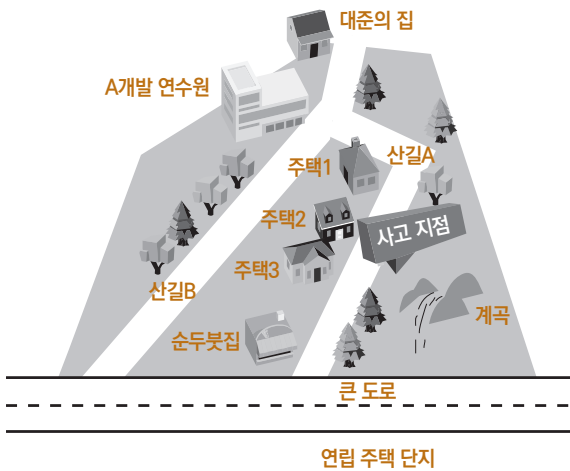
상용이 계속 목격자를 찾자, 주변에 피해를 준다며 짜증만 높아져갔다.

달구 입장에선 상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짜증이 높아지는 게 반가웠다. 하루 빨리 목격자 찾는 걸 관두기를 바란 달구는, 상용 부인의 생명보험금에 대해 은근히 소문 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상용이 피해 입은 사실은 까맣게 잊고, 상용이 받을 보험금에만 관심을 가졌다. 결국, 목격자를 찾으려는 상용의 노력도 범인을 찾아내 합의금을 받으려는 욕심이란 식으로 왜곡되어갔다.

상용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 입었고, 달구는 상용이 그런 상처를 받아서라도 목격자 찾는 일을 포기하길 바랐다.

그러나 상용은 돈을 포기할망정 목격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받을 3억을 목격자 찾는 사례금으로 걸었다. 달구의 바람과 정반대로 세간의 관심은 단숨에 달아올랐고, 드디어 목격자에 관한 결정적 제보가 들어오면서 달구의 목줄을 죄어오기 시작한다.

참고 - 대략의 지도



S#1. (구기동 정도의) 산길 A(늦은 밤)

장맛비가 기세좋게 퍼붓는 산 속 일방도로. 가로등은 드문드문 켜져 있지만, 내리는 비 때문에 사방이 어둡다.

일방도로 한쪽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다른 쪽은 좁은 갓길에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 중간에 펜스가 쳐져 있다. 나사가 빠져서 부실해 보이는 펜스 너머로 보면, 며칠째 내린 장맛비에 계곡물이 잔뜩 불어서 무섭게 넘실거린다.

하늘에서 보면, 지나가는 차량 한 대 없는 가운데, 계곡으로 난 길 쪽으로, 물 위에 뜬 붉은 점처럼 걸어 내려오는 붉은 우산. 붉은 우산 뒤쪽으로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 보이고, 불안하게 달려 내려오는 흰색 마티즈, 그 뒤로 얼핏 보이는 붉은 색 스포츠카.

빗길에 미끄러지며 이리저리 비틀대는 마티즈. 급기야 마티즈가 펜스를 들이박고, 부실했던 펜스가 그 충격에 부서진다.

흰색 마티즈, 펜스를 뚫고 계곡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적막한 도로 위, 퍼붓는 장맛비 속에 툭, 떨어지는 붉은 우산.

타이틀, 가해자... 들, 뜬다.

S#2. 대학 전경 + 기숙사 외경(오후)

자막, 하루 전, 뜬다.

내리는 장맛비에 여기저기 걸린 여름방학 특강 플래카드가 축 늘어져 있고,

열핏 보면 고층 오피스텔 같은 기숙사 전경 보이고,
 창밖에서 건물 안 비추면, 깔끔한 방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 폭탄 터진 듯 널부러진 방안 침대에 대자로 누워 퍼져 자는 학생 등 다양한 기숙사생들의 모습 보인다.
 기숙사 입구를 향해 뛰어가는 S#1의 붉은 우산 보이는데, 누군진 보이지 않는다.

S#3. 기숙사 / 로비(오후)

로비에는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2~3개 정도 보이고,
 기숙사생들이 지니고 있는 관생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문 열리는 것 보인다.
 게이트 옆에 경비원 부스 있고,
 그 옆에 5~6명의 경비원들이 김부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 보인다.
 검고 울퉁불퉁 각진 얼굴, 노동으로 단련된 탄탄한 몸집에 경비복을 입은 달구,
 화장실 쪽에서 걸어 나와 김부장 뒤에서 쓰으 고개 들이미는데,
 김부장 앞에 기죽어 서 있던 경비원들, 천군만마 얻은 듯 표정이 밝아진다.

달구 뭐하쇼?
김부장 (획 돌아보더니 이마에 내천자 그리며)
 똥싸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화장실 갔다 오는데 5분 넘으면, 그담부턴 다 휴식시간에서 까.
 당신, 이거에 싸인이나 해.

김부장, 달구의 품에 파일 하나 획, 던지는데,

달구가 받아서 보면, 걸 표지에 <경비원 직무교육 일지>라고 써 있다.

달구 (가웃) 교육? 공부한 기억이 없는데, 뭘 교육?
김부장 야 이 씨, 까라면 깔 것이지, 뭘 말이 그렇게 많아?
달구 (귀 후비적대며 느물) 싸나이 안달구가 까야 할 건,
 (아랫도리 보며) 어릴 적 못 잡은 고래밖에 없는데?

경비원들, 일제히 피식거리다가, 김부장이 무섭게 노려보자 이내 겁먹는다.
 작고 왜소한 몸집에 순하게 생긴 상용,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상용 형님, 교육했는지 안 했는지, 경찰서에서 나와서 막 조사한대요.
달구 어이구 무서워라, 그니까 우리가 서명 안 하면 개부장이 개피 보네?
김부장 (잔인하게 피식거리며) 찔러봐야 정신을 차리지, 니가.
달구 김부장이 협박해서 할 수 없이 싸인했소, 라고 경찰에 확 끈지르면,
 찔리는 게 나일까, 그쪽일까?
김부장 (확 노려보며) 그렇게 억울하면 쉬는 시간에 똥 싸지 말고 교육받든가.
 (이죽대며) 네 시간짜리 교육, 박세게 짜줄까?
달구 쉬는 시간에도 눈치껏 쉬라며. 안 찾아간 택배도 갖다주고, 불법 주차한 차도 밀어놓고, 재활용쓰레기도 정리하고. 김부장 말대로 쉬느라 허벌나게 바쁘는데, 4시간을 어떻게 빼?
 쉬는 시간 5시간 반! 딱 계약서 쓴대로 쉬게만 해준다면야, 교육을 받든, 싸인을 하든, 생각 한번 해보지, 어때들?

달구, 주변 경비원들을 둘러보면, 다들 격하게 끄덕끄덕.
 김부장, 주위 둘러보면, 경비들은 달구에게 동조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눈초리고,

빡친 김부장, 만만한 상용에게 <직무교육 일지>를 패대기치듯 던진다.

김부장 (상용 보며) 이번 주말까지 책임지고 받아놔.
니네 조 6명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용 가슴께 꺾꺾 누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먼저 짜른다, 내가.

상용, 잔뜩 겁먹은 표정 되고, 달구, 할 테면 해보라는 얼굴이다.

S#4. 버스 안(이른 아침)

장맛비 가신, 7시 가량의 이른 출근 버스. 등성등성 자리 있다.
밤샘 근무로 피곤한 얼굴의 달구와 상용이 나란히 앉아 있다.

상용 (걱정스럽게) 개부장이 진짜 짜르면 어쩔려구...
달구 상용아. 가진 거라곤 달랑 두쪽이 다인 이 안달구를,
경비들도 따르고, 개부장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뭘 거 같냐?
상용 (작은 목소리) 목소리가... 커서...?
달구 배짱과 가오! (진지하게) 특히 말이지, 이 가오가 중요하다. 상용아.
상용 (두 눈 빛내며 완전 진지하게 끄덕) 가오...
달구 사는데, 돈이 다가 아니거든.
억만금을 주면서 꼬드겨도 말이다, (가슴 탕탕 치며)
이 뜨거운 심장과 붉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한다,
이게 가오지, 가오. 상용이, 넌 너무... (하면서 상용일 보는데)
상용 (어느새 입을 헤~벌린 채 자고 있다)
달구 가오 빠지는 텐 니가 선수지, 선수. (하면서 크게 하품)

시간 경과.

버스 안은 어느 새 출근 시민들로 북적이는데,
달구와 상용, 서로 어깨 기댄 채 평화롭게 퍼질러 자고 있다.

S#5. 동네 버스 정류장(아침)

산길A 아래 어디쯤 버스 정류장.
피곤한 듯 어깨를 툭툭 치며 달구와 상용이 함께 내린다.

S#6.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 안 + 상용의 연립주택 앞(아침)

낡은 저층 연립주택 단지의 가파른 골목길을 달구와 상용, 오르고 있다.

달구 마나님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다메.
상용 (코가 축 빠져서) 근데도... 계속 일 나간다고 고집 부려서,
저러다 애 떨어지는 건 아닌지... 제가 속 터져 죽어요.
달구 알아서 조심하겠지. (상용 어깨 탁탁 치며) 걱정 마라.
여자들은 지 애 지키는 텐 도사들이니까.

어느새 상용의 연립주택 앞에 다 왔다. 상용, 달구에게 인사 꾸벅하고 들어가
려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 우산 없는 달구, 일단 상용 따라 연립주택 입
구에 섰는데,

상용 형님, 잠시만요.

상용, 가방 뒤적이더니, S#1의 붉은 우산 꺼내 달구에게 건넨다.
달구, 고맙다고 하고 우산 짝 펼치는데, 우산 한쪽에 청테이프 붙은 것 보인다.

S#7. 달구의 집 / 거실(아침)

달구, 우산 탈탈 털면서 현관에 들어서더니, 우산 던져놓고 거실에 올라선다.
거실 겸 부엌과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다른 장식이나 가구 없어 쓸
령하다.

달구 (부엌으로 들어서며) 미라, 이녀은 또 안 들어왔나...

밥통 열어보는데, 텅텅 빈 밥솥. 냉장고 열어봐도 별반 먹을 것이 없다.
달구, 인상 팍 찡그리는데, 방문 열리며 미라 뛰쳐나온다.
작은 키에 뚱뚱하고 별 인물 없는 미라. 온갖 레이스와 프릴이 잔뜩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영 안 어울린다.
달구, “넌 집에서 뭐한다고!”라고 소리치다가, 울었는지 퉁퉁 부은 미라의 눈
을 보고 말을 멈춘다.

달구 (걱정되지만 되레 통명스럽게) 눈탱이가 밤탱이랑 친구 먹자 하겠네.

미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버지, 3천만 원만!
(완전 맛이 가서) 우리 찬이 오빠가 끌려갔어...

달구 안달구 사주에 아들이 없는데, 오빠는 얼어죽을.

미라 아버지.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 우리 오빠... 죽인대.

달구 또 도박했냐? 그 자식은 손모가지 잘라도 그 버릇 못 고친다.
이 참에 헤어져. 아주 잘 됐네, 잘 됐어.

미라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오빠만 살려줘. 그럼 헤어질게. 아버지 말대로 다시는 안 만날게. 그니까, 그니까, (둘러보며) 이 집 팔면...

달구 (빡쳐서) 이 집 팔아서 3천 준다 치자!
하우스 가서 그날로 3천 날리곤, 또 죽는다고 할 놈이야, 그놈이.
그런 시러베 같은 놈을 뭐한다고 돈까지 대주면서 만나, 만나길?!
미라 (발딱 일어나서 눈 똑바로 뜨면서) 안 주면?! 돈 안 주면, 그렇게 잘
난 사람이 나를 만나나준대?

(독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만나라, 마라야?!
달구 호강에 겨워 요강 뒤엎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 썩을 년.
미라 학교를 제대로 보내줬어? 돈을 팡팡 쓰게 해줬어?
생긴 것도 딱 아버지 닮아서 불어터진 쭈세미 같은데!
난 아버지 뺨에 망했어!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왜?!

달구 (부러 차갑게) 난 낳으라고 한 적 없다. 니 에미가 고집부린 거지.
미라 이참에 아예 없는 자식 치면 되겠네.
오빠 죽으면, 나도 확 따라 죽을 거니까!
달구 (부러 차갑게) 난 낳으라고 한 적 없다. 니 에미가 고집부린 거지.
미라 이참에 아예 없는 자식 치면 되겠네.
오빠 죽으면, 나도 확 따라 죽을 거니까!

달구,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하며 미라를 펄 듯이 손을 확! 치켜드는데,
미라, 머리 위로 양팔 올리면서 방어 자세 취한다.
미라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자살 흔적.
달구, 절로 힘빠져 팔 내리는데, 자신의 방으로 퀘! 문닫고 들어가버리는 미라.

시간 경과. 밤
거실에 외로 누워서 웅크린 채 자다가 “미라야!” 외치며 화들짝 놀라 깨는 달구.
얼마나 잤는지 거실엔 어둠이 깔려 있고, 찜통 같은 열기 탓에 달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달구, 벌떡 일어나 거실 불 켜면, 시위하듯 한구석에 놓인 미라의 짐가방 보인
다.
죽으러 나가진 않았구나 싶어 안심하는 달구.

S#8. 달구의 집 / 화장실(밤)

달구, 얼굴 대강 씻고 머리에 물 축인 후, 거실로 나간다.

S#9. 달구의 집 / 거실(밤)

달구가 거실로 나오니, 불어터진 얼굴로 어느새 짐가방 옆에 앉아 있는 미라.

미라 (풀죽어) 50만 원만 쥐봐.... 오빠 살았는지.. 얼굴은 보게 해준대...

달구, 한숨 쉬더니 방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나온다.
미라에게 50만 원 던져주면, 미라, 이내 눈 반짝이며 짹짹 돈을 받는다.

달구 이번 달 월세니까, 꼭 채워놔.

미라, 고개 끄덕이고, 달구, 현관 턱에 앉아서 신발 신는다.

달구 (미라에게 등 돌린 채로) 그놈이... 왜 그렇게 좋은데?

미라 잘생겼어.

달구 (한심해서 한숨 질로) 얼굴 뜯어먹다가 굶어죽는다, 이년아.

미라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달구 (작게 혼잣말) 그거야, 못난 년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미라 오빠랑 같이 오빠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그러면...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 같아.

이빠진 것 같고, 부잣집 딸 같고, 완전 잘나가는 여자 같아.

오빠랑 있으면,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참 좋아...

달구 (미라 손목에 선명한 자살 흔적 떠올리며) 넌... 니가 그렇게 싫으냐?

미라 아버지... 아버지가 좋아?

달구 (표정 굳어지며 일어나) 새 사람 되는 값 치곤 싸서 좋네, 3천. 엠병.

달구, 현관에 놓인 붉은 우산을 들고 나간다.

S#10. 유흥가(밤)

불야성으로 빛나는 유흥가. 장맛비는 여전히 내리고.

우산 쓴 달구, 술집 주차장에 서 있는 고급 차들을 기웃기웃 대고 있다.

달구, 비상등 켜 있는 고급 차 발견한다.

뒷자석에 대준이 앉아 있는 것 보고는 재빨리 차 뒷문 열고

달구 (운전석에 앉으며) 어디까지 가십니까?

대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눈 확 뜨며) 뭐지? 길빵인가?

달구 요즘엔 길빵도 신원 확실합니다. (명함 건네고) 싸게 모시겠습니다.

S#11. (구기등 정도의) 산길 B(산길A와 다른 길) + 대준의 차 안(밤)

구불구불 난 2차선 도로. 비내리는 도로 위를 힘차게 오르는 대준의 차.
차 안 보면,

달구 (뒤에 앉은 대준 흠쳐보다가) 손님, 탈렌트 강대준 씨 맞죠?

대준 (습관적 대답) 아, 네 네.

달구 (단골이라도 만들 요량으로) 제가 오늘 운이 좋~네요.

이렇게 유명한 분도 만나고, 집에 가기도 쉽고.

저희 집이 바로 조기 조, 아래쪽 연립 단집니다.

저 위쪽 사시는 손님 내려드리고 걸어가다 보면 1시간 안쪽이라서
돈도 굳고.

대준이 통 대답이 없어서 달구가 힐끔 백미러로 뒤를 보는데, 대준은 통화 중
이다.

대준 (목소리 최대한 낮추고) 나도 자기가 너~무 보고 싶지.

근데 애엄마가 축이 좋아... 온다구? 이리로? 나야 좋지만...

대준, 자신을 힐끔거리는 달구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달구, 화들짝 놀라 시선을 확 돌리지만, 이미 늦었다. 모른 척 운전만 하려는데,

대준 (차갑게) 차 좀 세워보시지...

달구 (바짝 긴장해서 차를 세운다)

S#12. 산길 A(밤)

계곡으로 난 길에 바짝 붙은 채 물 위에 뜬 붉은 점처럼 걸어 내려오는 붉은 우
산. 우산 아래를 보면 달구다.

달구 (손에 든 5만 원 보면서) 돈이면 다냐! 애먼 데다 사람 내려놓고/(흡)
(배 부여안고 주변 두리번거리며) 하필 이런 데서. (괴로운 듯) 끄...

달구, 펜스 살짝 넘어 계곡 가까운 숲길로 들어간다.

한참 만에 나와서 다리 저리다며 연신 코에다 침바르는 달구.

우산 바짝 당겨 쓰고 다시 걸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뒤쪽에서 비추는 불빛.

달구, 뒤로 획 돌아보는데,

불안하게 달려 내려오는 흰색 마티즈, 그 뒤로 붉은 색 스포츠카가 바짝 붙어
위험하듯 달리고 있다.

흰색 마티즈, 붉은 스포츠카의 위협 때문에 속도를 올리는가 싶다가,

영 안 되겠는지 갓길로 바짝 붙어 길을 내주려는데,

붉은 스포츠카, 앞으로 치고 나가려다 흰색 마티즈의 뒤쪽을 획 들이받는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이리저리 비틀대는 마티즈. 급기야 마티즈가 펜스를 들이
박고, 부실했던 펜스가 그 충격에 부서진다.

흰색 마티즈, 펜스를 뚫고 계곡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길가에 바짝 붙어 있던 달구, 크게 놀라는데,

붉은 스포츠카, 잠시 머뭇대다 달구를 지나쳐서 쏜살같이 아래쪽으로 사라져
간다.

달구, 재빨리 길 아래쪽을 보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당황한 달구, 서둘러 핸드폰 꺼내는데, 시간 보면 11시 반.

달구 신고전화가.. 112던가? 113...? 아, 119, 119. (털털 떨면서 11까지 누르는 데 불길하게 울리는 핸드폰. 모르는 전화번호다)

달구,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우산을 놓치는데,
적막한 도로 위, 퍼붓는 장맛비 속에 툭, 떨어지는 붉은 우산.

S#13. 내연녀의 차 안(밤)

섹시하게 생긴 내연녀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뒷자석에 달구와 대준이 앉아 있다.

달구 (당황) 사고넌 걸 뒤집어쓰라니!!!

대준 (차분하게) 큰 사고 아니라니까.

달구 (고개 절레) 난, 못합니다. 못해.

대준 저쪽, A개발 연수원 알죠?

거기에 차 좀 세우다가 뒤범퍼로 사람 하나 슬쩍 쳤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라... 근데 하필 내가 음주라...

달구 하여튼 난 못해요. 어떤 미친 놈이 벌을 대신 답니까?

대준 어려울 게 1도 없어. 합의만 잘하면 약식기소에 벌금만 내면 되구.

아저씨 길빵이라 출하차 기록도 없고, 말 맞출 만하잖아?

합의금에 벌금, 거기에 기사님 뭇은... 천.

달구 (불쾌) 어디서 세상을 배웠길래, 돈부터 내미시나?

법을 어겼음, 돈 있는 놈이나 아닌 놈이나 똑같이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법이오!

대준 (한숨) 그럼 난, 돈부터 챙기시는 기사님 따로 알아봐야겠네.

내리라는 듯한 대준의 눈길을 눈치챈 달구, 문 열고 내린다.

달구, 뒷문 닫으려는데, 눈앞에 스쳐가는 미라 얼굴.

미라(E) 아버지, 3천만 원만!

오빠 죽으면 나도 확 따라 죽을 거니까!

순간 머뭇대며 문을 못 닫는 달구.

대준, 문 닫으라는 눈길 보내는데,

달구 (머뭇대며) 내가 그 차에 타는 거, 술집 주차장 CCTV에 다 찍혔으니
까, 다른 길빵은 내세워봤잘 텐데...

대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얼마?

달구 (눈 딱 감고) 3천!

S#14. 산길A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밤)

달구가 내려오던 S#1의 산길에서 아래쪽 큰 도로로 이어지는 길.

큰 도로로 내려오기 전, 옆쪽을 보면 순두부집 등 제법 큰 규모의 음식점들 있다.

한참을 내려왔는지, 우산 아래 옷이 이미 흠뻑 젖은 달구.

달구 그래, 불쌍하다, 불쌍해. 음주로 걸리면 탈렌트 짓도 못할 테니.

술 땀에 발목 잡히면, 그것도 안됐지...

막말로다가, 사람이 쫓가? 술이 죄지. (피식, 웃다가 사색)
아!!! 그 차!! (서둘러 119 누르려다 멈칫)

인서트. S#13에서

대준 11시 30분.
아저씨 A개발 연수원 주차장 화장실에 들러 일을 보고 빠져나오다가, 11시 반경에 사고를 낸 겁니다. 절대 잊지 마요.

현재.

달구 (핸드폰 내리며) 목격자라고 나서든... 돈 3천이 날아가네. 아.. 씨...
머리통 뱅뱅 굼던 달구,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보이는 빨간 공중전화 박스.
우산을 머리에 바짝 대서 얼굴을 확실하게 가리고 공중전화 쪽으로 뛰어간다.

S#15. 공중전화 박스(늦은 밤)

붉은 공중 전화박스 안에 가득 찬 붉은 우산, 자세히 보니, 한쪽이 살짝 찢어졌는지 청테이프 붙어 있다. 우산 아래 서 있는 사람 보면, 달구다.

달구 (약간 코 막고 자체 변조한 목소리) 흰색 마티즈 한 대가 계곡으로 구르는 걸 봤습니다.

상담원(F) 네. 사고 장소가 어딥니까?

달구 아, XX길 중간쯤인데요, 빨리 좀 가봐요!

상담원(F) 네.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달구 (당황해서 껍!) 일단 가보라니까!! (전화 끊는다)

S#16. 달구의 집 / 거실(밤)

집으로 들어오면, 불 꺼져 있다.

달구, 불 켜고 이 방 저 방 열어보지만, 미라는 없다.

거실 한구석에 놓인 짐가방 그대로 있는 것 보고선 일단 안심하는 달구.

시간 경과.

불 켜진 거실 가운데서 꾸벅 졸던 달구, 옆으로 쿵, 쓰러져 놀라 화들짝 일어난다.

시계 보면 어느새 3시.

달구, 핸드폰으로 미라에게 전화하지만, 미라의 핸드폰 꺼져 있다.

달구 잠은 한데서 자도 전화는 꼭꼭 받던 년인데... (걱정스런 표정)

S#17. 기숙사 / 로비(오전)

경비 부스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신 미라에게 연락해보는 달구.

달구, S#1의 흰색 마티즈가 펜스를 뚫고 계곡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장면 떠올리고,

달구 애가 사고라도 났나...? 경찰에 신고 먼저 (순간, 울리는 핸드폰)

(짹짹 전화 받으며) 안달굽니다. (파랗게 질려서) 어디요?

S#18. 경찰서 복도(오후)

달구, 지나가는 경찰 붙잡고

달구 교통사고 조사계... 뺑소니 전담반이 어딥니까?

S#19. 경찰서 안(오후)

간간해 되는 경찰1 앞에 앉아서 조사에 응하고 있는 달구.

경찰1 ... 11시 반이면 꽤 늦은 시간인데, A개발 연수원엔 왜 들렀어요?

달구 (잔뜩 긴장한 채)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좀 갔습니다.

경찰1 (알겠다는 듯 고개 끄덕)

달구 (한시름 놓은 표정)

경찰1 강대준 씨 말에 따르면 술집에서 출발한 시각이 10시 40분쯤이네요.

달구 (가웃)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정도가 맞는 것두 같습니다.

경찰1 그 술집에서 A개발 연수원까지 아무리 막혀도 30분이면 가는데,

(달구 빤히 쳐다보며) 11시 반까지 뭐하신 겁니까?

달구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말문이 확 막히는데) !

경찰1 안달구 씨?

달구 아.. 그게... (마른 침만 꿀떡 꿀떡)

경찰1 (의심스런 눈초리) 안달구 씨가 운전한 건 맞습니까?

달구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경찰1 (다그치듯) 운전, 했어요? 안 했어요?

달구 제가 대리 댄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몰라서 뺑뺑 돌았습니다.
손님은 주무시길래 여쭙 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경과

경찰1 그럼 일단 집에 가 계시고요. 다시 연락 갈 겁니다.

달구 (걱정스레) 혹시 다른 사고 접수는 없었습니까? 안미라라고...

S#20. 버스 안(오후)

제일 뒷좌석에 앉은 달구, 조용히 통화중이다.

안달구 합의까지 다 끝냈소.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니까...

돈은... 바로 주시는 걸로...

전화 끊자마자, 다시 미라에게 연락하는 달구. 계속 전화 받지 않는 미라.

S#21. 달구의 집 / 현관 + 거실(오후)

등에 어울리지 않는 배낭 멘 달구, 문 열고 막 들어서려는데,
울긁불긁 오색 쉬폰 원피스를 입은 채 짐들고 나가려는 미라와 마주친다.

달구 (버럭) 뭐한다고 전화는 안 받아?!!
 꼴은 그게 뭐야, 성황당이야?
미라 밧데리 나갔어. 글구, 이런 게 트렌드야!
 아버지야말로 왜 이 시간에 들어와? 또 짤렸어?
달구 니 애비 사고냈다. 니 좋아하는 탈렌트 강대준 태우고 가다가.
미라 (놀라서 짐 떨어뜨리고 달구의 앞뒤 보면서) 어디 안 다쳤어?
달구 (뿌듯해서) 그래도 지 애비라고 놀라긴.
미라 (짐 들면서) 안 다쳤네, 뭐. (문 열고 나가려는데)
달구 어디 가는데?
미라 아버지 돈 나올 구멍 없잖아. 내 장기라도 팔아야지.
달구 싹통머리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등에 멘 가방 열어 보이며)
 이거나 보고 나가든가 말든가.
미라 (홀깃 보다가, 가방 안 가득한 5만 원권 보고는) 진통 맞아?!!!!

S#22. 달구의 집 / 방(아침)

(E) 툃탁, 툃탁, 서툰 칼질 소리.

대자로 뻗어 늘어지게 자고 있던 달구, 칼질 소리에 번쩍 눈을 뜬다.

S#23. 달구의 집 / 부엌(아침)

달구, 문 열고 나와 부엌으로 한걸음에 달려오는데,
 식탁 위 이것저것 제법 반찬이 놓여 있다.

리본 달린 앞치마 멘 미라, 바글바글 끓는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린다.
 달구, 손가락 들어서 서둘러 된장찌개 맛을 보는데,

미라 (기대에 찬 눈길) 어때, 아버지?
달구 통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다. (그래도 연신 손가락질하며 앉는다)
미라 (한숨) 엄마는 뭘 넣길래 그런 맛이 났나 몰라.
달구 니 외가 된장이 원체 맛났거든.
 금으로 장을 쏜다 한들, 마트 된장으로 그 맛을 못내지.
미라 (그새 신나서) 된장 푸러 강릉 가야지~
달구 왜? 된장 퍼 와서 오찬인가 족제빈가 그놈 먹이려고?
미라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잖아. 그 정도도 안 해줘? (웃음)
달구 누구 맘대로 벌써 사위야?!
 글고 그냥은 못 빌려줘. 집에 와서 차용증 쓰라고 해.
미라 에이~ 정 없다.
달구 그참에 정식으로 인사도 하고! (다시 밥 푹 떠서 먹는다)

S#24. 기숙사 / 로비(오후)

달구, 밝은 얼굴로 로비에 서서, 청소부 복장을 한 최씨와 잡담 중인데, 저 멀리서 김부장, 씩씩거리며 걸어온다.

최씨 (김부장 보며) 저 인사는 왜 발정난 개모냥 싸다닌대? 날도 더운디.
달구 달리 개부장이 아니지.
김부장 (다가와 씩씩대며) 권상용이 어딴어? 허, 무단결근?!!
 (달구 보면서) 당신은 한동네 산다고 이판 놈을 소개해?

달구 언젠 사람 참 진국이라더니. 김부장은 개구리띠야?
어째 그렇게 사람 맘이 훌쩍훌쩍 뒤집혀, 뒤집히길?!

최씨 (픽, 하고 웃는데)

달구 근데 상용이가 어디 아픈가? (휴대폰 올리고, 전화 받는다)
경찰서요?! (순식간에 긴장해서) 왜요? 조사도 다 끝났는데...

S#25. 경찰서 안(오후)

힐레벌떡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 달구,
휙 둘러보고는, 경찰2 앞에 앉은 상용에게 달려간다. 상용, 벌떡 일어나더니,

상용 (울먹거리며) 우리 국화, 우리 국화가...
달구 (통 모를 소리다) 제수씨가 왜?!!!

S#26. 회상. 상용의 연립주택 앞 주차장(오후)

상용, 걱정스런 눈으로 국화를 보고 있는데, 작고 마른 국화, 배만 뽳록하다.

국화 (웃으며) 딱 오늘까지만 일해주면 돼요.
언니 부탁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상용 (한숨 쉬며, 국화 배를 어루만지고) 너한테 엄마를 맡긴다, 아들.
국화 (미소) 난 딸이 좋다니까, 참.

국화, 옆에 세워둔 흰색 마티즈에 올라탄다.

(E) 뽳뽳 뽳뽳, 앰블런스와 경찰차 소리 불길하게 울리고,

S#27. 회상. 산길 A 옆 계곡(밤)

앰블런스와 경찰차 와 있는데,
계곡에 완전히 뒤집힌 채 잔뜩 구겨진 흰색 마티즈.

S#28. 현재. 경찰서 안(오후)

그새 눈물이 흘러넘친 상용을 보며, 간신히 입을 떼는 달구.

달구 ... 제수썬.... 괜찮은 거지... 응?
상용 여자들은 애 지키는 선수라면서요... 난 그런 선수 필요 없어요...
난 국화만 있으면 되는데...

끝내 눈물을 똑똑 흘리는 상용. 달구도 마음이 아파 고개 들어 애써 눈물을 삼킨다.

상용, 눈물 닦더니, 달구를 데리고 경찰2의 책상 앞으로 가서,

상용 그래도, 목격자가 있어요.
(경찰2 보며) 아까, 그거, 그거 좀 다시 보여주세요.

경찰2, 자신의 노트북 달구 쪽으로 돌려서 CCTV 영상 켜다.
CCTV 영상 보면,

공중전화 근처로 다가서는 붉은 우산 쓴 사람 보인다.

우산 쓴 채 공중전화 안으로 들어가는 붉은 우산.

인서트. S#15에서,

붉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 가득 찬 붉은 우산, 자세히 보니, 한쪽이 살짝 찢어
졌는지 청테이프 붙어 있다. 우산 아래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달구 (아무 말 못하고 노트북만 보는데)

상용 (영상 속 우산 가리키며) 이 우산! 이거, 이거, 청테이프,
제가 형님께 드린 우산인데... (간절히) 형님 맞죠?

달구 (고개만 흔드는데) ... 이게, 이게...

경찰2 본인 맞아요? 뭐 본 거 있어요?

달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자신을 조사한 경찰1이 지나가는 것 본다.

경찰1 (달구 알아보며) 또 오셨네. (달구 쪽으로 오며) 이번엔 무슨 일로?

달구 (맘 굳게 먹고) 나, 목격자 아냐! (경찰2 보며) 난 아닙니다.

경찰1 (경찰2 보며) 목격자? 뭔데? (관심 많은 초롱초롱한 눈빛) 뭘 사고야?

상용 이 우산은...?

달구 그거, 손님 잡다가 잃어버렸어!

상용 (황망하게) 그니까... 형님이 잃어버린 우산을 주운 사람이, 하필 우
리 국화 사고를 봤다구요?

그 말을 믿으라구요? 왜 그래요, 형님?!

달구 난 모르데두!!

(서둘러) 나아말로 그 시간에 사고를 내서,

(경찰1 보며) 이분 앞에서 조사받느라 내가 그날 똥줄이 탔다.

S#29. 산길 A(오후)

상용, 냇 나간 듯 아래 계곡을 보며 서 있는데,

달구, 상용이 뛰어내리려는 걸 막기라도 하듯 꼭 붙잡고 서 있다.

경찰2, 수첩을 뒤적이며,

경찰2 일단은 빗길에 과속해서 구른 걸로 보입니다.

상용 (고개 저으며) 임신한 몸으로 빗길에 과속할 여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릅니다. 사고 나기 2~3분 전에 저랑 통화했습니다.

이상한 차가 바짝 붙어서 위협한다고. 이러다 사고 나겠다고요.

경찰2 (뭘 적으려는 포즈로) 차? 어떤 차요?

상용 모릅니다... 그건...

경찰2 비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남지 않아서 정확한 정황을 모릅니다.

달구 (답답해서) 아,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증거를 찾아봐요, 증거를!

경찰2 (슬쩍 찡그린 후) 근처에 CCTV 도 없고, 혹시 몰라서

(길 끝으로 살짝 보이는 멀리 떨어진 큰 도로를 가리키며) 저 아래쪽
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돌려 봤는데,

사고 나고 1시간 이내에 거기로 내려간 차가 딱 3대랍니다.

달구 (기대) 그 차들 중 하나 아닌가? 연락해보면 뭐가...

경찰2 다들 연락해서 블랙박스까지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S#30. 장례식장 안(오후)

사람들 별로 없는 장례식장. 달구, 최씨, 김부장, 상복 입은 상용이 함께 앉아 있다.

김부장 그니까, 머가 급하다고 빗길에 과속을 해, 과속을 하긴. 술 마신 건 아니지? 원래 술집에서도 좀 일했다메.

달구 (발끈) 입 좀 닥치지?!

상용 (얼굴 굳어지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최씨 아무리 돈이 중해도, 임신한 여잘 싸돌아댕기게 하면 어째? 상용이가 무심했네, 무심했어.

상용 (고개 들지 못하고) 그러게요... 제가... 나빠서...

달구 (참지 못하고) 거! 남 일이라고 말을 막 하네! 인두걸을 쓰고 어떻게들 그래?! 어떻게!

S#31. 장례식장 밖(오후)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만 뽁뽁 퍼대는 달구.

달구 니가 화낼 주제나 되냐... 미친 놈...

상용(E) 형님.

달구, 벌떡 일어나면, 상용, 다가와

상용 (난처한 얼굴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S#32. 장례 버스 안(오후)

넋 빠진 얼굴로 국화의 영정사진 들고 있는 달구.

상용(E) 국화나 저나 가족이 없어서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드려서... 죄송합니다.

달구 (혼잣말) 그러게, 상용아. 제수씨는 참 가벼워 보이는데... 어째 이 사진은... 너무... 무겁다...

달구, 밖을 보는데, 한여름 햇살이 시리도록 쨍쨍해서 눈물이 난다.

S#33. 달구의 집 / 거실(오후)

달구, 거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앞에 놓인 붉은 우산을 응시하고 있다.

달구 (벌떡 일어나 우산 집더니) 가자. 까짓거 3천, 토해내. 불쌍한 제수씨 두 번 죽는 거 보면서 가만 있음, 사람도 아니지.

하는 데, 현관문 열리고,
프릴 원피스를 자루처럼 뒤집어쓴 미라가 오찬의 팔짱을 꼭 낀 채 들어온다.
오찬, 생기 없이 흰 피부에 마르고 큰 키, 패션에 꽤 신경을 쓴 차림새다.

미라 (밝게 웃으며) 아버지, 사위 왔어!

오찬 (곰살맞게) 차용증 써야 한다 해서 왔습니다.

달구 (굳은 표정으로)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게.

오찬 (눈치 보며) 물론, 인사도 드리러 왔습니다. (씩씩하게) 아버님.

미라 어쩐 우리 자긴 아버님이라는 말도 그렇게 썩시해?
아버지, 우리 언제 결혼할까?
(뽀루뽀) 참, 왜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해?

달구 내가... 돈을 줄 수 없는데, 그래도 들어올 텐가?

미라 (표정 싹 굳으며) 그 농담, 재미없어! 짜증나!

오찬 (거실로 올라서더니) 채무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온 겁니다, 아버님.

달구 자네, 가족이 뭔지나 아나?

미라 (짜증) 아버지, 미쳤어? 왜 이래?!
(오찬의 팔을 확 잡아끌며) 오빠, 나가자. 다음에...

오찬 (미라가 낀 팔 확 빼며) 가족이라... 저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만,
최소한, (미라의 자살 흔적 있는 팔 쳐들며)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게 해줄 순 있겠죠. (보란 듯 잔인한 미소)

S#34. 노래방(저녁)

미친 듯 신나게 노래하는 미라와 오찬. 그들을 바라보며 애뜻한 미소를 짓는
달구.

S#35. 달구의 집 / 현관(저녁)

알뜰뜰하게 술 먹은 달구, 집으로 들어와서 현관에 놓인 붉은 우산을 주워든
다.

우산의 붉은 색, 핏빛으로 변해 주변으로 번져가는데,

S#36. 회상. 몽타주

1. 달구의 집 욕조(오후)
그은 손목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의 미라와
그런 미라를 안고 어쩔 줄 몰라 울부짖는 달구.
2. 병원(오후)
병원복 입고 누워 있는 미라, 그 앞에 선 달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미라 남자들은 내가 싫어죽겠다... 근데 내가 왜 살아야 해?

S#37. 현재. 달구의 집 / 현관(저녁)

달구, 붉은 우산을 신발장 안 깊숙이 집어넣는다.

달구 상용아... 나한테두 말이다... 두 번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야 앓겠냐...

S#38. 버스 정류장 앞(아침)

달구, 암담한 표정인데,

달구의 눈길 가는 곳 보면, 전단지가 짝 붙어 있다.

전단지 내용 : 목격자를 찾습니다. 0월 00일, 밤 11시 30분경,
00도로 근처에서 흰색 마티즈의 사고 장면. 연락처 : 000-0000-0000
특히, 제보하신 분(사진 속 붉은 우산)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사진: 공중전화 속 청테이프 붙인 붉은 우산 사진.

달구,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람 없는 것 확인하고는 전단지를 부욱, 뜯어버린다.

S#39. 버스 안(아침)

달구, 불안한 시선으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길거리 곳곳에 나부끼는 플래카드.

플래카드 내용 : 목격자를 찾습니다. 0월 00일, 밤 11시 30분경,
00도로 근처에서 흰색 마티즈의 사고 장면. 연락처 : 000-0000-0000
특히, 제보하신 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S#40. 기숙사 / 로비(아침)

로비 현관으로 들어서는 달구,
상용을 둘러싸고 청소복을 입은 최씨와 경리아가씨 등이 모여 있는 것 본다.

달구 (전단지 붙쪽 내밀며) 상용아, 이게 다 뭐냐?
상용 목격자를 찾구 싶어서...
달구 (불안한 마음에 짜증) 전단지, 현수막... 대체 돈이 얼마야?!
상용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달구 (말문 막혔다가) 애 생각은 안 해?
남은 애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상용 (약간 날 서서) 애도 지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알아야...
달구 (짜증) 그딴 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최씨 (가우퐁) 안씨, 오늘따라 이상허네.
평시 가트면, 돈이 머시가 중허냐문서,
잘했다고 상용이 궁뎅이라도 팡팡 두들길 낭반이.
달구 (순간 말문 막히고) 안타까워 그러지, 안타까워서.
경리아가씨 근데요, (전단지 낚아채며) 이런 건 인터넷에 올려야 직방이죠.
네티즌 수사대만 떠봐요. 다 찾아내지.
제가 자주 가는 카페나 이런 데 좀 올릴게요.
상용 (크게 꾸벅 인사) 고맙습니다, 진짜...
최씨 (질세라) 그럼 난 방송국을 알아봐야 쓰겠네.
시댁 식구 중에 방송국 피던가 뭐, 있다는 소릴 들었는디.
경리아가씨 대~박!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긴 뭐든지 백퍼 찾아내요. 경찰은 못 찾아도 그/알은 찾는다니까.
최씨 그래? 그럼 까짓거, 뭐? 그알? 그기도 알아보제.
(상용 툭 치며) 상용아, 힘내. 우리가 다 니 편이여.
상용 (모두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파이팅!’ ‘이 정돈 도와야지,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화기애애한데,
달구만 불안하고 냉랭한 표정이다.

S#41. 달구의 집 / 미라의 방(밤)

미라 책상 앞에 앉은 달구, 노트북 열고 있는데, 옆에 구겨진 전단지 보인다.

미라, 방문 열고 들어오는데,

미라 (짜증) 아버지!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랬지?!

(옆에 놓인 전단지 읽으면서) 뭐야, 이건?

달구 너, 잘 왔다. 인터넷인가 뭔가, 이런 내용 있는지 좀 찾아봐.

미라, 노트북을 자기 앞으로 바짝 당겨서 <흰색 마티즈, 교통사고, 목격자> 등의 검색어 넣어서 찾아보는데, 카페나 아고라 같은 곳에 올라간 내용 몇 개 검색되고, 댓글은 거의 없다. 미라, 대강 쪽 훑어보더니,

미라 별 거 없어.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친해?

달구 (머뭇) 그냥... 그냥, 아는 사람이야.

미라 그냥 아는 사람 일에 왜 오지랴? (노트북 탁, 닫는다)

달구 (초조해서 버럭) 쓸 만한 거 있나 더 알아봐!

미라 있긴 뭐가 있어. 연예인 죽은 거도 아니고,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뉴스에도 안 뜨잖아? 사람들, 남 일엔 관심없어.

그냥 지들한테 피해나 안 주면 다행이라고 여길 걸?

S#42. 기숙사 / 로비(오후)

경비 부스 안에 앉아 있는 달구와 박씨. 슬슬 가방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사복 입은 상용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상용, 부스 안으로 들어와 달구 보며 연신 꾸벅거리며,

상용 형님...죄송합니다... 저 대신 한 시간만 더 계셔주면 안 될까요...

박씨 (발끈) 또?! 그젠가도 달구 형님이 섰다 아이가?!

상용 (어쩔 줄 몰라) 한 달 동안 입초근무 다 설게요. 구기동 사는 사람인데... 진짜 확실한 거 같아요.

박씨 확실하긴! 매번 장난 전환지 뻔히 알면서 와 자꾸 기나가는데?

이런 말 야박스럽지만서두, 핑계 김에 땡땡이, 아이가?!!!

멤 약한 우리들, 이용하는 거 아이가 말이다!

달구 (말리는 시누이처럼) 상용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근데, 상용아, 우리가 다 한가해 봐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면 민폐다, 민폐.

박씨 내 말이 그겁니다, 형님!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하도, 정도가 있으야지, 정도가!

니, 그 목격잔가 머신가 찾는다고 계속 피해줄끼면,

회사를 다니지 마라! 그기가 정답이다.

달구 (박씨 달래듯) 에이, 회사까지 관두면 쓰나?

상용아, 목격자 찾는다고 돌아댁기는 일 그만둔다고 대답해라, 얼른!

... (선뜻 대답 못하는데)

박씨 이 바라, 이 봐! 귓구멍이 처막혔나, 형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네!

달구 고집부려 봤자 적만 느는 게 인생이다, 상용아.

다들 존말로 할 때, 이쯤에서 다 접고 순리대로 살자, 응?

상용, 의외로 고집스럽게 대꾸가 없자,

달구, 상용일 말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표정이 굳어진다.

S#43. 기숙사 / 건물 앞 흡연 구역(오후)

달구, 심란한 표정으로 담배 탁탁 쳐가며 걷고 있다.

달구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천하의 안달구가 권상용 하나 어찌지 못하고... 엠병...

흡연 구역으로 들어섰는데,
경찰1, 경찰2가 상용이와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놀라 흠칫 선 달구.
경찰1, 달구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다.

경찰1 맞다. 여기서 일하시지?
이렇게 만난 거도 인연인데, 차나 한잔 하실래요?

S#44. 기숙사 / 1층 카페(오후)

학생들 여유롭게 앉아 대화하거나 책을 보는데,
달구, 잔뜩 긴장한 채 주스 마시고, 경찰1, 냉커피를 빨대로 쪽쪽 빨아 마신다.

경찰1 커피, 참 맛나네.
커피가 다 좋은데, 오줌을 자주 싸게 되드라구요.

달구 (대꾸해줘야 할 거 같아서 일단 웃는다) 그렇죠.

경찰1 그럼 대리 뛰실 땐 절대 커피 안 드시겠다, 그죠?

달구 네. 뭐...

경찰1 그럼 그때, A개발 연수원엔 큰 거? 큰 일 보러?

달구 (당황) 네? 네.. 네... 늙으니까 뱃속이 영 선창아져서.

경찰1 그렇구나... (빨대 쪽쪽 빨며 순진하게) 근데 그건 모르죠?!

달구 뭐...요? (애써 담담하게 주스잔 들어서 마시려는데)

경찰1 A개발 연수원은 11시 이후엔 화장실 개방 안 하는 거.

달구 (사색이 되어 주스잔을 놓친다)

챙그랑! 엄청난 파열음을 내며 바닥에 내쳐진 주스잔.

경찰1 맞군요. 아저씨가 마티즈 사고 목격자네.

S#45. 기숙사 / 로비(오후)

기숙사 현관문 통해 들어서는 달구.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인서트. S#44에서

경찰1 걱정 말아요. 나도 강대준 씨 편이니까.
근데, 권상용 씨가 목격자 찾는다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저러다 아저씨가 목격자인 거 들킬까 봐 좀 그렇네.
그래서, 우리가 강대준 씨 편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라도 돼봐,
그럼, 참 피해가 크잖아요, 우리가.
권상용 씨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될까?

현재.

달구가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면,

경비 부스엔 박씨 앉아 있고, 경리아가씨는 박씨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바로 앞쪽에선 청소복 입은 최씨가 경비 부스의 유리창을 닦고 있다.

달구, 그들에게 슬쩍 다가가

달구 (툭, 떠보듯) 상용이, 이상하지 않아?

박씨 쫘요! 행님은 댐이 태평양인갑네!

나는 상용이 때때 속창사에서 천볼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달구 사정은 알겠는데... 이젠 우리도 좀 피곤한 것도 같고...

최씨 (어느새 쪼르륵 끼어들며) 나도 쫘 그르드라.

상용이가 예전엔 순허고 사람이 진국이드만,

요새사 악만 남은 거 같고. 지 마누라 얘기만 허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디, 듣는 우리가 영 피곤타.

경리아가씨 맞아요. 안 그래도 사는 거 뽁뽁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다구요.

왜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몰라.

달구 (사람들 쪽 둘러보면서) 언젠는 다들 돕지 못해 안달이드만... (피식)

경리아가씨 (민망) 모른 척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될까 봐 그랬죠, 뭐.

다들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상용(E)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들, 화들짝 놀라 뒤돌면, 상용이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다.

S#46. 선술집(밤)

상용, 잔뜩 술 취해 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달구.

상용 내가.. 내가 들었거든요...

이상한 차가, 이상한 차가 자꾸 붙는다구...

달구 제발 그만 좀 해!!

사람들한테 욕 처먹고 폐 끼치면서 왜 이려고 사는데? 왜?

상용 (혀가 점점 꼬이며) 국화요... 살면서, 누구 하나 자길 위해 노력해준,

그런 사람이 없대요... 엄마도 지 힘들다고 국화 버렸구...

믿었던 언니도 돈 준다니까 국화를 홀렁 술집에 팔았어요...

그니까 나라도 국화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누구에겐지 모를 소리로) 노력이... 죄야...?! 왜 해보지도 못하게...

왜 다들... 가만히만 있으래... 왜....

상용, 기어이 테이블 위로 머리를 쿵, 박고 쓰러진다.

이때, 땡땡~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상용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문자.

달구, 상용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읽은 후, 상용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달구 상용아. 넌 니 살길이 확실하네...

그럼 나도 내 살길 찾을테니까... 너무 원망 마라...

S#47. 기숙사 / 로비(오후)

상용, 로비 구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와 심각하게 대화 중이다.

달구, 김부장과 나란히 서서 그런 상용을 바라보고 있다.

김부장 드디어 나왔나, 목격자가?

달구 (의미심장하게) 목격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일걸?

최씨(E) 상용이한테 더 중헌 사람이 있어?

김부장 (깜짝) 깜짝이야! (빠꼼히 고개 내민 최씨 보며)
(짜증) 똥똥한 아줌마가 인기척을 왜 안 내? 재주다. 재주.

최씨 (삐죽) 내한테 똥똥히단 인사는 보다 첨 보네.

건 그렇고, 누군데, 저 인사가?

달구 보험회사 직원.

인서트. S#46에서,

달구의 손에 들린 상용의 핸드폰, 문자 보면,

김국화씨 생명보험 건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최씨 (완전 관심) 보험 들었대? 누가? 을매나?

달구 부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던 모양이야. 아! 김부장이 잘 알겠네.

김부장 마누라한테 끌려가서 보험 들지 않았나?

김부장 (삐죽) 상용이가 개야? 끌고 가게?

(가웃) 그러고 보니, 금액이 꽤 컸어. 몇 억이더라...?

최씨 (흡!) 억! 몇 억?!

달구 (과장해서 놀라며) 우리 상용이 팔자 폼네.

보험금에, 보상금까지 더하면 애랑 같이 살 집 한 채는 나오겠는데?

최씨 (잉? 급관심) 보상금은 또 머시여?

달구 사고난 데 가생이에 있던 펜슨가? 그게 고장나서 죽었다고,
나라에서 보상금도 꽤 줬는데... 다들 몰랐어?

김부장 (부러운 듯) 인생 역전이네. 마누라가 로또구만, 로또야.

S#48. 기숙사 / 식당(오후)

학생들 드문드문 앉아서 식사하는 기숙사 식당.

구석에 경비복 입은 달구, 상용, 박씨와 청소복 입은 최씨가 한데 모여 밥 먹는다.

고개 숙이고 먹던 상용, 박씨와 최씨가 자신을 힐끔거리는 눈치가 영 이상한데,

최씨 (숟가락 내려놓으며) 월 3만 원짜리, 참 먹잘 게 없네.

우리야 헐 수 없이 먹지만,

(상용이 보면서) 상용이 넌 머다려 먹는다냐, 궁상시럽게.

상용 (어리둥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씨 내는 이제 콩으론 니 대신 안 서준다.

없는 놈이 있는 놈 사정 봐줄 일 있나. 그긴 도리가 아이지.

상용, 뭐지? 하는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는데, 어째 모두 차가워진 느낌이다.

S#49. 기숙사 / 경비원 휴게실(오후)

좁고, 야전 침대가 2개 정도 들어선 경비원 휴게실.

달구와 상용, 박씨를 비롯한 6명의 경비원들이 김부장 앞에 서 있다.

김부장, 손에 든 <경비원 직무교육 일지>로 벽을 탁탁, 치는데,

탁탁탁 소리, 경비원들을 위협하듯 신경질적으로 빨라지다가,

김부장 (상용을 노려보며) 내가 책임지고 싸인 받으라고 했어, 안 했어?
(달구에게 다가가) 기어코 다 잘려야 정신을 차리지, 응?

경비원들, 달구 눈치만 보고, 달구, 아무 대답 안 하고 고집스레 서 있는데,

김부장 (직무교육 일지 열어서 상용 앞에 내밀며) 너부터 해, 싸인.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 머리 툭툭 치며) 잇고 있었네.
권.상.용 씨가 어떤 분인지. 그럼, 권상용 씨는 패스~
(박씨에게 직무교육 일지 내밀며, 위협적으로) 어이, 싸인해.

상용 뭘니까? 전 왜 패스인데요?

김부장 권상용 씨, 부자잖아. 부잔데 이딴 경비 따위를 하시겠냐고.
어차피 찢리든 말든 상관없을 거 아냐. 근데 관둘 거면 빨리 관둬.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상용 부자... 라뇨?

김부장 보험금 3억 받잖아, 다 아는데, 아닌 척은.

경비들 (놀라서) 3억?!!

김부장 나랏님 들들 볶아서 무슨 보상금까지 탔다메?
펜슨가 뭔가 고장났다고. 알고 보니까, 머리 좋아. 권상용 씨.
가해잔지 목격잔지 찾는다고 썩지랄 떠는 것도,
합의금까지 노리는 거지?

상용, 피가 거꾸로 솟아서 “이 미친 새끼가?!” 하며 김부장한테 달려드는데,

그런 상용을 달구가 막아선다.

상용 비키세요, 형님! 저 새끼, 내가 죽어버릴...

달구 그만해, 상용아!

상용 형님 같으면 참겠습니까? 저만 말을 듣고 참겠냐구요?!!

달구 (버럭) 그니까! 그만하랄 때 좀 그만하지 그랬어!!!!

상용 (어리둥절해서) 형님...

달구 김부장 욕할 거 없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니까.

상용 형님 같으면... 가족 팔아서, 죽은 마누라 울귀 먹어서...

그렇게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돈 벌고 싶냐구요... 네?

달구 (모질게) 없던 돈이 생기면 없던 맘도 생기는 게 사람이야.

더 갖고 싶고, 안 뺏기고 싶고, 다 그런거지.

상용 다들, 돈만 보입니까?

제 마음은, (가슴 탕탕 치면서) 여기 있는 제 진심은 안 보이냐구요?!

달구 진심을 알아볼 재주가 있었으면, 이승이 진즉에 천당이겠지.

그렇게 오해받기 싫으면, 인자는 멈춰. 멈추면 믿어볼 테니까.

상용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모두들, 달구에게 호응하는 눈치다.

상처 입은 상용, 고개 떨구더니 쓸쓸히 돌아서 문 열고 나간다.

그런 상용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심 안도하는 달구.

S#50. 버스 안(아침)

출근 시민들로 북적대는 버스 안,

출근 복장으로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난 달구, 서둘러 내린다.

S#51. 대학 앞 길거리(아침)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웅성대고 있다.

달구, 뭔가 싫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보면, 상용이가 걸었던 플래카드다.

내용은 저번과 같은데, 크게 <사례금> 이라는 붉은 글씨 보인다.

최씨(E) 3억!!!

S#52. 기숙사 / 로비(오후)

최씨와 경리아가씨 비롯한 몇몇 사람들, 상용일 둘러싸고 웅성대고 있다.

달구, 영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과 좀 떨어져 서성이고 있는데,

최씨 사례금 3억?!!

설마, 다 주는 건 아니겠제? (그러면서도 기대에 찬 눈초리)

경리아가씨 (완전 흥분) 인터넷 실검에도 올라가 있는 거 알아요?

경리아가씨, 핸드폰 열어서 상용이 보여주는데, 진짜 실검에 <사례금 3억>이 올라가 있다.

경리아가씨 근데요, 사고나 목격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건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말 나와요. 소송 간다니깐!

사고 장면을 찍었다거나, 차가 치고 간 거면 그 차 번호판을 봤다거

나, 목격자 이름을 정확하게 댄다거나.

어휴, 3억이 한두 폰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어설피게 적어놨어요?

최씨 저기, 상용 씨, 우리 시아주버니가 진짜 유명짜한 펀드 뭐라더라, 하여간 주식장사 허는디, 다만 얼마간이라도 3억을 맡겨놔봐. 한 달만 너봐도 엄청 굴려준다.

남는 장산디, 생각 읊어? 나 걸으면 당장 허겼네.

상용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한다)

달구 너, 3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몰라?

니 가게도 낼 수 있고, 멀쩡한 아파트로 옮겨갈 수도 있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죽은 사람 붙잡고 이러구 미련을 떨어!

상용 다들 돈만 보시니까...

제 마음도, 돈으로 포장하면, 좀 보일까 해서요...

주변 사람들, 민망해져서 일순 정적 흐르는데,

순간, 울리는 상용의 핸드폰.

사람들, 일제히 핸드폰에 시선 고정하는데, 핸드폰 보면, 발신자 제한 표시 뜬다.

달구, 불길한 예감 들어 불안해지지만,

달구 (애써 태연한 척) 뭐해? 안 받구?

경리아가씨 빨리 받아봐요. 뭔가 그럴싸해. 이걸 진짜야, 딱 축이 온다니까.

상용, 긴장해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 받고,

주변 사람들 상용의 전화기 향해 얼굴을 수욱 빼들며 집중하는데,

상용 네... 네? 목격자를 아신다구요?

(애써 침착)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서...
네? 네? 증거요?
(사람들 보면서) 증거 먼저 보내준다구요?

달구, 저도 몰래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는데,

상용 (상기된 얼굴로 전화 끊으며) 지금 보내준대요, 당장!
최씨 돈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드만, 돈이 좋긴 좋네!

순간, 땡땡! 울리는 문자 소리.
사람들, 일제히 토끼눈을 하고 상용의 핸드폰을 보는데, 문자 온 게 없다.
다들, 뭐지 싶어서 자신의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가우뚱하고,
그들 뒤에 서 있던 달구도 문자 보는데, 방금 들어온 1통의 문자 보인다.

경리아가씨 (뒤돌아 달구 보면서) 타이밍 죽인다! 뭐예요?!
달구 (핸드폰 뒤로 숨기며) 애인.
최씨, 경리 (피식 거리며, 다시 상용이 핸드폰만 보는데)

달구, 슬쩍 자신의 문자 열어 보는데, - 목격자 안달구.
달구, 사색이 되는데, 뒤이어 영상 문자 들어온다.
달구, 상용에게도 문자가 오나 싶어 그쪽을 보면서, 슬쩍 영상 열어 본다.

S#53. 산길A(S#1의 장소) + 차안(밤)

어느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소리는 나지 않는다.

S#1의 도로를 달리는 해당 차(블랙박스 달려 있는 차)의 앞 유리를 통해 문제의 흰색 마티즈가 달리는 것 보인다.

해당 차가 마티즈 뒤쪽에 바짝 붙으면 흰색 마티즈 불안하게 멀어지고,
해당 차는 다시 다가가고. 명백히 마티즈를 위협하며 운전하는 중이다.
마티즈 이리저리 뒤뚱하다가 살짝 옆으로 가면,
해당 차가 앞으로 치고 나가다가 마티즈의 후면을 쿵 들이박는다.
마티즈, 빗길에 빙글빙글 돌면서 옆쪽 펜스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것 보
이다가, 이내 사라진다.

잠시 어둠이 깔린 도로만 보이는데, 싶다가,
해당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속, 길가에 서 있는 사람 보인다.
붉은 우산을 쓰고 있는데, 보면, 달구다.
순식간에 달구를 휩 지나쳐 가는 해당 차.

S#54. 기숙사 / 로비(오후)

달구, 놀라서 영상을 마구 닫는데,
땡땡~ 울리는 문자 소리. 사람들 일제히 “문자 왔다”하며, 핸드폰을 보는데,
달구, 덜덜덜 떨며 사람들을 본다.

달구의 상상.
사람들 일시에 달구를 쳐다보더니,

상용 형님! 어떻게 저한테...
최씨 어쩐지... 별나게 상용일 닦아세운다 했네.
양심도 없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상용이 불쌍한 게 눈에 안 밝히나?

경리아가씨 이런 사람은 인터넷에 신상을 확 공개해서 개쪽을 줘야...

달구 아니라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 뭔 일 있냐는 듯 달구 본다.

경리아가씨 아닌 건 어떻게 아셨어요?

(상용 보며) 왜 이렇게 스팸이 많아요? 야동 좀 그만봐요. 아저씨.

S#55. 버스 안(오후)

뒷좌석에 앉은 달구, 미친 듯이 불안해하며 덜덜덜 다리 떨며 핸드폰만 들여다 본다. 전화 울리고, 보면, 발신자 제한 표시 뜬다.

달구, 재빨리 전화 받으면,

의문남(F) (헬륨 가스 마신 듯 변조 목소리) 요즘 블랙박스 짱이지?

달구 너 누구야?!

달구옆 여학생 (시끄럽다는 듯 인상 팍 쓰면서 귀에 이어폰 꽂는다)

의문남(F) 욕을 하네? 내가 확 불면 어쩔려구?

그토록 찾아헤맨 목격자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박칠까?

나 같으면 가족부터 조지겠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달구 (뻥!) 너 이 새끼! 당장 안 나와?!!

버스기사 버스 전세 냈나? 아저씨! 좀 조용히 합시다!

달구 (폭발!) 나도 조용하고 싶어!!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S#56. 동네 버스 정류장(오후)

버스 들어와 서고, 버스 기사, 달구를 버스 밖으로 끌어낸다.

달구, 정류장 바닥에 풀썩 엎어진다.

버스 떠나지만, 달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다시 울리는 달구의 전화벨. 달구, 전화 받으면.

의문남(F) 저쪽에서 3억 준대. 딱 그거만 줘.

달구 (여유 되찾으며) 너, 그거 못 넘겨.

니가 3억 받고 그 영상 넘기면, 경찰이 가만 있겠냐?

당장 범인 잡는다고 난리날 거고, 금방 잡힐텐데.

3억에 뺨소니 살인범 되려고?

의문남(F) 이 아저씨, 오지라퍼네? 남 일 말고 아저씨 일이나 신경 쓰세요.

달구 내 일, 뭐?

의문남 아저씨, 도플갱어야? 쌍둥이야? 이렇게 딱하니 사진이 찍혔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다른 데서 사고를 내?

달구 니가, 니가... 그거까지 어떻게 알아?

달구의 눈앞을 스쳐가는 김부장, 최씨, 박씨, 경리아가씨, 경찰1... 상용이.

달구 너.. 누구야, 너?!

S#57. 대준의 집 앞(오후)

높고 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준의 고급 빌라.

차고 문 앞에서 대화 중인 달구와 대준.
대준을 설득하려는 달구, 잘 안 되는 기색이다.

달구 자동차 광고도 하던데, 음주 뺑소니인 거 걸리면, 큰 손해 아닌가요?
대준 협박도 할 줄 아세요? (피식)
어디서 세상을 배웠길래 돈부터 내미냐고 큰소리치더니.
달구 (모멸감 느끼고)
대준 역시 돈 앞에 장사없다, 그지?
달구 3억만 주면, 다 정리하고. 눈앞에서 사라질게.
어디 시골이라도 가서, 조용히 살 테니까... 응?

대준, 어쩔까, 고민하는 표정 짓고,
달구, 일말의 희망이 생겨서 대준을 바라본다.
대준, 고개 끄덕이더니, 달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는데,
달구, 사색이 된다.

달구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뭐, 뭐라고... 다시 말해봐...
대준 (평화로운 미소 지며) 시골에 안 가도 되니까,
복잡한 건 혼자 다 알아서 정리하고, 조용히 사시라구.
딸내미 얼굴에 흙 덮이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S#58. 대준의 집 앞 골목(오후)

달구, 경사진 도로를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달구 찾아야지. 나라도 찾아야지. 내가 먼저 그 미친 놈을 찾아야...

S#59. 몽타주

1. 구기동 정도의 산길 A(S#1의 장소)(오후)
달구, 사고난 곳에 서서 주변을 짚욱 둘러보지만, CCTV는 보이지 않는다.
2. 산길 A의 고급 주택1 앞(오후)
달구, 맞은편에 있는 고급 주택1의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어떤 기척도 없다.
3. 산길 A의 고급 주택2 앞(오후)
그 다음 집으로 간 달구,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 통해 “누구세요”라는 소리 들리고.

달구 며칠 전 사고 때문에 여쭙볼 게 있어서요.
여1(E) 경찰한테 다 말했어요. 본 거 없다고. (뚝, 인터폰 끊기는 소리)

달구, ‘여보세요, 저기요!’라고 계속 인터폰에 대고 말하지만, 저쪽에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4. 산길 A의 고급 주택3 앞(오후)
달구, 문 앞에서 서 있는데, 문 열리면서 고급진 분위기의 여2 나온다.

여2 (자분자분) 안 그래도 경찰이든 누구든 한번 만나야겠다 싶었는데,
달구 (기대에 차서) 뭘 보신 게 있으신지...

여2 그날, 앰블란스 오고 경찰차 오고, 밤새 아주 쟁난리가 나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달구 네?

여2 계절학기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책임자 대보세요, 네?!

S#60. 산길A에서 큰 도로로 이어지는 길(S#15)(오후)

큰 도로로 내려오기 전, 옆쪽을 보면 순두부집 등 제법 큰 규모의 음식점들
있다.

달구, 더위에 지치고 소득도 없어서 코가 쪽 빠져서 내려온다.

달구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들 하네, 진짜!!

힘을 너무 썼는지, 달구 뺏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달구, 순두부나 백숙 등을 판다는 음식점을 바라본다.

S#61. 순두부집 / 내부 + 주차장(오후)

지친 달구, 터덜터덜 순두부집으로 간다.

순두부집은 꽤 넓은 주차장이 있고, 척 보기에 대형 음식점 분위기다.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좁고, 손님들도 드문드문 앉아
있다.

달구, 가웃하며 식당에 앉고,

화면 점프. 달구, 자기 앞에 나온 순두부를 한 입 뜨고는 이내 인상 찌뿌린다.

화면 점프. 음식점 주인, 달구를 마구 밀어서 마당으로 밀어낸다.

주인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맛이 있네 없네, 드럽네 어찌네. 돈 안 받아, 새끼! 가!

달구 장살 이 따위로 하니까 손님이 없지!

주인, 대꾸도 안 하고 횡하니 들어가 버리고,

달구, 열받아 씩씩 거리는데, 3~4 명의 택시기사들, 들어오는 것 본다.

달구 (기사들 보며) 나가쇼, 나가. 여기 장사 접는답디다.

택시기사1 앵? 언제부터? 왜? 권장이 그런 말 안 하던데?

달구 음식점 밥맛이 개판인데, 그게 장사 접는다는 소리지.

택시기사2 (피식) 여길 누가 밥맛 보러 오나? 손맛 보러 오지.

달구, ‘뭔 소리?’ 하는 표정인데,

택시기사1,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듯 택시기사2의 옆구리 쿡 찌르고, 다들 안
으로 들어간다.

S#62. 순두부집 앞 도로(오후)

달구, 순두부집 앞 도로에 서서 아래쪽으로 난 큰 도로를 쳐다본다.

플래시백. S#29에서,

경찰2 혹시 몰라서 (길 끝으로 살짝 보이는 멀리 떨어진 주도로를 가리키며) 저 아래쪽 주도로에 설치된 CCTV를 돌려 봤는데, 사고 나고 1시간 이내에 거기로 내려간 차가 딱 3대랍니다.

달구 (기대) 그 차들 중 하나 아닙니까?

경찰2 다들 연락해서 블랙박스까지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현재.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달구.

S#63. 순두부집 주차장 + 음식점 맞은편 도로(밤)

음식점 불 꺼져 있는데, 주차장으로 한 대 두 대 모이는 자동차들.

주차장으로 S#1의 붉은 스포츠카 들어가고,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달구.

S#64. 카페(오후)

달구, 머리 쥐어뜯으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달구 앞에 선다.

보면, 오찬이다.

시간 경과.

오찬, 뺨질대는 얼굴로 달구 앞에 앉아 있다.

달구 내가 사고 났다는 얘기, 미라가 하드나?

오찬 시시콜콜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내가 아저씨 반스 색깔까지 알 걸요?

달구 (화를 꼭 참으며) 니가 다니는 하우스가 그 순두부집이었지? 그니까 아래쪽 큰 도로 CCTV에선 니 차가 안 잡힌 거였어. 중간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가버렸으니까.

오찬 대박 똑똑하시다. 미라가 아빠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달구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까 하다가, 미라 불쌍해서 참는다, 내가. 그니까, 이제 미라 눈앞에서, 꺼져.

오찬 (끄덕끄덕) 안 그래도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달구 (벌떡 일어서며) 잘 생각했다.

니가 살면서 한 것 중에 켈 잘한 일이겠네.

달구, 나가려는데, 등 뒤로 들리는 오찬의 목소리.

오찬(E) 나도 전과자랑 만날 생각은 없거든.

달구, “뭘!” 하며 돌아보는데,

S#65. 달구의 집 / 거실(밤)

달구,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고, 미라, 그 앞에서 울고 있다.

달구 (핸드폰 영상 내밀며) 너, 아니지... 아니지...?

S#53. 산길A. S#1의 장소 + 차안(밤) 의 블랙박스 영상 재생되는데, 소리까지 함께 들린다. (S#53의 장면 위에 아래 대사 들어감)

오찬(E) (술 취해 꼬인 목소리) 너... 운전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미라(E) (최대한 상냥하게) 오빠, 비오잖아. 안전운전 해야지.
오찬(E) 내가 더 어린데 왜 자꾸 오빠래? 기분 X같네.
 앞에 저저, 저저 뭐야? 굼벵이야? 왜 기어가? 비키라고 해!
미라(E) (겁먹어서) 오빠, 잘못하면 사고 나. 좀 가만히...
오찬(E) 오늘 판이 얼마짜린데. 바짝 안 붙어?! 앞으로 나가, 치고 나가!!

달구, 영상을 끊는다.

달구 사람이 죽는데 그냥, 갈 생각이 나더냐...?
미라 전단지 보고 알았어, 사고난 거...
달구 그래서 오찬이랑 짜구, 날 헐박했냐, 내 자식이...?
미라 (미친 듯 머리 흔들며) 아니야, 아버지. 찬이 오빠 혼자 그런 거야.
 나, 그땐, 정신이 없어서 누가 서 있었는지 몰랐어...
 아버지지 몰랐어, 정말...
달구 (벌떡 일어나며) 가자, 경찰서.

 달구, 신발장 앞으로 마구 달려가 안에 쑤셔 넣었던 붉은 우산 꺼내는데,
 미라, 눈물 범벅 된 채 달구에게 매달리며,

미라 무서워, 아버지. 감옥 가는 거... 무서워..
달구 나는...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니가 더 무섭다...
미라 다들 그러고 살잖아, 아버지 안 그랬어?!
 사고난 거 뻔히 보고도, 돈 때문에 모른 척 안 했냐고!!
달구 !(뉘라 대꾸할 수가 없다. 사실이라서)

미라 그러구... 내가 자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와...?
 ... 산 사람은 그냥 살자, 응...?
달구 오찬이 그놈이 3억을 포기하고 널 이대로 내비둘 거 같아?!
 니가 감옥을 가든 말든 끈질려서 돈 3억을 받을 놈이라고!
미라 내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도망치든, 뺄하든, 다 알아서 할 거니
 까... 아버지진 그냥... 지금처럼만 모른 척해줘. 응?

S#66. 몽타주(밤)

1. 달구의 방
 어둠이 깔린 방, 달구, 외로 누워 잔뜩 웅크린 채 자고 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리고,

 2. 달구의 거실
 어두운 거실, 짐가방 든 미라, 조심조심 현관을 향해 가고 있다.
 최대한 소리 안 내며 신발을 신은 미라, 신발장을 여는데, 삐그덕 소리나고
 지레 놀란 미라, 조용히 달구 방의 동태를 살핀다.
 달구 방에서 아무 기척 없자, 신발장 안의 신발들을 챙겨 가방에 쑤셔 넣는다.

 3. 달구의 방
 달구, 여전히 자고 있는데, 현관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 난다.
 달구, 내내 감고 있던 눈을 조용히 뜬다.

S#67. 대준의 차 안(오후)

대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중이다.

대준 음주운전?! 내가요?
(애써 웃으며) 이기자님은, 또, 어디서 무슨 헛소릴... 대리기사가 경찰
찰에 다 붙었다구요?!!

S#68. 산길 A(늦은 밤)

달구, 굳은 표정으로 산길을 오르고 있다. 그 위로,

달구(N)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정리하는 게 수다.

시간 경과.

달구, 굳은 표정으로 상용과 마주하고 있다.

달구 미안하다. 상용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날, 내가 걸어 내려
오다가 분명히 봤는데... 흰색 마티즈가, (고개 숙이며)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더라...

상용 흰색 마티즈가... 지 혼자 미끄러졌다고요?

달구 그래. 썰게 달리다가...

상용 제가 얼마나 많은 가짜 전화 받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저, 형님 말
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 3억에, 형님도 거짓말하는 걸 수 있잖습
니까.

달구 (다급) 내가, 내가, 그날 본 거 다 말할게. 내 말 다 들으면 너도 믿을
거야. 그니까...

상용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저는.

달구 증거?

상용 그날 쓰셨던 우산이나...

달구 아, 아. 그건... 집에 있다. 집에 있으니까...

상용 이거 말인가요?

(들고 온 가방에서 뭔가 꺼내는데, 보면, S#1의 붉은 우산이다.)

달구 (우산 낚아채며) 이걸 왜 니가?!!!

상용 아침에, 미라 씨가 우산을 들고 절 찾아왔어요.

자기가 목격자라고.

인서트. S#66에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챙기던 미라, 신발장 깊은 곳에 있는 붉은 우산을 본다.
미라, 우산 꺼내더니 가방에 쑤셔 넣는다.

현재.

상용 남자친구가 제보했다더군요.

근데, 미라 씨가 목격한 게, 참... 형님이랑 또 달라요.

검은 색 차가 치고 가는 걸 봤다는데... 누구 말이 진짜까요?

달구, 꼼짝없이 굳어서 서 있는데, 상용, 그런 달구를 등지고 걷기 시작한다.

상용 (휙 뒤돌며) 참! 미라 씨는 이 우산이 본인 거래요...

사고를 목격했던 날, 집에서부터 쓰고 나왔다고.

이 우산, 제가 형님한테 드린 건데, 따님은 그것까진 몰랐나봐요.
누구 말이 진짜지는 경찰이 밝히겠지만...

달구 (달려가 상용에게 매달리며) 미라가, 개가 집에 저 우산이 있는 거 보
고 거짓말한 거다. 돈이 급해서.

개는 그냥 봐줘라, 상용아, 응?

상용 거짓말이라기엔 너무 자세히 알던데요?

사고 장소, 시간, 정황...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잘 알 순 없죠.

그때 깨달았죠...

가해자도 일종의 목격자라는 걸...

달구 (두 손 모아 연신 빌며) 내가... 내가 사고 낸 걸로 치자. 미라, 불쌍한
앤데... 날 봐서라도... 응?

상용 (차갑게) 형님은 우리 불쌍한 국화를 모른 척하셨는데...

왜 저만 미라 씨를 봐줘야 하나요....? (획 돌아간다)

분노와 절망에 찬 달구, 상용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손에 든 우산을 떨어뜨린다.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빗속에 툭, 떨어지는 붉은 우산.

달구, 옆에 놓인 돌을 손에 들고 상용의 뒤통수를 향해 휘두른다.

퍽! 상용이 쓰러지는 듯하다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간신히 일어서는 상용.

손에 들 든 달구, 다시 상용 향해 달려들고,

어둠 속에는 두 남자의 몸싸움하는 소리만 가득하다.

이윽고 계곡 아래로 데굴데굴 굴러가는 누군가의 몸뚱이. 보면, 달구다.

펜스 옆에 선 상용, 아래로 떨어진 달구를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상용 (절규와 비명) 형님!!!! 안돼요!!! 형님!!!!

달구,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애써 뜨려 노력하는데,
빗물에 쓸려 내려오는 계곡 흙들이 서서히 달구의 몸을 덮쳐온다, 그 위로,

달구(N) 덮고, 덮고, 덮고...

한 번 덮은 양심은, 괴물이 되어 지 주인까지 덮친다...

좀더 일찍 알았다면.

확 쏟아지는 토사, 달구의 눈을 덮치며. 암흑.

S#69. 경찰서 안(저녁)

나란히 앉은 상용과 미라. 멀찍이 오찬이 진술 중이고, 경찰2, 경찰3 보인다.
미라, 낫 나간 표정이고, 상용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상용 (멍하니 미라 보며) 미라 씨, 무슨 일 있어요?

(두리번) 나 뭐 잘못했어요?

(속삭이듯) 저기... 달구형님한테 전화 좀 해줄래요?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미라 (참지 못하고 비명 지르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한다)

경찰2 (안됐다는 표정) 설마... 미친 거야?

경찰3 미치지. 너라면 안 미쳐? 마누라 죽어, 아는 사람이 범인이야.

민던 형은 내가 죽여...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나? 그게 인간이야?

인서트. S#4에서,

죽은 듯이 잠든 달구와 상용. 평화롭고 다정한 두 사람에서.

끝.



작가 후기 **강유미**

수정은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내 대본을 보는 감독님과 커뮤니케이션, 이미 또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자기 소리를 떠들어대는 초고와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그러하듯이, 열린 자세를 유지하되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다.

구성도 고쳐보고, 디테일의 개연성도 맞춰보고... 내 대본의 50가지 그림자를 없애려고 많은 시도를 해보다가,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느꼈다.

수정을 통해, 초고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말'을 뚜렷하게 세우게 된 건 좋았으나, 이 또한 스타트점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내 안에서 뚜렷해지다 보니, '스토리'가 갖고 있던 고유의 재미와 스피드를 잃고 설명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설명살이 붙어서 어느새 뚱뚱해진 씬과 시퀀스를 보면서, '작의'와 '스토리'라는 두 방향이 각자의 매력을 잃지 않고 어울리도록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다.

2017
오 펜
작 품 집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김동경

작의

헬조선, 메마른 개천, 열정페이, 신용불량...

現 대한민국 청년들은 소위 흙수저를 전 인생들이라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 금수저로의 환생? 그것은 더더욱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재질이 금이든 흙이든 간에 깨끗한 수저로 제대로 한 끼 챙겨 먹을 수 있는, 적어도 그 기본적인 식이 챙겨진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과는 다를 거란 희망... 노력대로 내 대가를 찾아가는 세상... 청년의 바람은 그것이다. 그러나... 갖춰진 한 끼를 먹겠다는 의지는 욕심을 넘어 허영이 되었다.

과잉 스펙, 학력 인플레이... 더 이상 '개인 대 개인' 차별화가 되지 않는 사회이기에.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뛰어어야만 한다!

학벌이든, 배경이든, 그 잘난 어떤 개인기든... 요즘 청년은 그렇다. 이 사회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밀어야만 한다. 망치로 신나게 터지는 두더지 오락기의 두더지가 되어 있을지라도.

스펙, 실적, 적절한 대인관계... 그것으로도 이미 피곤한 청년...

밤에도 청년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장조 리듬 위를 걷는 그녀의 단조 인생.

이 드라마에는 양손에 탬버린을 짊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등장한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한없는 노력을 강요받고 요구되는 현실, 청년들의 갖은 노고와 노력 끝에도 정당한 밥 한 술을 못 먹여주는 이 사회, 이 시스템에 그들의 애환을 들려주고 싶었다.

등장인물

오문숙(여, 29세)

가람은행 계약직 2년차. 토익 930, HSK 5급, 학점 3.9, 자산관리사, 파생투자상담사 등... 웬만한 스펙이라 할 만한 것은 남들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다. 늘 올드해 보이는 검은 정장에 묵직한 가방, 투박한 구두를 장착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통통한 체격과 무딘 성격이지만 착실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양지애(여, 29세)

문숙과 같은 가람은행 계약직 2년차. 문숙 못지않은 웬만한 스펙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그리고 넘치는 애교가 필살 무기다. 지금 있는 가람은행에 정이 없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지대로(남, ?)

탬버린 강사. 엉뚱하지만 그만큼 가진 따뜻함과 해안을 문숙에게 전달한다.

도남조(남, 44세)

가람은행 차장. 도팀장이라 불린다. 지점장의 지시면 간, 쓸개 다 내놓는다.

박만식(남, 51세)

가람은행 지점장.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회한 상사.

강혁선(남, 31세)

가람은행 인턴. 호탕한 성격에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정미리(여, 42세)

가람은행 차장. 정팀장이라 불린다. 골드 미스.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스펙에 빈틈없는 여자. 하는 짓이 구질구질하단 이유로 유독 문숙에게 딱딱하게 군다.

이성주(여, 35세)

가람은행 대리. 여직원 중 유일한 유부녀다.

김희정(여, 32세)

가람은행 계장.

그 외

정혜(문숙모), 영숙, 동전 할머니, 인턴 동기1, 2, 여령, 고객1, 2, 3, 4, 5, VIP고객1, 2, 3, 면접관1, 2 등...

즐거리

나는야, 청승과 오문숙.

문숙은 그대로 좋았다. 올해도 계약을 연장해준 가람은행. 하지만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고가 뜨자 생각은 달라졌다. 솔직히 이래저래 지쳐 있던 생활이었다. 매일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해야 하는 유연함, 정규직 행원들의 의례적인 힘든 고객 응대 전가며, 무심히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쥐꼬리 월급, 실적 메우려 끊어진 인맥들도 이놈의 불안정한 일자리 탓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리라, 머지않아 정규직이 본인 차례가 되리라 굳게 믿는 문숙이다.

그냥 나처럼 정 주지 말고 다녀.

한결같은 문숙에게 정규직 행원들의 의례적 태도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다그치는 지애지만 이대리의 귀찮은 고객 전가를 오늘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문숙에게 두 손을 든다. 그러던 지애도 계약직 정규직 전환 소식에 태도가 180도 바뀐다. 친화력, 선물 공세 작전 등을 앞세워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예쁜 얼굴, 잘 빠진 몸매, 못 남성들을 충분히 녹이고도 남는 애교가 장착된 그녀에겐 무조건 해볼 만한 게임이었다.

한편 문숙은 객장 내 입지나 실적 면에서 지애로부터 밀리는 형국이되자 하루하루 불안해져만 간다. 어느새 회식 자리의 분위기 메이커도 지애가 도맡고 문숙은 꺾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다. 자괴감을 느끼던 문숙은 순간 의자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탬버린을 말없이 쥐어보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회식자리에서의 능력이 유효한 나라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문숙은 묘수를 생각해낸다. 이 구역에 제대로! 미친년이 될 각오로 문숙은 큰맘 먹고 탬버린 학원에 등록, 흥을 위한 춤을 익힌다.

드디어 찾아온 회식 자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보이기 위해 틈을 노리던 문숙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만다. 정팀장의 발라드 타임에 눈치 없이 흔들던 탬버린이 화근이었던 것. 돌아온 건 정팀장의 거침없는 독설. 문숙은 다시 무너지고 만다.

다 지가 주인공이 되려니깐 일을 그르치는 거야.

조연의 지능적인 주연화, 그게 포인트라고!!!

탬버린 강사 대로의 주옥같은 영업 기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은 문숙은 심기일전한다. 오래 갈고닦은 실력과 노력 끝에 드디어 문숙은 성공적인 회식 탬버린 쇼를 마친다. 하지만 정팀장과 지애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가는데...

회식 이후 객장 내 문숙의 이름이 불릴 일이 많아졌다. 그들의 눈에 띄는데 성

공, 다시 객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히고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날을 꿈꾸게 된 문숙. 그러나... 그녀는 느낀다. 그들의 눈에 띄는 바람에, 그들의 밥이 되어 버린 현실을...

누구든 웃긴 년이 되고 싶진 않다.

누굴 위한 '흥' 인가?

점점 사람들의 요구와 시샘은 많아지고, 당연시되는 업무들 사이에서 문숙은 차츰 무기력해져만 간다. 그럴 때마다 도팀장은 다 자기 식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희망고문 하고, 그녀를 활용(?)하려는 지점장과 대동단결한다. 문숙은 자문한다. 이 흔들고 있는 탬버린은 이제 누굴 위한 흥인가? 라고. 하지만 고지가 눈앞에 놓인 지금에서 탬버린을 놓을 순 없는 문숙. 그녀는 끝끝내 지금 이 시간을 극복하고 멋진 출근을 하리라 꿈꾸는데...

S#1. 꿈. 강가(낮)

(E) 사람들의 비명 소리.

저 멀리 물에 빠진 도팀장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여직원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어떡하나며 동동거린다.

황급히 달려온 지점장은 누가 어떻게 좀 해보라 다그치기만 할 뿐.

정팀장은 차분히 전화를 걸어 신고 중이다.

지점장, 무리 속에 있던 문숙을 발견하고 “잘 됐네. 오문숙 씨가 들어가!”

갑작스런 상황에 난감한 문숙인데.

지점장, 위협적인 표정으로 “뭐해! 어서!!” 문숙을 더 채근하면.

무리 앞으로 엉거주춤 나온 문숙, 어찌할 수 없이 발걸음을 서서히 옮긴다.

S#2. 꿈. 강물(낮)

문숙, 도팀장을 향해 헤엄쳐가는 위로.

문숙(N) 저는 수영 선수도, 능숙한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도팀장, 힘껏 손을 뻗는다. 문숙이 거의 다다르지만...

순간 도팀장 의식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문숙(N) 그저 그런 수영 실력에, 글로 배운 구조 매뉴얼만 머리에 있을 뿐이죠.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문숙, 초인적인 힘을 발휘, 도팀장 한쪽을 찰나적으로 잡아 올린다.

도팀장의 목덜미, 한쪽 어깨를 자신의 한 팔로 휘감고,
죽을 듯 살 듯 헤엄쳐 나오는 문숙.
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구조보트, 줄로 연결된 구명튜브 던져준다.
문숙, 던져진 구명튜브에 가까스로 정신 잃은 도팀장 엮어 놓으면, 구조보트의
사람 둘이 줄을 힘껏 당겨 도팀장을 구조한다.
도팀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구조보트, 이내 서둘러 강가로 빠져나가는.

S#3. 꿈. 강가(낮)

대기하고 있던 구조대원들, 구조된 도팀장을 재빨리 보트에서 끌어내리고 강
가에 누인 뒤 응급처치에 들어간다.
사람들,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는데.
구조대원의 인공호흡 끝에 정신을 차린 도팀장, 물을 토해낸다.
사람들, 기쁨의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친다.

S#4. 꿈. 강물(낮)

안도하는 문숙, 그제야 본인도 헤엄쳐 나오려는데.
순간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난 것을 알아챈 문숙, 다시 힘껏 발버둥을 쳐본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문숙은 더 당황하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문숙, 결국 “살려주세요!” 하며 손을 애써 흔들어보지만 그
럴수록 몸은 점점 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얼굴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 나왔다, 그렇게 수차례...

문숙, 얼굴이 수면 위로 나올 때마다 간절히 강가를 향해 손을 흔들어보지만 아
무도 돌아보질 않는다.
그 순간, 지애, 흘깃 돌아보다 위기에 빠진 문숙 발견한다.
문숙, “여기!!” 소리치며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더 크게 허우적거려본다.
그러나 지애, 관망하듯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돌아서 가버리고.
문숙, 일순 외침을 멈추고.

문숙(N) 그 순간... 알았죠.

허망, 충격인 얼굴이 되어 문숙, 그대로 물속으로 잠겨버린다.

S#5. 현재. 문숙의 고시원방

잠에서 깨어나, 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문숙, 식은땀을 흘리는 얼굴 위로.

문숙(N) 애초부터... 내게 던져질 구명조끼 따윈 없었다는 걸.

타이틀. 오늘도 탬버린을 모십니다

S#6. 가람은행 전경(낮)

S#7. 가람은행 / 객장(낮)

(E) 땡동. 땡동. 연쇄적으로 다음 순번을 알리는 알림 소리.
바쁜 객장의 풍경.

고객1(E) 여기 지점장 나오라고 해!

객장의 손님들, 일제히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이 가고.

이대리 (익숙한 듯) 또 시작이네.

김계장 옳지. 웬일로 객장이 조용하다 했다.

고객1 (일어나 샷대질하며) 아니 말야! 뭘 고객을 한 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은행이 다 있어?! 지점장 불러! (하면 청원경찰과 혁신 달려와 정중히 말리고) 이거 안 놔!!!

한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고객 응대 중인 문숙,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하면. 손님2, 사인 하는 동안.

옆 창구에서 지루한 표정의 지애, 고객에게 대충 “예예. 그냥 그렇게. 예. 사인 하심 돼요.”한다.

일어나며,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다음 순번 벨 누른 이대리.

다가온 한 할머니 고객에 잠시 시간이 찌푸려진다.

이대리 고객님, 옆 창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어보이곤, 사인 받는 문숙에게) 문숙 씨, 부탁해.

문숙, 얼떨결에 보면, 그녀 앞으로 내던져지는 묵직한 형겅 주머니.

문숙, 이대리 보면. 이대리,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본인 일 처리에 바쁘다.
한편 지애, 문숙 창구 상황을 흘깃 보곤 못마땅한.

할머니 기계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악물고 일일이 동전을 손으로 세어서 확인시켜주는 문숙.
이미 그 옆에 탐으로 쌓아놓은 각종 동전이 잔뜩 있다.

문숙 할머니... 매번 이러시지 말고요. 요즘 기계 잘 나오거든요?

할머니 또 그 소리! 기계가 나아봐야 사람보다 낫겠어?

문숙 (한숨, 말해 뭐하나. 다 세었다) ... 총 팔만칠천이백십 원이요.

지점장, 바쁜 객장 상황 살피다가, 정팀장에게 다가가서.

지점장 (문숙 쪽 퍽짓으로 가리키며) 정팀장, 저기.

정팀장 누구요? 오문숙 씨요?

지점장 민숙인지 문숙인지 말야. 저러니깐 객장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아냐, 예휴(못마땅한 표정, 기침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정팀장, 문숙의 자리를 살피는데. 탐처럼 쌓인 동전들.

정팀장 (건조하게) 문숙 씨. (하고 문숙 보면, 손 까닥) 잠깐 나 좀 봐.

문숙 (할머니에게 잠시 양해 구하고, 다가가면) 네, 팀장님.

정팀장 소꿉놀이하려고 은행 들어왔어? 기계는 품이고? 저걸 일일이 다 세어주면 일은 언제 하셔?

문숙 ... 그게...

정팀장 요즘 애들 배운 게 많고, 스펙만 많으면 뭐해. 일을 똑바로 해야지. 객장 상황 보며 하라고. (답답한) 들어가!

문숙 ...

S#8. 가람은행 / 탈의실(낮)

캐비닛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는 문숙.
지나가던 이대리와 김계장, 문숙을 보더니 미안한 기색인데.

이대리 미안해 문숙 씨. 아까 많이 혼났어? 내 탓인 것만 같네.

문숙 (괜히 더 미안해서) 아뇨. 절대 그렇게 생각 마세요.

김계장 진짜 문숙 씨 아님 우린 더 쪼였을 거야. 문숙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문숙 (진심인) 별말씀을요.

천천히 문숙 옆으로 다가와 그들을 뺨히 보는 지애.
그 시선에 괜히 머쓱해진 이대리, 김계장, “그럼”하고 자리를 뜬다.

지애 계약직이 지네 봉이지. 귀찮은 일들은 우리에게 다 미뤄놓고.

문숙 점심은 먹었어?

지애 이 판국에 점심이 중요하니? 일말의 양심도 없어 진짜. 이러니 우린 언제 실적 채우냐고 너도 말야 얘길 좀 해. 재들은 당연한 줄 안다고!

문숙 (주변 눈치 보며, 목소리 깔고) 야아...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지애 뚱뚱한 입으로 말도 못하니? 너 나중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나처럼 정주지 말고 다녀. 올해 우리 지점은 정규직 전환도 없다더라.

문숙 ... 설..마... (반신반의한 얼굴로)

지애 (한숨) 짜증나는데 오늘 끝나고 한잔하러나 갈까?

문숙 어... 다음에. 오늘은 전에 취업 스터디 했던 친구들 모임 있어서...

지애 야. 넌 그게 문제야. 스터디가 끝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또 만나서 답답한 얘기들 하려고.

문숙 ...

S#9. 호프(밤)

곳곳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시원하게 부딪치는 잔들 위로. “cheers!” 하는 사람들.

인턴동기2 벌써 모임 이어온 지도 사 년이 다 되어가네.

인턴동기1 그러게. 시간 자알~ 간다. (문숙 보는) 문숙 씨 있는 가람은행은 어때? 아직도 계약직이야?

문숙 뭐... 그렇죠.

인턴동기1 언제까지 계약직으로만 살 거야. 그러다 진짜 계약 인생 된다니깐.
여령 계약직이 어때서요. 요즘은 인턴 자리 하나도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일찌감치 정직되니깐 이전의 단계들이 다 쉬워 보이죠?

인턴동기1 나도 쉽게 정규직 된 거 아냐. 실적이며 회식 담당까지! 문숙 씨뿐만 아니라 아직 정규직 못된 사람들, 솔직히 잘들 생각해보라고. 막말로 갓 졸업한 스물다섯짜리랑 서른 넘은 행원을 신입으로 같이 둘 거 같아? 나이 먹는 거 쉽게 생각지 말고 위기감을 가지라고!

인턴동기2 야! 누군 매년 그렇게 나이만 먹으면서 조마조마 계약직만 전전하고 싶은 줄 아냐! 너, 이 자식 정직됐다고 아주 갑죽거리는데.

여령 (말리며) 왜 그러세요.
인턴동기1 (지지 않고)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저 그런 처지의 똑같은 인간들끼리 위로한답시고 이려고들 있지 말고. 악착같아지란 말야!!
문숙 (점점 어두워져가는 얼굴) ...

S#10. 거리 일각(밤)

택시 기다리는 문숙과 여령.

여령 문숙 씨... 이걸 비밀인데요...
문숙 ?
여령 저 요즘 댄스학원 다녀요 (쓱스러워 웃는) .
문숙 부지런도 하세요. 활동적인 게 취미론 좋죠. 라틴댄스? 뽀얏?
여령 아뇨... (쓱스럽게 웃으며) 섹시댄스...
문숙 예?!
여령 ... 웃기죠? 회식자리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요.
문숙 여령 씨같이 학벌, 스펙 다 되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령 그런 게 전부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 회사에 계속 필요한 사람이 나란 걸... 그렇게 어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띄어야지.
문숙 ...
여령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는 출퇴근길에 최신 가요 외우고 다닌대요. 불시에 언제 회식이 잡힐지 모르니... 예전엔 비즈니스 회화 책 끼고 다녔는데, 그 친구도 그 꼴로 출퇴근하는 자신이 황당하다고...
문숙 뭘 기획사 연습생도 아니고...
여령 그러게 말예요. 요즘은 탤버린 배우는 학원도 있다는데 말 다했죠.

문숙 탤버린이요? (깊은 한숨) 하... (쓱쓱하게 웃는) .

S#11. 가람은행 휴게실(낮)

자판기 앞에 선 문숙.

시선이 800원짜리 캔 커피와 300원짜리 종이컵 커피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결국 300원을 넣는 문숙. 종이컵 커피를 빼서 마신다.

도팀장(E) 문숙 씨! 굿모닝!
문숙 (보고 가볍게 목례하는) 네, 팀장님.
도팀장 (주머니 뒤지는, 없다) 문숙 씨, 천 원 있어?
문숙 (갈등하는) 아... 예.
도팀장 줘봐.
문숙 (마지못해 내밀면)

 도팀장, 받아들고 자판기에 넣은 뒤 과감히 800원 캔 음료를 누른다.

문숙 그럼... (들어가려는데)
도팀장 (꺼내 마시려다) 아, 문숙 씨! 굿 뉴스!!
문숙 ?
도팀장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정식 공고 날 거야.
문숙 (굳었던 얼굴 그제야 밝아지는) 정말요?!
도팀장 (캔 들어 보이며) 좀만 더 수고하라고! (하고 객장으로 들어간다)
문숙 (들어가는 도팀장을 보며) 고맙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S#12. 편의점(밤)

저녁용 도시락을 고르는 문숙, 제법 심각하다.
양손에 들린 두 개의 도시락을 보며. “삼천오백 원... 삼천구백 원...”
간이 바에 서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지는 도시락을 간간히 살피며.

문숙 사백 원에... 소시지 두 알 있고 없고. 참... 치사하다. 정규직만 되면... 내가 진짜...! 오륙천 원 하는 더치커피만 마시고, 이놈의 편의점 도시락도 세이 굿바이다! (잠시 행복한 얼굴이 되어) 정규직이라...

정혜 (E, 화내거나 짜증내는 톤 아님) 저번에 그거로도 부족해?

S#13. 회상. 정혜 집

카드 가입서 뭉치를 들고 선 문숙, 면목이 없는데.
문숙모 정혜, 걱정과 안타까움이 교차한 얼굴이다.

정혜 친척들 것, 동창들 것까지 했는데... 삼십 장 해가도 그거론 안 된대?

문숙 (간절한) ... 더는 힘들겠지?

정혜 문숙아... 이번 참에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문숙 (예민해져) 이제와 어떻게 다른 직장을 알아봐. 엄마까지 그러지마.

정혜 ... (안쓰러운)

문숙 (희망적인 얼굴로) 이번엔 진짜야 엄마. 다 왔어. 정말 다 왔다니깐?!

S#14. 현재. 편의점(밤)

(E) 땡! 전자레인지의 알람소리.
생각에 잠겼던 문숙, 뭔가 생각난 듯 목직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카드 가입서다. 이내 다시 얼굴이 굳어지는 문숙.

S#15. 은행 입구(낮)

출근하는 문숙, 마침 출근하던 혁선과 마주친다.

문숙 (반갑게) 어, 혁선 씨!

혁선 (깊이 고개 숙이며) 선배님, 안녕하세요!

문숙 (선배라는 말 씩스럽고, 손사래) 선배는 무슨. 나도 혁선 씨랑...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인데요.

혁선 (깹뚫한) 그래도 선배님이시죠.

문숙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이는) 종일 서 있느라고 힘들죠? (혁선의 신발을 보며) 구두가 많이 아플 텐데...

혁선 (가볍게 발 들어보곤, 사람 좋게 웃으며) 이 정도쯤은요 뭐.

문숙 (웃어 보이는) 커피 한잔하고 들어갈까요?

혁선 넵. 좋습니다 선배님!

S#16. 객장(낮)

(E) 장내 울리는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문숙,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웃음소리에 불길함을 느낀다.

이대리 지애 씨가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줄 몰랐네.
김계장 그러게요. 지애 씨 그 말하는 센스를 여태 어떻게 숨기고 살았대?

문숙, 셋의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창구 자리에 앉는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 손, 손, 손... 같은 브랜드 커피 들고 있다.
한편 문숙, 갓 바닥을 비운 300원 커피 종이컵. 원지 모를 불안에 구기는.
도팀장, 출근해서 자리에 놓인 커피를 본다.

도팀장 (커피 들어 보이며) 이거 누구 선물이야?
지애 (애교스럽게 웃으며) 팀장님. 제 마음입니다!
도팀장 땡큐, 지애 씨.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지애 무슨 날은요. 다들 고생하시니깐요.

지애, 웃으며 본인 창구 자리로 돌아온다.

지애 우리 썩이 꺼(하며 한 잔 내민다).
문숙 고... 마워...

문숙, 갑작스런 지애의 행동에 의아한데.
지애, 문숙 칸으로 불쑥 얼굴을 들이민다.

지애 (작은 소리로, 신난) 그거 들었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고 떴대.
문숙 (뜨끔하지만) 그... 그래...? (알았구나) 그래서...
지애 (작은 소리로) 드디어 이 지루한 계약직 일상에 동기부여가 된 거지.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친구. (밝은 얼굴로) 파이팅!
문숙 어... 파이팅...

서류를 들고 창구로 온 문숙,
고객3에게 서류를 내밀어 사인을 받는다.
문숙 창구 근처에서 카드 팸플릿을 읽고 있던 고객4.

고객4 (문숙에게, 팸플릿 들어 보이며) 주유 할인율이 제일 좋은 게 더모아 카든가요?

문숙 (보고, 바쁜, 사인 서류 받고 컴퓨터 작업하는) 고객님, 잠시만요.

마침 옆 지애 창구 고객이 자리를 뜬다. 지애, 잼싸게 상황 스캔하고.

지애 (고객4 향해서, 생글거리며) 고객님,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순 그 소리에 문숙, 지애를 돌아보는데.
지애, 고객4 자리에 앉히고, 카드 매뉴얼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문숙, 황당한 얼굴이 된다.

S#17. 고시원(밤)

통화 중인 문숙.

문숙 (폰 든 채) 어, 그게 우리 은행에서 이번에 출시한 카드가 혜택이 좀 좋거든. 교통, 통신비, 영화도 할인되고... (벽 노크 울리는, 눈치 보

고, 듣는) 어... 그렇지. 전월 이용료가 삼십은 돼야지... 그치...

문속 (폰 들고 열정적인, 벽 노크 좀 더 크게 울리는, 하지만 절실해 멈출 수 없는) 이게 학원 할인도 되거든. (듣고) 아직 취업 전이라 빠듯하지...그 맘 나도 알지. (듣고)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문속 (폰 들고, 기어 들어가는) 네에... 교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공팔 학번 오문숙인데요... 아노, 오문식이 아니라 (또박또박) 오.문.숙.이요... (상대가 기억하는 듯, 듣고) 네네! 네에 은행에서 근무해요... 예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옆방으로부터 “아, 진짜!”하며 굼직한 탁탁탁- 마지막 경고 같은 벽 노크 울리고, 차마 말 꺼내기 힘든) 저기 근데... 교수님... 저기... 아닙니다. 좋은 일로 꼭 찾아뵙게요! 건강하세요! (조심스럽게 끊는, 벽 한번 노려본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 문속.

(E) <pick me> 노래방 기기 전주 소리.

S#18. 주점(밤)

지애, 등 돌리고 서서 손을 뻗곤 노래의 흥을 돋운다.

사람들, 고조되는 분위기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다.

문속, 무표정으로 맥주잔만 들이켜다.

지애 (윙크, 귀여운 소녀 느낌으로) 캔 유 필 미 나를 느껴봐요~ 캔 유 터치 미 나를 붙잡아줘~ 캔 유 홀드 미 나를 꼭 안아줘~ (지점장에게 노골

적으로 손짓을 하면서) 아원츄 픽미업!! 픽미픽미 픽미업~~

지점장 (기분 좋은) 지애 양이 저런 제주도 있었어?

김계장 끼가 넘쳐요 넘쳐.

도팀장 지애 씨가 분위길 띄울 줄 아네.

정팀장 (긍정의 표시로 웃어 보이는)

문속 (그들의 반응에 표정 관리 안 되고) ...

문속의 시선으로.

애교기 가득한 지애 얼굴, 잘 빠진 몸매... 복병을 만난 문속인데.

상사들 빈 잔을 채우던 혁선, 쓸쓸해 보이는 문속을 보고 리모컨을 건넨다.

문속, 혁선과 잠깐 실랑이하다 결국 결심한 듯 예약을 한다.

노래방 기기 앞에 수줍게 선 문속.

사람들, 관심 없이 서로 잔 채우다 전주가 나오자 환호성을 지른다.

(E) BGM <위아래> - EXID

문속 (사람들 반응에 살짝 웃지만, 과한 긴장에 정작 본인은 흥이 나지 않고) 위아래... 위위아래... (국어책 읽는) 난 몰라 순진한 척하는 네 동공 (호흡마저 달리는) 날 네 맘대로 들었다가는 놓고...

사람들, 이내 지루해진 표정들이고 자기네들끼리 건배 타임을 가진다.

정팀장 저런 청승. 쟀 뵈 해도 저렇게 구질구질하니.

지애, 사람들 반응에 대만족이고.

혁선은 괜한 일을 벌인 듯해 본인이 더 어쩔 줄 몰라 한다.

문숙 (사람들 분위기에 더 주눅이 드는) 아슬아슬하게 스치지 말고 너어어 언... 그만 좀 건드려 건드려 애매하게 건드려 너어언... 위...

뚝 끊기는 음악. 사람들 갑작스런 상황에 문숙 쪽을 보고.
일순 당황하는 문숙, 무슨 일인가 싶은데.

지애 (리모컨을 들고 있는) 어머, 미안해 문숙! 예약을 누른다는 게 그만... (서두르는 척) 다시 예약해줄게.

문숙 (괜히 본인이 더 미안해서, 들어오며 손사래 치는) 아냐 아냐.

지애 (아쉬운 척, 리모컨 내려두면서) 미안...

어색해진 분위기. 곧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풍 전주.

지애 어머! 이거 도팀장님 노래 아니에요? (쩍짜게 마이크 가져대며)

지점장 그래. 분위기 다시 살려봐!

도팀장 그림 (일어나서 행사 톤으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사람들, 다시 환호성을 지르고, 문숙, 착잡한데.

지애, 회심의 미소로 도팀장을 따라 나서 탬버린을 흔든다.

다들 떠났는데, 문숙, 허탈한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

그때, 문숙 시선이 아무렇게나 의자에 널브러진 탬버린으로 간다.

문숙, 잠시 보다, 가만히 그 탬버린을 양손에 쥐어본다.

S#19. 탬버린 학원 / 상담실(낮)

데스크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문숙과 미스리.

문숙 네? 사십팔만 원이요?

미스리 이게 개인 일대일 레슨이라 일반 클래스보단 좀 가격이 나가긴 하죠.

문숙 (망설이는) ...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미스리 솔직히 대단한 기술을 배운다기보단, 자신감을 배워가는 거죠.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거란 일종의 확신! 그것을 가깝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해주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문숙 ... 확신...

미스리 그래도 희망적인 건, 회식 자리에서의 능력이 유효한 나라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문숙 ...

미스리 다행으로 생각하세요(웃는).

문숙 ... (따라 씩씩하게 웃곤).

S#20. 탬버린 학원 / 연습실(낮)

문숙 황당하고도 한심한 얼굴을 하고선 무언가를 보고 있다.

대로, 쓸쓸한 홀아비처럼 덩그러니 연습실 바닥에 앉아,

신문을 깔고 발톱을 꺾고 있다.

기괴한 모습에 인상을 찡그리는 문숙.

그제야 문숙의 존재를 인식하고 보는 대로.

문숙, 무척이나 의욕이 없는 얼굴이 되는.

대로, 그 역시나 무척이나 의욕이 없는 표정,

한 손에 혈겁게 쥔 탬버린은 금방이라도 그의 손을 탈출해 바닥을 뒹굴 것만 같다. 문숙, 저 사람이 뭘 가르칠까 싶어, 뼈뺏하게 서서 본다.

대로 탬버린. (들어 보이며) 이 탬버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

문숙 (다짜고짜 반말에 좀 빈정 상한) 없는데요.

대로 아냐. 하나쯤은 있을 거야. 지난 인생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문숙 (E, 저 사람 뭐야 보다가) 탬버린이라... 밑반찬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대로 뭐. 그 정도 생각하겠지. 트라이앵글과 캐스터네츠의 사촌쯤 되는 그런 악기. 하지만 성인이 돼서 만난 이 탬버린은 말야, 치고 말고 문제의 악기가 아니란 말씀이야. (하는데)

문숙 어서 수업이나 시작해주세요.

대로 ...

문숙 (미심쩍어) 근데 탬버린은 칠 줄 아세요? 그냥 노래방에서 흔드는 정도면서 날로 드시려고 (하는데)

대로, 전혀 개의치 않고 천천히 손목을 돌려 좌우로 탬버린을 흔드는가 싶더니, 이내 가볍게 원형 탬버린을 휘휘 돌려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오른손으로 리듬을 타더니, 왼손 앞뒷면을 이용해 매끄럽게 탬버린 라인을 훑으며 짧지만 강렬한 환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건 바로! 고수의 손놀림이다!!!

일순 홀린 듯 휘둥그레진 문숙, 바로 겸손한 눈빛과 한곳으로 모은 두 손, 짝다리를 재빨리 거두고 곳곳이 모아 선다.

대로, 이내 탬버린을 착! 마무리 동작까지 깔끔한 대로.

대로 일단 탬버린 춤을 배우기 전, 이런 말을 꼭 묻고 싶군.

문숙 ?

대로 탬버린이 창피한가?

문숙 안 창피하진 않죠.

대로 근데 왜 여기까지 왔나.

문숙 살고 싶어서요.

대로 ?

문숙 (악이 느껴진다) 정말 살고 싶어요. 이런 탬버린 같은 걸 들어서라도 말이죠...

대로 (본다)

문숙 (굳은 의지, 본다) ...

대로 탬버린 같은 거라고 말하지 마라. 탬버린은 죄가 없다. 이것도 엄연히 춤, 다시 말해 무용(舞踊)이란 말이다! 기억해. 허접한 춤은 없다. 허접한 댄서만 있을 뿐!

문숙 !

대로 이것이 탬버린 댄스의 시작이다!

S#21. 몽타주

연습실.

본격적으로 대로에게 기본적인 탬버린 스냅을 배우는 문숙, 어설피고.

격하게 흔들다가 탬버린이 날아가서 요란하게 떨어지기도.

대로, “잘 잡으라고. 새끼를 잘 받쳐!” 하고 문숙의 새끼손가락을 탬버린 밑에 단단히 고정해주고.

이번엔 스텝이 꼬여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문숙.

대로, 답답함에 고개 절레절레하고.

객장.

한 손으로 능숙하게 송금 내역 파일 컴퓨터로 작업을 하며,
데스크 밑에선 악력기로 다른 한 손의 힘을 키우고 있는 문숙.
빠른 속도로 악력기를 쥐었다 폈다 하는 손.

연습실.

대로, 공중으로 띄운 탬버린을 매트릭스 장면처럼 한 번 몸을 뒤로 젖혀 가볍게
한 바퀴 돈 뒤, 노련하게 탁 잡는다.
문숙, 따라서 탬버린을 공중에 띄우고, 몸을 뒤로 젖혀보지만 그대로 나자빠지
고, 이어 띄웠던 탬버린이 머리 위로 우당탕 떨어진다.
한숨을 쉬는 대로.

지하철.

이어폰을 꽂은 문숙, 노래의 리듬을 세면서, 솔더백을 탬버린 삼아 흔들어보려
다 옆 남자 엉덩이를 치고 만다.
남자, 변태인 줄 알고 이상하게 문숙을 쳐다보는.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문숙, 몇 번이건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고시원.

거울을 보고 외운 동작대로 탬버린을 찰찰 흔들어보는.
동작에 심취해 과감하게 팔을 뻗어보지만 좁은 폭 때문에 손을 벽에 찰는.
그 바람에 문숙의 발등을 찌고 요란하게 바닥을 구르는 탬버린.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에 격한 벽 노크를 하는 옆방.
발의 고통에 방안을 갹갹이 발로 팔팔 댄던 문숙, 행여나 소리라도 지를까 봐

입을 애써 두 손으로 막는다.

연습실.

연속 장면으로.
얼추 그럴싸하게 공중으로 탬버린을 던지고, (매트릭스 꺾임) 한 바퀴 돌아 탬
버린을 집으려는데 잡으려는 손보다 더 빨리 떨어진 탬버린. 허망한 문숙.
다시 도전하는 문숙, 킷킷.
턴 하다가 다리가 꼬여 주저앉는. 역시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탬버린.
과감히 돌다가 잡긴 잡았는데 뒤로 팔 꺾여 잡은 탬버린.
생각보다 높이 던진 탬버린 “어~어어~”하며 피구공 잡듯 (앵글에선 문숙은 보
이지 않다가, 탬버린을 따라 우다다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 나
타난다) 달려 나가 탬버린을 겨우 잡는 문숙,
그래도 잡았다는 뿌듯함에 씨익 웃고.
대로, 재 뭔가 싶어, “허” 헛웃음 나오고.

객장.

퇴근 분위기의 객장.
문숙 데스크 위 탁상달력 클로즈업.
빨간 동그라미 그려진 ‘회식! D-day!’라 적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문숙,
슬며시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탬버린을 남들 모르게 꺼내려다,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회식은 다음에 합시다!”하고 퇴근하는 지점장.
다행이다 싶은 얼굴의 사람들, “내일 봐.” 하고 환한 얼굴로 객장을 나가고.
내심 회식을 기대했던 문숙, 탬버린 서랍에 도로 넣어두곤 실망한 표정이다.

연습실.

발전한 모습의 문숙, 조금은 노련하게 탬버린을 들고 웨이브 동작을 한다. 대로,

“좀 더 좀 더”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문숙을 유도한다.

S#22. 고깃집(밤)

한데 모여 건배를 하는 사람들. 건배를 마치고 시원하게 들이켜는 사람들. 하지만 문숙 홀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다.

정장 차림에 앞치마를 한 혁선은 간간이 땀을 닦으며 고기 굽기 바쁘다.

그러든 말든 아무렇지 않게 먹기 바쁜 사람들.

도팀장 요즘 같은 때 그렇게 큰 금액 예치가 쉽지 않은데, 지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한 잔 따르는)

지애 (지점장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역시 지점장님이세요!

지점장 (기분 좋아 가벼운 손사래) 그 정도 가지고 뭘...

문숙 (끼어드려 하는) 저, 지점...

이대리 (질세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도라뇨. 지점장님은 가끔 겸손이 지나치셔. 안 그래요?

정팀장 (그저 지켜보고 웃는)

문숙 (다시 시도해보는) 그러...

도팀장 그렇지! (애교스럽게) 우리 지점장님 아니었음 우리 지점 어찌쓰까냥~~ (사람들 웃으면, 일어서며) 우리 지점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우리 박만식 지점장님의 노고에 충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건배!!

사람들, “건배!!!”를 외치며, 즐겁게 들이켜는.

문숙, 결국 입도 떼지 못한 채, 시무룩해져 잔만 연거푸 들이켈다.

S#23. 노래방(밤)

노래 부르는 지점장을 중심으로 사람들, 서로 지점장 분위기 맞추기 바쁘다.

문숙, 틈새를 노려보지만 다른 사람들로 인해 끼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탬버린을 찾아보지만 이미 지애 두 손에 다 들린 탬버린.

절망적인데...

지점장 (노래 끊는, 마이크를 대고) 우리 지점 이번 VIP 유치에 크게 애써준 사람이 있어요. (앉아 있는 정팀장을 가리키며) 우리 정팀장!!

지점장, 나오라는 손짓을 하고.

정팀장,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손사래를 치지만 사람들, “정팀장님!”을 외치며 앞으로 끈다. 그제야 못이기는 척 앞으로 나오는 정팀장.

정팀장 (혁선이 마이크 가져다대면, 무심한 듯) 삼공일이.

사람들, 환호성을 지른다.

지애, 탬버린을 의자에 던져놓으면,

이때다 싶어 탬버린 두 개를 모두 잡는 문숙.

인서트. <분홍 립스틱> 화면에 뜬다.

정팀장, 수줍게 노래를 시작하면 사람들, 환호나 울동을 함께한다.

사람들 호응에 기분 좋게 노래 부르던 정팀장,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엇박자 탬버린 소리에, 거슬린 듯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보면, 슬그머니 무리에 다가가, 노래 마디마디 끝 탬버린을 나름 추임새 맞춰

흔들고 있는 문숙인데.

문숙, 홀로 취해서, 노래가 고조될수록 더 최선을 다해, 부서져라 탬버린 제 몸
에 여기저기 두들기며 리듬을 맞추고!

사람들, 탬버린 소리 무시하고 애써 정팀장 분위기에 맞추려 한다.

핏대 세워 하이라이트를 부르는 정팀장!

댄스와 함께 더 오버스럽게 흔들고 나서는 문숙!!

정팀장, 최대한 목소리를 올려보지만, 결국 문숙 탬버린 소리에 묻히면!!!

정팀장 (마이크를 내던지고, 문숙 앞으로 다가가, 내지르듯이) 야~~~~앗!!!

문숙, 일순 정팀장의 반응에 얼어 탬버린을 놓친다.

사람들, 일촉즉발의 상황에 들을 번갈아가며 지켜보고 있고.

정팀장 (폭발한) 너 내 안티니?! 즐기자고 온 자리마저도 그렇게 청승 떨어야
겠어? 어?!!! (한 대 칠 기세로 노려보다, 그대로 나가버린다)

문숙 ... (면목 없어 제자리에 얼굴을 푹 숙인 채)

도팀장 어이, 정팀장! (잡지 못하고 괜히)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지점
장님도 계신데. 저저 성격하곤... (이대리 잠시 눈치 보다가, 정팀장
따라 나가자) 나 참... (하곤 지점장 얼굴 살피는)

김계장과 지애, 문숙 모른 척 외면하고, 지점장 눈치만 보는데.

지점장 (불편해서, 괜히 헛기침) ㅎㅎ. 거 즐겁자고 온 거를... 큼. (일어나서)
분위기도 다 뭐 그렇고... 내일도 일찍 출근들 해야 하니까, 오늘은 이
쯤에서 해산들 합시다(일어나 나가는)!

사람들, 기다렸다는 듯이 각자 가방, 외투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나간다.

혁선,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차마 어찌 도와주지 못하고 나가는.

문숙은 그 자리에 선 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데...

S#24. 탬버린 학원(밤)

수업을 모두 마친 학원. 대로, 각 연습실 불을 끄고 퇴근하려는데.

연습실 저쪽 구석 무릎에 고개 파묻고 앉아 있는 문숙.

대로 (놀라 뒷걸음질 치고) 아이쿠, 놀래라!

문숙 (눈물범벅 된 채 그제야 스르르 고개 드는, 원망스런) 다 소용없었어
요. 실전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고요!

대로 (안타깝고, 보는)

S#25. 몽타주. 문숙의 심기일전

지하철 역.

출근길 인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문숙.

대로(E) 분명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

끼어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든 밀쳐 들어가려 하지만 튕겨 나오는 문
숙. 달히는 문과 동시에 달히는 스크린 도어. 허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로(E) 밤 문화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지. 다 지가 주인공이 되려니 까 일을 그르치는 거야.

객장.

고객을 응대 중인 문숙. 친절히 설명하고 사인을 받는.

그 와중에 창구에서는 데스크 밑으로 외운 스텝을 연습하고 있는 발.

대로(E) 역할은 백업이야. 하지만 어설픈 백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고시원.

작은 TV로 음악 프로를 보며 걸 그룹 댄스와 탬버린을 접목시키고 있는 문숙.

저도 모르게 흥에 겨워 탬버린을 흔들면 어김없이 벽 노크 울리고.

벽을 보고 일순 짜리는 문숙, 연신 주먹감자 해보이는.

S#26. 연습실(밤)

문숙, 탬버린을 치다 아픈 듯 팔을 걷어 보면 여기저기 멍이 든.

하지만 참고 소매를 내린다.

대로, (E) 가요, 트로트 교차해서 틀면 문숙, 순식간에 동작 바꾸어 (랜덤 플레

이 같이) 탬버린 춤을 추는.

대로(E) 짜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비장한 대로와 문숙, 둘 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마주 보고 선 얼굴. 클로즈업.

대로 (문숙을 뚫어져라 보며) 잊지 마. 조연의 지능적인 주연화... 그게 포인트라고!!!

문숙 (명심하겠다는 듯, 깊게 한 번 끄덕여 보이는)!

두 사람 멀어지면서, 두 사람 모습 풀샷으로 잡히면.

대로 그리고 믿어! (날아갈 듯 팔을 천장을 향해 쪽 뺨어 탬버린을 공중에 올려 보이며) 오문숙에겐 이 탬버린의 신이 함께할 거니깐!

절실한 얼굴의 문숙, 공중에서 떨어지는 LED 탬버린, 그녀의 손에 쥐어지는.

우아하게 돌린 손목 스냅 한 번에 탬버린은 화려한 형광 빛을 낸다.

S#27. 고시원(밤)

책장 한편 레이스 깔개 위에 모셔진 탬버린.

그 탬버린 앞에 무릎 꿇은 문숙, 친절한 금자씨 컨셉으로 십자가 보듯 탬버린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양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S#28. 은행 / 복도 일각(낮)

지나다 마주친 정팀장, 문숙을 보곤 상당히 불편한 표정이고.

문숙, 죄인처럼 저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시선을 피한다.

S#29. 은행 / 객장(낮)

입구에 선 혁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띠를 매고 영업 시작을 기다리는.
이대리, 김계장, 지애, 그 모습 보며 얘기 중이다.

이대리 혁선 씨 카드 백 장 벌써 해왔다는데?

지애 예?! 정말요?!!

조용히 듣고 있던 문숙도 꽤 놀란 얼굴이 된다.

김계장 인턴이 한 달 만에? 작정을 했네, 했어.

이대리 듣기론 가족들 주거래 은행도 가람은행으로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

지애 (혁선 한 번 흘기고) 저렇게 인턴까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대리 그래 긴장해. 막말로 재를 정직 시키겠다 하면 뭐 뽐족한 수 있어?

대로(E)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흔들려선 안 돼. 괜히 보이지 않는 공포로 비틀거렸다간, 만만했던 파도에도 잡아먹히고 말 거라고.

문숙, 초조한 얼굴이다 이내 다시 업무 준비에 집중하려 한다.

S#30. 노래방(밤)

지애, 앞에서 깜찍한 동작과 함께, 최선을 다해 어필하는.

(E) BGM <Cheer Up> - 트와이스

지애 (동작이 전보다 더 커지고 과감해졌다, 노래 말미) 내가 널 좋아하

는 맘 모르게 Just get it together 우리 마포지점 치얼업~~!!! (짱긋, 포즈)

사람들, 지애의 센스에 박수 쏟아져 나오고.

지점장 지애 씨는 어디서 시술받고 와? 지애 양이 한 곡 땡기면 활기가 넘쳐.

도팀장 우리 지점 비타민이라니깐~~~ 과즙미 팡팡이야, 지애 씨!

흡족한 표정으로, 지애 곱게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면.

그 사이 문숙이 앞으로 나가자,

지애 (옆으로 지나치며, 시큰둥하게) 문숙이도 뭐 한 곡 부르게?

문숙 ...

도팀장 그래. 뭐 문숙 씨도 한 곡 부를 수 있지. 쉬어가는 코너,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면 사람들 와하하~~ 웃는다)

문숙, 긴장해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심호흡 한 번 하고 탬버린을 힘껏 움켜쥐는.

기기에 번호를 찍는다. ‘시작’을 누르면, 흥겨운 간주 시작된다.

(E) BGM <무조건> - 박상철

움직이는 문숙, 최대한 용기를 내어 소심하게 손발을 뻗는다.

사람들 일동, 함께 건배하려다가, 문숙의 모습 보고 얼은.

외운 동작 복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문숙의 심각한 얼굴 위로.

플래시백. 연습실

대로 (뚱어지게 카메라 보는) 내가 탬버린인지, 탬버린이 난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 물아일체 상태가 되는 것.

현재. 문숙의 뻘어나가는 왼손, 이내 뻘는 오른손 박력 있게 치고 나간다.

더 물입을 하는 문숙, 손발은 유연해지고 춤은 자연스러워진다.

대로(E) 짜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이젠 정말 노래와 하나 된 느낌의 문숙, 절정에 이르러 접시 돌리는 서커스 단
원처럼 탬버린을 공중에 날렵하게 던진다.

탬버린이 화려한 형광 빛을 내는 사이, 문숙, 그루브 있게 한 바퀴 돌면.

탁! 다시 탬버린이 문숙의 손에 잡히며, 현란한 문숙의 탬버린 쇼가 시작된다!

기립한 은행 사람들, 같이 흥이 나 들썩인다.

정팀장만이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몇몇은 간간이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지점장, 도팀장, 유난히 신이 나 문숙 곁에서 무아지경 댄스 실력을 보이고.

사람들 포복절도에, 지켜보던 혁선 역시 즐거워 환호성을 지른다.

가수의 목소리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오버랩 되며 지점장 목소리로 입혀지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지점장의 노래에 자
연스럽게 사이드로 빠지는 문숙, 그 옆에서 부채춤의 부채를 다루듯 탬버린을
자유자재로 돌리고 굴리며 병풍 역할을 충실하게 열연하는.

그렇게 노래는 흘러 흘러 끝을 향해 달려간다.

짜짜라~짜라짜라~~ 째째!!

척! 절도 있게 고개를 천장으로 쳐들고 눈을 감는 문숙.

잠시 정적이 공기를 휘감는다.

형형색색 사이키 조명 빛이 문숙 얼굴 위로 쏟아지는데... 화려함 그 자체다.

지애, 이내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이 된.

정팀장, 상황에 못마땅한 표정이다.

문숙, 고개 세워 눈을 떠 보면 사람들,

자신을 향해 엄청난 환호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엄지척을 해 보이고.

지점장, 흐뭇하게 보며 수고의 의미로 어깨를 토닥거린다.

그 모습에 서서히 번져나가는 미소,

문숙의 얼굴은 모든 이가 드러날 정도로 함박웃음이 된다. F.O.

S#31. 객장(낮)

사람들, 각자 창구에 앉아 업무 준비를 하고.

환한 얼굴의 문숙, 출근하는 지애를 보고 인사하려 하는데.

지애, 문숙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창구에 착석한다. 머쓱해진 문숙.

지점장, 객장으로 들어온다.

지점장 굿모닝! 오늘 따로 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바일 계좌 등록
실적 저조한 사람들 뭐야. 빨리빨리 좀 하라고. 신규 앱 설치도 오는
고객마다 홍보 좀 많이 하고. 어떻게 계약직인 오문숙 씨보다 못해.

이대리 (비교에 못마땅하고, 김계장 보면)

김계장 (어깨 으쓱거리려 보는)

지점장 문숙 씨는 스펙도, 일도 굿굿! 딱 우리가 생각하던 식구야 그치?

도팀장 문숙 씨야 뭐 나무랄 데 있나요. 항상 열심히죠.

지애 (흘깃 문숙을 노려본다) ...

지점장 (문숙에게 살갑게) 수고해요.

문숙 (고맙지만, 난감한) ...

S#32. 화장실(낮)

서둘러 칸에 들어가는 문숙.

문이 닫히면, 잠시 정지 상태이다가, 기쁨에 벅찬 얼굴이 되더니.

음소거로 “예스! 예스!!” 두 손을 파이팅 해본다.

문숙 (잠시 문에 기대어, 두 손 포개어 가슴에 얹고) 딱... 우리가 생각하던 식구래~ (신난) 머지않았어, 오문숙!!

S#33. 복도 일각(낮)

객장으로 향하던 문숙, 신이 나서 더블 스텝을 밟으며 객장으로 향하는데.

그때 마침 도팀장과 마주친다. 머쓱해진 문숙, 황급히 스텝을 멈추고.

도팀장 문숙 씨 여기 있었네.

문숙 ?

도팀장 지점장님 호출이야.

문숙 지점장님이요?

S#34. 지점장실(낮)

데스크에 앉아 있는 지점장, 도팀장과 환한 얼굴로.

도통 모르겠단 얼굴로 서 있는 문숙.

지점장 (문숙 보며) 회식 때 기가 막혔어! 오문숙 씨.

문숙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점장 오늘 업무 후 뭐하나?

문숙 뭐 딱히...

지점장 도팀장하고 같이 가주었으면 하는 데가 있는데.

문숙 (도팀장 보면) 어딜...?

도팀장 (아는 눈치고, 웃어 보이는) 문숙 씨 이제 우리 식구로 생각하니깐.

문숙 ... ?

S#35. 림싸롱 입구(밤)

입구를 들어가려는 지점장, 도팀장.

한편 따라오긴 했지만 간판을 보고 걸음을 멈추는 문숙.

지점장 문숙 씨, 뭐해? 안 들어오고.

문숙 지점장님... (망설이는) 여기는...

지점장 (대수롭지 않게) 맞아. 술집. 왜?

문숙 아니... 전 이런 텐 줄 모르고...

도팀장 걱정 마. 술은 다른 언니들이 따를 거야. 어서 들어와. (하고 들어가는)

문숙 ...

지점장(E) 어이구, 김사장님!

S#36. 룬싸롱(밤)

지점장, 환하게 웃으며 방안으로 들어서면 뒤따라 도팀장, 문숙 들어온다.

지점장의 VIP 고객들은 여종업원들과 뒤섞여 앉아 술자리 중이다.

지점장의 VIP 고객들, 서류가방 든 문숙이 들어오자 뭔가 싶어 보고.

V고객1 어이구, 박점장! 왜 이리 늦었어? 우리끼리 시작하는 줄 알았네.

지점장 (너스레) 고객 돈님을 정성을 다해 굴리고 오다 보니. 이 친구는 아시죠? 도팀장(도팀장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리고 이 친구...

V고객2 (문숙 뺨히 보며) 행원 중 중 (얼굴을 손으로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갖춰진 친구 없었어? 분위기 살리려면 좀 알아서 초이스 했어야지.

V고객1 그러게 말이야. 박점장 우리 취향 너무 무시하네.

지점장 (도팀장에게 퍽짓으로 사인 보내면)

도팀장 (척, 사인 읽고, 종업원에게) 야, 우리 언니 짐 좀 들어드려라.

한 여종업원, 문숙 손에 들린 서류가방을 받아들고.

도팀장, 그 사이 문숙의 빈 양손에 재빨리 탬버린을 쥐어준다.

문숙, 놀라고 당혹스러워 지점장과 도팀장을 뺨히 보고.

지점장, 한 번 깊게 끄덕여 보이면 더 난감해지는 문숙이다.

V고객1 뭘 재주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 한번 해봐.

V고객2 (지점장에게) 어이 박점장. 분위기 못 띄우면 알지? 우리 거래건 뭐건 없어.

여자애들이나 더 들여보내줄 것이지 괜한 모험하는 거 아냐?

도팀장 일단 보십시오! (하고 선곡 번호를 누르면)

요란스럽게 시작하는 <밤이면 밤마다>.

문숙, 탬버린을 올리지도 못한 채 어리둥절해 있고, 사람들 뭔가 싶어 보는.

도팀장 (낮게) 오문숙 씨! 회식 때처럼 흔들어.

문숙 (그대로 가만히 있는) ...

도팀장 (난감해져, 낮게) 문숙 씨... 얼른...

지점장 (인상을 쓰며, 제 손 흔들어 보이는) 뭐해! 흔들어 흔들라고!!

노래는 흐르고. 문숙, 갈등이다.

사람들, “에헤이”, “뭘야” 하는 탄식소리 나오고.

V고객1 박점장, 뭐하자는 거야. 재 내보내!

지점장, 안 되겠는지 문숙에게 다가가.

지점장 (낮고, 차갑게) 기회를 쥐도 못 먹나? 그래, 계약직으로 평생 그렇게 쪽 굴러먹으라고.

문숙 (충격이고)!

플래시백

미스리 그래도 희망적인 건, 회식자리에서의 능력이 유효한 나라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문숙 ...

미스리 다행으로 생각하세요(웃는) .

지점장, 험상궂게 얼굴이 일그러져 문숙을 잠시 본다.

문숙, 슬픈 눈으로 지점장의 싸늘한 시선 마주한 위로.

이대리(E) 혁신 씨 카드 백 장 벌써 해왔다는데? 막말로 재를 정직 시키겠다 하면 뭐 표족한 수 있어?

도팀장, 분위기 살피곤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데.

문숙 마이크 잡으세요.

도팀장 (돌아보곤) 영?

문숙 마이크 잡으시라고요!

고객들, 어느새 여종업원들과 무아지경 댄스에 심취해 있고.

쥐볼놀이 강통처럼 공중을 후두둑 쌍방으로 돌아가는 탬버린.

신내림 받는 무당처럼 룸 안을 방방 뛰어가며 현란한 탬버린 춤사위를 보이는

문숙, 웃어 보인다.

지점장 (고객들의 모습에 본인이 더 흥분 해서 선곡하는) 자, 이번엔 <땡벌> 갑니다!!

고객들, 환호성을 지르며 이어지는 반주에 더 신이 난.

기계처럼 동작을 바꾸는 문숙, 그들과 같이 동화돼 보려 미소 짓는.

S#37. 고시원(아침)

문숙, 지난 밤 정장 차림 그대로 침대에 고꾸라져 있다.

뒤척이던 문숙, 슬며시 눈을 떠보면 날이 밝았다.

문숙, 머리가 하얘지며 시계를 본다. 7시! 놀라 눈이 커지고!

S#38. 객장(낮)

지점장을 중심으로 회의 중인 사람들.

조심스럽게 열리는 객장 뒷문으로 문숙 들어온다.

지점장 그래서 우리 지점 (문숙 보지만 모르는 척하고) 분기 실적이 타 지점에 비해 좋다 할 순 없는 상황이라...

문숙 (서둘러 들어가며, 낮게) 죄송합니다.

정팀장, 날카롭게 한 번 보는. 지애, 내심 고소하고.

회의는 끝나고 각자 창구로 흩어지는데.

정팀장, 문숙을 향해 객장 밖으로 손짓한다. 문숙, 긴장해서 따라가면.

S#39. 객장 밖 복도 일각(낮)

정팀장, 문숙 품에 결재서류 파일 탁 던지듯 안기는.

문숙, 받아들고 당황한다.

정팀장 문숙 씨, 간밤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진 모르겠는데 지각에... 아무리 그래도 본인 할 건 하고 삽시다?

문숙 ...

정팀장 누가 엑셀 파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래. PC 기본 교육도 안 받았어? 넘버링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문숙 죄송합니다. 다시 처리해 올리겠...

정팀장 (돌만 들리게, 낮은 소리로) 왜, 사람들이 문숙 씨~ 불러주니까 좋아?

문숙 (얼고) ...

정팀장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냥 웃긴 년이 되신 거라고요. 처신 똑바로 해.

문숙 (일순 무섭다 못해 섬뜩함이 느껴지는) !

정팀장 우리 은행 이번에 통장 디자인 바뀐 거 알지? 구 디자인 통장 다 분쇄하고 퇴근해요. 출근이 늦었음 퇴근도 늦춰져야지.

문숙 ...

S#40. 객장(밥)

퇴근시간이 임박한 객장 분위기.
 문숙의 얼굴은 체념한 표정인데.
 김계장, 연신 벽시계를 본다. 시재를 다시 계산해보나 금액이 맞지 않는 듯.

김계장 (허리 낮춰, 속삭이듯) 문숙 씨!

문숙 네, 계장님.

김계장 혹시 지금 현금 오만 원 있어?

문숙 아, 예. (서랍 속에서 지갑을 꺼내는)

김계장 (정팀장의 눈치를 살피는) 빌려줘. 오늘 빨리 가야 하는데 시재가 안 맞네.

문숙 (오만 원 건네는) 여기요.

김계장 (눈 찡긋하며) 고마워 문숙 씨. 갚을게.
 김계장, 재빨리 정산한 현찰에 오만 원을 섞어 태연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마침 퇴근하던 도팀장 문숙의 창구로 다가온다.

도팀장 문숙 씨.

문숙 네. 팀장님.

도팀장 내일 저녁시간 비워놔.

문숙 네?

도팀장 (간단히 탬버린 치는 시늬해 보이며 웃는) 이거.

문숙 또요?

도팀장 또라니, 같은 식구끼리. 알았지? 내일 저녁!

문숙 ...

그때, 객장 정리 후 지나가는 혁선을 잡아 세우는 도팀장.

도팀장 아, 혁선 씨!

혁선 네, 팀장님.

도팀장 어디서 그렇게 큰 건을 끌어왔어?

혁선 아, 대학 때 저희 담당 교수님께 좀 부탁드렸습니다. 마침 목돈 장기 투자나 예치할 곳이 필요하셨다 해서 제가. (으쓱하지만 겸손하게)

도팀장 그래. 자세 좋아! 지점장님도 이런 인턴은 처음이라시며 기대 크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지켜볼게. 힘든 거 있음 언제든 상의하고!

혁선 감사합니다!

깍듯이 목례하고 돌아서는 혁선의 뒷모습에 문숙, 무너지는 마음이다.

문숙 자리 밑 종이 박스를 가득 채운 이천 개 가량의 구 통장, 클로즈업.
깊은 한숨이 나오는 문숙.

S#41. 고시원(밤)

이미 시계는 새벽 1시가 넘었다.
문숙, 엑셀로 실적표 작성을 수정 중인.
특. 문숙 얼굴에서 뭔가가 떨어진 걸 확인한다. 코피다.
다급하게 휴지를 집어 코를 막는.

S#42. 식당(낮)

계산하러 입구로 나온 정팀장, 이대리, 김계장, 문숙.
계산대 옆. <5000원 이하는 가급적 현금결제 부탁드립니다>
문숙, 무심결에 지갑을 열어보면 카드뿐이다.
정팀장, 이대리 계산 마치고 나가려는데.

문숙 (김계장에게) 계장님. 저기 오만 원...
김계장 (까먹은, 무슨 얘기가 싶어) 오만원? 아... 그거(지갑을 열다가).
이대리 문숙 씨한테 돈 빌렸어?
문숙 (무의식적으로) 아, 예. 저번에 시재가 안 맞는다 하셔서 급하게...
정팀장 (나가려다 듣고, 예민해진) 무슨 말이야? 시재가 안 맞다니?
문숙 (아차 싶고) ...
김계장 (당황한) 예... 저... 팀장님.....

정팀장 어디서 빠진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보고도 없이 퇴근해버려? 돈만 채
워놓고 가면 다야?

이대리 (난감한) ...

김계장 죄송합니다.

정팀장 김계장, 오후 근무 전에 나 좀 잠깐 봐. (하고 나가버린다)

저도 모르게 죄인 신세가 된 문숙,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깊게 고개 숙이는 김계장. 이대리, 원망스럽게 문숙을 한 번 보고.

S#43. 객장(낮)

고객5, 문숙에게 따지듯 얘기하는 중이다.

고객5 아니, 가입할 땐 바로 할인된다 해놓곤 이제 와서 왜 딴 소리야!
문숙 (참고, 카드 설명서 매뉴얼을 보여주며) 고객님의께서 혼동하신 게 아
닌가 싶습니다. 일정 날짜에 청구할인으로 (정확히 가리켜주는) ...
고객5 내가 (손가락으로) 저 여자한테 그렇게 들었다니깐.

가리키는 사람 보면 이대리다. 문숙, 곤란할 따름인데.

S#44. 탈의실(밤)

탈의하고 나가려는 이대리. 문숙, 조심스럽게 막아서는.

문숙 저... 대리님.
이대리 어, 문숙 씨.
문숙 저... 그 가람을엿카드 말예요. 그거... 청구할인이거든요.
이대리 ?
문숙 대리님한테 가입하신 분인데 컴플레인을 하셔서요.
이대리 (얼굴 굳어지며) 근데?
문숙 다음엔 꼭 헛갈리시지 않게 설명해주심 어떨까 해서요.
이대리 문숙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문숙 씨보다 여
 기서 몇 년을 더 일한 사람이야. 그런 나한테 지금 매뉴얼 지적질 하
 는 거 너무 오지랴 아니냐? 기가 막혀서.
문숙 이대리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대리 아까 김계장 일도 말야. 그동안 김계장한테도 억하심정 있었어? 그걸
 꼭 불같은 정팀장님 계신데 (비꼬듯) 얘.기.하.셨.어.야. 했어요?
문숙 ... 전 나가신 줄 알고...
이대리 문숙 씨나 매뉴얼대로 열심히 살아봐. (탐버린 흔드는 시늉) 이거나
 열심히 흔드시고. 허! 우릴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문을 쿵 닫고 나가
 버리는)
 문숙의 황당하고, 난감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는 얼굴 위로.

S#45. 객장(낮)

먼저 출근한 혁선이 밝은 얼굴로 객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이어 들어오는 도팀장. 깡뚫이 인사하는 혁선.

도팀장 오늘이 마지막이지?
혁선 (밝은 얼굴로) 네.
도팀장 고생 많았어. (태연하게, 객장 사람들을 보고, 손뼉 두 번 치는) 자, 오
 늘 그동안 고생한 혁선 씨 송별회 있으니깐 다들 빠지지 말고!
혁선 (진심이다, 미소 머금고) 뭘 송별회까지요. 이제 직접계 뿔지도... (하
 며 도팀장의 표정을 살피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진다)
 잠시, 침묵이 감도는 객장.
 불길한 마음의 문숙,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 혁선과 도팀장을 본다.

혁선(E) 씨발~! 인턴이 무슨 일회용이야!!

S#46. 호프(밤)

다른 테이블 사람들, 뭔가 구경난 듯 한곳을 향해 시선이 몰려 있다.
 무표정한 도팀장, 조용히 맥주잔을 들이켜고.
 그 바로 옆, 취기로 휘청대는 혁선, 가까스로 서서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문숙과 지애,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혁선을 말려보려 하지만 무리고.

혁선 (혀 약간 꼬인) 지점장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신다면서요. 원하는 인재
 상이라고 누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뭐니까! 그 말
 씬의 주인공인 지점장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도팀장 그
 저 돌부처처럼 가만히만 있자)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정팀장, 못 볼 것을 봤다는 얼굴로, 본인 핸드백을 챙겨서 홀연히 나간다.

도팀장 (못 견뎌) 애써준 건 알지만 노력이 부족한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혁선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는) 뭐... 뭐... 요...? 뭐가 부...부..죽해요?!

취기와 분노가 뒤섞여 숨을 할딱이는 혁선.
혁선을 말리는 문숙이지만 나 몰라라 하는 도팀장이 야속하고.

S#47. 거리(밤)

말없이 떨어져 걷는 문숙과 지애.

지애 (걸음 멈추고, 문숙 매섭게 보며) 나, 내버려지지 않을 거야.
문숙 (멈추고 같이 본다)?
지애 결과가 어떻든 일말의 동료의식 따윈 나에게 기대 말라고.
문숙 ...
지애 노력이 부족했던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 더 쏟아부을 거야.
문숙 ...
지애 ... (잠시 보다가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뜬다)
문숙 (걸어가는 지애 뒷모습 착잡하게 지켜보고 선) ...

S#48. 몽타주

룸싸롱. 땀머리를 들고 방방 뛰고 있는 문숙, 최선을 다해 웃고 있다.

객장. 땀이 온 구두를 양손에 들고 걸음을 서두르는 지애.
슬리퍼 신고 있던 도팀장과 지점장, 발 옆에 구두를 가지런히 놓는.

주점 앞. 도팀장, 문숙에게 차키를 던져주면. 황당해서 차키를 보는 문숙.

차 안. 뒷좌석에 술 취해 널브러진 VIP 고객, 뭐라 뭐라 소리친다.
운전석. 겁에 질려 운전 중인 문숙, 간간이 고객의 동태를 살핀다.

카페. 친구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카드 정보를 설명하는 지애.
친구들의 의심스런 표정을 읽고 눈치를 본다.

룸 안. 흐릿한 룸 불빛에 비춰 사인 된 가입서를 보고 미소 짓던 문숙.
갑자기 가입서 든 문숙의 손에 토하려는 고객. 문숙, 재빠른 손놀림으로 가입서를 사수하고, 차라리 제 가방을 고객의 얼굴에 가져다 댄다.
가방 안에 시원하게 토하는 고객, 일그러지는 얼굴의 문숙, 하지만 안전하게 되찾은 가입서에 안도한다.

S#49. 지하철 역(낮)

통화하며 뛰는 문숙. 가까스로 지하철 안에 들어왔다.

문숙 엄만 어찌다가.
영숙(F) 계단에서 구르셨어. 허리를 좀 크게 삐끗해서. 팔도 깰스했다야.
문숙 엄마도 참... 뼈도 약하신 분이... 주말에 언니 대신 가면 되지?
영숙(F) 일요일만 부탁해. 우리 시어머니 지방 가신다 해서 그날만 애들을 내

가 봐야 하거든.

문숙 (바쁘고, 계속 좌우로 밀치는 통에) 알았어. 일요일 봐.

S#50. 병실(낮)

정혜, 허리 보호대와 팔 깁스 한 채로 영숙이 떠먹여주는 식사를 하고 있다.

영숙, 다시 수저를 들고 밥 위에 찬을 올려 정혜 입에 가져간다.

정혜 바쁘면 오지 말라 하지.

영숙 두 딸 뒤서 뭐해. 이럴 때 부리지. (정혜 답답하게 보며) 이려고 화장실을 펴도 잘 가겠슈. 밥도 이렇게 떠먹여야 하는데.

정혜 (멀쩡한 손 들어보며, 웃는) 왼손 있잖아.

영숙 (그저 웃는) 어이구.

지점장(E) 오문숙 씨.

S#51. 은행 건물 입구(낮)

막 들어가려던 문숙, 보면. 지점장이다.

문숙 (깜뚱이 머리 숙여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지점장 어, 문숙 씨. 요즘 일은 할 만한가?

문숙 신경 써주신 덕분예요. 감사합니다.

지점장 내가 뭐 한 게 있나. 그나저나 문숙 씨 이번 주 주말 뭐하나?

문숙 네? 왜...

지점장 일요일 우리 장모님 칠순인데 문숙 씨 도움 좀 필요해서 말야.

문숙 일요일이요...

지점장 왜? 약속 있나?

문숙 그게... 아닙니다.

지점장 근데 말야. 축하를 좀 거리가 있는 데서 해서. 대구거든.

문숙 (놀라) 대구요?

지점장 괜찮겠지? 하긴 지방이어도 요즘 기차 타면 금방이니까.

문숙 아... (잠시 망설이다, 웃어 보이는) 그럼요.

S#52. 객장(낮)

고민에 빠진 문숙, 결국 안 되겠는지 고개를 젓는. 결심한 듯 일어난다.

S#53. 지점장실 앞(낮)

심호흡 한 번 하는 문숙, 옷매무새 가다듬고 노크를 한다.

“예.” 소리가 나자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는.

S#54. 지점장실(낮)

데스크에 앉아 있던 지점장, 문숙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는다.

그 모습에 벌써부터 미안한 마음이 드는 문숙인데.

문숙 ... 저... 지점장님...
지점장 ?
문숙 저.... 저기... (눈 질끈, 용기내서 빨리 뺏는) 죄송하지만 대구에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 걱정되는 문숙, 슬며시 한쪽 눈부터 떠보는데.

지점장 (사람 좋게 웃는) 괜찮아요 문숙 씨. 그게 뭐 힘든 말이야. 그날 파티 업체에서 사람 부르고 하니깐 문제없어.

문숙 (한시름 놓는) 정말요?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점장 감사는 뭘. 내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괜찮으니깐 가봐요.

문숙 (인사하고, 환하게) 감사합니다. 그럼(하고 돌아나가려는) ...

지점장 (문숙 뒤통수 대고) 지애 양 일요일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문숙 (나가려다 화들짝) !

지점장 아, 그리고 오문숙 씨!

문숙 (당황해서 돌아보면) 예.

지점장 제일 중요한 건 잊지 않았겠지?

지점장, 턱짓으로 가리키는 곳 보면 각 직원별 실적 현황판이다.

문숙은 오십 개 정도에 못 미치고, 지애는 칠십 개가량이 성사된 상태다.

지점장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한데, 타 지점 계약직하고 인턴들은 회사에 본인 의지들을 어필하느라 카드 백 장씩은 척척 해온다 하더라고. 예전에 혁신 씨는 인턴인데도 뭐 한 달 만에 채워 왔었고. 들었겠지만.
 (미소)

문숙 ...

S#55. 고시원(밤)

착잡한 얼굴의 문숙. 핸드폰을 들고 있다.

문숙 미안해 언니... 그렇게 됐어.

영숙(F)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매일도 아니고 그 하루 간병 나오라는 걸 못 오겠다는 거니? 딱 하루만이라고. 일요일만.

S#56. 병실(밤)

통화하는 영숙, 화가 난 표정이 되고.

정혜 (영숙에게 그러지 말라는, 가볍게 손사래) 바쁜 애한테 왜 그러니. (오히려 문숙이 걱정이다, 문숙 들리게 소리치는) 괜찮다. 나 혼자 잘 걸어 다니고 밥 잘 먹는다. 신경 쓰지 말고 일해!

S#57. 고시원(밤)

수화기 너머로 정혜와 영숙의 실랑이 소리가 들린다.

문숙, 마음이 먹먹해지고. 남은 한 손으로 마른세수를 한다.

영숙(F) 나쁜 기지배 같으니라고... 끊어.

문숙 언니!

영숙(F) 왜?!

문숙 저기... 저.. 말이야... 카드 하나 해줄래? 이번에 출시된 카트에 연회비도 없고... 형부도 카드 하나 더 있는 거 나쁘지 않잖아.

S#58. 병실(밤)

영숙 (기가 차서) 너... 제대로 미쳤구나. 이 와중에 카드 소리가 나오니?

S#59. 고시원(밤)

문숙 ...

S#60. 이벤트 홀(낮)

(E) 흥겨운 트로트 노래.

앞 무대에 선 정장 차림의 문숙, 최선을 다해서 탬버린을 흔들며 대는.

마주 보는 편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은 지점장네 가족, 친지들.

그 모습 보곤 웃어댄다.

문숙, 서류가방 들고 지점장네 가족 앞에 섰다.

지점장, 앉은 채로 “우리 직원”이라고 건성으로 소개한다.

문숙 (가방 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저, 그럼... 열차 시간이 거의 돼서...

지점장 그래, 문숙 씨.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내일 보자고.

가족1 그래도 그냥 보내든 섭하재. 기다려봐라. (하고 주머니를 뒤적여보는, 다른 가족들에게) 지폐 몇 장 쥐 보이소.

문숙 (뒷걸음질 치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족1, 멧에게 걷은 몇 장의 꾸깃한 만 원짜리 모아서 문숙 손에 쥐어준다.

문숙, 당혹스러워 지점장 한 번 보면.

지점장 괜찮아. 가져가.

문숙, 손에 들린 꾸깃한 만 원짜리 지폐들. 순간 자신의 모습 같아 비참하다.

문숙 (잠시 보다가) ... 고맙습니다... (웃어 보이는)

S#61. 병원 복도(밤)

늦은 밤. 무겁게 처진 어깨.

찰찰 소리(가방 안의 탬버린)를 내며 느릿 걸어가는 문숙의 뒷모습.

S#62. 병실 앞 + 병실 안(밤)

정혜 병실 앞에서 문 열길 망설이는 문숙.

그러다 문숙, 가방 주머니에 들어 있던 꾸깃거리는 만 원짜리들을 꺼낸다.

지폐들을 짹 짹 펴본다. 하지만 이미 구겨진 건 어쩔 수 없다.

한숨 한 번 내쉬곤 이내 지갑에서 있는 지폐들을 모조리 꺼낸다.

천 원짜리들은 도로 지갑에 넣고, 속아낸 만 원짜리들과 꾸깃한 만 원을 섞어 준비한 봉투에 담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숙.
그 시야에 곤히 잠든 엄마 얼굴... 깁스한 팔, 보호대를 감싼 허리 보이고.
문숙, 일순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지만 참고 다가간다.
그렇게 잠시 보던 문숙, 정혜 머리말에 봉투를 둔다.
얼마 시간이 지나... 닫히는 문 사이로 사라지는 문숙의 뒷모습.
기척에 눈을 뜬 정혜. “문숙이니?” 하지만 이미 닫혀 있는 병실 문.

S#63. 연습실(밤)

홀로 미친 듯이 연습하고 있는 문숙, 파이팅이 넘친다.
“하! 하!” 기합을 넣으며 일부러 더 자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S#64. 객장(낮)

영업 전 대기 상황. 이대리, 김계장 대화 중인.
“지점장 동기래지?” “은행의 이응 자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 “이미 오래전에 정직으로 낙점됐다는데 뭘.” “정말?” 하다가...
지애, 살갑게 그들에게 인사하지만 둘, 어색한 미소 보이고 각자 자리로 간다.
마침 지점장 들어오고, 뒤이어 누군가 따라 들어온다.

지점장 자, 오늘부터 정식직원으로 함께할 새로운 가족입니다. 한수민 씨!

문숙, 소리에 놀라 지점장을 보고. 지애, 역시 본다.
지점장 옆으로 한 여자, 모습을 드러내며 가볍게 목례를 한다.

수민 안녕하세요 한수민입니다. 은행 업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어색하게 웃는)

지애 (그 광경 기가 막히고, 시선 꽃힌 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내젓는다) ...

문숙 ...

이대리, 김계장, 서로 눈치 보며 돌아왔는데.
지애, 억울하고 치욕적인 듯 객장을 박차고 나간다.
사람들, 잠시 상황 보지만 다시 모르는 척 업무 준비를 한다.
문숙, 눈앞에 펼쳐진 상황 납득하기 힘들고...

지점장 (수민에게)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상황 쪽 돌아봐요. (문숙과 잠시 시선 마주치지만, 거두고 창구 하나를 가리키며) 수민 씨, 저기로.

문숙, 그 순간 도팀장 한 번 본다. 괜히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는 도팀장.
그리고 무관심한 정팀장, 한 번 잠시 눈빛이 부딪친다.
돌아오던 지점장, 문숙은 보지도 않고 지나친다. 그 뒷모습 쫓는 문숙의 시선.

S#65. 휴게실(낮)

문숙의 손에 음료수 쥐어주는 도팀장.

도팀장 할 말이 없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미안해 문숙 씨.

문숙 ...

도팀장 지점장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미안해하셔. 하필 죽고 못 사는 검사 동기 부탁이라 다른 방법이 없으셨던 거 같더라고. 가끔은 인사 발령 하나에 지점장님 목도 온전치 못하니까.

문숙 ...

도팀장 이번엔 어쩔 수 없었지만...
문숙 씨 지금처럼 애써준다면 무기계약직 정돈 지점장님께서 힘 좀 써보시겠다고. 그리고 지애 씨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내보낼 작정이 신가 봐.

문숙 ... (충격이고) 지애를요?

도팀장 (깊게 한 번 끄덕이고) ... 이런 상황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문숙 ?

도팀장 내일 퇴근 후에 약속 있나?

문숙 (힘이 빠진다) ...

도팀장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문숙 씨! 기운 내, 파이팅!!

문숙 ...

S#66. 고시원(밤)

탁 켜는 소리와 함께 몇 번 깜빡깜빡 거리더니 텅하고 켜지는 형광등.
무거운 서류가방에, 곳곳이 구겨진 정장 차림, 그리고 지친 얼굴의 문숙...
꼬르륵 하는 배. 문숙, 순간 서글퍼진다.

서류를 살펴보며 물도 없이 삶은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 문숙.
먹다 목이 메어 퉁퉁 거린다. 그때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E).

보면 얼마나. 물을 찾다 못 찾고 가슴팍을 두들기다가 전화를 받는다.

문숙 응 엄마. (콜록거리고) 왜 안 자고.

정혜(F) 응 그냥... 자려고 하는데 도통 잠은 안 오고 네 생각이 나서 말이다. 별일 없지?

문숙 (일순 콜록거림을 멈춘다. 두 눈에 차오르는 눈물) ...

정혜(F) 너 살기도 빠듯한 애가 된 돈까지 두고 갔어.

문숙 (홀쩍거림 참고) 얼마 된다고... 그깟 돈.

정혜(F) 얼마가 됐든 네가 준 돈이 그냥 돈이나.

문숙 (일순 숨이 턱 막힌다)

정혜(F) 그리고 그 가입서 한 스무 장 보내봐라. 엄마 주변 계모임하고 부부 동반 모임 가서 얘기해볼게.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지?

문숙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눈물. 메인 목에 객객댄다) ...

정혜(F) (기침 소리에) 어디 아픈 게야?

문숙 (폰 마이크를 막으며 꼭 참고) ... (혹여나 들릴까 애써 말을 끊어서 하며) 아냐. 지금 회식 중이거든. 고기 먹으러 왔는데 연기 때문에.

정혜(F) 바쁜데 전화했구나. 그래도 직원들이 너 이빠하는 갑다. 회식도 시켜 주고.

문숙 그럼... 이제 내가 안 필요한 곳이 없어.

정혜(F) 장하다 내 딸. 걱정 마, 이번엔 우리 딸 차례가 될 거야!

문숙 (이젠 한계다) ... 사람들이 나 찾는다. 미안한데 끊을게 엄마.

정혜(F) 그래. 술 다 받아 마시진 말고.

문숙 잔소리는... 알았어.

종료 버튼을 누른 문숙.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책상에 덩그러니 놓인 먹다만 고구마를 본다. 그리고 탬버린...

순간, 애써 참았던 것들이 왈칵 쏟아지는데...

문숙 아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아앙..... 엄마아아아아!!!

오열하는 문숙. 옆방의 벽 노크에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된 벽 노크에 더 크게, 더 서럽게 울어버리는 문숙 얼굴에서.

S#67. 주점(밥)

지점장, 수민에게 술도 따라주며 챙기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수민.
모든 것이 거슬리는 지애, 거나하게 취해 그 상황 지켜보고 있는데.
문숙, 말없이 맥주만 훌쩍이는.

지애 (벌떡 일어나며, 꽤 혀가 꼬여서, 큰소리로) 지점장님!

다들 놀라는 얼굴이 되어서. 도팀장, 부르던 노래를 황급히 멈춘다.

지애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본인 가슴팍을 치며) 일은 누가 하고 자리는 (수민을 노려보며) 누가 차지하고 말이죠!

정팀장 취했어, 지애 씨. (이대리에게 손짓하며) 말려.

지애 네. 저 취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렇게 내정해놓은 사람이 있었으면 말씀해주시죠. (내지르듯) 장난하시냐고오오오오요~!!

문숙 ...

수민, 표정 일그러지고. 지점장, 짜증난 얼굴이 된다.

이대리, 김계장, 말리려 하지만 “나 건드리지 마.” 하는 지애에게 더 다가서지 못하고. 도팀장, 그제야 분위기 파악하고 지애를 말린다.

도팀장 지애 씨,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하는데)

지애 니네가 뭘 알아! 버려지는 마음을!!

정팀장 (한숨 쉬고, 맥주 들어켜는) ...

지점장 (지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괜히 도팀장에게) 뭐해. 보내.

도팀장, “예”하고 지애 팔을 힘으로 끌어낸다. 이대리, 김계장 거기에 가세해서 지애의 짐과 겹옷을 챙겨 같이 입구로 향하고.

지점장 (수민의 눈치를 보는) 한수민 씨가 많이 놀랐겠네. 신입 환영인데 미안하게 됐어.

수민 ...

지점장 원래 능력 없는 애들이 꼭 끝이 저 모양이라니까. 안 그래?

정팀장 맞습니다.

지점장 (문숙을 향해) 내 도팀장에게도 전해 알고 있겠지만 문숙 씨도 지금 처럼만 하라고. 그럼 당장은 아니어도 기회는 온다고. 죽을 등 살 등 노력해봐. 하늘이 감복하지, 안 그래? 꼭 능력도 노력도 안 되는 것들이 남 탓, 세상 탓, 사회 구조 탓을 한다고. 지 탓을 하라고. 본인의 부족한 노력 탓을!

“노력”이란 말에 발끈하는 문숙, 일순 매서운 눈빛이 되어 지점장을 본다.
지점장, 잠시 문숙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끼곤, 누그러진다.

지점장 (괜히 머쓱해서) 우리 신입 노래 한 곡 해볼까?(리모컨 권하면)

수민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요.

지점장 그럼... (문숙을 보는데 분위기가 아니고) 내가 한 곡 하지.

(E) <무조건> 전주 깔리고.

지점장, 앞에 나가 홀로 애써 전주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며.

그때, 다시 들어오던 도팀장, 이대리, 김계장 상황 파악하고 지점장 곁으로 모여들어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친다.

도팀장, 지점장 눈치를 보고 더 오버해서 댄스를 보이다,

문숙 향해 두 손으로 오버스럽게 잡아당기는 시늉으로 나오라는.

문숙, 앞에 놓인 맥주잔 맥주를 한 번에 다 털어 마시곤,

빈 잔을 거칠게 테이블 위에 탁 놓는다.

이내 결심한 듯이 소파에 널브러진 탬버린을 집어든 문숙.

정팀장, 수민, 그런 문숙의 모습 아리송하고.

문숙, 사람들을 비집고 지점장 바로 옆에 서서, 최선을 다해 탬버린을 흔든다.

지점장, 그 모습을 보곤 안도감을 느끼며, 더 열창을 한다.

도팀장을 비롯한 사람들, 신이 나서 고성을 지르고 댄스 삼매경에 들어간다.

광기 서린 얼굴로 미친 듯이 탬버린을 흔들어 젖히는 문숙.

2절에 들어선 반주.

지점장, 막 노래 마지막 후렴에 들어가려는데 그때, 지점장을 밀치고 마이크를 잡는 문숙.

지점장, 잠시 황당해하다가, 분위기가 허허 하고 같이 박수를 치는데.

문숙, 노래라기보단 고성방가에 가깝고.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애써 맞추려드는.

문숙 지점장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지점장을 향한 (제스처) 니네 사랑은 특급사랑이야~~!! (하고 마이크 다시 지점장에)

지점장 (얼결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문숙 (다시 뺏고) 지점장이 부르던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아아~~!!

사람들 (하나 된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데)

문숙 (마무리되는 간주에 고향처럼 지르는) 야이 씨발 새끼들아~ 무조건 이 어딴냐~!!! 정신 차려라 이 새끼들아!!!

의미 없이 잠시 흐르는 노래 MR. 노래는 끝났고...

모든 사람들, 하던 동작 그대로 얼어 있다.

문숙, 얼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본다.

문숙 (답답해 미치는 얼굴로)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뭘 노력해야.. 뭘 또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줘라. 응? 알려달라고!!

그리곤 그들을 향해 내던지는 탬버린.

땅바닥에 떨어져 한동안 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추는.

문숙 이번엔... 니네 차례였다고. 끝없이 한 노력에 제대로 된 대답해줄... 너희 차례였다고! (악에 받쳐서) 차례를 지켜라, 줌!!

잠시 문숙의 두 눈 가득 고이는 눈물, 클로즈업.

곧 뒤를 돌아 자리를 뜨는 문숙의 뒷모습. F.O.

지애(E) 사십팔만 원이요?!

S#68. 탬버린 학원(낮)

미스리, 진지한 얼굴로 상담 중이다.

- 미스리** 이게 개인 일대일 레슨이라 가격이 좀 있죠.
지애 그만큼 효과는 있는 거예요?
미스리 솔직히 대단한 기술을 배운다기보단, 자신감을 배워가는 거죠. 나도 취업할 수 있다. 나도 승진할 수 있다. 뭐 그런 희망... 그런 확신을 가깝게 해주는 것! 우리가 해주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지애 ... 확신...
미스리 그래도 희망적인 건, 회식자리에서의 능력이 유효한 나라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지애 그러네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대로 (불쑥 나와서) 근데요... 실은요... (의미심장한) 다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애 ?

S#69. 오락실 앞(낮)

오락기의 두더지 머리를 망치로 두들기고 있는 문숙.
 신난다기보다는 전투적으로.
 게임이 끝난 후, 처연하게 오락기의 두더지 머리들을 만져보는 문숙.
 두더지 머리는 망치로 인해 닳고 일부는 까지기도 한.
 자신의 처지 같아 먹먹하기만 하고.
 그들을 두고 힘없이 걸어가는 문숙의 뒷모습. 두더지들 시선으로.

S#70. 저축은행 면접장(낮)

단정하게 입은 문숙이 앉아 있다. 긴장하기보단 담담하고 당찬 얼굴이다.

- 면접관1** 만약에 말입니다. 동료가 물에 빠져서 상사가 구하라고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문숙 씨?
문숙 (잠시 생각하는) 그렇다면...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접관2 (놀라서) 구하지 않는다고요?
문숙 예. 가다가 다리에 쥐라도 나면 어쩍니까. 절 구해줄 사람도 없는데.
 면접관들, 탄식과 함께 기가 찬 표정들이 된다.
면접관1 (심기가 불편해서, 비소) 오문숙 씨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면접관2 (형식적이다) 뭐. 특기는 있어요?
문숙 ...
면접관2 (마치려는) ... 그럼.. (하는데)
문숙 (나지막이) 탬버린...
면접관1 (안 들려서) 예?
문숙 (자신 없이 흐리는) 탬버린을...
면접관2 (답답해서) 크게 좀 말씀하세요.
문숙 탬버린을 줌... (카메라를 또렷하게 응시하며) 흔들 줄 압니다(하고, 문숙의 오묘한 얼굴 클로즈업 되어 정지).
 (E) BGM <연극이 끝난 후> - 샤프

S#71. 객장

빈 객장.

때 묻은 현금 계수기. 덩그러니 서 있는 ATM 기기들.

색이 바랜 키보드 숫자판.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객장의 벽시계.

문숙의 책상 위에 놓인 문숙의 끈이 달린 명찰.

클로즈업 되면 명찰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문숙의 얼굴.

그리고 살짝 열린 서랍, 그 속에 보관돼 있는 탬버린.

BGM 찾아들며... 탬버린, (E) 마치 숨을 쉬는 듯한 모션. F.O.

문숙(N)

오늘도 난, 내 구명조끼를 마련하는 중이다. 쥐가 난 다리에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처지지만, 그래도 믿고 있다. 나만의 해플날을. 조금만... 조금만 더... 그렇게 버텨줘. 그래서 널 여태 모시잖니!

미소 짓고 있지만 언뜻 보면 슬픈 표정의 문숙.

열심히 부딪치고 흔들리는 탬버린. 클로즈업.

끝.

S#72. 에필로그. 주점

사이키 조명 아래, 화려한 반짝이 자켓을 걸치고 나타난 대로.

대로 (마이크를 들고, 천연덕스럽게) 자, 동남아 순회공연을 가려다, 유턴한 그녀. 마포지점이 낳은 쓰~타! 마포지점의 쌍~큼이! 신들린 탬버린의 마술사, 미스 오를 소개합니다(하고 한 손을 뺏으면)!

타이밍에 맞춰 덜컥 열리는 문.

짜잔! 눈부신 반짝이 빨간 원피스를 입은 문숙이 등장한다.

짜잔! 손을 뺏어 올리면 LED 탬버린이 형광 빛의 고운 색을 내뿜는다.

다시 시작된 현란한 문숙이의 탬버린 쇼쇼쇼!!!

진정 신나는 움직임, 진정 즐거운 얼굴로, 탬버린 댄스를 추는 문숙이다.



작가 후기 김동경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본의 공감 부분이 감독님의 의견과 꽤나 일치했고 충분히 대본에서 표현하려는 메시지에 이해가 크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수정과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많이 기사화되고 드라마화되었던 소재였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피로감을 주지 않을지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많은 상의를 거쳤고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더 시청자들이 재밌게 몰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 해서 코믹스러운 버전으로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감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위험, 코믹에 의한 코믹이 되는 우려가 있는 탓에 이 작품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공감대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그리려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칫 무거울 거란 걱정이 덜했던 이유는 탬버린이란 소재가 녹아 있어서 무거운 메시지와는 밸런스가 맞을 거란 판단에 감독님, 제작진들이 공감해주신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테일에서 손을 본 부분은 스토리 맥락에선 적었고, 아무래도 볼거리 씬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 배우가 연기하고 그것을 화면에 담았을 때의 구도나 표현이 적절할지, 대본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만 화면상으로 같은 이해를 시청자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씬들을 다시 정정하고 배열을 달리 꾸렸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된 부분은 주인공 감정에 얼마나 빨리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재가 같은 시기에 나오면서 기존 작품들과 이 작품이 확연한 차별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극의 끝이 시청자가 흡족해할 결과인가 등이 역시 고민했던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잡았던 탬버린이란 소재가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라는 점이 익숙한 매력으로, 과연 주인공이 이 흔하디 흔한 탬버린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 라는 그녀의 예측할 수 없는 행보가 궁금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수정 작업에서는 “탬버린으로 그녀의 삶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도록!!”만을 명심하며 작품에 집중했습니다. 엔딩이 10개의 버전 이상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만족이 되지 않아 매일이 고민이었지만 결국 주인공의 심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 차츰 다음, 그다음, 또 그다음에서 조금은 나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독하게 매달려 보자(?)는 심정으로 작품에 임했습니다.

2017

오 펜

작 품 집

세탁소와 향수

박윤서

작의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사랑.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데 조건이나 이상형 따위가 무슨 소용일까.

제일 싫어하는 조건만 갖췄는데도 어느 순간 호감이 가고,

이상형과는 정반대인 사람에게도 마음을 뺏기는 게 사랑 아닌가?

프루스트 효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냄새를 통해 회상해내는 효과를 말한다.

프랑스의 문호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흥차에 적신 마들렌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처럼,

향기란 시각이나 청각, 다른 감각의 기억보다 훨씬 강하게 남기도 한다.

여기, 예민한 후각 때문에 마흔이 되도록 모태솔로를 고집하며

자신의 코에 꼭 맞는 냄새 이상형을 기다리는 세탁소 노총각과,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면 어린 시절 사고로 잃은 후각을 되찾을까 싶어

고향의 생선가게에 취직한 냄새 테러리스트 아가씨가 있다.

이 두 사람의 티격태격 알콩달콩 솔로 탈출기와 후각 회복기를 통해

소소하지만 훈훈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랑의 인연을 그려보고 싶다.

등장인물

조향수(40세, 남)

세탁소 운영. 개코보다 확실한 후각 천재. 취미는 향수 만들기.

모태솔로이지만 왕자병 증상 있음.

심두령(30세, 여)

생선가게 직원. 사고로 후각 능력 상실. 취미는 향수 모으기.

양옥점(80세, 여)

향수의 엄마. 그저 아들 장가보내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

장씨(50세, 남)

서평시장에서 화원 운영. 향수의 절친.

어사장(50세, 남)

서평시장에서 생선가게 운영. 두령 아버지의 지인.

그 외

어린 두령(15세), 젊은 향수(25세), 두령모, 두령부, 미진(20대 후반), 용구(30대 중반), 건어물상 주인, 손님1, 화장품 가게 직원1, 2, 한의사, 형사1, 2 등등.

줄거리

오늘도 열심히 동네 빨랫감을 수거해 오는 ‘향기 나는 세탁소’의 주인장 조향수.

한 번 냄새를 맡으면 무슨 얼룩인지 알아맞히고, 거기에 따른 자신만의 비법으로 얼룩 빼는 솜씨가 탁월하다. 예민한 코 덕에 세탁일은 순풍에 돛 단 듯 흘러가

지만, 웬만한 여자는 눈에, 아니, 코에 차지 않으니, 나이 마흔에도 솔로 신세다.

우연히 길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향기를 맡게 된 향수. 예전에 향수네 집에 세 들

어 살던 사람들이 놓고 간 꽃자수 베개에서 나던 바로 그 향이다. 달려가 찾아보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다. 향수는 이미 향이 다 날아가 버린 베개를 꺼내 보며, 그때 그 냄새를 재현한 향수, ‘그녀’를 만들면서 아쉬움을 달래는데...

동네 재래시장의 생선가게 만선어장에 새로 들어온 두령은 어렸을 적 사고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한다. 후각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향수 모으기가 취미인 두령은 세탁물 맡기는 건 뒷전이요, 향수가 살고 있는 세탁소 안채나 향수가 만든 향수에 더 관심을 둔다. 안 그래도 왕자병인 향수는 두령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로 제대로 착각하는데...

오늘도 생선 비린내 때문에 향수의 타박을 받으면서도 곳곳하게 향수의 세탁소에 출석 도장을 찍는 두령. 몰상식한 손님이 향수를 멱살잡이하자, 대차게 나서서 ‘서평시장 녹슨 칼’의 위용을 자랑하며 난동을 해결한다. 향수를 위해 싸움이 되는 모습에 두령을 머느릿감으로 점찍는 향수의 여든 노모 옥점. 마흔에 어렵게 본 아들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 병수발에, 홀로 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대찬 ‘녹슨 칼’ 두령을 보니, 향수의 짝으로 딱이다 싶다. 그날부터 향수에게 매일 생선을 사오라고 부추기기 시작한다.

어느 날, 세탁소에 맡겨진 핑크색 카디건에서 이상형에 가까운 향기를 맡고, 카디건의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향수. 하지만 향수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두령을 성가셔하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생선 비린내를 풍긴다고 기겁을 하면서도, 밝고 당찬 그녀가 싫지만은 않다. 이상형인 핑크색 카디건과 냄새 테러리스트인 두령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향수. 동네에 칼부림 사건이 터지고, 형사들이 ‘서평시장 녹슨 칼’ 두령을 데리고 갔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경찰서로 달려가는데...

두령은 칼부림 사건의 범인일까? 그녀가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냄새 이상형과 냄새 테러리스트 두령 중에... 과연, 향수의 선택은?

S#1. 프롤로그

세탁소, 입구(밤)

1960~1970년대식 낡은 한옥에 딸린 1층짜리 세탁소 입구.

핀 조명이 손글씨 간판(향기 나는 세탁소, 수거배달/얼룩전문)을 밝힌다.

세탁소, 안(밤)

마치 세탁소 박물관 같은 고풍스런 실내.

손때 묻은 다림대 앞에 앉아 향수를 만드는 사내, 바로 향수다.

비커에 원액을 섞는 사뭇 진지한 향수의 어깨 뒤로 화면 빠지면,

다림대 옆 고재를 달아 맨 선반에 가득 놓인 크고 작은 병들이 보인다.

‘lavender’ ‘bergamot’ 등의 향명 또는, ‘경복궁’ ‘13-2번지’ 등의 지명, 혹은

‘환희’ ‘떡떡’ ‘고독’ 등 감정 표현의 라벨이 일일이 붙어 있다.

화면이 향수병이 늘어선 선반에서 세탁소 유리창으로 이동하면,

(E) 기차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한숨 소리. 유리창에 부영게 김이 서린다.

달리는 밤기차 안(밤)

유리창의 김이 사라지자,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밤 풍경들.

누군가의 손이 무릎 위 가죽 깔집을 열면, 드러나는 낡은 회칼.

칼을 들면, 번득이는 칼날에 비친 결연한 표정의 얼굴, 두령이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서 암전.

공중에 치익! 분사되었다가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떨어져 내리는 향수.

그 느린 화면 위로 떠오르는 타이틀,

타이틀. 세탁소와 향수

S#2. CG 인서트

칠흑 같은 우주 속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에서 화면 쪽 빠진다.
이어 등장하는 지구를 공전하는 달.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바뀌면서,

S#3. 세탁소 / 안(새벽)

다른 날. 선반 위의 낡은 라디오 시계. 04:59에서 05:00로 바뀌면,
알람처럼 켜지는 라디오. 치직 치지직! 하다가,

앵커(E) 오는 14일, 역대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이 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주변으로 은빛 꼬리를 빛내며 떨어지는 별뿔별 쇼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현재 달의 거리는 지구로부터 35만 6,450km로...

S#4. 세탁소 / 전경(새벽)

멀리 산등성이에서 붉게 등이 트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세탁소.
조명이 모두 꺼진 주변을 건너편 전봇대의 조명만 어스름 밝히는데,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새벽녘 적막 속 숨소리만 썩씩 들린다.
세탁소의 조명이 켜지면, 냉큼 사라지는 그림자.
드르르! 문을 열고 나와 하품을 하다 쿵쿵 냄새를 맡는 향수.

흠칫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고개를 가우뚱한다.

향수 (기지개를 펴며) 거참... 마흔부터 신체 변화가 짝짝 온다더니만, 환청, 아니 환취 현상이라도 생긴 거야, 뭐야... (홀쩍 코를 훔치고) 며칠 전부터 자꾸 이러네...? (피식) 거, 사람 설레게... 안 그냐?

향수가 입구에 놓인 국화꽃을 보면, 어느새 날아든 벌이 꽃에 앉는다.

향수(V.O) 세탁! 세탁이요!

S#5. 골목 일각(아침)

뒷좌석 옷 수거함에 꽂은 '향기 나는 세탁소' 깃발을 휘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구불구불 소박한 골목을 희망차게 내달리는 향수.

S#6. 용구네 집 / 현관 입구(아침)

화려한 차림, 붉은 립스틱의 미진이 향수에게 옷 뭉치를 건넨다.
향수가 구겨진 옷 뭉치를 받아 한쪽 팔에 하나씩 털어 너는데,

향수 흠... 향기 좋다. 원두 바꾸셨나 봐요.

미진 울 오빠가 비싼 거라구 큰소리치던데... 맞아요?

향수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사과향에 포도향, 끝엔 꿀처럼 달달하고... 에디오피아 예가체프면... 딱히 비싼 건 아니래두 좋은 원두죠.

미진 하여간 이 인간, 땀은... 칠칠맞게 옷마다 땀 묻히구 들어오질 않나...
향수 (털어 낸 옷들을 한꺼번에 돌돌 말며) 얼룩은 걱정 마세요, 사모님.
미진 그럼요. 아저씨가 이 동네 최곤데. 세탁 솜씨도 최고, 인물도 최고!
향수 (쑥스러운 미소) 에이, 최고는 무슨...
미진 근데 왜 아직 장갈 못 가셨나 몰라... 어디 고장 나신 건 아니죠?
향수 (어색하게 웃으며) 아, 하하... 그럴 리가요... 넘 썩썩해서 고민인데요.

돌돌 만 옷 뭉치를 수거함에 넣는 향수.

미진이 눈썹을 까딱 올리며 향수를 흥미롭게 훑어본다.

S#7. 세탁소 / 안(아침)

향수가 들어와 가득 찬 수거함을 내려놓고 안채로 들어가는데,

향수(V.O) 엄니이이이!!!

S#8. 세탁소 안채 / 옥점의 방(아침)

방 한가운데 노랗게 지도가 그려진 옥점의 이부자리.
 머쓱해하는 옥점 앞으로 향수가 털썩 주저앉아 코를 틀어막는다.

향수 치매여? 세 살배기 애두 아니구 오째 이불에 오줌을 찌대?
옥점 (시선 피해 돌아앉고) 기여. 워디 동네방네 다 떠들어라! 느 엄니 쥐 구멍서 숨 막혀 죽을란다.

향수 쟁피한 줄 아는 양반이... 그러게 자기 전엔 물마시지 말랬잖아!
옥점 목이 타 죽겠는데 워쩌냐! 니눔이 시레기 국을 소태루 끓여와 놓군...
 밤새 요 썩빠닥이 꾸덕꾸덕 말려 올라가는 중 안겨!
향수 (요를 대충 개키면서) 내가 못살아, 증말!
옥점 (괜히 베개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며) 공계 어여 샅시 하나 물어 와. 메 누리가 혀주는 밥은 찌소리두 앓구 목을 테니께.
향수 (버럭) 엄니가 이러구 사골 치는데 어느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와!
옥점 (인상쓰고 보는)이 오라질 늬의 시키가... 느 장개 못가는 게 내 죄냐?

S#9. 세탁소 / 입구(낮)

햇살이 짙짙하게 들이치는 세탁소 입구.
 입구 위 빨랫줄에는 흘청을 벗긴 요와 새하얗게 세탁된 흘청이 널려 있다.

향수(V.O) 난 뭐, 장가가기 싫어 여적 혼잔 줄 알어?

S#10. 세탁소 / 안(낮)

분기탱천한 향수가 수거함 세탁물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다림대에 놓으며,

향수 내가 뭐 얼굴을 봐, 조건을 따져. 냄새만 내 맘에 들면 되는 걸... 그게 글케 큰 욕심이야? (흘쩍) 내 여태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기필코 찾아 내고야 만다, 내 이상형. (미진네 와이셔츠 냄새를 맡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으유, 인간들, 냄새 진짜...

와이셔츠를 딱 내리치자, 앞췌의 주황색 얼룩이 눈에 들어온다.

향수 에이 씨... 이렇게 문대놓음, 더 안 지는데...

S#11. 서평시장 / 종합 화장품 가게(낮)

립스틱 코너에서 두리번거리는 향수. 계산대 직원1을 향해,

향수 저... 이거 냄새 좀 맡아봐도 되죠?

직원1 에? (어정쩡하게) 네... 그, 그러세요.

향수가 하나씩 샘플 립스틱을 들어 냄새를 맡는다.

인상이 일그러지는 직원1, 이상하다는 듯 향수를 보며 직원2에게,

직원1 (속삭이며) 어머, 야, 야. 저 아저씨 왜 저래?

직원2 하! 세숫대야 봉게 딱 변태상이구먼?

직원1, 2가 키득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선을 은근 즐기는 향수.

잔뜩 턱을 쳐든 채 멧진 척 머리를 쓸어 넘기며 냄새를 찾는다.

향수 그래, 잘생긴 얼굴 실컷들 봐라... 닳기야 하겠어? (마침내 하나를 들어 맡더니) 어? 찾았다!

이내 직원 눈을 피해 립스틱을 자신의 와이셔츠 밑자락에 부욱 굶고,

해당 제품의 판매용을 들어 포장 상자에 쓰인 제품 성분을 확인하는 향수.

S#12. 서평시장 / 종합 화장품 가게 입구(낮)

향수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코를 스친다.

향수 (향내를 음미하다가) 어? 이 향기... (얼른 주변을 살피는)

S#13. 서평시장 / 입구 전경(낮)

정겨운 시골 재래시장의 풍경. 향수가 군중 사이를 미친 듯 헤맨다.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코를 들이밀고 쿵쿵거리자, 수군거리는 사람들.

긴 머리 여자1을 발견하고는 코를 대 냄새를 맡는데,

기겁을 한 여자1이 '미쳤어요?' 하며 돌아서 향수의 뺨을 세차게 갈긴다.

뺨을 어루만지며 연신 굽실대는 향수.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에서,

장씨(V.O) 냄새에두 이상형이 있단겨...?

S#14. 서평시장 / 장씨네 화원 앞(낮)

장씨가 트럭에서 온갖 허브 화분들을 들어 향수에게 건네고,

향수가 받아 가게 앞으로 차례대로 내려놓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향수 그럼. 내 맘에, 아니, 내 코에 쏙 드는 향기란 게 있는 거지.

장씨 그른 배부른 소리 허는 거 봉게 안죽 외로운 게 뭘질 모르는 거여...

향수 이놈의 개코... 갖다 버릴 수도 없구... 맡고 싶은 냄새만 골라 맡을 수

도 없구... 나두 나름 고역이라구...

장씨 허긴... 사람 체취라는 기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겨... 시방 그거 따미 안 즉 장겔 못 간겨? 맘에 드는 살 냄새 못 찾아서?

향수 (제일 큰 화분을 영차! 들고) 대충 그런 셈이네요...

마지막 화분을 쿵 내리고 향수가 맘을 닦는데, 장씨가 트럭에서 내린다.

향수가 주머니에서 '장씨네'라 쓰인 향수병을 꺼내 건네더니,

향수 해프게 좀 쓰지 마. 재료비 한 푼 안 주면서...

장씨 생색은... (향수 받아 흔들며) 취미가 이놈 맹그는 거 아녀. 자네 코에 젤로 좋은 놈으로다가 맹근 담이 그놈 갖다 뿌리락 허면 안 되는 감?

향수 (쭈그리고 앉아 허브를 보며) 짓두 방법이긴 한데... 똑같은 향술 써 도 저마다의 체취랑 섞임, 전혀 다른 냄새 내거든. 결국 근본적인 체 취 자체가 맘에 들어야 하는 거라구. (라벤더 화분을 들어 냄새를 맡 는) 애들처럼.

장씨 허이구... 어렵구면, 어려워...

향수 (일어나 손을 내밀고) 오늘까지 주기루 한 거, 얼른 줘. 가게.

장씨 (뚜껑 열어 냄새 맡으며) 아이고, 향 조오타!

향수 (짜증) 아, 저번에 꺾간 돈! 오늘까진 세상이 두 쪽 나도 갚는다메!

장씨 (느려터진)이... 그놈? 저짜 만선어장 있지? 저그 어사장헌티 가받아.

장씨가 공중에 향수를 칩 뿌리더니 몸을 돌리고 손을 휘저으며 받는데,

그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가지가지 한다 싶은 향수.

향수 아저씨, 장난해?

장씨 (쿵쿵) 거가 나헌티 쑤 돈이 있음게, 거 가 그놈 받으면 딱 된다니께.

향수 내가 왜 거길 가서 돈을 받아?

장씨 그놈이 그놈 아녀! 돈에 이름이라두 달아났다? (향수를 또 뿌리는데)

향수 (버럭) 아, 그만 좀 뿌려대애!

S#15. 서평시장 / 어시장 골목(낮)

오만상을 찌푸리고 자전거를 내달리는 향수.

향수 내가 사채업자두 아니구... 으... 비린내... 돌아버리겠네. 왜 하필...

두령(V.O) 어서옵쇼!

S#16. 서평시장 / 만선어장(아침)

눈이 반짝반짝 열정 가득한 두령이 향수 앞에 선다.

두령 뭘로 드릴까요? 오늘 갈치두 좋구, 오징어두 엄청 실한데.

향수 (아래위로 훑으며 코를 훑쩍) 못 보던 몽타주네.

두령 아... 맞아요. 오늘이 일주일째거든요.

향수 (두리번거리며) 여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 사장님 좀 불러줄래요? (인상을 구기며 계속 코를 훑치자)

두령 (영 마뜩찮은) 저, 손님. 제가 못 미더워 그러세요?

향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입구에 화원 있죠? 거기 장씨 아저씨가 여기 사장한테... 그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먼저 장씨 아저씨한테...

두령 (뒤편은 거야?) 에애?

향수 (한숨) 관둡시다. (답답한) 아니, 나 저 똑방길 건너편 세탁손데...
두령 (눈이 번쩍) 어? 9-1번지! 향기 나는 세탁소! 거기요?
향수 (슬쩍 자전거 뒤 깃발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안 보여요?
두령 그러고 보니까... (이리저리 향수를 살펴보다 환한 미소) 아저씨 엄청 잘 늙었다! 시골 양반치고 인물이 아주 좋아! 그거 알아요?
향수 (당황해 주변 눈치를 보며) 뜨, 뜬금없이... 세상 다 아는 사실을...
두령 (바짝 얼굴 들이대며) 아저씨, 장간 갔어요?

뜬금포에 향수가 말문이 막히자, 옆 건어물상 주인이 한마디 거든다.

건주인 (큰 소리로) 이, 거근 안죽 총각이여! 나이 마흔에 완전 숫총각! (킬킬) 아따, 선남선녀가 만났응께 잘 함 맞차보면 되겠구먼?

주변 상인들이 ‘그럼 되겠네!’ 하며 깔깔 웃어댄다.

얼굴이 벌겍게 상기된 향수, 얼른 자전거를 타고 줄행랑을 친다.

두령이 호기심 가득 도망가는 향수를 바라보는데, 다가오는 미진.

미진 (껌을 짹짹 씹으며) 아줌마, 굴비 좋은 거 있어요?
두령 (아줌마? 이씨... 하지만 미소) 그럼요. 한 못 드려, 한 두름 드려?
미진 그게 뭐야? 굴비 달라니깐. 싱싱한 굴비로 줘요. 조림하게.
두령 (헐... 무식하긴...) 아, 네... 생조기로 드릴까요?

S#17. 세탁소 / 안(밤)

다림대 위에 미진네 와이셔츠를 펼치고 앉은 향수.

그 옆에는 스포이드가 달린 작은 병들이 가득한 상자가 있다.

향수 거참 맹랑한 여자네...? 남이사 장갈 갔든 말았든... 아니, 갔음 어쩔 거구, 안 갔음 또 어쩔 건데? 보자마자부터 들이대는 거야, 뭐야?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자신의 와이셔츠 밑자락을 가위로 자르더니 립스틱 자국을 물로 문지르고 미진네 와이셔츠의 얼룩 옆에 대본다.

향수 맞네, 딱.

상자에서 병 하나를 꺼내 조각 천 얼룩에 조심스레 몇 방울 떨어뜨리고, 등그런 면 방망이로 툭툭 두드리면, 얼룩이 점점 벌어지다가 사라진다. 만족스런 표정으로 와이셔츠 얼룩도 지우는 향수에서, 화면 빠지며 잠전.

S#18. 세탁소 입구(낮)

다른 날.

청명한 하늘 위로 칙! 분무되는 향수.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난다. 그 밑에서 빨랫줄에 널린 잘 다려진 이불 홀청을 펄럭이며 향수를 받더니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냄새를 맡는 향수. 순간, 쿵쿵 인상을 쓰고는,

향수 뭐야. 이게 어서 나는 짠내야?
 향수가 홀청을 핵 제치면,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던 두령이 화들짝 놀란다.

향수 (버럭) 뭐, 뭘니까! 거, 기껏 빨아논 이불에 비린내 문힐 일 있어요?

두령 (머쓱한) 아...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만... (제 몸 냄새를 맡고) 나한테서 비린내 많이 나요?

향수 무, 물론 내가 워낙 개코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남의 이불 냄새 왜 맡아요? 몰상식하게.

두령 (기가 막힌) 모, 몰상식? 와... 꼴랑 백만 년쯤 된 이불 하나 갖구...

향수 뭐. 세탁 맡기러 왔어요?

두령 아저씨한테 불일 있어 왔어요. 왜요!

향수 (아 놔, 이럴 줄 알았지) 내, 내가... 이 나이에 혼자라구 우습게 보나 본데... 나 아무한테나 글케 호락호락한 남자 아니거든요?

두령 (진상...) 나두 검사검사 오긴 했는데... 하는 꼴을 보니 딱 포기하고 싶네.

향수 하는 꼴을? 아니, 나이가 대체 몇 살인데... (하는데)

두령 (봉투를 앞에 턱 내밀며) 자요. 아저씨가 장씨 아저씨한테 빌려주고, 장씨 아저씨한테 울 사장님이 빌린 돈.

두령이 매서운 눈초리로 건네는 돈 봉투를 향수가 어정쩡 받는다.

봉투를 열어 확인하고 고개를 들면, 어느새 세탁소 안으로 들어간 두령.

향수 뭐야...?

S#19. 세탁소 / 안(낮)

향수병이 가득 놓인 선반을 구경하는 두령. 향수가 들어온다.

두령 이게 다 뭐예요?

향수 (통명스럽게) 내 이름은 조향수. 여긴 향기 나는 세탁소. 그럼 뭐겠어요?

두령 (흥분해 구경하며) 와... 향수구나... 나두 향수 엄청 좋아하는데...

향수 (예상했다는 듯) 어렵하시겠어...

두령 이거 파는 거예요? 냄새 좀 맡아보면 안 되나?

향수 안 돼요. 다 개인적인 사연에 필요가 있어 만든 것들이라고요.

두령 세탁소 하는 사람이 이런 건 어떻게... 아깝다, 혼자 썩히긴.

향수 워낙 개코라 취미로 하는 건데, 뭘... 뭘든 돈이랑 연결시키려 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봉사한다 생각하구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구 그러는 거지.

향수의 말을 들은 체 만 체 안채로 가는 문을 기웃거리는 두령.

두령 안에는, 아저씨 혼자 살고?

향수 아니, 엄니랑... (하다가 내가 왜 답을 하고 있지?) 아니, 저기요.

두령 아, 엄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 구나... (혹 돌아보고) 아저씨. 기억력 드럽게 없죠?

향수 뭐요?

두령 아님, 머리가 원체 나쁘든가. 하긴, 어디 하나가 특출남, 판 덴 쥘병인 법이니까. 아저씨 그 개코만 믿고 있다 나중에 된통 큰 코 다칠 걸요?

향수 아니,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두령 나 가 봐야 돼요. 답에 오면, 저 안에 좀 구경시켜 주기. 오케이?

두령이 시크하게 손을 흔들고 나가면, 기가 막혀 혀를 내두르는 향수.

향수 와... 뭐 저런 게... (인상 팍 쓰고 손을 휘휘 젓는) 으이 씨, 비린내!

향수가 향수병 하나를 들어 공중에 신경질적으로 뿌려댄다.

S#20. 세탁소 / 입구(낮)

세탁소를 돌아보는 두령.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떠나려는데,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의 미진이 두령을 지나쳐 세탁소로 들어간다.

S#21. 세탁소 / 안(낮)

친절한 미소를 만면에 띠고 미진을 맞는 향수.

향수 가져다드릴 건데 뭐하러 오셨어요.
미진 (교태 부리며) 날도 좋은데 잘생긴 아저씨 얼굴도 볼 겸 그냥 들렀죠.
향수 아... (민망함에 수첩을 보며) 가만 있어 보자... 23번지... 고미진 씨...

번호를 찾는 향수의 코가 벌렁벌렁한다.
이를 놓치지 않고 다가가 머리를 휘릭 넘겨 흰 목덜미를 드러내는 미진.

미진 여기 냄새 좀 맡아봐요. 페로몬 향순가? 남자들이 좋아한대서 샀는데.
향수 예? (시선 피하고) 아... 머, 머스크 향 사셨구나... (뒤로 주춤 얼른 행거의 옷을 꺼내며) 어, 얼룩은 죄다 빠졌어요.
미진 (내민 목덜미가 민망하지만 애써 미소) 어, 어머, 정말요? 역시...

S#22. 세탁소 / 입구(낮)

두령이 세탁소 안을 살피는데, 유리창 너머 미소 짓는 향수가 보이고.

두령 어쩔... 인간이 확 달라지네. 글케 안 봤는데 은근 취향이 저급이시구만?

S#23. 세탁소 / 안(낮)

유리창에 붙어 안을 보는 두령을 의식해 은근 목에 힘이 들어가는 향수.

향수 그... 담부턴 립스틱 자국은 손대지 말구 그냥 주세요. 그래야 잘 지니까.
미진 (정색하고) 리, 립스틱...?
향수 (씩 웃으며 자신 있게) 샤론 코탈 5호 쓰시죠?
미진 (순간, 정색하고) 아저씨. 나 그런 싸구려 립스틱 안 써요.

분위기가 잘못 돌아감을 깨닫고 당황하는 향수.
미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고는 옷을 핵 뺏어 들고 나가버리자,
두령이 문 안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다.

두령 잘난 척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개코 아저씨...
향수 (확 짜리며) 아직 안 갔어요?

혀를 내밀고 도망치듯 떠나는 두령.

S#24. 세탁소 안채 / 부엌(밤)

밥통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설설 풀어 뜨는 향수.

향수 집안을 보자구? (코웃음을 치고) 웃겨... 누구 맘대루.

S#25. 세탁소 안채 / 옥점의 방(밤)

모로 누워 발은기침을 해대는 옥점. 향수가 들어와 밥상을 내려놓는데,
너덜너덜 잘린 와이셔츠 밑자락을 보고 옥점이 끄응... 일어난다.

옥점 옷 줌 깨고름허니 못 입냐. 세탁소두 싸비스업인디... 녀들이 옥 헌
다!

향수 욕은 무슨... 가뜩이나 넘치는 인기에 떠내려갈 판이구만.

옥점 욕시릴... (버럭) 워디 한 년이라두 데꾸 온 담이 고 조동아릴 놀러! 가
란 장겐 안 가구 신소리만 쪽쪽 는다니께?

향수 (코를 훌쩍, 민망해지는) ...

옥점 (밥 한술 뜨며) 워찌. 관동이네처럼 외국 샷시라도 만나볼터?

향수 아, 싫어! 낯선 사람이랑 어떻게 살을 맞대고 살아?

옥점 (쩍쩍) 살 붙이고 살다보면 정두 붙는 뱀이여.

향수 으... 난 싫어. 비위 상해. 아무리 나 좋다 쫓아다녀 봐라. 내가 넘어가나.

옥점 이? 누가 느 좋닥 허냐?

향수 그럼 뭐해.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옥점 월래? 참말로 누가 있능개비! 누구여? 이? 이?

S#26. 세탁소 / 안(밤)

치이익! 다리미에서 새어 나오는 스팀이 잔뜩 부영게 창 안을 가린다.

김이 서린 유리창에 하트를 그리는 향수. 한숨이 푹... 나온다.

향수 대체 언제 나타날 거냐, 이상형아... 이리다 진짜 총각으루 늙어 죽는다.

주변을 살피더니 서랍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작은 무명 베개를 꺼낸다.
다림대에 놓고 머리를 베면, 베개 옆면의 비단향꽃무 자수가 보인다.

향수 여기서 나던 향기가 딱 금상첨화였는데... 다 날아가버리구... (훌쩍)
누구 건지도 모르는 베개 붙잡구 뭐하는 거냐, 조향수... (한숨) 대체
지구상에 내 짝은 있긴 한 거냐...?

장씨 (S#14에서 V.O.) 자네 코에 젤로 좋은 놈으로다가 맹근 담이 그놈 갖
다 뿌리락 허면 안 되는 감?

불현듯 뭔가 생각이 난 향수. 벌떡 고개를 든다.

향수 여기서 나던 향기...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눈을 감고 베개 냄새를 맡자, 주위로 비단향꽃무가 피어나는 상상.

인서트.

향수의 상상. 꽃이 만발한 정원(낮)

정원 가득 비단향꽃무가 피어오르고, 나비가 앉는 곳에 피는 수선화.

향수(V.O) 미들노트는 비단향꽃무에 탑노트로 살짝 수선화 터치를 하고 베이스는...
비누 냄새 같은 코튼 향! 깃털의 포근함에, 신선한 흙내음까지!

비눗방울이 떠다니고, 뽀얀 깃털의 거위들이 달려와 신선한 흙을 쫓다.

선반 밑 나무 상자를 들어 다림대 위에 올려놓는 향수.

‘Perfume Kit’라 쓰인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면, 작은 병들이 가득하다.

‘Mathiola incana(비단향꽃무),’ ‘Narcissus(수선화)’ 등이 쓰인 병을 골라

설렘 가득 향수를 만드는 향수의 모습에서 화면 빠지며, 암전.

S#27. 세탁소 / 안(낮)

다음 날.

다림대 위에 오른 작은 향수병. ‘그녀’라고 라벨이 붙어 있다.

향수가 턱받침을 하고 흐뭇하게 병을 바라보는데,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놀라서 보면, 두령이 밖에서 환하게 웃는다.

시간 경과.

때가 꼬질한 패딩점퍼를 내미는 두령. 여기저기 생선 비늘도 따라왔다.

점퍼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리는 향수. 집게손가락으로 비늘을 집는다.

두령 (얼른 비늘을 떼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에구, 애들이 왜 따라왔
냐...

향수 (심드렁하게 종이라벨을 꺼내고) 성함이...

두령 아, 두령이요. 심두령.

향수 (이름을 적으며) 근데... 그... 서평시장 바로 앞에도 세탁소 있는데.

두령 손님이 오는 것도 불만이에요?

향수 (라벨을 패딩 안쪽에 달며) 아니... 뭐 목적이 따루 있는 거 같아서...

두령 (씩 웃고) 어? 들켰나보네.

향수 (괜히 얼굴 붉어지며) 원, 별... 참... 어림두 읊는 소릴...

두령 그럼, 집 구경 좀 해두 되죠? 나, 차 한잔 정도 마실 시간은 있는데.

향수 (겨우 용기를 내) 혹시, 나, 뭐... 조, 좋아해요?

하는데, 이미 두령의 시선이 다림대 위 ‘그녀’ 향수병에 꽂힌다.

두령 (병을 들고) 어?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그녀? 그녀가 누군데?

향수 (얼른 병을 뺏어들고) 어어... 이걸 안 돼요!

두령 (다시 뺏으려는) 왜요? 그냥 좀 봐요!

향수가 병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자, 까치발을 들고 닿으려는 두령.

키가 작은 두령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대자, 사악한 미소를 짓는 향수.

용심이 난 두령이 향수의 양 젖꼭지를 확 비틀어 꼬집는다.

향수 (기겁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는) 미, 미쳤어요!!!

두령 (지지 않고) 뭘 그렇게 숨기구 안 보여줘요? 치사하게?

향수 (어이없는) 아니, 뭘 여자가 이러구 폭력적이야...? (아파하며) 아,
씨... 손두 드럽게 매워!

S#28. 골목 일각(낮)

세탁소를 향해 와이셔츠를 손에 쥐고 전투적으로 반달음질을 하는 용구.

덩치가 족히 미진의 두배는 되고, 생김새도 포악하다.
팔짱을 낀 미진이 새침한 표정으로 용구의 뒤를 따른다.

S#29. 세탁소 / 안(낮)

아파하는 향수를 보며 약간 눈치를 보는 두령.

두령 난 또 내가 향수 좋아한다니까, 나 주려구 만든 줄 알았죠...
향수 그쪽한테요? 내가? 하! 뭐 그런 심한 착각을... 이건 내 이상형을 재현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건 꽃향이라 그쪽한테 전-혀 안 어울린다구요!
두령 (입술 삐죽) 치! 이상형? 그런 게 어딴어?!
향수 왜 없어요? 내가 있답, 있는 거지!
두령 뭐, 무슨 꽃인데요!
향수 미들노트는 비단향꽃무에 탐노트는 수선화. 그러구... 뭐, 말함 알아요?
두령 비단향... 꽃무? 이름이 뭐 그래.
향수 무식하긴... 왜, 스토크라고도 하고... (답답한) 아, 있어요. 그런 꽃이.
두령 (고개를 가우똥) 많이 들어 본 이름 같기도 하구...
향수 그쪽은 비린넬 감춰야 하나까 꽃향이나 우디 계열보단 시트러스 쪽으로...

하는데, 문을 버럭 열고 들어오는 용구. 그 뒤로 미진도 들어오고.

용구 (눈을 부릅뜨고) 그쪽이 헛소리 씨부린겨?

향수 에? 무슨...
용구 (와이셔츠를 들고 흔들며) 여그, 내가 딱 여자 립스틱 묻혀 왔답성!
향수 딱 여자라뇨...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미진 어머!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샤론 코랄 5호라구. 내가 그런 싸구려 안쓰니까 딱 여자께 맞지!
용구 그쪽이 봤어? 내가 딱 년이랑 놀아나는 거 봤냐 말여!
향수 (당황하는) 그, 그건 아니지만... 샤론 코랄 5호... 화, 확실한데...
용구 (향수의 멍살을 잡아 쥐는) 이 낭반이 참말로...

S#30. 세탁소 안채 / 부엌(낮)

내복 바람의 옥점이 늘쩍거리며 절름발로 냉장고로 가는데, 들리는 소리.

용구(V.O) 오째 너미 가정사에 오지랴를 떨고 지랄이여!!!
옥점 월래... 이기 뭐 소리대?

풀어헤친 앞섰을 주섬주섬 여미고는 안채를 나서는 옥점.

S#31. 세탁소 / 안(낮)

옥점이 안채 문을 빼꼼 열고 고개를 내민다.
용구가 향수의 멍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미진은 뜯어말리는데,

미진 이거 좀 놓고 얘기해. 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야야!

용구 날 시방 바람둥이 파렴치한으로 맹그는디, 오째 가만 냅뒤? (하는데)
두령(V.O) 어이, 덩치씨! 전국적으로다가 찡피 안 당혈람, 그 손 놓으시지?

다들 일제히 바라보면,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 찍는 두령.

용구 넌 뭐여.

두령 나? 서평시장 녹슨 칼이다!

미진 아... 어쩐지 어서 본 거 같더라니... 생선가게 아줌마구나?

용구 (어이없어 피식) ...

두령 시방 수 쓰는 거 다 보이는구먼? 이르구 난장판 맹근 담이 은근슬쩍 넘어갈라나 본디... 어림 반푼어치두 읊는 겨!

용구 뭐여?

두령 집이 가 마누라헌티 짹짹 빌어. 그기 상책일 걸?

용구 (미진의 눈치를 보며) 비, 빌긴 내가 뭐던다고 빌어?

두령 그림 경찰 부르지, 뭐. 시방 손땀으니까 폭행죄로 신고할 거여, 내가.

용구 (눈을 부라리며) 시방 함 해보자는 겨?

용구가 향수의 먹살을 던지듯 놓고, 두령을 향해 위압적으로 다가서면,
핸드폰을 방어막처럼 들고 경계 태세를 갖추는 두령.
먹살이 풀린 향수가 킁킁하며 비틀거리자, 달려가 부축하려는 미진.

미진 아저씨, 죄송해요. (눈 찡긍하며) 올 오빠 승질이 워낙 이래...

향수 (정신 못 차리고 손사래를 치며) 아, 아네요.

두령 (버럭) 아니긴 뭐가 아녀유! 아저씨가 동네북이유? 동네 호구냐구유!

두령의 오버에 놀라 휘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향수.

미진 (향수의 약한 모습에 어이가 없는) 어머...

두령 어머는 무신... 글구 그쪽두 말여! 임자도 있는 사람이 여시같이 꾸미 구성, 암헌티나 꼬리 치구 글면 되겠어? 가만 봉께 부부가 끼리끼리 아주...

미진 (도끼눈을 하고) 뭐예요?

S#32. 세탁소 / 입구(아침)

두령에게 밀리고 용구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러대는 미진.
향수는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난감한 듯 문틀에 숨어 구경만 한다.

미진 내가 언제 꼬리 쳤어! 아저씨! 사실대루 말 안 해? 그 나이 먹도록 총 각 딱지도 못 쎈 늙다리한테 내가 미쳤어? 막말루 고잔지 변탄지도 모를 촌동네 노팡한테 내가 미쳤냐구!

두령 월래? 워서 뺨카질이여? (목덜미 드러내고 미진 흉내 내며) 어머, 아저씨, 냄새 좀 맡아봐용! (다시 제 목소리로) 헛어, 안 헛어?

향수 (맞다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

미진 (당황하며) 그, 그게 뭐... 그냥 인사 줘 한 걸 갖구... 아, 안 그래요?

향수 (아니라며 세차게 고개를 절레절레) !!!

두령 (눈에 힘 팍!) 더 찡피 보기 싫음 닥치구 꺼지지? 확 다 담가버리기 전 이.

미진도, 문에 딱 붙어 구경하던 향수도 두령의 기개에 겁을 먹는데,
반면, 용구는 두령을 아래위로 훑으며 알 수 없는 코웃음을 흘리고,
어느새 향수 옆에 와 선 옥점도 흥미롭게 구경한다.

용구 야. 가자. 미친 개량은 상종 안 허는 기 상책잉게. (미진을 끌고 가는)
두령 (부러 큰소리로) 워디 한 번만 더 얼쩡거려 봐야! 확 녹슨 칼로다가 너덜너덜하게 회두 뜨구, 포두 뜨구, 이? 아주 조곤조곤 다 떠줄 테니
께!

용구가 성가시다는 듯 겁을 먹은 미진을 데리고 떠나간다.
문 뒤에 숨어 허를 내두르며 진저리치는 향수를 밀쳐내고
흥분해서 씩씩거리는 두령의 옆으로 절룩이며 다가와 서는 옥점.

옥점 어이, 녹슨 칼.
두령 (옥점을 보고는 놀라서) 어머! (움츠리며 얼굴을 가리고) 아, 안녕하
세요?
옥점 저런 것들은 포 떠봤자여... 맛두 읊을 걸?
두령 (어색하게 웃으며) 하하... 마, 말이 그렇단 거죠...
옥점 그러는 지비는 임자 있어?
두령 예?
옥점 부모님은 살아지시고? 직업은?
두령 (난감한) 하... 흐...
향수 (꽤!) 엄니!!! 거 쓸데없이!
두령 (슬금슬금 자리를 뜨며) 저는 이만... 예구, 사장님한테 혼나겠네...
옥점 (손을 휘휘 저으며) 기여. 어여 가 일 봐.

부리나케 떠나는 두령의 뒷모습을 실눈으로 물끄러미 보는 옥점.
잔뜩 움츠리고 가다가 고개를 들자, 일순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는 두령.
한편,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향수, 떠나가는 두령을 보며 드는 상상.
위풍당당 두령의 등 뒤로 흑장미가 새겨진 검은 망토가 펼쳐진다.

S#33. 세탁소 / 안(낮)

목이 아픈지 자꾸만 만져대는 향수 옆으로 털썩 앉는 옥점.

옥점 나일 처먹구두 그러구 혼장게 녀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녀.
향수 씨... 알지도 못하면서...
옥점 곰팡 그 팔래미 말여. 누구여?
향수 서평시장 생선가게서 일하나봐. 서울말 쓰더니 여기 사투리도 잘
쓰네?
옥점 느나 서울놈 행세 말여... 제우 맏년 살다 온 기 썰바닥에 지름을 발
라논 겨, 뭐여? 아주 느끼혀 죽겠어!
향수 치... 시방 아들이 맞아 죽을 뻔한 건 알고나 있어?
옥점 느 오지랴 팔다 맞을 뻔헌기 어디 하루 이틀 사흘 나홀이여?
향수 아무리 그래두 남일 구경하듯...
옥점 오늘부텅 저녁상이 물괴기 한 마리씩 올려야겠다. 시방 그 팔래미 일
허는 디 가서 싱싱한 놈으루다 달라 그랴.
향수 괜히 머리 쓰지 마.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여잔 안 돼.
옥점 (버럭) 오째!
향수 가뜩이나 예민한데 그 생선 비린넬 어떻게 참아!
옥점 으이그, 진상... 냘시 참는 일보더 훨 더 모진 일이 좋은 사람 찾아 내
사람 맹그는 거여, 이 모질아... 잔말 말구 어여 가 사 와!

옥점이 끄응 일어나 안채로 들어가면, 혼자 남은 향수. 생각에 잠긴다.

향수 근데 뭐냐, 저 여자... 남 일에 저러구 흥분을 해선... (일어나 옆의 거울을 보
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마성의 조향수 눈에 또 흘랑빠진 거? 아이 참... 이놈

의 인걸 어째? (홀쩍) 얼굴을 가리구 다닐 수도 없구...

S#34. 뚝방길(오후)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노란 코스모스가 만발한 뚝방길을 걷는 두령.

두령 꼬장꼬장한 노친네...

멈춰 서더니, 향수네 세탁소 쪽을 돌아본다.

인서트.

두령의 회상. 향수네 집, 마당(15년 전, 낮)

15세의 두령, 수트케이스를 옆에 두고 뒷마루에 앉아 있는데,
안채에서 옥점이 나오자, 얼른 일어나 옥점에게 열쇠를 건넨다.

옥점 기여. 집은 큰 문제 읍시 썼네.

두령 (눈치를 보며) ...

옥점 느 엄니 아버지가 밀린 월세가 반 년째여. 그건 아는 겨?

두령 ...

옥점 우리두 손해 막심이여. 여 세 살다 몽창 사고 나 죽었당께 누가 여 드
르와 산닥 허겼냐... 헐 수 없이 내가 드르와 살아야지.

두령 (고개를 푹 숙이고) ...

옥점 (한숨) 넘 섭섭해 말어. 우덜두 땅 파서 묵고 사는 신센 못 되니께. 바
깡냥반 병치레허느라 세간 줄이가메 산 지 오래여.

두령 ...

옥점 친척두 읍다미 넌 인저 오디께루 가냐.

두령 고아원으루 가유.

옥점 (한숨 쉬며 세간을 둘러보는) 이 짐들은 다 워쩍 겨. 이거 버리는 데
도 다 돈인디... 허이구... 내 팔자야...

두령 (눈시울이 붉어지는) 지송혀유...

옥점 어여 가. 난 서울 사는 아들놈이 일루 온닥혀서 지둘러야 형게.

두령 예... 안녕히 지셔유.

옥점 어딜 가든 잘 살아. 지왕이면 다신 안 보구 살면 좋구. (한숨) 서루 좋
은 기억은 아니잖여.

다시 현재. 한숨을 푹 내쉬는 두령.

두령 그르게요... 저두 다시 불일 없을 줄 알았네요...

발걸음을 옮기는 두령의 뒷모습이 점점 타오르는 노을빛으로 사라진다.

S#35. 서평시장 / 만선어장(밤)

도마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칼집을 열어 회칼을 꺼내보는 두령.

번뜩이는 칼날에 인자한 두령부의 얼굴이 떠오르는 두령의 상상.

두령 아빠. 나 어떡해?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말하구 도와달라 할까?

미소만 짓는 두령부의 얼굴을 두령이 목면으로 정성스레 닦다가,
회칼에 비친 향수를 발견하고 짐짓 못 본 척 긴장하는데,

향수 (코를 틀어막고) 으유... 비린내. 개코구 나발이구 딱 콧구멍을 틀어막아야지... 이 신체 기능 중에 후각이 젤 쓸데없는 거 같아. 안 그래요?

두령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인간한테 뭘 바래...) 거 말 좀 함부로 하지 맙시다... 진짜 막힌 사람 서러우니까...

향수 (인상 구기고) 대체 이 냄새 어떻게 하루 종일 맡아요?

두령 (짜증나지만 겨우 눌러 참고) 난 냄새 못 맡는다고요.

향수 에애? 말도 안 돼. (어디서 뺨을...)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어딴어?

두령 (아무렇지도 않게 회칼을 닦으며) 여깃잖아요. 개코 아저씨 코앞에 딱.

향수 그런 사람이 향수 왜 탐낸대?

두령 좋은 냄새 자꾸 맡다 보면 후각이 돌아올까 싶어서요. 왜요.

향수 글썸, 냄새 못 맡는다면 뭘 맡아보냐구요.

두령 (칼 들고 날카로운 눈매로) 시비 걸러 왔어요?

이때, 도마 위로 던져지는 비닐봉투. 보면, 미진이 꼬나보며 서 있다.

두령이 회칼을 도마에 딱! 내리꽂자, 흠칫 뒤로 주춤하는 미진과 향수.

두령이 비닐을 열어보면, 양념이 밴 조끼조림이다.

미진 (겉을 먹고 떠듬떠듬) 사, 사람 죽이려구 자자자작정했어요? 죄 상한 걸 왜왜왜 팔구 자빠졌냐구!

두령 (노려보는) 생선이 상했다구? 지금 장난해?

미진 (부러 큰 소리로) 아, 냄새 맡아보면 알 거 아냐! 내 말이 틀린가.

두령이 마지못해 냄새를 맡는 척하더니 안절부절못하고 눈치만 보자,

미진 (기세 등등) 저 봐, 저 봐... 어? 애초부터 둘이 짜구 나 옛뻘이려구 한 거지? 와... 저거 먹구 뉘졌음 꽃다운 고미진 인생, 억울해서 어쩔 뻘

했어?

두령 (말 못하고 한숨만 쉬고) ...

미진 (버럭) 아줌마! 콩밥 먹고 싶어!!!

그제야 두령을 의아하게 보는 향수. 비닐을 뺏어 냄새를 맡아본다.

향수 이걸 생선 상한 내가 아닌데...? 혹시... 양념에 뭐 넣었어요?

미진 선내가 진동을 하는데 뭘 양념 탓을 해요? 또 지금 둘이 짜고...

향수 (비닐에 코를 박고 깊게 냄새를 맡고) 아... 곰팡이가 손 고춧가루를 쓰셨네.

미진 흥! 말도 안 돼. 고춧가루가 상하는 법두 있어요?

향수 그럼요. 보관 잘못하면 상하죠. 가서 얼른 버리세요. 고춧가루 이거 못 써.

미진 (당황하며) 지, 진짜예요?

향수 큰일 날 뻔했네. 잘못 드셨다간 배앓이 할 뻔했어.

미진이 머뭇거리자, 옆의 건어물상 주인이 끼어든다.

건주인 딴 사람은 몰러두 개코 조향수가 맞담, 맞는 건디!

주변 상인들이 '암만!' 하자, 당황하는 미진. 자존심이 상해 벌벌 떠다.

미진 (두령을 꺾 짜리며) 아줌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알아? 밤길 조심해!

두령 (스산한 표정으로 꼬나보는) ...

S#36. 서평시장 / 입구(밤)

쿵광거리며 요란하게 시장을 나오는 미진. 돌아보더니,

미진 이놈의 촌동넬 떠나든가 해야지... 생선 파는 년 하나 땀에 다들 뽀뽀 뽀뽀... 아우, 재수 툴러! 툴!

미진이 떠나자, 화분을 정리하던 장씨가 보고 눈썹을 까딱한다.

S#37. 서평시장 / 만선어장(밤)

두령이 비닐봉투를 신경질적으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다.

향수 (혀를 꼰꼰 차며) 생선 파는 사람이 것두 모르구 당해요?

두령 (이를 악물고) 냄새 못 맡는다고 했잖아요.

향수가 진짜구나, 싶어 두령을 보는데, 두령의 코에서 흐르는 코피.

향수가 놀라는데, 두령이 늘 있는 일처럼 당황하지 않고 휴지로 막는다.

향수 (눈치 보며 안 보는 척) 오, 오늘 뭐가 좋아요. 생선이나 사 가게.

두령 언놈으로 드려. 아저씨처럼 못됐게 생긴 뽀락으로 드려? 아님, 눈치 코치 없는 간재미루 드려?

향수 거참... 기껏 도와줬더니 말끝마다 시비 걸 거예요?

두령 (괜히 생선 정리하며) 진짜 필요한 거나 도와주지... 집도 안 보여줘, 향수도 안 돼. 내가 뭐 도둑이야, 강도야? 뽀하면 냄새 난다 인상이나

쓰구...

향수 아니, 그건... 남의 사정두 모르면서... (버럭) 아, 코가 별나 비린넬 못 참는 걸 어찌라구!

두령 아저씨야말로 남의 사정두 모르구... 나 같음, 이렇게 부탁하는데, 불쌍해서라도 보여준다, 진짜. 아주 모전자전으로 못돼가지구...

향수 (빠지직!) 뭐요? 지금 울 엄니까지 욕하는 거예요?

두령 (입술 삐죽) 흥!

향수 나 여기서 생선 안 사! (신경질적으로 떠나가는)

두령 뭐가 글게 잘났대? 승질이 그따위니까 아직 장가두 못 갔지!

향수 (계속 가며 큰소리로) 누가 할 소리!!!

두령 (섭섭하기도, 심했나 싶기도 한 표정) 씨이...

S#38. 세탁소 안채 / 부엌(밤)

잘 손질된 은색 갈치를 프라이 팬 위에서 지글지글 굽는 향수.

향수 (양쪽 콧구멍에 휴지를 꽂고) 으유... 이놈의 비린내나 그놈의 승갈이나... (하다가) 근데... 진짜 냄새 못 맡는 거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S#39. 서평시장 / 만선어장(밤)

콧구멍에 피 묻은 휴지를 꽂고 회칼을 정성스레 닦아 칼집에 넣는 두령. 어사장이 잘 뜯 우럭 회 한 접시를 보며 흡족하게 바라본다.

어사장 허이구... 그 낡아빠진 칼루 잘도 떴구먼.

두령 그럼요. 아빠가 쓰시던 건데. 저한테 이게 최고 무기죠. (앞치마를 벗자)

어사장 어어? 이놈 같이 먹구 안 가고?

두령 오늘 승질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가서 스트레스 좀 풀려구요. (미소)

그리구 어차피 코 뺨에 맛도 잘 모르는 데요, 뭘.

어사장 (안쓰러운) 기여... 그놈의 코는 원제나 나올랑가... 글다 애 잡겼다...

두령이 뒤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점퍼 대신 코트 차림이다.
공중에 향수를 칩칩 뿌리고, 지나가며 받는 두령.

어사장 (인상 쓰고) 으이그... 그놈의 향수... 아따, 싫다니께... 예, 예취!

S#40. 서평시장 / 입구(밤)

두령이 나오는데, 앞에 서는 검은 세단. 검은 양복 차림의 용구가 내린다.
마주 선 용구가 비열하게 웃자, 칼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두령.

S#41. 세탁소 안채 / 옥점의 방(밤)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의 가시를 잘 발라 옥점의 밥에 얹어주는 향수.

향수 업니. 냘셀 못 맡으면, 밥맛두 없지?

옥점 (입에 가득 넣고) 암만. 그 관동업니 봐라. 늙으면 냘시구 뭐구간이 죄

기능이 떨어져선... 먹덜 못허구 죽을 날만 바라보잖여.

향수 그치... 다 먹는 맛으로 사는 건데... 쫘 안됐네. 그래서 글케 승질이 드러운가? (젓가락 탁 내리치고) 맞네. 욕구불만으로 인한 히스테리 증상.

옥점 시방 니 얘기하는 거?

향수 (홀기며) 씨... 내가 무슨!

옥점 (쩍쩍 잘도 먹으며) 느 말여, 여자 맛도 모르재?

향수 내가 왜 몰라?

옥점 에미 모르게 워서 도둑팽이마냥 도둑 만남이라두 했는가... 난 통 보덜 못했네...

향수 (붉으락푸르락) 씨이...

옥점 (쪽쪽 빨며 먹는) 어이구, 불쌍헌 놈... 위메, 상 반푼이... 상 모질이...

향수가 옥점을 째려보는데, (E) 초인종 소리.

S#42. 용구네 집 입구(밤)

‘누구세요?’ 하며 미진이 문을 열고 나오면,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

미진 뭐야...

미진이 다시 들어가려는데, (E) 냘옹! 들려오는 고양이 소리.
미진이 멈추고 어두운 골목 모퉁이를 바라보며 코를 킁킁 거리는데...

S#43. 동네 전경(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아래 평화로운 시골 마을.

(E) 경찰차 사이렌 소리.

S#44. 서평시장 / 만선어장(아침)

다른 날.

나무 도마 위 생선 대가리를 탁 내려치는 식칼.

배를 갈라 내장을 썩 빼내고 몇 번 더 쳐서 봉투에 담은 두령의 손.

손님1에게 건네는데, 손에 피 묻은 반창고가 붙어 있다.

손님1 이? 손은 오째 그려.

두령 (머쓱하게 손을 감추고) 칼 쓰는 사람 손이 항상 그러쵸, 뭐.

손님1 (돈을 건네며 안쓰러운) 젊은 삭시가 허긴 쉬운 일은 아니재. 나 가네.

두령 (미소) 네, 살피주세요!

S#45. 세탁소 / 안(낮)

향수가 두령의 패딩을 건조기에 넣고 시계를 보면, 12시가 넘어간다.

향수 오늘은 어째 안 나타난대? 내가 넘 심하게 했나? (무심한 척 흘쩍) 찻! 뭘 상관이야? 오든지 말든지... 성가실 일 없구 좋네.

이때, 유리창 밖으로 지나가는 누군가. 향수가 기대 가득 쳐다보지만...

그대로 지나쳐버리자, 실망의 표정이 역력한 향수.

향수 엄니!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 가게 좀 보구 계셔!

옥점(V.O) 언능 와! 관동네서 국시 삶았다구 오란다!

향수 (나가면서) 엄니 혼자 가!

S#46. 서평시장 / 어시장 골목(낮)

괜스레 어슬렁거리는 향수. 저 앞 만선어장이 보이자, 멈춰 서서 살핀다.

아무도 없는 가게. 어깨를 으쓱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향수.

장씨(V.O) 안죽 소식 못 들은 겨?

S#47. 서평시장 / 장씨네 화원(낮)

향수가 장씨 옆으로 쭈그리고 앉는다.

대야에 가득한 흙비료를 모종삽으로 퍼서 화분에 조금씩 넣는 장씨.

장씨 그 뽕족 구두에 쥐 잡아 먹은 입술로 대니는 서울 삭시 하나 있지? 옛 저녁이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는디?

향수 (놀라서) 히익! 호, 혹시 그 남편이 그랬대?

장씨 아니라. 집 앞이서 기양 누가 찔렀다는디? 아주 푸욱! 담궜다.

향수 (턱이 툭 떨어지며) 헐...

장씨 근디 그 남편 말여. 멀쩡허니 양복 채려입구 대니니께 몰랐는디, 흥 천서 주먹 쓰다 온 놈이라. 자네두 조심하. 괜히 시비 붙을 일 맹글지 말구.

향수 (침을 꼴깍 삼키며 자신의 목을 어루만지는) ...

장씨 허던 가락이 있을 턴디 옥! 허다가 폭! 찌를 수두 있잖여.

향수 마, 말도 안 돼... 내가 뭐, 뭘 잘못했다구...

장씨가 모종삽을 흙 가운데로 푹 내리꽂자, 놀라서 털썩 주저앉는 향수.

S#48. 세탁소 건너편(낮)

검정 비닐을 들고 전봇대 뒤에 숨어 세탁소를 바라보는 두령.

문이 열리고 옥점이 나가자, 살금살금 다가간다.

마침 풀이 죽어 돌아오던 향수, 두령을 발견하고 표정이 밝아진다.

S#49. 세탁소 / 입구(낮)

두령이 유리창 안을 기웃거리는데, 뒤에 서서 같이 기웃거리는 향수.

향수 나 훑쳐보는 거예요?

두령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는) 엄마야!

향수 (거기에 또 같이 화들짝 놀라는) 왜, 왜 놀라요? 사람 놀라게!

아, 진짜! 하며 두령이 꼬집을 것처럼 손을 내밀자,

화들짝 놀라 양손으로 젓꼭지를 가리는 향수.

S#50. 세탁소 / 안(낮)

두령이 다림대 위에 가지런히 뜬 뽕에돔 회 포장을 올린다.

두령 자요. 엄청 잘 숙성시킨 뽕에돔 회! 식감이 끝내줄 걸요?

향수 아이구, 이 비싼 걸 누가 먹는다구... 됐어요. 이따 고등어나 사러 갈게요.

두령 (수줍은 미소) 선물이에요. 어머니랑 드세요.

향수 (당황해서) 내, 내가 왜 그쪽 선물을 받아요? 부담스럽게...

두령 (쭈뼛대며) 아니... 어제 내가 말실수도 좀 한 거 같구...

향수 (홀쩍) 뭐, 나도 잘한 건 없네요.

두령 (반가운) 정 부담스럽,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되겠네.

향수 ?

두령 (안채 쪽으로 향한 시선) 안에 어머니 안 계시죠? 아까 나가시는 거 같던데. 잠깐 안에 구경 좀 합시다! 네?

향수 (인상 쓰고) 아, 진짜...

두령 (온갖 애교 섞인 표정으로) 네? 네?

향수 (헛웃음이 나오는) 참 나...

S#51. 세탁소 안채 / 거실(낮)

드립커피를 정성스레 내리는 향수. 커피 향에 취한 듯 깊게 들이마신다.

소박한 한옥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보는 두령은 점점 실망으로 가득한데...

두령 저... 마당은... 요?
향수 전엔 마당이 있었는데, 없애고 그 자리에 세탁실 차린 거죠.
두령 아... 그렇구나...
향수 어? 근데 여기 마당 있었던 건 어떻게 알아요?
두령 (당황해서) 알긴 뭘 알아요. 보통 옛날 시골집들이 다 비슷하니까... (둘러보며) 안에도 수리 많이 했나 봐요.
향수 에이, 그럼요. 오래된 집이라 싹 다 손봤죠. (천장을 보며) 저 한옥 골조들만 살리구.

천장에 노출된 서까래를 보다가 이어진 기둥으로 내려오는 두령의 시선. 아련한 표정의 두령이 기둥을 천천히 만져보는데, 들리는 목소리.

의사(V.O) 전에 좋아했던 냄새 있죠? 그리운 고향의 향기 같은 거...

인서트.
두령의 회상. 신경정신과 진료실(몇 달 전, 낮)
컴퓨터로 차트를 보는 의사와 마주 앉은 두령.

두령 고향... 별 좋은 기억 없는데... 그때 난 사고로 이렇게 된 거데요, 뭘.
의사 (한숨) 얼마 전 가스 불에 뭐 올려놓구 깜빡해서 집에 불 날 뻔했다면 서요. (차트 보며) 한 달 전엔 상한 음식 드시구 식중독으로 입원하셨구...
두령 (침울) 그래서 오죽하면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러 왔겠어요... (간절한) 저,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거든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의사 X-ray상 염증이나 다른 병변은 전혀 없구, 당뇨나 신부전 땀에 그런 것두 아니라면, 결국 신경인데... 신경 손상은, 회복이 쉽진 않죠.

두령 (실망하며) ...
의사 비과학적으로 들려두,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니까 함 해보세요. 가장 좋았던 기억. 그때 생각하면서 냄새 떠올려보는 거예요. 시각 이미지를 통해 후각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두령 (한숨) ...
의사 냄새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뇌에 기억되거든요. 간절하게 바라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현재. 눈을 감고 최대한 집중해 고재 기둥의 냄새를 맡는 두령. 향수가 황당하게 보는데, 숨을 토해내는 두령의 표정이 실망 가득이다.

S#52. 세탁소 / 입구(낮)

어깨가 축 처져 나오는 두령을 향수가 허겁지겁 따라 나오며,

향수 기껏 커피 내렸구만, 마시고 가지...
두령 커피 잘 안 마셔요. 냄새 못 맡으니까 꼭 재떨이 마시는 거 같거든요.
향수 (기운 빠지는) 아... 그렇겠네... 커피 향으로 마시는 건데.
두령 (풀이 죽어) 마신 셈 칠게요. 잘 봤습니다. 그럼... (가려는데)
향수 뭐, 우리 집이 고관대작 집에 금이라도 발라논 줄 알았어요? 엄청 실망한 표정이네?
두령 (멈춰 서고 쪽 찌리는) 나 그런 속물 아니거든요? 으이 씨... 눈치두 없구, 센스두 없구, 매년 더 없구!

향수를 꼬집으려는 두령의 손목을 낚아채는 향수.

아! 하는 두령의 손에 피 묻은 반창고를 발견하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향수 거... 베, 뺨에뚫이니 뭐니 남 챙길 생각 말고 본인이나 좀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승질머리에 비해 체력은 영 부실한 거 같은데.

두령 (의아하게 눈을 껌벅이며 보는) 으응? 뭐지? 이 갑작스런 혼내는?

향수 (손목을 던지듯 놓고) 무, 무슨 여자가 볼 때마다 피투성일 해선...

두령 이게 누구 때문인데. 아저씨 땀에 녹슨 칼 숨씨 좀 부리다가 그랬잖아요. 샤샤샹! 푹! (칼로 찌는 시늉을 하다 향수 옆구리를 푹 찌르며 웅크하는)

향수 (기겁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고) 아이, 씨... 아, 돈 내구 만져요! 내 몸이 얼마나 청정지역인데 자꾸 손 타게 하구 있어...

두령 (장난기 가득) 어머... 순진한 척은... 진짜 숫총각 맞나 보네!

향수 (기가 막힌 표정) 나참, 하두 풀이 죽어 있길래 어쩌나 했더니, 역시나네, 흥!

안으로 들어가는 향수를 보고 씩 웃는 두령.

코를 훌쩍 흠치며 세탁소 입구를 둘러보는 표정이 아쉬움 가득이다.

두령 (한숨) 그러게... 흑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S#53. 세탁소 / 전경(밤)

(E) 도로를 돌아가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소리.

S#54. 세탁소 / 안(밤)

향수가 다림대 위 깨끗하게 세탁된 두령의 검은 패딩점퍼를 본다.

향수 (홀쩍) 냄새가 나빠 그렇지... 사람은 딱히 나쁜 거 같진 않던데...

다림대의 후방 버튼을 누르면, 점퍼가 납작 다림대에 붙는데,

향수 (쿵쿵 거리며) 어?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후방 버튼을 끄고 벌떡 일어나 수거함을 보는 향수.

맨 위 핑크색 카디건을 들어 냄새를 맡는 향수의 동공이 흔들리고.

향수(V.O) 어머니! 어머니이이!!!

S#55. 세탁소 안채 / 옥점의 방(밤)

옥점이 배를 득득 긁으며 자는데, 향수가 문을 열고 부리나케 들어온다.

향수 (카디건을 흔들며) 어머니가 이거 받았어? 아까 낮에 나 없을 때 손님 왔었냐구!

옥점 (찌뿌듯 눈을 뜨는) 오밤중에 오째 호들갑이라...?

향수 이름이나 연락처 받아놨어? 어? 어?

옥점 그기... 기양 보낸 거 같은디... 메칠 있다 찾으러 온닥 했응께 오겼지...

돌아누워버리는 옥점을 서운한 표정으로 보는 향수.

향수 (혼잣말처럼) 이 여자가 그 여자야. 이 여자가 내 이상형이라구...

옥점 엠병... 이상형은 무신... 으이그...

향수가 카디건을 살피면 여기저기 피가 튀어 있다. 냄새를 확인하고는,

향수 피...?

(E) 끼이익!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는 파열음. 이내 쿵! 부딪히는 소리.

S#56. 15년 전 과거. 두령의 꿈 / 사고현장

낭떠러지에 뒤집어진 승합차. 부엌엔 연기가 자욱하다.

뒷좌석 안전벨트에 의지해 쌍코피를 흘리며 덜덜 떠는 소녀, 두령이다.

운전석과 옆 좌석에 피범벅으로 널브러진 두령부와, 두령모가 보이는데...

S#57. 현재. 두령의 방(아침)

다른 날.

침대에서 눈물범벅으로 벌떡 일어나는 두령. 주르륵 코피가 흐른다.

S#58. 한의원(낮)

침대에 누운 두령의 코에 나이가 지긋한 한의사가 침을 꽂는다.

두령이 눈을 감고, 양손을 꼭 쥐며 참아내는데,

한의사 이기 다 스트레슨디... 행복이란 놈이 말여. 켈로 고통스런 놈 뒤에 딱 붙어 숨어 있거든? 금계 그놈을 걷어내야, 행복이가 짠 허구 나타나는 겨...

두령의 감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데,

인서트.

두령의 상상. 사고 현장에서 되돌리기 되는 영상

사고 전, 차를 타고 가는 행복한 두령의 가족들

차를 타기 전 향수네 집 앞

집 앞으로 나오기 전 마당.

두령모(V.O) 두령아, 가자!

해맑은 어린 두령이 뛰어 나오는데, 마당에 만발한 비단꽃향무에서...

다시 현재. 두령이 눈을 번쩍 뜬다.

S#59. 서평시장 / 장씨네 화원(낮)

꽃 화분들을 둘러보는 두령. 장씨가 다가와 옆에 선다.

장씨 뭐 찾아?
두령 아, 네... 그게... 제가 꽃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작은 꽃이 여러 개 달려서... 색깔도 분홍에 연보라, 또 흰색... 다양하구...
장씨 히야신스? 아님, 수국 말허는감?
두령 아뇨, 그런 거 아닌데... (손으로 흉내 내며) 이렇게 길쭉해서...
장씨 이... 그 스포끄 말허는 갑네. 비단향꽃무. 건 봄에나 돼야 나올 텃디.
두령 (낮이 나가며) 비단향꽃무...
장씨 (국화 화분을 발로 툭 차며) 이눔 가져 가. 내가 싸게 줄 테니까.

핸드폰으로 ‘비단향꽃무’를 검색해보는 두령. 사진들이 뜨자,
 인사도 없이 급히 떠나는 두령. 에헤이... 하며 꼬나보는 장씨.

S#60. 서평시장 / 종합 화장품 가게(낮)

향수 코너에서 두령이 두리번거리는데, 다가오는 직원1.

두령 저... 비단향꽃무. 그런 향긴 없나요?
직원1 글썄요... 이렇게 블렌딩 된 향수에선 찾기 힘드실 거 같은데...
두령 그럼... 혹시 향수 원액 같은 건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직원1 (난감한) 서울 재료상에나 가야 있을라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두령 하긴... 좀 특이한 원액 같은 건 일반인들이 구하기 힘들겠죠?

한숨을 쉬는데, 문득 떠오르는 향수네 세탁소의 온갖 향수병들.
 그리고 마침내 클로즈업되는 ‘그녀’ 향수병!

향수 (S#29에서 V.O.) 미들노트는 비단향꽃무에 탑노트는 수선화...
두령 (동공이 확장되며) 그래... 그녀!

S#61. 세탁소 / 안(낮)

다림대 위에 나란히 놓인 잘 세탁된 핑크 카디건과 두령의 검은 점퍼.

향수 이상형이냐... 냄새 테러리스트냐... 그것이 문제로다...

향수가 두 개의 옷을 번갈아 바라보다, 카디건을 들어 냄새를 맡더니,

향수 (한숨) 그 좋던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렸네...

두령의 점퍼로 시선이 가면,

플래시백. 그동안 두령의 모습 컷들.

두령 (S#16에서) 아저씨, 장간 샀어요?
두령 (S#31에서) 아니긴 뭐가 아녀유! 아저씨가 동네북이유? 동네 호구냐 구유!!!
두령 (S#50에서) 선물이에요. 엄니랑 드세요.
두령 (S#50에서) 네? 네?

어느새 두령의 점퍼를 안고 미소 짓는 향수. 선반 위 ‘그녀’ 향수를 본다.

S#62. 뚝방길(낮)

두령이 노란 코스모스가 만발한 뚝방길을 쟈걸음으로 걷는다.

두령 이 아저씨랑 대체 전생에 뭐 인연이 있었던 거야... (하는데)

향수(V.O) 저기요! 여기!

두령이 멈추고 보면, 저 멀리서 향수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온다.

미소 짓는 향수의 모습이 점점 25세의 향수로 바뀌면서,

인서트.

두령의 회상. 뚝방길(15년 전, 낮)

수트케이스를 덜덜 끌고 가는 두령(15)을 지나쳐 가로막는 향수(25).

향수25 (가쁜 숨을 몰아쉬며) 9-1번지... 거기 살던 학생 맞지?

두령15 (얼른 눈물을 훔치고) 예? 누구... 세요...?

향수25 내가 그 집 아들, 아니 올 엄니가 거기... (답답한) 아니, 그러니까...
(낮은 가죽 갈집을 건네며) 이거...

두령15 (떨리는 손으로 받고) !

향수25 방 치우려다 보니까, 책상 서랍에 있더라구.

두령15 (울컥) 고, 고맙습니다...

향수25 그렇게 정성스레 손때 묻은 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닌 거 같아서.

두령(15)이 끄덕이는데, 향수(25)가 씩 웃고 자전거를 돌려 떠나간다.

어린 두령에서 눈물 가득 미소를 머금은 현재의 두령으로 바뀌면,

두령 앞에 와 서는 현재의 향수. 자전거 뒤에 두령의 점퍼가 펄럭인다.

S#63. 뚝방길

시간 경과.

자전거를 세우고 나란히 뚝방길에 걸터앉은 향수와 두령.

두령 내가 가지러 갈 건데... 엇갈리면 어쩔 뻔했어요?

향수 엇갈리면 또 찾아가면 되죠, 뭐.

두령 (웬지 의미심장한 거 같고, 고맙다) ...

향수 근데... 그... 오늘은 이상하게 생선 비린내가 안 나네요?

두령 오늘 들를 데가 있어서 반차 내고 목욕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향수 아... (민망한지 훌쩍)

두령 상상 같은 거 함, 가만 안 뒤요! 확 칼로 도려내버릴 거니까.

향수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내, 내가 미쳤어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두령 (피식) 아저씨. 아무리 슛총각이라두... 설마 연애두 안 해본 거 아냐?

향수 여, 연애 그까이꺼... 다, 다 해봤죠! 이 인물에, 나나나나이가 몇인데...

두령 아저씨. 내 손두 탕졌다... 까짓거... 우리 연애나 할래요?

한 치 앞으로 얼굴이 가까워진 두령의 도발에 붉어지는 향수의 얼굴.

향수 (당황해) 뭐뭐뭐뭐래... (몸이 굳어 시선만 돌리는) 노노노놀려요?

두령 (피식) 아저씨 반응이 재밌으니까 자꾸 놀리구 싶잖아요.

고개를 돌려 다시 경치를 보는 두령의 표정이 아련하다.

향수가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그녀' 향수병을 꺼내 두령에게 건넨다.

두령이 향수병을 손에 쥐고는 기쁘고 놀라 어안이 병병하다.

향수 (별일 아닌 척) 뭐... 비싼 회두 얻어먹었겠다, 봉사 차원에서...

두령 (감동으로 향수를 보며) 이거... 비단향꽃무... 그 향 맞죠?

향수 (뿌듯한) 내가 켈 좋아하는 향만 골라서 만든 거라구요. 그쪽도 냄새 맡을 수 있음 내 코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줄 금방... (하는데)

벌컥 향수에게 안기는 두령. 당황한 향수, 굳어서 침만 꿀꺽 삼킨다.

두령 (향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진-짜 고마워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면...

어정쩡한 향수의 손이 두령의 허리로 안착하려는데, 벌떡 일어나는 두령.

두령 헐! 병원 들렀다 바로 간다 그랬는데... 사장님한테 혼나겠네! (가려는데)

향수 잠깐! 잠깐 기다려 봐요!

S#64. 뚝방길(시간 경과)

향수가 모는 자전거 뒤 걸대를 잡고 수거함에 앉은 두령.

향수 짹 잡아요!

두령 아, 궁뎅이 아프니까 얼른 가거나 해요!

향수 (실실) 공짜 택시 타고 큰소리...

두령 (뿌루통) 이게 무슨 택시예요? 인력거지. 승차감 제로 인력거.

향수 (계속 실실대며 페달을 열심히 밟는) 종종 인력거 알바나 해야겠어

요. 세탁물 배달하는 것보다 더 재미지구 좋네.

두령 안 힘들어요? 괜히 나 땀에 무리하다 알아 늡는 거 아냐?

향수 췌! 무슨... 내가 그쪽 하나 책임 못 질라구...

괜스레 히죽히죽 웃음이 나는 향수.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

두령도 어느새 콧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뚝방길 옆 만발한 코스모스도 두 사람의 콧노래에 맞춰 살랑거린다.

S#65. 서평시장 / 만선어장(낮)

‘그녀’ 향수를 보는 두령.

두령 그나저나 이게 이상형이라더니... 날 왜 췌지? 사람 오해하게...

뚜껑을 열려다가, 가게 앞에 남자 둘이 오자, 얼른 주머니에 넣고,

두령 어서 오세요!

형사1 아가씨가 서평시장 녹슨 칼... 맞췌?

형사1이 내미는 형사 카드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두령.

S#66. 서평시장 / 장씨네 앞(낮)

경찰차에 형사1, 2가 두령을 태우고 가는 모습을 장씨가 본다.

(E) 경찰차 사이렌소리처럼 들리는 드라이클리닝 완료 신호음.

S#67. 세탁소 / 안(낮)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완료 버튼이 꺾이는데 아랑곳없이 낮이 나간 향수.

향수 연애편... 하자구? 나보구 연애하자구 한 거 맞지?

다림대 위에 꺼내 놓은 핑크 카디건과 꽃자수 베개를 본다.
실성한 사람마냥 실실 웃다, 또 정색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반복하는데,
안채에서 나오는 옥점이 향수를 꼬나보며,

옥점 저놈이 일은 많구 뭐더는 겨? (버럭) 느 나이 마흔에 사춘기가 왔냐,
아님 엠병이라도 걸렸냐!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거위 털 이불을 꺼내
대충 건조기에 옥여넣고 돌리는 옥점.
향수가 카디건에 코를 묻고 한껏 냄새를 맡고, 베개 냄새도 맡는다.

향수 냄새란 게 이렇게 허망한 건지 몰랐네... 날아가면 그만인 걸, 내가 그
동안 실체두 없는 이상형을 기다렸단 거잖아. 갑자기 어이가 없네...?

옥점 (다가오며) 그 베개 또 뭐디 혼저 궁시렁대구...

향수 전에 여기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두고 간 거 같은데... 하두 향기가
좋길래... 정성스레 만든 거 같기두 하구... 못 버리겠더라구...

옥점 (옆에 앉고) 그 집 물건은 내가 싹 다 정리해 버렸는데 뭐 소리여?

향수 내 방에 쪼그만 다락 있었잖아. 나중에 집수리 한다구 털어낼 때 인
부가 거기 구석에서 찾았다구 주더라구.

옥점 시상에나 마상에나... 그 집 망령 떠나보낸다구 읊는 살림에 돈을 월
말 쳐들였는데... 니놈이 여적 붙들어 매구 있었던 겨? (버럭) 느 미쳤
냐!!!

향수 이 집에 망령이 있담, 건 엄니 탓이지. 마당에 있던 꽃들... 여다 세탁
소 차린다구 엄니가 죄 뽐아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여적 장갈 못 간
거야. 꽃의 망령들이 복수하느냐구.

옥점 (열불이 나서) 이 작것이... 느 시방 또 내 탓 허는 겨?

향수 근데, 더 이상 망령들한테 질 순 없지. 까짓꺼... 연애. 그거 함 해보
지 뭐. 결혼하잔 것두 아닌데. (벌떡 일어나더니 베개를 번쩍 들고) 연
애! 모술 탈출!! 불타는 밤!!! 꽃의 망령들아! 날 막지 마아아아!!!

옥점 (기가 턱 막히고) 오메... 저놈이 참말로 귀신이라두 썬 거 아녀? (벌
떡 일어나) 내 이 오라질...

S#68. 세탁소 / 입구(낮)

베개를 들고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옥점. 향수도 따라 나오고.
옥점이 베개를 바닥으로 힘껏 내치고는,

옥점 (씩씩대며) 내가 디지야 이 꼴을 안 볼 거구먼? 내가 디지야!!!

향수 (난감한) 엄니! 아이, 참, 그게 아니라...

이때, 스쿠터를 타고 온 어사장이 헐레벌떡 내린다.

어사장 (가쁜 숨을 내쉬며) 아줌니. 지가 빨긴 옷 혹시 벌써 빨았슈?
옥점 (짜증 가득) 야, 반푼야. 뭐더냐. 느 이상형 언능 안 내드리구!
향수 설마... 그 핑크 가디간?
어사장 (실망 가득) 빨았슈? 오메... 클났구먼... 울 두령이 인저 위쪽헌다...
향수 (놀라서) 두령 씨? 두령 씨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어사장 아까 전이 형사들이 와서 데꾸 갔다는디... 누가 칼에 찔렸거나 워졌
다나... 장씨 그 인간이 설레발을 쳐냈는디... 아니, 울 두령이가 범인
이란 겨!
향수 (눈이 동그래져서) 에에?

S#69. 골목 일각(낮)

앞서는 어사장의 스쿠터를 힘겹게 따라가는 향수의 자전거.
어사장 손에 핑크 카디건이 들려 있고, 향수는 땀범벅으로 페달을 밟는다.

플래시 백.
S#52. 세탁소 안채, 거실

두령 이게 누구 때문인데. 아저씨 땀에 녹슨 칼 숨씨 좀 부리다가 그랬잖
아요.

향수 미쳤어, 미쳤어... 내가 뭐라고... 대체 뭘 일을 벌인 거야...
어사장 두령아! 지들리라!! 내가 간다!!!
향수 그럴 리가 없는데... 승갈이 좀 드러워도 그럴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에!(울상
으로) 내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서... 나 땀에... 이걸 어쩔겨어!

향수가 땀범벅으로 미친 듯이 스쿠터를 따라잡자, 흘깃 보는 어사장.

어사장 근디 그 짝은 뭘 상관이대?
향수 (버럭) 왜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비린넬 감당하겠다는데, 딴 사람도
아닌 이 개코, 나 조향수가아!!!
어사장 (어이없는) 뭐여... 저 뜬금포는?
향수 (가열차게 페달을 밟으며) 두령 씨! 기다려요! 제가 갑니다!!!

S#70. 경찰서 입구(낮)

형사2가 고개를 푹 숙인 두령을 데리고 나와 경찰차에 태운다.
두령을 태운 경찰차가 빠져나가는데, 마침 당도하는 어사장의 스쿠터.
잠시 후 초죽음이 되어 힘겹게 자전거를 몰고 향수가 들어오는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채 지나치는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형사1(V.O) 심두령 씨유?

S#71. 경찰서 / 강력반(낮)

형사1 앞에 선 향수와 어사장. 향수는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어사장 울 두령이는 절대 그런 일 헐 애가 아니라니께유!
향수 (헉헉)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서... 애길 들어봐야...
형사1 참 나... 이냥반달이 시방 뭐리는 거여?

어사장 (답답한) 아이고, 참... 그 칼에 찢린 여편네 말유. 몇 시쯤 당했다구유?
형사1 아, 고미진 씨유? 정확히 10시 35분쯤 자기 집 앞이서유.
어사장 글썽? 공계 집에 간단 올 심두령일 내가 다시 불러들인 기 월매나 잘
 현 일인 중 모르겠네, 시방.

S#72. 어사장의 회상. 재래시장 / 만선어장(사건 당일 / 밤)

소주를 들이켜고는 탁 내려놓는 어사장. 눈이 반쯤 풀렸다.
 그 앞의 두령, 한숨을 쉬더니 코트를 벗자, 드러나는 핑크색 카디건.

어사장 느 엄니 아버지가 널 월매나 이쁘게 키우려구 헐었는 중 알어? 넌 비
 린내 안 말고 살게 헐다구, 참... (울컥) 기를 쓰고 열심히 살었는디...
두령 (슬픈 미소) 아빠 일하시던 곳에 오면, 예전 행복했던 기억두 생각나
 구, 그럼 후각도 되돌아올까 싶었어유.
어사장 느 여그 다시 와 일 배운닥 헐을 떠, 나 엄청 고민했어. 그거 알어?
두령 저두요. 아픈 기억만 생각나면 어찌나...
어사장 공계 언능 댜시두 찾구, 제자리두 찾아가야 여서 괜히 인생 낭비 말구. (홀쩍)
 근디 이 여편네가 오째 안죽 안오는겨?(훅 벽시계를 보면)

22:24인 디지털 벽시계. 시간이 경과하며 23:01로 바뀌고.
 턱을 괴고 조는 어사장, 손가락으로 코를 파다가 순간 빠긋!

어사장 아얏! (코를 부여잡고 고개를 젓히며) 괜찮여! 나 완전 괜찮여!
두령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고) 뒤로 넘어가면 더 안 좋은데!

철철 나는 피를 손으로 훑치다, 손사래를 치다 수선을 떠는 어사장.
 결국 도와주려는 두령의 손과 카디건에 피를 묻히고 만다.

어사장 오메, 이를 워찌! (두령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는)
두령 (버둥거리며) 괜찮아요, 사장님!
어사장 (옥신각신) 뭘 소리대! 내가 세탁해줄라니께 이리 내애!

S#73. 다시 현재. 경찰서 / 강력반(낮)

심드렁한 형사 앞에 카디건을 흔들며 보이는 어사장.

어사장 공계 이눔이 올 두령이 알리바이다, 이거유.
형사1 (성가시다는 듯 머리만 벽벽 긁고) ...
어사장 여 묻은 게 내 코핑계, 세탁을 혀줘야쥬. 내가 솔찬히 합리적인 사장
 인디.
향수 지금 이게 두령 씨 옷이란 거죠? 그쵸? 맞쵸? 대박! 완전 초대바약!!!
어사장 그래서 이눔을 빨겼더니만 이 오라질 낭반이 벌써 세탁을 다 해버렸
 다는디... (울상으로) 워찌허면 좋아유?
향수 아니, 그래두 과학수사, 그런 거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녜요?
형사1 (카디건을 들어 살피며) 깨끗하게두 빨았구먼 나오긴 뭐가 나와유?
향수 내, 내가 봤어요! 여기 이 옷에 피 묻은 거, 내가 확실히 봤다니깐?

형사1을 보고 알아달라는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향수와 어사장.

형사1 그... 심두령썩, 참고인으로 잠깐 조사헌거구유, 썩 전이 돌려보냈는

디유.

향수 에?

형사1 며칠 전이 뭘 오הל 했는지 자기헌티 엄한 일을 부탁헌 놈이 있담서, 동영상 하날 보냈더라구유. 질이 안 좋은 놈 같으니께, 예의주시 부탁헌다구.

향수 무, 무슨 엄한 일어요?

형사1 (향수를 아래위로 훑고) 글고 봉께 그 동영상에 출연한 분이시구 만...?

향수 에? 무, 무슨... (생각난 듯) 아... 설마 그 핸드폰! 핸드폰 동영상!

형사1 (한숨) 일 터지기 전이 진즉 막았어야 허는 건디... 하이 참... 궁께 그 남편이 내연녀랑 짜고 마누랄 죽일라고오! 심두령 씨헌티두 몇 천을 불렀다잖유? 칼 한번 담가 달락허면서... (혀를 끌끌 차는) 클 날 뻘했슈.

어사장 글면, 올 두령인 암일 읍는 거쥬?

형사1 읍긴유. 서평시장 녹슨 칼 덕에 범인을 잡았는듀. 그 내연녀헌티 벌 씨 자백두 다 받았슈.

어사장 (뿌듯한) 기유?

향수 (이때다 싶어 카디건 뺏어 들고) 이건 제가 가져갑니다! (달려 간다.)

S#74. 달리는 경찰차 안 + 시장 입구(밤)

형사2가 몰고 가는 차 뒷좌석에 탄 두령. 한숨을 푹 내쉬는데,
(E) 창밖으로 젊은이들의 경쾌한 사물놀이패 거리 공연이 한창이다.

두령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형사2 이, 오늘이 슈퍼문인지 쥬로 큰 달 뜨는 날인디, 대안까정 겹쳤잖유. 만사 대길허는 날. 한꺼번이 겹칭게, 동네가 시끌뵁뵁허니 잔치허는규.

두령이 창에 가까이 붙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슈퍼문이 휘영청 밝다.

두령 형사님! 저 시장 말구 판 데 내려주실 수 있쥬?

S#75. 세탁소 건너편(밤)

두령이 경찰차에서 인사를 하며 내리면, 차가 떠난다.
건너편 세탁소를 바라보는 두령. (E) 멀리서 사물놀이패 소리가 들려온다.

두령 만사 대길하는 날이라잖아. 밀져야 본전이지, 뭐.

‘그녀’ 향수를 꺼내 양손으로 고이 쥐고 슈퍼문을 향해 기도하는 두령.
하늘에서 별뚱별이 떨어지더니, 하얀 깃털이 하나둘 살포시 내려온다.

S#76. 골목 일각(밤)

카디건을 가슴에 품고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향수.
저 멀리서 보얀 깃털들이 폴폴 날리는 모습을 본다.

향수 에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 뭐야. 이불! 이불 터졌나보네!

S#77. 세탁소 / 입구(밤)

세탁소 환풍기에서 작은 깃털들이 마치 눈 내리듯 쏟아져 나온다.
깃털을 헤치고 허겁지겁 달려 들어가는 향수.

S#78. 세탁소 건너편(밤)

기도하는 두령의 머리 위에 깃털 눈이 잔뜩 쌓였다.
깃털 하나가 두령의 콧잔등에 살포시 앉자, 눈을 뜨는 두령.
진기한 광경에 홀린 듯 세탁소로 향하는데, 발에 걸리는 무언가.
허리를 굽혀 들어보면, 비단향꽃무 자수가 놓인 포푸리 베개다!

두령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여기...

(E) 점점 가까워지며 고조되는 사물놀이 장단에 두령의 심장도 두근대고,
이때를 놓칠 새라 떨리는 손으로 여기저기 향수를 뿌리는 두령.
결국 통째로 온몸에 마구 뿌린 후,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데,
주변으로 온통 비단향꽃무가 피어나는 두령의 상상에서,

인서트.

두령의 상상. 몽타주. 향수네 집 마당(15년 전, 낮)
비단향꽃무가 피어오르는 정원. 나비가 날아드는 곳에 수선화가 피고.
어린 두령이 텃마루에 앉아 비눗방울을 불면, 거위들이 따라 달린다.
두령부가 꽃잎을 따고, 두령모가 베개 옆에 비단향꽃무 수를 놓는다.
베개에 말린 꽃잎을 넣고 무명 베갯잇을 씌우는 두령모. 탁탁 두드려 베개를 놓

아주면, 베고 눕는 두령. 엄지로 코끝을 만지다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엄지척을
한다. 두령의 부모도 흐뭇해하고.

(E) 절정을 치달는 장단 소리에 울컥 기쁨의 눈물이 터지는 두령!
베개를 꼭 안고 소매며, 옷자락, 머리카락까지 냄새를 맡아보더니,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코끝을 만지던 엄지를 쭉 치켜든다!

S#79. 세탁소 / 안(밤)

향수가 건조기를 끄자, 휘몰아치던 깃털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이내 벌렁대는 코. 창밖을 보면, 깃털 속을 걸어오는 몽환적인 실루엣!

향수 (동공이 확장되며 마음속으로) 그녀다!

S#80. 세탁소 입구(밤)

밖으로 달려 나온 향수. 훑날리는 깃털에 시야가 가린다.
이어 깃털 사이로 모습이 드러나는 그녀. 바로 두령이다!
콧잔등으로 내려앉는 깃털을 그녀가 도통한 입술로 후... 하고 불면,
살랑살랑 날아가 향수의 콧잔등에 살포시 안착하는 깃털!

향수 (촉촉한 눈으로) 향수 통을 아예 들이부었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두령 (눈물 가득하지만 비친 척) 쯤만 참죠? 금방 날아가버릴 텐데.

향수 사람은 안 날아가서 다행이에요. (확인하듯) 안... 날아갈 거죠?

두령이 피식 웃자, 향수가 두령의 손에 들린 베개를 본다.

향수 어? 내 베개! (손을 내밀며) 고마워요. 엄니가 아까 오הל하고...

두령 (놀라며) 이, 이거... 아, 아저씨가 갖구 있던 거예요?

향수 (베개를 들어 탈탈 털며) 원래 내 꺾 아니구... 이게 내 이상형이라 갖구 있었는데... (손사래 치며) 그, 그렇다구 변태 취급은 말아요! 난 그냥...

두령 (울컥) 아저씨...

향수 두령 씨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이 개코만 밋다 큰 코 다칠 뻔했거든요. (주머니에서 빨래집게를 꺼내 코를 집는)

두령 (피식) 그게 뭐야...

향수 (코 멍멍) 냄새 따위에 집착해서 정작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볼 뻔했잖아요. 금까 나두 이제 두령 씨처럼 냄새 안 맡구 살려구요.

두령이 짜리며 확 손을 들자, 놀라서 움찔, 베개로 가슴을 가리는 향수.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는 두령. 향수의 코에서 빨래집게를 떼어낸다.

두령 나, 이제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눈을 찡긋) 어떤 개코 아저씨 덕분에.

향수 (반가운) 지, 진짜요?

두령 (향수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네. 아저씨 냄새, 엄청 좋아요!

향수 (좋으면서 아닌 척 머리 쓸어 넘기며) 뭐... 인물이 워낙 좋아서 냄새 그까이 꺼 안 좋아도 되는데... 아, 난 넘 완벽해서 탈이라니까...

두령 내 코는 고쳐졌는데, 아저씨 왕자병은 영 고쳐질 거 같지가 않네.

(E) 어느새 가까이 온 사물놀이패의 거리공연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 하얀 깃털 눈이 내리는 밤. 서로를 보는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S#81. 보너스 엔딩 컷. 세탁소 / 안(밤)

안채에서 고개를 내민 옥점. 사방이 깃털들로 엉망인 가게 안. 창밖에는 사물놀이에 상모를 돌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흥겨운 광경. 옥점의 입속으로 깃털 하나가 들어가자 튼! 하고 뱉어내면, 주위의 깃털들까지 폴짝 올라가다 다시 옥점의 얼굴로 떨어지고.

옥점 이른 엠... (병, 하려다 마는) 인저 욱지기두 끊을 때가 됐능가...?

인자한 미소를 짓는 옥점. 다시 안채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서, 잠전.

끝.

삼시도 그날 밤

이소영



작가 후기 박윤서

초고는 마흔 살 노총각이 이상형을 찾아가는 좌충우돌 로맨스를 중심으로, 여든 노모를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버무려진 코믹휴먼드라마에 가까웠다면, 수정고는 멜로라인에 집중한 로맨틱코미디물이다. 단막극 특성상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결가지들은 쳐내고, 남녀 주인공의 사연과 사건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흩어져 있던 감정선들이 단순명료해지자, 몰입하기에도, 공감도 획득에도 훨씬 수월해진 느낌이다. 필자는 동화적 감수성의 초고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약간의 미스터리 요소를 넣은 바 있다. 그런데 수정을 하며 이미 잡아 놓은 틀을 비틀어놓고 보니, 그 연결고리들을 다시 촘촘하게 맞추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오픈 가족들과 동료 작가들, 특히 멘토 감독님의 리뷰를 통해 모아진 리스트들을 다시 자문해보며, 되도록 '말이 되는' 씨퀀스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사연을 바꿔보기도, 캐릭터를 수정해보기도, 구성을 이리저리 변화시켜보기도 하면서, 극적이지만 유기적이고도 개연성 있는 전개를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적합한 감정지문과, 자연스럽고 다이내믹한 동작지문을 추가해 넣었다. 멘토 감독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에 따른 이 모든 수정 과정을 통해 필자가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이 있다. 드라마 대본이란, 독자를 위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감독님 이하 제작진들, 그리고 배우들을 위한 작가의 설계도라는 것이다. 이후로도 필자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대본 설계에 임할 것이다.

작의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갑질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대한민국. 그런데 갑질이 뭐 어제오늘 일이었나 싶다. 이 사회는 계속 그래 왔었고 갑질은 또 다른 갑질을 낳으며 층층이 아래로 퍼져 나갔다. 변한 게 있다면 오히려 을이 아닐까? 참아왔던 을들이 저항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아닐까?

등장인물

<OK홈쇼핑 리빙팀>

서동일(남, 29) 인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미소 천사, 모든 일에 열심이다. 지방대 문과 출신인 자신이 대기업 OK홈쇼핑에 들어온 것은 기적이라 생각하며 인턴 기간 최선을 다해 왔다. 살고 있는 고시원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도 출근해 하루를 보내며 밀린 일을 처리할 정도로 그에게는 회사가 전부였다. 입사 11개월 차,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정규직 전환.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를 꿈꾸고 있다.

안혜진(여, 32) 대리

유능한 MD. 욕심도 많고 능력도 많다. 리빙팀 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으나 재욱이 팀장이 된 이후로 고과가 안 좋다. 사실 요즘 팀 돌아가는 꼴이 너무나 무 맘에 안 든다. 특히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민수가 자신을 제치고 승진하자 충격이 크다. 개저씨 짓만 골라하는 팀장 재욱이 최고로 싫다.

하민수(남, 35) 과장

일 빼고 뭐든 잘하는 재주꾼, 까라면 잘 까는 에스맨. 경력직으로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됐지만 재욱이 팀장이 되자마자 오른팔에 등극할 정도로 천부적인 적응력을 갖고 있다. 팀장 보필하기, 상사들 경조사 챙기기, 접대하기, 비자금 만들기 등 일 빼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양태성(남, 44) 차장

리빙팀 팀장이었으나 1년 전 재욱에게 밀려 팀원으로 강등, 위치도 앞날도 애매 모호하다. 일에서만큼은 정도를 걸으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재욱과 비교하며 답답하게 볼 뿐이었다. 지난 1년간 재욱의 괴롭힘을 견디고 있지만 점점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송재욱(남, 43) 팀장

팀장이 되자 어디서든 최고의 갑으로 등극, 요즘 내가 제일 잘나가는 것 같다. 위에서 원하는 실적은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마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의 소유자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며 공포정치를 펼친다. 루어났시 매니아로 주말에 워크숍을 빙자해 팀원들을 동원하거나 협력업체 돈으로 취미생활을 즐긴다.

<삼시도*>

박경장(남, 46) 경찰

본명 박행삼. 비주얼이나 하는 행동은 조폭 같은데 신분은 경찰. 보령경찰서 소속 삼시도 치안센터에서 5년째 나홀로 근무 중이다. 미치도록 이 섬을 뜨고 싶으나 미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 보령서 형사2팀에서 알아주는 에이스였다. 고향 친구가 피해자로 숨진 살

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윗선과의 마찰이 있었고, 강압수사 및 사건조작 혐의로 1
계급이 강등되어 삼시도로 쫓겨온 전력이 있다.

김선생(남, 30대) 의사

삼시도에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공중보건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갖고 있다.

그 외

펜션 주인(만호), 바지사장, 매표소 영감, 낚시꾼, 섬 주민들, 본서 형사들 등.

줄거리

때는 10월 어느 금요일. OK홈쇼핑 리빙팀 사람들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떠난다.

이들의 목적지는 대천항에서 배로 약 40분 거리인 서해의 작은 섬 삼시도*.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막내 동일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지만, 오로지 팀장 재
욱의 취미생활을 위해 억지로 끌려온 팀원들은 오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짜증
을 부린다.

한편, 삼시도로 쫓겨온 지 벌써 5년이 된 박경장은 일탈된 생활을 하며 이 섬을
나갈 기회만을 엿보는데...

그날 밤, 다양한 욕망들이 충돌하며 견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튿날 아침, 팀장 재욱이 결국 시체로 발견된다!

드디어 강력사건. 박경장은 삼시도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뛰어드는데...

동일은 오히려 박경장의 수상한 행동들에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에 있는 작은 섬. 꽃을 삽(插) 화살 시(矢), 화살을 쏘는 활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S#1. 타이틀

해무가 잔뜩 낀 어두운 밤, 헉- 헉- 거칠게 내뿜는 숨소리와 함께 테트라포드*
위에 주저앉은 한 사람이 희미하게 보인다. 주변을 살피더니 서둘러 사라지는
모습, 'OK'란 로고가 새겨진 볼캡을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송재욱(E) 사... 살려... 켉켉-

테트라포드 깊숙한 곳. 좁고 캄캄한 구멍 속에 끼어 움짱달짝 못하는 재욱, 목
까지 잠긴 물속에서 겨우 얼굴만 내밀고 있다. 상처로 엉망인 머리에서 흘러내
리는 피... 한 팔을 겨우 꺼내 뭉든 잡아보려 하지만 주변은 온통 따개비에 미끄
러운 녹색 이끼 같은 것들뿐이다. 철썩~ 파도 소리가 들리면 위에서 차르르- 재
욱의 얼굴로 물이 쏟아진다. 점점 아득해지는 정신... 재욱 마지막으로 있는 힘
을 다해 소리쳐본다.

송재욱 제발 살려줘! 켉-

철썩~ 차르르- 물속으로 사라지는 재욱의 얼굴. 허우적- 꼬르륵- 거리는 소리
요란하게 들리다가 화면 완전히 암전되고. 타이틀 뜬다.

타이틀. 삼시도 그날 밤

* 바다의 항구 근처나 방파제에 있는 4개의 빨 모양 콘크리트 덩어리

S#2. 대천항(낮)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는 휴대폰 화면. 끼룩거리는 갈매기 울음과 뱃고동 소리 섞여 들려온다.

자막. 12시간 전

선착장 끝에 서 있는 동일, 시간을 확인하더니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다를 본다. 흐린 하늘에 꽤 높은 파도. 발아래 늘어선 어선들이 물결에 흔들거리고 있다. 만호(남, 50대)가 분주하게 출항 준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일행에게 돌아가는 동일.

뒤쪽에 서 있던 태성, 민수, 혜진 하나같이 불통한 얼굴이다.

서동일 (달래며) 팀장님 오시면 바로 출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태성 (짜증) 가지가지 한다 진짜...

S#3. 대천항 인근 상가(낮)

허름한 2층짜리 상가건물에 뛰어 들어가는 재욱. 두리번거리더니 성인오락실 옆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간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급하게 바지를 내리고 앉는 재욱, 휴우- 한숨을 돌리는데.

박경장(E) 어디 숨었어 이 개새끼야!

황- 거칠게 문을 차며 화장실로 들어오는 박경장(사복 차림). “X발 오늘 죽어볼

래?”라며 첫 번째 칸을 퍽-퍽- 발로 차 문을 부수면 놀란 재욱이 보이고. 아랑곳 없이 “안 나와? 어?” 하며 또 바로 옆 칸 문을 부숴버리는 박경장. 숨어 있던 바지사장이 딱 걸린다.

바지사장 (바로 무릎 꿇으며) 형님... 전 정말 몰랐(하는데)

박경장 (발로 얼굴 차버리며) X발 X 같은 새끼야!
(퍽- 퍽- 계속 밟으며) 내가 섬에 유배 가 있으니까 핫바지로 보여?
(머리채 잡아 번기에 넣으며) 누구 맘대로 오락실을 팔아!

바지사장 (꾸르르륵- 고통스러워하는)

박경장 (머리채 뺏다가 넣으며) 내 피 같은 돈 5천을 박았는데 누구 맘대로 팔아!!

옆 칸, 바지사장 꾸르르륵- 거리는 소리 위로 겁먹은 재욱이 서둘러 바지를 올린다.

박경장, 다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 여기저기 터져서 피투성이가 된 바지사장의 얼굴.

바지사장 (벌벌 떨면서도 억울한) 팔고 튀어버린 걸 어떡해요 그럼... 월급 받는 바지사장이 될 힘이 있다가.

박경장 (머리채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오락실 접수한 놈한테 똑똑히 전해라. 저번 달부터 안 들어온 배당금 이자까지 쳐서 계속 넣든지 아니면 내 투자금 두 배로 내놓으라고. 알아들어?

바지사장 (겁에 질려 고개 끄덕이면)

박경장 (머리채 벽에 쿵- 박으며 뇌주는) 내가 본서 복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X발 새끼들이 공권력 무서운 줄을 몰라...

옆 칸의 재욱,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후다닥 도망가고.
박경장, 바닥에 쓰러진 바지사장을 노려보다 일어나서 저벅저벅 나간다.

S#4. 대천항(낮)

항구 한쪽, 이제 막 출발하려는 20인승 낚시배(마노호). 구멍조끼를 입고 갑판
에 서 있는 OK홈쇼핑 팀원들. 만호 조타실에서 고개를 내밀고 보면 이끼 낀 가
파른 돌계단을 서둘러 내려오고 있는 재욱.

- 서동일** (손을 내밀며) 팀장님, 조심하세요.
송재욱 (동일 손 잡고 배에 오르며) 어우씨, 여기 동네가 왜 이렇게 살벌하냐.
놀라서 중간에 끊고 왔네.
서동일 (재욱에게 구멍조끼 입혀주며)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무슨 일 있
셨어요?
송재욱 (입으며) 아니야, 됐어.
양태성 (불만스런 눈빛으로 재욱을 보는)
하민수 (급 표정을 바꾸며) 자, 이제 캡틴도 오셨는데 출발하죠. 하하하~
안혜진 (민수 어이없게 보는)

그때, 만호 항구 쪽을 보더니 “에이씨” 하고 갑자기 서둘러 배를 출발시키고,
서 있던 사람들 휘청 한다. 퍽- 소리와 함께 배 한가운데 떨어지는 짐가방. 동
일 놀라서 올라다보면 허름한 잠바를 입은 남자가 재빠르게 돌계단을 내려오
더니 훌쩍 배에 올라탄다.

- 박경장** (사람들 쪽 둘러보며) 뭘 밀항을 이렇게 대놓고들 하시나?

- 강만호** (낭패한 표정)
송재욱 (박경장을 알아보고 놀라며 시선 피하는)
박경장 X벌 여기나 저기나 엉망진창이구만.

박경장 험악한 인상으로 조타실 쪽으로 걸어가고,
동일과 팀원들 위압적인 박경장의 포스에 눌러 길을 비킨다.

S#5. 바다 위(낮)

거센 파도를 가르고 있는 낚시배, 출렁거리며 속도를 낸다. 팀원들 뱃머리 쪽에
둘러앉아 있으면 동일이 큰 가방에서 바람막이 점퍼를 꺼내 하나씩 나눠 준다.

- 서동일** 워크숍 간다니까 폴라리스스포츠에서 협찬해주셨어요. 이번 F/W
시즌 신상이래요.
안혜진 올~ 막내가 준비 많이 했네?(보며) 디자인 괜찮다, 마감도 깔끔하고
양태성 (한번 입어보며) 원단이 가볍고 좋네.
서동일 그쵸? (OK 로고가 새겨진 볼캡 나눠주며) 모자도 하나씩 받으세요
하민수 (볼캡 써보며) 오~ 맘에 드는데! (벗어서 로고 보며) 근데 웬 쓸데없
는 정성? 촌스럽게 OK홈쇼핑 CI는 왜 넣은 거야?
송재욱 (볼캡 써보는데 작아서 안들어간다)에잇~ 폴라리스 애네는 새 대가리들만
있나,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만드니까 맨날 완판을 못하지.

재욱 써보려고 애쓰다 획-모자 던지면 민수 킁킁거리고, 동일도 웃으며 무심코
조타실 쪽을 보는데 동그란 창으로 만호와 박경장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가 느껴진다.

S#6. 바다 위(낮)

조타실. 불편한 얼굴로 운전하고 있는 만호 옆에 서서 돈을 세고 있는 박경장.

박경장 (액수가 탐탁찮은) 저번에 술 먹고 취소됐으니까 무면허에, 낚싯배로 사람 날라 도선법 위반에, 지금 벌금만 몇백인데 장난하나 씨X.

강만호 (움짤하더니) 저기 박경장... (5만 원짜리 몇 장을 박경장 바지에 더 찢러넣으며) 저 사람들 도선이 아니라 그냥 낚시 손님이여. 내가 돌돔 60짜리 큰 놈으로 잡았는데 회 떠서 같이 소주나 한잔 혀~ 응?

박경장 (그제야 누그러지며) 흠- 어디 구경이나 해볼까...

조타실을 나와 배 뒤쪽에 있는 물칸 뚜껑을 여는 박경장. 커다란 돌돔과 우럭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게 보인다.

배 앞머리의 동일, 팀원들과 갈매기에 새우깡을 던지며 웃다가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보면 배 뒤쪽에서 길고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들고 의문스럽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박경장. 동일 못 본 척 고개를 돌리지만 놀란 얼굴이다. 박경장, 한손으로 칼을 쓱 훑고 잘 갈렸나 살펴보더니 다시 노골적으로 동일 일행을 관찰한다.

S#7. 삼시도 전경(낮)

바다에서 보이는 아담한 삼시도 풍경. 마노호가 선착장에 다가가고 있다.

S#8. 삼시도 선착장(낮)

선착장에 정박한 마노호. 다들 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탈 때와는 다르게 기진맥진한 모습. 그나마 뽕뽕한 동일이 먼저 내리더니 “조심하세요”라며 손을 내밀어 팀원들을 도와준다. 사람들 다 내리고 배 갑판 위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OK’ 로고 볼캡 하나.

S#9. 삼시도 선착장(낮)

선착장 일각. 만호의 승합차에 옮겨 타는 팀원들. 동일, 한쪽에서 큰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있던 섬 주민 두 명(나이든 남자들)과 눈이 마주치는데, 기분이 나쁠 정도로 뚫어지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시선을 돌렸다 다시 봐도 여전히 보고 있는 남자들.

S#10. 달리는 차 안(낮)

1차선 길을 달리고 있는 승합차, 아름다운 삼시도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흘러간다.

운전석의 만호, 룸미러로 뒷자리를 보더니 살짝 가우뚱하다가 다시 운전에 집중한다.

맨 뒷자리에 앉은 동일, 한 명씩 팀원들 얼굴을 보면 옆에 앉은 민수 혼자 볼캡을 쓰고 있다. S#20까지.

앞줄의 태성과 혜진 모두 우울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데.

그 위로, 팀원들이 했던 불평 섞인 말들이 들려온다.

하민수(E) 아 또 주말 워크숍이야?
양태성(E) 무슨 섬까지 가, 짜증나게...
안혜진(E) 동일 씨, 팀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좀 심하다.

동일, 룸미러에 비친 조수석을 보면 재욱만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 있다.

인서트. 동일의 회상

사무실. 야근 중인 동일. 재욱이 옆에 와서 모니터를 보더니.

송재욱 이번 워크숍 준비 제대로 해라, 알지? 내가 뭘 원하는지?
서동일 네.
송재욱 잘해~ 너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특- 치고 가는)
서동일 (혼란스런 얼굴)

동일, 씩씩한 표정으로 밖을 보다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다.

S#11. 마노펜션 / 앞마당(낮)

푸른 잔디가 넓게 깔린 펜션 앞마당.

S#10의 승합차가 들어와 주차하더니 펜션 주인 만호와 팀원들이 내린다. 만호가 열린 승합차 뒷문을 열면 동일 달려가 짐을 나르기 시작한다. 태성과 혜진 펜션으로 들어가고, 재욱과 민수 문 앞에 서서 담배를 찾아 꺼내 묻다.

송재욱 (하늘을 보며) 날씨 한번 그지 같네. 이러다 낚시 못하는 거 아냐?
하민수 (라이터 찾으며) 예보 보니까 태풍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데요.

서동일 (큰 낚시가방 옮기다 들고 옆에 오더니) 팀장님, 원래 태풍 전이 입질이 더 많대요.
송재욱 (반색하며) 그래?
서동일 제가 선장님한테 갯바위 포인트 몇 군데 알아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모시고 갈게요.
송재욱 오케이~ 두고 보겠어.
서동일 (다시 분주히 짐을 옮기러 가고)
하민수 (동일 보며) 여하튼 참~ 열심히 살아. 학벌은 좀 후져도 가성비는 좋은 앤데... 쫓쫓쫓. 이번이 세 번째 인턴이랬나?
송재욱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월요일에 감사팀 가서 소명이나 잘해.
하민수 (급 우울한 표정으로) 하긴 내 코가 석 자네요. 에휴-

재욱 입에 담배를 물고 내밀면, 민수 손으로 가리며 라이터를 켜는데 탁탁- 몇 번 헛돌다가 딱 솟아오르는 불꽃.

S#12. 펜션 / 야외 바비큐장(밤)

숯불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불판 위로 척- 시뻘건 고기가 올라온다. 바비큐 그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동일. 한쪽에 다 익은 고기를 접시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간다. 회와 음식들이 차려진 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서동일 (고기 접시 내려놓으며) 여기 스테이크도 왔습니다~ (회 보며) 우와~ 이거 다 팀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덕분에 오늘 저녁 진짜 풍성하네요.

송재욱 (어깨 힘들어가며) 간단에 실력 발휘 좀 했지. ㅋㅋㅋ.
하민수 팀장님 진짜 대박, 내가 봤는데 완~전 낚시의 신이야.
안혜진 (고개 한쪽으로 돌리고 입 모양으로만) 지랄.
양태성 (그런 혜진을 보고 눈치 주면)
안혜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웃으며 얼굴을 돌리는)
송재욱 (일어나) 자자~ 오늘 먼 길 오느라 다들 고생 많았어. 특히 동일이,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하과장 승진도 기념할 겸
 온 거니까 다들 빼지 말고 끝까지, 밤새도록 달린다. 오케이?
일동 오케이!
송재욱 (잔을 들며) OK홈쇼핑 리빙팁의 발전을 위하여!
일동 위하여!

일동 짬- 하고 원샷 한다.

S#13. 삼시도 치안센터 전경(밤)

위잉- 하는 바람 소리만이 가끔 지나가는 캄캄한 삼시도의 밤.
 어둠 속에서 홀로 불 밝히고 있는 단출한 치안센터 전경 보이고.
 치안센터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내부, 아무도 없다.

S#14. 마노펜션 / 앞마당(밤)

바비큐장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 들려오는 가운데 혜진이 화장실을 가기 위
 해 종종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펜션 건물 쪽으로 간다. 갑자기 이상한 기분

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혜진. 아무도 없자 고개를 가웃하고 펜션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건물 사이에서 속 나타나는 (제복을 입은) 박경장의 뒷모습.

S#15. 마노펜션 / 내부 화장실(밤)

변기에 앉아 있는 혜진. 불투명 유리지만 꽤 크게 나 있는 창으로 누군가의 그
 림자가 어른거리는데 미처 보지 못한다. 그때, 덜컥덜컥- 밖에서 창문을 흔들어
 보는 소리가 들리고 “으악-!” 비명을 지르는 혜진.

S#16. 마노펜션 / 앞마당(밤)

화장실 창문 바깥 쪽에서 걸어오는 박경장과 기겁하며 펜션 문을 열고 나오는
 혜진이 다시 딱 마주치고. 또 “깽-” 소리를 지르는 혜진.
 박경장 귀가 따갑다는 듯 인상을 쓰며 혜진을 보면 놀라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다. 그때, 비명을 들었는지 어디선가 동일이 나타난다.

서동일 대리님! 무슨 일이세요?
안혜진 (무서워 동일 뒤에 숨으며) 저, 저 사람이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막 창문을 흔들잖아.
서동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박경장 (동일을 뺨히 보다가) 보면 몰라? 순찰.
서동일 근데 왜 여자 화장실을 훑쳐보려고 해요?
 (박경장의 제복을 유심히 보며) 진짜 경찰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순찰이라도 막 남의 펜션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박경장 그러는 년, 뭐하고 있었는데 새끼야?
서동일 (어이없이 보면)
안혜진 (동일 뒤에 숨어서) 아니 무슨 경찰이 막 반말이야?

서로를 노려보는 박경장과 동일, 팽팽히 대치 중인데.
갑자기 바비큐장에서 와장창창- 깨부수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고성이가 들려 온다. 놀란 동일 망설이며 박경장을 잠시 보다 바비큐장으로 달려가고, 혜진 따라간다.

박경장 (여유 있게 슬슬 따라가며) 하- 오늘 밤 예감이 좋네. 좋아.

S#17. 펜션 / 바비큐장(밤)

동일과 혜진 와서 보면. 이미 만취한 재욱과 태성이 육탄전을 벌이는데 가운데서 말리는 민수가 더 얻어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성,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더니.

양태성 (짹그랑~ 깨면서) 그래, 내가 오늘 니 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송재욱 (가슴 내밀며) 찢러 봐 새끼야. 진짜 썩시지도 못할 놈이.
안혜진 (달려가 맥주병 빼앗으며) 안 돼요 차장님!
서동일 (재욱 말리며) 제발 참으세요 팀장님.
하민수 (짜증난다) 아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송재욱 (동일 밀며) 놔 봐 이거.
양태성 니가 아무리 내 뒤통수를 치고, 뺨아대도 참았지만, 이번엔 못 참어.
(혜진 보더니) 송팀장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뭐 짓을 했냐고!

안혜진 (놀라 보는)
송재욱 안대리! 안대리가 말해봐! 우리 뭐 일 있었어?
안혜진 ...

인서트. 혜진의 회상
유홍가 밤. 재욱이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고 있는 혜진의 불편한 모습.
“자기가 주면 나도 승진시켜주고. 기브 앤 테이크, 좋잖아?” 라며 어딘갈 보는 재욱. 혜진 그 시선 따라가면 호텔이 보인다.

안혜진 ...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양태성 (믿지 못하겠다는 듯 혜진 보면)
안혜진 (아니라고 고개 흔들는)
송재욱 (어이없는) 하- 쌍으로 꼴값을 떨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네 둘이 언제부터(하는데)
양태성 (다시 달려들며) 닥쳐! 개새끼야.

다시 육탄전을 벌이는 두 사람. 재욱에게 덩치로 밀린 태성이 일방적으로 몇 대 맞으며 바닥에 나가떨어진다. 재욱 흥분해서 철재 의자를 들고 태성을 내리치려는데,
태성 뒤쪽에 팔짱을 끼고 아까부터 쪽-관전하고 있던 박경장을 발견한다.
순간, 놀라며 얼음처럼 몸이 굳는 재욱.

박경장 왜? 한창 재밌는데 더해 봐.

플렉시백. 재욱의 회상
S#3. 화장실에서 퍽-퍽-바지사장을 밟고 고문하는 박경장의 모습.

재욱, 갑자기 눈치를 보며 의자를 내려놓는다.

박경장 (짜증내며) 나 신경 쓰지 말고 해보라고. 여기서 니가 왕이잖아.

박경장, 재욱 앞에 다가가 뺨을 툭 때리면 모두들 놀라고. 재욱 꼼짝 못한다.

박경장 (뺨 툭툭 치며) X별, 왜 멍석을 깔아줘도 못해. 둘 중 한 놈이 뒤지든
해야 나도 사건이 생기고, 사건이 생겨야 (버럭) 이 X 같은 섬을 나갈
거 아냐!! 어?

팀원들 경악스런 표정으로 박경장을 보고.

재욱,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더 이상 모멸감을 참지 못하는데.

송재욱 (육하하며) 당신, 내가 아까 화장실에서 다 들었거든?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막나가도 되는거야? 내가 확 다 붙어버리는 수가 꼭-

박경장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재욱의 턱과 목 사이를 잡으며) 그 전에 니가
먼저 뒤져 새끼야.

재욱이 숨이 막혀 킁킁거리자 노려보다가 놔주는 박경장.

사태를 지켜보던 동일, 박경장의 앞에 막아서며.

서동일 경찰로 개입하실 거 아니면 돌아가주세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하겠
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구요.

이 새끼 봐라? 하는 표정으로 동일을 보는 박경장과 지지 않고 맞서는 동일.

S#18. 등대길(밤)

잔뜩 긴 해무로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밤바다. 길 끝에 홀로 선 빨간 등대가 희미
하게 빛나고 있다.

S#19. 펜션 / 바비큐장(밤)

영망이 된 바비큐장을 정리하고 있는 펜션 주인 만호. 화가 나는지 갑자기 정리
를 멈추고 “에이 개진상들...” 하더니 깨진 맥주병을 들고 나간다.

S#20. 마노펜션 / 내부(밤)

거실에서 새우깡에 소주를 마시고 있는 동일과 민수. 만취한 민수 계속 잔을 내
밀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동일.

하민수 (홀짝- 원샷 하더니) 아이씨- 기분 옛 같네... 승진 턱 낸다고 기껏 왔
더니 왜들 싸우고 난리야...

서동일 (또 술 따르며) 너무 많이 드신 거 같은데.

하민수 (홀짝-) 크크- (웃더니 목소리 낮추며) 근데 아까 그 경찰 좀 또라이
같긴 해도 (뺨 때리는 흉내 내며) 속이 다 시원하더라. 크크크-
(달혀 있는 방문 보며) 팀장님 쪽팔려서 취한 척 들어가는 거 봤지?

서동일 이제 그만 드세요. 들어가 주무셔야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성과 혜진이 들어온다. 동일 “오셨어요?” 하지만 혜진

아무 대꾸 없이 울어서 통통 부은 얼굴로 얼른 여자 방으로 들어가고, 태성도 어색하게 시선 피하며 남자 방으로 들어간다.

하민수 (방문 하나씩 가리키며) 팀장님, 안대리, 양차장... (볼캡을 벗고 벌렁 누우며) 아씨 몰라 난 여기서 잘래.

동일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밤이다.

S#21. 동일의 꿈. 마노펜션 / 내부(밤)

사람들을 밀치며 고속터미널을 헤매고 있는 동일,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 하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일, 이미 흰 천으로 덮인 누군가의 발을 보고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는다.

화장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며 오열하는 동일.

거실에 웅크리고 누워 있던 동일이 놀란 듯 눈을 번쩍 뜬다.

동일의 슬픈 눈에 고여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S#22. 삼시도 해변(아침)

푸른빛이 도는 바다. 잔뜩 흐린 날씨에 파도가 거세지만 모래사장은 곱게 펼쳐져 있다.

S#23. 등대길(아침)

등대길 오른쪽 바다 테트라포드에 올라서서 루어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50대 남). 팽팽해진 낚싯대를 잡아당기더니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린다. 바늘을 빼다가 물고기를 놓치는 낚시꾼, 물고기가 발아래 테트라포드 구멍으로 떨어진다. 낚시꾼 에이씨- 하면서 구멍 사이를 들여다보다 화들짝 놀라며 주저앉는다.

S#24. 마노펜션 / 마당(낮)

여기저기 뛰어다녔는지 땀을 흘리며 펜션 마당으로 들어오는 동일, 파라솔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태성과 혜진 앞으로 온다.

서동일 (가쁜 숨을 내쉬며) 혁혁- 차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신데요?

양태성 ... 그래?

서동일 네. 마을부터 해변까지 다 돌아봤어요.

하민수(E) 어디 짱박혀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냐?

서동일 (돌아보면)

펜션에서 나온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걸어온다.

하민수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서동일 어떡하죠?

하민수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니가 찾아야지. 아냐- 가뜩이나 주말에 워크숍 간다고 와이프한테 욕먹었는데 오늘 늦게 올라가면 나 죽~어.

서동일 (조심스럽게) 혹시 어제 일도 있고 해서... 팀장님 화나서 먼저 가신 게 아닐까요?

일동, ㅎㅎ... 헛기침 하고 딴 데 보며 어색해지고.

서동일 방에 짐도 없고, 이 작은 섬에서 살살이 찾아도 안 계시면 일찍 대천항으로 나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하민수 진짜 가셨나? 하긴, 우리 앞에서 그 개망신을 당했으니...

안혜진 (짜증내며) 나 내일 친구 결혼식 있어서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양태성 그래?

서동일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파도가 더 세지면 오후에는 배가 못 뜰 수도 있어요.

양태성 그럼 우리도 약속한 뱃시간에 일단 대천으로 나갈까?

서동일 (고개 끄덕이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S#25. 보건지소 내부(낮)

베드에 올려진 재욱의 시체를 놓고 살펴보는 공중보건의 김선생(30대 남). 하나씩 보면 코와 입 주변에 하얀 거품이 있는 재욱의 얼굴, 온 몸이 물에 퐁퐁 불어 있지만 머리에 큰 상처(구멍) 두 군데가 명확하게 보인다. 여기저기 굵긴 자국들, 특히 오른손은 마지막 몸부림 때문이었는지 따개비 조각과 이끼가 손톱에 잔뜩 낀 채 다 찢어져 있다.

벌컥- 보건소 문을 열고 혈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박경장. 베드 위의 재욱을 보더니 놀라며.

박경장 (버럭)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시체를 옮겨!

(저벅저벅 김선생 앞에 걸어와) 너 뭐야? 어! 니가 뭔데?

김선생 (절절매며) 그게 아니라... 낚시꾼들이 꺼내와서 저는... 제가 박경장님께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박경장 (전화를 꺼내 보면 부재중 00통화)

눈알을 굴리며 생각하는 박경장, 갑자기 침착해지더니.

박경장 뭐, 알아낸 거 있어?

김선생 (볼펜으로 재욱 입과 코의 거품을 가리키며) 제 생각엔 최종 사망 원인은 일단 익사 같습니다... 사후 경직도로 추정하면 사망 시간은 12시간 이내? 자세한 건 물에 가서 부검을 해봐야(하는데)...

박경장 (끊으며) 김선생, 당장 보건소 샷타 내리고 아무도 들이지마.

김선생 네? 그건 왜...

박경장 이거 살인사건이라구! 내 말 못 알아들어?

김선생 (졸아서) 아... 네...

박경장 공보의 한 달 차가 될 안다고 나서? 보면 와꾸가 딱 나온다고 지금. 분명 그 일행 중 하나야. 내가 짐작이 가는 놈이 있어.

그때, 잉- 잉- 진동 소리가 울리고 박경장 전화를 받는다.

박경장 여보세요? 어... (듣다) 별일? 아, 5년 동안 팽이가 생선 물어간 거 말고는 사건이란 게 없는 데가 삼시돈데 뭘 별일이 있어... 끊어!

(끊으며) 하- 본서 새끼들 냄새 하난 기가 막히게 잘 맡네.

김선생 (의아한 눈으로 보면)

박경장 뭐? 범인이 뻔한데, 밥상 차려 본서에 떠먹여줄 일 있냐?

(괜히 재욱 머리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혼잣말)
어후... 한 방에 아작을 냈어...

박경장, 재욱의 시신을 보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김선생 그런 박경장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데.

S#26. 선착장(낮)

마노호에 타고 있는 동일과 팀원들. 높아진 파도에 배가 출렁출렁하고.
만호가 밧줄을 풀며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양태성 (불안한 얼굴로) 거 빨리 좀 갑시다. 날씨도 안 좋아지는데.
강만호 (느릿느릿 밧줄 정리하며 궁시렁) 암만 급해두 일이 절차라는 게 있지... 큰일 보구 안 닦구 나오란 소리여 뭐여...

만호 슬렁슬렁 조타실로 가면, 환장하겠단 표정으로 보는 태성. 배가 시동을 걸고 서서히 움직이자 그제야 안도하는 듯 미묘하게 바뀌는 태성의 얼굴. 그런 태성을 약간 의아하게 보는 동일.

그때 끼이이익- 하는 급정거 소리가 들리고. 동일 선착장 위쪽을 보면 내팽개치듯 스쿠터에서 내리는 박경장, 주변을 살피다 밧줄이 끊어진 작은 닻을 주워 들더니 빙빙 돌려 마노호를 향해 던진다.

동일 급박하게 “모두 조심하세요!” 외치면, 끝나기가 무섭게 쇠덩어리 닻이 날아와 짝어 내리며 배 한쪽을 부수고.

헤진 “아악!” 비명을 지르고, 다른 팀원들도 놀라며 선착장을 본다.

박경장 (손 까딱하며) 일루와 일루. 이새끼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딜 내뺐?

웃는 듯 미묘한 박경장의 얼굴에서.

S#27. 어촌계 회관 / 전경(낮)

선착장 근처, 오래되어 보이는 1층짜리 삼시도 어촌계 회관. 그 위로.

박경장(E) 다시 올 때까지 전원 꼼짝 말고 있어.

S#28. 어촌계 회관 / 내부(낮)

재욱의 사망 소식에 충격 받은 팀원들 넋을 놓고 황망히 앉아 있는데.

하민수 (동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지금 이거 실화냐? 진짜야? 팀장님이 죽었다고? 하-

서동일 (생각에 잠긴)

안혜진 (울먹이며)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양태성 ...

다들 생각이 많아지는 얼굴... 무거운 정적만이 공기를 채우는데.
동일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창밖에 누가 있나 살피고 돌아보더니.

서동일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최소한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팀원들 동일한 말에 동의하면서도 망설임이 교차한다.

S#29. 마노펜션(낮)

펜션 앞마당.

여기저기 구석구석 뒤지고 다니는 박경장과 따라다니는 만호. 박경장 한쪽에 해루질 장비가 있는 곳에 쭈그리고 앉더니 뽀족한 호미, 삽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박경장 여기 혹시 최근에 CCTV 달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강만호 치안센터에도 읊는 CCTV가 여기라고 있당간?

박경장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나며) 그럼 됐고.

강만호 ??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아, 맞다! 좀 이상한 게...

박경장 (보는)

플래시백.

S#10. 운전석의 만호, 룸미러로 뒷자리를 보더니 살짝 가우뚱하는 모습.

강만호 뭔가 익숙한 얼굴이 있다 싶었는데...

전에 한 번 왔던 사람 같기도 허구. 긴가민가 혀.

박경장 (만호를 날카롭게 보며) 누구?

S#30. 삼시도 보건지소 앞(낮)

‘금일 휴관’이라 써 붙인 종이가 보이고, 그 앞에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는 김선생.

동일과 팀원들이 들어가려 하자 두 팔을 벌려 제지한다. 옥신각신하는 양쪽.

김선생 안 된다고요! 외부인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서동일 아니 우리가 같이 온 일행인데 왜 확인을 못해요? 시신을 봐야 진짜 팀장님이 맞나 알 거 아니에요.

김선생 이미 신분증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보안상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동일 (의아해하며) 여기 사는 그 경찰이 그래요?

김선생 네, 박경장님이요.

하민수 그럼 사인이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김선생 (망설이는)

하민수 (짜증내는) 뭘 비밀이 이렇게 많아!

김선생 ... 그게 (하는데)

박경장(E) 그 입 쳐다물어라.

팀원들과 김선생 놀라서 돌아보면, 섬뜩한 표정으로 박경장이 걸어오고 있다.

S#31. 관사 / 전경(낮)

단출한 삼시도 치안센터 옆으로 가정집 같은 관사의 전경이 보인다. 그 위로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왜 우릴 잡아놓는 건데’ ‘이거 불법 아냐’ 등등 궁시렁

거리는 소리.

S#32. 관사 / 거실(낮)

관사 내부. 동일, 태성, 민수, 혜진이 거실을 꽉 채우고 서 있다.
가정집 같은 걸모습과는 달리 웅한 실내. 한쪽에 술병들 늘어서 있고,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옷들, 붉은 얼룩이 묻어 있는 야구방망이, 낡은 테이블 위에 먹고 난 컵라면 그릇과 쓰레기들 보인다. 그때 현관으로 들어오는 박경장, 면면을 쪽-보더니.

박경장 왜? 좁고 답답한 치안센터보다 좋잖아? 앉아.

박경장 뻘히 보면 일동 어쩔 수 없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박경장 (앞에 서서 수갑을 만지작거리며) 지금이라도 자수할 사람?

일동 ...

박경장 (픽- 웃더니) 아 농담도 못하나, 왜 이렇게 다들 심각해?

박경장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보면 시선을 피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박경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동일. 상의는 경찰 제복을 입었지만 하의는 어두운 색의 추리닝 재질 바지다.

박경장 (고개 끄덕이며) 하긴 다이다리로 떠야 진실된 말이 나오지...

S#33. 관사 / 방1 + 방2 + 방3 교차(낮)

책상과 책장 정도만 있는 서재방. 동일 방안을 둘러보며 서 있고.
이부자리가 있는 안방. 혜진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
작은 빈방. 민수가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대고 엿듣고 있다.

S#34. 관사 / 거실(낮)

박경장 불펜을 돌리며 찬찬히 테이블에 마주 앉은 태성을 본다.
어젯밤 싸움으로 멍든 얼굴에 불안하고 주눅 든 모습.

박경장 속이 시원~하지? 확 담가버릴려구 했던 새끼가 뒤져서.

양태성 ...

박경장 (수첩 보며) 일 년 전까지 팀장이었는데, 죽은 송재욱한테 그 자리 뺏기고 지금은 직책 없는 차장. 하- 깡깡하네. 나랑 비슷해.

양태성 ...

인서트. 태성의 회상

회사 옥상. 재욱의 목살을 잡은 태성 “접대는 니가 받아먹고 내가 왜 시말서를 써!” 하면 재욱 “그럼 사직서를 쓰든지~” 비아냥거린다. 참고 손을 놔버리는 태성.

어젯밤 술자리. “니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집적거리는 거야? 지 혼자 재미는 다 보고, 왜? 난 안 돼?”라는 재욱의 말에 결국 터지는 태성. 재욱에게 달려든다.

박경장 안혜진하고는 뭐 사이? 어제 것 땀에 싸웠잖아?
양태성 ...
박경장 (테이블 광 내리치며) 아 당당하게 사귀다고 왜 말을 못해? 씨X, 불
 룬하는 놈이나 그걸로 헐박하다 뒤진 놈이나...

인서트. 방1, 방2, 방3
 방문에 붙어 엮고 있던 세 사람. 동일과 민수 놀라고. 혜진 망했던 표정.

박경장 어제 송재욱한테 얻어터지고 기분 나빴지?
양태성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
박경장 그래서 충동적으로 확- 죽인 거 아냐?
양태성 (황당한) 네?
박경장 누가 봐도 당신이 켈 의심스럽잖아 지금!
양태성 하- (기가 막히지만 참고) 전 아닙니다!
박경장 (뻔히 보다가) 그럼 누굴 꺼 같아?

S#35. 보건지소 내부(낮)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김선생, 차트를 뒤져보더니 별떡 일어나 베드
 로 간다. 흰 천을 걸으면 다시 드러나는 재욱의 시신.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봐
 도 머리의 상처 외에는 딱히 큰 상처가 없다. 돋보기를 가지고 머리에 난 구멍
 을 들여다보는 김선생.

S#36. 관사 / 방1(낮)

동일 책상에 진열해놓은 여러 가지 감사패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로 손해
 보험협회에서 받은 것, 취객 절도범 검거로 보령시청에서 받은 것 다양한데...
 받는 사람이 모두 '보령경찰서 박형삼 경사'로 되어 있다. 그 옆에 누런 종이봉
 투를 발견하는 동일, 무언가를 꺼내 보고 놀라는 얼굴.

S#37. 관사 / 앞마당(낮)

흥분한 민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열 내고 있다.

하민수 내가 팀장님 오른팔이요? 얼척 없네 진짜... 그리고 사이 안 좋은 사
 람을 의심해야지, 왜 친한 사람을 의심해요?

박경장 (가만히 보는)

하민수 저 말고, 그 두 사람이 평소에 사사건건 부딪치며 싸웠다니까요?
 저는요 팀장님하고 문제될 게 하나~두 없는 사람입니다!

박경장 니가 홈쇼핑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은 돈 관리했다며?
 그 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은 죽은 송재욱이고.

하민수 !! (얼굴이 하얘진다)

인서트. 민수의 회상
 회사 비상계단.

하민수 감사팀에 투서가 들어왔다는데 어떡하죠 팀장님?

송재욱 (당연하다는 듯) 어떡하긴 니가 가서 해명해. 잡아떼야지.

하민수 제가요?
송재욱 (버럭) 야- 내가 너 이번에 과장 괜히 시켜줬나? 이런 일 해결하라고 시켰지? (정강이 까며) 니가 똑바로 했어야지 새끼야!

하민수 아흑- (고통을 참는)

펼쩍 뛰던 방금 전과는 달리 침묵하는 민수.

박경장 리베이트 사건으로 양심 품고 송재욱 해친 거 아냐?

하민수 (억울한) 절대 아니에요.

박경장 그럼 밤중에 해변엔 왜 갔어?

하민수 (황당) 양차장이 그래요? 아- 나 미치겠네. 제가 무슨 해변엘 가요!
전 팔라 돼서 펜션에서 잠들었다니까요. 오히려 양차장이랑 안대리가 해변 쪽으로 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

박경장 그 시각에 송재욱이랑 서동일은?

하민수 (기억 떠올리며) 팀장님은 방에 먼저 들어가서 주무셨고...
동일이는 같이 술 먹다 새벽에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었고...

박경장 송재욱이 방에 있는 거 직접 봤어?

하민수 (생각해보니 못 봤다) 아니...요?

박경장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수첩에 적힌 숫자를 비교하며 뭔가를 조회해보기 시작한다.

S#38. 관사 / 방 1 + 거실 교차(낮)

동일 종이봉투의 자료를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급하게 관사로 들어오는 박

경장.

동일, 자료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 하는데 서류가 한 장 떨어지고, 신발을 집어던지듯 벗고 동일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박경장. 박경장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 동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장에서 뒤돌아 서 있다. 박경장 동일의 얼굴을 찬찬히 보다가 피식 웃더니.

박경장 하- 이거 재밌네?

서동일 ...

박경장 (다가오며) 역시 처음에 느낌으로 짚은 답이 정답이야, 그치?

서동일 없는 답을 만드는 건 아니구요?

박경장 (얼굴 들이대며) 넌 이제 끝났어 새끼야.

팽팽히 보는 두 사람, 눈빛에서 불꽃이 튜다.

박경장 동일을 노려보다 나가고, 동일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떨어진 서류를 보며 휴- 한숨을 내쉰다.

S#39. 관사 / 거실(낮)

동일, 옆에 앉은 민수를 보면. 민수, 썩은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고. 그 앞에 나란히 앉은 태성과 혜진, 서로 손을 붙잡고 걱정 말라며 다독이고 있다.

하민수 만에 하나... 팀장님이 타살이라면 범인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서동일 (놀라며) 누구요?

하민수 (태성과 혜진을 보며) 혼자 그랬거나 둘이 같이했거나.

양태성 (민수 노려보는)

안혜진 (발끈) 아까부터 말 자꾸 함부로 하는데, 당신 미쳤어?
하민수 야 안대리! 너야말로 말이 짧다? 나이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내가 위인데 어디서 반말을 짹짹 해!
안혜진 (기가 차다는 듯) 하- 실력도 없이 딸랑딸랑 앞잡이 노릇이나 해서 승진한 주제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민수 헐- 그러는 너는? 불륜녀라서 참 떳떳하겠다, 어?
안혜진 (벌떡 일어나며) 뭐? 당신 지금 말 다했어?
하민수 (같이 일어나며) 다 안 했다! 뒤로 호박씨 까면서 동일이가 너 좋아하는 거 이용해서 온갖 일 다 시켜먹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냐.
서동일 (일어나 민수 말리며) 과장님...
안혜진 하- 당신은! 당신도 보고서니 기획안이니 동일 씨한테 다 떠넘기고 팀장님 뒤나 닦고 다녔으면서 어디서 큰소리야!
양태성 (일어나며 버럭) 둘 다 그만 좀 해!
안혜진 (다다다다 쏘는) 이제 송탑장도 없고 끈 떨어진 처지에 앞으로 얼마나 잘나가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당신.
하민수 !! (혜진의 말이 확 와 닿으며 생각이 많아지고)
서동일 다들 진정하세요. 이럴수록 저희끼리는 뭉쳐야죠. 아직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이상한 걸 봤는데.

그때, 열쇠 꾸러미 같은 것을 들고 째랑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오는 박경장 음흉한 미소를 짓고. 동일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

S#40. 관사 / 방1 + 방2 + 방3 교차(낮)

서재방. 동일 방안에 떠밀려 들어오면 문 닫히고 철컹- 소리가 들린다. 황급히

방문을 돌려보면 밖에서 잠가버렸다! 동일 재빨리 창문 쪽으로 가서 열어보면 방법창으로 뻑뻑이 둘러싸여 있다.

안방. 태성과 혜진 광-광-광- 문을 두드려보지만 역시나 잠겨 있고.

작은방. 민수가 딸각딸각 방문 손잡이 마구 돌려보지만 안 열린다.

박경장(E)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얌전히들 있어.

S#41. 관사 / 거실(낮)

방마다 두들기며 문 열라고 아우성인 가운데 박경장 열쇠 꾸러미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현관으로 나간다. 빈 거실. 각 방문에서 목소리만 들려온다.

서동일(E) 다들 괜찮으세요?

하민수(E) 나 방에 갇혔어.

양태성(E) 나랑 안대리두.

하민수(E) 아씨, 아무리 경찰이라도 이거 불법 아냐?

안혜진(E) (울먹이며) 저 아저씨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서동일(E)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잠깐만 참고 기다리세요.

S#42. 보건지소 내부(낮)

재욱 머리의 상처를 돌보기로 보고 있는 김선생. 검은색 따개비 조각이 여기 저기 보이고 두 개의 구멍 주변으로 붉은색 이물질들이 끼어 있다. 붉은 덩어리를 핀셋으로 떼어 슬라이드글라스에 올린 후 자리에 돌아와 돌보기로 자세히

들어다보는 김선생.
!! 뭔가 알아낸 얼굴이다.
그때 뒤에서 점점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 두 손이 김선생을 향해 다가오더니
양 어깨를 탁- 잡는다.

김선생 (놀라 돌아보며) 깜짝이야!

박경장 뭘 그리 놀래?

김선생 (보는)

박경장 뭐 좀 알아낸 거 없어?

김선생 (슬라이드글라스 손 안으로 숨기며) 아니요... 아직.

박경장 (의뭡스럽게 보더니) 그래?

돌아서서 가는 박경장을 보며 긴장을 풀고 후- 한숨을 내쉬는 김선생.

S#43. 관사 / 방1(낮)

동일 발로 방문을 뱅-뱅- 차보지만 소용이 없고. 주변을 둘러보다 책상 앞에 놓
인 회전의자에 시선이 머문다.

S#44. 삽시도 선착장(낮)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선착장 근처 매표소. 오늘도 남자 둘이 큰 드럼통 앞에서
불을 피고 있다. 매표소 주인 영감(70대 남)이 박스에 담긴 종이 뭉치를 드럼통
에 막 넣으려 하는데 박경장 “잠깐!” 하며 달려와서 겨우 낚아챈다.

박경장 (버럭) 3개월 동안 의무 보관인 거 몰라?

영감 (놀라며) 왜 그러?

박경장 종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는데. 자세히 보면 지
난 몇 개월어치 여객선 승선신고서이다.

S#45. 관사 / 방1(낮)

동일, 회전의자를 들고 상단 좌판을 하단 바퀴 부분과 분리하더니 바퀴 부분
의 쇠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기 시작한다. 퍽-퍽- 조금씩 나무 문에서 떨어지
는 손잡이.

S#46. 어촌계 회관(낮)

회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경장. 동일 일행이 남겨놓은 짐들을 쭉- 스캔하더니
가방을 하나씩 뒤져본다. 어느 배낭 앞주머니에서 동일의 인턴사원증을 찾아
낸 박경장. 배낭을 들며 드디어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는 표정이다.

S#47. 관사 / 거실(낮)

방에서 탈출한 동일,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하며 다른 방문도 부수며 사람들
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띵-띵- 띵- 띵- 벨소리. 놀라서 보면 유선
전화기 울리는 소리다. 동일, 망설이다 의자를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어보는데.

바지사장(F) 형님, 왜 이렇게 핸드폰을 안 받으세요! 제가 사장한테 형님 본서로 복귀한다고 일단 약쳐냈으니까 나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투자금이든 배당금이든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약빨도 통하죠, 네?

동일, 박경장이 나가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대충 짐작이 간다.

S#48. 보건지소(낮)

김선생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식초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린다. 붉은 이물질에서 부글부글 기포가 나자 놀라며 이제 알겠다는 표정이다.

S#49. 관사 / 거실(낮)

방문을 모두 부수고 탈출에 성공한 네 사람. 나오긴 했는데 불안하게 서 있다.

하민수 (엉망이 된 문들을 보며) 이제 어떡하지?

안혜진 (양칼지게) 뭘 어떡해요 폐소공포증 땀에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서동일 지금 저희들끼리 분열되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분명한 건 팀장님이 타살로 추정되는데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저희들 중 하나를 범인으로 몰고가려 한다는 거예요.

일동 (고개 끄덕이는)

서동일 그런데 저희는 팀장님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사인이 무엇인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구요.

하민수 그리고 이 집도 좀 이상하지 않아? 경찰서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때, 우르릉 쿵쿵-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고. 헤진 깜짝 놀라며 “아악-” 소리 지른다. 잠시 후 모든 전원이 다 꺼져버리고 어두워지는 실내. 정전이다.

S#50. 삼시도 송전탑(낮)

낙뢰로 인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송전탑. 한낮인데도 점점 어두워지며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S#51. 관사 / 거실(낮)

서동일 (침착하게)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모든 일이 준비된 것처럼 착착 진행된다는 거예요.

동일 하나씩 장면을 회상하며 근거를 이야기한다.

인서트. 동일의 회상

S#6. 사시미 칼을 들고 의뭉스럽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박경장.

S#16. 마노펜션 마당에서 동일과 대치하는 박경장.

S#26. 닳을 던져 배를 되돌리는 박경장.

바로 옆에 치안센터가 있는데 관사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박경장.

서동일(E) 삼시도에 들어오는 배에서부터 저 경찰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젯 밤에는 펜션 안까지 들어와 저희 주변을 맴돌더니 밤 사이 팀장님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사이 시체를 발견했다며 아무도 모

르게 저희들을 이곳에 가봤어요.

서동일 아무리 섬이 작아도 넓디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체를 빨리 찾을 수 있죠? 자신이 그 장소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일동 놀라며 듣고 있는데, 동일 갑자기 서재방으로 가더니 종이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뿌리며.

서동일 결정적으로 예전에 사건을 조작했다가 해임당했던 경력이 있더라구요. 살인사건 피해자가 자기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인서트. 자료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들. [실적에 목맨 경찰 사건 조작 논란]

[‘강압수사 혐의’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등

박경장의 소송 승소장, 경찰청 ‘일계급 강등 복귀’ 인사발령 통지서 등

태성, 혜진, 민수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서 보며 할 말을 잃는다.

S#52. 어촌계 회관(낮)

동일의 배낭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듯 손을 쓱- 넣는 박경장. 그 위로.

서동일(E) 지금도 이 경찰이 밖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요.

S#53. 관사 / 거실(낮)

서동일 우리가 다음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가구요.

하민수 하긴, 타살이라 해도 우리 말고 이 섬에 사는 누군가가 한 짓일 수도 있잖아?

안혜진 (양팔로 자기 몸 감싸며) 하... 소름 돋아. 갑자기 무섭다.

하민수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양태성 지금 경찰이랑 같이 있는데 누가 우리말을 믿겠어?

서동일 일단 여길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요.

일동 고개를 끄덕인다.

S#54. 어촌계 회관 앞(낮)

어촌계 회관 문을 열고 나오는 박경장. 손에 동일의 배낭이 들려 있다.

열린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윈- 최대한 속도를 내서 관사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S#55. 관사 / 입구(낮)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에 웅웅- 바람이 부는 날씨.

박경사 끼익- 급하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관사로 들어가는데.

S#56. 관사 / 거실(낮)

박경장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 있으면.

방문이 모두 부서진 채 종이만 휘날리고 있는 거실.

S#57. 삼시도 돌레길(낮)

민수를 선두로 미친 듯 산길을 달리고 있는 팀원들. 동일 학-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 바쁘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쫓아가는 동일.

S#58. 마노펜션 / 내부(낮)

벌컥 펜션 문이 열리고 혈레벌떡 들어오는 네 사람. 민수 현관문을 잠그더니 창문으로 누가 쫓아오나 살펴보고, 혜진은 탈진했는지 바닥에 앉아 헉헉거린다. 태성 생수를 병째 들이마시는데.

서동일 (휴대폰 보며) 지금 서해상도 풍랑주의보로 출항이 금지됐대요.

일동 (동작을 멈추고 서로를 보는)

서동일 아무래도 오늘은 이 섬에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안혜진 하- 어떡해.

서동일 일단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 여기에만 있어요. 그 경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일동 (고개를 끄덕인다)

S#59. 보건지소 내부(낮)

역시 정전으로 어두운 보건지소. 진료 데스크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인 김선생.

김선생 후우- (슬라이드글라스 보며) 머리 상처 주변으로 녹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범행 도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가) 네... 빠져나오려 노력한 오른손의 흔적으로 볼 때 테트라포드에 빠질 당시까지는 살아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인서트.

누군가 재욱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 질질 끌려가는 재욱의 다리, 테트라포드에 빠져 있는 재욱의 모습이 컷컷 스치고 지나간다.

김선생 이 섬을 잘 아는 사람이 분명해요. 하필 테트라포드에 빠뜨린 것도 그렇고. 본서 과학수사대에서 빨리 와주셨으면(하는데)

김선생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박경장을 발견하고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벌벌 떠는 김선생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박경장.

S#60. 마노펜션 / 내부(해질녘)

어두운 내부,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 태성, 혜진, 민수.

누군가 탕탕탕- 현관문을 두드린다. ‘으악’ 하며 놀라는 혜진.

서동일(E) 저예요! 동일이.

민수 일어나서 문 열어주면 동일 들어오고, 민수 열린 문을 다시 잠그고 밖에 누가 있나 창밖을 살펴본다.

서동일 (앞으며) 지금 섬 전체가 정전인 것 같아요. 하나 있는 가게도 문을 닫았더라구요.

안혜진 나 무서워... 좀 있으면 금방 깜깜해질 텐데.

양태성 펜션 주인은 아직도 전화 안 받아?

하민수 (휴대폰 보며) 그쪽도 연락 두절이요.

안혜진 (울먹이며) 어떡해... 저 경찰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다 어떻게 하는 거 아냐?

양태성 (애써)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 마...

S#61. 마노펜션 / 보일러실(해질녘)

손발이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펜션 주인 만호. 잉-잉-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리지만 받지 못하고 끄끄거리고 있다.

S#62. 보건지소 앞(해질녘)

박경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서 보건지소를 나온다. 이내 “젠장!” 하더니 전화 끊고 급하게 오토바이에 탄다. 부양- 하고 속도를 내며 방파제 길로 내달리는 박경장.

S#63. 면십지 앞(해질녘)

해가 넘어가기 전 붉게 물든 바다.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다. 썰물이 빠지면서 삼시도와 30여 미터 떨어진 작은 섬 면십지 사이에 작은 길이 보인다. 박경장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통과하자 금방 마노펜션이 보인다.

S#64. 마노펜션 / 내부(저녁)

거실 한가운데 유리병에 든 향초가 켜 있고 태성, 혜진, 민수 둘러앉아 있다.

양태성 (초를 보며)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하민수 그나저나 애는 왜 이렇게 안 와. 먹을 거라도 좀 구해 와야 버티지.

그때, 탕탕탕-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혜진 동일 씨 왔나 봐요.

하민수 (문 앞으로 가서) 누구세요?

박경장(E) (쿵쿵- 두드리며)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일동 놀라서 얼음장이 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S#65. 마노펜션 / 현관(저녁)

문을 열지 않자 푹- 푹- 발로 차기 시작하는 박경장.

박경장 그 안에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새끼야? 빨리 문 안 열어!!

그때, 펜션 마당 입구에 들어서다 오토바이를 발견하는 동일의 놀란 얼굴. 운전대에 자신의 배낭이 걸려 있다. 앞쪽에 광광거리며 문을 부수려 하고 있는 박경장의 뒷모습이 보인다.

S#66. 마노펜션 / 내부(저녁)

하민수 (현관 향해) 돌아가세요! 저희 문 안 엽니다. 내일 다른 경찰들 올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갑니다.

박경장(E) (답답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 당장 문 열어!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니들도 다 죽는다고!!

일동 두려움에 서로를 보는데...

박경장(E) 송재욱 죽인 놈, 그 안에 있어!

하민수 (놀라지만 믿기지 않고)

양태성 (역시 안 믿기고)

안혜진 거짓말이에요. 동일 씨가 저 사람 말 절대 믿지 말랬잖아요.

박경장(E) (광광-) 경찰인 나를 믿어야 돼, 안 그럼 니들도 위험해!
(철컹철컹 손잡이 돌아가며) 지금 안 열면 강제로 열어!

태성 한쪽 낱시 가방에서 낱시대 하나를 꺼내서 무기처럼 들더니 문 옆에 바짝 서서 민수에게 눈짓한다. 민수 고개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여는데. 벌컥 들어오는 박경장, 내부를 매섭게 스캔하더니.

박경장 서동일 이 새끼 어딴어!!

그 순간 뒤에서 태성이 낱시대로 박경장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는데. 억-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는 박경장. 민수, 태성도 놀라서 돌아보면, 어느새 나타난 동일이 피 묻은 두발깡이를 손에 들고 있다. 동일 깡이를 던지고 경찰조끼에서 수갑을 꺼내 박경장에게 채운다. 같이 제압을 도우면서도 놀라는 태성과 민수.

S#67. 마노펜션 / 전경(밤)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긴 샵시도. 우르릉 광광- 번개가 치면 번쩍할 때마다 마노펜션의 전경이 보인다. 후두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S#68. 마노펜션 / 내부(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주방 한쪽 구석에 기절해 있는 박경장. 빗맞았는지 머리 상처가 크진 않다. 인상을 쓰며 겨우 눈을 뜨고 어떻게 된 일인가 상황을 파악을 시작한다.

플래시백. 조금 전 깡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던 순간.

박경장 입모양으로 “X벌... X됐네” 하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에서.

S#69. 몽타주(박경장의 회상)

S#14 이어서. 주변을 살피더니 펜션 구석진 쪽으로 들어가는 동일을 보고 따라가는 박경장의 모습. 어두워서 동일을 놓친다.

S#29 이어서. S#14에서 동일을 놓친 지점을 다시 가보는 박경장. 앞쪽에 창고처럼 조그만 문이 보이고, 들어가 보면 펜션 보일러실이다. 여기저기 살펴보니 데 보일러 위쪽 연통이 약간 잘린 상태로 손상되어 있고, 바닥을 보면 줄톱이 떨어져 있다.

S#37 이어서. 스마트폰으로 경찰청 신원조회 페이지를 보고 있는 박경장. 서동일의 얼굴과 주민번호, 주소(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이 보인다. 박경장 갑자기 눈이 커지며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동일의 본적지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라 쓰여 있다. “뭐야 이거” 하며 갑자기 땅-한 기분이 들고, 상세 조회해보면 2000년에 충남 대천으로, 2016년에 서울 신림동으로 주소지 이전 경력이 있다.

S#44 이어서. 박스의 종이들을 뒤지던 박경장 드디어 찾았다는 표정으로 한 장을 집어 들면, 한 달 전 쯤 삼시도에 들어올 때 작성한 동일의 승선신고서다.

S#52 이어서. 동일의 배낭에 손을 쑥- 넣더니 손바닥만 한 휴대용 산소캔을 꺼내는 박경장. 의아한 얼굴로 산소캔을 살펴본다.

S#70. 마노펜션 / 내부(밤)

박경장 다 잡은걸 놓쳤다는 생각에 속이 쓰라린데...

펜션 거실. 박경장의 경찰조끼를 입은 동일이 38구경을 들고 거실벽에 기대 앉아있으면, 그 앞에 양손이 묶인 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태성, 혜진, 민수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다. 가운데 향초만이 흔들흔들 빛나고 있다.

안혜진 (울먹이며) 동일 씨... 왜 그래? 응? 장난 그만 쳐...

서동일 (혜진 쪽으로 총구 돌리며)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안혜진 아악- (고개 숙이며 울음 터뜨리는) 흑흑흑-

동일, 주머니에서 노란색 플라스틱통 라이터 기름을 꺼내며.

서동일 어제 그 난리만 없었어도 이걸 안 쓰려고 했는데, 보일러 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 깔끔하고 좋잖아요? 플랜B까지 갔던 게 문제였어요...

생각에 잠기는 동일.

S#71. 몽타주(동일의 회상)

어젯밤. 펜션 거실.

S#20에 이어. 뻘어서 자고 있는 민수를 보던 동일. 민수가 벗어 놓은 볼캡을 눌러 쓰고 가만히 일어나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통을 꺼내더니 송팀장이 누워 있는 옆방으로 들어간다.

펜션 다른 방. 동일, 송팀장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콘센트 쪽으로 가더니 기름통 뚜껑을 열어서 뿌리려 하는데.

송재욱(E) 뭐하냐 너?

동일 놀라서 돌아보며 기름통을 뒤로 숨긴다. 눈만 감고 있던 재욱, 일어나 앉으며.

송재욱 지금 뭐하냐고.

서동일 (당황하며) 아... 아무것도 아닌데요.

송재욱 왜 쥐새끼처럼 방에 몰래 들어와서 부스럭거리려? 어? 뭔데?

서동일 (필사적으로 숨기고)

송재욱 (아까 박경장이 하듯 동일의 뺨을 툭툭 치며) 이씨 가뜰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너까지 나 우습게 보냐? (머리 탁- 때리며) 만만해? 뭐했나 똑바로 보고 안 해?

동일 뒷걸음쳐 도망가듯 방밖으로 나가고, 따라 나가보는 재욱. 민수가 술취해 잠들어 있고, 동일 밖으로 나갔는지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펜션 문을 열고 나오는 재욱, 잔뜩 낀 해무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스산한 기운에 돌아보려 하면. 퍽- 소리와 함께 머리를 강타당하고 쓰러지는 재욱. 그 뒤로 'OK' 로고 볼캡을 쓴 동일이 두발깡이를 들고 서 있다.

동일, 재욱의 양 어깨 사이를 들어 올려 질질 끌고 해무 사이로 사라진다.

등대길. 테트라포드까지 재욱을 끌고 올라온 동일, 코끝에서 땀방울이 떨어진다. 재욱을 구멍 사이에 밀어 넣으려는 순간. 눈을 번쩍 뜨는 재욱, 본능적으로

동일을 붙잡는다. 떼어내려 하는 동일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재욱. “이 새끼가...” 하는 순간 발로 차 재욱을 구멍 사이로 떨어뜨리는 동일. 탕-탕- 철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래로 빠져버리는 재욱.

썩- 크허헉- 비명마저 희미하고... 주저앉아 S#1의 재욱의 절규를 듣고 있는 동일.

펜션에 돌아온 동일. 다시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는데, 부스스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민수. 동일 얼른 모자를 벗고 누우면, 꾸엑- 하고 토하는 소리가 들린다. 갈등하는 동일의 얼굴 위로 푸른 새벽빛이 드리운다.

S#72. 마노펜션 / 내부(밤)

동일 향초 위에 라이터 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확 불길기 일다 사라진다. 놀라서 움찔하는 세 사람.

서동일 한 방에 끝낼 수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계획이 틀어질 줄은 몰랐어요. 참 아쉽다... 그쵸? 태풍이 와서 배가 못 뜨는 것도 그렇고, 저 경찰이 눈치챈 것도 그렇고, 어차피 다들 죽을 운명인 것 같아.

양태성 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동일 씨. 나도 솔직히 송팀장 죽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자기 마음 다 이해해. 근데 우리끼리 이런 필요 없잖아, 안 그래?

하민수 맞아, 송팀장 잡길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솔직히 잘 죽었다 싶어. 그냥 여기서 있었던 일 다 없던 걸로 하자, 응? 다 같이 잊자고.

안혜진 우리 같은 피해자잖아. 이러면 안 돼, 동일 씨...

서동일 (헛웃음을 지으며) 인간은 참 재밌어.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조차 없는 건지... (정색하며) 웃기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쓰레기들이야! (태성을 향해 총구 들이대며) 양차장, 당신부터 말해봐. 안대리랑 외근 나간다고 나한테 매일 당직 서게 하고 어디 갔었어? 업체 미팅 대신 시키고 어디 갔었냐고!

양태성 ...

서동일 (혜진에게 총구 돌리며) 안대리가 말할까?

안혜진 (총구 보고 겁에 질려 우는) 어흑-

서동일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고 난 후부터 교묘하게 이용해먹었잖아. 온갖 심부름에 보고서... 밤을 새워서 해다 바치면 당신 이름으로 바뀐서 올리고. 기억 안 나?

안혜진 ...

서동일 (민수에게 총구를 겨누며) 하과장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하민수 (머리를 조아리고 옆드리며) 동일 씨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 업무 다 떠넘긴 것도, 학교 가지고 무시한 것도, 기분 안 좋을 때 구박한 것도 다 잘못했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정말이야 믿어줘.

S#73. 마노펜션 / 내부(밤)

박경장 움직이지 않고 눈만 뜬 채 주변을 살핀다. 싱크대 다리 아래로 쌓인 먼지와 병뚜껑, 코르크 마개, 와인 오프너 등 잡동사니들이 보이고, 손 살짝 움직여보면 수갑이 채워져 있다. 갑자기 맞은 곳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는데. 그 위로.

하민수(E) (설득하는) 동일 씨 이제 인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일 년 채우고 정규직 되면 내가 라인으로 끌어줄라고 그랬던 거야. 나 동일 씨 좋

게 봐서 내 사람으로(하는데)

서동일(E) (갑자기 흥분하며) 그 입 닥쳐!

하민수(E) (경악하며) 아- 안 돼, 동일 씨! 제발!!

박경장 인상을 쓰며 팔을 앞으로 뻗어 싱크대 아래 무언가를 잡는데... 탕- 총소리와 아악-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S#74. 마노펜션 / 내부(밤)

혜진과 태성 무릎 꿇은 채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다. 동상처럼 굳어 있는 민수의 두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오줌)가 흐르더니 바닥을 적신다. 태성과 혜진 고개를 들어보면 민수 멀쩡하고 하늘을 향해 쓴 총을 다시 들여다보는 동일.

서동일 첫 발은 공포탄 맞네. 이거 있으니까 천하의 송탑장도 경찰한테 벌벌 떨던데...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나도 감질 한번 해보고 죽지 뭐.

동일 다시 철컥- 장전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세 사람. 동일이 언제든 또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움짱달짝을 못하고 두려움에 떠다.

서동일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살려준다.

일동 !!

서동일 눈 감고 투표한다. 내가 이름 부르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투표 기회는 딱 한 번, 자기가 자기를 뽑아도 된다. 대신! 모두 한 표씩 나오면 다 죽는다.

하민수 (억울한 듯) 그럼 나만 불리한테...

서동일 자, 다 눈 감아.
일동 (눈을 질끈 감는)
서동일 먼저 하민수 과장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민수 (망설임 없이 혼자 묶인 양손을 드는)
서동일 다음, 안혜진 대리가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

아무도 들지 않고, 동일 의외라는 듯 혜진을 보는데 서서히 손을 드는 혜진.

서동일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으며) 마지막 양태성 차장.
양태성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서동일 다들 손 내리고 눈 떠.
일동 (눈 뜨고, 각자 한 짓이 있어서 결과에 두려워하는데)
서동일 어때, 희망고문 당해보니까? 피말리지? X같지?
 정규직 되겠다고 이 악물고 버텨온 나도 그랬어. 니들 말대로 지잡대 출신이 OK흡쇼핑 인턴이라도 된 건 기적이니까.

동일 생각에 잠기는.

S#75. 몽타주(과거 / 동일의 회상)

늦은 밤. 고시원방에서 컵라면을 먹던 동일, “네 팀장님!” 하며 전화를 받고 얼른 뛰어 나간다.
 유희가. 접대 받고 만취해서 나오는 재욱을 부축해 차 뒷자리에 태우는 동일.
 운전해서 모시고 가는데 뭐가 맘에 안 드는지 동일의 머리를 계속 때리는 재욱.
 집에 돌아가는 길. 터벅터벅 걸으며 전화 통화 중인 동일.

할머니(F) 고시원에서 힘들지? 밥은 먹고 다니는 거? 시상천지 핏줄이라곤 할미 하난디 이번 생일엔 내 올라가 밥 한 끼만이라도 챙겨줄란다.
서동일 (짜증내는) 바쁘다니까... 오지 마세요 할머니.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는 재욱의 차. 동일 운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온다. 룸미러로 재욱의 눈치를 보며 받을까 고민하지만 거절을 누른다. 고속터미널 대기석에 보따리를 들고 앉아 있는 동일의 할머니.

동일의 폰번호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휴대폰이 없어서 그렇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한다.

공항에 도착해 재욱의 트렁크와 골프백을 혼자 열심히 옮기는 동일.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지만 받지 못하고.

어두운 저녁. 바리바리 짐을 들고 신림동 근처 대로를 건너는 할머니, 멀리서 빵빵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검은 양복을 입고 초라한 할머니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동일. 조문객이 거의 없다.

상을 치르고 사무실에 출근한 동일. 며칠간 비운 동일의 자리에 온갖 서류철이 쌓여 있다. 재욱 “그래도 나 없을 때 비워서 다행이다 야” 하며 툭 치고 지나간다.

점심시간. 동일 구두방에서 다 닳은 구두를 찾아와서 재욱의 자리에 갖다 놓는데...

재욱의 모니터에 띄워진 인턴 평가서 문서가 보인다.

근무실적, 수행태도 모두 최하점에 정규직 채용의견 ‘NO’라 쓰여 있다.

화면 보고 충격 받은 동일, 재욱의 구두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서 있다. 그 위로.

서동일(E) (담담히) 그놈이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어...

S#76. 마노펜션 / 내부(밤)

박경장 가만히 누운 채 씩씩한 표정으로 동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S#77. 마노펜션 / 내부(밤)

서동일 날 이렇게 만든건 너희들이야.

일동 ...

서동일 자, 그럼 결과를 발표할까?

일동 (긴장하는)

서동일 (한 명씩 보며) 하민수 한 표.

하민수 (그럴 줄 알았다는 낭패의 표정)

서동일 안혜진 한 표.

안혜진 !!

서동일 양태성 한 표.

양태성 !!

서동일 말했지? 모두 한 표씩 나오면 다 죽는다고.

서로를 원망스럽게 보는 태성과 혜진.

하민수 (두 손 빌면서) 동일 씨 딱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하는데)

서동일 (OL) 쓰다 버릴 애한테 목숨 구걸은 그만하고.

하민수 !!

S#78. 동일의 회상

S#11 이어서. 담배를 다 태우고 발로 비벼 끄는 재욱과 민수.

하민수 근데 팀장님, 동일이 일 년 다 쓰지 왜 굳이 한 달 남겨놓고 잘라요?

송재욱 니가 그래서 안 되는거야~ 리더는 경영자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하냐. 그냥 쓰다 버릴 애 퇴직금까지 챙겨주리?

하민수 아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펜션 문을 나서다 둘의 대화를 듣고 멈춰선 동일의 굳은 얼굴.

S#79. 마노펜션 / 내부(밤)

서동일 인턴이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야? 희망고문 하다가 막 버려도 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일동 ...

동일 총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저기 라이터 기름을 뿌리기 시작한다.

일동 ‘제발...’ 하며 흐느끼지만 감히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서동일 니들도 다 똑같은 쓰레기들이야...

(다 뿌리고 빈 통을 던지며) 모두 다 일어서!

일동 (덜덜 떨며 일어서면)

서동일 플랜 B로 다시 간다. (방 하나 가리키며) 저 방으로 다 들어가.

일동 (도살장 가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서동일 (따라가 방문 쿵 닫으며) 나오는 사람은 바로 썩버릴 거야.

S#80. 마노펜션 / 방안(밤)

창도 없는 완벽히 어두운 방에 갇혀버린 세 사람,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혜진
꼭꼭- 눈물을 흘리며 완전 패닉 상태다.

S#81. 마노펜션 / 내부(밤)

동일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주방에 기절해 있던 박경장이 없어졌다!
누워 있던 자리에는 빈 수갑과 와인오프너가 덩그러니 있을 뿐.
순간, 누군가 향초를 꺼버렸는지 순식간에 빛이 사라지는 내부. 당황한 동일 어
둠 속에서 총을 잡고 여기저기 겨냥하며.

서동일 어딴어! 당장 나타나!

그때, 우르릉 쿵쿵- 소리가 나더니 번쩍 번개가 치면 동일 앞에 서 있는 박경
장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인다. 박경장 동일이 입고 있는 조끼에서 무언가
(삼단봉)를 빼낸다.
동일 방아쇠를 당기면 탕- 총알이 발사되고. 다시 고요해지는 실내.

S#82. 마노펜션 / 방안(밤)

총소리에 아악- 비명을 지르는 혜진.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은 세 사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S#83. 마노펜션 / 내부(밤)

동일 여전히 총을 들고 두리번거리는데... 퍽- 하고 동일의 팔을 내리치는 삼
단봉.
동일 권총을 떨어뜨리고. 박경장, 삼단봉을 동일의 목 뒤쪽으로 일자가 되게 놓
고 목 앞쪽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해 삼단봉을 잡아당긴다. 순식간에 목이
줄리면서 상체가 앞으로 꺾이는 동일. 킁킁거리며 고통스러워하지만 머리로
박경장을 들이받으며 벽 쪽으로 밀어 쿵- 충격을 주고 겨우 빠져나온다.
본격적으로 동일과 박경장의 육탄전이 시작되고, 천둥이 번쩍일 때마다 두 사
람의 엇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라진다. 박경장 동일을 벽에 밀치고
팔목으로 목을 조르며 “이제 그만해!” 하지만, 동일 발로 차 빠져나오며 “날 막
지 마!” 하고는 반격해 박경장을 쓰러뜨린다.
동일의 밑에 깔려 수세에 몰린 박경장, 다시 번개가 번쩍 하는 순간 옆에 떨
어진 권총을 발견하는데. 동일 눈치 채고 두 사람 동시에 권총을 향해 손을
뻗는다.

S#84. 마노펜션 / 전경(밤)

탕- 총소리와 함께 펜션 유리창으로 찰나의 불빛이 보이고.
우르릉 쿵쿵- 천둥과 함께 매서운 비바람이 마노펜션에 몰아친다.

S#85. 마노펜션 / 앞마당(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펜션 앞마당. 푸른 잔디 위에 아까 동일이 들고 있었던 잔뜩 녹슨 두발팽이가 떨어져 있다. 끼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벽 저벽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손수건으로 두발팽이를 주워드는 손, 박경장이다!

S#86. 삽시도 해변(새벽)

다음 날 아침. 붉은 해가 떠오르는 삽시도 앞바다. 비도 그치고 잔잔한 파도가 밀려온다. 더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모습이다.

S#87. 삽시도 선착장(오전)

동일 수갑이 채워진 채 지원팀 형사들에게 이끌려 선착장 끝 쪽으로 걸어간다. 왼쪽 다리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는지 붕대를 감고 짹짹거리며 걷는 모습. 해양 경찰선에 타기 전 잠시 멈추더니 뒤를 돌아본다. 멀리서 씩씩한 얼굴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박경장. 한참 동안 동일을 바라 보지만 그가 자신을 보는 건지 삽시도를 눈에 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동일 다시 이끌려 배에 타고, 다른 팀원들도 어두운 얼굴로 짐을 들고 같은 배에 탑승한다. 어느새 박경장 옆에 와 서 있는 김선생.

김선생 밤사이 태풍이 비껴가서 다행이네요...(박경장의 어두운 표정 보더니) 사건 잘 해결하셨는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박경장 후- (한숨 쉬더니) 그냥 내 못된 버릇이 나와서.
김선생 ??

박경장 뒤돌아 성큼성큼 먼저 걸어 가버린다.

S#88. 치안센터 앞(오전)

박경장이 치안센터에 들어가려다 돌아서서 방파제 넘어 바다를 본다. 바다를 가르는 해양경찰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 박경장.

S#89. 박경장의 회상. 마노펜션 / 내부(어젯밤)

S#83에서 이어지는, 동일의 밑에 깔려 수세에 몰린 박경장, 다시 번개가 번쩍 하는 순간 옆에 떨어진 권총을 발견하는데. 동일 눈치 채고 두 사람 동시에 권총을 향해 손을 뻗는데 동일이 먼저 잡는다. 권총을 차지한 동일 예상 외로 박경장이 아닌 자신의 관자놀이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원망스런 눈으로 박경장을 보며 “당신이 다 망쳤어”라며 붉어진 눈을 감는다. 박경장 놀라서 “안 돼!” 하며 동일에게 달려든다. 탕-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 하고, 다리에 총알이 스친 동일이 고통스러워한다.

S#90. 치안센터 앞(오전)

박경장 다시 바다를 바라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해양경찰선.

S#91. 삼시도 해변(오전)

멀리 마노펜션이 보이는 바닷가 모래사장. 싸아- 싸아- 파도가 치며 물이 들어 오고 있다. 해안 바위가 펼쳐진 면십지 쪽. 바위 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녹이슨 두발괭이의 모습이 밀려오는 파도 사이로 서서히 잠기며 사라진다.

끝.



작가 후기 이소영

작명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삼시도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삽질을 할 줄이야... 이렇게 많은 밤을 고뇌 할 줄이야. 과거의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외치고 싶다 “선유도나 득량도를 쓰라구!”. 어 찌됐든, 끝은 있었다.

공모에 선정된 초고를 많은 사람들이 장르물로 받아들였다. 어쩌다 장르물이 된 삼시도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엔 또 장르물이 아니었다. 완벽한 모순이었다. 널 어쩌면 좋니?

결국 수정 방향은 장르적 특색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름 초고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뻔해지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도 있었고 여러 산을 오르내리며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이라 해도 나는 오르지조차 않았으며, 끝까지 가 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목과 등장인물은 같으나 초고가 단 한 줄도 남아 있지 않은 100% 새로운 씬으로 수정대본을 완성했다. 다른 여러 작품을 쓰는 것보다 이 하나를 집요하게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것이 어쩌면 나를 더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이 지난한 과정을 함께해주신 성용일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2017
오 펜
작 품 집

야생의 을자

전영선

작의

야생은 문명을 동경하고,
문명은 야생을 그리워한다.

흔히들 '중2병'이라 폄하하는 15세의 시기.
야생과 문명 사이를 오가는 격동의 에너지와,
그 에너지로 서로를 도우며 현명하게 성장하는 소년 소녀의 이야기.

등장인물

박정훈(15세)

훈남 모범생.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로,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쿨해 보이지만, 마음이 여리고 연민이나 사랑이 많다. 그 때문에 멘탈이 약하다고 걱정인 엄마 기숙의 지나친 애정과 간섭에 숨이 막힌다.

15세가 되자 어릴 적 온 가족이 보았던 <야생의 엘자>라는 영화가 자꾸만 생각난다.

하을자(15세)

야생 소녀. 영화 <야생의 엘자>를 떠올리게 하는 소녀.

아무도 이 소녀 근처에 가지 않는다.

교복 안에 체육복을 걸쳐 입고, 늘 떡진 머리에 악취를 풍긴다.

누구보다 체육 실력이 뛰어나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체육 선수를 포기한 이후 등교시간도 수업시간도 제멋대로다.

정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 이후 야생의 을자가 변하는데...

성기숙(45세)

정훈의 엄마.

날카롭고 우아한 분위기. 의사 남편도 자랑이지만, 전교 1등인 수재 아들에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

최서영(15세)

정훈의 여자친구.

새침하기도 솔직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있는 예쁘고 평범한 중2의 소녀.

정훈이 찌따 같은 을자에게 자꾸만 휩쓸리는 것 같아 속상하고 질투 난다.

을자아빠(50세)

일용직.

그 외

학생들 / 기숙의 친구(목소리) / 정훈의 아빠 / 피아노선생 / 음악선생 / 체육선생 / 담임 / 양호선생 / 상담선생 / 경비원 등

줄거리

정훈은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자꾸만 답답해진다. 성적도 전교 1, 2등에 외모도 웬잖아 여자친구도 있지만, 표면적인 관계일 뿐. 정훈을 극진하게 보살피는 엄마 기숙도 점점 숨막히게 느껴진다. 정훈은 그 누구와도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정훈이 자꾸만 엮이게 되는 여자아이가 있다. 여자라고 하기엔 남자보다 야생적인 여자아이. 제때에 학교 오는 법이 없고, 제대로 씻지도 않는지 때고장 물 범벅인 교복에 냄새가 나는 아이.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지만, 남학생들보다

더 높이 뿔뿔을 뛰는 운동 실력 덕분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을자라는 이름의 아이다.

정훈은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몰래 치다 을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음악 수행 평가 때 을자의 노래 반주를 맡게 된다. 이때부터 을자는 자꾸만 정훈 주위를 맴돌고, 정훈은 여자친구 서영에게 혼이 난다.

정훈은 을자를 멀리하려 하지만, 뿔뿔 넘는 법을 을자로부터 전수받게 되면서, 정훈과 을자의 사이는 더 가까워진다.

서영이 기숙에게 을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기숙은 정훈을 더 감시하게 된다. 과학교를 목표로 하지만, 멘탈이 약하고 쓸데없는 동정심이 많아 손해보던 정훈이 사춘기가 되면서 또 판생각을 하는 것 같아, 기숙은 불안하다.

체육시간. 정훈이 뿔뿔을 넘다 다치고 을자가 정훈을 업고 양호실로 가면서, 정훈은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정훈은 을자의 온몸 가득한 상처가 아이들에게서 받은 거라 생각하고 화내지만, 을자의 아빠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 이후 을자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시험날. 결석이 일상다반사였던 을자를 걱정하는 이는 정훈 뿐. 정훈은 시험을 치던 도중 을자의 집을 찾아가고, '야생의 을자'의 아빠와 대면하는데...!

S#1. 교실(낮)

수업에 집중하는 정훈.

담임인 수학선생,

$x:y=4:3$ 일 때

$$\frac{(3x+y)^2 - (x-3y)^2}{(2x+y)(x+2y)}$$

문제를 칠판에 적는다.

답임

문제 풀어봐.

잠시 생각하는 정훈, 금방 답을 적는다.

교과서 밑에 숨겨놓은 문제집의 다른 문제(기하벡터)를 풀기 시작하는 정훈.

바스락거리는 필기구 소리 중 '찍찍' 소리 들린다.

정훈의 발 옆으로 지나가는 쥐 한 마리.

'쥐다!' 하는 비명과 함께 아이들의 빠른 행동들.

의자 위와 책상 위로 오르는 아이들, 의자를 집어드는 아이들,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아이들을 가로지르며 쏜살같이 달려오는 아이, 을자다!

그제야 을자 쪽을 쳐다보는 정훈,

을자, 날렵한 동작으로 쥐의 꼬리를 잡아챈다!

기겁하는 아이들.

몸부림치는 쥐를 한번 쳐다보는 을자, 창문 밖으로 속 던진다.

몇 초 후 '으악!' 비명 소리가 밖에서 들리면서,

그 위에 뜨는

타이틀. 야생의 울자

S#2. 정훈의 방(저녁)

미인형의 피아노선생.

피아노 이야~ 개 대단하다.

정훈 개 얼마나 이상한데요.

피아노 개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는 거야. 쥐 잡듯이!

피아노 치는 정훈. 연주 솜씨가 수준급이다.

피아노 그만! 정훈아. 잘 친다고 생각하지 마! 너, 그냥 치고 있는 거야. 로봇 처럼. 감정을 담아야지. 격정적으로!

(한숨 쉬며) 니 열정은 어디서 끌어내지? 여자친구 있어?

정훈 (밖에 있는 엄마를 의식한 듯 손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며) 아니오.

CUT TO.

피아노에 감정을 담은 정훈. 연주가 점점 격렬해진다.

피아노 좋았어. 그렇지. 더 더!

삐걱 문을 열고 지켜보는 기숙.

S#3. 현관 앞(저녁)

현관을 나서려는 피아노선생.

피아노 정훈이 실력이 확 좋아지네요. 전공해도 좋겠어요.

기숙 (표정 바뀌며) 선생님. 우리 정훈이, 오늘까지만 레슨하겠습니다. 정훈이가 과고 가려면 공부에만 신경써야 해서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놀라는 피아노선생, 그리고 정훈.

피아노 네? 피아노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그럴 텐데. 취미로라도 계속 시키세요, 어머님.

기숙 학교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정훈이가 피아노 치기 싫어하거든요. 그치 정훈아?

정훈, 당황하는 표정.

기숙 (고개 숙여 인사하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훈에게) 정훈아!

정훈 (난처한 표정,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감사했습니다.

체념한 듯 목례하고 나가는 피아노선생.

S#4. 차 안(아침)

운전하는 기숙과 그 옆의 정훈.

기숙 기하벡터는 할 만하고?

정훈 응.

기숙 그럼 시험 때까지는 선행 말고, 일단 학교 것만 공부해. 알겠지?
상민이는 학원 끊었다며?

정훈 그래?

기숙 몰라? 요즘은 상민이랑 안 친해?

정훈 그냥 뭐. 게임 안 하면 그냥 다 두루두루 놀아.

기숙 그래. 너무 친하게 지내도 문제야. 고등학교 친구들이 더 중요하지.
어차피 과고 가면 그쪽으로 이사갈 거니까. 아빠도 그러재. 이 동네 싫다고.

어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학교에서 쥐가 나오니?

정훈 급식 땀에 그렇대. 애들이 청소 안 해서 더.

순간, 창밖 동네 놀이터에 있는 을자가 보인다. 길고양이 한 마리를 쓰다듬고 있다.

백미러에 비친 을자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보는 정훈.

S#5. 운동장(낮)

땀을 바라보는 정훈. 숨을 크게 쉬고 달려가지만, 스텝이 어긋나며 발을 빼 곳한다.

땀 앞에서 멈추는 정훈, 식은땀 줄줄 흐른다.

절룩거리며 대열을 빠져나오는 정훈 뒤로, 땀을 넘는 아이들 보인다.

을자 차례. 어슬렁 출발하는 을자.

을자, 손도 짚지 않고 땀들을 훌렁 넘어버리는데,

안전매트까지 넘어 착지하는 바람에 흙바닥에 몸을 굴러버린다.

S#6. 양호실(낮)

정훈, 커튼 쳐진 양호실 침대에 엎드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양호선생 (소리) 벗어야 확인을 하지.

커튼 사이로 훑쳐보는 정훈. 을자다. 벗지 않으려는 을자.

을자 괜찮아요.

양호선생 뭐가?

을자 싫다고요.

양호선생 어휴. 너, 목욕은 언제 한 거니?

그 나이 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서 자주 씻어야 돼. 그래야 냄새가 안 나지.

커튼 사이로 훑쳐보는 눈을 발견하자, 을자, 소리를 ‘깹-’ 지른다.

양호선생이 커튼을 걷자, 수학 공부하는 척인 정훈.

양호선생 너, 아직 안 갔어? 공부를 왜 여기서 해?

주섬주섬 책을 싸들고 나오는 정훈,
을자를 보자 괜히 얼굴이 빨개지며 종종걸음 친다.

정훈(N) 이상한 냄새였어요. 동물원에서 맡았던 냄새데... 사자 냄새?

S#7. 옥상(오후)

찰랑이는 긴 머리칼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듯, 서영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정훈.
구름 낀 하늘 아래 정훈과 서영.

정훈 피아노 그만됐어. 엄마가 마음대로.

서영 그래? 나는 피아노 5학년 때까지 배웠는데, 잘 친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도 체르니 40번까지 배웠는데, 그 정도만 배워두면 되지 않냐고 다들 그러더라고. 참, 나 플룻도 배웠다가?

정훈 아. 그래?

바람이 불어오자, 서영의 교복 치맛자락이 나풀거린다.
치마를 잡느라 휘청거리는 서영.
정훈, 서영의 팔을 잡아주며 몸이 가까워진다.

서영 (정훈의 팔을 놓으며) 정훈아. 우리는 플라토닉만 해야 돼. 알지?

정훈 어? ...응.

출입문으로 가는 서영.

서영 시험 끝나고 생각해볼게!

웃는 정훈.

정훈(N) 여자친구는 예쁘고 좋은 아이였어요. 그냥 제가 문제였어요.

S#8. 복도(오후)

정훈, 서영을 따라가다,
남자아이들이 누군가를 주욱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다. 을자다.

을자 비켜!

남학생1 누가 막고 있었어? 누가 너를 건드리냐? 냄새나게.

남학생2 쥐똥 냄새.

을자 뭐!

남학생1을 밀치는 을자.

남학생2 어쭙?

남학생1, 을자의 힘에 눌러 그대로 뒤로 넘어진다.

다가오는 남학생2를 밀쳐내고, 넘어져 있는 남학생1을 뽕뽕 넘듯 훌렁 타넘고 달려가는 을자!

그 장면을 보자 순간 흘린 듯 입이 벌어지는 정훈.

정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다.

인서트.

정훈의 심장 소리에 맞춰, 화면을 향해 뛰어오는 숫사자.

(영화 <야성의 엘자> 화면)

심장 소리가 피아노 반주로 바뀌더니, 노래 합창이 이어진다.

<나물 캐는 처녀>.

합창 푸른 잔디 풀 위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랑이 잔잔히 끼인 어떤 날.
나물 캐는 처녀는 언덕으로 다니네 고운 나물 찾나니 어여쁘다 그
손목.

남학생들, 을자를 따라가지만,

계단을 재빠르게 올라가는 을자를 잡을 수 없다.

S#9. 음악실(오후)

노래 이어진다. 단체 합창으로 부르고 있다.

합창 소먹이던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뿌리치고 가오니 그의 굳은 마음 변함없다네.
어여쁘다 그 처녀.

노래 끝나면, 아이들 모두 책을 덮는데,

음악선생 이번 수행평가는 독창이야.
프린트에 있는 <나물 캐는 처녀>, <동무 생각>, <임이 오시는지>.

세가지 가곡 중에서 골라서 하면 되고. 반주는 은지가 맡아서 해줄 수
있지?

합창 반주하던 여학생 은지, 고개를 끄덕인다.

S#10. 정훈의 방(저녁)

문을 여는데, 피아노가 없어졌다. 놀라는 정훈.

정훈 엄마, 피아노 어디 갔어?

기숙 이제 필요없을 거 같아서 줬어. 연희 알지? 5동에 사는 엄마 친구 딸.
피아노 필요하다고 해서 마침 잘됐지 뭐야?

정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면 어떡해?

기숙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뭘.

정훈 수행시험 있단 말이야.

기숙 악기?

정훈 노래 시험.

기숙 수행, 악기 아니야? 피아노 괜히 했네. 보람도 없이.

정훈 엄마는 왜 혼자 결정해?

기숙 뭐?

정훈 피아노 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멋대로 그만두래!

기숙 그때 치기 싫다고 했었잖아!

정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놀라는 기숙.

S#11. 거실(밤)

늦은 밤 화장실에서 나오던 정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낮게 들리는 소리.

기숙(E) 피아노만 가르치면 되지 자기가 뭘 안다고 남의 애 인생까지 가르치려 드는지, 당신이 말 좀 해줘요.

정훈아빠(E) 당신이 알아서 다 잘하잖아. 잘하는데 왜 그래?

기숙(E) 이 정도 해서 안 돼요, 요즘은.

정훈아빠(E) 집에 오면 쉬자, 줌. 그냥 알아서 해.

기숙(E) (한숨) 어릴 때 또 생각나고, 덜컹덜컹 한단 말이에요.

정훈아빠(E) 또또. 아 별일도 아니구만.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정훈.

S#12. 정훈의 방(오전)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책상 서랍을 뒤지는 기숙.

기숙 피아노 끊은 걸로 그렇게 화를 낼 애가 아닌데. 애, 무슨 일 있는 거야.

친구(F) 피아노, 아직까지 쳤어? 수행평가, 내신에도 안 들어간다며?

기숙 취미도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한 거지.

친구(F) 무슨 취미야?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학 결정되는 시대에...
그래서 과고 못 보내.

기숙 학생부 다른 성적도 참고한다더라구.

친구(F) 그러다 헛바람 드는 거지. 남자애들은 언제 어떻게 어긋날지 모르는데.

정훈이 아빠는 뭐라 안 그래?

기숙 정훈이 아빠야 뭐 아들보다 자기 환자들이 더 중요하지. 나를 이상한 엄마 취급한다니까.

(한숨) 정훈이 아빠랑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싶고 오히려 그래.

친구(F)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이상한 기미 보이면 초장에 확 잡아야 된다.

기숙, 정훈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영의 사진을 본다.

사진의 제목명을 통해 ‘서영’이라는 이름을 알아내고, 반 비상연락망에서 서영의 이름을 확인한다.

S#13. 음악실 복도(오후)

음악실 복도를 지나던 정훈, 음악실의 피아노에 눈길이 간다.

S#14. 음악실(오후)

그랜드피아노를 쓰다듬는 정훈의 손.

피아노를 열자 흑백의 건반이 반짝 빛난다.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정훈.

레슨 받던 곡이다. 걱정의 순간을 지나고 부드러워진다.

구석에 누워 있던 을자, 피아노 치는 정훈을 본다.

곡이 끝나면, 나르시시즘에 젖은 듯 고개를 들고 숨을 내쉬는 정훈.
그때 ‘부스럭’ 적막을 깨는 소리. 구석에 있던 을자, 일어선다.

정훈 으악!

당황한 정훈,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는데,

을자 야. 너, 나 피아노 해줘.

정훈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

을자 너밖에 더 있냐?

정훈 나, 못 쳐.

을자 뭐야, 빠기냐?

정훈 그게 아니라.

CUT TO. 정훈, 반주해준다.

수행평가 곡 <임이 오는 소리>.

을자가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자, 정훈이 을자가 부르는 데에 반주를 맞춰줘서

끝까지 무사히 부른다.

노래 끝나자, 을자가 씨익 웃는다.

S#15. 길(저녁)

씨익 웃는 을자 이어지면서,

자꾸 씨익 씨익 웃으며 정훈을 쳐다보던 을자, 달려가더니 뒤돌아 걷는다.

을자 나, 시험 잘 보겠지? 나, 시험 보고 싶었어.

정훈 보고 싶었다니?

을자 나, 시험 못 봐서.

정훈 왜?

을자 그냥. 싫어서. 야! 나는 저리로 가는데.

정훈 그래?

을자 나는 집 저~기니까 이제 간다. 잘 가라.

기분 좋게 뛰어나는 을자 뒷모습.

S#16. 정훈 집 거실(저녁)

정훈, 들어오는데.

기속 왜 이렇게 늦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정훈 그냥 누구랑 얘기 좀 했어.

기속 누구?

정훈 있어.

기속 정훈이 너, 피아노 때문에 그래? 다시 달라 그래?

정훈 됐어. 엄마! 나 피아노 전공 그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어. 걱정하지 마.

기속 별일 있는 건 아니지?

정훈 당연히 없어. 엄마, 아들 좀 믿어.

S#17. 음악실(오후)

노래 부르는 아이.
틀에 딱 맞춘 반주, 틀에 맞춘 노래, 평범한 듯 괜찮은 듯.

음악선생 하을자!

앞으로 나가는 을자.
아이들, 킁킁댄다.
반주가 시작되자 노래 부르는 을자. 반주와 노래가 맞지 않자, 노래 푹 끊긴다.

음악선생 됐어. 거기까지.

을자 피아노 바꿀게요.

음악선생 뭐?

을자 박정훈으로요.

음악선생 박정훈? 박정훈이 반주를 해?

당황하는 정훈.

정훈 아니요, 못합니다.

음악선생 하을자, 무슨 소리야?

을자 (정훈에게) 야. 반주 한번 안 되냐? 우리 같이한 대로.

여기저기서 ‘뭐야’ ‘오~~’ 소리가 들리고,
정훈을 뺀히 쳐다보는 서영.
고민하던 정훈, 앞으로 나가서 피아노 앞에 앉는다.

정훈의 반주가 시작되고, 을자 노래를 잇는다.

을자 (노래)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보라 달빛 고운 빛 님이 오시는가
갈숨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취까 흐르는 물소리 그대 노래인가
내 맘에 이름은 가득히 떠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정훈의 반주가 을자를 맞춰주니까 재즈곡처럼 물 흐르듯 흘러간다.
‘와~’ 한다. 그 광경이 신기한 듯.
노래가 끝나자, 을자의 표정은 한껏 상기된다.

음악선생 음정 박자 엉망이지만, 반주가 훌륭해서 그런가 들을 만하네.
유니크하고 나쁘지 않았어.
박정훈, 언제 피아노까지 그렇게 잘 쳤어?

멋쩍게 웃는 정훈. 서영의 표정, 좋지 않다.

S#18. 옥상(오후)

서영, 정훈을 노려본다.

서영 왜 개가 너한테 반주를 부탁해? 같이 연습을 왜 해?

정훈 그냥 음악실에서 피아노 치는데, 개가 봤어.

서영 나는 너 피아노 치는 줄도 몰랐는데.

정훈 내가 얘기했어. 그때 여기서.

서영 나 피아노 치냐고 묻는 건 줄 알았잖아. 니가 그렇게 잘 친다고 얘기

는 안 했어.

정훈 미안.

서영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 다 하라고.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너한테까지 냄새나는 거 같대. 개랑 왜 놀아?

삐친 서영.

당황한 정훈,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데,

서영 그냥 우리 사귀다고 애들한테 얘기해?

서영, 돌연 정훈의 손을 잡더니 정훈의 볼에 뽀뽀를 하려 한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는 정훈. 뒤쪽으로 주춤 발을 뺀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정훈을 밀쳐버리는 서영, 출입구로 뛰어간다.

정훈 서영아!

S#19. 복도(오후)

정훈의 맞은편에서 을자가 온다.

정훈, 그냥 지나치려는데.

을자 야. 고마웠다!

모른 체하며 냉정하게 그대로 걷는 정훈.

의아한 표정의 을자.

S#20. 운동장(오후)

체육시간. 정훈, 체육선생에게 사정 중.

정훈 발 뻘 게 오래 가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체육선생 너, 체육시간까지 공부해서 전교 1등 해봤자, 고등학교 가면 골병든다. 정작 공부에 필요한 게 체력이야.

정훈 저도 뛰고 싶습니다. 근데 발이 아파서.

체육선생 다음 시간부터는 절대 안 봐준다.

정훈 네.

S#21. 복도(오후)

쿵쿵 잘만 걸어가는 정훈의 발.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을자다.

정훈 뭐야?

을자 뭐?

정훈 왜 또?

을자 뭐가?

정훈 체육 안 해?

을자 생리한다.

할 말을 잃은 정훈.

화장실로 들어가는 을자.

S#22. 교실(오후)

홀로 책상에 앉아 있는 정훈, 창밖을 본다.

운동장이 보인다. 뽀뽀 앞에서 신나 보이는 아이들.

을자, 들어온다. 모른 척하며 공부하는 정훈.

김새가 이상해서 옆을 보니 을자가 서 있다.

정훈 왜 또?

을자 너, 뽀뽀 못하지?

정훈 무슨 소리야?

을자 수행평가 뽀뽀이래.

정훈 괜찮아.

을자 진짜?

정훈 괜찮다니까!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 거, 열심히 해서 뭐해!

아이들 들어오는 소리. 정훈, 책 보는 척한다.

남학생1 너네 요즘 붙어 산다? 뭐냐?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고, 야수와 미남이냐?

서영, 들어오면서 남학생1의 소리를 듣자 표정 굳는다.

S#23. 거리(오후)

집에 가는 길. 을자, 정훈을 따라온다.

정훈 (뒤돌아보며) 그만하라고! 왜 그래?

을자 뭐? 너, 내 타입 아니다.

정훈 뭐야, 너!

을자 피아노 깔으려고. 너 뽀뽀 못하는 거 같아서, 그걸로 깔으려고. 너, 와봐.

정훈을 끌고 가는 을자.

S#24. 임대 아파트 놀이터(저녁)

놀이터 울타리를 뛰어넘는 을자.

을자 너도 넘어.

열 받은 정훈, 가소롭다는 듯이 넘어려 하지만 걸린다.

을자 너, 바보냐?

정훈 뭐?

화난 에너지로 울타리를 뛰는 정훈, 넘는다!

을자 잘하네! 이번엔 이거!

부서진 타이어들을 넘는 을자.

정훈 뭐야!
 을자 왜?
 정훈, 타이어를 뺀 차다 발만 아파 동동 구른다.
 CUT TO. 벤치를 뛰어넘는 을자.
 을자 해봐.
 정훈 그만하자.
 을자 못 넘겠냐?
 정훈 (푸 웃으며) 이런 걸 왜 넘냐?
 을자 못 넘으니까 못 넘지! 나, 빗진 거 다 갚았다!
 정훈 이씨!
 정훈, 밖으로 나오려 울타리를 넘다 넘어진다.

S#25. 정훈 집 거실(저녁)

들어오는 정훈.

기속 박정훈. 50분 동안 어디서 뭐했어?
 정훈이 너, 혹시 너도 게임 하거나 그래?
 아니면, 여자친구..라도 사겨?
 정훈 그냥 체육 연습 좀 했어.
 기속 체육? 왜!

정훈 땀을 못해서.
 기속 그냥 수학 과학에만 집중해! 시험 얼마나 남았다고!
 정훈 수행평가 땀들이래!
 기속 넘지 마! 못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해!
 그 체육선생 진짜 이상하다. 그 학교에서 과고 들어가면 학교로서는 최고 아냐? 왜 그런 걸 막으려 그래!
 정훈 땀들 못 넘으면 쪽팔리다고. 애들이 뒤지게 놀려.
 기속 박정훈!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그게 무슨 단어야?
 정훈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다 이렇게 말해! 다른 애들은! 이게 일상 용어야!
 찰싹! 정훈의 뺨을 내리치는 기속.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정훈.
 기속 정훈아!
 정훈 나 그냥 학원 가!
 기속, 안절부절.

S#26. 주방(저녁)

기속 싱크대 앞.
 찬거리를 씻다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갈피를 못 잡는다.
 핸드폰을 잡고 번호를 누르는 기속.

서영(F) 여보세요.
기숙 최서영 학생이에요?
서영(F) 네. 누구세요?
기숙 아. 나, 정훈이 엄만데. 박정훈.
서영(F) 아, 안녕하세요?
기숙 정훈이 친구 맞지? 정훈이 일로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서영(F) 네? 정훈이가 말했나요? 아직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S#27. 학원 앞(저녁)

정훈, 학원 들어가려는데,
 길 옆에 낮은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는 게 보인다.
 바리케이트를 넘으려 뛰어가다 그 앞에서 멈추고 마는 정훈.

S#28. 놀이터(저녁)

터덜터덜 놀이터로 들어서는 정훈.
 길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을자 보인다. 서로 이야기하듯 다정하고 신비롭다.

정훈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냐?
을자 췌!
정훈 (고양이를 보고) 그 고양이는 뭐야?

고양이, 정훈을 보자 놀란 듯 울타리를 훌쩍 넘고 도망간다.

을자 잘 넘지?

S#29. 패스트푸드점(저녁)

기숙, 앞에 앉은 서영을 조심스레 쳐다본다.

기숙 이름이 서영이겠지?
서영 네. 최서영입니다.
기숙 예쁘네.
서영 고맙습니다.
기숙 정훈이가 말을 안 해서...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왜 말을 안했을까...? 이해 못해줄 엄마도 아닌 데.
 요즘 정훈이가 좀 변한거 같아서. 둘이 싸우거나 그랬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서영.
 기숙, 당황한다.

S#30. 놀이터(저녁)

마침내 울타리를 넘는 정훈.
 타이어들도 넘는 정훈.
 을자, 벤치를 다시 넘는다.

을자 자. 넘어봐. 확 넘겨.
정훈 넘기라구? 뭘 넘겨?
을자 그냥 넘어라고. 그냥 짚고 승 날면 넘어갈 수 있어!

정훈, 뛰지만 벤치 앞에 멈춰 선다.

정훈 꼭 넘어야 되나?
을자 뭐?
정훈 못 넘을 것 같으면 피하는 게 현명한 거야.

딱 쥐었던 을자의 주먹이 스르르 풀린다.

잠시 침묵.

다시 주먹을 꼭 쥐는 을자.

을자 방법이 있다.
정훈 ?
을자 자! 나를 넘어봐.

고개 숙여 무릎을 잡으며 자세를 취하는 을자.

정훈 뭐?
을자 넘어라고.
정훈 미쳤어?
을자 사람 넘는 게 제일 좋아.
정훈 싫어! 미쳤나?
을자 사람 넘으면 쉬워져. 자. 나 넘어!

나 못 넘으면 나 다치니까, 꼭 넘어라!

정훈 아이씨.

망설이던 정훈, 을자를 향해 도움닫기를 하고 뛰어간다.

을자의 등을 짚는 정훈의 손,

정훈, 날아오르며 넘는가 싶더니, ‘으아아~’ 비명 지르며, 털썩 하고 을자 위로
떨어진다.

서로 몸을 포개고 얼굴이 맞닿은 을자와 정훈...!

S#31. 패스트푸드점(저녁)

당황하는 기숙.

기숙 너네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서영 정훈이가 요즘 이상해요. 너무 변했어요.
기숙 응?
서영 진짜 더럽고 히키코모리 같고 괴팍한 애랑 어울렸거든요.
기숙 뭐?
서영 진짜 지저분하고 거칠고 양아치 같은 여자애 같지도 않은 애거든요.
기숙 여자애?
서영 바람난 건 아니에요. 여자애 같지도 않은 애니까. 근데 왜 개랑 자꾸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기숙 개를 여자애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서영 네?
기숙 예전에도 그런일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도 정훈이가...

S#32. 회상. 단칸방(오후)

문이 열리면, 허름하고 지저분한 실내.

식구들로 꽉 찬 방.

기숙(E) 정훈이랑 같은 반에 석현이라는 애가 있었어.

공부도 꽤 하는 아이였는데, 약하다고 정훈이가 많이 챙겨줬나 봐.

정훈이가 그애 집에 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방 하나에 할머니, 동생 둘까지 합쳐서 식구 여섯 명이 살더라고. 그렇게 살 수도 있냐고 묻더라고.

나도 마음이 짊어져서 석현이한테 잘해주라고만 했지.

친구에게 학용품을 하나씩 하나씩 건네는 정훈.

기숙(E) 그때 몰랐어. 정훈이가 돈만 생기면 어디에 다 써버리는지.

세뱃돈도 자기 용돈도 불쌍하다고 그 애 다 줬던 거야.

다르게 말하면 그 애가 그렇게 불쌍한 척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정훈이 꺼 다 가져가고, 시험도 정훈이 덕분에 잘 봤던 거야.

친구 석현에게 돈을 건네는 정훈.

석현, 냉큼 받아 주머니에 넣는다.

S#33. 패스트푸드점(저녁)

복잡다단한 서영의 표정.

기숙 서영이가 여자친구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정훈이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서영이도 정훈이를 좋아하는 거겠지.

서영의 눈에 눈물 고인다.

S#34. 놀이터(저녁)

서로 몸을 포갠 채 얼굴이 맞닿은 정훈과 을자!

묘한 분위기의 상황.

정훈에게 입 맞춰버리는 을자!

정훈 너, 뭐하는 거야!

을자 왜! 보보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정훈, 화난 듯 일어서서 가방을 챙기는데,

을자 야! 나 배고픈데 내가 너 도왔으니까 니가 뭐 줘 사.

S#35. 분식집(저녁)

서빙 아줌마, 대조적인 정훈과 을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돈가스를 탁자에 놓는다.

한입 먹고 마는 을자, 까만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돈가스를 넣는다.

정훈 뭐해?
을자 애들 줄려고.
정훈 누구? 동생? 아줌마한테 싸달라 그래.
을자 (만족스러운 듯) 됐다.

정훈이 먹는 걸 쳐다보는 을자.
정훈, 자기 것을 을자에게 밀어준다.
을자, 정훈 것을 우걱우걱 먹는다.

정훈 잘 먹네.
을자 너 이제 넘겠지, 뽕틀?
정훈 넘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상하게 그냥 뽕틀 앞에 서면 탁 숨이 막히고 멈추게 돼. 야. 너한테 이런 말 처음 한다.
을자야, 근데 아까...
을자 뭐? 뽕뽕? (천연덕스럽게) 걱정하지 마. 뽕뽕한 건 나도 비밀이야. 별로 안 내키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본능으로.

돈까스를 거의 다 먹은 을자.

정훈 을자야, 기분 나쁘게 들지는 말고... 너, 좀 이상한 냄새나는데 무슨 냄새야?

을자, 정훈을 노려본다.

정훈 내가 좋은 뜻으로, 너 위해서 하는 애긴데,
을자 나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냄새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일어서서 책 나가버리는 을자.

S#36. 길(밤)

터덜터덜 걸어오는 정훈.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 받지 않는다. 부재중 전화만 7통.
또다시 울리는 핸드폰. 서영이다.

정훈 여보세요.
서영(F) 너 어디야?
정훈 집에 가는 중이야.
서영(F) 개랑 있던 건 아니지?
정훈 누구?
서영(F) 누구긴 누구야? 너, 개랑 어울리면 또 호구 될 거야.
정훈 뭐?
서영(F) 너, 옛날에도 불쌍한 애한테 돈 다 뜯기고 그랬다며!
정훈 누가 그래?
서영(F) 너네 엄마. 전화왔었어. 내가 너, 이상한 애랑 어울린다고 했더니 걱정하셔.

S#37. 정훈 집 거실(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훈.

기숙 정훈아.
정훈 다녀왔습니다.
기숙 정훈아. 너 요즘...
정훈 서영이한테 다 들었어.
기숙 정훈아. 너, 또 왜그래!
정훈 (소리지르며) 왜 그런 얘기를 해!
기숙 니가 또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이 다음 준 데 진짜 왜 그러니!
정훈 (소리 최고조로)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숙 (역시 소리 최고조) 뭘 몰라!
 과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괜히 너 땀에 내가 더 힘들어!

팽팽한 기싸움, 정훈, 한풀 꺾인다.

정훈 시험 잘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기숙 (주저앉으며) 과고고 뭐고 나도 못하겠다.
정훈 (확 풀이 꺾이며)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기숙, 다시 기운 차리며

기숙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런데 엄마한테는 얘기도 안 하다니.
 시험 끝나면 집에 밥 한번 먹으러 오라 그랬어. 애는 솔직하고 괜찮 더라.

S#38. 교실(아침)

자습시간. 시골벽적인 아이들.
 드르륵- 문 여는 소리. 을자다. 전과 달리 깔끔한 모습!

남학생1 어? 하을자? 무슨 일 있냐?
아이들 오~
남학생2 (을자 옆에 가서 냄새를 맡더니) 오~ 씻었네? 몇 년 만에 씻었냐?
남학생1 오~ 비누 냄새 나는데? 하을자, 바람났냐?
을자 죽을래?

아이들, 자리로 돌아간다.
 정훈, 을자를 한번 쓱~ 보더니 다시 공부한다.

S#39. 복도나 계단(오전)

복도에서 가로질러 오는 을자와 마주한 정훈.

정훈 을자야.
을자 부르지 말래?
정훈 너, 예쁘다.

이리저리 표정 변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을자.

을자 쳐다보지 말래? 기분 안 좋다.

정훈 그래. 오해 풀린 거지?
을자 무슨. 쳐다보지 말라고!

서로 엇갈려 가는 정훈과 을자.

정훈 (멈춰 돌아보며) 나, 오늘은 체육 할 거야.

피식 웃는 을자.

S#40. 운동장(오후)

체육 수행평가는 내가 정한다! 다음 시간에 뽀틀 시험이야!
불만 있으면 엄마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직접 말해.
(정훈에게) 박정훈. 알았어?

고개 숙이는 정훈.

CUT TO. 역시 뽀틀 훌쩍 넘는 을자.

뽀틀 앞에 줄 맞춰 서 있는 아이들.

여유롭게 장난치는 남학생들, 하나씩 뽀틀 넘고,

정훈 차례가 된다. 정훈 눈에, 더욱 높아 보이는 뽀틀.

여학생들 무리 속에 을자 역시 정훈을 주시한다.

주먹을 꽉 쥐 정훈.

체육선생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멍뚱하던 정훈이 다시 주먹을 꽉 쥐고 뛰어간다.

뽀틀이 점점 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구름판을 헛디디며 뽀틀에 부딪쳐 넘어지고 만다.

아이들이 모여들어 정훈을 빙 둘러싼다.

그때 아이들을 헤집고 나오는 을자!

을자, 정훈을 업는다!

인상이 일그러지는 서영.

S#41. 양호실(오후)

정훈을 업고 헬레벌떡 뛰어오는 을자. 그런데 양호선생은 자리를 비우고 없다.

정훈 을자야! 난 괜찮다고. 안 다쳤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서영이다!

서영 (을자에게) 야! 너 왜 내 남자친구를 업고 가는 건데?

을자 남자친구?

서영 박정훈, 내 남친이라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을자 정훈이는 그런 말 안 하던데.

서영 (정훈에게) 박정훈!

안으로 들어오는 이, 양호선생이다!

양호선생 너네 왜?

(을자에게) 을자 너, 또 다쳤어?

을자를 다른 침대로 데리고 가는 양호선생, 을자 간의 커튼을 쳐버린다.
커튼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는 정훈.

양호선생 상처 좀 보자. 벗어봐.
을자 저 말고 정훈이요.
양호선생 너, 더 심해졌잖아.

커튼 밖으로 나오는 양호선생.

양호선생 (서영에게) 간단하게 치료 준비 좀 해야겠는데, 을자 좀 잠깐 잡고 있어줄래?
(정훈에게) 혹시 누가 을자 때리고 그랬어?

S#42. 교실(오후)

교실로 들어오는 정훈.
아이들, 이상한 눈으로 정훈을 쳐다본다.

정훈 을자 상처 누가 그랬어?
남학생1 뭘 소리야?
정훈 니들이 그런 거 아냐? 단체로 그런 거야?
남학생2 우리가? 미쳤냐? 오히려 하을자한테 맞았으면 맞았지.
남학생1 뭐야? 둘이 사귀냐?

어느새 교실로 들어온 서영, 잔뜩 화나 있다.

정훈의 뺨을 ‘찰싹’ 하고 때리는 서영.

서영 (아이들에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사귀는 사인데, 나한테 질투 유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정훈에게) 박정훈. 너, 진짜 유치하다. 이제 끝이야!

밖으로 나가버리는 서영.
정훈, 서영을 따라간다.

남학생2 뭐야? 삼각관계였어?

S#43. 옥상(오후)

정훈 너도 알잖아. 애들이 을자 괴롭혔던 거. 그 상처도 애들이 그런 게 틀림없어.
서영 무슨 상관이야, 너랑?
정훈 서영아.
서영 너 개 좋아해?
정훈 서영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을자한테...
서영 을자라고 이름 부르지도 마! 난 싫어. 너 초등학교 때도 애들 불쌍해 하다 말렸다면! 근데 또 왜그래!
정훈 ... 그런 거 아냐. 개한테 고마운 거 값을 게 있어서 그래.
서영 고마운 게 뭬데?
정훈 도와줬어. 뽕틀 넘게.
서영 너 넘으라고 개가 밀어주기라도 했어? 변명 같은 소리를 해!

나한테는 고마운 거 없고?

정훈 ...

서영 너한테 난 뭐야? 여자친구 맞아?

정훈 미안해, 서영아.

서영 하을자 말이야. 너 때문 아니야. 그리고 애들 때문도 아니야.

S#44. 화상. 양호실(S#41과 동일)(오후)

서영 누가 그랬어?

을자 (부러운 시선) 너 진짜 정훈이 여자친구 맞아?

서영 그래.

을자 니가?

서영 그렇다니까. 누가 그랬냐고, 너한테!

을자 ...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술 먹을 때만 그러시는 거야.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술 깨면 금방 미안하다 그래.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S#45. 옥상(오후)

서영 일 키질까 봐 내가 막아준 거야. 너 바보야?

서영, 엉엉 운다.

정훈(N) 서영이 말처럼 저, 바보 맞아요.

S#46. 몽타주

정훈(N) 공부만 잘하는 바보요.

음악선생 하을자! 결석이야?

CUT TO.

체육선생 하을자! 안 나왔어? 또 아프대?

묵묵부답인 아이들.

CUT TO.

담임 하을자!는 오늘도 결석이고.

정훈(N) 사실 너무 겁났어요.

S#47. 꿈

초원을 헤치고 가는 동물의 시점. 가쁜 숨소리.

핑! 사냥꾼의 총소리.

S#48. 정훈의 방(밤)

책상에서 졸던 정훈, 잠에서 확 깬다.

정훈 뒤편의 기숙.

기숙 정훈아!

S#49. 학교 복도(오전)

책을 보고 걷는 정훈.
맞은편에서 서영이 오자 멈춘다.

정훈 시험 잘 쳐.

서영 응. 너도.

(들어가려는 정훈에게) 정훈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시험 다 끝나면 얘기해보자, 선생님한테.

S#50. 교실(오전)

담임,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다.
손을 드는 정훈.

담임 박정훈, 왜?

정훈 선생님. 을자 안 왔습니다.

담임 안 그래도 전화했는데, 하을자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어쩔 수 없
대.

1학년 때도 시험 안 봤던데, 그렇게 필필 날던 애가 시험 때만 되면

병이 나는지.

CUT TO.

수학시험.
거뜰하게 풀었던 문제인데, 정훈, 도무지 집중할 수 없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교실을 나가는 정훈!

담임 박정훈! 어디 가!

S#51. 아파트 경비실(오전)

경비원 앞에 선 정훈.

정훈 학교를 안 나와서요, 무슨 일 있는 거 같아서.

질레질레 고개를 흔드는 경비원1.
고개를 내젓는 경비원2, 3.
가장 후미진 아파트 동, 스산한 느낌의 경비실 앞. 경비원과 주민이 이야기하
고 있다.

주민 그 시끄러운 집 에 말하는 거 같은데. 맨날 소리 지르는 거 들리고. 항
의 엄청 했잖아요.

경비원4 아... 그 짐승 같은 애 말이야?

S#52. 정훈 집(오전)

기숙, 핸드폰 벨이 울리자 받는다.

기숙 (통화) 네. 선생님. 네? 정훈이가요? 시험 보다 나갔다고요?

전화 끊은 기숙, 정훈에게 전화하지만 받지 않는다.

기숙에게 다시 걸려오는 전화. 서영이다.

기숙 서영이니?

S#53. 아파트 복도(오전)

벨을 누른다. 몇 번 누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경비원4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

정훈 네.

경비원4 나는 일이 바쁘니까 갈게. 나중에 다시 와라.

정훈 네.

경비원4, 내려간다.

정훈, 집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계속 문을 두드리던 정훈,

정훈 을자야! 집에 있지? 문 열어.

S#54. 정훈 집(오전)

기숙, 옷을 갈아입는다.

S#55. 아파트 복도(오전)

계속 문을 두드리는 정훈.

광! 문이 열린다. 중년 남자다. 콜록콜록 기침하는.

을자아빠 누구?

정훈 을자...

정훈을 아래위로 훑어보는 을자아빠.

을자아빠 (기침하며) 잘못 찾아왔다.

다시 문을 닫는 을자아빠.

돌아서는 정훈. 그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현관문에 귀를 대는 정훈.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노랫소리. 자세히 들으니 을자가 불렀던 <임이 오시는지> 노랫소리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정훈. 땡땡 발로 찬다.

을자아빠 (문을 열고) 아니라니까!

안쪽을 보는 정훈. 난장판처럼 어질러진 집에서 지저분한 고양이 몇 마리가 뛰쳐나온다.

을자아빠 (동물들에게) 들어가!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돌진하는 정훈!

S#56. 을자 집 안(오전)

쓰레기 가득한 실내. 소주병들이 여기저기에...

을자아빠 너, 누구야!

소리치는 을자 아빠를 피해 쌓여 있는 쓰레기를 훌쩍 넘는 정훈.

정훈 을자! 을자야!

정훈, 베란다에 있는 을자를 발견한다!

안쪽에서 닫힌 문.

S#57. 을자 집 / 베란다 앞(오전)

굳게 닫혀 있는 베란다 문을 사이에 두고,
을자와 정훈, 한동안 서로 마주 본다.
그런데 을자, 정훈을 보더니 더 구석으로 숨어버린다.
속옷만 입은 을자...!

인서트.
<야성의 엘자> 씬 중 트럭 철창에 갇힌 어린 암사자 컷.

정훈(N) 어릴 적에 TV에서 <야성의 엘자>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아세요?
엄마가 깰까 봐, 볼륨을 최대한 줄여서 봤거든요.

인서트
영화 <야성의 엘자>를 보고 있는 유아 시절의 정훈과 정훈아빠, 자고 있는 젊은 기숙.
암사자 엘자가 수영하는 장면.

정훈(N) 제일 좋았었어요. 그때가요. 을자를 보면 이상하게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정훈, 베란다 문을 여는데,
을자, 더 숨는다.

을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정훈 옷, 어디 있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정훈.

그때 뒤에서 정훈의 뒷머리를 움켜쥐는 손. 을자아빠다.

정훈의 머리채를 쥐고 내동댕이치는 을자아빠.

쓰러지지 않은 정훈, 을자아빠와 맞서는 자세를 취한다.

을자아빠 너 뭐야?

정훈 을자 친구요.

을자아빠 (헛웃음 치며) 친구?

(을자에게) 다시 제자리로 안 가?

을자, 움찔하더니, 베란다 구석으로 가 정자세로 선다.

정훈 을자 아빠 맞아요? 아빠가 맞다면 딸한테 왜 그래요?

을자아빠 내 자식 내가 가르치겠다고 어디서 쪼끄만 자식이!

정훈의 짝 움켜진 주먹이 벌벌 떠다.

을자아빠 어디서 이 자식이! 나가!

을자아빠, 정훈을 때린다. 술 취해 있지만 주먹은 취하지 않은 듯.

코너로 몰리는 정훈. 주저앉는가 싶은 순간, 몸을 비껴 을자아빠에게서 빠져 나온다.

베란다로 돌진하는 정훈, 을자에게 손을 내민다.

망설이던 을자, 정훈의 손을 잡는데,

베란다 쪽으로 오던 을자아빠, 술기운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진다!

을자를 데리고 나오는 정훈.

을자아빠, 옆에 있던 술병을 들어 내리치려는데 -

을자 (소리) 넘어. 그냥 넘어라고.

정훈 (소리) 그냥 짚고 날아오르면 넘어갈 수 있어!

S#30에서의 을자 소리가 정훈의 소리로 바뀌며, 을자아빠를 향해 뛰는 정훈과 을자!

(슬로우 모션에서 스탱)

인서트. 정훈의 환상

거대 뿔들이 정훈과 을자 앞에 있다.

을자를 업은 정훈, 뿔들을 타 넘는다!

현관 앞의 정훈, 현관문을 여는데-

기숙이 서 있다!

놀라는 정훈과 기숙...

정훈 엄마...

기숙, 정훈의 뒤를 보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을자, 기숙과 정훈을 밀치고 집 밖으로 뛰어간다...

을자 아악~~~!

정훈, 기숙을 두고 을자를 쫓아간다.

을자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White Out 되며 울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

S#58. 정훈 집(저녁)

식탁 위에서 밥 먹는 정훈.

기숙 밥이 잘됐네.

정훈 응...

기숙 개, 얼마나 맛고 살았는지, 동물원 새끼 사슴처럼 아빠 말에는 꼼짝 못한다더라. 일단 안정을 취하고, 개 아빠랑 격리시키면서 정신상담 이 먼저야.

멍한 표정의 정훈, 밥을 먹지 못한다.

기숙 개가 거리의 고양이들을 데리고 와서 끔찍하게 아꼈는데, 개 아빠도 고양이들은 안 건드렸다네. 애는 그렇게 때리면서. 어떻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하는 기숙.

기숙 엄마가 미안해.

정훈 엄마...

기숙 엄마가 다 미안하네... 너한테도 을자한테도...

S#59. 학교 교실(아침)

출석을 부르는 담임.

담임 차은재. 최미리. 하을자...는 없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을자 자리.

남학생1 하을자, 계속 안 와요?

담임 (정훈을 보면서) 하을자는 이제 안 와. 전학 갔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게 좋아.

웅성대는 아이들.

정훈(N) 얼마 안 있어서 을자 책상이랑 의자도 없어졌어요. 애들 헛소문도 잠 잠해졌고요.

여전히 수업 받는 아이들 가운데, 을자의 책상과 의자가 없어진다.

정훈(N) 서영이는 마주치면 그냥 인사는 해요.

복도. 다른 남자아이와 팔짱 낀 서영, 정훈과 눈인사한다.

정훈(N) 엄마는 더 이상 내 방 물건들을 손대지 않으시고요.

정훈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엄마.

정훈(N) 음악선생님이 음악시간에 자꾸만 반주를 하라고 하시는데, 전 싫더라고요.

음악선생에게 고개를 내젓는 정훈.

S#60. 상담실(오후)

상담선생 왜? 왜 싫지?

정훈 ...그냥요.

상담선생 정훈이 너는?

정훈 저요?

상담선생 (끄덕이며) 그래.

정훈 ...시험은 망쳤지만요. 뽕틀 수행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상담선생 (웃으며)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일어서는 정훈.

상담선생, 정훈을 안고, 등을 토닥여준다.

S#61. 놀이터(오후)

놀이터를 둘러보는 정훈.

정훈, 을자와 넘었던 갖가지 장애물들을 혼자 넘는다. 훌쩍 훌쩍 잘도 넘는다.

벤치에 앉은 정훈.

을자가 보이는 듯하다. 을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인서트.

<야성의 엘자>의 엔딩 씬. 바위산을 뛰어다니는 암사자 엘자.

을자 (소리) 나 체육보다 이제 노래하니까 재밌다. 너, 나 노래하는데, 계속 니가 반주해주면 안 되냐?

노래를 흥얼거리는 정훈. <임이 오시는지>.

정훈 (노래)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보라 달빛 고운 빛 님이 오시는가

정훈의 노래가 을자의 노래로 바뀐다.

S#62. 보호소(오후)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을 가꾸는 소녀. 을자다.

을자 (노래) 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취가 흐르는 물소리 그대 노래인가, 내 맘에 이름은 가득히 떠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끝.

골든걸스 Golden Girls

장아미



작가 후기 전영선

초고는 며칠 만에 쓴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을자처럼 날 것의 거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다듬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캐릭터의 감정과 관계를 더 파고들어가 봤습니다.

정훈이가 진짜 바랐던 것과 희생한 것,

정훈이에게 을자는 어떤 존재였는지, 정훈과 을자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고 어떻게 영향을 주며 바뀌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또 정훈을 옮겨주고 싶어하는 엄마와 여자친구 서영이를 통해, 정훈과 을자의 관계에 더 명암을 주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점은 어떤 부분에 감성과 톤을 놓치지 않으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연습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작업하지 마라”는 말씀을 들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과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작의

2016년에는 때마다 광화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였다.
보수단체는 광장에 모인 그들을 나라 망치는 놈들이라 욕했다.
하지만 내 눈에 그들은 나라 빛을 갠다고 금을 모으던 사람들과 닮았다.
1997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해.
변화를 기대하며 힘을 모았던 사람들.
개인보다 나라가 위대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다가 결국 서로를 구하고 우리를 구하게 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함께 사는 삶의 가치는 2017년 현재에도 여전히 통할 것이라 믿는다.

등장인물

이현금 (여, 23) - 한일은행 직원
은행강도 인질로 잡혀도 생각은 딱 한 가지다.
“신고하면 포상금 마이 주겠지?”

박지수 (여, 29) - 식당 종업원
동완에게 대차게 차이고도 간절하게 매달린다.
“오빠 꿈이 이루어지는 게 내 꿈이야.”

조동완 (남, 31) - 한일은행 대리
금에 눈이 멀어 뒷바라지해 준 지수도, 양심도 버렸다.

김명철 (남, 33) - 카센터 운영

동완과 같은 고아원 출신. 카센터는 위장일 뿐 실은 장물아비다.

줄거리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 활발하던 1998년 1월.

현금은 같은 은행 직원 동완이 금모으기 운동에 모인 금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한다. 현장에 있던 동완의 전 여친 지수는 얼굴에 동완을 돕게 된다. 사랑해서 동완의 변명을 철썩같이 믿은 지수는 현금을 결박해 차에 태운 후 서울 시내를 떠돌며 시간을 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동완의 계략이었다. 경찰은 현금과 지수, 두 여자가 공범으로 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공개수배를 선언한다! 과연 두 여자는 누명을 벗고 동완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S#1. 거리 / 전파사 앞(낮)

97년 대선 포스터가 군데군데 찢겨진 벽.
쇼윈도 안에 놓인 골드스타 TV 속 금 모으기 운동 뉴스 화면.

앵커(E) 금 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이틀째인 오늘은 어제의 3.3톤보다 두 배나 많은 6.8톤 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이틀간 무려 1억 달러어치나 되는 10톤 이상의 금이 모아진 셈입니다.

국민들이 낸 금붙이들로 꽉 찬 화면.
반지! 목걸이! 금 거북이! 황금열쇠! 골드바까지!!
그때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으로 '긴급속보' 뜬다.
전파사 앞으로 삼삼오오 모여드는 행인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젯밤 23시경 한일은행 불광동 지점에 흉기를 든 여성 두 명이 침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은행 전경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통제실 뉴스 화면.

앵커(E)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은행이 수집한 시가 10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두 여성을, 경찰은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금(여, 23), 지수(여, 29)의 증명사진과 키, 몸무게, 인적사항이 뜬다.

행인1 나라 구하겠다고 모은 금을 훔쳐?

행인2 저저, 쌍관떼기 좀 보소.

행인3 나쁜 년들.

수군대는 사람들 사이로 '벽'의 <맨발의 청춘>이 가까워진다.

♪ 오직 믿는 건 배짱뿐 가진 것 하나 없이 품젠다지만
나 젓 먹던 힘 다해 내 꿈을 이룰 거야 간다 와다다다!

운전석의 지수와 보조석의 현금이 탄 흰색 차량, 행인들 뒤를 유유히 스쳐 지난다!

S#2. 거리 / 달리는 차 안(낮)

열린 배낭과 함께 반짝이는 금붙이들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다.
과장된 파마머리 가발에 선글라스, 진한 립스틱을 바른 현금과 지수,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른다.

현금,지수 어차피 인생은 한판의 멋진 도박과 같은 것!
자 맨발에 땀나도록 뛰는 거야 내 청춘을 위하여!!

빨간불 들어온 신호등 무시하고 부웅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차.

타이틀. 골든걸스

S#3. 현재. 병원 / 병실(밤)

벽에 걸린 1998년 1월 달력 위로 <자막, 사건 발생 48시간 전> 뜬다.
 숙녀(여/50대), 초점 없는 눈으로 호흡기 낀 채 누워 있다.
 현금, 물수건으로 숙녀의 손이며 목 닦아주며

현금 아이엠푸라꼬 난리 난리 썩난린 거 아냐?
 돈 몇 푼이 없어가 사람 죽이고 목매고 아수라판이다.

현금, 대답 없는 숙녀의 얼굴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숙녀의 입에 귀 대며

현금 뭐라꼬? 병원비 내준다고 유세하냐꼬?
 (정색하는) 유세 맞다. 내 은행서 대출까지 받았다 아이가.

숙녀 ...

현금 (숙녀의 다리 주무르며) 친구는 보증 서줬드만 야반도주 해붙고,
 (제 목걸이의 반지 팬던트 흔들며) 실반지 하나 딸랑 주고 사라진 서
 방은 평생 미혼모로 살게 만들고,
 사람 민다 요 모양 요 꼴 된 엄마 니한테 내 같은 딸래미라도 하나 있
 어 다행인 줄 알아라.

숙녀 ...

현금 (순간 울컥하는) 인자 고마 아프고 인나서 대답 쪼매 해바!
 내 말 맞나? 틀리나?

지수(E) 틀린데.

S#4. 커피숍 안(밤)

하얀 원피스 차림의 지수, 파르페를 보며 곤란한 얼굴이다.
 동완, 대놓고 한숨 쉬며 투명스럽게,

동완 뭐가?
지수 (주눅 든) 아까 사이다 주문했거든.

사실 파르페 먹고 싶었던 지수, 저도 모르게 꿀꺽 침 넘어가는데.

동완 (손들며) 여기요.
지수 (손사래) 아냐, 그냥 마실게. 원래 이거 마시고 싶었어.
동완 (못마땅) 그럼 처음부터 그거 시켰음 되잖아. 너 바보야?
지수 (웃으며 농치는) 아니이, 파르페가 더 비싸니까 그러지.
 한 푼이라도 아껴야 집 사잖아. 그게 오빠 꿈이잖아.
동완 (버겁다) 니가 왜 내 꿈을 신경 써, 넌 꿈 없어?
지수 (배시시) 왜 없어, 오빠 꿈 이루어지는 게 내 꿈이지.

지수가 지긋지긋한 동완, 한숨 쉬며 담뱃갑 꺼내는데 비었다.

지수 (영거주춤 일어서는) 나가서 사올게.
동완 앓아. 메뉴에 있으니까 시키면 돼.
지수 가격차가,
동완 (버럭) 앓으라니까!!

깜짝 놀란 지수, 도로 앉아 눈치만 보는데.

지수 나한테 뭐 화났지, 오빠?
동완 (꼭 참는) ...
지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완 (한계다) 뭘?
지수 응?
동완 뭐 잘못했는데?
지수 (괜히 주눅 드는) 그냥... 다...
동완 (이미 결심하고 왔다) 헤어지자.
지수 어?
동완 (냉정한) 어차피 싸구려들이니까 내 물건은 니가 정리해서 버려.
 오늘 얼굴 본 걸 마지막으로 하자, 우리.

벌떡 일어나 나가는 동완.
 멍하던 지수, 다급히 동완의 옷자락을 움켜잡는다.

지수 (절실한) 오빠, 내가 잘할게. 노력할게. 뭐든 하라는 대루 할게! 응?
동완 (더러운 먼지 털어내듯 지수의 손 쳐내고 간다)

반동으로 테이블에 부딪치며 우당탕 바닥에 넘어지는 지수.
 떨어진 파르페로 엉망이 된 하얀 원피스와 까져서 피가 나는 무릎.
 지수, 아랑곳 않고 절뚝이며 동완을 뒤쫓는다.

지수 오빠!!

S#5. 은행 외경(낮)

다른 날.
 <금 모아 나라 지키자> 현수막이 걸린 건물.
 남녀노소 금붙이를 들고 줄지어 서 있다.

S#6. 은행 / 지점장실 안

유니폼 입은 현금, 대문(남/50대) 앞에 선 채 사색이 되어 있다.

현금 와 대출 승인이 안 떨어지는데예?
대문 담보가 없잖나.
현금 같은 행원 식구는 담보 필요 없다꼬 알고 있는데예.
대문 (곤란한)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감원 통보가 내려왔는데 말이야,
현금 (설마)
대문 다음 달 끝으로 그만 나와도 되네.
현금 (기막힌) 뭐라꼬예?
대문 미쓰리 빼곤 다 처자식 있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었어.
 젊은 사람이니까 고생도 배운다 생각하면,
현금 (기막힌) 고생을 와 배웁니까?!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 고생 이미 넘치게 했어예!
 처자식만 가족이고 아픈 엄마는 딸린 가족으로 안 쳐줍니까?
 울 엄마처럼 얼라부터 언능 낳아가 미혼모라도 돼야겠네예?
대문 어허, 이 사람 못하는 소리가 없어!
현금 조대리님은예? 조대리님도 처자식 없잖아예!

대문 조대리는 대출이고 자네는 상고 출신이잖아!
 게다가 조대리, 곧 세종그룹 데릴사위로 들어간대.
 거래하는 회사 중에 실적으로는 세종이 일등인데, 어떻게 짜르나?

현금, 씩씩거리며 쏘아보지만 더는 할 말도 없다.
 거들떠도 안 보는 대문, 결재 파일 들추며 싸인한다.

S#7. 은행 / 객장 안

동완, 앉아서 올려다보는 눈에 짜증이 서려 있다.

지수 (돼지 저금통 내밀며, 눈치) 예금하려고 하는데요.
동완 (짜늘한) 여긴 금 모으기 운동 창구니까 1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뒤 보며) 다음 고객님,
지수 (다급히 CD 플레이어 꺼내는) 이거 오빠 물건...

일어섰던 고객, 힐끔 지수 보며 다시 자리에 앉으면,
 1번 창구에서 일반 수납 받고 있던 현금, 의아하게 동완 쪽 본다.

동완 (놀란, 숨 죽여 빠르게) 너 미쳤어? 버리랬잖아.
지수 (절실한) 오빠...
동완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꺼져, (하는데)

동완의 옆에 와 앉는 감정사.

감정사 자아, 나라 구할 금덩이 또 받아봅시다.
 난처한 동완, 지수가 무슨 말을 할지 입술만 바짝 마르는데
 눈물 그러한 지수, 동완을 보며 끼고 있던 반지 빼 내려놓는다.

지수 (시간 벌려는) 이거 낼게요.
감정사 (받아 감정하는) 오케이.
지수 (동완 향해 작게) 나... 버리지 마...
동완 (무섭게 노력하는데)

창구에서 나와 수납기에 '고장' 표시 붙이던 현금,
 지수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현금(N) 딱 봐도 세종그룹 아가씨 사이즈는 아인데, 뭐꼬.
감정사 가짜네.
동완 (눈 질끈 감는)
지수 (의아한) 예?
감정사 (내밀며) 반지, 짜가라고. 짜가.
지수 (반지 받아드는데 충격이다) 어떻게...

급히 창구 밖으로 나온 동완, 지수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쥔다.
 덕분에 떨어진 반지 도르르 굴러 현금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동완 나가서 얘기하시죠.

현금을 포함한 사람들의 시선 동완과 지수에게 쏠리는데,

지수 (울컥) 놔.
동완 여기서 난동 부리시면 안 됩니다, (더 거칠게 끌고 가고)
지수 (뿌리치려 애쓰며) 놓으라고!
현금 (끼어들어) 놓으래잖아예!!

동완의 손에서 지수의 손목을 빼내던 현금,
 핵 뿌리치는 동완의 팔꿈치에 왼쪽 눈을 대차게 맞는다!!

현금 (휘청) 헉!!
일동 (주저앉는 지수 때문에 놀란다)
현금 (겨우 서며, 손사래) 개얏아예 개얏아, 기스 하나 안 났다. (하는데)

현금을 지나쳐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
 어느새 정신 잃은 지수, 쓰러져 있다!

S#8. 병원 / 로비(낮)

간호사, 차트 확인하며 걷는데
 응급실 수속을 밟고 있는 현금의 뒷모습이 보인다.

간호사 (다가가) 밀린 병원비 내시나?
현금 (화들짝 놀란) 어우, 깜짝이야!!

돌아선 현금의 왼쪽 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다.

간호사 어머, 눈은 또 왜 이래.
현금 (창피한) 아... 심칠 대 일로 싸움이 붙어가.
간호사 (싸늘) 헛소리 그만하구 병원비 어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처리 안 하면 이숙녀 환자 쫓겨날지도 몰라.
현금 (한숨만 나는데) ...
간호사 (힐끔) 근데 뭐 쓰고 있는 거예요?
현금 아, 입원 동의서예.
간호사 (힐난하는) 눈 고거 다쳤다고 입원하게요?
현금 아이! 은행서 사람 하나 쓰러져가 엄마한테 오는 김에 같이 왔는데,
 (하다가 번뜩!) 눈탱이 밤탱이 된 것도 합의금 달랄 수 있나?!
간호사 ??

S#9. 병원 / 응급실 안(저녁)

누워 있는 지수, 모든 기력 상실한 표정으로 천장만 본다.

의사 (수액 체크하며) 다 맞으시면 산부인과 들르세요.
 임신성 빈혈입니다.
지수 (임신 이미 알고 있었다) 철분제 챙겨 먹었는데...
의사 초기에는 약 복용해도 힘들 때 있어요.
 남편분하고 상담 좀 하고 싶는데 같이 안 오셨나요?

고집스럽게 다문 지수의 입술, 열리지 않는다.
 현금, 먼발치서 지켜보며

현금 (찌늘한 얼굴로 힐난하는) 얄전하이 생긴기 발랑 까지가 잘하는 짓이다.

S#10. 카센터(저녁)

S#1 흰색 차량의 트렁크 손잡이가 부서져 있다.
트렁크에 기대 서 있는 동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험악한 인상의 명철(남/33), 안에서 새 손잡이를 찾고 있다.

명철 물건은?

동완 오늘 밤에 확보할 거야. 형은?

명철 (나오며) 현금으로 십억, 시간은 내일 자정,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곳.

끄덕인 동완, 손잡이 건네받으려 손 내미는데.

명철 (피하며) 대포차래도 보대나게 튜닝 한번 해줄까? (트렁크 문 잡는데)

동완, 명철의 손목 신경질적으로 핵 잡아당기며!

동완 내가 할게!! (하는데)

일순 주옥 찢어지는 명철의 작업용 팔토시와 바닥을 나뒹구는 손잡이.
명철의 팔에 무시무시한 문신이 가득하다!
순간 매서운 눈빛으로 변해 노려보는 명철!
뒤로 보이는 카센터 벽에 걸린 동물 가죽과 사냥총이 살벌하다.

동완 (기세 눌린) 미안... 시간 못 맞춰 들어가면 괜히 의심 사니까...
이따 내가 직접 할게. (손잡이 주워 차에 타려는데)

동완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는 명철!

동완, 긴장하며 돌아본다.

명철 (주머니에서 복제한 카드키와 열쇠꾸러미 꺼내 건넨다) 부탁한 거.

동완 (안도하는) 아...

명철 (의심하며) 어차피 키는 니가 관리한다며, 복사는 왜?

동완 (긴장 풀렸다, 자신만만한 미소) 흑시라도 꼬리 밟히면 내세울 쪽두 각시가 필요하니까.

명철 (동완의 의중 파악하지 못해 인상만 쓴다)

S#11. 병원 앞(밤)

삶은 달걀로 눈 마사지 중인 현금, 내리는 비 못마땅하게 보며 나온다.

현금 겨울에 비가 이례 와쥘노.

주머니에 달걀 넣고 ‘**병원’이라 적힌 장우산을 퍼려던 현금,
힘없이 벽에 기대 서 있는 지수를 발견한다.

현금 (납작한 지수의 배 보며) 응애응애 울어야 아지 배속 아는 아아입니다. 마
청승 고마 떨고 깔끔하이 지우고 새 출발 하세요.

지수 (어이없다, 보는데)

현금 와예? 설마 낱을라꼬예?
지수 (기분 상한) 그쪽이 뭘 안다고 참견이세요.
현금 (날 선) 내는 압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가 얼마치 불행한지.
 그러는 나는 압니까?
지수 (일말의 불안 지우려 더 세계 나가는) 아빠가 왜 없어요?!
 이상한 소리 마시고 은행에 떨어트린 반지나 좀 찾아주세요.
현금 (비웃는) 하이고야, 옛도 못 바까 먹는 짜가 찾아 뭐하게예?
지수 그때 오빠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전 믿어요, 우리 오빠.
현금 (혀 차며) 우리 오빠랑 헤어지기 아이였어예?
지수 (발끈하지만 꼭 참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오빠,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인서트. S#6 대문 “조대리, 곧 세종그룹 데릴사위로 들어간대.”

현금 (욕하는) 백날 기다려봤자 안 온다카이!
지수 (간절한) 오빠가 보면 버릴지도 몰라요, 그 전에 찾고 싶어요. 네?
현금 하, 돌겠네.
지수 (눈물 그렁한) 태어날 아이한테 줄 아빠 물건이 하나는 있어야죠.

말을 말자! 고개 짓는 현금, 우산 펴고 매몰차게 걷는데,
 지수, 빗속에 우산도 없이 따라온다.
 제 반지 팬던트를 만져보는 현금의 얼굴 위로 낭패감이 스치고...
 핵 돌아 다가온 현금, 지수 쪽으로 우산 기울이며.

현금 얼마 줄래예? 내 돈 마이 필요한데.
지수 (의아한) 예?

현금 찾아준다꼬, 짜가 반지.
 기쁜 지수, 급히 지갑 뒤져보지만 텅 비었다. 가방에서 조심스레 S#7의
 돼지 저금통 꺼내 내민다.
지수 오백 원짜리만 모은 건데... (배시시) 어떻게 안 될까요?
현금 (기가 찬다)

S#12. 은행 / 숙직실(밤)

빗소리 이어지며, 나열된 화투장들 두 명이 맞고 찻음을 보여준다.
 굶아떨어진 남자 직원1의 옆 휴지통 안에 빈 박카스 병과 흰색 약봉지가 보인다.

S#13. 은행 앞 / 경비실(밤)

현금, 경비실 창문에 얼굴 불쑥 들이밀고 조르는 중이다.

현금 에이, 아저씨. 저 아시잖아예,
 집 열쇠를 서랍에 두고 와 그래예.
경비 거 안 된다니까 그러네.
 숙직하는 직원이 돌이나 있는데 연락해서 가져다 달라 해.
현금 죄 상사들인데 뭇보인다 아입니까.
 고향서 친구까지 올라왔는데 여관방서 재울 순 없잖아예.

현금, 뒤에서 우산 쓴 채 기다리는 지수를 가리킨다.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지수.

현금 슬~쩍 가서 열쇠만 슬~쩍 빼가 또 슬~쩍 나올께예. 응?
경비 (봐줬다) 곰방 나와야 혀.
현금 하모예!

현금, 지수 향해 손가락으로 V 해 보인다.
열쇠 꾸러미 들고 일어서는 경비 옆 휴지통에 빈 박카스 병이 들었다.

S#14. 은행 / 통제실 안(밤)

어둠 속에서 번쩍번쩍 광을 내며 빛나는 금붙이들!
검은 장갑을 낀 손, 배낭 안으로 금붙이들을 옮겨 담는다!

S#15. 은행 / 객장 안(밤)

현금, 아예 거미처럼 바닥에 들러붙어 살살이 찾는 중이다.

현금 (툭툭대며) 내 진짜 돈 뺨에 찾는기다, 돈 뺨에.

옷과 손바닥, 무릎 등이 이미 엉망인데...
현금, 제 책상 밑에 반짝이는 반지 발견한다!

현금 (기쁜) 어!

손 뻗어 보지만 닿을락 말락 닿지 않는,

현금 쫄쫄, 쫄쫄만 더,

아예 바닥에 뺨 붙이고 최대한 손을 뻗어보는 현금!
겨우 손 닿아 스윽 당기는데, 철거덕! 통제실 문이 열린다.
반사적으로 책상 밑에 몸을 숨기고 의자로 저를 가리는 현금!
통제실 문을 잠그는 사내... 동완이다!!
동완의 발밑에 놓인 배낭의 열린 지퍼 사이로 보이는 금덩이들!!

현금(N) 뭐꼬? 와 저서 나오노? 설마... 빼돌리는 기가? (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동완, 천천히 현금의 책상 쪽으로 다가온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까지 맺힌 현금, 점점 긴장하는데!
책상 앞에서 허리 숙인 동완, 지수의 반지를 주워든다.

동완 (헛웃음) 지겹다, 진짜.

동완, 의자 옆 휴지통에 미련 없이 반지를 던져 넣는다.

S#16. 은행 뒤편 / 야외 주차장(밤)

비가 그쳤다.

배낭 메고 걷는 동완과 몰래 뒤를 쫓는 현금!

현금(N) (신난) 해고는 내가 아이라 니가 당해야지!!
차에다 싣는 거까지만 보고 바로 신고 때린다, 요 도둑놈의 새끼!!

차에 거의 다 온 동완인데...
현금의 운동화, 빈 아이스크림 껍질을 밟으며 뽀시락 소리가 난다.
동완이 돌아보는 것과 현금이 다른 차 뒤로 몸을 숨긴 것, 거의 동시!
성큼성큼 다가오는 동완!
현금, 타이어 사이로 가까워지는 동완의 구두를 보며 초조한,

현금(N) 오지 마라, 가 뿌라, 아... 씨,

현금이 숨어 있는 차를 지나치는 구두.
현금, 작게 안도의 한숨 뱉는데,
어느새 돌아온 동완, 우뚝 서 현금을 내려다본다.

현금 (놀란) 도... 도둑이야!!

비명에 달려온 지수, 동완을 확인하고 주춤하고,
갑자기 나타난 지수 때문에 동완도 당황스러운데,

현금 (동완 가리키며) 뭐해?! 빨리 쳐!!

쥐고 있던 장우산을 비장한 표정으로 한껏 들어 올린 지수!
현금, 기대의 얼굴로 보는데

지수, 폴스윙으로 냅다 현금의 머리를 내려친다!!

지수 (동완에게) 괜찮아?! 어디 다친 덴 없어? 피 나는 거 아냐??

동완 니가 왜 여기 있어?

지수 그게... (스스로 때렸으면서 쓰러진 현금 보고 놀랐다!!) 헉!!

지수의 손에서 툭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우산.

S#17. 대문의 저택 / 침실(새벽)

아내와 대문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침실.
불길한 전화벨 소리가 끈질기게 이어진다.

대문 (잠결에 비몽사몽 수화기 드는) 여보세요... 예... 예?!

벌떡 허리를 곧추세워 앉는 대문!

S#18. 은행 앞(새벽)

경찰차, 앰불런스, 방송국 차량, 구경꾼 등으로 복잡하다.

S#19. 은행 앞 / 경비실

형사2, 경비와 심문 중이다.

형사2 주무셨단 말입니까?

경비 (민망한) 평소에는 잠이 없는데 어젠 통 줄음이 밀려와서.

형사2 하, 참나.

빈 박카스 병이 들어 있던 휴지통 텅 비었다.

S#20. 은행 / 통제실 안(새벽)

노란 플리스라인이 붙어 있다.

증거와 지문 채취 중인 감식반들.

S#21. 은행 / 객장 안(새벽)

자다 깨 달려 나온 차림의 대문, 형사1과 대화 중이다.

대문 범인이 누구니까!

형사1 아직 범인은 아니고 용의잡니다.

(사진 건네며) 아는 얼굴이시죠?

현금의 사진이다!

대문 (놀란) 설마...

형사1 한일은행 불광동 지점 일반 행원 이현금 맞습니까?

대문 (믿을 수 없는) 금을 미쓰 리가 훔쳤다고요?

형사1, 비닐에 든 S#10의 카드키와 열쇠꾸러미 내밀며,

형사1 통제실 출입 키들 복사본이 이현금 씨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대문 (반색하는) 목격자가 있습니까?

형사1, 대문의 뒤를 턱짓으로 가리킨다.

기대에 찬 대문, 돌아보면

앰불런스 안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동완, 걸어 들어온다!

S#22. 도로 / 달리는 차 안(새벽)

뒷좌석에 모로 누워 있는 현금, 손과 발 묶인 채 입은 청테이프로 봉해져 있다.

눈은 멍들었고 이마는 볼록하게 부어올라 엉망이다.

운전 중인 지수, 조수석의 배낭과 현금을 불안하게 번갈아 보는데...

막 눈을 뜬 현금, 자신의 처지 확인하고 온몸을 비틀기 시작한다!

현금 으...읍!

지수 (죄책감 때문에 경직된 말투, 빠른) 오빠가 잠깐만 시간을 달래요!

오빠 지점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대요! 설득해서 자수하게 하겠대요!

현금 으으읍!

현금(N) 멍청아!
지수 (힐끔 룸미러 보고) 할 수 있대요!
현금 읍읍읍읍!!
현금(N) 말이 대나!!
현금 읍읍읍읍읍!!
현금(N) 정신차리라!!

은몸을 들썩이며 뒤흔들던 현금, 뒷좌석 아래로 쿵 떨어진다!

지수 (걱정스레 보는) 아이, 바닥 더러운데... 괜찮아요?

현금, 상황에 안 맞는 지수의 걱정에 맥이 탁 풀린다.

S#23. 은행 / 객장 안(아침)

경찰과 감식반, 형사들로 분주한 실내.
 대문과 동완, 벽 쪽에 기대 나란히 앉아 있다.
 대문, 붓대에 묻은 피를 걱정스레 보는.

대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동완 차에 실는지 아님 누구한테 넘기는지 확인하고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S#24. 은행 뒤편 / 야외 주차장(지난 밤 - 동완의 거짓말)

배낭을 멘 현금, 주변 경계하며 걷는다.
 조심스럽게 뒤따르는 동완!

동완(N) 그런데,

우뚝 멈춰서 핵 돌아보는 현금!

동완 (놀란) 도...도둑이야!!

갑자기 나타난 냉철한 표정의 지수, 동완의 머리를 장우산으로 냅다 내리친다!!

S#25. 현재. 은행 뒤편 / 야외 주차장 안(아침)

감식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우산의 지문을 채취 중이다.
 형사1, 감식반의 작업 내려다보고 있다.

형사1 혼자 벌이기엔 판이 커.
감식반 지문이 두 개 뜨긴 하네.
형사1 (혼잣말처럼) 조동완은 아니겠지?
감식반 목격자라며?
형사1 (우산 보며 꺼림칙한) 고작 이거에 맞고 정신을 잃었다는 게 영 걸리네.

S#26. 도로 / 달리는 차(아침)

현금, 묶인 발로 문을 부술 듯 쿵쿵 계속 차대고 있다.

지수 그만 좀 해요, 그러다 문 고장나겠어요.

현금, 지금 그게 문제냐는 눈으로 노려보다가 다시 차낸다.

한숨 쉰 지수, 결국 갓길에 차를 세운다.

지수 (칭테이프 떼어주며) 할 말 있으면 말루,

현금 (냅다 지수의 손을 깨문다!)

지수 (고통스런) 악!!

현금 돌이 짚제?! 침부터 내한테 싹 다 뒤집어씌울 생각이었제!!

지수 (얼얼한 손등 흔들며) 아니라니까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요!

알잖아요, 난 그냥 반지 때문에...

현금 (죽일 듯 노려본다) 지랄하네.

지수 (애절한) 믿어줘요...

S#27. 은행 뒤편 / 야외 주차장(지난 밤 - 진실)

망을 보던 지수, 초조함에 돌아본다.

동완, 쓰러진 현금 앞에서 장우산으로 스스로의 이마를 내려친다!

S#28. 은행 뒤편 / 야외 주차장 / 차 안(지난 밤 - 진실)

결박된 현금, 뒷좌석에 까무룩 늘어져 있다.

보조석의 지수, 룸미러로 현금을 확인하며 손톱만 물어뜯는다.

운전석의 동완, 흔들리는 지수의 눈동자 놓치지 않고 캐치하며.

동완 (불쌍한 표정) 다 지점장이 시킨 것이야.

지수 (원망스런) ...왜 말 안 했어.

동완 (호소하는) 어쩔 수 없었어... 나 얼마나 어렵게 대학 가고 은행 붙었는지 지수 너도 알잖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르겠다고 협박했어.

지수 (믿고 싶다, 사실이었던 좋겠다) 그래두. 어떻게 도둑질을 해, 오빠.

동완 인원감축 지시 내려온 거, 지점장이 현금 씨 해고했거든.

그거 땀에 젖 여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없는 말도 지어낼 거라고!

그니까 나 한 번만 도와줘, 지수야! 딱 한 번이면 돼.

지수 (흔들리는) ...

동완 (간곡한) 너한테 불똥 튀까 봐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이것만 끝내면 정식으로 너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응...? 제발...

동완의 눈에 악어의 눈물이 차오른다.

지수 (뉘아주며) 왜 울어, 오빠... 오빠 우니까 나도 슬프잖아...

동완 (안으며) 사랑해.

지수 (벽차 오른다) 나두 사랑해.

현금(E) 놀고 있네.

S#29. 현재. 도로 / 정차한 차(아침)

현금, 지수의 도움으로 겨우 바닥에서 좌석에 앉는다.

현금 오십이가?

지수 (의아한) 몸무게요?

현금 (버럭) 아이큐!!

지수 ...

현금 헛소리 씨부리지 말고 경찰서 가자.

조동와이 짓인지 장대무이 짓인지는 몰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짓값도 가벼워지지 않겠나.

지수 (단호한) 연락줄 때까지 기다리랬어요, 오빠가.

현금 (분노 치미는) 오빠!! 오빠!! 그놈의 오빠 소리 좀 그만하든 안 대나?!
느이 오빠 조동와이 니 얼마나 아는데?

지수 (갑자기 무슨 소리가 싶은) 많이 알죠, 우리 오빠네.

현금 그래? 그라픈 세종그룹 데릴사위로 드가는 것도 알겠네?

지수 (몰랐다, 놀란) ...

현금 (비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가 피가 철철 나니 어땡노?

지수, 이내 평온한 얼굴로 청테이프를 주워든다.

지수 (안 믿는다) 나이도 어려 보이시는데 거짓말하면 벌 받아요.

현금 빵 같나? 증명해보까? 같이 함 가볼래? (하는데)

현금의 뺨뺨이 울린다.

지수, 무시하고 테이프 붙이려는데

현금 잠깐!! (불안한) 혹시 ***_**** 찍혔드나?

확인한 지수, 고개 끄덕인다.

현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다.

지수, 의아한데.

S#30. 병원 / 중환자실

잠든 숙녀의 심전도 미세한 파동만을 그리고 있다.

간호사(E) 어디예요? 빨리 와요.

S#31. 길가 / 공중전화(아침)

지수,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통화 중이다.

지수 (조심스런) 저... 이현금 씨 아는 언니 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가요?

S#32. 병원 / 간호사 스테이션

간호사 (통화 중인) 위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수술 안 들어가면 이번엔 진짜 위험해요.

S#33. 길가 / 공중전화 + 차 안(아침)

지수, 원래 있던 죄책감에 처음 듣는 현금의 사정까지 더해져 마음이 편치 않다.

일렁이는 눈으로 차 안의 현금 보는데

간호사(E) 아침 저녁으루 병원 들르던 사람이 오늘은 소식도 없구...
연락되면 수술 잡아야 되니까 밀린 병원비부터 빨리 처리하라고 전
해주세요!

현금, 차창 밖의 지수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지수 (수화기 줄 꼭 잡고 묻는) 금액이... 얼마데요?

흰색 차량의 번호판 7024임이 보인다.

S#34. 교통관제센터 안(아침)

수십 개의 모니터가 도시 곳곳을 보여주고 있다.

직원, 범죄 발생시각 은행과 병원 주변 CCTV 영상들 확인하는데.

직원 (가웃) 안 보이는데.

형사1 (동완에게) 차량 앞 번호 98 확실합니까?

동완 어두워서 제대로 본 건 아닌데... 비슷해요.

형사1 (물끄러미 보다가) 더운가?

동완 (의아한) 예?

형사1이 가리키는 유리창에 비친 동완의 와이셔츠 등 부분, 땀으로 흥
건하게 젖어 있다.

동완 (뜨끔) 아...

형사1 (동완에게 시선 둔 채 직원에게) 범행 시각 앞뒤로 다시 돌려봅시다.
번호 특정하지 말고.

S#35. 도로 / 달리는 차 안 + 순찰차 안(낮)

운전 중인 지수, 룸미러로 걱정스레 현금을 본다.

초점 잃은 현금의 눈, 축 쳐져 있다.

지수 일단은 내가 폰뱅킹으루 병원에 돈 보냈어요.

현금 (상황 파악 안된다) 뭐...?

지수 어머니 수술은 하셔야 하잖아요.

현금 (믿지 않는, 피식 웃는다) 맞나.

지수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현금 (지수가 가소롭다) 니 그거 아냐? 내는 발등에 피 날 일이 없다.
믿는 도끼 안 키우거든.

신호에 걸려 멈추는 지수.

공교롭게도 옆 차선에 순찰차가 멈춘다.

놀란 지수, 핸들 짙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순찰차 발견한 현금! 묶인 손 들어 올릴 수 없자 머리를 쿵쿵 차창에 박아대며

현금 여, 도둑, 있어, 예!! 얼른, 잡아, 가소!!

현금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순찰차 안 경찰들,
이상행동 하는 현금을 뚱하게 보고만 있다.

순찰1 (가웃하는) 왜 저래?
순찰2 그러게요.

순간 눈치보던 지수와 순찰1, 2의 시선이 마주친다.

순찰1 (현금 가리키며)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지레 겁먹은 지수, 냅다 차 출발시키고!!

순찰1 (당황한) 뭐야? (순찰1에게) 야, 밟아!

순찰차, 7024를 뒤쫓기 시작한다!

S#36. 도로 + 골목(낮)

7024, 신호도 차선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
그러나 점점 거리 좁히며 맹렬히 추격하는 순찰차!
사이드 미러로 가까워진 순찰차를 확인한 지수,
직진할 듯 엑셀을 밟다가 급하게 핸들 틀어 스키드 마크 그리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골목으로 진입한다!!

속도 때문에 지나쳤던 순찰차도 뒤늦게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노인이 끄는 붓어빵 리어카가 순찰차를 막아선다!

순찰1 (순찰2에게) 야, 뒤로 빼!!

순찰2, 후진하려다 말고 입이 떡 벌어진다.
순찰차 뒤, 줄줄이 차량으로 꽉 막혀 있다.

S#37. 도로 / 달리는 차 안(낮)

지수 (기쁜) 따돌렸죠? 맞죠? 와, 나 100키로 침 밟아 봤어요! 오빠가 여잔 운전 험하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거 진짜 신난다, 그쵸?

집중한 표정의 현금, 손 뒤로 묶인 끈의 매듭 거의 다 풀었다!
폴짝 시트 위로 발 올려 발목 묶은 매듭도 풀기 시작한다!!

지수 (놀란) 헉!

현금 차 세워라. 3초 준다. 셋,

지수 (엑셀 밟는) 진정해요,

현금 (거의 다 푼) 둘,

지수 (엑셀 더 밟으며) 제발,

현금 하나! (풀었다!)

현금, 보조석으로 훌쩍 자리 옮겨 지수에게 달려든다!

지수 으아앗!!
현금 세워!! 세우라니까!!
지수 이러지 마요!!

현금, 핸들을 막무가내로 움직이고
지수, 그런 현금을 떼어내려 몸부림을 친다.
위태롭게 차선을 오가는 자동차, 막 중앙선을 넘고,
맞은편에서 대형 덤프트럭 달려오는데,
당황한 지수, 아예 핸들을 놔버리는데...

현금 (핸들 확 꺾으며) 이런, 씨!!

가까스로 트럭은 피했지만 속도 줄지 못한 차, 가로수를 들이받는다!
현금,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지수의 배를 보호한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보닛.

지수 (고통스런) 으... 웃...

지수는 멀쩡한데 핸들에 머리를 부딪친 현금이 정신을 잃는다.

지수 (흔들며) 괜찮아요? 현금 씨...

현금의 뒤통수를 만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놀라는 지수!!

S#38. 경찰서 안(낮)

형사2, 막 서로 들어오는 형사1에게 달려간다.

형사2 차량 확보하셨습니까?

형사1 (고개 젓는) 너는?

형사2 어제 은행에서 난동 부리다 쓰러진 고객이 있었답니다.
이현금이 그 여자 고객 앰블런스에 동행했구요.

형사1 여자?

형사2 예, 병원 기록 살펴보니깐 박지수라고,

형사3 (통화 마치고 전화 끊는다) 반장님!

형사1, 2 (보면)

형사3 이현금 엄마 밀린 병원비 오늘 오전 11시 20분경에 입금됐답니다.

형사1 (설마) 입금자는?

형사3 박지수입니다.

형사1, 2 (서로를 보며 눈을 빛낸다!)

S#39. 도로 / 달리는 차 안(낮)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지수.

보조석의 현금, 죽은 사람처럼 까무룩 늘어져 있다.

지수 (걱정스레 현금 보며) 흐...웃... 흐...

지수가 시선을 떼 순간, 몰래 눈을 뜬 현금, 정확히 제 다리 사이 배낭

을 응시한다.

S#40. 약국 안 + 약국 앞(낮)

지수, 헬레벌떡 뛰어 들어온다.

지수 머릴 다쳤는데 안 깨어나요!

약사 병원엘 먼저 가셔야지.

지수 (다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뭐든 빨리 좀 주세요! 네?

약사 (마지못해) 그럼 뭐, 연고랑 붕대 하나 드릴까?

지수 (간절한) 예, 그리구 저 전화 한 통화만 쓸게요...

약사 (유선전화기 밀어주며) 그러슈,

지수, 몇 분 전 도착한 뺑뺑이를 보며 급하게 번호를 누른다.

기계음(E) 메시지를 받으시려면 비밀번호를,

지수, 다급히 비밀번호를 누른다.

동완(E) 나야! 성수동 사거리 **카센터로 지금 당장 차 가지고 와!!
이현금이는 버려도 차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 알았지?

그때 지수의 차, 약국 앞을 빠르게 지난다. 운전석에 현금이 앉았다!!

지수 (수화기 든 채) 어...? 어...?? 안 돼!!

S#41. 도로 / 달리는 차 안(낮)

운전 중인 현금, 조수석의 배낭 보는데 절로 웃음이 난다.

현금 신고 포상금 얼마나 줄라나? 천만 원? 이천만 원?!
엄마야, 밀린 병원비 정산하고 오늘 마 콕 수술해볼자!!
(상상만 해도 좋은) 흐흐, 여 경찰서 하나 있었는데...

서행하며 주변 살피는 현금의 눈에 건물 상단 전광판 뉴스가 들어온다.
‘한일은행 불광동 지점 강도사건 용의자 같은 지점 여성 행원 이모씨로 밝혀
저’ 자막이 흐른다!

현금 이모씨가 지금 내 이현금을 말하는 거가?
(분노로 클랙스 콧 내리치며) 이것들이 미쳤나!!

S#42. 카센터 안(낮)

택시에서 내린 지수, 쭈뼛거리며 살펴보지만 텅 비었다.

그때 쿵 뭔가가 부딪치는 소리 들리고...

소리 나는 쪽 향해 가는 지수의 걸음이 조심스럽다.

S#43. 카센터 / 부품창고 안(낮)

명철, 동완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인 상태다.

명철 (의심하는) 안 빼돌렸다고?
동완 경찰이 냄새 맡으면 나도 형도 끝인데 내가 왜?
 내가 금 흡치고 형이 현금으로 바꿔주고, 벌써 다섯 번이야.
 아직도 날 못 믿어?
명철 널 어떻게 믿어.
동완 형은 나 못 믿어도 그 여자는 믿어.

뚫어져라 동완을 보던 명철, 특 던지 듯 놔준다.
 동완, 붉어진 목 언저리 비비며.

동완 내가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여자야.
명철 (조소, 앉아서 사냥총 닦는) 덜떨어졌네.
동완 어차피 이번 일 끝나면 더 볼 일 없어.
 나 결혼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여자니까.

S#44. 카센터 / 부품창고 앞(낮)

동완과 명철, 함께 문 열고 나오는데 충격 받은 지수, 멍하니 쪼그려 앉아 있다.

동완 언제... (하다가 급히 둘러보는) 차는?
 힘없이 고개 젓는 지수.
 지수를 일으켜 세운 동완, 세차게 어깨를 흔들며.

동완 차 어딴어!! 배낭은!!

명철 (살벌한) 내 이럴 줄 알았지.
지수 (목소리 떨린다, 자조하는) 거짓말이었구나... 전부 다...
동완 야!! 열 받게 하지 말고 차 어디 숨겼는지 말하라니까!!
지수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신고할 거야.
동완,명철 !!!
지수 (울컥) 도둑질했잖아... 훔쳤잖아... 나쁜 짓이잖아...

지수, 뒷걸음질 치는데
 명철, 한 손으로 지수의 입을 막고 뒤에서 결박한다.

지수 (몸부림 치는) 으윳!!
동완 (명철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운데)
명철 (동완만 쳐다보며, 동완과 지수 모두에게 묻는) 남은 한 년 어딴어?
지수 (세차게 도리질한다)
동완 (생각에 잠겼다 번뜩) 병원! 어머니 아프다고 매일 그리로 퇴근했어!
명철 (완전히 믿지는 않는) 앞장서.
동완 (구슬리는) 형사들 이미 짝 깔렸을 거야.
 형 얼굴 몰라도 내 얼굴은 아는데, 그래도 가?

동완의 심연을 가늠하듯 뻘뻘 보는 명철.
 시선 피하지 않는 동완.
 지수, 동완이 낯설고 무섭다.

S#45. 병원 / 야외 주차장(낮)

병원 간판 아래 거칠게 차를 세우는 명철.

뒷좌석에는 아가의 현금처럼 손과 발이 묶인 채 입에는 테이프를 붙인 지수가 킁킁거리며 누워 있다.

명철 (잭나이프 돌리며) 암전히 기다리고 있어.
니들 둘이 한펜지, 조동완까지 셋인지 확인해야겠으니까.

명철이 내리자마자 꿈지락대는 지수,
콘솔박스에 두고 간 명철의 휴대폰을 어떻게든 잡아보려는데...
명철의 차 옆에 주차를 하는 7024, 현금이다!!

지수 으으읍!!

지수(N) 이현금!!

지수 으으으읍!!

지수(N) 나 좀 봐줘!!

지수 으읍!!

지수(N) 제발!!

듣지 못한 현금, 다급히 병원 쪽으로 뛰어간다.

애절하게 현금을 좇던 지수의 시선, 7024로 바뀐다. 목표다!

S#46. 병원 / 입원실(낮)

텅 빈 숙녀의 베드.

명철, ‘수술중’ 적힌 팻말 베드 위로 집어던지고 뛰어나간다.

S#47. 병원 / 로비(낮)

지수의 공개수배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게시판.

현금의 것이 붙어 있었을 곳은 압정에 찢긴 종잇조각만 남아 있다.

S#48. 병원 / 공중전화 박스 + 간호사 스테이션(낮)

주변 둘러보며 수화기 대고 있는 현금, 연결음 끊어지면 바로,

현금 이현금인데예,

간호사, 분할화면으로 들어온다.

간호사 (초조한) 어디예요?

현금 엄마는 쾌암습니까?!

간호사 지금 막 수술 들어가셨어요.

현금 (놀란) 수술요?

간호사 현금 씨 아는 언니 분이 돈 보냈잖아요, 박지수 씨.

인서트.

S#35 지수 “일단은 내가 폰뱅킹으루 병원에 돈 보냈어요.”
“어머니 수술은 하셔야 하잖아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진짜인 줄 몰랐던 현금, 고맙고 미안하고 복잡한데,

간호사 (점점 어색한 말투) 지금 어디예요? 박지수 씨랑 같이 있어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분할하면 사라지고 공중전화와 스테이션 같은 층이었음이 드러난다.
간호사 곁에서 또 다른 전화기로 통화 들으며 지시중인 형사1, 보이고.

현금 아니 그게... (하는데)

둘러보던 현금, 간호사 옆에 선 형사1 발견하자마자 획 벽을 보고 선다!

현금 (단호한) 내가 아이라 조동와이가 한 짓입니다!

간호사 네?

형사1, 간호사의 수화기 내리고, 형사2에게 주변 둘러보라는 시늉하며.

형사1 나 서부경찰서 김중혁 형삽니다.

어머니 병간호하려면 형량 줄여야죠, 자수합시다.

현금 (이 악물고, 낮게) 깡깡하네, 조동완이라니까.

형사1, 동완도 의심스럽지만 일단 현금을 잡는 것이 목표다.

형사1 (차분하게) 이현금 씨 서랍에서 은행 통제실 출입 카드와 열쇠 복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현금 (기막힌) 형사양반, 그걸 믿능교?

형사1 흥기로 이용된 우산도 어젯밤 10시경 이현금 씨 본인이 간호사한테 직접 빌린 거 확인했고, (하는데)

형사2, 현금의 바지주머니에서 삐죽 튀어나온 현금의 공개수배 전단 포착했다! 형사1 보며, 공중전화 앞 현금을 턱짓으로 가리키면. 형사1, 고개 끄덕인다.

형사1 통제실 안에서는 박지수 씨가 평소 착용했다는 반지가 발견됐습니다.

현금 (억울한) 돌아가시겠네.

은밀히 접근하는 형사2, 막 수갑을 꺼내드는데...

명철, 우악스러운 손으로 현금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살핀다.

명철 이현금?

형사로 오해한 현금, 명철의 얼굴에 수화기를 던지고 재빨리 도망친다!

S#49. 병원 일각(낮)

도망가는 현금과 뒤를 쫓는 형사1, 2 그리고 명철.

병원 지리를 잘 아는 현금 잡힐 듯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다!

현금이 민 휠체어에 부딪친 형사2, 우당탕 계단을 구르며 뒤처지고,
 이후 현금을 추격하던 형사1과 명철,
 배식용 대형 카터가 지나가는 순간 그 뒤에 숨은 현금을 놓치고 만다.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는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치고...
 형사1, 문득 명철이 누군가 싶어 의아한데
 명철, 괜한 휴지통을 뺑! 걷어찬다.
 숨을 몰아쉬며 본격적으로 명철을 훑어보는 형사1,
 명철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힌 잭나이프가 눈에 들어온다!

S#50. 도로 / 달리는 차 + 정차한 차(낮)

7024 차량 운전석의 현금, 연신 백미러로 병원 쪽에서 따라붙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속도를 높인다. 병원 건물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자 안도의 한숨 내쉬
 는데, 뒷좌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지수!!

현금 (놀라 브레이크 밟는) 헉!!

끼익 멈추는 차!

지수 으읍!

현금 (거침없이 테이프 떼며) 니 잘 만났다!

따가운 입 주변을 다급히 혀로 핥는 지수.

현금, 지수의 발밑으로 배낭 던지며

현금 우리 둘이 흠칫단다.

지수 (다급히) 흠친 거 오빠예요! 내가 다 들었어!

현금 (짜늘한) 아이큐 오십 맞네, 형사가 뭐래는 줄 아나?

내가 흠칫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있다꼬 자수하란다.

지수 (미안한) 현금 썬 잘못 없다고... 내가 봤다고... 말해줄게요, 도와
 줄게요.

현금 (버럭) 야!!

지수 (흠칫 놀라는데)

빠르게 내린 현금, 뒷문을 열어젖힌다.

현금 당장 내리라.

지수 ...

현금 (급하게 지수를 결박한 끈들 풀어헤치며) 이 꼴로 돕기는 뭘 돕는단
 말이고!!

차 밖으로 지수를 끌어낸 현금, 부서져라 뒷문을 닫는다!

지수, 자신과 현금의 삶,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모두 스스로가 망쳤다
 는 죄책감에 괴로운데...

현금 (비꼬는) 내 말고 남자나 또 믿고 도와라, 사람 믿고 또 속아가,

지수 (발끈한) 믿는 게 뭐가 나빠!!

현금 어데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고!!

지수 믿었으니까 당신 어머니 병원에 전화한 거야,

믿었으니까 수술비도 보낸 거야, 믿었으니까... (울컥) 믿고 싶어서...

현금 ...

인서트.

S#48 간호사 “지금 막 수술 들어가셨어요. 현금 씨 아는 언니 분이 돈 보냈잖아요. 박지수 씨.”

현금, 지수에게 고맙지만 도리어 화가 난다. 험한 세상에 이런 판국에 대체 어찌자고 이 여자는 이토록 대책 없이 착할까.

현금 (부러 위악 부리는) 여적 몰랐나? 엄마 아프단 거 뺑이다.

지수 (놀란) 뭐?

현금 니 속여가 돈 좀 뺏겨먹을라 했다꼬.

지수 (설마... 혼란스러운데)

현금 (조롱하는) 이 봐라. 이래 멍청한 엄마 밑에서 아가 태어나고 싶겠나? 풀값 떨지 말고 확 지워버리라꼬!!

치받은 지수, 와락 달려들어 현금의 머리칼을 쥐어뜯는다!!

지수 니까짓게 뭔데!!

현금 (짜늘하게 경고하는) 죽기 싫음 뇌라.

지수 (실은 동완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니가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어?! 아니!! 싫어!! 절대 안 해!! 내가 왜!! 니가 뭐라고!!

현금 이게 진짜!! (같이 머리칼 쥐어뜯는다!)

몸싸움을 벌이는 두 여자의 기세가 무시무시하다.

S#51. 병원 / 야외 주차장(낮)

형사2, 명철 곁을 지키고 섰다.

형사1, 명철의 차 트렁크를 살살이 보지만 낚싯대뿐이다.

명철 (잭나이프 돌리며) 말씀드렸잖습니까. 미끼 끼울 때 지령이 자르는 용도라고.

형사1, 영 찜찜하지만 별 수 없어 트렁크 닫는다.

형사2 그럼 이현금이는 왜 쫓았어?

명철 금덩이 훔친 여자라니까 현상금 좀 받을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도 되죠?

능글맞게 웃는 명철, 막 차에 타려는데

순간 뒷좌석 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형사1!

바닥에 떨어진 별 모양 머리핀이 반짝 빛나고 있다.

형사1 (핀 보며) 맞지?

형사2, 다급히 주머니 속 곱게 접은 현금과 지수의 공개수배 전단지 꺼내들면, 지수가 머리에 꽂은 핀과 같은 것이다!

잡고 있던 차문 광 담은 명철 도망치려는데, 형사2의 발이 빨랐다.

발차기를 맞고 쓰러진 명철을 타고 앉아 수갑을 채우는 형사2!

형사2 냄새가 난다 했다.

S#52. 놀이터 안(낮)

놀이터 옆에 주차된 7024.

현금과 지수, 머리와 얼굴 꼴 엉망인 채로 그네에 나란히 앉아 있다.

눈은 일부러 먼 곳을 보며 서로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주는 두 여자.

현금 (아픈) 아!

지수 (놀란) 미안, 아팠죠?

현금 니가 그랬잖아.

지수 (코 막고 있던 휴지 빼며) 난 코피는 안 터트렸잖아요.

현금과 지수, 서로를 보다 피식 웃고 만다.

지수 이거 다 바르면 같이 경찰서 가요.

우리가 훔친 거 아니니까 결국 밝혀질 거예요.

현금 이대로 갔다간 조동와이가 쳐놓은 덫에 걸려 죽는 기다.

지수 (마음 복잡하다) 그럼 어떡해요?

현금 알면 내 여 있겠나? 억울해 죽겠다.

은행 드가자마자 엄마 쓰러져가 병원비 낸다고 옷 한 벌 몬 사봤는데
죄수복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노.

지수 (피식 웃다 서글픈) 나두요. 식당 일 하며 번 돈 전부 오빠 대학 등록
금 냈거든요.

현금 (이제 화 보다 짝한 마음이 앞선다) 니는 대학 갔나?

지수 (고개 젓는다)

현금 내 꿈이 백화점서 산 메이커 옷 입고 대학 졸업앨범 찍는 거였거든.
근데 몬했다, 내도 고졸이거든.

지수 (문득 생각해보는) 난... 오빠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꿈이었
어요.

주말에는 애기랑 셋이 놀이공원두 가구... 사진두 찍구... 보통 사람
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수, 젖은 눈가 빠르게 훔쳐내면, 연민으로 보던 현금도 울컥하는데.

지수의 배에서 꼬르륵 울리는 배꼽시계!

현금 (기막혀 웃는) 둘이라꼬 요란도 하다.

멋쩍은 지수, 따라 웃는데

현금, 마사지 했던 삶은 달걀 까서 지수의 입에 넣어준다.

지수 ...아까 사고 났을 때 애기부터 보호해줘서 고마워요.

현금 (부끄러워서 괜히) 먹고 말해라, 닭똥내 난다.

지수 (웃는데)

현금 안 억울할 방법이 하나 있긴 있네.

지수 응?

현금 (다리 사이 배낭을 푼 차며) 어차피 이래 된 거 죄를 지으면 되잖아.

의아하던 지수, 현금의 의도 파악하고 놀랐다!

현금 (손 내밀며) 경찰서 가기 전에 한따까리 같이 놀래?

고민하던 지수, 이내 환하게 웃으며 현금의 손에 하이파이브를 한다!

S#53. 금은방(낮)

주인, 진열대 닦으며.

주인 (투덜) 사는 놈은 없고 죄 가져다 내는 놈만 있으니, 나라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겠네.

문방울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온다.

주인 어서오, (뒤로 주춤 놀라는) 으헉!

지수, 온 얼굴에 붕대를 감은 해괴한 모습이다.

지수 (긴장해서 어색한) 금 매입 하시나요?

굳은 주인, 고개만 끄덕이면, 지수, 돌반지며 목걸이, 반지 등을 한 움큼 꺼내 놓는다.

S#54. 거리 / 전파사 앞(낮 - S#1)

전파사 쇼윈도에 놓인 골드스타 TV 앞에 모인 행인들.

운전석의 지수, 보조석에 현금이 탄 흰색 차, 행인들 뒤를 스쳐 지난다!

벽'의 <맨발의 청춘> ♪ 흐른다.

S#55. 몽타주(낮 + 저녁)

노래 이어지며. 현금과 지수, 백화점에서 신나게 옷을 고른다. 온갖 옷을 서로에게 추천하며 즐거운 두 사람. 화려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온 지수가 뱅그르르 돌아본다. 선글라스에, 가방에, 새로 산 물건들을 걸친 두 여자, 전혀 다른 사람들 같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현금과 지수. 현금, 너무 힘을 주어 썰다가 고기 조각이 바닥으로 튕겨 구른다. 좀 창피해하다가 이내 깔깔거리며 웃는 두 사람.

스티커 사진 가게에서 분장용으로 비치된 가발과 안경을 쓰고 사진을 찍는 현금과 지수. 분장용 물건들의 자리에 지폐가 대신 놓여 있다.

느린 음악으로 변하며. 봉어빵 하나씩 입에 물고 걷는 현금과 지수. 지수, 환하게 웃으며 어딘가를 가리킨다. 방방(트램펄린)이다! 두 여자 방방 위에서 신나게 점프를 한다. 방방 위에서 엉덩방아를 찧을 뻔한 지수의 손을 현금이 잡아준다. 점프를 하며 노는 두 여자의 모습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현금(N) 병원비 갚으께.

지수(N) 천천히 줘요.

현금(N) 내가 떼먹음 뭘 돈으로 얼라 키울래?
조동와이가 위자료 좀 준다드나?

지수(N) 오빠 임신인 거 몰라요.

현금(N) 아 태어나가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평생 모르라 케라.

지수(N) 낳지 말라면서요.

현금(N) 아니, 꼭 낱아라. 너는 혼자도 잘 키울끼다. 울 엄마맨키로.

S#56. 경찰서 취조실 안(저녁)

형사1, 마주앉은 명철을 취조중이다.

형사1 (서류 보며) 도둑놈들이 훔쳐온 장물 불법으로 매입하다 걸린 전과가 별 다섯이네?

명철 (느물거리는) 전과자라고 또 죄지으란 법 있나요.

형사1 한일은행에서 사라진 금들도 니가 현금으로 바꿔주기로 했지?

명철 (뜨끔하지만) 그럴 리가요.

형사1 몇 시 어디서 거렌지 불러, 징역 3년 6개월로 절반 깎아줄게.

명철 (솔깃하다, 고민되는데)

S#57. 공터 / 주차된 차(저녁)

현금과 지수, 아이스크림 먹으며 차 쪽으로 걷고 있다.

지수 (주변 두리번대다가) 나 화장실 좀.

현금 (매고 있는 배낭 푹 두드리며) 금이랑 차 가꼬 또 확 날라볼끼네.

지수 난 현금 씨 믿으니까. (간다)

현금 저러다 또 발등 찍히지, 쫓쫓.

현금, 배낭 벗고 자동차 트렁크를 열며.

현금 이 금이 아쉬워서 우에 깜빡에 갈꼬, (하다 얼른 닫는다!)

주변 빠르게 둘러본 현금, 꿀꺽 침까지 삼키며 다시 트렁크를 열면!!

배낭 속 금의 열 배는 족히 넘을 금덩이들이 번쩍번쩍 빛난다!

어안이 빙빙한 현금, 딱하니 입을 벌린 채 눈만 꿈뻑거린다.

S#58. 카센터(저녁)

형사2의 진두지휘로 경찰들이 카센터 안을 뒤지고 있다.

벽에 장식되어 있던 사냥총 자리가 비어 있다.

동완, 좀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긴 채 살피보는 중이다.

동완 (신경질적인)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때 동완의 뼈뼈가 울린다.

번호 확인하고 의아한 동완의 얼굴 위로.

현금(E) 내 가만 생각해 봤거든.

S#59. 길가 / 공중전화(저녁)

현금, 동완에게 메시지 남기는 중이다.

옆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수의 모습 찾아볼 수 없다.

현금 초범이니까 깡빵 쪼매 살고 나오른 대겠드라. 맞제?
그찮아도 은행 짤릿는데 훔 낫다 아이가.
그이까는 잡혀가 몽땅 도로 나랏돈 되기 전에 내도 좀 알려도.
(눈 빛내며) 트렁크에 꽂쳐둔 금덩이들 현금으로 바까먹는 루트 있잖아.

S#60. 빈 건물 앞(밤)

배낭을 맨 현금, 사방을 두리번대며 걷고 있다.

현금(N) 니가 오라는 데로 내가 가게, 나눠먹자.

S#61. 빈 건물 1층(밤)

짓다만 을씨년스러운 건물 곳곳에 <들어가지 마시오> 표식 붙어 있다.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입니다> 찢어진 플래카드 아래로 쓰레기
며 공사 자재들 엉망으로 나뒹군다.
외벽 없는 빈 공간에 바람소리만 거세게 울리는데,
팔짱 낀 동완의 뒷모습이 보인다.

현금 (신기한 듯 둘러보며) 여 귀신 나오는 데 아이가.

동완 (돌아선다) 왜 걸어 와?

현금 사고가 나가.

동완 (안색 변한다) 사고? 차는?!

현금 차는 말짱하다. 요 앞에 대놔으니까 걱정 말고,
장물 현금으로 바까준다는 사람은 어데 있노?

동완 (드디어 원하던 것이 눈 앞에 있다!) 곧 올 거야.

현금 니 금 빼돌린 거 한두 번 아니제?

그때마다 이 사람한테 바까달라 한 거 맞제?

동완 (날 서는) 그게 왜 궁금한데?!

현금 믿을 만한가 아인가 확인해바야지.

동완 장물 쪽 빠삭한 사람이니까 신경 끄고, 일단 차 위치부터 말해.

현금 (주머니 뒤지는 척하며) 그러까, 그럼 차키부터, 아!

근데 그 사고에서 지수 쪼매 다친 거 아냐?

(떠보는) 다행히 지수도 아도 목숨엔 지장 없다. 걱정 마라.

동완 (피식) 걱정은 그게 걱정이지.

현금 (보면)

동완 애가 죽었어야 개가 새 남자를 만나잖아.

현금 (연기 중이지만 굳은 얼굴 안 숨겨진다) 니 열란 거 알았나?

동완 당연하지. 그 바보가 딴 놈 만난다고 날 잊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현금!

점퍼 주머니 속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여준다.

동완, 당혹스러운데!

현금 니 입으로 니가 흠뻑다꼬 녹음하고 싶었거든.

근데 후회한단 말이 더 듣고 싶었다.

S#62. 현금의 회상. 공터 / 주차된 차(저녁 - S#57 연결)

트렁크 안에 쌓여 있는 금붙이들을 함께 내려다보는 현금과 지수.

지수 (어안이 병병하다) 이게 다 뭐야...

현금 (트렁크 문 경쾌하게 닫으며) 마지막 기회!

지수 무슨...?

현금 뱃속 열라가 지 안 거 알면 달라질 끼다.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동와이 믿어볼란다.

S#63. 현재. 빈 건물 1층(밤)

현금 (짜늘한 분노로) 나는 아버지 소리 들을 자격이 없다.

동완 (다가오며) 녹음기 내놔!! (하는데)

그때 현금의 뒤편에서 배를 감싸안은 지수가 나타난다.

동완 (멈칫, 놀란) 지수야...

지수 (담담한) 용서받을 기회 오빠 스스로 놓친 거야.

현금 (지수 마음에 드는) 하모!

동완 (간절한) 우리 좋았잖아, 마지막이야, 나 딱 한 번만 믿어줘.

지수 (단호한) 아니. 이제 나도 도끼 필요 없어.

동완 뭐?

지수 (112가 눌린 S#45 명철의 휴대폰 내보이며) 자수해.

동완 (발악하는) 박지수, 정신차려! 나 조동완이야.

지수 아니면 내가 신고할게.

지수, 통화 버튼 누르는데,
동완, 벽 쪽에 놓인 쓰레기봉투들 사이에서 사냥총 꺼내 지수를 겨눈다!

현금 (놀란) 니 미쳤나!!

동완 전화 끊어!!

현금 (다급한) 니 차 위치 모르잖아!! 트렁크 금 다 버릴끼가?!

동완 끊으라니까!!

지수 한일은행 강도사건 진범 신고하려는데요,

동완 박지수!!

지수 (눈 질끈 감고) 조동완이라고,

지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동완!!
동시에 현금, 지수 쪽으로 몸을 날린다!!
복부에 총을 맞은 현금, 지수에게 등을 뒀으며 까무룩 쓰러져 내린다.

지수 (믿을 수 없는) 하... 아... 혀... 현금 씨...

배낭을 움켜쥐고 빠르게 자리를 뜨는 동완!

지수 (현금의 얼굴을 쓸며) 안 돼... 눈 떠... (울컥 눈물 차오르는) 죽지 마...

S#64. 빈 건물 근처(밤)

동완, 미친 듯이 달리며 차들을 확인하고 있다.

S#65. 빈 건물 1층(밤)

지수, 눈 감은 현금을 안고 오열한다.

지수 미안해... 흐웃... 내가 다 잘못했어... 흐흠...

S#66. 빈 건물 근처 일각(밤)

헤매던 동완, 드디어 7024 차량을 발견했다!!
욕망만이 번뜩이는 눈을 하고 스페어키로 트렁크를 여는데,
금붙이들 위에 누워 있던 형사1, 총을 겨누며 밖으로 나온다!

형사1 아이씨, 왜 이렇게 늦게 와.
동완 (얼떨떨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는다)
형사1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S#67. 빈 건물 1층(밤)

오열하는 지수의 눈물이 현금의 얼굴 위로 똑똑 떨어진다.

지수 흐...으읍...
현금 (눈 하나 빼꼼 뜨고) 언니야.
지수 헉! 현금아? 괜찮아? 정신 들어??

현금, 코트 안 셔츠를 걷으면,
골드바 2개가 봉대로 배에 아무지게 감겨 있다.
골드바에 박힌 총알!

현금 도둑질은 아이고 혹시 모른다 아이가.
지수 (기막힌 한숨이 웃음으로 변해간다) 하...하하... 하하하
현금 (따라 웃는) 헤헤.
현금(N) 사람들은 우리를 나라 구할 금덩이 흠친 나쁜 녀들이라꼬 했다.

S#68. 현금의 회상. 금은방(저녁 - S#53 연결)

현금(E) 오해다.
주인 (감정하며) 목돈이 필요하신가.
지수 (긴장한) 네.
주인 (의심으로 훑으며) 근데 얼굴은 어찌다... (하는데)

또 딸랑 문방울 소리 난다.
이번엔 현금이 얼굴과 목까지 봉대를 칭칭 감고 들어왔다.
주인과 함께 지수도 예상 못한 일이라 놀라는데.
현금, 지수가 꺼내놓은 금붙이들 싹 쓸어 제 주머니에 넣더니 목걸이와 반지를
꺼내놓는다. 늘 현금이 걸고 다니던 그것이다!

현금 매입 요거만 부탁할게예.
지수 (의아한) 왜...
현금 암만 생각해도 조동완이랑 똑같은 급 되는 거 쪽팔리다 아이가!

S#69. 경찰서(낮)

다른 날.
형사1, 2 수갑 찬 동완과 명철을 데리고 들어간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구 터진다.

현금(N) 별 받아야 할 사람은 별 받았꼬,

S#70. 은행 안(낮)

대문, 현금에게 <올해의 우수사원> 상장과 메달 걸어준다.

현금(N) 상 받아야 할 사람은 상을 받았다.

S#71. 병원 앞(낮)

아이를 업고 있는 지수, 숙녀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 중이다.
숙녀, 여전히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만 한결 나아진 모습이다.
목에 메달 건 현금, 지수와 숙녀 발견하고 뛰어오는.

현금(E) 언니야!

지수, 돌아보면, 목에 메달 건 현금이 뛰어온다.
마주 선 채 서로를 보는 현금과 지수.

지수 (탐내며 보는) 금이야?
현금 (아무지게 깨물어 내밀면 잇자국 대변에 나 있다) 짜가.
지수 (미소) 짜가여도 멋있네.
현금 맞나?
지수 (사투리 어설피 흥내내는) 맞다.

활짝 웃는 현금과 지수. 지수 등의 아이도 까르르 웃는다.

현금(N) 우리는 나라는 못 구했어도, 서로를 구했다.

숙녀의 입안, 금으로 때운 어금니가 뽀짝뽀짝 빛나며.

끝.

2017
오 펜
작품집

무사의 갈창

차연수



작가 후기 장아미

초고는 아무래도 공모전에서 돋보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빠른 서사의 진행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정고는 각 캐릭터의 전사와 선택의 계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또한 공모전 준비 기간에 비해 충분한 여유가 있어 개연성에도 시간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정 과정에서 초고가 가지고 있던 경쾌한 템포나 재미가 반감되어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이 작품에서 진짜 얻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렸습니다. '스스로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잘한 재미는 초고보다 부족하지만 드라마가 가져야 할 인간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다고 느끼기에 수정고에 만족합니다.

작의

“가시를 품고 있는 자만이 상대를 할컬 수 있다.”

바야흐로 혐오시대.

네가 ‘너무’ 싫었던 이유는, 나도 나를 ‘너무’ 싫어해서였다.

“키 180 이하는 루저”라는 발언 하나로 뼈가 가루가 될 만큼 까였던 이가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큰 키 열풍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신라시대, 북방족의 튀기라고까지 의심받는 멀대 공주와 키만 작은 신라 최고 무사의 코믹살벌 로맨스.”

키 작은 남성들의 생지옥이 되고 있는 지금.

과거의 키 큰 여인들도 이만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고대 남녀의 평균 키는 각각 161cm, 149cm.

큰 키 콤플렉스로 인해 작은 키 무사를 무단히 괴롭혀온 공주.

상처받은 무사도 점점 가시를 드러내는데...

고슴도치 맘은 고슴도치가 안다 했던가.

콤플렉스로 인해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다

마침내 서로를 보듬는 과정을 아주 발랄하면서도, 몽클하게 그려보고자 한다.

등장인물

김산(남, 20세) “단검은 쉬이 부러지지 않는 법이지.”

몰락한 진골무사 집안 장손. 고대 남자 평균에 못 미치는 키.

겉으로는 집안이 몰락했던 사실도, 뒷배가 없다는 것도, 키가 작다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음. 도당 유학만을 꿈꾸는 밝고 다정한 성격.

여기저기 떠돈 탓에 혼자 촌스러운 한주(경기도 지방) 사투리를 구사한다.

김월(여, 20세)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 나도 그들을 싫어할 것이다!”

공주. 고대 남자 평균을 웃도는 키.

큰 키 콤플렉스에 히스테릭, 매사 부정적이고 비꼬는 성격.

김환희(남, 20세) “저만 촌놈이 진골귀족이라니, 말세는 말세다.”

상대등의 장손. 남자 평균 키를 훨씬 뛰어넘는 훗칠함.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고 살아온 타고난 검술 천재.

지고는 못 사는 나르시시즘에, 술꾼에, 포악하고 무례한 성격.

돌석(남, 18세) “그만 허황된 꿈 버리고 뭐라도 될 궁리나 좀 하시라니까요!”

김산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노복. 남자 평균보다 웃도는 키.

어수룩하지만 할 말은 다 함.

솔이(여, 18세) “마마, 대체 무엇이 불만이십니까?”

어렸을 적부터 모난 김월의 유일한 친구이자 궁녀.

예쁘장하고 아담한 체구. 눈치는 없으나 사랑스럽다.

상대등(남, 40대) 화백회의 수장

아들 환희를 반드시 차기 왕위에 올려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음.

시중(남, 40대) 집사부 시중(대통령 비서실장)

왕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김산의 사부.

상위권 부마 후보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당나라 유학자, 향가를 바치는 국학 수석 졸업자, 옛 고구려 지방 군주, 유향을 담아 바치는 이국적인 매력의 귀화 서남인.

그 외

임금, 전 호위무사, 위화부령(인사담당), 예부령(의례장관), 병부령(국방부장관), 조부령(재정부장관) 등.

시대 배경

“신라 마지막 여왕인 진성여왕의 아버지 경문왕은 부마로 왕위에 올랐다.”

“경문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정강왕은 병이 깊어지자 누이동생인 진성이 천성이 영민하고 체격이 장부 같으니 그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유언을 남겼다.”

- <삼국사기>

위 역사적 사실로 시작한 팩션.

통일신라 말. 부마로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아들이 없이 병세가 악화되자 귀족들은 차기 왕권을 기대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왕실의 사돈이 되기 위해 공주와의 혼사를 밀어붙였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공주는 한사코 혼례를 거부한다.

귀족들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자 국혼을 올리겠다 천언하는 공주...!

단, 손수 간택할 기회를 달라는 전제하에.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신라 왕실판 ‘부마 간택 프로듀스101’.

줄거리

병색이 짙은 왕. 왕실의 유일한 혈육인 공주. 진골귀족들은 하루빨리 자기 아들이 부마로 간택되어 선왕처럼 왕위에 오르길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렸을 적 약혼자였던 호위무사가 공주의 큰 키를 부담스러워하며 아담한 여인과 야반도주를 한 충격으로 공주는 한사코 혼사를 거부한다.

이유를 알 턱이 없는 귀족들은 답답하기만 한데...

한편 자신보다 키가 작은 궁인들을 하나둘 내치고자 짜왔던 계략을 실행하던 어느 날 밤, 공주는 허우대 좋고 완벽한 검술 실력에 인품까지 훌륭해 보이는 궁문지기, 환희(실은 김산이 대리근무를 선 것)를 흠모하게 되면서 수년간 고집해왔던 독신주의를 재고하게 된다.

이대로 가다간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을게 뻔해진 상황.

귀족들은 화백회의를 열어 과거 여왕들의 실정에 관한 선례를 들어 공주의 국혼을 추진하기 위한 만장일치 결의안을 왕에게 상주한다.

이래저래 압박이 심해지자 마침내 공주는 결단을 내린다.

혼인을 하겠다! 단, 후보의 조건과 간택의 기회를 나에게도 주고, 간택은 공명정대하게 치를 것이라는 조건하에.

공주가 반은 백기를 들었다 판단한 귀족들은 공주의 조건을 일단 승낙한다.

그리하여 시작된 전국의 5척 반 이상 진골귀족 명단 101명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공주가 제시한 후보의 조건은 오로지 ‘키’였다.

왕이 될지도 모르니 신분은 무조건 진골이어야 했으므로 개중에는 아직 천자문도 채 떼지 못한 소년은 물론 기혼자도 있었으며 반백 노인도 있었다.

101명의 후보들은 차기 왕권을 놓고 가문의 명운을 건 치열한 투쟁을 준비한다.

그중 현 실세 상대등의 아들인 환희가 가장 유력한 부마 후보로 떠오르는데.

그동안 자신보다 큰 남성네들을 찾기 힘들었던 공주는 오랜만에 눈 호강을 한다.

한편 몰락한 무사 집안 장손인 김산은, 뒷배가 없어 관직에 오르지 못하자 술꾼

인 상대등의 아들 환희 장군 대신 보초를 서주고 품삯을 받고 있었다. 키 훤히한 환희인 척하기 위해 깔창도 두둑이 끼고.

그러던 중 욕심 많고 성정이 포악한 환희가 부마가 되어 왕위를 물려받으면 신라에 큰 위기가 될 거라 예견한 왕은 시중을 시켜 환희의 적수를 찾으라 명한다. 큰 키에 뛰어난 검술을 가졌으나 왕권에는 욕심이 없는 무사를 찾기 힘들었던 시중은 자신의 수제자였던 김산을 몰래 깔창을 깔리고 대결에 참여시킨다.

왕은 김산에게 반드시 왕실의 부마가 되어 후대 여왕이 될 공주를 잘 보좌하라 유언을 남기고.

그러나 김산이 그 문지기임을 알 턱이 없는 공주는 후보들 중 가장 훤히하고 대장부다운 환희를 응원하게 되는데.

매일 진행되는 대결을 관람하는 왕실, 귀족들 모두가 심사위원이 되어 무예, 외모, 학식, 가문, 재능 등을 따져 순위를 집계하고 하위권을 탈락시키면서 본선 11인을 선출한다.

마침내 최종 2인에 올라온 실력자, 환희.

처음엔 의무감에 시작한 대결이지만 점차 공주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된 김산.

그러던 중 김산은 아버지와 시중, 상대등이 과거 죽마고우였다가 상대등의 배신으로 집안이 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환희에 대한 전투의지를 더욱 불태운다.

동시에... 미래의 부군 생각만 하던 공주는 상대등의 폭정을 알게 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비록 깔창은 꺾지만 김산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서 진심으로 김산을 응원하게 된다.

최고의 엘리트 무사교육을 받은 덕에 월등한 실력은 물론 성정까지 포악한 환희와의 첫 대면에서 기에 눌렸던 김산은 공주를 통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지만 대결을 앞두고, 깔창을 환희에게 들켜버린다.

마침내 최종 대결. 환희의 승리를 모두가 장담하는 분위기이지만 만에 하나를 위한 대비(김산을 죽일 작전)까지 철저히 마련해놓은 귀족들.

조국과 공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지만 승리를 한다면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김산.

우리의 김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S#1. 월성 복문(밤)

밤하늘. 귀퉁이가 찢어진 유독 커다란 달, 화면 가득 비춘다.
켜켜이 둘러싸인 전각의 월성(신라 궁궐) 외관.
남천(시내)이 흐르는 남문을 지나 복문 근처 혼자서 우뚝 솟은 첨성대, 가운데
뺑 뚫린 창구에 푸르스름한 달빛이 스며든다.
그때 푸드덕 산새들 날아드는 소리 요란한데.

금군1(V.O) 또 늦네예, 또!

수문장 아래 금군들, 하나둘 착착 근무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문장 (투구를 벗어 던지는) 이놈이 보자 보자 하니까...!
오기만 해봐라, 내 진짜로 얹어뺨까!

교대가 끝난 금군들, 전열을 가다듬고 복문 수비 근무 중이다.
혼자 교대 못한 수문장, 열이 바짝 올라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투구를 힘껏 걷
여찬다.

금군1 어이구, 이제사 오시네, 금입택 나오리.

채 여미지 못한 투구 끈을 매며 달려오던 김산(남, 20), 눈앞에 떨어지는 투구를
피하려다 발목이 접질려 넘어진다.
수문장, 놀라서 쫓아가면.
김산, 아파할 새도 없이 신발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정돈하고 벌떡 일어
나는데.

수문장 (포에 묻은 흙을 털며) 아이고, 아랫것들 보는데 무신 꼴이고.
괘안나? 천천히 와도 되는데. 참말로...

한참 어린 김산에게 딸랑거리는 수문장을 보며 금군1, 헛웃음.
수문장, 김산의 장화에 묻은 흙까지 털어주려 하자 김산, 냉큼 발을 빼고 떨어
진 수문장의 투구를 주워 손수 씻워주고는 어색하게 웃는다.
감복한 수문장, 김산을 부축하며 복문 쪽으로 걸어가면.
야산에 숨어 몰래 지켜보던 돌석(남, 20),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이윽고 김산이 넘어진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는데.
김산이 넘어진 자리에 빗면으로 깎인 나무토막, 덩그러니 놓여 있다.
재빨리 나무토막을 낚아채는 돌석의 손 위로 비밀스레 “무사의 깔창” 또다 획
사라진다.

S#2. 청송산 일각 / 화백회의 장소(밤)

인서트. 부감으로 보이는 청송산 풍경.
상대등을 위시하여 위화부령, 예부령, 병부령, 조부령 등 10여 명 대등, 원탁에
모여 앉아 있다. 분위기 심상찮다.

위화부령 뭣이, 비혼 선언? 그카른 절대로 혼인은 안겠다, 이긴가?

예부령 공주가 금명년에 맺이든고...?

병부령 과년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예부령 와 혼인을 마다하나 통 모르겠다 이기야...

S#3. 월성 일각

바삐 걷는 누군가의 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한참 긴 치맛자락 따라 올라가면
 김월의 얼굴, 잔뜩 일그러진 표정.
 김월 뒤에 바투 붙어 쫓아오던 땅딸막한 호위무사, 김월의 넓은 등판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자 시계추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전방을 주시한다.

지나가던 궁인들, 그 광경을 보며 몰래 킁킁 웃어버리는데.
 심기 불편한 김월, 큰 보폭으로 빨리 걷자 짧은 발로 경보하듯 걸어오는 호위
 무사.
 김월, 쫓아오는 호위무사의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듣기 싫다.

김월 (갑자기 멈춰서는) 퇴궐해라.
무사 예? 입관된 지 한 시진도 안 되었습니다, 공주마마.
김월 (서슬 퍼런 낫빛으로 돌아보는) 퇴. 궐. 하랬다...!
무사 (놀라 꾸벅 절) 예!
김월 해시에 재입궐 해라. (팽 돌아서 가버리는)
무사 (작게) 뭐꼬.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이고.

S#4. 화백회의 장소(밤)

S#2의 연속.

위화부령 못할 거 같으니까네 선수 치는 거 아이가. 막말로 누가 저 멀대 같은

인사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굿노.

예부령 무얼 먹었기에 혼자만 저리 크나 이기야.
위화부령 북방족 튀기가 분명하다니까요.
예부령 성정도 얼마나 고약한지 궁인들이 보름을 못 버틴다드마.
조부령 사내를 싫어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곁에 사랑사랑하는 나인하고만
 꼭 붙어 있다는데... 후...
병부령 (답답한) 참말로 순진한 소리들 하십니다, 노리는 기라니까요.
 혼인 않고 제3의 선덕, 진덕이 될 채비를 하는 기라고요.
예부령 말 같잖은 소리! 여왕의 실정을 더는 두고 못 보지...!
위화부령 근래 자꾸 일을 꾸미는 기, 수상긴 하다.
조부령 (상대등 눈치 살피며) 그라든 아니든 큰일 아입니까.

가만 듣고 있던 상대등, 결심이 선 듯 입을 떼는데.

S#5. 월궁 / 공주의 처소 안(밤)

방 벽면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누가 봐도 키 큰 남정네와 아담한 키의 여
 인 같다.
 까치발의 술이 목이 꺾일 듯 올려다보며 자기보다 한참 큰 김월의 저고리를 갈
 아입히느라 깡깡대고 있다.
 불편한 기색 역력한 김월, 자신의 어깨춤에 오는 술이의 가르마를 물끄러미 내
 려다보다 아담한 어깨에서 시선이 멈춘다.

김월 (술이의 손길을 내치며) 됐다. 내 할 테니 이리 내라.

김월, 직접 저고리를 대충 여며 입고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솔이, 김월의 눈치를 살피며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솔이 (애교 넘치는) 마마~. 솔이가 머슴 실수라도...?

김월 (훅 돌아앉으며) 됐다!

솔이 (달래듯 애교) 마마~.

김월 됐다! 얼른 채비나 마치거라.

솔이 (한숨) 공주님, 꼬리가 길든 잡힌다니까요.

김월 해시 다 돼 간다. 어서!

솔이 마마. 대체 뭐가 불만이십니까? 제 보기엔 검술도, 인물도,
근래 무사 중에서는 제일이던데.

그때 탁자 위의 꽃병에 놓인 수국을 본 김월. 마구 일그러지는 표정.

김월 니가 뭘 안다고...!

S#6. 상대등의 사가 / 환희의 방안(밤)

인서트. 금입택. 금으로 도금한 화려한 집.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김환희, 노복의 상투를 틀어잡고 마구 휘두른다.

한쪽 구석에는 현이 다 뜯겨져 나간 비파가 흉물스럽게 놓여 있다.

환희 내 포를 가지고 오라고!

노복 아이고, 도련님~! 산이 도련님을 대신 보냈으니 이제 그만 취침에 드
시라니까요.

환희 그라믄 좀 전에 그 기집을 데코 온나. 이번엔 내가 비파를 킬 테니 밤
새 궁뎅이를 흔들라 해라.

노복 (한숨) 도련님... 어르신 아시면 큰일 납니다.

S#7. 화백회의(밤)

S#4의 연속. 예부령, 화백회의 결의안을 쓰고 있다.

대신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상대등을 바라보면,

상대등 금명년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공주가 환희와 국혼을 올리게
될 기다!

S#8. 후원 / 야산(밤)

부엉이 소리, 사각사각 나뭇잎 밟는 소리만 아득하다.

호위무사, 연신 주변을 경계하며 뒤따르는데.

거침없이 앞장서는 김월, 점점 짙은 어둠 속을 파고들어 간다.

무사 공주님! 달밤에 산책이 과하십니다.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오니
(조심스레) 이만... 돌아가시지요?

입술 씩룩이며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김월을 원망스레 보는 무사.

인서트.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손.

무사 괴한들이라도 나타나든...
김월 서라벌 최고의 무사가 뒤에 있거늘 뿔이 두렵겠노! 잔말 말고 따라오거라!

김월, 누군가를 찾는지 연신 두리번거리는데... 아무것도 없다.
커다란 나무언덕만 보이고, 그때 갑자기 푸드덕 날아가는 박쥐.

무사 엄마야!!
김월 (혀를 꼴꼴 차는)

S#9. 월성 / 복문 문루(밤)

꾸벅 조는 금군들 틈에 김산, 문루 위에 올라 보초를 서고 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좀 전에 넘어진 발목끼를 살피는데, 그때,

돌석(V.O) (속삭이듯) 도련님!

김산, 돌아보면 야산 쪽에 서 있던 돌석, 김산에게 손짓을 한다.
금군들 몰래 깨금발을 하고 돌석 쪽으로 걸어가는 김산.

S#10. 후원 / 야산(밤)

김산, 언덕 위 나무에 등을 대고 앉아 있다.
그 앞에 돌석, 김산의 신발을 벗기고 신 깊숙이 나무갈창을 끼워 넣으며.

돌석 으이구... 분신 같은 걸 놓고 가지다니.
김산 (발바닥을 주무르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는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구만.
돌석 그런 말 마시라니까요. 그래도 그 덕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김산 내 도당 유학을 떠나면! 이놈에 지옥 같은 계림 땅은 쳐다도 안 볼 것이다.
돌석 그놈에 도당, 도당...! 뱃삯은 있슈?
김산 이놈이...! (놀리듯) 또 모르지. 정 궁하면 네 놈이라도 팔아...
돌석 (금세 울먹)
김산 농이다, 농!!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명줄의 은인을.
돌석 (괜히 짜증) 허황된 꿈은 버리고 하루빨리 뭐라도 될 궁리나 좀 하시라니까요! 총각귀신으로 늙어 죽기 싫으면.
김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한숨 푹) 헌데 여인네들이 날 가만두겠느냐 말이다.
돌석 으이구... (갈창을 깐 장화를 획 던지며) 자요!

S#11. 후원 야산(밤)

S#8의 연속. 김월, 연신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때 나무 사이사이로 서서히 하나둘 나타나는 복면 쓴 괴한들.
회심의 미소를 띠우는 김월.

무사 (놀라서 김월을 엄호하는) 웬...놈들이냐...?!

무사 뒤로 불쑥 솟은 김월의 얼굴. 엄호하나 마나다.
김월, 고깃짓을 하면 공격해오는 괴한들. 칼날 부딪히는 소리, 달밤을 울린다.
언덕 위 나무에 기대 앉아 있던 김산과 돌석,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서는데.

김산 누... 누구냐!

캄캄한 나무 아래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을 보고 더 놀란 김월과 괴한들.
공격하던 괴한들이 갑자기 김월을 엄호하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호위무사.
괴한들, 돌석 쪽을 향해 칼을 내리꽂는다.

돌석 (눈을 질끈 감는) 아이고, 도련님!!

돌석을 겨누던 칼을 멋지게 막아선 김산, 돌석을 제 등 뒤로 피신시키고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다.
김산의 등장엔 당황스런 김월, 이리저리 오가는 칼날 속에 얼굴에 상처까지 입고.
김산, 순식간에 제압해버리고 이제야 김월 쪽을 내려다보는데.
언덕 위. 달빛 아래 우뚝 서 있는 김산, 거인 같다. 산바람에 펄럭이는 포.

김월 (뒷걸음질) ...수, 수문장 아니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김산 (패검을 허리춤에 차며) 궁인이요?

김산, 어두운 달빛 아래 김월을 자세히 보려고 점점 다가오는데...
김월, 뒷걸음질 치다 치마를 밟고 미끄러진다.

김월 악!

김산 (재빨리 김월을 안아 받치며) 미, 미안하오. 내 놀래키려던 것이 아니라...

김월 (몹시 놀라 눈만 꿈뻛) ...!

김산 (얼굴 바짝 들이밀며, 다정히) 괜...참소?

달빛에 김월의 얼굴이 밝게 보이는 반면 달빛에 등진 김산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김월 (발그레진 두 볼) ...!

언덕 위 나무에 숨어 있던 돌석, 그 광경을 경이롭게 바라본다.

S#12. 공주의 처소 안(밤)

면경 속에 비치는 김월의 얼굴, 뺨에 앓은 상처. 옆에 시립해 있는 솔이.

김월 김환희... 장군?

솔이 네. 상대등의 장자라는데 검술이 천하제일이랍니다.

김월 ...상투는... 벌써 올렸겠제?

솔이 아직이랍니다.

김월, 다시 면경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웃는.

솔이 (미소를 본) 마마! 흑... 맘이 동하신거래두...?

김월 없다, 그런 거.

솔이 에이, 마마. 속일 걸 속이시지예. 김환희 장군 인물이 그래 흰칠하다
 든서요?
김월 (괜히) 별로 글치도 않던데 뭘!
솔이 마마 곁에 얼른 든든한 부군이 생겼으믄 합니다. 변고라도 나시는 중
 알고 얼마나 칠렁했다꼬요.
김월 아바마마와 너만 있으면 된다. 다른 누구는 필요 없다!
솔이 (걱정과 감동이 뒤섞인) 마마...
(소리) 공주마마, 대왕전하께오서 찾으시옵니다.

S#13. 편전 / 침소(밤)

병색이 짙은 왕, 무릎 꿇고 앉은 김월의 얼굴에 난 생채기를 손으로 쓸며.

임금 다 이 애비가 무능한 탓이다.
김월 무슨요! 위화부령이 죄다 형편없는 호위무사만 올린 탓이지요.
 이번에도 분명 저급한 인사가 입관될 기 뻔합니다.
임금 미안타. 어미도 잃고 내마저 가삐리면...
김월 (임금의 손을 꼭 쥐는) 걱정 마세요. 소녀, 신라와 국혼을 맺은
 몸,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임금 (깊은 한숨) ...
김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플래시백. 상대등, 누워 있는 임금에게 화백회의 결의안을 상주한다.
김월 (결의안을 읽는) 헌덕왕께오서 이르기를, “예전에 선덕과 진덕

두 여왕이 있었으나 암투이 올면 집안이 망하는 본보기만 되었으니
 내 비록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나 그 전처를 따를 수는 없다” 하시며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를 선례로 삼은 선왕의 유지에
 따라 공주님도 더 늦기 전에 국혼을 올려...

김월, 결의안을 구겨버린다.

임금 이번에는... 물리지 못할 것 같다. 미안타, 월아...
김월 (잔뜩 구겨지는 이맛살) ...!
임금 이 애비도 최대한 수를 써보겠다.

S#14. 상대등의 사가 / 대청(낮)

상대등을 위시한 대등들, 호화스러운 술상을 사이에 두고 축배의 잔을 든다.

김월(V.O) 혼례를 올리겠다. 단! 조건과 간택의 기회를 나에게도 주고, 간택은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다!
위화부령 꺾국 이래 백기 들 거문서 버티쌌기는.
병부령 뭘 꿈꿨이가 있는 기 틀림없습니다. 군주가 될 위인에게 키 육척이 뭘
 소용이라꼬요, 참내.
예부령 그래도 여인이라고 저보다 한 치라도 큰 사내를 부군으로 두고 싶은
 거겠지.
위화부령 그래 봤자 어남희거늘~!
병부령 어남희가 무슨 말입니까?
위화부령 어차피 남편은 환희 장군!

일동 (웃는)
상대등 철저히 준비해가 반드시... 서라벌의 주인이 되어 한다!

S#15. 편전 / 집무실(낮)

임금, 겨우 부축을 받으며 앉아 김월과 대등들 부복한다.
100명의 이름, 출신, 관직, 결혼 여부, 나이, 신장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올리는데.
개중에는 반백 노인애, 이미 기혼인 사내들도 허다하다.

예부령 전국에서 올라온 단자를 토대로 한 백 명의 명단이옵니다.
임금 (한숨) ...

S#16. 정전 / 앞 마당(낮)

좌우로 품계별로 도열한 대등들. 그 앞에 왕과 김월, 앉아 있다. 그 뒤로 시중과 솔이.
마당 앞에 10열 종대로 서 있는 100명의 부마 후보들, 흰칠한 키를 자랑한다.
십 대부터 반백 노인애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서남인(아라비아 거상 출신)까지 보이자 임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가슴에는 관직과 이름이 적힌 명패를 패용하고 있다.

예부령 초간택 후보자 백 명이옵니다.
김월 (의아한) 계림에 이리도 흰칠한 사내가 넘쳤었나...?

솔이 공주님,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김월 (한숨) ...
솔이 (누군가를 보며 호들갑) 마마, 저기 제일 우뚝 솟은 자가 김환희 장군인가 본데요?

맨 앞 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환희.
그러나 김월이 앉아 있는 곳에서는 너무 멀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환희'란 말에 김월, 고개를 빼고 보는데 긴가민가... 연신 고개를 가우뚱.
욕망 가득한 눈빛의 후보들과 대등들.

임금 (한숨 푹) 하나같이 권좌를 노리는 자들뿐이다.

S#17. 편전 / 침소(낮)

누워 있는 왕 곁에 넙죽 엎드려 있는 시중.

임금 대등들 모두 환희 놈을 밀어 올릴 기 뻥하다. 부전자전이 괜한 말이겠나. 그놈이 부마가 돼선 절대로 안 된다!
시중 그러니까... 훌륭한 인품에 화려한 검술까지 겸비했으나 권력에는 전혀 욕심 없는 키 오 척 반 이상애, 명단에는 없는, 약관을 갖 지난 진골귀족 자제를 데려오란 말씀이십니까?
임금 그렇지~! 환희 놈과 견줄 만한 적수 말이다.
시중 전하... (한숨)
임금 (거친 기침) 내 니한테 내리는 마지막 하명일 듯 싶으다.

시중 (어쩔 수 없이) 명을 받들겠나이다.

S#18. 월성 복문 / 문루(낮)

교대 중인 김산과 금군들. 이제 막 교대를 마친 금군1, 김산을 보며 의아한.

금군1 환희 장군님! 금세 복귀하신 겁니까?

김산 뭐를?

금군1 오전에 초간택 후보들 죄다 모있다문서요. 공주님 뵈십니까?

(능글맞게 웃는) 어떻습디까?

김산 (우물쭈물) 고... 고우시더라.

금군2 (말 자르며) 무신 소리고. 장군님, 내내 여 계셨는데.

김산 (당황) ...!

S#19. 복문 입구(낮)

타고 온 말을 마사에 매어두고 터벅터벅 궁문에 들어서서 시중.

시름 가득한 얼굴로 지나가는 사내들, 금군들 살펴보지만 고개를 가로저을 뿐.

그때 도망치듯 궁문을 빠져나오던 김산과 어깨가 부딪힌다.

시중, 고개를 들어 보이면.

김산 (놀란 눈) 사부님!

시중 누꼬...?

김산 (바로 안기는) 산입니다, 사부님!

시중 산이? 김산 말이가?

김산 예! 김후 장군님 아들이요!

시중 근데 우째 니가... (김산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는)

S#20. 초가집 / 안(낮)

인서트. 허름한 초가집 전경.

김산과 돌석, 시중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

김산 사부님. 아니 될 말씀이십니다. 제 꿈은 도당 유학을 떠나...

돌석 (김산의 입 틀어막는)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시중 망설여지겠지, 안다. 대장부로 태어나 평생 여왕이 되실 공주님을 보
필해야 하는데. (김산의 손을 움켜잡는) 그래도 니밖에 없다. 사제 간
의 정이 남아 있다면 내 쫓 구해주거라.

김산 (난처한) 그뿐만은 아니라...

시중과 김산, 방바닥 위에 서 있다. 깔창을 벗으니 땅딸막한 김산의 키.

황당한 표정의 시중과 머쓱한 김산.

시중 우찌 된 기고?

S#21. 회상. 산 속(초저녁)

길어지는 그림자. 김산, 발에 돌덩이를 매달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

다.
그런 김산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돌석.

돌석 어이구! 그러다 팔 끊어지겠습니다!
김산 아니다. 내 사실 쑥쑥 크는 너를 보며 혼자 이리 많이 했었다. 그랬더니 조금씩 크더구나.
돌석 큰 게 그겁니까?
김산 이놈이..?!

김산, 긴 한숨 토해내며 그대로 뻗어 누워, 서 있는 돌석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김산 내 니 놈이 부러워보긴 또 처음이다.
김산(V.O) 실은, 김환희 장군을 대신해 밤에 보초를 설 무사 제의가 들어왔습시다. 비밀 보장의 대가로 품삯도 상당했는데..
돌석(V.O) 아시다시피 김환희 장군님 키가 6척이 넘지 않습니까...

불현듯 무언가 떠오른 돌석, 김산의 검을 빼앗아 나뭇가지를 베어낸다.

김산 이놈이..! 아버님이 물려주신 검을 어디 함부로...!

칼을 뺏으려는 김산을 밀치며 나무갈창을 만들어내는 돌석.

돌석 (나무 갈창을 댄 신발을 내밀며) 신어보십시오!

주저하는 김산에게 강제로 신을 신기는데.
않는 소리를 내며 신을 신자 돌석의 콧구멍을 바라보던 시선이, 점차 돌석의 눈

과 마주하자 어딘지 감격스러운 김산,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돌석의 눈만 꼬박 바라본다.

돌석 어떻습니까?
김산 (쑥스러우면서도 감격스러운) 그... 글썄...
시중(V.O) (한숨) 그렇다 해도... 니밖에 없다. 들키지만 앉으면 된다, 산아. 신라의 명운은 이제 니한테 달린 기다!

S#22. 편전 안(낮)

부복하고 앉은 시중. 누워 있던 임금, 눈이 번쩍하는데.

임금 뭣이? 김후 장군의 아들?!!
시중 예! 용케도 살아남았답니다.
임금 (감격스런) 김후가 죽어서도 과인을 보필하는구나.

S#23. 정전 / 앞 마당(낮)

대등들 나란히 도열해 있고 그 뒤로 임금과 김월, 시중과 솔이.
후보자들 대열에 쭈뼛쭈뼛 다가서는 김산.
그런 김산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대등과 후보들.

시중 실수로 단자를 올리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화부령 백한 명이나 돼봤네.

상대등 (예부령의 귀에 대고) 누군지 몰래 알아보시오.

김월 (가우퐁) 어디서 본 듯 한데...

김산,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애쓴다. 마침내 열한 번 째 줄을 만들어 서는 데.

그런 김산을 애뜻하게 바라보는 임금.

임금(V.O) 반드시 부마도위에 올라 공주를 잘 보좌하거라.

김산 (결의를 다지는)!

환희 말세는 말세다. 저 사투리나 써대는 촌놈이 진골이라니.

김산 (발끈) ...!

그때, 후보로 나온 수문장도 김산을 보며 알은체.

수문장 (반가운) 환희 장군!

수문장, 김산의 가슴에 단 이름표 '김산-무직'을 보며 고개를 가우퐁하는데.

김산 미안하오. 나는...

환희 (웃음) 여까지 와가 내 그림자놀이를 해쥘네.

김산 술 처먹고 개 되는 놈, 더는 그림자놀이 할 생각 없다.

환희 (피식 웃다가 노려보는) 그러시겠따?

수문장 (어리둥절한) ...?

S#24. 연무장(낮)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말 위에 탄 후보들, 창을 던지면 짚단 위로 착착 꽃힌다.

짚단을 빗겨 나가는 창도 부지기수.

십여 명의 관원들, 각자 점수를 매긴다.

달리는 말 위에서 신중히 창을 조준하는 김산, 짚단 위에 착! 꽃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돌석.

뒤이어 환희가 던진 창이, 김산이 던진 창 of 자루를 찍 가리며 명중한다.

탄성이 흘러나오는. 김산도 놀라긴 마찬가지.

환희, 거만하게 픽 웃어버린다.

예부령(V.O) 기창 종목이 끝이 났사옵니다.

S#25. 연무장 옆 망루(낮)

망루 주변을 에워싼 금군들. 연무장을 내려다보는 김월과 솔이.

다음 대결을 준비하는 후보자들, 대화를 나누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는 활쏘기 연습에 한창인데.

솔이 (환희를 가리키며) 저기 계시네요!

김월, 기대감에 솔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다 일순간 표정이 굳는다.

다들 바닥에 앉아 있는데 환희만 엎드린 늙은 노복의 등에 앉아 있다.

S#26. 연무장(낮)

땅바닥에 이마를 쿵 박고 엎드린 노복을 보던 김산.

김산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흠을 묻히기가 싫소?!

환희 (빈정대는) 예! 나으리랑은 근본이 달라서요.

발끈한 김산을 등 뒤로 두고 핵 돌아앉는 환희, 노복의 등을 더욱 세게 짓누른다.

환희 부마를 뽑는 자리에 무예학교 장기자랑도 아니고 쓸데없이...

그때, 관원들, 복주머니를 합격자들에게 일일이 돌린다.

관원 공주마마께오서 초간택에 참여하신 자제분들에게 돌리는 답례품입니다.

환희, 복주머니를 스윽 열어 보더니, 김산 쪽으로 휩 던져버린다.

환희 (관원을 향해) 다음 꺼 하입시다! 빨리빨리...!

환희가 버린 복주머니를 뱅글 주워드는 돌석.

그 또한 못마땅하지만 김산, 마음을 추스르고 제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는데.

예쁘게 포장된 간식과 행운을 기원하는 삼엽문이 새겨진 장신구가 들어 있다.

김산, 장신구를 허리끈에 매달며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진다.

그때 김산 옆으로 다가와 앉는 수문장.

수문장 (환희를 보며) 뭐 저런 금수 같은 놈이 다 있노.

김산 ...미안하오. 장군. 놀랐을 터인데.

수문장 요즘 신라에 놀랍지 않은 일이 어데 있나. 뒷배가 없으므로 포 걸치기 힘든 세상, 그럴 만도 하지.

씩 웃는 수문장이 고마운 김산.

S#27. 연무장 옆 망루(낮)

지켜보고 있던 김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망루를 나선다.

S#28. 연무장(낮)

슬렁이는 좌중.

후보1 뭐, 공주님이 행차하시었다고?

‘공주님’이란 소리에 벌떡 일어난 후보자들, 두리번거리며 김월을 찾는데. 텅 비어 있는 망루.

후보1 (쩍) 별찌 가셨나보구만?

순간 긴장했던 후보들, 다시 편히 퍼질러 앉아 휴식을 취하면.

돌석 (작게) 도련님, 저기!

돌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김산.

망루 뒤에 세워둔 가마로 김월과 솔이, 보일 듯 말 듯 걸어가고 있다.

돌석 가까이 가봅시다.

돌석, 김산의 팔을 붙들고 다른 후보들 몰래 망루 뒤쪽으로 뛰어간다.

S#29. 연무장 / 망루 뒤편(낮)

단의(짧은 저고리)와 표상(긴 치마)에 표(솔)를 두른 김월과 솔이.

화려한 장식의 긴 허리띠(답례품의 장신구와 같은 그림)가 바람에 살랑인다.

잔뜩 인상을 쓴 김월과 달리 활짝 인자하게 웃고 있는 솔이.

솔이, 기품 있는 얼굴로 공주보다 앞서서 궁인들을 챙긴다. 누가 봐도 솔이가 공주 같다.

돌석(V.O) 곱다, 고와.... 공주님을 이리 가까이 영접하다니.

돌석과 김산,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돌석이 솔이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김산은 김월을 유심히 보더니 살짝 미소.

플래시백. 후원 야산에서 넘어지려는 김월을 안아 받친 김산.

김산 (미소) 나인이었구만...

돌석 어머십니까? 신부를 미리 본 소감이?

김산 (솔이 쪽으로 옮기는 시선, 심란한) ...아직 모르겠다.

돌석 (김월을 보며) 히야...! 공주님의 나인은 역시 다르네요. 전국을 떠돌아다녔지만 저리 큰 여인은 또 처음 봅니다.

김산 멋지지 않느냐?

돌석 뭐, 조금요. 에이... 그래도 여인이 저리 커서야...

김산 왜. 귀엽지 않느냐? (빙긋이 웃는)

돌석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예?? 도대체 어디가요.

김산 저 통한 표정 봐라. (헤실헤실 웃는) 입술 삐죽이는 것도.

플래시백. 야산에서 김월을 안아 받친 김산, 토끼 눈을 뜨고 김산을 올려다보는 김월의 발그레진 두 볼. 산바람에 김월의 분향이 김산의 코를 강타한다.

그때 활 쏘는 연습을 하던 연무장이 소란스러워지자 돌아보는 돌석, 활 하나가 이쪽으로 날아들고 있다.

돌석 도련님! 이참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읍시다.

돌석, 김산을 앞으로 밀쳐낸다. 넘어질 듯 김월 앞에 선 김산, 당혹스러운데...

금군3 무슨 일이냐!

그때 김월과 솔의 앞으로 활이 날아든다. 김산, 양 손으로 두 사람을 잡고 피하는데.

김산의 품에 쏙 가려진 솔이와 달리 채 다 가려지지 못한 김월의 이마에 멍툭한 나무 화살이 쿵! 맞고 떨어진다. 놀란 김월, 주저앉아버리는데.

김산(V.O)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김월, 김산 쪽을 올려다보면 김산은 솔이를 살피고 있다.

솔이 (당황) 나... 나는...

당황한 솔이, 김월 쪽을 보면 김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모멸감에 김산을 노려본다.

관원, 김산에게 호통을 치려는 찰나! 김월, 관원을 제지시킨다.

김산, 이제야 넘어진 김월을 보고 깜짝 놀라서 냉큼 부축하려는데.

김산의 손길을 내치며 일어난 김월, 키가 엇비슷한 김산을 위아래로 훑는다.

김월 흠~릉하시구료, 나오리? 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오! (솔이를 보며) 공주님! 가지지요?!

솔이 (난처) ... 네....?!

김월, 관원에게 입막음을 시키고 핵 돌아서 간다.

찔찔하고 허전한 듯 멀어지는 두 사람을 지켜보던 김산을 얼씨구나 부둥켜안는 돌석.

돌석 잘하셨습니다, 도련님~!

김산 (찔찔한) ...

S#30. 월궁 / 공주의 처소 안(낮)

김월, 잔뜩 굳은 얼굴로 들어오다 낮은 문틀 윗부분에 또 이마를 쿵! 박고 만다.

뒤에 쫓아오던 솔이,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못하는데.

공주, 눈을 질끈 감고 화를 삭인 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앉는다.

솔이 마마. 그 자를 당장 장을 쳐가꼬 내보내뵈까요?

김월 나는 뭐 그런 일로. (태연한 척) 궁인들 중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태반이다. 입궐해본 적 없으니 헛갈릴 만도 하지.

솔이 그래도 마마...

김월 그자 눈엔 니가 공주처럼 보있는 갑지...

솔이 (안절부절못하는) 마마...

김월 입단속 시키고 나는 그만 나가 보거라.

솔이가 나가면 김월, 면경 속 발갥게 달아오른 이마를 보다가 탁자 위 꽃병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수국을 본다.

김월 (움푹 패이는 미간) 여태 이걸...!

어느새 눈가가 빨개지는 김월.

S#31. 회상. 월궁 후원(낮)

수국 꽃이 만개한 후원.

지금의 키와 비슷한 열다섯의 김월, 양손 가득 수국을 들고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누군가의 뒤를 쫓아간다.
 앞서 걷던 누군가, 호위무사 복장의 사내다. 김월에 비해 많이 작은 키.
 두 사람을 보던 궁인들의 키득거리는 소리에 잔뜩 예민해진 사내.
 몰래 놀라게 할 요량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김월. 사내, 흘깃 땅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
 다가오던 김월의 그림자가 점차 커지더니 일순간 사내의 몸을 덮쳐버린다.
 몸서리치는 사내, 천천히 돌아서면. 좋아서 까르륵 웃는 김월.

사내 (장벽 같은 김월을 올려다보며) 공주님...
김월 입궐하든 내한테 먼저 기별하라 안 했다. (수줍게) 내 종일 니만 기다렸다.
사내 그만하십시오. 제발!
김월 왜... 또 그라노? 서운하게.
사내 (한참 망설이다) 소신... 마음에 둔 정인이 따로 있습니다.
김월 (놀란) ...!
사내 한 손에 폭 안기는, 어느 사내가 봐도 품고 싶은 그런 여인 말입니다.
 (한숨) 공주님을 좋아할 수 있는 사내가... 과연 있을까요?

충격 받은 김월, 손에 들고 있던 수국 꽃이 바닥에 툭 떨어지면
 바람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마는 꽃잎들.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S#32. 김월의 처소 안(낮)

S#30의 연속. 이윽고 탁자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버리는 김월.

예부령(V.O) 보사 종목까지 끝이 났습니다.

S#33. 정전 / 앞마당(낮)

당간지주에 1등부터 101등까지 명단을 적은 족자가 짝~ 펼쳐진다.
 넓은 휘장 속 임금과 김월, 대등들, 족자를 살펴보는 데. 만족스러운 표정의 상대등.
 1등은 환희, 김산은 50위에 있다.

예부령 가문, 기초무예 합산 결과 초간택에서 하위 순위 명은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종대로 서 있던 후보들, 절반이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아쉽게 떠난다.

예부령 이제 본선에 오른 순위 한 명의 심사는 대왕전하를 포함한 여기 모든 사람이 합니다.

대등들, 서로 눈을 맞추며 모의하듯 웃어 보인다.
 임금과 김월을 위시한 왕권파도 눈빛 교환하는.

왕 (김산을 가리키며) 저자를... 지목하거라.

김월 (내키지 않는) ...왜요?

왕 김환희는 절대로 안 된다! 저자가 꼭 부마가 돼야 한다.

김월 김환희도 싫지만... 저자는 더 싫습니다!!

S#34. 몽타주. 정전 앞마당(낮)

1. 51명의 후보자들 과거시험을 보듯 붓을 들고 작문을 하고 있다.

예부령 국학 수석 졸업자 출신이 제안한 본선 첫 번째 대결은 향가 작문입니다.

술술 써내려가는 후보1을 쏘아보는 환희.

환희 뭐하는 짓거린지... 참내.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는 수문장과 서남인. 김산은 고심하더니 술술 써내려간다.

후보자들이 쓴 향가를 돌려서 읽는 궁인들.

김산의 것은 아예 읽지도 않고 넘겨버리는 김월.

2. 후보들, 살바를 맨 채 둘러앉아 있고 중앙에 후보 둘씩 한창 씨름 중이다.

예부령(V.O) 옛 고구려, 한주 지방의 군주 출신이 제안한 두 번째 대결은 씨름입니다.

열띤 응원 속에 나서는 환희와 후보1.

환희, 첫 번째 대결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듯 후보1을 순식간에 뒤집어엎어 버린다.

놀란 궁인들. 이내 환성이 터지면.

포효하는 환희, 김월 쪽을 향해 청혼하듯 세리머니를 펼친다.

술이 어머니!

김월 (살짝 동한) ...!

서남인, 씨름이 낯선지 멍한 표정. 옆에 앉은 김산, 상세히 경기규칙을 설명해주는 듯.

이윽고 맞붙은 두 사람. 살바를 못 잡는 서남인에게 김산이 꼼꼼히 살바 쥐는 법도 알려준다.

경기 시작. 기합을 잔뜩 주며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서남인.

김산, 뒤로 밀리다가 깔창을 낀 발목이 살짝 접질린다. 통증에 구겨지는 이 맛살.

여세를 몰아 기합을 내지르며 황소처럼 달려드는 서남인.

보고 있던 돌석, 조마조마하다.

달려드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쉽게 호미걸이로 넘어뜨리는 김산.

김산 ...미안하오.

김산의 기술에 감탄하는 궁인들.

투표용지에 ‘김산’을 써내려가는 손이 제법이자 김월의 표정, 일그러진다.

3. 유향을 향낭에 담아 김월에게 바친 후 고난도 요가 동작을 선보이는 서남인. 지켜보는 궁인들, 놀라워하거나 징그러워하거나. 다양하다.

중도 포기하는 몇몇 후보들 사이에서 동작을 비교적 잘 따라하는 김산.

4. 비파 연주를 시작하는 김산.

현을 튕기고 나오는 맑은 음색. 연주에 흠뻑 빠져든 궁인들.

임금도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연주를 감상한다.

솔이, 선율에 따라 고개를 살랑인다. 양손을 꼭 움켜쥐고 눈을 감는데.
 그런 솔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김월.
 화면 바뀌면, 산보다 훨씬 연주를 잘하는 환희. 탄성을 내지르는 궁인들.
 김산과 돌석, 당혹스럽다.
 환희의 손이 비파 현을 튕기자 공기가 사르르 떨리며 일순간 바람이 인다.
 그 바람이 김월의 얼굴에까지 닿자 드디어 김월도 눈을 감는다.

5. 플래시백. 후원 야산 (밤)

산바람을 맞고 파르르 떨리는 김월의 눈썹. 콩닥 가슴이 뛰다.
 김월, 놀라서 눈을 번쩍 뜨더니 김산에게 누워 있던 몸을 일으켜 도망치듯 뛰어간다.

김산 (쫓아오며) 어디로 가는 것이요? 밤길 위험하오. 내 데려다 줄 터이니 조금만 천천히...

김산, 깔창을 낀 신 때문에 빨리 뛰지 못한다.
 긴 발로 성큼 성큼. 김월, 제 맘을 들키기라도 한 양 부끄러워 뒤도 돌아보지 못한다.

6. 정전 앞마당
 감회에 젖은 김월, 살며시 눈을 뜬다.

예부령 환희 장군님은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상대등 저놈이 언제 또 비파를...?

위화부령 역시 어남희가 확실할 듯합니다.

대등들, 만족스러운 표정. 보고 있던 환희의 노복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예부령(V.O) 후보자들의 재능과 외모를 토대로 한 재간택 심사결과 상위 열한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11명의 합격자들, 순위대로 하나하나 얼굴 비친다.
 맨 처음 환희부터 후보2, 후보3을 거쳐 쭈욱 이어지다 마지막에 김산.
 감격스러워하는 돌석.
 탈락한 후보1, 서남인, 수문장, 임금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김산을 격려하며 물러난다.

7. ‘오늘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음악 흘러나오면 11인의 후보들, V자 대열로 서서 율동과 노래를 부른다. (인도 발리우드의 한 장면 같은)
 일일이 눈을 맞추고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한 몸부림을 펼치는 후보들.
 김산도 강아지 같은 미소 발사하지만 외면해버리는 김월과 흐뭇이 웃는 솔이.
 조금 더 박력 있는 모습의 환희, 좌종을 쓸어버릴 기세로 춤을 격렬히 추며 김월을 향해 찡긋 윙크를 보낸다.
 주저하던 김월, 이윽고 마음의 문이 열린 듯 슬며시 미소. 음악이 멈추고.

8. 한시를 유창하게 중국어로 읊는 도당 유학생, 후보2.
 떨떠름한 표정의 다른 후보들 틈에서 김산, 자신이 품었던 꿈을 먼저 이룬 자에 대한 동경과 이루지 못할 아쉬움 등이 뒤섞인 표정.
 글씨나 숫자가 적힌 136개의 패(사람 팔뚝만 한 크기)가 마당에 착! 펼쳐진다.

예부령 도당 유학생 후보가 제안한 대결은 아직입니다.

후보들, 네 명씩 팀을 이뤄 서둘러 짝을 맞춘다.
'김산과 후보2' 대 '환희와 후보3', 맞붙었다. 주머니 받거나 순조롭게 진행된다
점점 얼굴이 달아오르며 과열되는 분위기.
그때 환희, 눈을 희번덕대더니 양 옆으로 도열해 있던 금군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후보2를 향해 휘두른다.
놀란 김산, 다른 금군의 칼을 뽑아 간발의 차이로 환희의 검을 막아내면.
환희, 김산과 으르렁대듯 눈싸움.
바로 눈앞에서 멈춘 환희의 검에 후보2, 정신이 아찔한데.
환희의 돌발행동에 궁인들도 놀랐다.

임금 무슨 짓이냐!

환희 이 자가 신성한 월궁 안에서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플래시백. 상대의 눈을 피해 슬쩍 패 하나의 자리를 바꾸는 후보2.

임금 (관자놀이끼를 문지르는) 이제 그만, 되었다.

후보2, 금군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예부령 삼간택 심사 결과 최종 2인이 남았습니다.

환희와 김산의 얼굴, 번갈아 비춘다.

결의를 다지는 귀족파와 왕권파.

예부령 마지막 대결은 각자 원하는 것을 절충하겠습니다.

환희, 들고 있던 검을 휘황찬란하게 휘둘리며 검술을 선보인다.

환희 공주님을 지킬 부군이 다른 거 무에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든 되지!
안 글나.

김산 동의하오!

환희 (김산을 향해 검을 겨누는) 패자사! 승자승! 어땡노?!

놀란 돌석과 눈이 마주친 김산, 당황했지만 지지 않으려 애쓰며.

김산 좋~지!

환희 (재밌다는 듯 웃는)

예부령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지막 맞대결은... 검술입니다. 승패
는... 둘 중 하나가 죽는 순간! 결정됩니다.

술렁이는 좌중. 일순간 뿌연 안개로 둘러싸이는 월궁.

임금과 시중, 걱정스러운 눈길.

S#35. 월궁 일각(낮)

돌석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김산, 신발 쪽을 만지며 인상을 쓰는데...

그 앞으로 속속 지나가는 궁인들.

돌석 고만 만지십시오. 어디 티 낼 일 있습니까?

김산 (잔뜩 찡그리는) 너무 아프다. 더 이상 못 견뎌다.

돌석 (통명스런) 엄살 그만 부리세요. 몇 시진 후면 향천길을

건너야 할지도 모르는데.

김산 돌석아...

돌석 (버럭) 그러게 왜 대뜸 수락을 해가지고는! 도련님 목숨보다 중한 게 뭐 있다고요! 화마 속에서도, 지켜낸 목숨인데.

플래시백. 10년 전. 화염에 둘러싸인 집.

어린 김산, 활활 타올라 툭툭 떨어지는 서까래 아래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

그때 재에 검게 그을린 어린 돌석(이때도 큰 키), 김산을 업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으아악~! 화염을 뚫고 달린다.

돌석 미안하다. 내 목숨이 네 것인 걸 깜빡했구나.

돌석 무엇이 안 돼도 좋으니 지금이라도 도망가버릴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한다 할 걸 그랬습니다. 괜히 제가...

김산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다.

돌석 행여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김산 걱정마라.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 나만 믿거라.

S#36. 김월의 처소 안(낮)

김월, 탁자 위에 텅 빈 꽃병을 보고 있다. 그 앞에 술이, 다가와서는.

술이 다른 꽃을 꽂아두겠습니다.

김월 ...

술이 마마. 술이는 환희 장군님보다는 무사 김산이 쏘매 더 성정도 좋아 보

이고 정이 갑니다.

김월 (심드렁) 사람 속을 어찌 알고.

술이 마마는 누가 이겼음 싶어요?

김월 (괜히) 누가 되든 관심 없다!

S#37. 정전 / 앞마당(낮)

금군들, 전열을 맞추며 마지막 대결 준비가 한창이다.

넓은 휘장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금군들, 누군가의 귓속말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시중의 고갯짓으로 월성 각 전각을 지키는 경비군의 수가 보강되고.

잔뜩 신경이 곤두선 채 사방을 감시하는 시중. 긴장감 고조된다.

왕(V.O) 상대등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대비해라.

누군가를 찾는 듯 숨어서 지켜보던 김월.

김월 뭐 저렇게까지...

S#38. 월궁 / 빈청 안(낮)

상대등을 포함한 대등들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예부령 김후 장군... 아들이랍니다.

상대등 (놀란) 김후?!!

술렁이는 분위기.

조부령 (소곤대듯) 아니, 그런데 우째 살아 남았노.

위화부령 시중이 일을 꾸미고 있다...!

예부령 (위기감 고조) 만에 하나 환희 장군이 패하기라도 하믄...

병부령 그랄 일 절대 없십니다.

예부령 제아무리 환희 장군이라도 우째 일 푼도 없다 할 수 있겠나.

상대등 (아무 말 없이 차를 들이켜는) ...

상대등과 눈빛을 교환한 병부령, 꺾꺾 웃어버리는.

병부령 그랄 일을... 안 만들면 되지요.

S#39. 궁 일각(낮)

금기가 바짝 든 금군들. 시중이 반대편으로 돌아서자마자

금군 하나, 옆 동료에게 슬쩍 귓속말을 전한다.

시중의 감시를 피해 몰래 어딘가로 향하는 한 무더기의 금군들.

병부령(V.O) 목표는 치명적 상흔이다. 실수로 죽이는 것도 용서할 테니 반드시 성공시키라.

S#40. 정전 / 앞마당(낮)

고개를 빼고 둘러보던 김월. 아무도 없자 시무룩해 돌아서다 바로 눈앞에 서 있던 환희를 본다.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것이 감격스러운 김월,

환희 (부복하며) 공주마마!

김월 (단번에 알아봐서 기분 좋은) 일어나거라.

김월, 천천히 일어서는 환희를 보며 점점 고개가 올라간다. 감격스러운.

김월 키가 몇이 드냐?

환희 6척 조금 넘습니다.

김월 (눈빛 반짝) 놀랍구나.

환희 소신도 놀랍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지 이래 크실 줄은.

김월 (표정 굳는) ...!

환희 (딸랑딸랑) 지척에 5척도 안 되는 난쟁이똥자루들뿐이라 영~ 갓난쟁이 같기만 하여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사운데... 이제야 여인 같은 여인을 마주하니 놀랍사옵니다. (미소)

김월 (입이 찢어질 듯) 그으래에? 그래서 그날도...?

환희 ?

김월 그때 그 숲에서 말이다.

환희 (기억나는 척) 아... 기억납니다.

김월 그래. (쭈스러운) 기대...하고 있겠다.

S#41. 김산의 꿈. 김월의 처소 안(낮)

잠들어 있는 김월을 흐뭇이 지켜보고 있는 김산.
입술 뻐죽뻐죽 잠꼬대를 하는 김월이 귀여운 듯 바라보다 입술을 가까이 다가
가는데. 그때 괴한들이 덮친다.

김산 웬 놈이냐!!

김산, 놀란 김월을 열린 제 등 뒤로 숨기고 괴한들의 칼을 막아낸다.
괴한을 모두 처치하고 김월 쪽으로 돌아보는데...
칼에 맞아 진작에 쓰러져 있던 김월. 김산의 비명소리.

S#42. 궁 일각(낮)

놀라 선잠에서 깬 김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돌석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쉰다.

김산 (자기 뺨을 때리는) 미쳤구만, 단단히...

돌석 왜 그러세요?

김산 여인을 안아본 적 있느냐?

돌석 왜, 안아보고 싶습니까? 걱정 마세요. 공주님과 혼례를 올리면...

김산 (그날을 떠올리는) 처음이었다, 그날.

돌석 언제요? 아 그날? (정색) 잊어버리세요! 부마가 될 위인이...

김산 (한숨) ... 그래야겠지.

이윽고 깔창을 신은 발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돌석.

김산 ... 내가 키를 속였단 사실이 들통 나면 어떻게 될까?

돌석 어떻게 되기는... (우물쭈물) 안 들켜야지요.

김산, 슬쩍 신발을 벗어보는데... 피멍이 잔뜩 든 발.

돌석 안 되겠다. 더 편한 건 없나, 둘러보고 올게요.

김산 진즉에 찾아보지 않고.

돌석 벗고 계세요. 얼른 올 테니.

돌석이 가고 신발을 벗고 있던 김산, 지나가는 금군들을 보고는 자리를 옮긴다.

S#43. 후원 근처 아산(낮)

어딘가 신이 난 김월, 손에는 패검을 쥐고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때 한 무더기의 수국 군락을 마주하는데.

그때 담벼락 아래로 긴 장화, 툭! 떨어지며 수국 꽃이 바람에 휘릭 날린다.

김월, 깜짝 놀라 올려다보면

막 담을 넘고 있던 김산, 김월을 보고는 깜짝 놀라 쿵 떨어진다.

김산 (제 발 저린) 수, 수국이 고와 자세히 보려던 참이었소!

김월 누가 뭐랬나.

김산 (반가운) 잘... 지냈소?

김월 (한숨) 그런 발로 뭘 더한다고.

김산 무, 무슨 발?! 왜 엄한 사람을...!

김산, 돌아앉아 얼른 장화를 고쳐 신는다.

김산을 못마땅한 눈으로 위아래로 훑는 김월.

왕(V.O) 김환희는 절대 안 된다! 저자를 지목해라.

김월 (비아냥) 뒷배가 얼마나 큰가는 몰라도 이만한 것에 만족하고 돌아가 시지? 개나 소나 무사랍시고 어울리지 않는 패도를 차고 다니는 꼴이 우스우니까.

김산 ...!!

김월 부마는 아무나 하나.

김산 생각보다 입이 거칠구만. 두고 보시오. 내 반드시 공주님과 신라를 지킬 것이니.

김월 제 목숨이나 지키시지? 우리 공주님은 난쟁이 똥자루만 한 사내는 개 돼지 취급도 않으니.

김산 (화를 억누르는) 그 입, 진중히 여시오...!

김월 니놈은 껍이나 진중했나?!

김산 (버럭) 니놈이라니!!

김월 (비아냥) 그림 상놈이라 해주랴?

김산 (못 참고 버럭) 멀대 같이 키만 큰 여인은 어떻게? 자고로 여인이란 한 손에 폭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하는 법이거늘!

김월 (눈가가 붉어진다) ...!

김산 (아차 싶은) 미... 미안하오!

김월 (노려보는) 니놈은 절대 부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김월, 핵 돌아서서 가려다 다시 돌아와 들고 있던 패검을 김산에게 내미는.

김월 공주님의 하사품이다. 니놈한테 딱 어울리는.

그때 서서히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괴한들. 검을 뽑는 쇠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김산도 천천히 검을 뽑아든다.

김산 조금 이따 받겠소.

S#44. 궁 일각(낮)

돌석, 한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뛰어온다.

돌석 도련님! 찾았습니다! (두리번) 도련님?

돌석, 김산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S#45. 후원 / 야산(낮)

하나둘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괴한들. 뒷걸음질 치는 김산. 서서히 좁혀오는 포위망.

이 상황을 혼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주.

김산 얼른 내 뒤로 오시오.

김월, 서슬 퍼런 기운을 감지. 잔뜩 긴장하고 천천히 돌아다보다

괴한들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김월 여기는 웬 일이냐?

괴한들 (서서히 좁혀오는 포위망)!

김월 아, 이 자는 호위무사가 아니다. 물러나거라.

점점 더 좁혀오는 포위망.

김월 착오가 있었나본데, 물러들 가래도!!

괴한들 (꿈쩍 않는)

김산 착오는 그쪽이 하는 것 같소만?

김월 이놈들이... 왜 이러는 것이냐!

괴한들, 김산을 향해 검을 내리꽂자 김월 바로 눈앞에서 멈추는 칼.

그때 김산의 팔이 불쑥 튀어나와 김월의 허리를 휘감고 김월을 염호한다.

김산 괴한들을 끄는 재주가 있나 보구만. 매번 이러니.

김월 (놀라 침만 꿀꺽) ...!

김산 공주마마를 만나면 잘 말해주시오. 내가 휘황찬란한 검술로 자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이야.

김산, 잘 막다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결국 김월의 손을 잡고 도망친다.

쫓아오는 괴한들.

S#46. 거리 일각(낮)

쫓아오는 괴한들을 피해 도망가던 김산, 절뚝거리다 이윽고 발을 접질리고 넘어진다.

한 치 앞까지 쫓아온 괴한들.

김산, 하는 수 없이 신발을 벗어 들고 도망가는데...

혹 꺼진 김산이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자 김월, 어리둥절해 김산을 찾는데...

그때 무쇠팔이 획 나와 김월의 허리를 감아 낚아챈다.

담벼락 사이에 겨우 몸을 피한 두 사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대로 뺨은 두 사람. 김산, 김월 몰래 신발을 고쳐 신는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김월, 두렵고 당혹스럽다. 이윽고 어깨가 들썩이는데.

어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김산.

김산 (아직 양금이 남은) 덩치에 안 맞게 여러구만.

김월, 벌겋진 눈으로 노려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드는데...

당혹스러운 김산의 표정, 그러나 이내 조롱 섞인 눈빛으로 바뀌면

뺨힌 김월의 칼은 짜리몽땅한 단검이다.

김산 취향 참 독특하구만. 그 덩치에. 귀엽소.

김월 (아뵐싸...!) 니놈 것이라 안 하였느냐! 니같은 놈한테나 어울리는!

김월, 분하고 창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바닥에 마구 신경질적으로 내치는데도 부러지지 않는 단검.

김산 단검은 쉬이 부러지지 않는 법이지...
김월 (계속 우는)
김산 그만 우시오. 이제 돌아갑시다. 나는 대결도 남았고...

하는데 김산의 뺨을 휘갈기는 김월의 손. 짹! 골목을 찌렁 울린다.

S#47. 거리(초저녁)

터벅터벅 걷는 두 사람.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처럼 별경게 달아오른 김산의 뺨.
김월, 아직 두렵고 혼란스럽다. 침을 꿀꺽 삼키고 단검을 꼭 쥐는데.
아직 화끈거리는지 자기 뺨에 손을 얹는 김산.

김산 두 번이나 목숨을 부지시켜준 은인한테 대가가 겨우 이거요?
김월 (걸음을 멈추고) 두 번이라니?
김산 아니, 뭐. 내가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됐소! 걸음을 좀 빨리 옮기시오. 이러다 정시에 도착 못하겠소.

두 사람의 그림자 나란히 보인다. 김월의 그림자가 훨씬 길다.
김월,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데..

김산 아니, 청개구리요? 빨리 가자니까...

영문을 모르는 김산, 김월을 떠밀려다 그림자를 보는데..
김월, 김산을 원망스럽게 보다 단검의 칼자루로 김산의 가슴팍을 푹 찌르고 가

는.
이제야 조금 미안해진 김산,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주워 들고 쫓아간다.

김산 (김월의 손에 쥐어주며) 덩치에 맞는 검이란 없는 법이지. 아깐... 미안하오.

김월 (김산의 손을 뿌리치는) ...!

김산 아니, 그쪽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소.

김월, 노려보다 뛰다시피 걸어간다.

김산 또 빨리 걷네. 길도 잘 모르면서...!

S#48. 월궁 / 야산(초저녁)

돌석, 김산을 찾고 있다.

돌석 아, 대체 어딜 간 거야...

돌석, 손에는 가죽 채찍을 켜켜이 쌓아 만든 깔창, 짚으로 만든 폭신한 거대 깔창 등이 들려 있다.

S#49. 월궁 / 북문 근처(초저녁)

궁에 다다르자 김월, 안심하는 표정.

그때 놀라는 김월, 당장 몸을 숨긴다. 영문을 모르는 김산도 같이 숨고.
김월의 시선을 따라가면 웬 무사가 두리번거리며 금입택(상대등의 사가)으로
들어간다.

김산 왜 그러시오?

김월 여기가... 발원지였군.

플래시백. S#11에서의 괴한들과 S#45에서의 괴한들. 같은 얼굴이다.

김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겠구만.

김산 (금입택을 보며 무언가가 떠오른) ...!

플래시백. 어린 김산, 돌석의 등에 업혀 불난 집에서 탈출한다.
그때 멀리서 구경하던 노복, 누군가의 귓속말을 전해 듣고는 냉큼 금입택으로
들어간다.

두 주먹을 꼭 쥐는 김산.

S#50. 월궁 / 빈청 안(낮)

대등들 둘러앉은 원탁. 금군으로부터 귓속말을 전해 듣는 병부령, 상대등을 볼
면목이 없다. 눈치 챈 상대등, 탁자를 탕! 내리치는.

병부령 걱정 마십시오. 만에 하나의 장치는 모두 마련해 두었습니다.

S#51. 궁 / 정전 앞마당(밤)

하나둘 햇불이 켜지고. 연단 위. 넓은 휘장 속. 많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시중의 감시를 피해 바빠 움직이는 금군 일부, 월궁 담 아래 몸을 숨기고 작은
독침을 준비한다.
한 칸에서 검술 연습에 한창인 환희. 달밤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 소리가 서슬
퍼렇다.

환희(V.O) 쓸데없는 일 꾸미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진 적 있다고.

상대등(V.O) 너는 그것이 문제다. 자만하지 마라. 만만찮은 놈이다!

환희의 검, 허공을 가르더니 달의 귀퉁이가 살짝 떨어져나간다.

S#52. 골목 일각(밤)

김산과 김월. 이지러진 달 아래 걷고 있다. 상념에 잠긴 김월.

김산 무슨 생각하시우?

김월 ...(긴 한숨)

김산 다 와 가니 조금만 참으시오.

발에 통증. 김산, 얼굴이 구겨지는.

김월 쥐새끼, 고양이 걱정하고 있네. 너는 신발에 뭘 넣은 거냐?

김산 (시치미) 뭐가 말이오?

김월 (노려보는) 비열하기까지 하구만.
김산 ...저기... 미안하오. 내 일부러 속이려던 게 아니라.
김월 (뿌리치고 가는)
김산 (무릎 꿇는) 제발, 제발... 공주님께는 아뢰지 말아주시오.
김월 ...!
김산 나도 알고 있소. 내가... 참으로 못났고 형편없다는 거, 말이오.
김월 (멈추는) ...!
김산 그쪽은 아마 죽었다 깨도 내 맘 모를 것이오.

김월, 천천히 김산 쪽으로 돌아다보는.
 어느새 신발을 벗고 김월을 보고 서 있는 김산. 간절한 눈.
 김월, 무언가 마음이 동했는지 뚫어져라 김산의 눈을 바라본다.
 그때 두 사람 앞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칼!
 놀란 김산과 김월. 무장한 괴한들, 하나둘 모여든다.
 무섭고 두려워 창백해진 김월과 달리 귀찮다는 듯 패도를 뽑고 일어나는 김산.
 김산, 김월을 자기 뒤로 슬그머니 숨긴다. 공주, 그 와중에 살짝 설레는.

김산 저참... 끈질기시네들.
 김산, 포효와 함께 순식간에 괴한들을 하나둘 물리친다.
 그런 모습을 두 손 맞잡고 간절히 바라보는 김월.
 그때 발의 통증 때문에 수세에 몰린 김산, 검을 떨어뜨리고 만다.
 순식간에 김산의 목까지 밀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칼끝. 목에서 피가 살짝 배
 어 나온다.
 김산의 탄식과 동시에 울리는 김월의 비명소리.

김산 얼른 가시오. (눈을 질끈 감는) 나는... 틀린 것 같소.
 김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떨어뜨린 칼을 집어 든다.
 그리고는 악! 기합을 내지르며 괴한들에게로 달려드는 김월.
 칼까지 든 거구의 몸이 눈이 핵 돌아서 앞뒤 분간 못하고 달려오자 괴한들도
 순간 움찔.
 김월, 이를 악물고 검을 내리치기 직전 김월의 눈앞으로 쳐들어오는 칼.
 놀란 김월, 그대로 기절. 김산, 김월이 놓친 검을 받아들고는 이내 놈들을 제
 압한다.

S#53. 논길(밤)

논두렁 한 칸에 뻗어 누운 김월.
 달빛에 빛나는 김월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김산.
 플래시백. 김월, 눈앞으로 쳐들어오는 칼에 놀라서 그대로 기절해버리는.
 피식 웃는 김산. 통증이 상당한 발목을 문지르며 멀거니 공주의 얼굴을 가만
 본다.
김산 내려다보면 전혀 다르단 말이야...
 김산, 조금 더 가까이 김월의 얼굴을 살피다 감긴 눈꼬리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본다.
 닦아주려고 손을 뻗는데 그때 눈을 번쩍 뜨는 김월.

김산 (민망한) 가, 갑시다, 이제.

땅딸막하지만 넓은 어깨에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김산의 뒷모습.
김산의 허리춤에 매단 장신구(공주에게 답례품으로 받은)가 바람에 살랑인다.
삼엽문이 새겨진 장신구를 본 공주.

김산(V.O) 두고 보시오. 내 반드시 공주님과 신라를 지킬 것이니.

공주 ... (뭔가 마음이 동한)

김산 얼른 오시오. 늦겠소.

답답한 김산, 김월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는데 내치는 김월.

김산 그럼 업히시든가.

김월 (말도 안 된다는 듯 보면)

김산 (김월 앞에 쪼그려 앉아) 하나도 안 무거웠소. 얼른 업히시오.

김월 ?

플래시백. 기절한 김월을 등에 업고 발을 절뚝이며 논길로 들어오는 김산.
김월, 이제 생각난 듯 창피한데.
괜히 앞질러 걸어가서는 여태 쪼그려 앉아 있는 김산 쪽으로 핵 돌아보는.

김월 흑... 숲에서...?

김산 (고개 끄덕)

김월 !

김산 설마 난 줄 몰랐던 거요? 난 단박에 알아봤는데?!

플래시백. S#40. 월궁 / 정전 / 앞마당

김월(V.O) 그때 그 숲에서 말이다.

환희(V.O) 아... 기억납니다!

이지러진 달을 올려다보는 김월, 긴 한숨을 내뿜는다.

김산 (공주를 주욱 올려다보는) 내가 자네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월 놀리는 것이냐?

김산 놀리다니! 그랬다면 이런 고생도 없었을 테지. 아깐 멋있었소.

김월 자고로 여인이라 한 손에 폭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더니!

김산 크든 작든, 여인은 모두 아름답소.

김월 사내는 키가 커야 아름다운 법이다...!

김산 ...(상처 입은 얼굴)

김월 (조금 미안한) ...라고 공주님이 말씀하셨다.

김산 왜...?

김월 그야 못났으니까. 못난데다 그 요상한 눈속임 신발까지 신었으
니 더더욱!

김산 자네도 그리 생각하시오?

김월 (쑥스러워 대답 못하는) ...

S#54. 월궁 / 정전 앞마당(밤)

환희,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김산이 안 나타나자 술렁이는 사람들.
그때 월담 아래로 향하는 금군 하나를 보고 몰래 쫓아가는 시중.

월담 아래 숨어 독침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금군들을 본다.

S#55. 월궁 / 김월의 처소 안(밤)

김월, 잔뜩 구겨진 양미간. 그 옆에 시립해 있는 술이.

김월 (속삭이듯) 놈들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내가 호위무사들에게 했던 만행도, 모두 다.

술이 설마... 상대등입니까?

김월 김산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희 장군을 부마로 올릴 기세다.

술이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얼른 대왕전하께 사실을 알려시지요.

김월 (눈을 질끈 감는) 소용없다. 기어코 일을 낼 기다.

술이 마마...

김월 (눈가가 붉어진) 이리도 한심한 꼴이 왕위를 물려받으려 했다니. 그 간 무얼 한 건지. 이제야 다 알아차린들 너무 늦어버렸다.

S#56. 후원 / 아산(밤)

김산의 신발을 벗기는 돌석. 피범벅에 냄새까지... 돌석, 기절할 지경.

돌석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고 오셔서는...!

돌석, 나무 깔창을 빼내고 가죽으로 만든 깔창을 꺼 보인다.

돌석 신어보세요.

김산 (신어보는) 이건 좀...

돌석, 냉큼 가죽깔창을 빼내고는 이번엔 짚으로 만든 깔창을 내보인다.

김산 그건 뭐냐?

돌석 공기층이 두둑이 들어간 나 이기! 소인이 직접 개발한 겁니다. 꼭 이 기계 해줄 겁니다.

김산, 신어보더니 놀라운 착화감에 눈이 번쩍. 엄지 척!

돌석 다행입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금군 하나, 냉큼 어디론가 달려간다.

김산 돌석아... 그때 불이 났을 때 말이다. 분명 모르는 자가 안채에서 도망쳐 나갔다 했었지?

돌석 네.

김산, 비장하게 검을 뽑아든다. 이윽고 인정사정없이 밤공기를 갈라낸다.

그때, 두 사람 앞에 나타나는 시중.

S#57. 궁 일각(밤)

시중, 표정이 좋지 않다.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김산.

시중 저도 죽고 이겨도 죽는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마. 니마저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없다.

김산 제가 도망가버리면 공주님과 대왕전하는 어찌구요.

시중 월궁은 이미.... 지고 있다.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가거라.

시중, 뒤돌아 가버린다.

김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를 죽이고 불을 지른 자가 상 대등... 맞습니까?

시중 ...!

S#58. 월궁 / 정전 앞마당(밤)

연단 휘장 속. 임금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도열해 있는 대등들, 서로 귓속말.

대결에 참석했던 서남인, 수문장 등 귀족들도 보인다.

월담 밑에서 독침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금군들.

임금 옆의 자리는 비어 있다.

김산과 환희 심호흡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다.

플래시백. 돌석의 등에 업혀 불에 타 폭삭 주저앉은 집을 보는 어린 김산.

김산, 씩 웃어 보이는 환희를 죽일 듯 노려본다.

임금(V.O) 반드시 부마가 되어 김월을 보좌해야 한다!

김산(V.O)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놈들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면.

(소리) 공주마마, 납십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일제히 돌아보는 사람들. 김산도 목을 빼고 보는데...

김월과 솔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임금 옆에 앉는 김월. 솔이는 그 뒤에 시립해 선다.

경악한 김산, 김월과 눈이 마주친다.

임금 시작하거라.

아직도 어안이 병병한 김산, 대결에 집중하지 못한다.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환희. 달밤에 울려 퍼지는 칼날 부딪히는 소리!

첫 칼을 마주한 두 사람. 환희를 죽일 듯 노려보는 김산.

환희, 비릿하게 웃으며 김산의 신발을 본다.

플래시백. 금군 하나, 환희에게 귓속말을 전하는. 피식 웃어버리는 환희.

김산, 밀리기 시작한다. 바짝 긴장한 김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는데.

김산, 그런 공주를 본다. 더욱 비장한 눈으로 환희를 향해 검을 내리친다.

당황한 환희,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김산에게 밀리기 시작한다.

상대등과 눈이 마주치는 환희.

상대등, 병부령을 쳐다보면 월담 아래 숨어 있던 금군들, 독침을 장전한다.

환희, 김산의 신발을 본다! 신을 겨냥하기 시작하는 환희.

뒷걸음질 치던 김산. 이윽고 두 팔 번쩍 들며

김산 잠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임금 무슨 일이냐.

김산, 갑자기 신을 벗기 시작한다.

장화 두 짝을 나란히 세워두고 맨발로 선 김산. 짧고 엉망진창인 발이 드러난다.

좌중들,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자조 섞인 웃음까지. 놀란 김월과 돌석.

임금 우째 된 일이고?

예부령 키 제한을 뒀더니 신에 무언가를 깔고 참석한 듯합니다.

병부령 노력은 가상하다만... (실소)

사람들의 비웃음 더욱 커지자 월담 아래 금군들, 독침을 내려놓는다.

김산, 시종에게 눈빛을 보내면

시종, 어딘가로 고갯짓을 하자 바짝 엎드린 금군들, 월담 아래로 출동한다.

상대등 왕실을 능멸하고 모두를 속인 저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김월, 절망적인 눈빛.

눈치 보던 서남인, 용기 내어 깔창을 벗어 던지다.

서남인 여기도 있습니다! 왕실을 능멸한 죄인!

놀란 궁인들.

이윽고 눈치를 보며 하나 둘 깔창을 벗기 시작하는 간택 후보자들.

자네도? 자네도? 서로 어이없어하며 동질감을 느끼는데.

더욱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공주.

시종 왕실을 능멸한 자들이 또 있는 듯 싶소만?

시종, 목젓을 하면 월담 아래 있던 금군들을 잡아 일으키는 수문장.

당황한 귀족들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금군들.

시종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직접 물어 보일까요?

상대등 ...!!

김산 소인! 왕실을 속인 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왕 뽑아든 검 승패는 보이고 싶사옵니다!

서남인 옳소!!

여기저기서 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 울리고.

임금 애초에 천명했듯이 공명정대한 대결을 펼치거라.

다시 칼을 마주한 김산과 환희.

김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달빛 아래 늠름하게 서 있다.

플래시백. 야산에서 달빛 아래 우뚝 서 있던 김산, 거인 같다. 산바람에 펄럭이는 포.

김산(V.O) 괜...참소?

야산에서와 같이 토끼 눈을 하고 김산을 바라보는 공주.

김산 (깔창을 벗으니 훌가분한) 이제 진짜로 싸워볼까나...?

부감으로 보면 어른과 어린 아이의 대결 같은 형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

기도.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맨발의 김산, 날렵하다 못해 분신술이라도 쓰듯 요리조리 순식간에 왔다 갔다. 당황한 환희, 말려들지 않으려 애쓴다.

김산, 현란한 발재간을 선보이다 발이 꼬여 그만 주저앉아버린다.

이때다...! 체중을 실어 힘껏 검을 내리찍는 환희.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한 손으로 환희의 검을 막고 앉은 김산.

놀란 좌중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리며 다시 기합 소리와 함께 김산을 향해 검을 내리치는 환희. 환희의 검은 애먼 흉바닥만 탕! 탕! 연속으로 내리친다.

기다란 환희의 두 발 사이로 들어가 순간 시야에서 사라진 김산.

저 멀리 환희의 등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산, 환희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려와 번쩍 뛰어오른다.

하늘을 날 듯 뛰어오른 김산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놀라워하는 좌중들의 표정.

이윽고 월궁이 찌렁찌렁 울릴 듯 힘껏 기합을 내지르며 환희를 향해 칼을 내리꽂는다.

S#59. 공주의 처소 안(밤)

김월, 무언가를 읽고 있다. 다가오는 솔이.

김산(V.O) 잡아도 잡아도 움켜쥐지 않던 치맛자락. 산바람에 날리우던 분향 아 직인데 간다 말도 없이 떠난 그 얼굴,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면 달에 그 얼굴 한가득 새기어 두고두고 꺼내 보리.

솔이 마마. 무사 김산의 향가 아니옵니까?

김월 (감동한) ...!

S#60. 옥 / 안(밤)

맨발 벗겨진 채 가뒀진 김산, 좁은 창문 밖으로 이지러진 달을 올려다본다.

김월(V.O) 못난 달은 왜 올려다보느냐?

김산, 소리 나는 쪽을 보면 김월이 들어와 있다.

화들짝 놀라 무릎 꿇고 넋죽 엎드리는.

김산 공주님을 알아뵈지 못하고 불충을 저질렀나이다!

김월 알긴 아는구나!

김산 (자기 뺨을 마구 때리며) 이 난쟁이똥자루만 한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가시를 드러내고... 할퀴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김월 ...원래 못난 놈들이 그러하지.

김산 (머리를 박고) 죽여주시옵소서!!

김월 나도... 너를 단박에 못 알아보지 않았느냐. 미안하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환희 장군을 후원에서의 너라 생각했었다.

김산 (놀란) ...!

김산(V.O) 그쪽은 아마 죽었다 깨도 내 맘 모를 것이요.

김월 고슴도치 맘은 고슴도치가 아는 법이지. 일어나 보거라.

김산,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월을 올려다보는.

김월 어느 순간부터 이 궁 안에서 나보다 큰 사람을 볼 수 없게 됐다.

플래시백. 궁 일각.

김월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는 궁인들. 모두 김월을 올려다보는.
지나가는 사내들, 김월의 키를 보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김월 맨날 치마 속에 다리를 오므리고 다녔다.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려고 말이다.

김산 ...!

김월 그들이 나를 싫어했다. 그러니 나도 그들을 싫어했다.

김산 공주님...

김월 (자조) 나는 여인이 아니라 하더구나. 세상 모든 사내가 그리 생각할 거라더구나.

김산(V.O) 그... 그쪽도 그리 생각하시오?

김월 너...도 그리 생각하느냐?

김산 ...(마음 아프다)

김월, 선고를 기다리듯 점점 떨어지는 고개. 더욱 이지러지는 달.

김산 공주님 먼저 대답하시지요.

김월 ?

김산 제가 먼저 여쭙지 않았습니까.

김월, 어리둥절하다가 점점 얼굴 가득 웃음기가 퍼져나기 시작한다.

S#61. 월궁 / 편전 안(낮)

누워 있는 임금, 병색이 완연하지만 표정은 밝다.

그 앞에 임금의 두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김월.

임금 키 오 척 반 이상이랬지, 신 속에 무얼 넣지 말라 한 건 아니니 용서 하거라.

김월 (빙긋이 웃는)

S#62. 몽타주

1. 정전 / 앞마당. 김월과 김산의 성대한 혼례식이 치러진다.
2. 궁 일각. 김산의 가르침 아래 무예를 익히는 돌석.
3. 편전. 편안하게 눈을 감는 임금. 그 앞에 오열하는 김월을 위로하는 김산.
4. 정전. 여왕으로 등극하는 김월.

S#63. 복문 근처 / 첨성대(밤)

부엉이 소리, 사각사각 나뭇잎 밟는 소리만 아득하다.
호위무사 차림의 돌석, 연신 주변을 경계하며 누군가를 뒤따르는데.
거침없이 앞장서는 김월과 김산, 점점 짙은 어둠 속을 파고들어간다.

돌석 대왕전하! 달밤에 산책이 과하십니다. 옥체를 상하실까...

김산 (돌아보며) 여태 따라오고 있었느냐? 눈치 없는 놈 같으니라고.

돌석이 쭈뼛거리며 돌아가면.

첨성대 근처에서 멈춰 서는 김월과 김산.

그 옆에 흐트러지게 만개한 수국 군락.
침성대, 가운데 뺨 뚫린 창구에 푸르스름한 달빛이 스며든다.

김월 도당 유학을 떠나고 싶었다지요?
김산 회피였지,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김월 (장난스레) 도대체 과인이 어디가 좋았습니까? 그때 그 향가를 보니
처음부터 푹 빠진 거 같더니만.
김산 나는 처음이었소. 모든 게. (한숨)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 같소.
김월 (홀깃)
김산 (웃는) 농이이요, 농! 뭐 하나 맘에 차지 않은 게 없었소.
김월 (웃는)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모난 성정 보듬어내느라...
김산 달은 원래 둥그렇답니다. 보이는 자들의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일 뿐.
전하도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월, 김산과 나란히 흐트러지게 핀 수국을 흐뭇이 바라본다.

S#64. 에필로그. 월궁 / 김산의 처소 안

목청이 떠나가라 울고 있는 왕자 아기를 안아 달래고 있는 김산.
그 뒤로 공주, 네 살도 넘어 보이지만 아직 기저귀를 찬 돌잡이다.
공주, 김산의 목을 잡고 늘어지며 놀아 달라 떼를 쓴다.
그때 임신한 배로 김월이 솔이의 시중을 받으며 힘겹게 들어선다.

김산 오셨소?
솔이 우짜자고 마마의 배를 이리 또 불리셨습니까?

김산 (헛기침) ...작은 고추가 맵다 안 하든가?
솔이 어머머!
김월 (공주 애기씨를 보며) 또 컷네, 또 컷어. 돌도 안 지난 아기가 벌써 이
리 크면 우짜노.
김산 어허~! 길쭉길쭉하니 이쁘기만 하구만, 왜 그러시오.
김월 (한숨) 나와 같은 길을 걸을 게 뻔하니 안 그럽니까.
김산 또 모르지. 이 아이가 다 컷을 땀 키 큰 여인이 각광받을지. 내 눈에
이리 이쁘데 분명 다른 사람 눈에도 그럴 것이요.
김월 (흐뭇이 보는)

끝.



작가 후기 차연수

구조적인 측면으로는, 후반부가 급작스럽게 끝난 느낌이 있어 후반부에 스토리를 첨가하면서 아올러 초, 중반부도 압축되었다. 남녀 주인공의 부족한 로맨스도 조금 더 보강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메인 플롯의 시대 배경 변화였다. 조선시대 공주의 호위무사를 뽑는 시책에서, 통일신라 말 사내아이의 씨가 말라버린 왕궁의 차기 왕권 후보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부마를 뽑는 대회로 크게 변모하였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에 기인한 캐릭터의 자잘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의 메인플롯은, '갈창을 끼면서까지 공주의 호위무사가 되려는 키 작은 흙수저 무사'였다. 서브플롯으로 그 무사와 '큰 키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공주'와의 로맨스를 두었는데 무엇보다 장르가 로맨틱코미디다 보니 로맨스를 원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 메인과 서브를 바꾸는 과정이 의외로 순탄치 않았다.

단순 로맨틱코미디가 아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성장' 플롯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시작한 이야기였으므로 '로맨스'에 초점을 두자니 '성장'이 주춤하는 등 둘 사이에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고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단막이다 보니, 나름 적절한 선에서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는 했으나 로맨스를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수정작업을 거치며 시청자들은 '로맨스'와 '성장' 중 무엇을 더 원할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 콤플렉스를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다 보니, 분명히 로맨스와 성장 모두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단막이라는 분량이 발목을 잡았다. 2부작으로 늘린다면 보여주어야 하는 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도 남았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로맨스'를 더 원할 것이라는 멘토링을 받고 조금 뒤늦게 더 그 부분에 치중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재밌는 로그라인'에 취중하다 보니, 별로 필요하지 않는 장치를 끌어들이는 부분도 있어 다 쓰고 나서 과연 내가 원하던 것이 모두 표현이 된 것인지 의문도 들었다.

초고에 비해 코미디가 약화된 부분도 아쉽다.

영상으로 제작되었을 경우, 의도치 않았지만 만에 하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지도 모를 단어나 상황 등도 지적을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더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정말 크게 깨달은 부분이다.

아직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과도기적 작품이지만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남녀 주인공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다.

캐릭터 모두를 사랑하게 된 것이, 이번 작품 수정 작업 중 가장 크게 얻은 부분이 아닐까 싶다.

2017
오 펜
작 품 집

문집 文集

신하은

작의

낡은 책장에서 먼지투성이 문집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리고...
표지를 펼치자마자, 그 시절 교실 한복판으로 순간이동하는 마음을 보고 알았다.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것을.
서툰 손으로 직접 쓰고 그린 인생 최초의 책, 문집.
그 안에는 잊고 살았던 순수한 내가 있고, 그리운 친구들의 목소리가 있고,
가슴 한 귀퉁이에 접어두었던 첫사랑도 살고 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그렇고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오늘,
문집 속에 기록된 추억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회색빛 일상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싱그러운 기억을 선물하려 한다.

등장인물

신소이(과거 16세 / 현재 31세)
파배기 같은 도시 소녀. 엄마가 재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면서, 잠시 시골 외갓 집에 맡겨졌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바람소리, 새소리, 같은 반 아이들의 말거는 소리까지도 차단해버린다. 자발적 외톨이로 지내려 하지만 진현에 의해 강제로 학급 문집 제작에 참여하게 되는데... 15년이 지난 후, 그녀가 다시 그곳을 찾는다.

송진현(과거 16세)
탄산수 같은 시골 소년. 서울 애들보다 더 서울 애 같은 하얀 피부와 청량한 외모, 그리고 한 학년에 세 학급뿐인 작은 학교에서도 전국구 성적을 자랑한다. 그런데 장래희망은 의사도 판검사도 아닌, 신부다. 학급 반장에 모범생이며 원리원

칙주의자인 그에게 소이는 서울이 아닌 별나라 사람이다.

여민철(과거 34세 / 현재 49세)
소이의 외삼촌. 논산훈련소의 소대장으로 복무중이며, 계급은 상사다. 훈련소에서의 별명은 계룡산 호랑이인데, 소이에겐 농담이나 따먹는 한심한 노총각일 뿐이다. 이상형은 사슴처럼 눈이 맑은 여잔데, 현실에선 진짜 사슴만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

봉선화(과거 29세 / 현재 44세)
소이와 진현의 담임선생님. 과학 교과를 맡고 있다. 착하고 순진하며, 눈치가 없다. 뼈뺌하게 구는 소이의 사연을 알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 한다.

그 외
소이 할머니, 소이 모, 성지, 기준, 도윤, 인쇄소 사장 등

줄거리

외할머니의 부고를 듣고 미국에서 돌아온 소이는 외갓집을 찾는다.
그곳은 소이가 열여섯, 봄과 여름 사이 잠시 머물렀던 작은 시골마을이다.
결혼을 앞둔 소이는 그곳에서 첫사랑 진현으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는다.

“늦었지만, 내 문집을 돌려줘.”

문집을 펼치며 시간여행을 떠나는 소이, 그녀의 열여섯은 쓸쓸하기 짝이 없다.

재혼해 미국으로 떠난 엄마의 데리러 온다는 약속은 기약이 없고
온통 질리도록 초록색뿐인 마을에서 그녀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데...
반장 진현이 전학 온 지 며칠밖에 안 된 소이더러 학급문집을 만들잔다.
절대 안 한다고 버텨보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추억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 문집을 내가 열여섯 살이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자신도 모르게 점차 진현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는 소이.
그러나 진현의 장래희망이 신부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낙담하는데.
엮힌 데 뺏친 격으로 청천벽력 같은 두 가지 소식마저 듣게 된다.
하나, 선생님의 부탁으로 진현이 소이와 문집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엄마가 소이를 데리러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소이, 진현의 손을 뿌리치고 가출을 감행하는데...
여름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소이는 진현의 숨겨진 상처를 알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문집이 완성되던 날... 진현이 사라진다.
진현의 가족이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두 떼먹고 야반도주했던 것이다.
슬픔에 잠긴 소이에게 진현의 전화가 걸려오고,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하지
만... 미국에서 엄마가 소이를 데리러 오면서, 두 사람은 엇갈리고 마는데.

소이 앞에 놓인 열여섯 여름의 갈림길은 그렇게 슬프고, 잔인했다.

15년이 흘러 서른한 살이 된 소이는 진현이 쪽지에 남긴 주소로 향한다.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과 소녀,
아직 끝나지 않은 첫사랑에 말줄임표 대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S#1. 시골길 + 외갓집 대문 앞(낮)

막 여름이 시작된 시골마을의 정경, 온통 초록으로 물든 가운데
검은 옷차림의 소이가 트렁크를 끌고 걸어온다.
넓은 대문 앞에 멈추는 소이, 상갓집임을 나타내는 근조등 달려 있다.
소이, 아련한 표정으로 그 등을 가만히 만져본다.

S#2. 외갓집 / 마당 및 평상(낮)

끼익- 마찰음을 내며 문이 열리면 소이, 트렁크 끌고 들어온다.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오래된 개량식 한옥.
이미 상이 끝난 듯 황량한 풍경. 마당에는 빈 천막만이 하나 남아 있다.
소이, 잠시 그리운 표정으로 빙 둘러보더니 은행나무 아래 평상에 걸터앉는다.
바람이 싸아아 기분 좋게 불어오면, 몸을 젖혀 그대로 평상에 눕는 소이.
눈 감은 소이 얼굴에 나뭇잎 사이로 새어나온 햇빛이 얼룩을 만든다.
그렇게 잠시 있는 위로,

민철(E) 너는 인마,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늦지?

어느새 다가온 민철, 위에서 소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소이 (눈 감은 채) 삼촌. 육개장 남은 거 없어? 기내식이 너무 맛없더라.

민철 얼씨구. 대체 저 뻔뻔한 건 누굴 닮은 건지.

소이 (눈 뜨며) 삼촌 얼굴에 침 빨기야. 나 외탁했잖아.

민철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약간 걱정스럽게) 근데 너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 앞두고 상갓집 오는 거 아니라더만.

소이 (일어나며) 아니지.

민철 (흠칫해서) 그치? 너도 좀 그렇지?

소이 육개장 말고, 할머니부터... 봐야겠어. (하고 싱긋 웃는다)

S#3. 산소 앞(낮)

새로 쌓인 봉분, 붉은 흙 위로 초록색 떼를 정성껏 입혀 놔다.
묘 앞의 제단 위에 소이 외할머니의 영정사진 놓여 있다.
소이, 그 앞에 포장지에 영어가 쓰인 젤리 봉지를 하나 올려둔다.

소이 (쫄그러 앉아 영정사진과 눈 맞추며 대화하듯) 할머니! 기억나? 재작년에 미국 왔을 때, 제일 맛나다고 했던 거.

민철 넌 나쁜 손녀야 인마. 말년에 당뇨로 고생하신 양반한테 사랑이 뭐냐.

소이 사랑 아니고 젤리거든?

민철 그게 그거지. ...그래도 좋은 계절에 가셨다. 봄꽃 구경도 다 하시고, 삼복더위 오기 전에.

소이 (잠시 멍멍하게 보다가 장난스럽게) 아무래도 나 머리 좋은 건 할머니 닮았나봐. 역시 외탁했어.

민철 (미소) 누나는 수술 잘 됐다면? 암이란 소식 듣고 얼마나 덜컹했는지.

소이 응.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야. 외할머니 돌아가셨단 얘기 듣고 한국 온다고 링거 뽑고 난리가 났는데... 엄마 말리다가 나 몸살 왔잖아. 힘이 넘쳐!

민철 (웃고) 어린하시겠냐. 아, 참... 발인 전날 누가 다녀갔다.

네 친구라면서.

소이 (의아한) 친구? 친구 누구?

민철 이름은 모르겠고. 혹시 너 오면 전해주라고 쪽질 하나 주고 갔는데. 얻다 뒀더라... (뒤적거리다가 안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아, 여겼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아서 펼쳐 보는 소이, 잠시 멍찐한다.
심장이 쿵 떨어진 듯 멍하게 쪽지를 보는 소이 위로,

민철(E) 참고로 난 안 퍼 봤다. 내가 말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어?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소이 (떨리는 목소리로) 삼촌... 아직 그대로 있어? ...내 방.

S#4. 외갓집 / 소이의 방(낮)

천장이 낮은 작은 방, 소이가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선다.
최근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에 가벼운 먼지 앉았다.
소이, 손 안의 쪽지를 내려놓고 책장에 나란히 꽂힌 책 두 권을 꺼내 든다.
두 권 모두 같은 책이다. 표지에는 3학년 1반 학급문집이라고 적혔다.
그리움이 묻은 눈길로 책을 바라보는 소이의 위로, 목소리 들려온다.

진현(E) 소이야! 신소이!

소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지만 그저 빈 방일 뿐 아무도 없다.
다시 책으로 눈을 돌리면,
그녀의 손에 들린 학급문집 뒤로 책상 위에 올려둔 쪽지의 글씨 선명하다.

흰 메모지 위에 정갈하게 적힌 한 문장.

“늦었지만, 내 문집을 돌려줘.”

‘문집’이라는 까만 글씨만 남은 채, 모두 하얗게 지워지며 타이틀. 문집

S#5. 과거. 학교 / 교실(아침)

[자막: 2001년] 미닫이문 드르륵 열린다.

이십대 후반의 단정한 여교사 선화, 출석부 들고 들어선다.

그 뒤로 교복 차림의 어린 소이가 따라 들어온다.

못마땅한 표정의 소이,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툭툭 성의 없게 빼낸다.

왼쪽 손목에는 코바늘로 뜯 붉은색 매듭팔찌가 걸려 있다.

웅성거리던 아이들 조용해지고, 반장 진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진현 차렷.

선화 (앉으라는 시늉하며) 오늘 인사는 생략. (진현 앉고 나면) 서울에서 새 친구가 전학 왔다. 이름은 신소이. 여러모로 낯설 테니까,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자.

학생 일동 (우렁차게) 네에.

선화 (소이 보며) 소이, 직접 인사할래?

소이 (선화 보며) 네. 일단 전 이판 데 적응할 생각 없구요. (학생들 보며 시 니컬하게) 나 몇 달 뒤면 미국 가. 잠깐 있는 거니까, 관심 꺼주라.

할 말을 잃은 선화와 황당하게 보는 학생들의 표정,

그리고 그런 소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쳐다보는 진현의 얼굴에서.

S#6. 과거. 학교 / 복도(아침)

진현, 과제물을 걷은 듯 노트 더미를 들고 복도를 걸어간다.

기준, 현란하게 드리블하는 시늉하며 다가와 진현에게 장난을 건다.

기준 송진현! (허공에 슛 쏘며) 점심 먹고 배스킷볼 한 판 어때?

진현 그냥 농구라고 해. 스펠링은 아냐? 영어 숙제도 안 낸 주제에. (하다가 뭔가 본 듯 멈칫하더니) ... 야, 이거 나 대신 교무실 좀 가져가라.

진현, 남학생에게 노트 더미를 안겨주고 황급히 가버린다.

S#7. 과거. 학교 / 교실(아침)

쉬는 시간, 학생들 자유롭게 무리지어 놀고 있는 교실의 풍경.

창가 자리에 앉은 소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눈을 감고 있다.

그때, 어떤 손이 다가와 소이의 귀에서 양칼지게 이어폰을 뽑아버린다.

소이 (올려다보며) 뭐야, 너.

성지 애들이 착해서 가만 있으니까, 나라도 할 말 하려고. 아까 그 태도는 뭐냐? 서울에서 왔다고 까부는 모양인데... 거기 빌딩밖에 더 있냐.

소이 (말 자르며) 그러는 논산은 논이랑 산밖에 없어서 논산인가봐?

성지 (기막힌) 뭐라고?

소이 그만하자. 유치하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꿈과 희망을 먹고사는 중학생들이 지역감정으로 싸워서 되겠니? (하고 다시 이어폰 꽂는다)

성지 야! 뭐 이판 게 다 있어.

흥분한 성지, 소이에게 달려들려는데 여학생 몇몇이 ‘아, 그만해.’ 하며 말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눈을 감아버리는 소이.

성지 너 이따 두고 봐.

성지, 씩씩거리며 제자리로 가면
뒤이어 교실로 들어오는 진현, 손에는 시루떡이 들려 있다.

기준 (진현에게 오며) 야! 내가 너 때문에 괜히 영어한테 붙들려서 숙제 안 했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 (시루떡 보고) 근데 이걸 웬 떡이냐?

진현 아...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

기준 먹어도 되지? (하고 떡에 달려든다)

진현,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가 소이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본다.

S#8. 과거. 외갓집 / 마당(낮)

소이 책가방 메고 힘없이 들어오면, S#2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평상 위에 메주와 나물들 널려 있고, 생활감 넘치는 과거의 풍경.
삼십대 초중반인 젊은 모습의 민철, 군복 차림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

민철 소이 왔어? 학교는 어때?

소이 (십드령하게) 별로야. (평상에 가방 내던진다)

민철 처음이라 그래. 원래 첫 낫발이 개 낫발이다.

소이 (주변 둘러보고) 할머니는?

민철 잠깐 읍내 가셨어. (사료포대 가리키며) 거기 밤비 밥 좀 줘봐.

소이, 사료를 한 바가지를 퍼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소이 밤비는 얼어 죽을. 차라리 녹용이라고 불러. (사슴뿔 만져보며) 이거 잘라다 팔면 비싼가?

민철 (기겁해서) 손대지마, 인마. 야, 넌 이팔청춘 그 좋은 나이에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냐. (생각하듯) 이팔에 십육... 맞지?

소이 춘향이 발랑 까진 거 봐. 이 나이가 원래 그런 나이야. (하다가) 근데... 춘향이 이몽룡은 열여섯에 사고치고, 우리 엄마도 결혼을 두 번이나 했는데... 삼촌은 왜 장가를 못 가?

민철 (발끈)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거든? 아직 이상형을 못 만나서.

소이 삼촌 이상형이 누군데?

민철 꽃사슴 같은 여자. (사슴 가리키며) 이 맑은 눈망울 좀 봐. 그리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프려면 이 정도 라인은 나와줘야지. 안 그러냐?

소이 (한심한) 개... 수컷이야. (하고 울타리에서 나가는데)

민철 (머쓱해서) 나도 알아, 인마! 아, 근데 이 자식이 한 마디를 안 지네. 너 삼촌 별명이 뭐 줄 알아? 계룡산 호랑이야! 논산훈련소에 딱 신병 들 들어오잖아? 개들 내 눈 쳐다도 못 봐.

소이 (굵게 남자 목소리로) 여민철 상사!

민철 (자동반사적으로) 상사 여. 민. 철! (하다가) ...또 까분다?

소이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

민철 (멈칫하더니) ...연락은 무슨.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타지 생활 어디 쉽겠어? 거기 식구들도 있는데... (하다가 아차 싶은 표정이다)

소이 뭔가 더 말하려는데, 대문 열리며 소이 외할머니가 들어온다.

소이 할머니 (민철 보고) 야, 시상에 나랏일 허는 사램이 뉘 사슴 밥을 주겄다고 집
엘 일찍 왔냐. (소이에게) 우리 소이는 학교 다녀오느라 대간하지?

소이, 힘없이 고개 끄떡인다.

그 뒤로 해가 저물기 시작한 하늘, 어느새 온통 붉어져 있다.

S#9. 과거. 시골길(밤)

띠엄띠엄 가로등이 켜진 어두운 시골길.

소이, 핸드폰을 허공에서 여러 번 흔들고 움직여본다.

통신가능 신호가 꺼졌다 켜졌다 불안정하다.

소이 (투덜거리는) 내년엔 월드컵 개최할 나라가 말이야. 전화도 안 터지
는 동네가 있다는 게 말이 돼?

핸드폰에서 9시를 가리키는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통신가능 신호, 세 칸이
된다.

소이, 기다렸다는 듯 급히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국제전화라는 안내가 뜨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다가 연결되는 전화.

소이 (반가워서) 엄마? ...엄마! 나야, 소이!

소이 모(F) (속삭이듯 작게) 어.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왜 안 자고...

소이 (통명스럽게) 내가 무슨 새 나라의 어린이야? 여기 아직 아홉 시밖에
안 됐거든? (하다가 금세 어리광 부리는) 엄마, 나 여기 싫어... 빨리
데리러 오면 안 돼? 오늘 새 학교에 갔는데...

소이, 반가움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데

‘이 시간에 누구야’

수화기 너머로 잠에서 막 깬 듯 부스스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이 모(F) (수화기 가리며 말하는 듯, 작게 들리는) 별거 아니에요. 더 자요.

소이 (들어버렸다, 멍청하는)

소이 모(F) (밖으로 나오는 듯한 소리 들리다가) 소이야. 여기 새벽 다섯 시야. 엄
마가 지금 통화하기가 좀 곤란하네. 우리 딸 착하지? 엄마 갈 때까지
할머니랑 삼촌이랑 잘 지내고 있어.

소이 (눈에 눈물 맺힌 채) ...싫어!

그러나 어느새 전화 끊긴 듯 뚜뚜뚜 소리가 나고, 그대로 굳어 있는 소이.

소이 (전화에 대고, 서글픈 목소리로) 내가 잘 지내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안 데리러 올 거잖아.

소이, 끊어버린 전화를 붙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렇게 혼자 한참을 썼다.
작은 흐느낌 소리와 함께 길게 늘어진 그림자, 외롭게 들썩인다.

S#10. 과거. 학교 / 교실(낮)

늦은 오후, 종례시간이다.

선화, 교탁 앞에 서서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선화 우리 학기 초에 학급문집 만들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학생 일등 네에!
선화 다 같이 만드는 거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진현, 선화의 말을 경청한다. 그러나 소이, 종례는 안중에도 없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선화 (웃으며 진현 보는) 일단 반장은 무조건이고. 진현이가 같이 만들 사람을 한 명 더 고르는 게 좋겠다. 누구랑 하고 싶어?
진현 (바로) 저, 신소이랑 하겠습니다.

남학생들, 휘파람 불고... 여학생들, 경악하여 일제히 소이를 본다.
창밖을 보고 있는 소이의 귀에는 음악소리만 들릴 뿐이다.
따가운 시선을 느낀 소이, 문득 옆을 돌아보면 다들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계속 이어폰을 꽂은 채, 영문을 모르겠는 소이의 얼굴에서.

S#11. 과거. 학교 / 복도(낮)

소이, 책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듯이 메고 걸어간다.
그때 뒷문으로 나온 진현이 소이의 뒷모습을 보고 소리친다.

진현 신소이!

소이, 무시하고 걸어가면, 진현이 달려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선다.

진현 어딜 가?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학급문집은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뭘 집어넣을...

소이 (말 자르며 대뜸) 너 나 알아?

진현 ...알지 못하진 않지.

소이 (짜증스런) 뭐라는 거야.

진현 일단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의견대로 구성부터 해보고...

소이 (그냥 가려는데)

진현 (소이의 팔목을 잡으며) 어디 가냐니까.

소이 (팔목 잡힌 채 쏘아보는)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놔.

진현 문집 만드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

소이 (짜증으로) 니네 반 문집을 왜 내가 만들어?

진현 넌 3학년 1반 아니야?

소이 잠깐 있는 거라고 말했지? 그리고 네가 뭘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을 시켜?

진현 싫으면 그때 얘기했어야지. ...아. 넌 종례도 수업도 안 듣지, 참.

소이 뭐라고?

진현 (똑바로 쳐다보며) 언제까지 있을진 내 알 바 아니야. 근데 하루를 다녀도 네가 맡은 일은 똑바로 해.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소이 (진현의 팔 세계 뿌리치며) 언다 대고 지적질이야?

소이, 사납게 보다가 뒤돌아서 가버린다.

기가 막혀 보던 진현, 가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보고 주워 든다.

소이의 팔에 걸려 있던 붉은색 매듭팔찌다.

S#12. 과거. 학교 / 중앙현관 앞(낮)

소이, 현관에서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툭 발을 건다.
앞으로 중심 쏠리며 넘어지는 소이, 위를 올려다보면... 성지가 서 있다.

성지 미안. 내가 다리가 길어서 주체가 안 돼. 거기까지 뻗어 있었네.
소이 (머리카락 쓸어 넘기며 일어나는)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여기저기서 태클이네.
(웃으며) 이 동네는 방과 후 옥상이니, 아님 소각장이니?

S#13. 과거. 논두렁길(낮)

연두와 초록 사이의 푸릇푸릇한 기운이 범람하는 논들 사이,
좁은 논두렁길 위에 소이와 성지가 대치하듯 비장하게 마주 보고 서 있다.

소이 나 진짜 귀찮은데, 힘들게 나와준 거거든? 십 분 안에 끝내자.
성지 추가시간 달라고 징징거리지나 마.

소이와 성지, 비장한 표정으로 동시에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잡는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악약거리며 힘을 준다.
점차 심해지는 육탄전! 두 소녀, 진흙탕 위를 굴러다니기 시작한다.
교복은 금세 얼룩덜룩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
허공에 발길질하던 소이의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어딘가 처박힌다.

소이 (싸우다 말고, 성지 팔이 눈에 들어온) 야, 너 거기 팔에 뭐 있어.

성지 내가 그런 일차원적인 속임수에 당할 것 같냐?
소이 (진지하게) 진짜.
성지 웃기고 있네! (하고 자기 팔 내려다보면, 거머리 붙어 있다) 으악!!!

성지, 팔을 미친 듯이 흔들어보지만 거머리 떨어지지 않는다.

소이 (팔 잡더니) 가만 있어봐. 나 이거... 허준에서 봤어. (하며 관찰한다)
성지 (눈 질끈 감고 비명 지르며) 깽! 그럼 어떻게 좀 해봐! 빨리! 빨리 떼주라고!
소이 그냥 잡아당기면, 살점까지 뜯긴다. 기다려봐.

소이, 손으로 살살 거머리 입 부분을 만지다가 쓰윽 떼어내서 눈에 던진다.
그제야 겨우 눈 뜨고 제 팔을 확인하는 성지, 작은 상처 보인다.

성지 (괜히) 너... 서울서 온 거 맞냐? 나보다 더 촌년 같은데.
소이 뭐래. 빨리 집에 가서 소독이나 해.

성지, 소이를 잠깐 보더니 뒤돌아 뛰어간다.
소이, 그 뒷모습에 피식 웃고는 자신의 매무새를 정리하다가 발을 내려다본다.
신발 한 짝이 없다.

소이 어? 내 신발... (하다가, 눈에 처박힌 운동화 발견한다)
(한숨) 아... 오늘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소이, 비탈길로 살살 내려가 운동화를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는다.
좀 더 손을 뻗어보려는 찰나 무게중심 잃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는데,

뒤에서 소이를 확 잡아당기는 손.

소이, 놀라서 보면 자신을 잡고 있는 사람, 진현이다.

소이 (당황해서) 뭐야. 누가 도와달래?

진현 (무표정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특이하게 하네.

진현, 진흙투성이인 소이의 양말을 보더니 갑자기 자기 신발을 벗는다.

소이 (괜히) 그만 거 벗어줘도 절대 안 신을 거거든!

진현, 소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벗은 자기 신발을 뒤편에 안전하게 둔다.

소이, 무안함에 얼굴 붉어지려는데... 맨발로 거침없이 눈에 들어가는 진현!

신발을 건져 나오는 진현, 소이 앞에 흙투성이 운동화 한 짝을 툭 내려놓는다.

눈이 동그해진 소이, 그런 진현을 보면

정작 진현, 아무 말 없이 자기 신발을 들더니 맨발로 저벅저벅 걸어간다.

소이, 그런 진현의 뒷모습을 잠깐 보는데, 가던 진현이 다시 뒤돌아서 걸어 온다.

소이 (주춤주춤 물러서며) 왜... 왜 다시 와?

진현 본론을 깜빡해서. (팔찌 내밀며) 별로 소중한 물건은 아닌가봐?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걸 보면.

소이 어? 내 팔찌... (비어 있는 자기 팔목 본다)

진현 다음엔 안 풀리게 끈을 좀 더 짹 묶어. (팔찌, 신발 가리키며) 둘 다.

(하더니 다시 걸어간다)

소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마워.

진현, 걸어가면서 한 손을 들어 보이고... 소이, 그런 진현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14. 과거. 외갓집 / 수돗가(저녁)

소이,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 흙탕물이 든 운동화를 뺀다.

낡은 칫솔로 운동화를 문지르다가, 자신의 팔목에 걸린 팔찌가 눈에 들어오면,

잠시 생각하듯 보다가 피식 웃는 소이. 들어오던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본다.

소이 할머니 아이고. 운동화가 어찌다 이렇게 된겨? 할매가 빨아줄까?

소이 ...아니. (운동화 보며) 그냥... 내가 빨게.

S#15. 과거. 학교 / 교문 앞(아침)

소이, 책가방을 메고 걸어 들어가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걸을 보면

어느새 다가온 진현이 옆에서 걷고 있다. 소이, 못 본 척 고개 돌리는데,

진현 (노트 내밀며) 고맙다며? 받아.

소이, 받아서 보면 곁에 <문집회의 노트>라고 적혀 있다.

소이 (새침하게) ...나 미국 가기 전까지 만이야. 나중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자기들도 모르게 입가에 슬쩍 미소가 걸리는 두 사람,

그렇게 나란히 걷는 데서.

S#16. 과거. 학교 / 교실(낮)

수업이 끝난 교실, 오후의 햇빛이 머무는 초록빛 칠판 위에
장래희망, 롤링페이퍼, 솜씨자랑, 가장 즐거웠던 일, 제일 무서웠던 일
다양한 단어들 적혀 있다. 그 앞에 진현과 소이, 나란히 서 있다.

진현 (칠판 보며)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애들이랑 상의해서 누가 맡을지
한번 나눠보자.

소이 (역시 칠판 보며) 흠.

진현 왜? 뭐가 이상해?

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사실 이해가 안 돼.

진현 (보면)

소이 ...문집 말이야. 솔직히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

진현 아까울까 봐.

소이 (물끄러미 보는)

진현 열여섯도, 3학년 1반도, 인생에 딱 한 번인데 그냥 잊어버리면 아깝
잖아. 그러니까... 이 문집을 네가 열여섯 살이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소이, 잠깐 생각하는 얼굴로 교실을 쓱 둘러본다.

S#17. 현재. 학교 / 교정(낮)

15년 뒤의 현재로 돌아와 어른이 된 소이, 창밖에서 교실을 바라본다.

유리창에 빈 교실과 소이의 얼굴이 어른어른 함께 비친다.

그녀의 손에 문집이 들려 있다.

S#18. 과거. 학교 / 교실(낮)

다시 15년 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교실이 금세 왁자지껄해진다.
소이, 가방 안의 도시락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며 잠깐 보는데,
진현, 소이의 책상 위에 자신의 도시락을 탁 내려놓고는 그 앞 의자에 앉는다.
놀란 토끼눈으로 진현을 보는 소이.

진현 (소이에게) 밥 안 꺼내고 뭐해?

기준 (반을 돌아보며) 제군들! 식량보급 부대가 옆 분단으로 이동했다.
(한 팔을 번쩍 들어 진현 가리키는) 모두 진군하라!

진현, 도시락 가방을 열면 삼단 도시락이다.

불고기예, 소시지에, 과일도 가득하다.

우르르 모여드는 남학생들. 그때, 성지도 의자를 끌고 와 소이 옆에 앉는다.

성지 (괜히) 나도 여기서 먹을래. ...내 책상 더러워지는 거 싫어.

소이,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아이들이 복잡복잡하게 몰려든 상황을 보다가,

인서트. S#16에서 이어지는 장면.

문집회의를 하던 오후의 빈 교실, 소이와 진현이 칠판 앞에 나란히 서 있다.

진현 문집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줄까?

소이 그게 뭔데?
진현 (싱긋 웃으며) 추억을 아주 많이 만드는 거야.

다시 점심시간의 교실.
소이, 왓자지껄 밥 먹는 아이들과 진현을 잠시 보다가,

소이 (갑자기) 야!
아이들 (화들짝 놀라서 보면)
소이 (반찬통 꺼내며) 이것도 먹어. ...맛있어. 달걀말이.

서로 얼굴 보던 아이들, 소이의 반찬통에서 달걀말이 우르르 가져가면...
소이, 잠깐 진현을 보고 그대로 웃어버린다.

S#19. 과거. 몽타주. 소이의 학교생활

학교, 과학실(낮)
과학실 칠판에 <오늘의 실험: 개구리 해부>라고 적혀 있다.
소이와 진현, 양동이 위의 비닐을 걷으면 개구리들 튀어나온다.
개구리 몇 마리가 과학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몇몇 여학생들, 비명을 지르며 의자 위로 올라가고 난장판 된다.
소이는 겁 없이 개구리 한 마리를 덩석 잡는다.

학교, 운동장(낮)
체육시간. 진현과 기준, 단체 줄넘기용 긴 줄을 들고 있다.
줄을 넘을 학생들이 몇몇 나가고, 소이는 안 한다고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잠시 후, 어느새 네댓 명의 아이들과 열을 맞춰 줄넘기를 하는 소이.
공중을 폴짝폴짝 뛸 때마다 소이의 올려 묶은 머리가 경쾌하게 흔들린다.
싱그러운 소이를 바라보는 진현의 미소에서.

S#20. 과거. 학교 / 교실(낮)

문집회의 노트를 보던 진현, 시끌벅적하게 놓고 있는 한 남학생에게 다가간다.

진현 오늘까지 제일 무서운 얘기 써주기로 한 거 안 잊었지?
경수 무서운 얘기? 그게 뭔데?
진현 네가 문집에 들어갈 학교 괴담 쓴다며.
경수 아... 맞다. 근데 어찌냐. 내가 그거 쓸 시간이 없어. 아빠가 경운기 사
고로 입원해갔고. 진짜 미안하다.
진현 그래? 어쩔 수 없지. 아버지 병간호 잘하고. (제자리에 와 앉는다)
소이 (얘기 듣고 다가온) 그럼 어떡해?
진현 우리가 대신 써야지.

S#21. 과거. 학교 / 과학실(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잠긴 과학실.
인체모형과 실험도구들 비춰지고 푸르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소이와 진현, 플래시를 들고 들어온다.

소이 매일 밤 열두 시, 과학실에서 귀신이 나온단 말이지?

진현 (긴장한) 그렇...대.

소이 (손목시계 야광불빛 보며) 11시 50분. 어디서 기다리지?

진현 (기함하는) 기다린다고? 이 시간에 여기 와본 걸로도 충분해.

소이 (캐비닛 가리키며) 아, 저기 숨어 있으면 되겠다!

소이, 씩씩하게 캐비닛 문을 열어젖힌다.

진현, 캐비닛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소이를 난감하게 바라보는데.

소이 안 들어오고 뭐해?

진현 어? ...어어.

진현, 마지못해 들어가면, 캐비닛 안이 굉장히 비좁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깝게 붙어 있는 두 사람.

진현 (괘한 헛기침) 흠흠.

소이 췌! 조용히 해. 그러다가 귀신 도망가면 어떡해?

진현 넌 진짜 귀신이 보고 싶은 거야?

소이 응. 궁금하잖아! 얼굴에 눈 코 입은 달렸는지, 발은 있는지, 그리고 21세기에도 하얀 소복을 고수하는지.

진현 너는, 여자애가... 무섭지도 않냐?

소이 귀신이 뭐가 무서워. 세상에 그것보다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데.

진현 그럼 넌 뭐가 제일 무서운데?

소이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 (하고, 작게 웃는다)

진현, 그런 소이를 미묘한 표정으로 잠깐 보는데,

소이 손목시계에서 파란 불빛과 함께 열두 시를 알리는 전자음이 울려 퍼진다.

소이 악, 깜짝이야!

하며, 진현에게 안기다시피 매달리는 소이.

그러다가 흠칫 떨어져보려고 하지만 워낙 좁아서 그것조차 쉽지 않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색해진 두 사람, 눈 둘 곳을 찾지 못하는데...

그 순간,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공포로 얼어붙는 소이와 진현!

소이, 조심스럽게 문 가장자리의 환기구 작은 구멍들에 눈을 가져다댄다.

어른거리며 보이는 검은 실루엣 들.

소이 (작게)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진현 (주기도문 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그 순간, 캐비닛 속의 소이와 진현에게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남자(E) 아무것도 못 먹었죠?

여자(E) 네. 배고파서 뭐든 통째로 씹어 먹을 것 같아요.

남자(E) 내가 그럴 줄 알고, 두 마리나 준비해뒀어요.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여자의 가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이와 진현, 사색이 된 채 서로를 마주본다.

남자(E) 잠깐 기다려요. 내가 직접 뼈랑 살이랑 발라줄게요.

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이와 진현이 ‘으아아악’ 비명을 지르며 캐비닛에서 뛰쳐나온다. 그와 동시에 과학실의 불도 환하게 켜진다.

실험대 위에 치킨 두 마리가 올려져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담임 선화.

전등 스위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소이의 외삼촌, 민철이다.

진현 (소이와 동시에) 선생님!

소이 (진현과 동시에) 삼촌!

당혹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에서.

S#22. 현재. 학교 / 운동장 스탠드(낮)

현재로 돌아와, 소이의 무릎 위에 펼쳐진 문집.

<내가 겪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 “과학실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글 보인다.

스탠드에 앉은 소이, 문집 속의 일을 회상한 듯 가볍게 미소 짓는다.

선화(E)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조카님?

소이 (반갑게 껴안는) 외숙모!

선화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소이 삼촌이 외숙모 학교에 계시다길래 왔어요.

선화 응. 전화 받았어. (문집 보더니) 어머, 그게 아직도 있었네?

소이 ('과학실에는 비밀이 있다' 펼쳐 보이며) 과학실... 기억나시죠?

선화 (까르르 웃으며) 어머머. 나 당직 선다고 그이가 치킨 사왔었지, 그때. 근데 이게 왜 경수 이름으로 나와 있지?

소이 (웃으며) 그때, 다들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서 돌이 썼거든요. 저랑 진현이... (하다가 멈칫한다)

선화 (미소 띤 채) 그땐 생각도 못했는데. 소이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몇 개나 내놓은 출판 편집자가 될 줄이야.

소이 (웃으며) 저만 변했나봐요. 학교는 그대로예요. 저 나무도... 똑같고.

소이가 보는 곳에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S#23. 과거. 느티나무 위(낮)

15년 전. 교복치마를 입은 소이, 느티나무 가지 위에 걸터앉아 있다.

나무 아래의 진현, 소이의 치마가 아슬아슬하게 날리는 걸 보고 고개 돌린다.

진현 (땀 데 보며) 그거 우리 학교 교목이야.

소이 이게 그나마 학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맘에 드네. 뭐든지 다 보여.

진현 (신경 쓰이는) 너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진현, 뒤를 돌아보면 남학생들 몇 명이 소이를 힐끔거리며 지나간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진현,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흰 티셔츠 차림이 된 진현, 나무에 걸터앉은 소이에게 벗은 셔츠를 던져준다.

진현 이거라도 좀 덮고 있던가.

소이 싫어. 너도 더워서 벗어놓고, 왜 날더러 덮으래? (다시 치마 날리고)

진현 (고개 돌리고) 야, 너는... 무슨 여자애가! (언성 높아진) 내려와, 얼른. 나무 부러져!

소이 아, 진짜 잔소리. 네가 교장선생님 훈화말씀보다 더한 거 알아?

소이, 가지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일어난다. 멋지게 뛰어내리려는데...

구두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지듯 떨어지는 소이, 눈을 질끈 감는다.

쿵- 소리와 함께 잠시 후, 눈 떠보면 소이 아래에 진현이 깔려 있다.

소이 (몸 일으키며) 야. 송진현!
진현 (미동도 않는)
소이 (가볍게 흔드는) 야야. 송진현. 너 괜찮아?
진현 (아무 반응 없는)
소이 (놀라서 세계 흔들며) 진현아! 눈 떠 봐! 눈 좀 떠 보라고!
진현 (눈 감은 채) ...싫어. 눈 부셔.
소이 아, 놀랐잖아! 너 괜찮아?
진현 괜찮지... 않지... 않아.
소이 그게 뭐야?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진현 (눈 뜨며 씩 웃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 괜찮다고.
소이 어디 부러진 데 없나 일어나봐.
진현 (상체 일으켜 앉으며) 너는 네 몸무게에 그렇게 자신이 없냐?
 애들 문집에 들어갈 장래희망 다 적어냈어. 너만 빼고.
소이 ... 그냥 네가 아무거나 써 넣어. 난 꿈같은 거 없으니까.
진현 그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거지.
소이 (보면)
진현 보기가 무한대잖아. 네가 아직 안 고른 것뿐이라구. 그러니까... 제일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걸로 골라 답아.
소이 (피식 웃고) 그러는 넌 뭘 골랐는데?
진현 (빙그레 웃더니) 글썸... 나 먼저 들어간다. (하고, 일어나서 걸어간다)
소이 (진현 뒷모습에 대고) 장바구니에 뭐 담았냐니까?

S#24. 과거. 외갓집 / 부엌(밤)

소이,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쏘시개로 불을 휘젓고 있다.
그때 민철이 들어와 소이 옆에 같이 쪼그리고 앉으면,

소이 담탱이가 어딜 봐서 꽃사슴 같냐? 눈도 작고 목도 짧더만.
민철 (쥐어박는) 선생님한테 담탱이가 뭐야 담탱이가.
소이 (짜려보며) 한 대만 더 때려. 학교에 확 소문내버릴 거니까.
민철 (움짤하고, 군인 말투로) 시정하겠습니다! (잠깐 웃고) 선화 씨 말이... 너 요즘 좋아 보인대더라? 애들이랑도 잘 지낸다 그러고. 서울서는 친구도 없었다며?
소이 (발끈하며) 귀찮아서 안 키운 거거든?
민철 암만 생각해도 넌 딱 시골 체질이야. 생각을 해 봐. 영어도 못하는 게 미국은 어떻게 가냐? (떠보듯) 여기서 삼촌이랑 할머니랑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소이 (잠깐 있다가) 엄마가... 뭐라고 해?
민철 (화들짝 놀라며) 아니! (일어나며) 우리 밤비는 잘 자고 있나...
 민철 나가고, 아궁이의 모닥불을 가만히 보는 소이의 눈빛이 쓸쓸해진다.

S#25. 과거. 외갓집 / 소이의 방(밤)

막 씻은 듯 마알간 얼굴로 들어오는 소이, 책상 앞에 앉는다.
로션 뚜껑을 열다가 책상에 쌓아둔 아이들의 장래희망 쪽지들을 보고, 퍼뜩 뭔가 생각난 표정이 된다.

소이 맞다. 송진현 장래희망. (쪽지 더미 막 뒤지면서) 앤 대체 뭐가 되고 싶은데, 말을 안 해주는 거야...여겼다!

진현의 쪽지를 보는 소이, 점차 표정이 굳어져간다.

S#26. 과거. 학교 / 운동장 스탠드(낮)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는 소이, 농구장의 진현을 보고 있다.
그때 성지가 옆에 다가와 풀썩 앉으며 소이에게 캔 음료를 내민다.
소이, 웃으며 받아들다.

성지 (건배 제의하듯 자기 캔 내밀며) 일잔 해.

소이 (피식 웃으며 건배하고) 잘 마실게.

성지 (농구하는 진현 보며) 잘생겼지. 성적은 전교도 모자라서 전국구지. 거기다 비료공장 하는 우리 동네 최고 부잣집 아들이지. 근데... 좋아하지 마라. 송진현.

소이 (버럭) 좋아하긴 누가 좋아해?

성지 내가 잠깐 중독된 적 있는데, 금방 끊었어. 정신건강에 해로워.
(소이 보며) 금단의 열매거든. 장래희망이 신부님이시란다.

소이 (알고 있다) ...그거야 아직 모르는 거 아냐?

성지 내가 같은 성당 다녀서 아는데, 진짜야. 재 예비 신학생 모임도 나가.
(소이 어깨 툭툭 치고 간다)

소이 (멍하니 혼잣말) 나한테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거 고르라더니... 자기는 뭐 저런 걸 골랐냐.

S#27. 과거. 학교 / 교실(낮)

수업이 끝나 텅 빈 교실.

책상에 멍하니 앉은 소이 앞에서 진현이 왔다 갔다 하며 뭔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진현 (소이 얼굴 앞에서 손을 휘휘 저어보이며) 내 말 듣고 있어?

소이 (무표정하게) 정신 사나워. 손 치우고, 하던 말이나 계속 해.

진현 이대로는 부족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아쉽다구.
마지막으로 문집에 더 넣을 만한 거... 뭐 없을까?

소이 (잠깐 생각하다가) 흠... 이걸 언제? 십오 년 뒤의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나중에 보면, 타임캡슐 같지 않을까?

진현 좋은데? 근데, 왜 하필 십오 년이야? 어중간하게.

소이 글썄... 십 년 뒤는 이르고, 이십 년 뒤는 늦으니까?

그때, 교실 앞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이 살짝 몸을 내밀어 안을 들여다본다.

선화 소이도 같이 있었구나. 진현이 잠깐 선생님 좀 볼까?

S#28. 과거. 학교 / 교무실(낮)

교무실, 창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선화의 정갈한 책상.

선화, 창을 등지고 앉아 있고, 진현은 그 앞에 창가 쪽을 바라보듯 서 있다.

선화 진현이 문집 만드느라 고생이네?

진현 아니에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선화 (웃으며) 다행이다. 선생님 부탁 들어주느라 수고가 많아. 무엇보다 소이랑 같이한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앞으로도 소이 잘 부탁해. (얼굴 살짝 붉어지며) 소이 외삼촌이... 그러시더라. 소이 여기 계속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진현 (보면)
선화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데려가시기가 여의치 않은가 봐.

S#29. 과거. 학교 / 교무실 창가 담벼락(낮)

교무실의 창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깥 담벼락,
 안쪽의 선화와 진현 모습 보이고... 그 창 옆의 담에 기대 선 소이 모습 보인다.
 모두 들은 듯 상처 입은 표정이다. 텅 빈 소이의 얼굴 위로,

선화(E) 상처가 많은 친구야. 좀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신경 써서 챙겨줘.

소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돌려 창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옆으로 창 안의 진현 모습 보인다.
 안과 밖에서, 그러나 마치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있는 소이와 진현의 얼굴.

S#30. 과거. 학교 / 수돗가(낮)

소이, 수돗가에서 손을 씻고 있다.
 천천히 가볍게 손을 문지르다가 점차 그 동작이 신경질적으로 거세진다.

어느새 곁에 진현이 다가와 있다.

진현 (장난스럽게) 여기 목욕탕 아닌데.
소이 (손 씻던 행동 멈추고, 수도꼭지를 잠근다)
진현 (문집회의 노트 내밀며) 선생님도 좋대.
소이 (짜늘하게 보는)
진현 (웃으며) 네가 낸 아이디어 말이야. 십오 년 뒤의 나에게 쓰는 편지. (하고 받으라는 듯 재차 문집회의 노트를 내민다)
소이 (그대로 바닥에 팽개쳐버린다)
진현 (놀라는) 이게 무슨 짓이야?
소이 왜 하필 나야?
진현 (보면)
소이 왜 나한테 문집을 같이 만들자고 했냐구.
진현 (순간 당황한) 그거야... 그건, 그러니까...
소이 답임이 잘 챙겨주래? 불쌍한 애니까. 엄마가 미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믿고 있는... 등신 같은 애니까!
진현 그런 거 아니야.
소이 거짓말 같은 건 못하는 줄 알았는데. 교무실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
진현 (답답한) 그게 아니라... 좋아. 사실대로 말할게.
소이 (냉랭하게) 어쩌나. 이제 뭐라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이 위선자야.

다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소이의 표정,
 망연자실한 진현을 뒤로한 채 서늘하게 걸어간다.

S#31. 과거. 외갓집 / 뒷마루(저녁)

소이와 외할머니, 뒷마루에서 작은 소반을 놓고 저녁 먹는 중이다.

달팽이 모양의 모기향이 자작자작 타들어가고 있다.

소이 (밥 먹다 말고) 할머니. 나 그냥 여기 살까?

소이 할머니 (화색 돌며) 참말이여? 그러. 잘 생각했어. 할매랑 삼촌이랑 여서...

소이 (표정 냉랭하게 바뀌는) 엄마가 그러라고 시켜?

소이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여?

소이 할머니도 삼촌도 틈만 나면 나 미국 못 가게 할라 그러잖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엄마... 안 오는 거야?

소이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여. 할매는 숨키는 거 없어. 그냥 너 괜한 데 가서 고생 할까 봐 그러지 판 맘 아녀.

소이 (가만히 보면)

소이 할머니 (달래는) 소이야. 지금 니 엄니도 죽을 맛일꺼. 니 엄니라고 너 두고 가며 좋기만 했겠어. 가심이 깎깎할 거여. 근데 어쩔꺼. 사램이 새로 맞춰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너까지 가따리로 따라가는 건 니 엄니한테 못할 짓이여.

소이 내가... 엄마한테 곁다리야?

소이 할머니 (안 되겠다 싶은지) 소이야. 니 엄니, 훌뎀으로 너 키우느라 백화점서 다리 통통 부어가며 십 년 일했어. 그러다 좋은 사램 만난겨. 니 엄니 도 한번쯤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소이 (눈물 고이는) 그럼... 나는? 내 행복은?

소이 할머니 (안 되겠다 싶은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오늘따라 왜 이런다. (상 아래 광주리에서 옥수수 꺼내며) 할매가 너 좋아하는 강녕이 쪼는디.

소이 ...안 먹어.

소이, 밥 먹다 말고 그냥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린다.

안쓰럽게 보다가 말없이 소반을 치우기 시작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S#32. 과거. 외갓집 / 소이의 방(밤)

건넌방에서 민철의 코고는 소리 들려온다.

책상에 앉아 있던 소이,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내서 비장한 표정으로 본다.

그리고 여권에 끼워진 쪽지를 꺼내보면, 미국 LA의 주소 적혀 있다.

소이 (여권 덮으며 비장하게) 안 데리러 오면, 내가 못 갈 줄 알고?

S#33. 과거. 외갓집 / 뒷마루 + 마당(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른 아침,

소이 외할머니가 소이의 방에서 황급히 나온다.

소이 할머니 민철아! 아이고, 민철아! 이 일을 어찌면 좋냐! 방에 소이가 없다!

민철 (부스스하게 방에서 나오며) 그게 뭘 소리야.

소이 할머니 다 내 잘못이여. 경찰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혀.

민철 (슬리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내려와) 에이, 일찍 학교 갔나보지. (하다가 울타리 보더니 경악하는) ...엄마! 경찰서! 경찰서에 신고해. 밤비... 밤비가 없어졌어!

소이 할머니 (주저앉으며) 이놈아. 소이 서랍에 그 뭐냐... 여권이 없어졌단 말여.

S#34. 과거. 외갓집 / 대문 앞(아침)

담벼락에 서서 소이를 기다리고 있던 진현에게도 집안의 소리가 들려온다.

소이 할머니(E) 아이고. 소이야...

진현, 핸드폰으로 소이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온다.

세워뒀던 자전거에 황급히 올라타는 진현.

S#35. 과거. 몽타주. 소이의 가출

1. 동네 어귀(아침)

소이 외할머니와 민철이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있다.

마을 어귀를 찾아다니며 연신 소이를 부르는 두 사람의 다급한 모습.

2. 시골길(아침)

소이, 사슴 밤비와 함께 하염없이 걷고 있다.

3. 버스정류장(아침)

자전거를 타고 온 진현, 버스정류장 앞에 멈춰 서지만 아무도 없다.

진현, 다시 자전거 페달을 굴리기 시작한다.

S#36. 과거. 시골 / 도로변(낮)

차가 뽕뽕 달리는 시골길의 도로변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소이와 밤비.
커다란 배낭을 멘 소이, 걸어가면서 밤비에게 말을 걸 듯 계속 중얼거린다.

소이 녹용아, 미안하다. 너만 희생하면 누나가 미국에 갈 수 있어. (사슴이 뿔을 흔들면) 그래, 화나는 것도 이해해.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 비싼 뿔을 달고 다니냐.

그때 갑자기 후두두둑 빗방울 떨어지며, 거센 소나기가 오기 시작한다.

잠시 후, 소이와 밤비 둘 다 노란 우비를 챙겨 입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비가 더욱 거세져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다.

S#37. 과거. 숲 / 큰 나무 아래(낮)

잠시 비를 피하려 큰 나무 아래 사슴과 함께 서 있는 소이.
먹구름 낀 하늘, 어둑어둑한 가운데 멀찍이에서 자전거가 달려온다.
소이, 뭔가 싶어 보면 점차 가까워지는 자전거... 진현이다.
쫄딱 젖은 진현, 자전거에서 내려 소이에게 다가온다.

소이 (못 본 척 등을 돌려보지만)

진현 비 오는 날엔 역시 노란 옷인가 봐. 백 미터 밖에서도 너만 보여.

소이 (휙 돌아서서, 노려보며) 내가 분명히 꺼지라고 말한 것 같은데.

진현 너 집에 들어가면, 그때 꺼질게.

소이 불쌍한 애 뒤통다꺼리도 모자라서 이제 불량학생 선도도 하게?
표창장이라도 줄까?

진현 네가 오해한 거... 이해해.

소이 오해? 이해? 둘 다 틀렸어. 난 너 오해한 적 없고, 넌 나 이해 못해.

진현 일단 집에 가자. 가족들 걱정하셔.

소이 (자조적으로) 걱정 좋아하네. 어제 못 들었어? 나 겔다리야.
혹 덩어리야! 엄마 인생에 짐만 되니까 가지치기 당한 거라고!

진현 (안타까운) 그렇게 생각하면 맘이 편해? 왜 스스로한테 상처를 줘?

소이 (악에 받친)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지 마.
너처럼 다 가진 인간이 하는 배부른 충고, 역겨우니까.

진현 ...너야말로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소리 높아지는) 나도 너랑 똑
같아. 우리 엄마도! 형도! 외국에 있다고!

소이 (보면)

진현 (슬픈 눈으로) 나도! ...보고 싶은 사람들 못 본다고.

예상치 못한 얘기에 놀란 소이, 진현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슬픈 눈으로 말없이 서로를 보는 두 사람의 모습.

CUT TO. 점차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소이와 진현,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다.

진현 이혼하셨어. 형은 엄마 따라 영국으로 갔고, 나는 아버지랑 살고.

소이 (애처롭게 보면)

진현 그렇게 보지 마. 새어머니, 좋은 분이셔. 내 삼단 도시락 봤잖아.

소이 미안. (팔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이 팔찌 엄마가 만들어 준 거야.
우리 엄마 재혼했어. 미국 사는 아저씨랑. 그 아저씨도 애들이 있대.

그래서 바로 못 데려간 거야, 나...

진현 (물끄러미 보다가) 그때... 왜 너냐고 물었지?
알고 싶어? 내가 문집 같이 만들자고 한 이유.

소이, 진현을 바라보면... 진현, 생각에 잠긴 얼굴로 소이를 본다.

S#38. 회상. 학교 / 복도 및 중앙현관(낮)

S#6에서 이어지는 장면이다.

기준에게 노트 더미를 안겨주고 뛰어간 진현, 한 할머니 앞에 다다른다.
무거운 보통이를 들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닌 소이 외할머니다.

진현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제가 교문 앞까지 들어다드릴게요.

소이 할머니 아유, 아니여. 하나도 안 무거워.

진현 (뺨어들며) 에이, 그래두요.

소이 할머니 고마워. 몇 학년이여?

진현 3학년이요.

소이 할머니 그럼 우리 소이랑 친구네. 오늘 전학 왔을겨.

진현 ...신...소이요?

소이 할머니 응... 맞아. 우리 소이. 잠깐만 기다려봐. (보통이 다시 뺨어서 바닥에
서 풀어서는) 이거 시루떡인데, 교무실에 돌리고 남은 거여. (진현 손
에 쥐어주며 다정하게) 우리 소이하구, 다투지 말고 친하게 지내.

진현 (따뜻하게 보며) 네에.

S#39. 과거. 숲 / 큰 나무 아래(낮)

진현에게 얘기를 전해들은 소이, 몰랐던 사실이다. 어쩐지 먹먹해진다.

진현 그때, 생각했어. 아... 그 신소이라는 싸가지 없는 애랑 다투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지.

소이 (가볍게 째려보는) 뭐야?

진현 (웃으며) 그러니까 순전히 내 선택이라고.

소이 (가만히 보다가) 너... 신부님 될 거라며?

진현 (말없는 미소로 보다가 사슴에게 가며) ...엔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사슴 쓰다듬으며) 넌 이름이 뭐냐?

소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녹용. 아... 밤비.

진현 (피식 웃는) 왜 데려왔는지 알 만하다.

S#40. 과거. 마을 / 성당 앞(저녁)

소이, 사슴의 목줄을 잡고 진현, 자전거를 끌고 걸어온다.

간격을 두고, 그러나 발걸음을 맞추며 걷던 두 사람. 마을 어귀에 다다른다.

그때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고... 성당을 본 소이, 발걸음을 멈춰 선다.

소이 (성당 보며) 나 저기 가 보고 싶어.

진현 갑자기... 성당은 왜?

소이 (장난스레) 지은 죄가 많아서?

진현 (핸드폰 내밀며) 그럼 집에 전화해서 고해성사부터 봐.

소이 (입을 삐죽이며, 핸드폰 받아든다)

S#41. 과거. 성당 / 예배당(저녁)

조심스럽게 문을 열면 이미 미사가 시작된 예배당 안, 사람들 일어서 있다.

소이와 진현, 살금살금 들어와 맨 뒷자리에 선다.

호기심으로 두리번거리는 소이의 얼굴 위로, 신부의 목소리 들려온다.

신부(E)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 또한 사제와 함께.

신부 이 미사는 김난희 마리아를 위한 연미사로 봉헌됩니다.

소이 (작게) 연미사가 뭐야?

진현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소이 그걸 왜 연미사라 그래?

진현 (미소로) 글썸. 죽어서도 인연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아닐까.

S#42. 과거. 성당 전경(저녁)

작은 성당의 종탑 위로 노을이 붉게 걸려 있다.

성당 들의 커다란 나무에 사슴이 묶여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S#43. 과거. 외갓집 / 마당 및 대문 앞(밤)

대문이 열리고 소이가 사슴 밤비와 함께 쭈뼛쭈뼛 들어온다.

뒷마루에 앉아 있던 외할머니, 버선발로 달려 나온다.

소이 할머니 (소이 얼굴 쓰다듬으며)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갔다 온겨. 할매가
얼때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찾아다니다 애간장이 다 녹았어.

소이 할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울먹거린다)

소이 할머니 아니여. 안 다쳤으면 됐어.

민철 (밤비 끌어안고) 밤비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뿔은 무사한
거 맞지? (소이에게) 야, 너 이 자식... 감히 잠자는 계룡산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

소이 (할머니 뒤에 숨으며) 할머니...

민철, 소이를 잡으려고 계속 손을 뻗어 보지만, 할머니에게 연신 가로막힌다.
열린 대문 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던 진현, 안심한 표정으로 미소 짓는다.

S#44. 과거. 몽타주. 문집 제작과정

1. 학교, 복도(낮)

책가방을 멘 소이,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 진현 걸어온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진현이 문집회의 노트 바통터치 하듯 내밀면, 건네받는 소
이. 두 사람의 입가에 미소 감돈다.

2. 학교, 교실(낮)

칠판에 <십오 년 뒤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적혀 있다.

다들 사각거리며 집중해서 뭔가를 쓰는 모습.

성지, “청룡여우주연상을 받은 성지에게”라고

기준, “한국의 마이클 조던 박기준!”이라고 쓰고 있다.

소이와 진현 역시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간다.

3. 학교, 컴퓨터실(낮)

소이와 진현, 컴퓨터실에서 포토샵으로 표지를 만들고 있다.

티격태격하며 색깔과 폰트를 고르는 두 사람.

문집 표지,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점차 형태를 갖춰간다.

S#45. 과거. 학교 / 교실(낮)

소이와 진현, 책상 앞뒤로 앉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색연필로 칠하고 있는 소이, 또박또박 바른 글씨로 무언가를 적는 진현.

소이, 진현 (동시에 펜을 놓으며) 끝!

소이 (뒤돌아서) 어디 봐봐.

진현 네 것도 쥐 봐.

웃으며 서로 종이를 바꾸는 두 사람. 진현, 소이가 그린 일러스트를 본다.

소이는 <가장 하고 싶은 말 릴레이>를 보고 있다. 번호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소이 (손가락으로 훑어 내리다가) 16번 송진현이 17번 신소이에게.
...나랑 같이 문집 만드느라 수고했다...?

진현 (뒤에서 무심하게) 수고했어.

소이 (돌아보며) 넌 나한테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

진현 (대수롭지 않게) 그럼 뭐가 더 있겠어? 그거 쥐. 이제 합치게.

뿔로통해진 소이, 종이를 툭 던지듯 주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소이의 반응에 잠시 의아해하는 진현.

CUT TO.

소이와 진현, 꽤 두꺼운 종이 뭉치 위에 컴퓨터로 만든 표지를 붙인다.

드디어 완성된 문집의 초본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다.

소이 끝났다...

진현 (웃으며) 응, 축하해. 고생했어.

소이 (문집 표지를 쓰다듬으며) ...처음이야.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뭔가를 만든 거.

진현 그 누군가가 나라서... 영광이야. (빙그레 웃는다)

소이 (진현을 뭉클하게 본다)

S#46. 과거. 읍내 거리(낮)

소이와 진현, 완성된 문집 샘플을 들고 인쇄소로 향하는 길이다.

작은 시골 읍내에 들어서는데, 기준이 반갑게 한 손을 들고 인사한다.

기준 둘이 어디 가냐? 데이트?

소이 (썰죽하게) 그런 거 아니거든.

기준 (진현 보고) 너네 엄마 우리 집에 계신다.

진현 그래?

기준 오늘 우리 엄마 께돈 탄다고 동네잔치 냈어. 보쌈이랑 족발 사러 간다.

이따 너도 와라. 게임이나 한 판 하자.

진현 ...봐서.

기준 그래. 먼저 간다!

소이 '가자' 하고 눈짓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진현의 얼굴에 불안이 스친다.

S#47. 과거. 인쇄소 안(낮)

기름과 잉크 냄새 나는 낡은 기계들로 가득한 작은 인쇄소,

양팔에 토시를 낀 인상 좋은 사장이 소이와 진현에게 문집 샘플을 건네받는다.

인쇄소 사장 어이구, 수고했네. 3학년 1반, 몇 권 필요해?

진현 서른 세 권이요.

소이 진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책 만들어주세요!

인쇄소 사장 (호탕하게 웃으며)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귀한 걸 맡겨줬는데. 살아 보면 남는 건 추억밖에 없어! 기여, 아니여?

소이 (사투리 따라하는) 기여유.

진현 (소이를 귀엽다는 듯 보고) 아, 얼마나 걸려요?

인쇄소 사장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로 갖다 주면 워며?

소이, 진현 (동시에) 네! 감사합니다!

인쇄소 사장 어유. 내가 감사하쥬.

S#48. 과거. 인쇄소 앞(낮)

소이와 진현, 인쇄소 문을 열고 나온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머뭇거리듯 잠깐을 서 있는데, 어색한 기운이 감돈다.

소이 (먼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네?

진현 그러네. (하고 더 이상 말이 없다)
소이 (괜한 어색함에) 그럼... 이만 갈까? (왼쪽 가리키며) 난 이쪽.
진현 (오른쪽 가리키며) 우리 집은 저쪽이야.
소이 그래? 그러면... 나 먼저 갈게.

걸어가는 소이. 그때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진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진현 신소이!
소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진현 월요일에... 보자.

진현, 한 손을 크게 흔들며 보이며 인사하고 뛰어가는데...
 진현이 걸어가는 방향에서 오후의 햇살이 하얗게 쏟아져 내린다.
 소이, 눈부신 듯 얼굴을 찡그리고 보면,
 진현의 뒷모습이 마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S#49. 과거. 학교 / 교실(아침)

소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온다.
 진현의 자리 비어 있고,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돈다.
 씩씩거리는 남자 아이들, 그리고 몇몇 여자 아이들은 울고 있다.

소이 (성지에게)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성지 (심각하게) 너... 알고 있었어?
소이 (의아한) 뭘?

기준 (달려와) 야. 신소이. 너 금요일 날 송진현이랑 같이 있었지. 그 새끼
 지금 어딴어? 어딴냐고?

소이 그게 무슨 소리야?
경수 (옆에서) 송진현 그 새끼네 아빠가 마을 사람들 돈 다 들고 튀었어. 우
 리 아빠 경운기 사고 보상금까지 투자하라고 꼬셔서 날랐다고!

소이 ...그럴 리가 없어.
기준 개네 엄마가 그저께 우리 엄마 젓돈 탄 것도 빌려갔어. 일주일 뒤에
 갚는대놓고, 온 식구가 야반도주했다고!

소이 (망연자실한) 말도 안 돼.
경수 송진현 그 자식 다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랑 웃고 떠들고 그랬잖지?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기준 (소이 어깨 잡고) 야, 신소이. 말해. 넌 알지? 송진현 어딴는지.
 니들 허구한 날 붙어 다녔잖아!

소이 (낮이 나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성지 (기준 떼어내며) 야! 애한테 왜 그래. 소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소이에게) 괜찮아?

소이, 충격으로 점차 사색이 되어 가는데 그때, 교실의 미닫이문이 열린다.
 인쇄소 사장이 나일론 끈으로 묶은 문집 한 꾸러미를 들고 들어온다.

인쇄소 사장 (소이 보고 반갑게) 어, 거기 학생!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아
 침 일찍 가져 왔어. 얼마나 신경을 썼다고. 맘에 들께. (내려놓는다)

소이 (멍한 채로) ...감사합니다.

인쇄소 사장 (내려놓으며) 같이 왔던 남학생은 안 보이네? (하고 나간다)

기준 (분노한)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배신자 새끼!

기준, 교탁 옆에 놓인 문집 꾸러미를 화풀이하듯 발로 세게 걷어찬다.

쓰러져 바닥에 나뒹구는 문집들.

기준이 다시 발길질을 하려는데 소이가 온몸으로 막아선다.

소이 그만해!

기준 (격앙된) 비켜!

소이 (눈물 그렁그렁한) 여기 3학년 1반이라고 써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꺼잖아. 친구였잖아! 다 같이 만든 추억이잖아!

기준 그걸 걸레짝 만든 게 누군데? 에이 씨! (하고 문짝 차고 나가버린다)

소이, 눈물을 씩씩하게 닦고 문집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는 바닥에서 걸어차여 묻은 때를 정성스럽게 털어낸다.

다들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다.

S#50. 과거. 시골길(낮)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는 소이, 그녀의 품에 문집 두 권이 안겨 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소이, 멍청하고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소이 여보...세요.

진현(F) ...나야.

소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응.

진현(F) 많이 놀랐지?

소이 (눈물 고이는) ...응.

S#51. 과거. 공중전화 부스(낮)

검은 옷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진현이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다.

진현 미안하다. 내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소이(F) 네 잘못... 아니야.

진현 (떨리는 목소리) ...응.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져서 좀 무섭네.

소이(F) ...나도. 기억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였는지?

플래시백. S#21의 과학실에서 소이와 진현이 나누었던 대사.

진현 그럼 넌 뭐가 제일 무서운데?

소이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거?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전화기를 잡은 진현의 손에 꾸욱- 힘이 들어간다.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하는 진현의 애처로운 모습.

진현 (떡떡한) ...응.

S#52. 과거. 시골길(낮)

소이, 계속 그 자리에 선 채 전화를 받고 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다.

진현(F) ...보고 싶다.
소이 (울 것 같은) ...
진현(F) (웃음 섞인) ...문집 말이야.
소이 누가 뭐래.
진현(F) 역시 보러 가야겠어. 내가 갈게. 토요일 밤 12시 느티나무 아래.

하며, 전화가 푹 끊어진다.

뚜뚜뚜뚜- 소리가 소이의 귓가에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소이 (끊어진 걸 알면서도) ...나도 보고 싶어.

하염없이 서 있는 소이의 뒤로 바람이 불고, 초록색 풀들이 물결처럼 일렁인다.

S#53. 과거. 외갓집 / 마당(낮)

소이, 어깨가 축 처진 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온다.

소이 (반사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보면, 뒷마루에 외할머니, 삼촌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 엄마다.

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소이 ...엄마?

소이 모 (뒷마루에서 내려서며) 소이야!

소이 (울음 터뜨리는) 엄마... 엄마... 엄마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소이 모 (꼭 안아주며) 소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우리 예쁜 딸. 엄마가 많이 미안해. (같이 울어버린다)

소이, 모든 서러움이 폭발한 듯 엄마의 품에서 아이처럼 영영 운다.

외할머니, 옷소매로 눈가의 눈물을 연신 짼어낸다.

민철 역시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계속 ㅎㅎ 헛기침을 해댄다.

S#54. 과거. 외갓집 / 소이의 방(밤)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가 깔려 있고, 소이가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있다.

소이의 얼굴에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미소가 걸려 있다.

소이 나 엄마랑 미국 가?

소이 모 응, 그럼. 소이 다닐 학교도 알아보고, 방도 공주님 방처럼 예쁘게 꾸며놔. 엄마, 소이랑 떨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소이 (엄마에게 안기며) ...나도. 언제 출발해?

소이 모 이번 주 토요일. 낮 2시 비행기야.

그 말을 들은 소이의 표정이 굳어진다. 떠오르는 진현과의 약속.

진현(E) 이번 주 토요일 밤 12시, 느티나무 아래.

소이 (조심스럽게) 엄마. 우리... 일요일 날 가면 안 돼?

소이 모 애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비행기 표도 다 샀고, 안 돼. (머리 쓰다듬어주며) 할머니랑 삼촌이랑 떨어지기 아쉬워서 그래?

소이 ...응응. 아니야.

S#55. 과거. 버스정류장(아침)

동네 어귀의 버스정류장 앞, 소이 엄마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본다.
그 옆에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를 든 민철과 외할머니가 함께 서 있다.

- 소이 모** 버스시간 다 됐는데, 애는 대체 왜 안 와.
민철 학교에 뭐 갖다놓을 게 있다고 갔으니까, 금방 오겠지. (멀리 보며 ...어! 저기 온다. (손 흔든다) 소이야! 신소이! 빨리 와!
소이 (달려와 헉헉거리며) 버스 아직 안 왔지?
민철 올 때 됐어. 소이야. 잘 가라. 전화 자주 하고... (착잡하게 보면)
소이 응. (귓속말로) 삼촌. 꽃사슴 담탱이 꼭 잡아. 외숙모로 합격이야.
(그리고 할머니 껴안는) 할머니. 내가 속만 썩여서 미안해. 방학하면 놀러올게. 아니다. 할머니가 아무 때나 미국으로 와. 응?
소이 할머니 (다정하게) 그려. 뱅기 타면 미국 가잖지 뭐. 우리 강아지 몸 건강히 잘 있어야 혀.

소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고개 끄덕거리면, 마침내 버스가 와서 선다.

- 소이 모** (눈물 그렁그렁해서 손 꼭 잡고) 엄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멀리 가버려서 미안해. ...도착해서 전화할게요.
소이 할머니 내 걱정 말고, 무탈하게 잘만 살어.

소이 엄마와 소이, 버스에 오르면 곧 출발한다.
창문을 열고 그리운 사람들을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드는 소이.
그렇게 버스, 점차 멀어진다.

S#56. 과거. 학교 / 느티나무 앞(낮)

교정의 느티나무 가지에 소이의 붉은 팔찌와 작게 접은 편지 걸려 있다.
마른 흠에 투둑투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소이가 걸어둔 편지가 점차 젖어드는 가운데, 그 위로 겹쳐지는 소이의 목소리.

- 소이(E)** 진현아. 나 오늘 미국으로 떠나. 못 보고 가서 미안해.

S#57. 과거. 공항(낮)

게이트 앞 대기의자에 앉은 소이, 비오는 유리창을 바라본다.
초조하고 격정스러운 표정인데, 엄마가 소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준다.

- 소이(E)** 내가 주소 썼으니까, 여기로 꼭 편지해야 돼. 알겠지?

S#58. 과거. 학교 / 느티나무 앞(밤)

비 오는 밤, 모자를 눌러쓴 진현이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다.
한참을 서성이듯 기다리던 진현,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데.
뒤늦게 가지에 묶여 있는 소이의 붉은 팔찌를 발견한다.
진현, 나무에 올라 팔찌와 거기에 같이 고정해둔 편지를 본다.

- 진현** (매듭 풀며, 미소) 이번엔 꼭 잘도 묶었네.

진현, 나무에서 내려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펴본다.
영어로 쓴 주소도, 대부분의 편지 내용도 비에 번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맨 마지막 부분만큼은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소이(E) 나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그때, 내 손으로 직접 돌려줄게. 네 문집,
아니... 우리 문집.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CUT TO. 진현, 소이의 편지를 다시 고이 접어 가슴의 셔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는데, 그의 팔목에 소이의 붉은 팔찌 선명하다.
그렇게 비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진현의 뒷모습이 처연하다.

S#59. 현재, 버스 터미널(낮)

현재로 돌아와, 소이가 버스표를 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는다.
시계를 힐끔 보고는, 읽던 문집을 다시 펼친다.
<십오 년 뒤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 적힌 페이지 보는 소이의 표정, 아련하다.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진현의 이름을 찾아 멈춘다.

진현(E) 안녕. 서른 한 살의 송진현. 사제복이 멋지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돼
있길 바래.

희미하게 미소 짓는 소이, 그때 전화가 걸려온다.

소이 (통화하는) 여보세요. 나야 잘 있지 그럼. ...엄마가 도운 씨 못 살게
굴진 않아? (작게 웃고는) ...응. 내일 비행기야. ...응.

소이, 약혼자와 통화하며 들고 있던 문집을 무심코 한 장 넘긴다.
멈칫하는 소이. 십오 년 전, 소이가 자신에게 쓴 편지다.

소이 도운 씨. 잊고 살았는데... 나한테도 열여섯 살이던 때가 있었네.

인서트. S#44의 장면.

<십오 년 뒤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소이의 모습이 자세히 비춰진다.
사각사각 정성껏 눌러쓰는 위로, 소이의 목소리 울려 퍼진다.

소이(E) 나보다 열다섯 살 많은 신소이. 서른 한 살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
하다... 그때까지 설마 살아 있는 거야? (웃음) 농담이고... 그때의 너
는 어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꿈은 골랐어? 다 같이 있어?
엄마랑 할머니랑 삼촌이랑... 누군가? (웃음)

진현, 턱을 귀 채 그런 소이의 옆모습을 몰래 바라본다.
소이, 진현을 보러 고개를 돌렸다가 두 사람 눈이 마주친다.

소이(E) 나는 네가 항상 보고 싶은 사람들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소이, 떠오른 기억에 눈물 흐르고... 전화기로 작게 울음소리가 새어 들어간다.

도운(F) 당신 괜찮아?

소이 (울먹이며) 괜찮지 않지 않아.

도운(F) 또 그렇게 말하네. 버릇이야, 그거. (작게 웃는다)

소이 (문집에 눈물 똑똑 떨어지는) 나... 내가 만든 첫 번째 책을 찾았어.

그리운 것들이... 전부 여기에 있어...

울먹이며 앉아 있는 소이의 모습,

버스 한 대가 들어오며, 작게 움츠린 그녀의 모습을 가린다.

S#60. 성당 앞(낮)

지방 소도시의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성당 앞.

쪽지를 꺼내는 소이. “늦었지만 내 문집을 돌려줘.” 라고 적힌 뒷면에

주소와 함께 라파엘 신부라고 적혀 있다.

소이, 성당을 물끄러미 보다가 입구로 향한다.

S#61. 성당 / 예배당 문 앞(낮)

미사가 막 시작되었는지 예배당 밖으로 은은한 입당성가가 울려 퍼진다.

소이, 조심스럽게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S#62. 성당 / 사무실(낮)

미사를 마친 신부, 검은 사제복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다.

그런 그에게 수녀님이 다가간다.

수녀 신부님. 어떤 자매님께서 고해성사를 꼭 보고 싶으시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네요.

라파엘신부 그래요?

그 말에 신부가 돌아보지만, 창가의 눈부신 햇살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S#63. 성당 / 고해소 인(낮)

소이, 어두운 고해소의 칸막이를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때 칸막이 너머로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 들려온다.

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닌 걸 알면서도 실례를 무릅쓰고 왔어요. 제가... 용서를 구해도 될까요?

라파엘신부(E) 말씀하십시오.

소이 약속을 잇고 살았습니다. 돌아오겠다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둘 다 못 지켰어요. 그렇게 십오 년이나 흘러 버렸네요.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진현아.

라파엘신부 (멈칫하는)

소이 (담담하게) 늦어서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 그날.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나한테 문집 같이 만들자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네가 있어서 내가 웃었고, 울었고... 살았어. ...너는 내가 열여섯 살이었다는 증거야.

소이, 울음을 끝까지 참고 단정하게 고해소를 나간다.

그녀가 떠난 자리, 문집 한 권이 남아 있다.

고해소의 문이 열리고 문집을 바라보는 신부의 말간 얼굴에서.

S#64. 거리(낮)

성당에서 나온 소이, 나머지 문집 한 권을 들고 걸어간다.
그녀 뒤로 완연한 여름 풍경이 펼쳐져 있다.
의연하게 걷던 소이의 걸음이 점차 느려지며,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소이 (나무 올려다보며) 진짜... 여름이네.

그러다가 갑자기 감정의 독이 무너진 듯, 소이에게서 울음이 터진다.
검잡을 수 없는 슬픔에 주저앉는 소이, 조금 전 성당에서의 일을 떠올린다.

인서트. S#61에서 이어지는 장면.

성당에 들어선 소이, 뒷자리에 살며시 앉아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를 바라본다.
호기심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인데, 그 위로 들려오는 신부의 목소리.

라파엘신부 (경건하게) 오늘 미사는 삼 년 전 주님 곁으로 먼저 떠난 형제 송진현 미카엘을 위한 연미사로 봉헌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정지한 것처럼 멎해진다.
소이의 눈동자, 파르르 떨리다가 충격으로 이내 풀썩 무릎을 꿇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온통 푸른 여름 나무들과 매미소리 속.
문집을 끌어안은 채,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소이 위로 겹쳐지는 지난날의 대화.

소이(E) 연미사가 뭐야?

진현(E)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소이(E) 그걸 왜 연미사라 그래?

진현(E) 글썸. 죽어서도 인연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아닐까.

S#65. 비행기 안(낮)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가 쪽의 좌석에 소이가 앉아 있다.

안내방송(E) 이 비행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한국항공 KE011편입니다.

창밖을 보던 소이, 가방에서 문집을 꺼내든다.

그리운 표정으로 첫 페이지부터 다시 펼쳐 보기 시작한다.

S#66. 수목장 / 느티나무 앞(낮)

사제복을 입은 라파엘 신부, 문집을 들고 어느 느티나무 앞에 선다.

나무에는 '송진현 미카엘'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다.

라파엘신부 (대화하듯) 형이 너무 오랜만에 왔다. 미안해. 대신, 선물이 있는데... (문집을 나무에 기대놓는) 이거 맞지?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문집. ...그리고 그 사람. 다녀갔다. ...네 부탁대로 너인 척했어. (떡떡한) 인마, 아프지 말았어야지. 직접 만나서 네가 말했어야지...

S#67. 비행기 안(낮)

문집을 보던 소이, 페이지를 넘기면 <가장 하고 싶은 말 릴레이>가 보인다.

소이 16번 송진현, 17번 신소이...

종이를 훑어 내리며 진현의 이름을 찾던 소이의 손가락이 멈춘다.
무언가를 보고 작게 웃는 소이, 그러나 눈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만 같은데. 표지를 덮고는 가슴에 문집을 소중하게 안아본다.
입가에 미소를 띠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멍멍한 얼굴이다.

S#68. 과거. 인쇄소 앞(낮)

S#50에서 이어지는 장면이다.
인쇄소에서 나온 소이와 진현, 서로 뒤돌아가다가... 문득 멈춰서는 진현.
소이의 뒷모습이 아득하게 멀어지다가 코너를 돌아 사라지면,
진현, 다시 인쇄소 안으로 들어간다.

S#69. 과거. 인쇄소 안(낮)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현, 안에 있던 인쇄소 사장이 나와 본다.

인쇄소 사장 왜 다시 와? 뭐 놓고 간 거?

진현 (다급한) 아직 인쇄 안 들어갔죠? 미처 못 쓴 말이 있어서요.

인쇄소 사장 진작 쓰지 그랬어.

진현 (머리 굽적이며) 그러게요. 그냥 솔직하게 쓸 걸 그랬어요.

인쇄소 사장 (웃으며 문집 샘플 주는) 거 앉아서 천천히 혀.

진현, 문집 샘플을 받아두고 인쇄소 구석 테이블에 앉는다.
수정액을 꺼내, “나랑 같이 문집 만드느라 수고했다”는 문장을 지운다.
그 위에 무언가를 새로 쓰는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 됐다는 듯 표지를 덮고, 환하게 미소 짓는 진현.
화면 가득한, 진현의 해맑은 웃음이 하얗게 번지다가... 사라진다.

S#70. 수목장 / 느티나무 앞(낮)

나무 아래 놓인 문집, <가장 하고 싶은 말 릴레이>의 페이지가 펼쳐져 있다.
16번 송진현이 17번 신소이에게 하고 싶은 말,
진현이 다시 써넣은 문장이 또박또박 남겨져 있다.
“널 좋아하지 않지 않아.”
그 위로, 진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진현(E) 널... 좋아해.

바람이 불어온 듯, 펼쳐진 문집의 페이지가 좌르륵 넘어가버린다.
느티나무, 진현의 명패가 달린 높이 즈음의 가지에 걸려 있는 소이의 붉은 팔찌.
초록색 나뭇잎들 사이로 꽃처럼 빛난다.

끝.

직립 보행의 역사

최성욱



작가 후기 **신하은**

<문집>은 세상에 내놓기 어딘가 쑥스러운 구석이 있는 작품이다. 미숙하고 날것에 가까워 들여다볼 때마다 어쩐지 얼굴이 빨개지곤 한다. 그 부끄러움에 어디도 내놓지 못한 채 폴더 속 폴더에, 마치 마트료시카의 맨 안쪽 인형처럼 일 년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이 글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거짓말 처럼 오픈의 전화를 받았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부끄러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색다르고 특별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다. 보편적인 정서를 흔하고 익숙한 것이라 폄하했다. 그랬던 나에게 <문집>은 '내가 이걸 썼다고?' 싶을 만큼 뻔한 글이었다. 이 평가에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내게도 이 생각이 여전히 일정 부분 유효하므로. 그러나 오픈의 전체합평과 멘토링을 통해 나는 <문집>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드라마의 기본 가치 중 하나는 바로 공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개성적이진 않아도 이 작품의 감성이 다른 이에게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첫사랑, 학창시절, 문집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었다. 작가의 첫 글은 자신을 닮는다는 말이 있다. <문집>은 대부분 극화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의 정서는 내 본연의 것이다. 어쩐지 쓰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투철하게 직면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이 이야기가 그랬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작의

어른과 아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어디까지가 소년/소녀이고 어디서부터 어른이 되는 걸까. 첫사랑이 아직도 미우면 소년이고 그저 즐거웠던 추억이면 어른이 된 걸까. 어머니 배에서 나와 열아홉 해가 지난 후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었고 그 뒤로도 수많은 날을 살아왔지만, 내가 '진짜 어른'이 맞는지, 정말 어른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게 된다.

어른의 자격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회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주인공이 소녀에서 조금은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지길 바란다.

등장인물

임가정(여, 18)

경기권 소도시에서 사는 왈가닥 여고생. 어렸을 적에 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여동생, 셋이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직장 일로 바쁜 탓에 늦둥이 여동생을 돌보는 것은 거의 가정의 몫. 싫을 법도 한데 가정은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순희, 선미와 매일 붙어 다닌다. 그저 평범한 여고생으로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초능력이 한 가지 있다.

임예지(여, 6)

가정의 떠돌이 늦둥이 여동생. 엄마의 기억이 거의 없는 예지에게는 가정이 얼마나 미안하지 않다. 특출한 재능이 없는 가정과는 달리, 그림 영재라 불릴 만큼 나이에 맞지 않게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요새는 그림일기에 재미를 붙여 매일 열 장 가까이 그리고 있다.

정종민(남, 19)

가정이 짝사랑하는 학교 선배. 이미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상태로, 학교는 그저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니고 있다. 운동을 좋아해서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준수한 얼굴에 큰 키, 활달하고 사교성 좋은 성격 덕분에 친구가 많고 못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진선미(여, 18)

가정의 단짝친구. 자신의 미모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미모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신같이 아름다운 여성은 공부 따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원래 머리가 좋은지 성적이 중간은 간다. 장래 희망은 부동산 줄부 집 들췌 며느리.

반순희(여, 18)

가정의 단짝친구. 중학교 시절까지는 나름 공부하는 시늉이라도 하며 살았는데, 고등학교 입학 후 보이밴드 'KRR'에 푹 빠지더니 학업은 그냥 손을 뗐다. 덕분에 성적은 급격히 하락중.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 데다가 입이 험해서 전형적인 '일진 언니'로 보인다. 그러나 심성은 착하고, 무엇보다 가정의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는 의리파. 그 외 임주현(가정父), 강자연(여, 17), 유치원 원장 선생님, 학생 주임 등.

줄거리

아버지, 늦둥이 여동생과 함께 사는 가정은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보통의 여고생답게 성적은 중간이고, 대학 졸업 후 뭘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직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저 단짝친구들과 물려다니며 하루하루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녀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가정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초능력마저도 별 볼 일 없는 능력이기엔 가정은 딱히 자신의 초능력으로 뭘 해보려는 생각도 없다. 다만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을 모면하려 소소하게 써먹는 중.

어느 날 가정은 몰래 짝사랑하던 학교 선배(종민)와 우연한 계기로 서로 안면을 트게 되고, 그 이후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한껏 마음이 들뜬 가정은 마침내 선배에게 먼저 고백을 하기로 마음먹는데, 고백하려는 그 순간 선배에게 아주 예쁜 “짬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긴 가정.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선배의 마음을 얻어내겠다고 결심하는데... 과연 가정은 첫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

S#1. 미나 집 전경(아침)

S#2. 미나 집 / 거실(아침)

미나의 방문이 끼이익, 천천히 열리고 미나의 얼굴이 그 사이로 빠끔히 나온다. 미나, 조심스럽게 눈을 굴리며 이쪽저쪽을 살피보고 혹시 누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살금살금 밖으로 나온다. 복도를 지나서 주방 앞까지 온 미나. 벽 뒤에 숨어서 주방을 보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이 보인다.

(E)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전기밥솥에서 취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미나, 아빠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통과하려 한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뒤를 핵 돌아본다. 미나, 재빨리 주저앉는다.

다행히 아빠는 미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뒤돌아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미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엉금엉금 기어서 거실을 통과한다.

마침내 현관에 도달한 미나. 신을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겨드랑이에 낀다.

나갈 준비를 다한 미나,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외친다.

미나 (큰 목소리로) 아빠~ 나 학교 다녀올게~!

아빠(E) 강미나, 너 또~?!

미나, 그냥 후다닥 나가버리고, 그 뒤로 현관문이 탕, 하고 닫힌다.

S#3. 미나 집 앞(아침)

미나,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온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미나.

아빠(E) 이따 와서 음식물 쓰레기 꼭 버려!

미나 아 몰라, 몰라, 몰라.

미나, 울타리 밖까지 나와선 스케이트보드를 땅에 탁 놓고 타고 가기 시작.

S#4. 골목길(아침)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골목길을 질주하는 미나의 모습. 상쾌한 바람이 미나의 머리카락을 휘감는다. 즐거운 표정인 미나.

S#5. 골목길 - 종민과 만나는 장소(아침)

골목 초입에 도착한 미나. 저 앞에서 종민이 미나를 기다리고 있다.

미나를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종민.

미나, 익숙하게 스케이트보드를 집어 들더니 종민 옆으로 헐레벌떡 걸어간다.

미나 (종민의 옆으로 뛰어오면)

종민 왔냐? (폰 보고) 야, 넌 어떻게 맨날 늦냐?

미나 아 뭐~ 누가 기다리랬나.

종민 그럼 안 기다리냐? 안 기다리면 또 빠질 거면서.

미나 (종민 밀며) 빨리 가거나 해. 늦었어.

나란히 걷기 시작하는 종민/미나. 미나가 바깥쪽, 종민이 안쪽에서 걷고 있다.

종민 맞다! 책 다 읽었냐?

미나 책? 무슨 책?

종민 아, 진짜. 전에 빌려준 책. 빅뱅 이론 있잖아.

미나 아아~ 그거? 아직...

종민 어디까지 읽었냐? 태양 생성되는 부분까진 봤지? 멋있지 않냐?

미나 어? 빅뱅? 태양? 멋있지~ 근데 난 지드래곤. (귀엽게 어깨춤 울동)

종민 (미나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 절레절레)

그때 차 한 대가 앞에 지나가고, 종민, 은근슬쩍 미나를 안쪽으로 밀고 자기가 바깥쪽에 서서 걸어간다.

종민 (갑자기 미나 어깨 잡고 멈춰 세우며) 아, 미나야.

미나 응...?

종민 나 오늘 할 말 있어. 오늘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미나 뭔데...?

종민 지금 말고. 이따 방과 후에. 어디 같이 갈 데도 있고.

미나(E) (눈 휘둥그레지면서) 응?

플래시백. 미나의 상상

종민, 미나를 벽에 거칠게 밀친 뒤 두 팔 사이에 가두고

느끼한 시선을 보인다. 미나 가슴이 쿵쾅거린다.

종민 사귀자! 강미나
종민(E) 야, 듣고 있냐?
미나 (정신 퍼뜩 들어) 어어? 응....
종민 암튼 그럼 시간 괜찮은 거지? 꼭 기다려!
 나 연습 늦어서 먼저 간다.

미나, 종민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본다. 얼굴에 미소가 점점 번진다.

S#6. 학교 / 정문 앞 + 근처 담벼락(아침)

저 멀리 정문 앞에서 뒷짐 지고 서 있는 학생주임 선생님.
 학생 몇 명이 뛰어오다가 학생주임 선생님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수첩에 이름
 이 적히는 모습.
 미나, 근처 담벼락 뒤에 숨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미나, 한숨을 쉬더니 보드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린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인상을 쓴다. 미간에 짝 주름이 가고...
 미나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미나, 개구리 헤엄치듯 두 팔로 땅을 밀면서 정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점점 학생주임 및 학생들과 가까워지고...
 그대로 지나쳐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미나.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다.

S#7. 학교 / 운동장(아침)

계속 스케이트보드 위에 엎드려서 이동 중인 미나.

미나(N) 나한테 아무도 모르는 능력이 있다. 하루에 두 번, 투명인간으로 변
 신 가능! 인상 쓰고 앉아야 하는 게 흠이지만 뭐 어때. 어차피 안 보
 이는데.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잘만 써먹으면 귀찮은 거 다 피할
 수도 있고. 암튼 쪽쪽 빠져나가는 데엔 최고의 능력이란 말씀!

텅 빈 운동장을 미끄러져가는 미나의 모습. 그런 미나를 뒤따르는 글씨들.

타이틀 . 직립 보행의 역사

S#8. 학교 / 미나 교실(아침)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고, 만신창이가 된 미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시골벽적인 교실. 선미/순희가 미나에게 온다.

선미 (미나 교복에 묻은 먼지 털며) 세상에 미나! 꼴이 이게 뭐야!
순희 애 이려고 오는 거 하루 이틀이냐. 뭐 나름 볼 만하구만
선미 아냐, 오늘은 좀 심해~ 어디서 누가 볼 줄 알고...
 여자는 항상 꾸미고 있어야 하는 거 몰라? 일단 머리 좀 빗구 뭐라도
 좀 짝어 바르자.
미나 잠깐만! 나 할 얘기 있어.(입이 헤벌쭙해서 선미, 순희 번갈아 보며)

S#9. 몽타주. 학교 식당 + 운동장 + 테니스장(낮)

1. 식당 - 배식을 받으며 이야기 나누는 미나, 선미, 순희.

순희 뭐? 고~백? (푸하하, 웃고) 아, 웃겨. 정종민이 미쳤냐?
너한테 고백을 하게?

미나 (흥!) 진짜거든. 방금 등교하면서 들은 거거든?

순희 보나마나 혼자 오버하는 거지 뭐. 7년 동안 그렇게 설레발친 게
몇 번이나? 오빠 고백 기다린답시고 먼저 고백 한 번 못해보고.

선미 (끼어들며) 옛날 애긴 해서 뭐해.
(미나에게) 오빠가 정확히 뭐라 그랬는데?

미나 막 뜬을 들이다가 내 어깨를 탁 잡더니. 오늘 할 말이 있대~

2. 운동장 - 서로 공 주고받으면서 대화 중인 셋

순희 별것도 아니네. 뭐 빌려달라는 거겠지.
야, 생각해봐. 고백을 할 거면 진작 했지. (공 던지고)

미나 (공 받고) 아니거든!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 어디 같이 가자고도
그랬거든! (공 던지고)

선미 (공 받고) 미나, 내 생각엔 오빠가 고백하려는 게 맞는 거 같아.
드라마 보면 막, 오빠로 시작했다가 연인 되고 그러잖아.
잘됐대~ 거 봐. 내가 먼저 고백 안 해도 된다 그랬지? (공 던지고)

미나 (공 받고) (좋아하며) 응! 안 하고 기다리길 잘했어. (공 던지고)

순희 (공 받고) 뭐 드라마 같은 애길 하고 있어. 이건 현실이거든?

3. 테니스장 근처 - 걸어가며 이야기 나누고 있는 셋.

순희 자, 봐봐. 내가 객관적으로 아닌 이유를 설명해줄게.
테니스의 왕자 정종민 하면~

인서트 - 멋있게 서브를 날리는 종민의 모습

순희 운동 잘하지.

인서트- 뛰어다니며 테니스 연습하다가 수건으로 땀 닦는 종민

순희 얼굴 잘생겼고 키도 크지.
몸은 또 얼마나 좋아.

인서트 - 한 손으로 티셔츠 올리고 복근 보이는 종민의 모습

순희 모르긴 몰라도 개 좋아하는 애들 줄 세우면 100미터는 될 걸?
그 많~은 여자들을 두고 너 같은 땅꼬마를 왜?

선미 야~ 그만해. 미나가 어때서. 우리 미나, 키가 좀 작은 건 맞는데,
몸매는! 음... 아니, 성격은 착하, 아니...

(퍼뜩) 그래! 종민 오빠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오래 보면 정드는 거겠어!

미나 (선미 짜려보며) 야, 진선미.... 니가 더 나빠.

선미 (끼어들어가는 말투로) 왜... 나는 칭찬해주려고 그런 건데...

미나 됐어, 너네 두고 봐. 종민 오빠랑 사귀면 오빠 친구들 소개시켜주려
고 했는데. 이제 국물도 없어.

아외 테니스장에서 연습하던 종민, 미나를 발견하고 “미나야~” 손을 크게 흔들며 인사 한다.

옆에서 깹깹거리며 종민을 구경하던 아이들의 시선이 미나에게로 향하고.

미나, 어색하게 손을 들어 살짝 인사한다. 그리고 선미/순희를 향해 의기양양한 표정 지어 보이고, 총총 걸어간다.

선미, 박수 치며 자기가 더 설레하고, 순희는 황당한 표정으로 미나를 본다.

S#10. 학교 / 미나 교실(낮)

(E) 수업 종료 알림 벨소리

칠판 닦고 있는 순희, 책상들을 교실 뒤에서 앞으로 밀고 있는 선미.

미나는 따라가지 않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있다.

이내 인상을 팍 쓰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투명해지는 미나.

순희 (칠판 닦다가 화내며) 우리 학교는 왜 아직도 학생들한테 청소시켜? 이거 노동 착취 아냐?

선미 (책상 끄덕대며 밀면서) 맞아. 이런 건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아냐?

순희 야, 갑자기 남자가 왜 나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선미 아 몰라 몰라. 강 얼른 하면 되지. 셋이 하면 금세 할 텐데. 그치, 미나야~ (대답이 없자 뒤돌아보고) 어? 미나?

미나 (교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미나의 발)

순희 아, 강미나! (허공에 대고) 야!!! (발 동동 구르며) 이거 또 튀었어!!

S#11. 학교 / 교정(낮)

미나, 콧노래를 부르며 종민을 기다리고 있다.

종민이 테니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오다가, 미나를 보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다.

미나 (손 인사) 오빠~

종민 어, 오래 기다렸어?
(미나 손목 잡고) 가자, 꼬맹이.

종민이와 정문 밖으로 나가는 미나.

S#12. 액세서리 샵(낮)

진열대 앞에 서서 고민하는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는 종민.

미나도 그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

종민 뭐가 제일 예뻐 보이냐?

미나 어? 음... (은반지 가리키며) 저거 예쁜 거 같아.

종민 (점원에게) 저 반지 보여주시겠어요.
(점원이 꺼내주면 상자에서 반지 뺀다) (미나에게) 이리 와봐.
(쭈스러워하며 가까이 온다)

종민 (미나의 손 확 낚아채서 반지를 미나의 넷째 손가락에 끼운다.)

미나 (당황했다가 가슴이 뛰다)

종민 (이리저리 미나의 손을 살펴보고) 흠... 괜찮냐?

미나 (미나 불이 발그레)
종민 (고개 갸웃) 또 다른 건?
미나 (기대하며) 또?

몽타주.

미나, 신나서 반대편 진열대에 쫓르르 가서 헤어밴드 고르고,
종민은 헤어밴드를 미나의 머리에 대본다.
미나, 또 다른 쪽 진열대에 가서 귀걸이 고르고,
종민은 미나의 귀에 귀걸이 대보고....
점프. 계산대 위에 올려지는 물건 세 개.

S#13. 미나 집 앞(밤)

나란히 걸어들어 오고 있는 미나와 종민. 종민의 손에 쇼핑백이 들려 있다.
미나, 계속 몰래 종민과 쇼핑백을 힐끔힐끔 훑쳐본다.
종민이 미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미나, 안 본 척 시침 똑 떼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린다. 기분 좋아서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있다.

미나의 집 바로 앞에까지 도착한 둘. 마주 보고 서 있다.
미나,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종민 보고 있다.

종민 (침묵 깨며) 그림.
미나 (기대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종민 보며) 응!
종민 (미나의 머리 쓰담쓰담) 잘 들어가.

종민, 뒤돌아서 가버린다.

기대가 깨진 미나, 황당해서 앵? 하는 표정으로 종민의 뒷모습 본다.

S#14. 미나 집 / 미나 방(밤)

미나, 침대에 풀썩 몸을 던진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는다.

미나 이상하다...왜 그냥 갔지? 내일 주려고 그러나? 내일 무슨 날인가?
(고개 갸웃) 아닌데...
설마... 뭐 더 준비해서 이벤트까지 하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
는데. 혹시 사람들 앞에서 하려는 건 아니겠지? (좋아 죽으면서) 아~
어떡해... 그건 좀 부끄러운데...

아빠 (갑자기 방문을 팍 열고) 시끄러! 잠이나 자! (다시 문을 쿵 닫는다)

미나 (헉, 해서 얼른 불 끄고 눕는다)

S#15. 골목길 - 종민과 만나는 장소(아침)

미나.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고 걸어온다.
긴 생머리를 풀고, 교복도 단정하게 갖춰 입고, 평소보다 예쁘게 꾸민 모습.
한껏 들뜬 표정으로 종민이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기다리고 있는 미나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고.

조금 뒤에 또 차 한 대 지나가고.

시간이 꽤 지나도 오지 않는 종민.

미나, 서성이다가 폰으로 시각 확인하고 그냥 등교한다.

S#16. 학교 / 미나 교실(아침)

교실 문을 드르륵 열며 들어서는 만신창이 미나.

교실 안을 보는데 애들이 한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뭐야, 싶어서 더 가까이 가는데, 아이들 사이로 종민이가 나온다.

종민, 미나와 눈이 마주치고, 가까이 다가온다. 미나에게 윙크 한 번

핑끗하고 엄지 척 올리는 제스처 취하더니 교실 밖으로 나간다.

미나 (나가는 종민을 보며) 응? 뭐지?

미나,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다. 선미/순희가 할레벌떡 미나에게 다가온다.

선미 미나야, 빅 뉴스!

미나 뉴스?

선미 종민 오빠가 고백했어~

미나 응? 아니야~ 아직 고백 못 받았어. 아침에 오빠 못 만나서..

순희 (약간 미안한 눈치) 그게 아니라... 야.

(대각선 앞쪽 자연이의 책상 가리키며) 저기 봐.

미나, 고개 뺀어서 자연의 책상 보는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쇼핑백.

어제 종민과 같이 산 상점의 쇼핑백이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미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선물 풀어보는 자연.

자연 (첫 번째 상자를 열자 귀걸이가 나온다) 어머, 귀걸이네!

미연 얼른 한번 해봐.

자연 (귀에 귀걸이 걸고 머리 귀 뒤로 넘기며 수줍게) 괜찮아...?

아이들 오~ 예쁘다, 예쁘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아이들 재빨리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다.

점프. 수업 중, 미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자연이가 하고 있는 귀걸이만 노려보고 있다. 분한 미나.

자연이의 귀에서 달랑거리는 귀걸이 TS.

S#17. 학교 / 과학실(낮)

미나, 과학실에서도 여전히 자연이를 노려보고 있다. 자연이의 머리에는 헤어밴드가, 귀에는 귀걸이가 걸려 있다. 모두 어제 미나가 종민이와 같이 액세서리 샵에 가서 산 물건들.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미나는 아까보다도 더 자연이 꼴 보기 싫다.

자연이가 뒤를 돌아보다가 미나와 눈이 마주친다. 미나, 안 보고 있었던 척 단청 피우며 시선을 회피하는데. 자연이가 일어서더니 미나 쪽으로 다가온다. 황급히 교과서 펴고 보는 척하는 미나.

자연 미나야!

미나 (대꾸 없이 그냥 적대적인 눈빛으로 쳐다본다)

자연 (옆자리에 앉으며 미나 손을 잡고 흔들며) 고마워, 미나야~

미나 (잡힌 손 투명스럽게 빼낸다)

자연 (귀걸이 보여주며) 이거, 오빠가 그러는데 니가 골라줬다며?

진짜 너무너무 예뻐~

미나 (통명) 내가 골라준 거 아닌데?

자연 에이~ 니가 골라준 거라 그랬는데? 아 맞다, 그리고 이 헤어밴드...

미나(O.L) 그거 너한테 진짜 안 어울린다. 완전 촌스러워.

자연 그래? 애들은 괜찮다던데... (밴드 한 번 쓰다듬는)

미나 (귀걸이가 눈에 들어온다) (약 올라서) 아 참, 그 귀걸이, 사은품으로 받은 거 알지?

자연 진짜? 다행이다~ 난 오빠가 너무 돈 많이 쓴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미나 (부글부글 끓는 표정)

친구1(E) 자연아~ 빨리 와!

자연 (부르는 쪽 보더니) 나 가봐야겠다. 미나야, 이따 얘기해! (미소)
(미나에게 손을 흔들고 과학실 밖으로 나간다)

미나 (황당해서 그 모습을 보다가) 뭐야, 재?

멀어져 가는 자연을 황당한 듯이 쳐다보는 미나.

S#18. 학교 / 교정 야외 계단(낮)

미나, 분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고.

선희/순미, 옆에 서 있다. 미나 눈치 보면서 둘 다 좌불안석.

선희 야, 괜찮아, 정종민이 뭐라고. 개 같은 애들 널리고 널렸어.

선미 맞아. 오빠 솔직히 볼 거 없잖아. 뭐, 외모 좀 괜찮고. 테니스 잘 치고, 성격 남자다운 거랑, 어... 또, 인기 많은 거 빼면.

선희 (선미에게 눈치 준다) (조심스럽게) 야, 근데 정말 몰랐냐? 그렇게 볼

어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어?

미나 (뽀로통)

선미 미나야, 그러게 사귀자고 얘길 하지... 너도 오빠 좋아하잖아.

미나 누가 좋아한대!

선희 (푸하하, 웃으며) 어제까지도 고백받는다고 좋아했으면서.

선미 (선희 입 막으며 선희를 데리고 가버린다)

미나 (애들의 뒷모습에 대고 고래고래) 나랑 아~무 상관 없는 일이거든?
아니, 차라리 잘됐거든? 그냥 민자연 고개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게 짜증나는 거거든!

혼자 씩씩거리며 선희, 선미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미나.

S#19. 학교 / 테니스장(낮)

경기도배 교내 선발대회

(E) 와~ 하는 아이들의 함성 소리

종민, 테니스장에서 강국과 한창 연습 시합 중이다.

잔근육이 잡힌 팔, 땀에 젖은 머리카락. 진지한 얼굴 표정.

코트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공을 쳐낸다.

코트 주변에 여자애들 몇이 깡깡거리면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몇몇은 플래카드도 들고 있다. “테니스의 왕자” “종민 왕자님” 등등

그 무리 사이에 무용복을 입은 자연이와 미연. 예림이도 같이 끼어들어 있다.

미나는 자연이 뒤쪽에 서서 종민의 게임을 보고 있다.

마침 종민이가 포인트를 따낸다.

심판 forty, fifteen!
아이들 (함성)
종민, 돌아보고. 자연에게 윙크 한 번 한다. 쑥스러워하는 자연.
종민, 다시 시합 시작한다.
심호흡 한 번 하고 공을 바닥에 두어 번 튕긴 뒤... 강서브를 날린다.
강국 받아치지 못하고 그대로 종민이가 포인트를 가져온다.

심판 게임 셋 앤 매치! two, one.

아이들, 깡 소리 지르며 난리 법석.
종민, 코트 중앙으로 가서 강국이와 악수한다.

강국 역시 잘하네.
종민 뭘, 너도 만만찮은데.

종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선, 자연이를 보고 승리 세레모니를 한다.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에 키스를 한 뒤, 자연이를 향해 주먹을 내민다.
미나, 기가 막혀서 “허, 참“ 거리며 그 광경을 보고 있다.
자연, 반지를 낫째 손가락에 끼고 종민에게 손을 내보이며 쑥스러워한다.
아이들의 부러움 섞인 함성.
미나, 짜증나는 표정으로 자연이를 노려본다. 점점 더 표정이 구겨지더니,,
이내 인상을 팍 쓰고 앉는다. 투명해지는 미나의 몸.
미나, 그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서 자연이 쪽으로 간다.
킵킵 거리면서 아이들 발밑에서 뭔가 하더니 다시 빠져나오는 미나.

점프.

미연 자연아, 우리 이제 가자. 우리 연습 늦겠어.
자연 (아쉬운 듯 종민에게서 눈을 못 떼다) 응...
미연 오늘 종민 오빠 보기로 했어?
자연 응. 오빠 시합 이기면 보기로 했어...
미연 좋겠다~
자연 (뒤돌아 걸어가려다가 짹, 하고 자빠진다)

종민 시합에 집중하고 있던 아이들, 깜짝 놀라서 넘어진 자연이 쳐다본다.
자연, 볼품없는 모양새로 넘어져 있다.
양쪽의 끈이 묶여 있는 자연이의 신발. 아이들, 푸하하, 웃음을 터뜨린다.
멀리서 그 모습 지켜보면서 악동 같은 미소 짓고 있는 미나.

S#20. 학교 / 미나 교실 앞 복도(낮)

가방 메고 하교하고 있는 아이들.
그 사이로 미나가 부리나케 뛰어간다.

S#21. 학교 / 테니스장(낮)

연습이 끝난 종민, 테니스 가방을 챙기고 테니스장을 나서려고 하는데...
미나, 뛰어와서 종민의 팔 낚아채더니 그대로 계속 뛰어간다.
어어, 하면서 끌려가는 종민.

종민 어.. 어... 뭐야? 야, 강미나!

S#22. 골목길(초저녁)

나란히 걷고 있는 미나/종민.

종민 너 아까 시합 보러 왔었지?

미나 ...응

종민 그럼 아까 (반지에 키스하고 주먹 내밀며) 이것도 봤겠네.
아~ 쪽팔리게.

미나 ...

종민 말할까 했는데...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미나 (말없이 걷는다) (갑자기) 근데 오빠, 진짜 자연이 좋아해?

종민 어... 나 요새 자연이 생각만 하면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막 떨리고
그래... (자연이 상상하는 듯 허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자연이, 보면 볼수록 괜찮은 거 같아.

미나 (통명) 어디가?

종민 첨엔 외모가 청순해서 관심 간 거였거든. 근데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털털하고 내숭도 안 떨고. 좋은 애 같아.

미나 그게 뭐. 나도 털털하고 내숭 안 떨잖아.

종민 (미나 한 번 쓱 보고 푹 웃더니 앞서 걸어간다)

미나, 종민 뒷모습 보며 뭔가 종민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볼 궁리를 하다가
뛰어가서 종민을 탁 치며

미나 (거짓말) 아 맞다. 아빠가 집에 좀 놀러 오래.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종민 어? 주말에 갔잖아.

미나 (당황해서 괜히 짜증) 아, 몰라. 아빠가 오래~!

종민 알았어, 같게. 언제?

미나 (눈빛 반짝이며) 내일?

종민 어... 나 내일은 자연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개구쟁이처럼 웃으며) 야, 여친이랑 저녁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

미나 (시무룩) 그럼 모래.

종민 모래는 자연이랑 영화 볼 거야... 야, 영화도 좀 봐야 하지 않겠냐?

미나 (짜증내며) 아 됐어, 그럼 오지 마!

종민 왜 짜증이야. 너 이상하다? 혹시 질투하냐?

미나 (떨쩍 뛰며) 뭐래? 웃기고 있어 진짜.

종민 (장난스런 목소리로) 왜, 이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니까 아쉽냐?
너보다 더 이쁜 애 만나니까 막 배가 아파와?

미나 뭐래? 난 그냥 오빠 생각해서 얘기해준 거거든? 좀 있음 전지훈련 가
는데 괜히 마음고생 할까 봐. 그리고 솔직히 얼굴만 보면 내가 낫다.

종민 (미나 얼굴 보며 비꼬듯) 그래, 그러네~ (종민 먼저 걸어간다)

미나 (입술 깨물고 종민을 노려보다가 달려가서 종민의 정강이를 발로 짹
찬다)

종민 (아파서 깡충깡충 뛰면서) 야, 강미나!!

미나, 그런 종민을 뒤에 두고 먼저 총총 걸어간다. 그러다 갑자기 짹 고개를 돌
려서 종민 한 번 더 찌려보고 흥! 하더니 스케이트보드 타고 가버린다.

S#23. 미나 집 / 거실(밤)

중얼중얼 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는 미나.

미나 이것들 내가 반드시 갈라놓는다. 두고 봐...

S#24. 미나집 / 미나 방(밤)

침대에 누워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미나. 심사가 뒤틀린 표정.
갑자기 후다닥 일어서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뭔가 검색을 하기 시작한다.
컴퓨터 화면 - 검색창
미나, “친구 사이를 깨어놓는 법”이라고 쓰다가 지우며

미나 아니지? 친구는 아니잖아.

지우고 이번에는 “애인 사이 멀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쓰다가....

미나 아니야, 고등학생들이 애인은 무슨! 절대 애인은 아니지!
그럼 뭐라고 검색해야 하지? 흠... (키보드 푹푹 내려치며)
아 몰라, 몰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똥멍청이 둘이 사귀든
말든! (침대로 다시 뛰어든다)

잠시 침대에 누워 있던 미나, 다시 일어나 앉아 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미나 (타자 치며)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 타입! 어디 보자.
똥똥한 여자? (좀 생각하다가) 히, 말랐는데...

인서트. 자연이 S라인 뽐내는 모습

미나 못생긴 여자? (좀 생각하다가) 예쁜데..

인서트. 자연의 웃는 얼굴

미나 머리에서 냄새나는 여자? 이걸 좀 약하다.
(스크롤 내려보다가) 잠깐. 이거 괜찮은데?

아빠 (갑자기 방문을 팍 열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잠 좀 자자, 잠 좀!
(다시 문을 콧 닫는다)

미나, 얼른 불 끄고 이불 덮는다.

잠시 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미나, 아빠가 방으로 들어간 것 같자,
조용히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간다.

S#25. 미나 집 / 거실(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무언가를 몰래 가져가는 미나의 손.

S#26. 학교 / 정문 앞(아침)

미니보드를 손에 들고 등교하는 미나, 종민과 자연이 정면에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걸음을 탁 멈춘다. (종민은 어깨에 테니스 가방을 메고
있고, 선미는 에코백을 들고 있다)

종민/자연, 미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옆길로 걸어간다.

미나, 종민/자연이 사라진 쪽을 보고 있는데,

순희/선미가 어느새 미나의 옆에 와서 선다.

선미 (미나 어깨 치며) 미나야~!
미나 (정신 퍼뜩 들며) 어어. 왔어?
순희 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이 빠졌냐?
선미 (미나의 시선이 향했던 곳 보며) 어머, 종민 오빠랑 자연이 아냐?
순희 (미나에게) 야, 괜찮지?
선미 근데, 둘이 잘 어울리긴 한다. 아이오아이이랑 워너원이 만난 것 같아.
멋있다~
순희 뭐, 기력지가 되니까.

미나, 화가 나서 쿵광거리며 정문 안으로 들어간다,
선미/순희 급히 입 다문다.

S#27. 학교 / 시청각실(낮)

아이들, 한 줄로 서서 시청각실로 들어오고 있는 중. 자연이도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미나, 새치기해서 자연이의 바로 뒤에 선다. 새치기 당한 아이한테 웃으며 미안하다는 제스처 한 번 해주고. 자연, 자리에 앉는다. 미나, 자연의 바로 옆자리에 앉는다.

미나 (과장된 미소 지으며 친한 척) 자연아, 안녕?

S#28. 학교 / 테니스장(낮)

강국기와 열심히 랠리를 하면서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는 종민, 포인트를 따내고 벤치로 와서 물을 마신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더니, 벤치 위에 있던 폰을 들어서 본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하는데,
친구가 어느새 뒤에 와서 딱 어깨동무를 하더니 문자 내용 훑쳐본다.

강국 오~ 여자친구 생겼냐?
종민 (친구 떨쳐내려고 하면서) 더워, 좀 떨어져, 새끼!

S#29. 학교 / 시청각실(낮)

(E) 자연의 폰 알림 소리
수업 듣던 아이들, 일제히 뒤돌아본다.

선생님 폰 켜놓은 거 누고?
미나 (호들갑 떨며) 자연아, 폰 무음으로 안 해놨어?
자연 깜빡했네.
선생님 폰은 가방 안에, 시선은 내한테, 알긋나!

선생님, 다시 동영상 수업을 한다.

미나 (소근거리며) 종민 오빠한테서 온 거지?
자연 응.

미나 와~ 사귀는 거야?
자연 응, 사귀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오빠한테 나도 뭐 선물 같은 거 해줘야 할까?
미나 아니! 오빠 뭐 받는 거 진짜 싫어해. 누가 자기한테 뭐 주면 무시 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한대.
자연 그렇구나~ 나 또 뭐 알아야 하는 거 없어?
미나 (고민하는 척) 음... 아, 맞다. 이거 비밀인데...너만 알고 있어야 돼?
자연 (고개 끄덕이며 눈 반짝반짝)
미나 오빠네 아버지가 대머리시거든. 그래서 그런지 오빠도 벌써부터 머리 빠진다~ 이마 까면 M자 탈모 장난 아니야.
자연 진짜? 오빠는 두상도 예뻐서 대머리 되면 더 멋있겠다.
 (허공 보며 상상하는 표정) (다시 미나 보고 눈 반짝거리며)
 그럼 오빠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도 알아?
미나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 음... 오빠는 섹시하고 야한 여자 좋아해.
자연 야한 여자?
미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짹짹 찢어지고 파이고 짧은 옷 입은 여자.
자연 진짜?
미나 어, 오빠 야한 거 엄청 좋아해. 애초에 테니스 시작한 것도 테니스 스킨 안에 훑쳐보려고 시작한 거라니까.
자연 진짜? 그럼... 오늘 이따 하나 사야겠다. 내일 입게.

그때, 다시 (E) 자연의 폰 알림소리

선생님 누꼬?(둘러보다) 또 민자연이고? 퍼뜩퍼뜩 나오나, 퍼뜩!
자연 아 지금 가요. 잠시만요. (미나에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미나, 애 뭐냐는 표정으로 자연 나가는 모습 보다가 고개 절레절레.
 그리고 자연의 책상 위에 있는 자연의 폰에 시선이 가는데,

자연의 폰 화면 - 종민과의 문자 대화창

종민(E) 내일 아침은 테니스 연습 여섯 시 반에 할까?

미나, 분해서 입술을 깨물다가, 주위 둘러보고 몰래 자연인 척 답장한다.
 자연의 폰 화면 - 종민과의 문자 대화창

자연(E) “네 알겠어요. 오빠~ 내일 단단히 준비하고 와요. 제대로 화끈한 게 뭔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미나, 문자가 전송되자마자 재빨리 몰래 보낸 문자를 지워버리고 폰 내려놓으려 하는데 종민에게서 다시 또 문자가 온다.

종민 ^_^;;

들어오는 자연이를 보고 악동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미나.

S#30. 북 카페(밤)

종민과 자연이가 하하 호호, 즐겁게 담소하면서 걸어간다.

미나,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고개를 쭈욱 내밀며 나타난다.

미나 (혼잣말) 아니, 공부는 한 자도 안 하는 것들이 데이트는 왜 북 카페에서 해?

미나, 몸을 황급히 숨겼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피고, 다음 기둥으로 뛰어가서 그 뒤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반복.

점프.

책장 앞에서 각자 책을 보고 있는 종민과 자연. 간간이 눈 마주치고 웃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나가 그 모습을 엿탐하고 있다.

종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나와 있는 여행 책자 보고 있다)

자연 (기웃거리며) 오빠, 뭐 봐요?

종민 나 전지훈련 호주로 가잖아. 관광지 좀 알아보려고.

자연 아 맞다. 근데 호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종민 호주는... 음... 오세아니아 주에 있지.

자연 오세아니아 주요? 호주가 미국에 있는 거였어요...?

(뭔가 깨달은 듯) 아! 그래서 주(州) 구나! 호, 주!

캘리포니아, 주! 오세아니아, 주! 호, 주!!

종민 (당황) 어? 어어...?

자연 (깔깔 웃으며) 아, 나 바본가 봐. 여태까지 호주가 나라 이름인 줄 알았어요. “호”가 주 이름이었구나.

종민 (어색한 웃음 지으며 책 덮고 화제 전환)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자연 음... 오빠가 좋아하는 거요. 아, 그 전에 저 화장실 좀.

종민 그래, 다녀와.

자연, 익숙하게 에코백을 종민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간다.

자연이 가고 나면 종민, 근처 벤치에 자연의 에코백을 두고 옆에 앉는다.

미나는 여전히 엿탐 중.

미나(E) 아니, 지금 민자연 가방 들어주고 있는 거야? 와... 정종민 진짜 왜이렇게 됐냐. 꼴불견이다 꼴불견.

미나, 찌그러 앉더니 인상을 팍 찌푸린다. 투명해지는 미나의 몸.

미나, 엉금엉금 기어서 종민 쪽으로 간다.

폰 화면을 보며 앉아 있는 종민. 미나, 조심스럽게 자연이의 백에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넣는다.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선 자연의 에코백을 확 쳐버린다

땅에 떨어지는 자연의 에코백.

자연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용물이 모두 쏟아졌다.

토슈즈, 무용복 등등. 그 사이에 보이는 담뱃갑과 라이터.

종민, 당황해서 쏟아진 물건들 다시 가방에 주워 담는다. 그러다가 담뱃갑을 들고 놀란 표정. 그때, 자연이가 다시 돌아온다.

자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멀리서 뛰어오며) 오빠~

종민 (당황해서 얼른 다시 자연의 에코백에 담배와 라이터 넣고) 어어... 왔어?

자연과 종민, 어디론가 간다.

미나,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음흉한 웃음 짓는다. 킁킁.

S#31. 미나 집 / 미나 방(밤)

침대 위에 쫓그리고 앉아서 계속 킁킁대고 있는 미나.

인서트. 미나의 상상 - 학교 / 테니스장

옆이 파인 테니스 스커트와 가슴골이 보이는 타이트한 상의를 입고 있는 자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종민. 모자를 쓰고 있다.

종민 (통명) 옷이 그게 뭐냐?

자연 왜... 왜요?

종민 테니스 연습을 하러 온 거야, 쇼를 하러 온 거야? 하여간 어린 게 벌
써부터 까져서... 담배를 피우질 않나.

자연 (화가 나서) 뭐예요? 핫 참내. 저 담배 안 피우거든요?

종민 (코 막으며) 어우. 야, 너 입에서 냄새 나.

자연 뭐야? (종민의 모자 확 잡아채서 던지며) 야! 니 마밖에선 광이 나거
든! (눈 가리며) 아, 눈부셔.

미나,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아빠 (갑자기 문을 쿵 열더니) 킁킁킁킁킁! 그만 좀 해!

미나이것도 들려? 아, 아빠 그냥 귀마개 하면 안 돼?

아빠 그럼 넌 내 앞에서 없어지지 마! (문 쿵 닫고 나간다)

미나, 침대보 쓰고 드러눕는다. 잠시 뒤 다시 킁킁대고 있다.

아빠(E) 시끄러~!!!

S#32. 학교 / 교정(아침)

미나,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등교하고 있는 모습

S#33. 학교 / 테니스장 뒤편(아침)

미나, 테니스장 뒤편에 있는 낮은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머리만 위로 빠끔히
내밀어 테니스장 안을 주시하고 있다. 기대감에 찬 표정이다.

미나, 눈이 점점 커지며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그때, 미나의 양 옆으로 순희와
선미의 머리가 쑥 올라온다.

순희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

미나 (깜짝 놀라 앉으며 순희/선미도 같이 끌어 앉히고 조그만 목소리로)
잘 봐봐. 좀 있으면 아주 재밌는 일 생길 거야.

선미 뭘데, 뭘데? (다시 주춤주춤 일어서서 테니스장 안 보며) 어머,
종민 오빠랑 자연이네! 오빠~

미나(O.L) (선미 붙잡아 앉히고) 미쳤어! 조용히 해!

CUT TO. 테니스장

테니스장 안. 종민과 자연이 마주 보고 서 있지만 서로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
하고 있다.

자연이는 옆이 파인 테니스 스커트와 가슴골이 보이는 타이트한 상의를 입고
있다.

자연 어때요 오빠? 저... 괜찮아요?

종민 (얼굴 붉히고 고개 돌리며) 어...

자연 (창피해하며) 역시 안 어울리죠...?

종민 아냐, 아냐, 안 어울리긴. (엄지 척 올려 보인다)
아 맞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금연 껌을 꺼내서 건네며) 이거.

자연 (한자로 쓰여 있는 '금연'이라는 글씨 못 읽고) 이게 뭐예요?

종민 어... 그제...

자연 (껌 하나 꺼내 먹고) 어머. 이거 맛 되게 특이해요. 맛있다.
(우물우물하다) 오빠,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처음 보는데...

종민 (난처한 웃음) 어... 오빠가 더 사다 줄게.

자연 (고개 끄덕끄덕) 진짜요?

종민 (웃으며) 응. 그럼 이제 연습할까?

자연 잠시만요. (종민에게 다가가더니) 저도 선물! (뺨에 뽀뽀한다)

선미/순희, 미나의 눈치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딴 데로 간다.
미나, 녀이 나간 표정. 상처 받았다.

자연의 뒤에서 자연의 팔을 잡고 테니스 폼을 알려주는 종민.
자연이 돌아보다가 돌이 눈이 마주치고 부끄러워한다.

미나, 황망한 표정으로 계속 자연/종민 바라보고 있다.
종민이 우연히 미나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미나, 황급히 앉는다.
녀이 나간,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미나,

S#34. 학교 / 미나 교실(낮)

미나, 책상에 앉아서 계속 아까 종민과 자연이 뽀뽀하던 장면을 생각하며
녀이 빠져서 주위는 신경도 못 쓰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시간 경과. 미나 주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S#35. 골목길 - 종민과 만나는 장소(초저녁)

미나,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녀 나간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종민(E) 강미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미나,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는 종민의 모습이 보인다.
반사적으로 주저앉는 미나.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다시 고개 들어보니 종민이 없
다. 미나가 환상을 본 것.

S#36. 미나 집 / 미나 방(밤)

침대에 누워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미나.
가슴을 손으로 꺾꺾 누르면서 일어나 앉는다.

플래시백 - 종민이가 반지 세레모니 하는 모습 (S#19)

플래시백 - 자연이가 종민 볼에 뽀뽀하는 모습 (S#33)

미나 (혼잣말) 그래, 포기하자 포기해... (한숨 쉬며 침대에 누웠다가
(고개 절레절레) 잠깐! 내가 왜 포기해? 해본 것도 없는데?
아냐,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미나, 결심에 찬 얼굴을 하고 딱 일어서서 방 밖으로 나가려 한다.
방문 앞에 도착해서 방문을 여는데,
(E)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종민(E) (뛰어 들어오며) 아저씨, 저 왔어요~!

미나, 화들짝 놀라서 문을 광 닫는다. 너무 놀라서 가슴 부여잡고 있는데

종민 (미나 방문 벌컥 열며 들어온다) 오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냐?

미나 (당황해서 침대로 쪼르르 가서 베개에 얼굴 묻는다)

종민 (푹 웃으며) 너 지금 나랑 내외하냐? 오~ 꼬맹이. 좀 컸네.

미나 (감정 감추려 하며) ...왜 왔어?

종민 인사도 안 하고 인성 진짜... 아저씨가 놀러오라고 하셨다며.

미나 ...

종민 야, 전에 내가 빌려준 책 어디 뒀냐?

미나 (고개 빼꼼 들며) 무슨 책...?

종민 있잖아. 전에 빌려 준 소설책.

미나 (다시 베개에 고개 묻으며) 책장에 꽂혀 있어.

종민 (책장 앞으로 이동해서 책장 기웃거리다) 어디?

미나 거기 있잖아.

종민 없는데? 너 왜 고개는 쳐박고 있냐?

미나 (벌떡 일어나 책장 쪽으로 와서) 저기 있잖아. 저기.

(팔을 뻗어서 책장 제일 위칸에 있는 책을 꺼내려고 하는데 팔이 안 닿는다) (까치발까지 들어보는데 실패)

종민 키도 쪼꼬만 게 높이도 올려놨네.

(미나 뒤에 서서 손을 뻗어 책을 꺼내려고 한다)

종민에게 안겨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된 미나.

미나의 가슴이 쿵쿵거리면서 뒹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미나(E) 지금이야, 지금. 강미나

망설이는 미나. 심장이 점점 더 크게 쿵쿵거리린다..

종민 (책 꺼내 들고) 밥 먹으러 가자.

종민, 나가고. 미나, 같이 못 나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혼자 남은 방에서 계속해서 쿵쿵거리는 미나의 심장 소리.

S#37. 미나 집 전경(밤)

S#38. 미나 집 / 주방(밤)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 중인 미나/종민/아빠.

미나와 종민이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아빠는 그 사이에 위치.

미나, 종민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종민이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워

서 급히 시선을 회피하고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
아직 밥이 가득 담겨 있는 미나의 밥공기.
아빠, 분위기가 이상해서 종민과 미나를 번갈아 쳐다본다.

아빠 종민아, 요즘 바쁘니?
미나 (힐끔 종민을 쳐다본다)
종민 네 아저씨. 제가 요즘 전지훈련 준비하느라... 그리고..
(손 확 들더니 능글맞게)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미나 (썩, 하고 사례가 들려서 물을 마신다)
종민/아빠 (미나를 의아하게 보다가)
아빠 (의미심장) 아...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미나를 본다)
미나 (고개 푹 숙이고 밥 먹고 있다)

아빠의 시선. 맛있게 밥을 퍼먹고 있는 종민. 고개 숙이고 밥을 거의 못 먹고 있는 미나.

종민 (미나 보고) 야, 팍팍 좀 먹어. 뭘 밥알을 세고 있어?
미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종민 (고개 갸웃하고 장조림을 집어 먹으려고 한다)
아빠 (장조림 접시를 팍 뺏어 들어서 미나 쪽에 놔주며)
우리 딸, 많이 먹어라.
종민 (의아한 눈빛으로 아빠를 본다)
아빠 (모르는 척 식사한다)
미나 (숟가락을 탁 놓고) 나, 그만 먹을래.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종민 (미나에게) 어~? 왜 다 안 먹어. 계란말이 맛있는데...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으려고 하는 순간)

아빠 (계란말이가 담겨 있는 접시를 탁 집어 든다)
종민 어? (의아한 눈빛으로 아빠를 본다)

아빠, 접시 들고 있는 채로 종민이 눈을 마주치고 있고... 정적.
종민, 고개 한 번 갸웃하고 다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이번엔 종민의 밥공기까지 채간다. 종민, 황당한 눈으로 아빠를 보고,
아빠는 종민의 밥공기를 뺏어 들고 있는 채로 종민을 노려본다.
이내 식탁을 정리하는 아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종민.

S#39. 미나 집 / 미나 방(밤)

깜깜한 방. 미나, 방문에 기대어 서 있다.
밖에선 아빠와 종민이 두런두런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미나.

아빠(E) (큰 목소리로) 미나야~ 종민이 간다~
종민(E) 아니에요, 아저씨. 설거지하고 갈게요.
아빠(E) 그냥 가라. 설거지는 아저씨가 할게.
종민(E) 맨날 하던 건데 그냥 제가...
아빠(E) 허, 그냥 가래도.

(E) 가까워지는 종민의 발자국 소리
미나, 당황해서 방문을 급히 잠근다.
잠그자마자 철컹철컹 돌아가려고 하는 문고리 소리.

종민(E) 어? (노크) 강미나. 문은 왜 잠갔어? (노크) 야~

미나 (입을 가리고 소리 안 내려고 조심한다)

종민(E) 자나...? 인사도 안 하고, 인성 하고는...

나 간다! (멀어지는 종민의 발걸음 소리)

시간 경과.

책상 위 스탠드만 켜져 있는 어두운 미나의 방

스탠드를 꺾다 꺾다 하는 미나.

급히 일어나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린다.

모니터 화면. 차례대로 입력됐다 지워지는 글자들.

“종민 오빠” “내일...?” “말할까...” “아니야...”

미나,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다.

S#40. 하늘(아침)

인서트. 화창한 하늘. 나무 사이로 눈이 부시게 햇빛이 들어온다.

S#41. 학교 / 정문 앞(아침)

정문 앞에 서서 비장하게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미나.

미나 그래, 오늘 하면 돼, 오늘. 내가 오빠랑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선미 (어느새 미나 오른쪽에 와서) 미나야! 일찍 왔네.

미나 (당황) 어, 어? 언제 왔어?

순희 (어느새 미나 왼편에 서 있다) 근데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하나?

미나 (헉, 놀라서) 아냐, 아무것도 아니야!

미나, 재빨리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순희/선미, ‘재 왜 저러냐’ 하는 눈빛 교환. 어깨 으쓱한다.

S#42. 학교 전경(낮)

(E) 벨소리

S#43. 학교 / 3층 계단 근처(낮)

미나, 구름다리 위를 걸어가며 종민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인서트. 미나의 폰 화면

미나(E) 오빠, 이따 학교 끝나고 뭐 해?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이내 쓰던 문자를 다 지우고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 젓는 미나.

미나, 한숨 쉬고 있는데, 구름다리 아래 복도에서 자연이 무리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연을 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미나.

구름다리 아래 복도.

앞쪽에 미연, 예림, 자연 셋이 핸드폰을 하면서 걷고 있고

조금 뒤쪽에 보배, 보라가 걸어오고 있는 중.

미나(E) 저건 왜 저렇게 자꾸 눈에 띄어?

점프.

계단 꼭대기. 미연, 예림, 자연이 계단에 먼저 도착해서 나란히 서서 폰을 하며 나머지 아이들 기다리고 있다.

미연 (짜증) (휴대폰으로 뭔가 하며) 왜 이렇게들 늦어.

배고파 죽겠는데.

자연 그러게.

예림 (뒤돌아보며) (손짓하며) 빨리 좀 와. 미연이 배고프대.

예림, 다시 뒤돌다가 잘못해서 미연이를 팔로 툭 쳐버린다.

미연, 어어, 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비명을 듣고 보배/보라가 허겁지겁 달려온다. 미나를 스치고 지나간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미연.

예림이와 자연이 급히 계단을 내려가서 미연이를 살펴본다.

뒤따라서 보배, 보라도 내려오고.

미나, 깜짝 놀라서 계단 위에서 그 모습 내려다보고 있다.

미연, 꽤 심하게 다쳐서 정신을 잃은 모습.

자연 (다급하게) 미연아, 괜찮아? (안절부절못하며) 어떡해...

학생들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들기 시작한다.

예림 (불안하게 눈알을 굴리며 모여든 아이들을 보다가) 야, 민자연! 너 미쳤어? 어떻게 계단에서 사람을 밀어?

자연 (당황하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림 니가 밀었잖아, 지금.

자연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예림 야, 내가 앞에서 니가 민 거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보배 (예림이와 눈빛 교환)

나도 봤어! 니가 뒤에서 밀었잖아!

자연, 당황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한다.

미나와 눈이 마주친 자연, 부르려고 하는데,

예림 어딜 봐~! (자연을 잡아끈다) 사람이 다쳤는데 지금!

자연 놔 봐~!

학생1 (웅성웅성) 야, 어떡해. 완전 심하게 다쳤어.

학생2 재가 밀었나 봐.

예림 (쓰러진 미연에게 가서) 미연아, 괜찮아? 어떡해...

자연, 다시 계단 위를 보는데, 미나는 그 자리에 투명한 채 앉아 있다.

S#44. 학교 / 미나 교실 앞 복도(낮)

찜찜한 기분으로 교실 앞까지 온 미나. 교실 안이 소란스러워서 뭔가 싶어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다.

S#45. 학교 / 미나 교실(낮)

자연이 책상에 앉아 있고, 그 주위에 보배, 보라가 서 있다.

예림은 자연이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배 (힐난조로) 너 왜 밀었냐?

자연 안 밀었다니까.

예림 와, 너 진짜 상종 못하겠다.

내가 바로 옆에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보라 뭘 물어. 내일 실기 시험 있으니까 민 거 아냐.

미연이가 지보다 잘하니까.

학생5 어쩐지... 둘이 꼭 붙어 다닐 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미연이 보는 눈이 심상치 않더라니까. 힐끔힐끔 아려 보고.

자연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어 진짜.

보라 뭘 그런 적이 없어? 나도 몇 번이나 봤는데.

자연 야, 너네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 나 미연이 싫어한 적도 없고 밀지도 않았...

예림(O.L) 허,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가슴 치며) 완전 어이없다.

그럼, 누가 밀었는데? 내가 밀었다는 거야?

자연 아니, 그게 아니라...

보배(O.L) 아 됐어, 됐어. 니가 안 했다고 쳐. 지금 미연이가 중요하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 우리 미연이한테나 가보자.

보라 그래, 얼른 가자.

아이들, 몰려서 나간다. 허망한 자연이의 표정.

학생6 (교실로 들어오면서) 자연아, 선생님이 부르셔. 교무실로 오래.

S#46. 학교 / 미나 교실 앞 복도(낮)

자연이 나오다가 미나와 눈이 마주친다. 미나,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한다.

자연 (미나에게 다가오며) 미나야, 너 아까...

미나, 자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면하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버린다.

미나가 들어간 문을 보면서 허탈한 표정을 짓는 자연.

S#47. 학교 / 교무실 앞(낮)

교무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미나.

미나 (교무실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내가 왜? (고개 절레절레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와서 또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가 뭣하러?

선미(E) 미나, 거기서 뭐해?

미나가 보면, 순희/선미가 복도 저쪽 끝에서 부르고 있다. 미나, 교무실 문을 한번 보고 순희/선미 쪽으로 뛰어간다.

S#48. 놀이터 앞 골목길(밤)

찝찝한 마음으로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미나.

S#49. 놀이터(밤)

텅 빈 놀이터. 미나, 그네에 앉아서 흔들리고 있다.
간간이 한숨을 쉬며 그네를 멈춰 세웠다가, 고개를 도리도리하고 다시 흔들렸
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종민(E) 역시 여기 있었네.

미나, 고개 들어 보면 종민이 놀이터에 와 있다.
미나, 대답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네에 앉아서 그네 흔들다.
종민, 다가와서 미나 옆의 그네에 앉는다. 말없이 앉아 있는 돌.

종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미나 ...

미나,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종민 쪽을 보지도 않는다. 종민, 뺨뺨해진다.
놀이터에 그네 킁킁거리는 소리만.

종민 저기, 있잖아... 내가 사실은 물어볼 게 있어서. 자연이 말이야...

미나 (흔들거리던 그네를 탁 멈춰 세운다)

종민 너 혹시 뭐 들은 거 없어? 순희나 선미..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라도.

미나 난 잘 몰라.

종민 아니, 좀 이상해서... 자연이 그럴 애 아니잖아.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앤데 어떻게 계단에서 사람을 밀어.

미나 ...

종민 뭐 본 것도 없어?

미나 어, 없어.

종민 (의심) 정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미나 (신경질적) 못 봤다 그랬잖아.

종민 아... 미안.

자연이 걱정이 너무 돼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 같..

미나(O.I) 오빠.

종민 응?

미나 나 이만 들어가야 해. 숙제 많아서. 그리고. 나는 자연이 하나도 걱정
안 되니까, 자연이 애긴 다른 사람이랑 해.

종민 뭐?

미나 귀찮아 진짜. (일어나서 가버리려고 하면)

종민 (미나 팔을 잡으려 하며) 야, 넌 말을 왜 그딴 식으로...

미나, 종민의 손을 탁 치고 놀이터에서 나가버린다.

인서트. 학교 - 타임 랩스

S#50. 학교 / 도서관(낮)

어디선가 종이 뭉치 하나가 날아와서 자연의 머리에 떨어진다.

자연이 돌아보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 자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자마자 다른 방향에서 지우개 하나가 날아와서 다시 자연이의 머리에 맞는다. 자연, 책 고개를 돌려 지우개가 날아온 방향을 쳐다보면, 저쪽 책상에서 보배와 예림이가 킁킁거리며 웃고 있다.

보배 (간죽)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자연, 보배를 노려보다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몰래 몰래 쪽지를 주고받고 있다. 수군거리는 아이들.

미나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미나에게 쪽지를 건네준다.

미나, 받은 쪽지를 열어본다.

인서트. 쪽지

“민자연이 실기 시험 1등 하고 싶어서 미연이 민 거라고 함. 팩트 확인. 목격자 다수”

미나, 쪽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대로 구겨버린다. 쪽지를 건네준 학생이 옆으로 전달하라는 제스처를 보내는데, 미나는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다.

그때, 구겨진 종이 뭉치가 또 날아와서 자연의 머리에 명중한다.

자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아이들 순식간에 이목이 자연에게로 향한다.

자연, 두뼉뼉 걸어서 보배 앞에 가서 선다.

자연 나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해.

보배 할 말 없는데. 미친... 도끼병 째어.

자연 내가 민 거 아니라고 했지!

예림 누가 뭐래? 우리 지금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왜, 찢리나 보지?

자연 (예림에게 화내며) 너 진짜!

예림 (넘어지는 시늉하면서) 어머, 애 좀 봐. 나도 밀어서 떨어트리려고? 하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이 뭐 어렵겠어.

자연 (예림이를 노려보다가) 됐다. 그만하자. (돌아서려고 하는데)

보배 되긴 뭐가 돼? (자연이를 붙잡는다)

자연, 보배의 손을 뿌리치는데 보배가 파당, 하고 의자에서 떨어진다.

예림 (호들갑) 보배야~ 어떡해. 괜찮아? (자연을 노려본다)

아이들이 수군거린다.

자연, 반 아이들을 의식하고 뒤돌아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간다.

그때, 보라가 자연이의 발을 건다. 자연, 심하게 넘어진다.

그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폼, 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 다시 일어서서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도서관 밖으로 나간다.

자연이 나가자마자 미나에게 붙는 선미와 순희.

선미 미나야, 쪽지 봤어? 진짜 자연이가 민 거야?

미나 (통명)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순희 저것들 아주 기회 잡았네. 같이 다니면서 둘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미연이 다친 김에 자연이까지 한 큐에 처리하겠단 이거잖아.

선미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순희 돕긴 왜 도와. 진짜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린.
야, 미나야. 잘하면 민자연 알아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다.
상황 돌아가는 게 완전 매장 뿔인데?

미나, 갑자기 일어서더니 도서관에서 나가버린다. 선미/순희 의아하게 본다.

S#51. 학교 / 도서관 밖(낮)

미나, 도서관 밖으로 나왔는데, 자연이가 복도에서 창 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
다. 자연, 먼 산 보다가 눈물을 급하게 한 번 훔치고 입술을 깨문다.

S#52. 학교 / 미나 교실 앞 복도(낮)

(E) 학교 종소리

미나, 교실 앞 복도로 걸어 들어온다. 앞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연
이가 뒷문으로 나온다.

눈이 마주치고, 걸음을 멈추는 둘. 서로 할 말이 있는 듯한데 하지 못하고 머뭇
머뭇 서 있다.

미나가 입을 열려고 순간, 갑자기 보배, 보라가 쿵쾅거리며 뒷문으로 나온다.

보라 (자연이를 끌고 가면서) 야, 민자연, 너 이리 와 봐.

자연 (끌려가면서) 이거 놔~!

미나, 끌려가는 자연이를 보며 불안해서 눈빛이 흔들린다.

S#53. 학교 / 미나 교실(낮)

보배, 보라, 친구5 및 두세 명 더가 자연이를 둘러싼 채 서 있고,
예림이는 바로 앞 책상에 앉아 있다. 자연이를 괴롭히고 있는 아이들.
교실 안에는 선미/순희를 포함해 7명 정도가 앉아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

보라 (자연 툭툭 치면서) 야, 넌 엄치도 없냐?

자연 (보배 팔 쳐내면서) 하지 마~ (자리를 피하려 한다)

보배 (자연이의 어깨를 잡고 확 돌려 세우면서) 어딜 가?

사람을 넘어뜨렸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이게 어디서 뽕을 까?

보라 너 빨리 보배한테 사과해.

자연 내가 왜 사과를 해?

예림 (헛웃음) 와... 너 진짜 웃긴다. 왜 사과를 해? 참내.

사람 다리 부러뜨리고 나니까 넘어뜨린 것 정도는 사과할 일도 아닌
것 같냐?

자연 내가 안 밀었다고 했지!

보라 미친. 안 했다고 우기면 다야? (세계 밀어서 자연이 나동그라진다.)

자연이 넘어지면서 근처 책상도 쓰러지고, 그 위에 있던 교과서들이 바닥에 흘
어져 떨어진다.

보라 (넘어진 자연 앞에 쭈그러 앉아서 이마 쿡쿡 밀며) 너 같은 건 무용 하
면 안 돼. 인성이 글러 처먹었는데.

자연 ...

보배 뭐해?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사과해.

자연 (보배 노려본다)

보라 와~ 재 눈빛 좀 봐. 저러다 누구 하나 죽이겠다. 아니, 벌써 한 명 죽이려고 했지? 이거 완전 싸이코패스 아냐?
(자연이 머리를 탁탁 때리며) 야, 야! 대답 안 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S#54. 학교 / 미나 교실 복도 앞(낮)

미나, 복도에 서서 열린 문을 통해 자연이가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해하는 얼굴.
그때, 순희/선미가 앞문으로 나온다.

선미 미나야, 가자... 교실 분위기 이상해.

순희 (미나 끌며)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야.

미나, 내키지 않는 듯 억지로 끌려가면서 시선은 교실 안 상황을 향한 채.

교실 안

보라 (쓰러진 자연이에게 책 툭툭 던지며) 안 되겠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

미나, 순희의 팔을 뿌리치고 교실 쪽으로 다시 걸어간다.
뒤에서 말리는 선미.

선미 (당황) 어~? 미나야, 어디 가?

S#55. 학교 / 미나 교실(낮)

미나, 교실 문을 광 연다. 학생들의 이목이 미나에게로 집중되면서 시끄럽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조용한 교실을 가로질러 자연이가 있는 쪽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미나. 예림이 앞까지 가서 선다.

예림 (가식적) 왜? 강미나, 너도 애한테 뭐 당했니?

미나 (예림에게) 이제 좀 그만하지! 아무 잘못 없는 애 포함하면 좋냐?

보배 그게 뭐 소리야?

미나 내가 다 봤거든. 이에림 니가 잘못된 거잖아.

예림 (당황) 뭐, 뭐라는 거야?

반 아이들 수군수군 거린다.

예림 (벌떡 일어서며) 니가 어떻게 봐? 니가 거기 있었냐?

미나 그래, 있었다!

예림 있긴 뭐가 있어. 그때 우리 말곤 아무도...

미나(O.L) 내가 니네 계단 위에 서 있는 거 처음부터 다 봤거든. 니가 보배 보라 부르면서 팔로 미연이 밀쳤잖아. (보배/보라 차례로 가리키며) 니넨 그때 계단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웅성거리는 아이들. “뭐야..” “누가 그런 거야?” 같은 소리.

예림 이게 듣자 하니까 진짜. 너 재랑 짤냐? 둘이 짤어? 니 말 누가 믿을 것 같아? (미나 밀려고 한다)

미나 (예림의 팔 탁 쳐내며) 왜? 거짓말 들키니까 말문이 막혀?

예림 이게 진짜. (머리를 탁 친다)

미나 (예림의 머리를 친다)

예림 이게 진짜!

예림, 갑자기 두 손으로 미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미나,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예림이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마침내 떨어지게 된 예림. 미나, 씩씩거리면서 예림이를 쏘아본다.

예림 (비웃으며) 노력하면 어쩔 건데?

미나, 입술을 깨물더니 예림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는다.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다가 예림이를 쓰러트리는 미나, 곧장 쓰러진 예림이의 위에 올라타더니 때리기 시작한다.

보배 이런 또라이 년이.

보배, 미나에게 달려든다. 뒤에서 미나의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잡아당기고, 미나는 뒤로 확 쓰러진다.

그 모습을 본 자연이가 뛰어들어서 보배의 머리채를 잡는다.

그 사이에 보라는 예림이를 일으켜 세운다. 보라가 자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보배와 실랑이 하고 있는 미나에게 다시 달려드는 예림.

미나, 두 명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

순희/선미, 그 광경을 보고 눈에 불뚱이 튀어서 교실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순희와 선미가 보배/보라/예림에게 달려들어 개싸움이 시작된다.

아이들 엉켜서 치고 박고 싸우다가...

밀쳐져서 떨어져 나가는 선미, 근처 책상에 있던 책을 집어던져서 예림의 머리에 맞춘다. 예림, 책을 맞고 선미를 때려보더니 근처에 있던 필통을 집어 던진다.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 선미.

책, 대걸레, 칠판지우개 등등 날아다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교실.

자연과 미나, 싸움판 중에 간간이 서로 눈빛이 마주친다.

처음엔 서먹서먹해서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돌렸다가, 나중에는 씩 웃는 미나.

미나, 여기저기 붙잡히고 맞으면서도 얼굴에 후련한 듯한 미소가 가득하다.

선생님 (교실로 뛰어 들어와서)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S#56. 학교 / 교무실 앞(낮)

보배/보라/예림이 교무실로 들어간다

나란히 무릎 꿇은 채 손 들고 벌 서고 있는 자연/미나/순희/선미

미나, 팔이 아프다고 궁시렁거리다가 자연이와 눈이 마주친다.

자연, 픽 웃기 시작하고, 미나도 같이 웃음이 터진다.

서로를 보며 킁킁거리며 웃는 둘.

S#57. 골목길-종민과 만나는 장소(초저녁)

머리도 산발이고, 교복도 여기저기 뜯어지고, 물골이 말이 아닌 미나.

하지만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이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골목 초입으로 들어

선다.

종민,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 미나, 스케이트보드를 집어 들고 걸어서 종민에게 다가간다.

미나 (신난 표정으로 종민에게 다가가며) 오빠~

종민(O.L) 강미나.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미나 (무슨 소리냐는 듯) 응?

종민 자연이 다 봤다며? 왜 모른다고 했어?

미나 아~ 안 그래도 오빠한테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연이 이제 괜찮아, 내가 오해 풀어줬어. 아까...

종민(O.L)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처음부터 얘길 안 했냐고!

미나 ... (통명) 오늘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냐?

종민 야, 뭐가 돼? 너 그동안 자연이 괴롭힘 당한 건 생각 안 해?
보면서 불쌍하지도 않았어? 넌 애가 진짜 왜 그래?

미나 (종민 쳐다보다가 점점 씩씩거리다)

종민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본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너한테 그렇게 힘들디?

미나 (버럭)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종민 (어이없는 표정) 뭐?

미나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종민 ... (한숨 쉬고) 강미나,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미나 ...

종민 됐다. 그만 하자. 넌 항상 그런 식인데, 화내는 내가 바보다.

미나 ... 그런 식이 뭔데?

종민 항상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 니가 싫은 건 하나도 안 하고. 불편한 건 다 피하고. 자연이 힘든 거 보면서...

미나(O.L) 자연이, 자연이 얘기 좀 그만 해!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나는, 오빠 내 생각은 안 해?

종민 갑자기 니 얘기가 왜 나와?

미나 오빠 말 맞아. 나, 싫은 건 암 것도 안 해. 불편한 건 다 피해. 근데 나 이번에는 할 만큼 했어.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냐고? 나한테 힘들어! 오빠 암 것도 모르면서. 내가 왜 뭇 땀에 그랬는지, 내가 무슨 생각 했는지!

종민 ...

미나 그래도 나 했어. 늦었지만 자연이 오해 풀어주려고 싸우기까지 했던 말이야. 근데 왜 몰라? 계속 자연이 얘기만 하고,

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오빠한테 난 뭔데? 오빠한테 난 뭐냐고!

종민 (병진 표정으로 미나를 보고 있다가 미나에게 팔 뺀으며) 야, 강미나.

미나 (씩씩거리며 종민 팔 쳐내고) 오빠, 진짜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미나, 화난 걸음으로 종민 걸을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가는 미나를 보는 종민.

S#58. 골목길-미나 집 / 앞(밤)

미나, 잔걸음에서 점점 발걸음 속도가 늦어진다. 집 근처에 와서는 거의 고개를 바닥에 향하고 터덜터덜 걷고 있다.

울타리 문 앞에 다다르고, 미나, 한숨을 쉬더니 스케이트보드 위에 가만히 쏘그려 앉는다.

무릎 위에 턱을 괴고 침울한 표정인 미나. 땅바닥에 눈물방울이 하나둘씩 툭, 툭, 떨어지기 시작한다.

미나, 손등으로 눈물을 재빨리 훔친다.

미나 (혼잣말) 정종민, 나쁜 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도 노력한 건데... 용기 낸 건데... 진짜...

미나, 말을 잊지 못하고 훌쩍거리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빠가 나온
다. 아빠, 미나를 보고, 미나도 아빠를 본다.

미나 (울먹이며) 아빠....

아빠,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와선 미나를 꼭 안아준다.

미나 (아빠에게 와락 안기며) 아빠... 나... (울음이 터진다)

아빠 미나야. 괜찮아, 울고 싶음 울어. (미나의 등을 토닥인다)

미나, 아빠 품에 꼭 안겨서 끼이끼이 운다.

아빠, 아무 말 없이 미나의 등을 계속 토닥인다. (페이드 아웃)

S#59. 골목길 + 교실 앞 복도(아침)

몽타주.

1. 골목길-종민과 만나는 장소

미나,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골목 초입에 들어선다. 매일 기다리던 종민이
그 자리에 없다. 한참 기다리는 미나. 시간이 지나도 종민이 오지 않자 그냥 혼
자 등교한다.

2. 미나의 교실 앞 복도

강국이랑 걸어가던 종민, 미나의 교실을 기웃거리다. 미나는 교실 안에 없다.

한숨 한 번 쉬고 가던 길 계속 걸어가려는 종민.

미나, 복도 반대쪽에서 걸어 들어오다가 종민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종민도 미나를 보고 걸음을 탁 멈춘다. 서로 바라보며 머뭇머뭇하는 둘.

이내 미나, 오던 길을 되돌아가며 자리를 피한다.

착잡한 표정으로 미나의 뒷모습을 보는 종민.

S#60. 학교 / 테니스장(낮)

연습을 마친 뒤 벤치에서 테니스 가방을 꾸리고 있는 종민.

옆에는 자연이가 서 있다.

가방에 물건 다 집어넣은 종민,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한 표정.

잠시 서서 한숨을 쉬더니 지퍼를 닫는다.

자연 오빠... 내일 전지훈련 가죠...

종민 ...응.

자연 저... 배웅...

종민(O.L) 아니야. 다녀와서 보자.

자연 ...

점프.

미나, 나무 뒤에 숨어 있다.

자연과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종민의 모습이 보인다.

종민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미나. 종민이 점점 가까워진다.

종민,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신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학교를 본다. 다시 한 번 한숨.

미나, 종민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종민이 뒤를 돌아보고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 투명해져버리는 미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종민과 미나. 종민은 미나를 보지 못하고,
미나는 종민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을 걸지 못한다.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둘.

S#61. 하늘(아침)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러서 날아간다.

S#62. 학교 / 풀밭(아침)

풀밭에 누워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빵을 먹고 있는 미나/선미/순희

순희 그래서. 정종민은 전지훈련 갔어?

미나 ...응

순희 화해는 했냐?

미나 ... 싸운 것도 아닌데 무슨 화해야.

선미 그래도... 오빠랑 그 이후로 얘기도 안 했잖아.

순희 그래, 보는 우리가 더 답답하다. 맨날 풀 죽어가지고.

선미 대체 그날 정확히 무슨 이야길 한 거야? 우리도 알아야 도와주든가
하지...

미나 그제...

인서트. 미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선미/순희의 모습

순희 싸운 거 맞네!

미나 싸운 건가...? 난 그냥 내 속마음 다 말한 건데.

순희 야, 그게 무슨 속마음을 말한 거야. 그냥 나오는 대로 지껄인 거지.

선미 맞아, 미나... 심지어 꼴도 보기 싫다고 했다면서...

미나 ...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선미 그래도... (미나 눈치 보며) 미나... 그냥 이렇게 끝나도 좋겠어?

너도 오빠 좋아하잖아.

순희 냅 뒤. 어차피 쟀 좋아한단 말 못해. 했으면 진작 했겠지.

미나 (꿀떡은 병어리처럼 순희 쳐다보는)

선미 아니, 그게 아니라... 고백이든 화해든. 오빠랑 어떻게든 풀어야 되지
않아?

미나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어떡해. 상황이 이런데.

선미 (신나서) 상황은 상관없어. 제대로 진심을 전하면 돼!

미나 진심...? 그럼 편지라도 써야 되냐?

선미 아냐, 편지는 아니야. 사람이 진심을 전할 땐, 그의 앞에 다가서서 그
의 눈을 바라보며 해야 돼. 딱 한 마디만 하면 돼.
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미나, 고개를 돌려 하늘 바라보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

파란 하늘. 점점 멀어지는 순희와 선미의 목소리

순희(E) (푼, 웃으며) 야, 누가 들으면 너 연애했을 줄 알겠다?
 선미(E) (발끈) 그래도 알 건 다 알거든!
 순희(E) 알긴 개뿔. 어디 드라마에서나 주위들은 거짓지. 모태솔로면서.
 선미(E) 와~ 진짜 어이없어. 나 인기 많거든~ 내가 안 사귀는 거거든!
 순희(E) 그래. 그렇다고 쳐.
 선미(E) 순희, 너! 미나야~ 뭐라고 좀 해줘~

S#63. 미나 집 / 앞(아침)

미나,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온다. 한 손엔 스케이트보드 들고, 다른 한 손엔 봉투가 들려 있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와서 울타리 문도 통과.

아빠(E) 음식물 쓰레기!
 미나 (봉투 들어올리며) 여기 있지롱!

미나, 쓰레기통에 봉투 던져 넣고선 스케이트보드를 땅에 탁 놓고 타고 가기 시작한다.

S#64. 골목길(아침)

스케이트보드를 한 발로 밀며 골목길을 지나가는 미나의 모습. 이내, 두 발 다 보드 위에 올려놓고 쭈욱 활강하며 내려간다.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는 미나의 얼굴.

S#65. 골목길 - 종민과 만나는 장소(아침)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미나. 항상 종민과 만나던 전봇대에 도착하자 보드를 탁 집어 들더니 전봇대에 기대어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골목길로 들어서는 종민, 미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가, 머리 굽적굽적하며 미나에게 다가간다.

미나 (웃으면서) 왔어?
 종민 (멋쩍어하면서) 어... 잘 지냈어?
 미나 그럼~ (폰 들어 시간 확인하고) 오늘은 오빠가 늦었네?

나란히 걷는 둘. 조금 걸어가다가 미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종민도 따라서 걸음을 멈춘다.

미나 (종민의 어깨 슬쩍 쳐서 돌아 세우며) 오빠.
 종민 응...?
 미나 나... 할 말 있어. 오래전부터 오빠한테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종민 응...?
 미나 나, 오빠 좋아해.

종민, 미나를 뻔히 쳐다보다가 배시시 웃기 시작한다.
 미나도 종민 마주 보고 웃는다. 웃음 가득한 얼굴에서 -

끝.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박주연



작가 후기 최성욱

당선되었던 초고와는 같은 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며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관계, 줄거리, 심지어 장르까지 변했습니다. 최소한의 설정만을 남기고 대본을 모두 해체한 뒤 다시 글을 써나가는 작업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무엇을 구상해도 머릿속 한 구석엔 항상 초고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쓰고 싶던 장면들을 버리고 또 버린 다음에야 겨우 수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정을 거쳤지만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성장'이라는 테마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두 달이 넘게 한 대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장이라는 행위가 거창하고 능동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본을 쓰면서 깨달은 점은,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하는 그런 행위요. 성장이란 것이 습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장했...나요?

이 자리를 빌어 부족했던 제 대본을 쓸모 있게 만들어 수많은 밤을 같이 했던 장정도 감독님과 이예림 피디님, 그리고 여러 모로 마음 써주신 여러 오픈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형수와 같다.” - 알베르 까뮈

2017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일도 미루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 10대를 20대에 다닐 대학을 위해 살아가고, 20대를 30대에 다닐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살아가며, 30, 40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꿈꾸고 가치 있다고 믿는 일들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 언젠가는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꿈꾸는 것, 하고 싶은 것,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겁먹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었다.

등장인물

최수아(여, 30세)

서울구치소 주방에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일을 도맡고 있다. 처음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만들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었다. 그 트라우마로 사형수들의 눈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피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구치소 주방에서 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구치소에서 친한 선배 혜정과 후배 선화와 대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꽤 호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남독녀. 평범한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누군가가 정해놓은 사회적 틀에 맞추어 지금껏 인형처럼 잘 살아왔다. 아니, 잘 살아왔다고 굳게 믿고 싶다. 한림고 졸, 한국대 사진학과 주전공, 식품영양학과 부전공. 처음에는 잠시 평생 사진

찍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를 보면서,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삼신할머니의 랜덤 신공을 통해 낙점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부전공을 살리기로 선택. 2년간 취준생 생활을 전전한 끝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계약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IMF 시대에 빛을 발한다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이만하면 땡큐지.

그런 어느 날, 서울구치소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형수 하나가 들어왔다. 처음엔 이 사형수 때문에 자신의 해묵은 고민을 다시 시작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나 어느새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형수 민중이 궁금해지고, 연민을 느끼고, 끝내는 그가 누군가를 죽일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옛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마지막 식사를 먹어치우던 어느 사형수처럼, 이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igo. 혼자 그렇게 믿게 되었다. 이러한 정념에 사로잡히면서 수아는 60대 사형수에게 그랬던 것처럼, 금기를 깨고 민중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구치소는 말 그대로 수아에게 진짜 감옥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강민중(남, 31세) 수감번호 486. 빨간 명찰. 최고수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무연고자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형수. 처음에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문이 자자해 모두를 긴장시켰다. 실제로도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응시할 때에는 마치 날뛰는 짐승처럼 사람들을 긴장시키게 만드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입을 열고 본모습을 드러내면, 그 모습은 일순간 사라지고 소문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다. 때문에 나중에 주변의 수감자들과 몇몇의 구치소 관계자들은 민중이 사람을 죽일 만한 깡냥이 되지 못한다고들 믿게 되었다. 지적 수준이 낮고 망상장애가 있어 자신은 사형수가 아니며, 언젠가 구치소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죽기 전 마지막 식사로 겨울과는 잘 맞지 않는, 땅콩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사실 이 음식은 무의식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어릴 적 사연과 관련이 있다. 민중의 아버지는 민중이 9살 때 돌아가셨고, 아직 젊은 어머니는 금세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 어머니의 마음이 서서히 민중에게서 멀어져 간 것은 그때부터였다. 보통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태어나는 무기라지만, 민중에게 그 무기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종든 땀든 간에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법이다. 자신의 포지션은 남자친구와 싸우고 돌아와 주는 엄마의 말을 옆에서 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유지해내야만 엄마에게 자신은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터득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민중은 한겨울에 지독한 감기를 물약 하나로 버텨내고, 삼 일 만에 겨우 눈을 떴다. 그때 어머니는 깨어난 민중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차라리 그냥 죽기 그랬어, 이제 그만 보육원으로 가주라. 민중은 괜히 목이 마르니 시원한 땅콩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생떼를 부렸다. 그리고 보육원에 가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배가 아픈데 계속 아이스크림을 위장에 밀어 넣었다. 홀로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며 아이스크림을 게우고 나서도 다시 아무렇지 않게 엄마 앞에서 또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웠다. 이것이 보육원으로 보내지기 전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이감 자료를 건네받은 교정관 정도다.

교정관(남, 41세)

서울구치소에서 20년 동안 일한 베테랑. 감투를 쓰거나 그 무엇을 바란 적은 추호도 없다. 그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 97년 IMF 시대에 유독 빛나는 ‘철밥통’의 장점을 십분 살려, 지금처럼 별다른 체제의 전복 없이 평화롭게 정년을 맞이하는 것. 아침에 구치소로 출근할 때마다 스스로 터득한 자신의 진리를 몇 번씩 되뇌인다. 비록 수감자들이 구치소 안의 세상에서는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흙

을 밟는 인간일지라도- 그들은 질적으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혹여 누군가가 마치 구치소 벽 너머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구치소 밖의 시선으로 ‘수감자들이 우리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인간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 해주어야 한다고.

20년을 근무하면서 구치소 안의 몇몇 관계자들이 수감자들에게 동화되어 크고 작은 룰들을 깨뜨리려는 것을 보았다. 그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작은 룰을 깬 대가는 생각보다 참혹했고, 룰을 깬 사람들의 말로는 일정하게 비참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어떤 누군가가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수감자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자신만큼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하며 그 눈먼 자들을 ‘구출’해야겠다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망상장애를 가진 사형수 하나가 등장했다. 그리고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만든다는 여자 하나가 그 룰을 깨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가 그 사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변한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평화로운 구치소 내에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전운(戰雲)이 감돌기 시작한다. 막아야 한다. 저 여자가 또 예전의 그 사람들처럼, 룰을 깨고 스스로가 만든 구렁텅이로 풍덩 빠지기 전에. 그래서 안 된다고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소리를 질러줄 생각이다.

787(남, 33세) 흰색 명찰

민중과 같은 4번 방을 쓰게 된 수감자 동기. 친하게 지내던 사형수를 보낸 적이 있던 터라 빨간 명찰(사형수)이라면 일단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811(남, 30세) 흰색 명찰

민중과 같은 4번 방을 쓰게 된 수감자 동기. 사기 전과 2번. 처음 민중이 4번 방으로 들어왔을 때, 민중을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레벨 정도로 알고 까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신세계가 이미 4차원 안드로메다로 떠난 민중은 생각보다 강적이

었다. 이때문에 애를 먹는다.

858(남, 24세) 흰색 명찰

민중의 4번 방 수감자 동기. 구치소에 들어온 지 육 개월째. 부산 사투리를 쓴다.

양혜정(여, 48세)

수아의 선배이자 멘토. 평상시 호젓하게 지내는 수아가 그나마 자주 말을 섞는, 몇 안 되는 구치소 관계자들 중 하나. 오 년 전 수아가 서울구치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켜야 할 규칙과 금기들을 가르쳐주고 구치소에 눌러앉게 한 장본인이다.

윤선화(여, 25세)

혜정이 서울구치소를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새로 들어온 신입 주방 보조. 수아의 직속 후배다. 구치소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있는 수아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수아가 민중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균열이 생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구치소장(남, 60세)

정년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아 혹시나 구치소에 무슨 일이 터지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전전공공한다. 제발 내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구치소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새가슴이다.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 쓸 수 있을까 늘 궁리하고 고민한다.

수감번호 444(남, 44세) 빨간 명찰

흔거실 4번 방의 맞은편, 13번 독방에 거처하는 사형수. 새벽에 가장 먼저 기상할 정도로 성실한 우량수. 그러나 사실은 사형수 신드롬을 앓고 있다. 쓰레기봉투로 자살을 시도한다.

사형수1(남, 35세) ※ 마지막 식사 메뉴 : 라면 한 그릇.

사형수2(남, 60세) ※ 마지막 식사 메뉴 :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음식.

수아가 구치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처음 마지막 식사를 만들었던 사형수. 수아가 정을 주었던 사형수이기도 하다. 수아에게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

사형수3(남, 24세) ※ 마지막 식사 메뉴: 햄버거와 옛 잔뜩.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마지막 식사로 구치소장에게 소소한 복수를 하는 임팩트를 남기고 떠난다.

즐거리

1997년 11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기 전의 이야기다. 수아가 처음부터 서울구치소 주방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뼈든한 집안 형편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꿈이었던 사진작가는 제쳐두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찝찝한 일을 시작했다. 바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일. 수아가 근무하는 구치소에서는 형이 집행되기 전에 사형수들이 '자신이 먹고 싶은 마지막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리고 수아는 지난 5년간 사형수의 다양한 마지막 식사들을 만들어왔다. 사계절 제철 음식, 라면 한 그릇, 각종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했다.

물론 수아도 처음에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를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 특히 마음을 열었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광경을 목격한 뒤에는 심한 정신적 외상까지 겪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사형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친밀하게 대하되,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거나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구치소 내의 료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5년을 꾸역꾸역 구치소에서 버텼

고, 그 대가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계약을 연장하고 IMF 시대의 로망이라는 진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터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강민중이라는 특이한 사형수가 구치소에 들어온다. 그는 지적 수준이 낮은 무연고자로, 자신은 사형수가 아니며 곧 구치소를 나갈 것이라는 망상증을 앓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사형수들과는 영 다르게 미래를 대비하는 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에 민중이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잔인한 살인마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점차 민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아는 민중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정념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민중이 궁금해지고, 연민을 느끼고, 끝내는 그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아는 곧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모른 채,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민중을 보는 것이 점점 괴롭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다. 이때부터 수아에게 구치소는 말 그대로 진짜 감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민중의 사형 집행 전 날. 구치소에서는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민중은 마지막 식사인 줄도 모르는 마지막 식사를 주문한다. 그런데 그가 주문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음'이다. 5년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수아가 빈 식판을 들고 가 이유를 물어도 민중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민중이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도중 실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수아는 민중이 벗어놓은 수감복에서 알약을 발견한다. 사형수 신드롬?! 사형수 신드롬을 앓는 사형수들처럼 민중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자살을 계획한 것일까!

그러나 민중은 작은 고질병을 앓았던 것뿐이었고, 사형 집행은 싱겁게 유예된다. 그리고 이 일과 맞물려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가 된다는 뉴스가 들리면서 민중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한편, 수아는 어느새 민중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결국 민중의 두 번째 사형 집행날. 민중은 두 번째로 마지막 식사를 주문한다. 일전에 한 번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 수아는, 이번만큼은 강민중을 돕기로 결심한다. 강민중에게 사형 집행이 곧 시작된다는 사실을 몰래 알리고, 그를 설득

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준다. 그런데... 민중이 마지막 식사를 다 먹지 않고 몰래 남겨두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수아가 급히 사형장으로 향하는 민중을 따라가지만, 끝내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그는 '나중에 먹을 것이니까 넣어두라.'는 말만 남긴 채 사형장으로 사라진다.

수아는 강민중의 예상치 못한 마지막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진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며, 허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S#1. 구치소 주방(오후)

주방보조(OFF) 오더!

(얼굴은 보이지 않고) 수아의 마른 손이 칼날을 예리하게 다듬는다. 이내 날카로운 칼이 파를 갈기갈기 썬다. 그로테스크한 느낌. 양은 냄비에서 부글부글 소리 내며 끓는 라면. 스프, 면, 파송송 계란 탁! 들어간다.

따뜻한 색 접시와 그릇에 라면과 김치, 단무지 그릇 담긴다. 찰칵! 플래시 터진다.

화면 빠지면,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는 누군가(수아).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웬지 섬뜩한 분위기.)

S#2. 몽타주

사동 복도 (새벽)

(* 구치소는 2층짜리 건물로 교도관이 수감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옵티쿰 구조다. 각 방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다. 복도에 따라 혼거실과 독방으로 구분되며, 사형수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개 독방을 쓴다.)

약간의 어둠이 깔려 어슴푸레한 사동. 식사 그릇을 들고 사동 복도를 걸어가는 수아의 뒷모습 따라가면. 수감자들이 대부분이 자고 있어 고요하다. 몇몇만이 일어나 눈 비비며 철창 사이로 수아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본다. 수아의 양옆으로 교도관들이 호위하고.

구치소 내 위무방 (새벽)

여기저기 위패가 놓여 있다. 위패 앞에 놓인 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른다. 작은 십자가와 염주도 곳곳에 보인다. 검은 고양이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 날카롭게 가르릉거리는 검은 고양이.

사동 복도 (새벽)

팔짱을 끼고 앉아 무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교정관. 모자 한 번 매만지더니, 천천히 일어나 옆에 놓여 있던 교정봉 잡아 어깨에 걸쳐 메어 든다. 수아, 동요 없이 라면 그릇 들고 사동 밖으로 걸어 나간다.

일인 식사방 내부 (새벽)

(* 일인 식사방은 검찰 취조실처럼 중간의 불투명 창문을 기준으로, 식사방과 참관실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다. 식사방에서 참관실은 보이지 않지만, 참관실에서 식사방은 보이는 구조. 식사방에 놓인 책상에는 사형수와 사형수의 가족들이 주로 마주 앉게 되며, 조금 떨어진 간이의자에서 수아가 앉아 식사 장면을 지켜본다. 악질 사형수의 경우, 수아 옆에 교도관이 함께 호위하는 경우도 있다. 참관실에서는 교정관, 교도관, 서기가 식사 장면을 지켜보며, 서기는 대화를 타자로 쳐서 공문서로 남기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식사 시간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이며, 7시가 되면 구치소장이 교정관, 보안관, 교도관들과 함께 사형수를 사형장으로 데려간다.)

수아의 뒷모습. 그 앞으로 일인 식당의 문이 열리면, 방의 내부가 보인다. 고급스러운 책상과 의자, 오디오 등으로 꾸며진 깔끔한 방. 창문 사이로 새벽 햇빛이 들어와 방이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 양복을 차려 입은 사형수1(남, 30대 후반)과 사형수1의 모(여, 60대 중반)가 마주보고 앉아 있다. 사형수1, 어딘가 불안한지 자꾸 다리를 떤다.

참관실 (새벽)

일인 식당 내부의 불투명 창문. 그 창문 너머 참관실에서 교정관, 교도관, 서기가 식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교정관은 팔짱 낀 채 무표정. 교도관과 서기는 잔뜩 긴장해서 침 꿀꺽.

교도관 라면?? 기껏 고른 게?

서기 혹시 진짜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도관 ? (보면)

서기 아무도 말 못 해주잖아요.

인서트. 책상 위에 놓인 라면에서 하얀 김이 난다. 그 위로.

서기(E) 이게 마지막 식사 거.

자막. 오전 6시. 마지막 식사. 라면 한 그릇

교도관 (앞만 응시하며) 야. 재들도 눈, 귀 다 붙어 있다.

서기 예?

교도관 어제 넥타이 공장 청소한 거, 벌써 소문 짝 났다구.

일인 식사 방 (새벽) 사형수1이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CF의 한 장면처럼) 맛있게 먹는다. 입에서 뜨거운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온다. 사형수1의 모는 말 한 마디 없이 옆에서 젓가락을 들어 김치, 단무지 등을 숟가락에 얹어 준다. 누군가(수아)가 옆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이 모습을 무덤덤하게 지켜본다. 이내 사형수1이 마지막 남은 라면 국물까지 싹 비워낸다.

사형수모 (따뜻하게) 아들. 맛있게 먹었어?

사형수1 (고개 끄덕, 그러다 수아 보며) 아.

수아 (보면)

사형수1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담담히) 수프부터 넣었죠? 담엔 면부터 넣어 봐요. 김치도 좀 신 걸로 바꿔보고. 우린 맨날 그렇게 먹었는데. 그치.

집행소리(Off) 쿵!

밀실 구치감 (사형장) 조명이 별로 없어 어둡한 밀실 가운데, 저 멀리 교수형을 당한 사형수1의 실루엣이 보인다.

S#3. 구치소 주방(새벽)

라면 플라로이드 사진을 주방 벽에 거는 누군가. 획, 뒤를 돌아보는데. 카메라 빠지면. 무표정의 수아다. (블랙아웃)

타이틀. 마지막 식사를 만드는 여자

S#4. 서울구치소 / 상담실(낮)

암전된 상태에서 수아의 목소리 들려온다.

수아(E) 마지막 식사 만든 진, 오년 됐어요.

화면 밝아지면, 공무원 느낌의 세미 양복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수아가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가슴팍에 ‘최수아’ 명찰 달려 있고. 소파에 편히 앉아 있다. 운동장에서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는지 조금 어수선한 소리 들린다. 열린 커튼 틈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화면 빠지면 상담사가 어떤 서류 들고 마주 앉아 있다. 상담사는 뒷모습만 보이는 상태.

자막. 1997년 11월 1일. 서울구치소.

상담사 마지막 식사... 그게 정확히 뭐죠?

수아 여기선 사형수들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사형수들이 그 마지막 식사를 주문하면, 전 그걸 만드는 거구요.

상담사 (서류에 뭔가 적으며) 그럼... 그 외에 최수아 씨가 하는 일은 또 뭐가요?

수아 직원들 식사 챙기고. 식단표 짜고. 식사 당번들 관리하고...

상담사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음,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마지막 식사는 뭐가요?

수아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하다가) 아... 하나 생각나는 건 있어요.

인서트. 사형수2의 마지막 식사 플라로이드 사진.

S#5. 과거. 구치소 일인 식당 + 참관실(새벽)

책상에 어질러져 있는 햄버거 포장지와 콜라 몇 잔. 햄버거와 콜라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입. (먹방) 카메라 빠지면, 사형수2(남, 30대 중반. 덩치 있음. 반

바지에 티셔츠 차림)가 홀로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어 치우고 있다. 카메라, 다시 시선 이동하면 책상 한쪽에 손도 대지 않은 엽들이 잔뜩 쌓여 있다. 수아와 교도관이 서서 황당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다. 불투명 유리 너머 참관실에 있는 교정관과 서기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사형수2 (우물거리며) 저기...

사형수2의 말과 함께 불투명 유리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 재빠른 손놀림으로 사형수2가 한 말을 타자로 친다.

수아, 교도관 ? (보면)

사형수2 (진지하게) 감자튀김은 없어요?

교정관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서기가 ‘감자튀김...’까지 타자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킁, 웃음 터뜨린다.

교정관 (못마땅해서) 즐겁냐?

서기 (고개 으쓱)

수아가 잠시 당황하다가 고개를 내젓는다. 그러자 사형수2가 아쉬워하며 다시 남은 햄버거를 꾸역꾸역 먹어 치우더니, 소스가 묻은 손가락을 짹 짹 빨아.

S#6. 과거. 사형수3의 감방(밤)

수(E) (그 사형수가 그렇게까지 햄버거를 먹어댄 이유는 며칠 뒤에 밝혀졌

어요.

비어 있는 사형수2의 감방. 교도관이 들어와 방 한쪽 구석에서 돌돌 말린 휴지 조각들을 찾아낸다. 휴지 조각을 클로즈업하면, 펜으로 ‘난 무죄다. 복수할 것’ 이라고 삐뚤삐뚤 쓰여 있다.

S#7. 과거. 구치소장실(아침)

수(E) 그 마지막 복수는 꽤 효과적이었죠.

구치소장(말끔한 양복 차림)이 사무용 책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매우 긴) 영수증을 보고 있다. 구치소장 앞에 교도관이 눈치 보며 서 있고, 영수증 클로즈업하면,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콜라(大)...’ 끊임없이 찍혀 있다. 점점 열 뺨치는 구치소장. 교도관이 눈치 보며 안절부절못한다.

구치소장 (열 받아서 영수증 내팽개치며) 에이씨! (교도관 깜짝) 진짜루 이걸 다 먹어 치웠단 말야? 평소에 굶겼어?

교도관 네? 아, 아닙니다. 마지막이라 최선을 다했는지... (주저하다가 꾸깃거리는 휴지 조각 내밀며) 저, 근데 이거...

구치소장 뭐야?

교도관 그 사형수 방에서 나온 겁니다.

구치소장. 휴지 조각 신경질적으로 낚아채서 펴 보는데, 클로즈업하면 볼펜으로 적은 삐뚤삐뚤한 글씨, ‘난 무죄다. 복수할 것.’ 구치소장과 교도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동시에 시선이 한곳을 향한다. 시선 따라가면 구치소장

의 책상 위에 잔뜩 쌓인, 먹지 않은 엿들 보인다. (‘빅 엿’, ‘울릉도 호박엿’ 등. ‘엿’이란 글자가 뚜렷하게 보인다.)

구치소장 아아, 일부러 나 먹으라고 남기신 거세요? (속사포로)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무서운 새끼. (훅 교도관 쳐다보며) 앞으로 식사비용은 오만 원 넘기지 말라고 전달해!

교도관 넵! (보면)

구치소장 지금 당자양!!

바로 튀어나가는 교도관.

상담사(E) 혹시... 무죄라는 말. 믿나요?

S#8. 서울구치소 / 상담실(S#4. 이어서)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없는 무표정의 수아.

수아 (고민도 없이 바로) 아뇨.

S#9. 서울구치소 / 복도.(낮)

수아, 상담실 문 열고 나온다. 다소 북적거리는 복도. 수아가 사람들 헤치며 빠르게 걷기 시작하는데. 혜정, 어떤 장바구니 들고 교도관과 대화하다가 수아 발견하고는 옆에 서 있는 선화에게 가자고 툭툭 친다. 선화, 벽에 기댄 채 신발 한

짜 벗어 놓고 발가락 꼼지락거리다가, 급하게 운동화 옥여넣어 신는다. 수아, 혜정에게 다가간다.

혜정 뭐래? 계약 연장? 아님 무기로 전환?

수아 (자신 있게 피씩) 별 일 없음 무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혜정 오, 그럼 이제 진짜 공무원 되는 거야?

수아 (혜정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잔뜩 든 양파 힐끗 보고. 아, 또 올려고 산 거구나.) ...오늘도 청송맛게 양파 써실려구요?

혜정 아니, 그냥 오늘따라 양파가 먹구 싶어서.

수아 오늘은 주책바가지처럼 울지 마요. 사연 있어 보여.

혜정 (땀지가 앓다.) 못된 기지배, 사부한테 말하는 거 봐. 정나미 떨어져. 참, 저번에 인사했었지?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할 주방 보조. 윤선화 씨.

선화 (활기차게) 안녕하세요!!

수아 (갑자기 뭐지? 당황스럽지만...) 아, 응... 잘해보자.

혜정 니가 여기 설명 잘 좀 해줘.

CUT TO. 복도 일각

(* 카메라가 수아를 계속 따라가며 구치소 내 분위기를 보여준다.)

수아가 선화 데리고 무표정으로 복도를 걷고 있다. 카메라 계속 따라간다. 수아, 심기 불편한 표정. 점점 시끄러워지는 복도. 식자재 옮기며 수아에게 인사하는 주방 식구들도 보이고. 수아, 그때마다 건조하게 '네' 소리만. 누가 식자재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조심 좀 해라!' 소리도 들린다. 교도봉과 무전기 들고 돌아다니는 교도관들도 종종 보이는데. 수아, 심기가 불편해서 못 참겠는지 핸드폰 꺼내 혜정에게 문자 보낸다.

수아(E) 혹시 인원 감축이예요?

수아와 선화가 복도를 계속 걷는데 복도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반대편 복도. 수감자 여덟 명이 걸어오는 모습 보인다. 교도관의 통제하에 네 명씩 두 줄로 나누어 걸어 오고 있고. 787, 811, 858, 444의 모습도 보인다. 다들 조금씩 떠드는데 444만 홀로 외떨어져 조용히 걷고 있다.

수아 (창문 응시하며) 오늘 점심 식사 당번들. 원래 자기들 먹을 건 자기들이 만들어.

선화 (신기해서) 우와. (444 보다가) 근데 왜 저 사람만 빨간색이예요?

수아 사형수야. 사람 여러 명 죽였대.

선화 ...열라 무서워요.

선화, 심각한 표정으로 수감자들 바라보는데. 수아, 그 사이 선화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캐주얼 차림. 짙은 동여맨 머리. 자주 옥여 신은 듯, 뒤가 우그러져 있는 운동화. 이때 오는 문자.

혜정(E) 설마. 인원 감축이면 너한테 미리 말했지.

수아 (다행이다... 안도하고. 선화 툭 치며) 웃어. 그렇게 보지 말구.

선화 네?

수아 (수감자들 응시하며) 최대한 웃으면서 친구처럼 대해. 재들도 사람이라 상처 받아.

인서트. 수감자들과 반대편 복도에서 교정관이 교정봉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 건네는데, 받는 등 마는 등. 차가운 표정.

S#10. 주방 앞 복도(낮)

어느새 수감자들이 수아와 선화 가까이에 와서 선다.

교도관 수고 많으십니다.

수아 (고개 끄덕)

교도관 자, 인원 점검 실시합니다. 시작!

수감자들 (순서대로 쪼그려 앉으면서 각자 구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도관, 펜 꺼내 명단 서류에 체크한다.

811 (쪼그려 앉은 채로) 추워 뒤지겠네, 진짜. (앞에 서 있는 787의 겨드랑이에 손 넣고) 뜨끈한 온천수네. 좋다!

787 (경기 일으키며 811 떼어 내며) 떨어져, 새끼. 징그럽게.

811, 출씩거리다 뒤에 있는 444의 발 밟는다. 아파서 멈칫하는 444. 811, 444 확인하더니 사과도 하지 않은 채로 무시하고 뒤돌아버린다.

교도관 (체크 끝내고) 자, 전체 기상합니다. (수감자들 일어서면)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비행기 모양으로 접힌 종이 꺼내들고) 오늘 아침에 서로 정답게 뼈꾸기 날리다가 경고 받은 사람들이 있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입니까?! 몰래 손 편지를 주고받게!!

수감자 일동 아닙니다!

교도관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수감자들 네!!

그 사이, 811이 다시 787 겨드랑이에 손 넣는 장난치고 787이 세계 밀친다. 811이 뒤로 밀리면서 444를 건드리고. 444, 그 바람에 넘어진다. 444가 말없이 811을 노려보다가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난다.

811 아이고, 무서버라. 그러다가 나도 죽이겠네. 뭐, 나도 여기 가슴팍에 다가 빨간 명찰 하나 딱 꽃아 박고, 같이 골로 가줄까? 영?

444 (조용히)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그 순간 수감자들, 444 보면서 '아니, 빨간 명찰 주제에 어디서 나불거려?', '재 미쳤나?' 냉소한다. 811, 의기양양. 교도관들, 웅성거리는 수감자들 보고.

교도관 (서류 탁 닫고는) 아참, 거기 조용히 안 해!!...(하는데)

갑자기 811의 다리를 뒤에서 툭 걸어 채는 누군가의 발. 811, 헉, 소리도 못 내고 순식간에 나자빠진다. 연이어 444도 나자빠지고. 811, 나자빠지다가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도 건드려 함께 엎어진다. 쓰레기로 뒤범벅된 811.

811 뭐야! 어떤 새끼가...

교정관 (나긋하게) 췌. 아니, 감히 나랏일 하시는 교도관 나오리들께 새끼라니. (갑자기 무표정) 그런 험한 말 쓰면 안 되지 말입니다.

일순 흐르는 정적. 눈치 보는 수감자들. 수아와 선화도 얼었다. 수아, 교정관과 눈 마주치자 꾸벅 인사하고. 교정관, 수아 확인하자 이전과 달리 살짝 미소 지으며 격려하듯 어깨 툭툭 친다. 교정관, 또각또각 구두 소리 내며 천천히 사라진다. 수감자들, 눈치 보다가 넘어진 811 일으켜 세운다. 444는 혼자 털고 일어나 옷매무새 다듬는다.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조금 까졌다. 선화, 444 도와

주려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교도관. 수아가 교도관의 시선 감지하고 바로 선화 팔 붙잡는다. 교도관, 수감자들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수아, 그제야 선화 팔 푼다.

수아 재들한테 친구처럼 대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진짜 친구라고 착각하거나 불쌍해하는 건 안 되지.

선화 네? 그래두...

수아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버티고 버텨서 공무원 자리 꺾치고 싶다면? 그럼 룰 지켜. 혼자 위선 떨다 나중에 질질 짜면서 도와 달라 하지 말구. 미리 말할게. 그때 난 절대 안 도와줘.

S#11. 서울구치소 / 주방 일각(낮)

수감자들이 죽 일렬로 서서 콩나물 대가리 떼고 있다. 811, 오두방정 떨며 하입김 불고 손 비벼대고 있다.

787 (콩나무 대가리 떼며) 오늘 메뉴 뭐냐?

858(O.L)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나물, 연근조림, 콩나물 무침, 현미밥.

811 넌 무슨 식단표를 통째로 외우고 땡기냐?

787 (한숨) 풀밭이네. 무슨 우리가 초원에서 뛰노는 한 마리 토끼냐고요.

811 (혼자 빵 터져서) 행님, 솔직히 (손으로 얼굴 쓱쓱) 페이스가 토끼 쪽은 아니죠. 양심이 좀 있음... (787이 구렛나루 확 잡아 뜯자) 여기 구치소장 나오라고 해! 어디 감히 풀떼기들을! 내 아주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확 뜯으며) 대가리를 확 떼버릴 테니까는!

교도관(O.L) (보다가) 시끄럽다!!!

811 (바로) 옹! (오버 하며 경례) 충성!

일동 ... (고개 절레절레)

787 (나직이) 저 물에 빠져도 입만 뚱뚱 뜯 새끼.

이때, 수아와 선화가 수감자들 옆으로 지나간다. 식사 준비하던 수감자들, 수아 보자 공손하게 꾸벅 인사하고. 수아도 눈 마주치며 인사 일일이 받아주는데. 444가 인사하자 수아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선화가 그런 수아의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본다.

S#12. 수아 기숙방(새벽)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 악몽을 꾸는지 뒤척거린다.

S#13. 과거(수아 꿈) 구치소 / 일인 식당 + 참관실(새벽)

사형수3(남, 60대. 양복 차림)과 사형수3의 부인(수수하게 꾸민 차림)이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오디오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 흘러나온다. 창문 밖으로 눈 내리고 있다. 책상에 놓이는 살구색 식판과 플라스틱 수저. 식판에 차례대로 냉이 된장 무침, 수박, 전어 구이, 꼬막 무침(봄, 여름, 가을, 겨울 - 사계절 제철 음식) 놓여 있다. 젓가락 들어 냉이 된장 무침 맛보는 사형수3. 고요한 가운데 아삭아삭, 냉이 씹히는 소리만 들린다.

부인 십 년 만에 드디어 탈출하네. 축하하우.

사형수3 맛 좋네. (젓가락으로 냉이 가리키며) 이거 뭐지?

부인 냉이 된장 무침이잖어. 봄마다 해주면 맛있다고 한 접시 똑딱 해놓구 선.

사형수3 (진지하게) 임자. 나... 이십 년 만에 좀 솔직해져도 될까?

부인 (긴장해서) 뭘?

사형수3 당신이 만든 건 진짜 맛대가리 없어.

부인 (흘겨보며) 진상.

오디오에서 물 흐르는 소리 흘러나온다. 사형수3, 이번에는 수박을 맞본다. 그러다가 입가에 점처럼 붙은 수박씨.

부인 (피씩, 손으로 입가에 붙은 수박씨 떼면서) 웬일이래. 당신이 수박을 다. 여름에 냉장고에 사다놓음, 먹는 등 마는 등 하던 양반이.

사형수3 임자. 나... 이십 년 만에 한 번 더 솔직해져도 될까?

부인 또 뭐?!

사형수3 나 사실 수박 되게 좋아해.

부인 근데 왜 맨날 깨작거렸대? 성질나게.

사형수3 당신이 수박 좋아하잖어.

부인 (짱긋) 멋져.

CUT TO. 오디오에서 클래식 ‘사계(겨울)’ 흘러나온다. 사형수3과 부인,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 가벼운 춤추기 시작한다.

사형수3 나 부탁 하나 있어. 들어줄 거지?

부인 들어나 보고.

사형수3 나 가고 나면... 내 몸뎡이 열어서 기증 좀 해줘. 그리고 꼭... 재혼해.

수아가 간이 의자에 앉아 이 모습을 넋 놓고 지켜보고 있다. 점점 절정에 다다르는 음악. 빨라지는 춤. 창문 밖으로 폭설이 내리는 것이 보이고. 사형수3과 수아의 눈이 자꾸만 슬로우로 마주치는데. 사형수3의 왼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지더니. 갑자기 눈빛이 점점 섬뜩하게 변해가고. 수아, 더 이상 못 보겠다, 눈 피하고 고개 푹 숙여 버리는데.

CUT TO. 일인 식사 방이 텅 비어 있다. 고요하다.

수아(E) 일인 식사 방에서 자유로운 식사가 허용될 때... 사형수들 대부분은 이미 직감하더라구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거...

S#14. 현실. 수아 기숙방(새벽/ 동틀 무렵)

수아가 어느새 침대에서 일어나 진땀 흘리고 있다. 진땀 흘리고 있는 수아의 앞쪽 벽에 사형수3의 마지막 식사 플라로이드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

수아(E) 어쨌든 구치소에서 어떤 자유가 주어진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여길 나가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S#15. 과거. 서울구치소 내 상담실 (낮)

수아 (화면 똑바로 보며) 마지막 식사라는 건 사형수들에게겐 축배를 들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전... 딱히 슬프거나 괴로운 적은 없어요.

S#16. 수아 기숙방(새벽)

수아가 헛구역질하기 시작한다.

인서트. 몽타주 (과거)

다음 화면들이 빠르게 겹쳐 지나간다.

수아, 사형수3과 주방에서 무언가 얘기 나누며 밝게 웃는다.

수아, 간이 의자에 앉아 눈물이 그렇해서 사형수3의 마지막 식사를 지켜본다.

수아, 주방 구석에서 혼자 울음 삼키며 오염한다.

기숙방(현실)

수아, 서랍에서 약통 꺼내서는 알약 몇 개 삼킨다. 혈떡이다가 천천히 심호흡하고 창문 열어젖히고, 바깥을 내다본다.

S#17. 구치소 경비대 초소(새벽)

창밖으로 평평 눈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교도 경비대원이 두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편한 자세로 앉아 신문 보며 흥얼거리고 있다. 신문 1면에는 대문짝만하게 ‘주식회사 쌍방울 최종 부도 처리. 대기업 연쇄 부도’ 라는 헤드라인 걸려 있다. 책상에는 먹다 만 컵라면 통, 과자 봉지 등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구석에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뉴스 들린다.

라디오소리(E) 신사역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강 모씨가 오늘 재판에 회부

돼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S#18. 구치소 전경(새벽)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 눈이 내려 구치소 주변이 하얗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와중에, 저 멀리 점처럼 두 사람(교도관과 강민중)이 앞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위로.

라디오소리(E) (이어서) 신사역 살인사건은 지난 1월에 발생한 문지마 살인 사건으로-

S#19. 구치소 운동장(새벽)

아무도 밟지 않아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눈 위에, 뾰드득 뾰드득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잇따라 새겨진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걸어서 똑바로 난 발자국. 다른 하나는 발을 질질 끌기도 하고, 삐뚤삐뚤 걸기도 해서 일관성 없이 난 발자국.

라디오소리(E) (이어서) 피해자 이연희 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다섯 차례나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눈 위의 발자국 족 따라가면 교도관과 수감 차고 포승줄에 묶여 교도관 따라 걷고 있는 민중(남, 30대)이 보인다. 민중, 눈빛이 섬뜩하다.

S#20. 구치소 안 + 감방 안 교차(아침)

라디오소리(E) (이어서) 범인은 무연고자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중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인서트.

구치소 내부 통제실 CCTV 화면

끼익, 구치소 철문이 무겁게 열리고. 민중이 수갑을 찬 채로 구치소 안으로 들어온다. 민중 가슴팍에 '486'이 적힌 빨간 명찰이 붙어 있다. 민중, 눈에 초점이 없다.

CCTV 화면 속 민중.

화면 빠지면. 교정관, 통제실에서 CCTV 화면 속 민중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책상 앞에는 '여주구치소 이감 자료 / 강민중'이라고 쓰인 서류 자료들 놓여 있다.

구치소 안

교도관 두 명이 수갑을 찬 민중을 데리고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자 수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중에게 집중된다. 787과 811, 858의 모습도 보인다. (*셋은 모두 흰 명찰로 흔거실 4번 방에 함께 머물고 있다.)

흔거실 4번 방 (787, 811, 858의 감방)

787은 드러누워 있고, 811은 창살 사이로 밖을 지켜보고 있다. 858은 구석에 쭈그리고 신문에 실린 고소영 사진 살살 찢어내고 있다. 벽 여기저기에 드라마 90년대 스타들 사진 붙어 있다.

811 (창살 사이로 얼굴 옥여넣으며) 신입인데?

787 (혼자 팔굽혀 펴기 하며) 그래? 명찰 색깔은?

구치소 안 (811의 시선)

교도관들이 민중을 데리고 건너편 복도(독방)쪽으로 천천히 사라진다.

흔거실 4번 방.

811 정열의 레드.

787 (볼일 없다는 듯 하품하며) 최고수야? 옛 같네. (두 손으로 자기 목 조르는 시늉하며) 넥타이 공장이 간만에 바쁘겠구만.

(* S/S 최고수 :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은 사형수를 일컫는 은어.

* S/S 넥타이 공장 : 사형 집행장을 일컫는 은어.)

858 (고소영 사진 살살 찢으며) 그래도 최고수 오든 좋은 점은 있잖아요. 인자 우리들한테 앵가이 희망이 생기부는 것이제.

787 뭘 희망?

858 행님들. 내 지금 시궁창에 디비져 위로 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겁나게 우울하다, 그럼 우째씨는지 알아요?

811, 787 (보면)

858 상대가 프퓌 더 깊은 데로 디비자빠지믄 되는 기요 카면 나는 전보다 백배 더 행복해지는 기지. (찢은 고소영 사진 보며 감탄)와, 이봐. 이마약같은가 스나. 나는 이가스나만 있음 여기서 썩어도 쾌안타.

787 (드러누워 기지개 켜며) 그래도 빨간 명찰들한테 정 주지 마라. 그러다 훌쩍 넥타이 공장 들어가면, 우리만 또 감정 상해요.

811 (생각하다) 근데 흑시... 재가 갠가?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또라이?

787, 811, 858 수상한 눈빛 서로 주고받는다.

S#21. 민중의 독방(저녁)

플래시 들고 불 꺼진 고요한 수감동 순찰하는 교도관. 민중의 독방 지나다가 살펴보는데. 민중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시 요리조리 살펴보는데. 어두컴컴한 가운데 민중이 저 멀리 벽에 기대 앉아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교도관이 돌아서려던 찰나, 주머니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가 창살 근처 바닥에 요란한 소리 내며 떨어져 버리고. 교도관이 더듬더듬 열쇠 꾸러미 줍고 일어나는데. 어느새 다가와 창살 근처에 바짝 붙어 있는 민중! 한 마리 호랑이처럼 살기가 느껴지는 눈. 교도관, 순간 혁, 놀라 다리 풀리고!!

구치소장(E) 사이코패스지, 뭘.

S#22. 구치소 주방(저녁)

구치소장 범죄 현장 기록으로 봐선 그래. 계획 살인이야. 칼 잘 쓰는 놈이구.

구치소장이 주방 한쪽에 기대고 서서 커피 마시며 얘기하고 있다. 수아와 주방 식구들, 두려운 표정. 그 와중에 누가 실수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컵 떨어뜨리고. 짹 그랑 소리 나며 컵이 요란스럽게 깨진다.

S#23. 민중의 독방(저녁)

S#19. 이어서

다리 풀린 교도관, 다시 플래시 들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싹싹거리는 거친 숨소리 들린다. 플래시 비추니 민중이 꾸그리고 앉아 배를 부여잡고 있다. 상태가 안 좋나? 조심스레 다가가 살펴보는 교도관.

S#24. 구치소 경비대 초소(저녁)

야근하고 있는 경비대. 똑똑 소리 들리고. 문 열리면 수아다.

수아 주방 근무하는 최수입니다. 이쪽 의무실이 잠겨 있는데요.

경비원 아,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 내일 다시 가 봐요.

수아 그럼... 약이라두 어떻게.

경비원 (고민하다) 수감 병동 써야지, 뭐. 이번만 좀 봐달라고 거기 의사 선생한테 얘기해 봐. 이 시간에 누구 없을 거니까.

S#25. 수감 병동 의무실(저녁)

부분 조명만 켜진 조용한 의무실. 수아가 주변 힐끗 둘러보며 들어온다. 의사가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왔나? 수아, 잠시 둘러보다가. 못 참겠다, 배 부여잡고 비어 있는 침상에 눕는다.

의무실 벽에 붙어 있는 거울. 수아 등 뒤를 비추는데. 거울 화면 속, 수아 등 뒤에 쳐진 커튼이 달싹거린다.

커튼 뒤의 누군가(민중)의 시선. 조금 열린 커튼 틈으로 수아를 지켜보고 있다.
 수아 옆쪽에 놓인 매스, 주사기 등도 보인다.
 수아, 다시 눈 뜨는데 바로 위에서 거꾸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민중의 얼굴! (민중의 거꾸로 된 얼굴 클로즈업 된다.)
 순식간에 화면 어두워지고, ‘으악!!’ 하는 수아의 비명 소리.

인서트. 의무실 바닥. 약간 열린 문틈으로 복도의 노란 불빛 비취 들어온다. 그 빛 위에 왔다 갔다 순찰하는 교도관들의 검은 그림자 비친다. 그림자가 분주하다.

의무실. 침상에 누워 있는 수아와 영화 ‘마미(Mommy)’의 한 장면처럼 한 손으로 수아의 입 틀어막고 그 손등에 얼굴 가까이 대고 있는 민중. 민중의 살기 띤 눈이 수아의 바로 눈앞에 마주하고 있고. 무서워서 숨 거칠게 몰아쉬는 수아. 민중의 명찰 힐끗 보는데. 선명히 보이는 빨간 명찰 486. (그 사형수구나!!) 민중의 살기 띤 것 같은 눈이 순간 (마지막 식사 때 춤을 추던) 사형수3의 섬뜩한 눈과 오버랩 되고! 고타운 가운데 수아의 눈과 민중의 눈이 서로 오래도록 마주친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다. 수아, 두려움에 떨며 결눈질로 옆을 살피는데. 주사기와 매스 보인다. 수아, 더듬더듬 주사기에 손 뻗는다. 손이 잘 닿질 않는다. 계속 눈 마주치는 수아와 민중. 민중,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수아의 배 쓰다듬는다. 그때.

교정관(E) 저 새끼 뭐야!!

교정관과 교도관들이 의무실로 뛰어 들어온다. 교도관이 민중을 수아에게서 거칠게 떼내고, 뒤로 팔 꺾어버린다. 의사가 혈레벌떡 뒤따라 들어온다. 괴로운 듯 비명 지르고 몸 뒤트는 민중.

교도관 뭐야. 애 왜 여기 와 있어?

의사 아, 위경련 증세가 있어서. 아깐 자고 있었는데...

교정관, 열 받아서 순간 옆에 있던 교도관 정강이 걷어찬다. 순간 긴장감 있는 침묵 흐른다.

교정관 (수아 천천히 보며) 최 선생은 별 일 없어요? 아니, 근데 그쪽 의무실 놔두고 왜 여기 와 있어?

수아 아. 저쪽 의무실이 공사 중이라...

교정관 담부턴 이쪽으로 오지 말고 외부로 나갔다 와요. 위험하니까.

민중이 팔 꺾인 채 질질 끌려 나간다. 그런 민중을 지켜보는 수아. 모두가 나가고 조용해진 의무실. 수아, 어디 다친 데 없나,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목이며 배며 요리조리 살피본다.

S#26. 사동 복도(새벽)

소지(심부름꾼을 맡은 수감자)가 돌면서 철창 사이로 뜨거운 물 담긴 물통과 신문 돌리고 있다. 모든 방 수감자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조용한 사동. (* 뜨거운 물은 겨울철마다 큰 약수터 통에 담겨 창살 사이로 각 수감방으로 전달된다. 약수터 통은 세로로 돌렸을 때, 창살 사이에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다. 물이나 쓰레기봉투와 같은 보급품은 각 수감방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S#27. 독거실 13번 방(444 독방)(새벽)

444가 일어나 머리 다듬고 있다. 소지가 물통과 신문 들고 다가온다.

소지 어?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다섯 신데.

444 (느릿하고 천연덕스럽게) 내가 사람 목 여러 번 따서 그런가... 잠귀 신까지도 무섭다고 도망을 가네.

소지 잠귀신도 귀신인데 뭐하러 형님 무서워하겠습니까? (물통과 신문 전달하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소지가 사라진다. 444, 뜨거운 물이 담긴 물통을 바닥에 놓인 자그마한 플라스틱 통에 조금 옮겨 담는다. 뜨거운 물에서 김 피어오른다. 검은 고양이가 어디선가 가르릉 소리를 내며 나타나더니 물 핥아 먹기 시작한다.

444, 오른손으로 고양이 쓰다듬는데, 갑자기 손 떨기 시작한다. 급히 왼손으로 오른손 잡아채는데, 이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을 떨기 시작한다. 444, 얼른 모포 찾아 뒤집어쓴다. ‘으으윽’ 신음 소리 내며 온몸을 떨어대기 시작한다. 어느새 교정관이 444의 독방 가까이에서 444를 관찰하고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펜 뚜껑 열고 들고 있던 (보호대상 관찰자) 서류에 원가를 적는다.

S#28. 구치소 복도(새벽)

교정관, 구두 소리 내며 복도를 따라 죽 걷는다. 시간이 지나 꽤 많은 수감자들이 일어나 조금 시끄러워진 사동.

444의 건너편 4번 방. 811과 858이 뜨거운 물 두고 “추워 죽겠다! 이번엔 내가 먼저 좀 쓰자!” 서로 말싸움 하는 모습 보이고.

그 옆방에선 한 명이 바가지로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주면, 다른 한 명이 “아, 뜨끈-해서 좋다!” 외치며 머리 감고 있다.

어떤 수감방에선 수감자들이 둘러 앉아 신문을 보고 있고. 이제 막 일어나 개인 모포와 침낭 개고 있는 수감자들도 보인다.

교정관, 민중의 독방 앞에 멈춰 선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모포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 민중. 교정관, 쭈그러 앉아 민중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CUT TO. 어느새 민중이 일어나 있다. 배식구에 아침 급식 들어와 있다. 민중, 혼자 된장국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한다. 소시지도 케첩에 찍어서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누가 오지 않는지 동태를 살피는 민중. 수상쩍다.

S#29. 구치소 주방(아침)

분주한 주방. 수아, 고기 썰고 있고. 혜정은 옆에서 나물 양념하는 중. (* 수감자들이 주방에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불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혜정 괜찮아? 어제 큰일 날 뻔했다며.

수아 (애써) 아, 네. 괜찮아요.

이때, 교도관 통제하에 식사 당번 수감자 여덟 명이 주방으로 들어온다. 444와 민중의 모습도 보인다.

교도관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수아 아, 네... (하다가 민중과 눈 마주친다. 눈 얼른 피한다.)

수감자들, 각자 위치로 가서 설거지하거나 야채 다듬는다. 교도관, 벽에 삐딱하게 기대고 서서 수감자들 지켜본다. 수아, 민중 때문에 긴장해서 고기 썰다가 칼질 잘 못한다. 손 약간 벤다.

혜정 괜찮아?

교도관 아니, 천하의 최 선생님이 웬일로 실수를 다 하시지 말입니다?

혜정 애 오늘 정신을 못 차리네. (약 꺼내 수아 손에 발라주며) 힘들면 들어가서 좀 쉬어.

수아 아네요. 괜찮아요... (민중 계속 의식한다.)

교도관 그냥. 그거 (444와 민중 보며) 재네들한테 맡겨 봐요. (비아냥) 사사사, 사팔육. 둘 다 사이코패스에 사람도 정교하게 썬었으니까 칼 하난 기가 막히게 쓸 거 아닙니까... 쓰레기들.

혜정 그래. 이걸 그냥 당번들한테 맡기자. (수아가 쥐고 있는 칼 내려놓으며) 이거 내려놓고. 응?

CUT TO. 혜정, 도구함으로 다가가 자물쇠 열고. 수감자용 칼 두 개 꺼낸다.
(※수감자들이 쓰는 주방 기구 중 위험한 것들은 자물쇠를 채워 따로 보관하며, 수감자들이 쓰는 칼의 경우 끝이 뭉뚝하고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444와 민중 앞에 약간 얼은 돼지고기, 퍽 놓인다. 혜정, 좀 쉬라고 수아를 근처 의자에 앉히고 차 한 잔 건네준다. 그리고 다시 나물 양념한다. 교도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슬쩍 가까이 다가가 팔짱 낀 채 둘을 지켜본다. 수아, 차 한 잔 마시며 교도관 따라 444와 민중의 모습 지켜본다. 444와 민중 고기 썬다. 444, 능숙하게 엄지가 나머지 손가락의 손톱 네 개를 덮는 자세(손이 다치지 않는 자세) 취한다. 칼로 돼지고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고 벤다. 사람을 찌를 때와 비슷한 자세다. 수아, 왠지 섬뜩한 느낌 때문에 얼굴이 굳는다. 교도관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흥미로운 표정. 반면, 민중은 어설피다. 엄지가 칼날 위에 올라서

있는 형태(칼을 다루는 것이 익숙지 않은 자세)로 돼지고기 벤다. 칼질이 서투른 나머지 손이 자꾸만 미끄러진다. 그러다가 칼이 퐁! 하고 튕겨져 나간다. 교도관과 수아, 깜짝! 민중, 안 되겠다 싶은지 결국 킁킁거리며 손으로 얼은 고기 녹여 억지로 떼낸다. 그러다가 언 돼지고기 퍽- 날아가 팔짱 낀 교도관의 품 안으로 명중! 즐지에 돼지고기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된 교도관.

수아 ... (표정 굳어진다. 칼 잘 쓴다며?)

S#30. 구치소 복도(밤)

부분 조명만 켜져 약간 어두운 복도. 구치소 복도 양쪽에 수감자들이 미술치료 시간에 그린 그림들이 깔려 있다. 그림들 밑에는 수감번호도 적혀 있다. 수아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어딘가 걷고 있다. 수아, 어느새 한 그림 앞에 선다. 444의 그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민중(수감번호 486)의 그림이 있다. 444의 그림은 전반적으로 인물이나 사물들을 뭉뚱그리게 그려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반면, 민중의 그림(엄마와 땅콩 아이스크림 먹는 그림)은 인물들 형태가 명확하다. 두 그림이 확실히 차이 난다.

교도관(E) 사사사, 사팔육. 둘 다 사이코패스에 사람도 정교하게 썬었으니까.

수아 ... (뭔가 잘못됐는데?)

S#31. 운동장(낮)

수감자들이 운동하고 있다. 민중, 다른 수감자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철조망 근

처 벽들 벽에 붙어 서서 멍 때리고 뭔가를 보고 있다. 신이 났는지 혼자 방방 뛰고 있고. 교도관들, 그런 민중을 보며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간다.

구름다리에 서서 민중을 관찰하고 있는 수아.

문득 민중이 주위 눈치 보더니 갑자기 근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한다. 교도관들이 호루라기 부르며 달려와 민중을 끌어낸다. 민중,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 꺼안고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리더니 이내 끌려가는 민중.

잠시 후. 운동시간이 끝나고 수감자들이 모두 들어가 텅 빈 운동장. 누군가 민중이 있던 자리에 다가선다. 수아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포 줍는다. 뒤집어 보면 실로 '103 이석환'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다.

S#32. 구치소 식당(저녁)

혜정과 선화가 야채 다듬고 있다. 구치소장은 또 죽치고 앉아 커피 마시는 중. 수아, 민중이 떨어뜨린 모포 주워 들고 들어온다.

수아 (다짜고짜) 일공삼. 이석환. ...아세요?

구치소장 (잠시 생각하다가) 일공삼이라... 어제 출소했을 텐데?

수아 (모포 보여주며) 그 사람 건가 봐요. 쓰레기통에 있더라구요.

구치소장 뭐, 이젠 필요 없으니까 버렸겠지.

수아 근데 그걸 줍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치소장 누가? 그거 주로 가족이 없고 땡전 한 푼 없는 최고수들이나 하는 짓인데.

수아 왜요?

구치소장 사형수는 미결수니까 물품이 안 나가잖아. 그럼 지 돈이나 가족들이

넣어 주는 영치금으로 사 써야 되는데. 가족 없고, 돈 없으면, 뭐 남이 쓰던 거 주워 써야지.

수아 ...

S#33. 구치소 복도(저녁)

교정관 통제하에 사동으로 이동하는 수감자들. 민중의 모습도 보인다. 수아, 복도를 지나가다가 수감자들과 마주치는데. 수감자들이 수아에게 인사하며 지나간다. 수아가 눈 마주치며 인사해준다. 민중이 인사한다. 수아... 잠시 망설이다 눈 마주치며 꾸벅 인사 받아준다. 교정관. 차가운 눈빛으로 수아를 주시한다.

S#34. 구치소 운동장(낮)

운동장 한가운데 족구장. 초콜릿, 과자, 컵라면 등등 보급품 걸고 수감자들이 내기 족구 차고 하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보급품들 산처럼 잔뜩 쌓여 있고. 족구 하는 무리 가운데 787과 811, 858도 섞여 있다. 787, 뛰어난 족구 실력 자랑하는 중. 그때, 858의 시선에서 민중이 철조망 근처 벽들 벽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858 (민중 확인하고) 올 게 왔네요, 행님!

787 재냐?

족구 하다 말고 민중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787. 811, 858 뒤따라간다.

- 787 (위협적으로) 야. 사팔육.
 민중 ? (보면)
 787 (목소리 깔고) 너 이 새끼, 벌써부터 안팎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떨치더라? 니가 밖에서 그렇게 사람 목을 정성스럽게 쭈셨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니 다리를 정성스럽게 고이 접어드리려고. (다리 양쪽으로 벌리고) 기어. 알아서.
 858 (811에게 소근) 이야, 역시 우리 범틸 행님. 어디서 본 건 많다!

민중, 가만히 족구 하는 수감자들 응시하더니, 787 무리 무시하고 족구장 쪽으로 달려가 버린다. 다리 벌린 채로 그대로 굳은 787. 황당한 811과 858.

S#35. 구치소 구름다리 + 운동장 교차(낮)

족구 하는 민중. 실력이 상당하다. 족족 점수 얻고. 환호하는 민중팀.
 반면 상대편 787. 공 차는 족족 점수 잃고. 민중 팀, 결국 이겨서 운동장 한쪽에 잔뜩 쌓아 놓은 온갖 보급품들 들고 환호. 열 받은 787팀, 787 보며 ‘우우’ 야유한다. 민중도 신나서 같이 춤추며 야유한다. 열 받은 787, 민중에게 니킥 날린다.
 잠시 엎어졌다가 벌떡 일어난 민중, 다짜고짜 787의 머리끄덩이 잡는다.

- 787 야. 놈. 놈. 안 놓냐?!
 민중 사과부터 해라!
 787 (역시 민중 머리끄덩이 잡고) 해 보자는 거지? 영? 아아. 야, 그냥 셋 세면 같이 놈. 하나... (민중, 머리 쥐고 더 세게 흔든다.) 아악! 야!! 이런 두 박자 빠른 새끼가!!

민중과 787, 머리끄덩이 잡고 발길질하며 유치하게 싸운다. 어느새 말리려던 811과 858까지 가세한다. 교도관들, 호루라기 불며 달려오는데. 787의 주머니에서 툭 떨어지는 담뱃값. 굳은 교도관들의 얼굴. 이내 영킨 네 명이 한쪽에 쌓아놓은 보급품들 위로 넘어진다. 순식간에 와르르 쏟아지는 보급품들.

S#36. 혼거실 4번 방(오후)

787, 811, 858. 뭔가를 보며 다 같이 ‘휴’ 한숨 쉬고. 다 같이 고개 뒤로 ‘딱’ 넘어간다. 팔랑거리며 787의 손에서 떨어지는 수감자 등급 심사 서류. 등급 심사 결과 ‘강등’. 독방 심사 요청 ‘거부’. 이유, ‘소동. 금지물품 반입’이라고 적혀 있다.

(* 수감자 등급 심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수감자들은 평상시 수감 태도에 따라 S1부터 S3까지 등급이 나뉜다. S1을 받은 수감자가 가장 모범수(우량수)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위의 단계로 승격(진급)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은 독방이나 혼거실 중에 자신이 머무를 방을 요청하거나 원하는 접견일 등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등급 심사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등급이 강등될 경우, 이러한 요청들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

- 858 (넋 나가서) 행님들. 등급 심사 결과... 저 에스투였다가 에스쓰리 나왔는데... 행님들도 강등 당했어요?
 787, 811 (다 같이 한숨)
 787 (넋 나가서 혼잣말) 혼거방만 쓴 지 삼 년째. 독방... 써보고 싶었다. 혼자만의 여유... 즐겨보고 싶었다.
 858 영? 아니, 행님. 독방 신청했었지요?
 787 (끄덕)

858 아! 아니, 행님. 독방 별루예요. 난 거기 신청하는 애들 이해를 못하겠다. 밥 혼자 먹어야지, 똥도 혼자 싸재껴야지. 어디, 출고 외로워서 밥이 똥으로 제대로 승천하겠어요?

811 야! 드러워서 진짜. 근데 형님. 이제 어디 가서 족구의 제왕이라고 하지마쇼. 그냥 족구계의 내시더만, 내시.

빵 터진 811과 858. 노려보는 787. 이때, 교도관이 다가온다.

교도관 (철창 툭툭 치며) 4번 방. 신입 들어왔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일어서는데. 민중이 해맑게 웃으며 손 흔들며 서 있다. 황당해하는 787, 811, 858.

S#37. 구치소 주방(저녁)

창문 밖으로 비오는 모습 보인다.

S#38. 구치소 복도(저녁)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수아.

S#39. 구치소 정문 일각(저녁)

비가 오는데 수아가 우산도 없이 달려 나온다. 혜정, 우산과 짐 들고 걷다가 수아 보고 올 게 왔구나 싶어 짐 잠시 내려놓는다. 양파가 가득 들어 있다. 혜정, 짐 속에서 우산 하나 더 꺼내 펼쳐서는 수아 씌워준다.

수아 뭐야.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요?

혜정 나가서 하려구 그랬어. 너 이럴까 봐.

수아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혜정 (물끄러미 짐 속의 양파들 바라보다가) 양파 썬 것도 이제 지켜워서 그래. 너도 이 나이 돼 봐. 양파 썬 일, 보통이 아니다.

수아 처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르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은수저가 아니라 나무 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고라고... 그러셨잖아요...이러시려고. (저 멀리 전화 보며) 재 여기 들여다 놓은 거예요? 선배 나가고 나면 재더러 땀땀하랴구?

혜정 그럴 리가. 쟀 너 친구하라고 데려온 거야. 나 빼면 너 여기에 친구 하나 없잖아. (우산 수아에게 쥐어준다.)

수아 (우산 쥐어주자 울컥) 대체 갑자기 왜 나가시냐구요!

혜정 ...후회가 돼서 그래. 하고 싶은 거 죄다 미루면서, 나중에 명퇴하면 탐골공원 가서 해야지~ 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너무 하고 싶고. 후회가 돼서. (피씩) 다 늙어가지고는. (가려는데.)

수아 ...후회하기엔 너무 늙으셨어요! 아시죠.

혜정 ...늙으나 젊으나 후회를 할 땐 다 늙어 있어. 이제 니가 여기 왕고참. 축하해. 연락할게.

혜정, 당당하게 걸으며 밖으로 나간다. 구치소 사람들, 지나가면서 혜정에게 꾸

벽 인사하고. 수아, 그런 혜정의 뒤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다.

S#40. 혼거실 4번 방(저녁)

민중. 방 중앙에서 흥얼거리며 온갖 주워온 물품들 정리하고 있다. 787과 811, 858. 구석에서 민중 조심스레 관찰하고 있다. 811, 슬쩍 바닥에 널려 있는 민중의 양말 들춰보는데. ‘757, 강희원’. 811, 뭐지? 싫어 옆의 민중의 속옷도 들춰보는데. ‘732 양혁준’. 헉! 획 속옷 저 멀리 던져 버린다.

이때, 밖에서 들리는 ‘저녁 배식이요!’ 소리. 787, 811, 858. 서로 쑥덕거린다.

811 (조심스레 다가가) 야. 사팔육. (발바닥으로 방 한가운데 탕탕 치며) 나는 여기 거실 중앙 말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민중 (낮은 목소리로) 내가 왜?

811 (깜짝 놀랐다가 민망해서 웃으며) 아, 새끼. 후, 목소리 봐라. 나 순간 여기 동굴 속인 줄 알았네. 왜냐면... 저 칠팔칠 형님이 방장이고. (787이 건방진 자세한다.) 내가 둘째. 그리고 팔오팔(858이 근엄한 자세 취한다.)이 셋째. 그다음 니가 신입이니깐...

민중 (더 낮은 목소리로 더 크게) 그래서 뭐!!

811 (또 깜짝! 민망해서 더 크게 웃으며) 와나, 목소리 데시벨 높아지니깐 아주 목소리가 저돌적이네. 여튼. 니가 막내니까 오늘 소지 말으라구. 오늘 저녁 스페셜 메뉴는 탕수육이야. 소지한테 입 털어서 잔뜩 받아와. 그럼 우리가 너 인정해 줄 테니까는.

S#41. 4번 방 앞 복도(저녁)

소지가 4번 방 배식구 열고. 배식통에서 음식 꺼내 급식판에 배식한다. 탕수육 나눠 붓고 있는데. 갑자기 민중이 창살 사이로 다짜고짜 얼굴 들이민다. 소지, 배식 푸다 말고 깜짝.

민중 (위협적이고 낮은 목소리로) 탕수육 더 줘.

소지 (졸았지만 차분히) 안 됩니다. 정해진 양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민중 (더 낮은 목소리) 더. 줘.

소지 안 됩니다. 정해진 대로...

민중 더 줘어!!

소지 안 된다니까! 정해진 대로-

민중 (천진난만하고 밝은 표정으로) 야, 이 *****(욕, 삐-처리) 야.

811이 급하게 다가와 민중 입 막는다. 그러나 이미 굳어버린 소지의 표정.

인서트.

배식구 안으로 찰카당 소리 내며 들어오는 급식판.

탕수육은 거의 없고, 소스뿐이다.

S#42. 구치소 복도(저녁)

넷이 모여 앉았는데. 787과 858, 811. 참담한 표정. 민중 혼자 맛있게 스프 떠 먹고 있다.

- 858 (젓가락으로 소스를 휘저으며) 탕수육들은 전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가?
- 811 (민중 보다가 성질나서) 아이, 돌대가리아. 너 깜빵 들어가고 싶어? 탕수육 빵을 뜯게?
- 858 여기가 지금 깜빵입니다... 행님...
- 811 (민중 보다가 열 받아서) 아니, 지금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하는데)

민중, 갑자기 스프 속에 손가락 쑥 넣더니. 작은 벌레 끄집어낸다. 일동 경악. 민중, 작은 벌레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입 안으로 쑥-

787, 썩은 표정으로 손가락 내려놓고. 858은 헛구역질. 811은 민중 등 두드리며 ‘뺨어, 이 돌대가리아!!’ 소리 지른다. 어느새 787, 811, 858 전부 달려들어 민중 입에다가 손가락 쑥서 넣고 빼려고 서로 난리친다. 민중, 그 와중에 탕수육 하나 집어서는 손에 꼭 쥐고 있다.

S#43. 수아 기숙방(밤)

수아가 선화와 누워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 선화 재워주셔서 감사해요. 방 열쇠를 깜빡해가지구...
- 수아 (눈 감으며) 오늘만이다.
- 선화 그럼요! 근데 혜정 선배님은 왜 갑자기 나가신 거래요?
- 수아 (마음 아프다...) ...몰라. 이제 양파 써는 거 싫대. 맵다구.
- 선화 앵? 양파는 물에 담갔다가 썰면 안 매운데! (하다가 방 벽에 걸린 사형수들 사진 보고 일어나서) 와, 이거 전부 선배님이 직접 찍으신 거

예요?

- 수아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취미.
- 선화 (사형수2 마지막 식사 사진 보면서) 되게 잘 찍으신다...
- 수아 아까 나 없을 때 주방엔 별일 없었어?
- 선화 네. 아... 근데 아까 사팔육 아저씨 왔었는데...
- 수아 ... 왜?
- 선화 저희 어제 나눠줬던 보급품, 남은 거 없냐고 물어보던데요.
- 수아 그래서?
- 선화 일단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선배님 계실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수아 ... (뭔가 생각하는 수아 얼굴)

S#44. 구치소 주방(낮)

수아, 누군가를 멍하니 보고 있다. 카메라 빠지면. 민중이다. 출입구 쪽에는 민중을 데리고 온 교도관이 민중 기다리며 서 있다.

- 수아 뭘 달라구요?
- 민중 어제 나눠줬던 거. 음음... 사탕이랑 빵... 더 필요해. 부스러기도 다 줘.
- 수아 ...
- 민중 ... (슈렉 고양이처럼 간절한 눈빛)
- CUT TO. 수아, 창고 열어 주머니에 보급품들 가득 담는다.
- 수아 이거 원래 남들한테 주고 그러는 거 아닌데. 오늘만 특별히 주는 거

예요.

민중 응응. (명찰 힐끗 보고) 최수아, 고맙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며 종이 꺼내 내민다.) 이거 주라고 했다.

수아 뭐예요?

수아, 종이 펼쳐보면. '제과제빵 기술 자격증 취득반 신청서
수감번호: 486. 강민중. (이름만 손 글씨)'이라고 빼뿔빼뿔 적혀 있다.

수아 (사형수가 왜 이런 걸?) ...이거... 신청하려고요? 왜요?

민중 나 여기 나가면 빵 만들어서 부자 돼야 해. 부자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어.

수아 ...?! (나가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교도관 다 됐음 가시지 말입니다.

민중 빵 만들면 최수아도 하나 줄게. (손 흔들며) 안녕!!

민중, 신나게 교도관에게 뛰어간다. 수아, 당황한 눈빛...

S#45. 구치소 운동장 전경(낮)

사이렌(OFF) '위잉-' (노동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

수감자들이 구치소 보수에 동원되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장 한쪽 구석에 4번 방 수감자들을 비롯한 몇몇이 몰려 있다. 민중도 끼어 있다. 수상쩍은 모습.

787 (낮은 목소리로) 꺼내.

다 같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면, 사탕, 땅콩버터, 식빵 등이 튀어 나온다. 민중은 (수아가 준) 주머니째로 우당탕 툠다. 787이 보급품들을 한데 모은다.

858 야, 오늘 보급품 적어빠네. (811 특 치며) 행님 오늘 계 탔네.

787 (민중 보며) 이걸로 뭐 어떻게 할 건데?

민중이 말없이 한데 모은 식빵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땅콩버터를 바른다. 그 위에 색색깔 사탕으로 장식한다. 얼추 초코 케이크 모양으로 보인다. (*과정 빠르게 CG 처리.)

수감자들, 놀라면서 흡족한 표정. 민중, 주머니에서 헌 손수건 꺼내 케이크 주변의 더러운 얼룩들까지 말끔하게 닦아낸다.

858 역-시. 최고수들은 뭔가 다르긴 달라. 이야, 우리 팔일일 행님. 얼굴 핀 거 봐라. 신나서 꼬깨이 땀물 벗기 시작한다.

811 (좋으면서 아닌 척) 내가 뭐 그지냐. 땀물이 켜 있게.

787 (흡족) 괜히 최고수겠냐. 최고수는 '법정 최고 미결수'의 줄임말 아냐. (툰 바퀴 콧소리) '최고 고수이십니다~'의 줄임말이지. (하다가 손수건 보며) 근데 이거 저번에 주웠던 거 아냐? 지난번에 내가 새로 준 거 써. 어디다 뒀어?

민중 넣어 뒀어. 아꼈다가 나중에 쓸 거야.

811 아니, 언제 뒤질지... (아차!, 787이 옆구리 퍽 찔렀다.)

787 (눈치 보다가 근엄하게) 자, 시작.

CUT TO. 수감자들 초코 케이크(?) 놓고 811에게 생일 축하 노래 (장난스럽게. "왜 태어났니~ 갸뻡에 들어올 걸~ (여기서 나지막이 811이 욕을 내뱉는다.) 왜 태어났니~") 불러준다. 811 얼굴에 슬며시 웃음꽃 핀다. 잠시 후, 수감자들이

케이크를 들어 811의 얼굴에 그대로 뭉갠다. 생일 빵 하며, 거칠게 노는 수감자들. 시끌벅적 즐거워 보인다. 수아, 구름다리에 서서 함께 웃고 떠드는 민중을 쳐다본다.

S#46. 독거실 13번 방 / 444 독방(새벽)

444가 빗으로 요리조리 머리 다듬고 있다. 방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수영도 깎아서 깨끗하다. 수감복도 나름 맵시 있게 차려 입었다. 소지가 물통과 쓰레기봉투 들고 온다.

소지 (물통과 쓰레기봉투 건네며) 오늘도 제일 먼저 일어나셨지 말입니다.
444 (나른하게) 일찍 뒤지는 벌레가 일찍 일어난다. 못 들어봤냐.
소지 ...?!
444 (웃으며) 쫄긴. 언제 뒤질지 한 치 앞 모르는 건 너나 나나 포이포인데.

444, 뜨거운 물 작은 통에 조금만 붓고 다시 물통 건넨다.

444 이건... (앞의 4번 방 눈짓하며) ... 저쪽 이쁜이들한테.
소지 물통 들고 사라진다. 검은 고양이, 어느새 나타나 뜨거운 물 할짝거린다.

S#47. 4번 방(새벽)

소지, 811에게 뜨거운 물통 두 개와 쓰레기봉투 건넨다. 787은 구석에서 혼자 물구나무 서기 운동 중이고. 민중은 아직 뒹굴며 자고 있다.

811 (물통 받아들며) 뭐야? 오늘은 왜 두 칸데? (쿵쿵 냄새 맡으며) 뭐라도 탔나? 돌대가리 신입 넣어 놓고는 병 주고, 또 병 주는 거야?
소지 (444 방 고갯짓) 저 형님이 이쁜이들한테 갖다 주랍니다. (사라진다.)
811 이건 또 뭘 멍멍이 수작일까요?
878 ...뻐꾸기 한번 날려봐.

811이 교도관이 있나, 눈치 보다가 쪽지에 뭔가 적더니 새 모양으로 접어 마주 보고 있는 444 독방 쪽으로 날린다. 뽀로롱- 동화 속 한 마리 새처럼 날아가는 뻐꾸기(쪽지). 444가 쪽지 받아 펴면. “남사스럽게 왜 이래?” 444, 811과 눈 마주치자 입 모양으로 ‘선물’. 444, 눈 찡긍한다.

S#48. 강당(아침)

종교 시간. 목사가 와서 설교 하고 있다. 787과 858, 811, 민중. 앞쪽에 쪼르르 모여 앉아 있다. 811은 졸고 있다. 그 뒤편에 수아와 선화 그리고 구치소 관계자들이 앉아 있는 것도 보인다.

목사 (연설 중)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87 (작게) 야, 니들이 언제부터 십자가 모셨냐.

858 뭘 소리예요? 전 모태 신앙이에요, 행님.
787 니들 지난주에 단체로 불당 갔잖아. 이 초코파이에 흘린 노예들아.
민중 (갑자기 염주 꺼내며 큰소리로) 나 이거 지난주에 받았대야!!!
목사 (민중 째려보며)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787 !! 야이, 집어넣어!
목사 (화 누르려 애쓰며 온화하게) 거기, 우리 새로 온 형제님?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민중, 강당 앞으로 나와 선다. 다들 손 모으고 기도할 준비하는데.

민중 (진지하게 손 모으고) 하느님. 저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도 빵 만드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손으로 밀가루 반죽 굴리는 시늉하며) 이렇게 밀가루를 동그랗게 굴립니다. 그리고 (설탕 뿌리는 시늉) 설탕을 솔솔 뿌립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뭐야?” 수감자들 몇몇이 킁킁거리고 웃는다. 몇몇은 ‘요리사님, 설탕이 부족해요!’ 재미로 장난도 맞춰주고. 교도관들은 고개 절레절레. 목사는 황당해한다. 수아만 민중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민중 아니면 (구멍 내는 시늉하며) 이렇게 반죽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설탕을 뿌리면 (손으로 도넛 모양 만들며) 맛있는 도넛이 됩니다.

수감자들, ‘맛있어요!’ ‘다른 것도 만들어줘요!’ 더 크게 킬킬거리며 웃는다. 교도관들,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질 않는다. 그때.

수아 그럼 그 도넛은 누구랑 먹을 건데요?
일동 ... (정적이 흐르고. 수아에게 시선 집중된다.)
수아 ... (진지하게 민중의 눈을 바라본다.)
민중 ... (역시 진지하게 수아의 눈을 바라본다.)
교정관 ?! (눈을 보네?... 차가운 표정)
민중 (싱긋 웃으며) ...엄마랑요.
수아 !!!

다른 수감자들. 그러면 그렇지, 또 웃기 시작하는데. 수아만 진지하다. 민중과 계속 눈 마주치는 수아. 수아의 눈빛이 떨리기까지 하는데. 교정관, 오랫동안 민중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수아가 심상치 않다. 교도관들, 시끄럽다고 수감자들을 제지하고. 교정관, 심기가 불편한 듯 모자를 매만지다가 밖으로 나가 버린다.

S#49. 강당 앞 복도(아침)

교정관. 강당 나와 천천히 걷는데. 심기가 불편해서 계속 모자 만지작. 그때, 저 멀리서 교도관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 보이고. 교정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기운 알아차린다. 그때 무전기에서 들리는 소리.

교도관(E) 십삼 번 독거방. 자살이다! 일일구! 일일구 불러!!
교정관 !!! (뛰어간다.)

S#50. 독거실 13번 방 / 444 독방(아침)

교도관들이 급하게 독방 안으로 들어선다. 교정관도 뒤늦게 들어서는데, 444가 바닥 한쪽에 검은 쓰레기봉투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다.

S#51. 구치소 운동장(아침)

비가 내려 추적거리는 운동장에 구급차가 거친 사이렌 소리 울리며 서 있다. 구급차 바로 앞에는 교정관이 안절부절못하고 서 있다. 이때 구치소 안에서 비 맞으며 급하게 뛰어나오는 교도관.

교정관 (낮은 목소리로) 뭐래?

교도관 그계... 쓰레기봉투로...

교정관(O.L) (폭발해서) 그러게 항상 주시하라고 했잖아!!

S#52. 강당(아침)

S#47. 이어서.

강당. 수감자들 창밖 운동장 바라보면서 수군거린다. 811과 858도 '그래서 아까 물통을 줬구나...' 심각한 눈빛 서로 주고받는다. 그 와중에 민중 혼자 상황 파악 못하고, 구급차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교도관들, 수감자들 밖에 내다보지 말라고 통제한다. 수아, 민중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상담사(E) 사형수 신드롬입니다.

인서트.

444 독방. 가장 먼저 일어나 머리 손질하는 444.

모포 뒤집어쓰고 덜덜 떠는 444.

상담사(E)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죽음을 준비하죠. 그래서 사형수들은 사형수 신드롬, 즉 일정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판결과 집행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고통이 더 커져요.

S#53. 운동장(아침)

#50. 이어서.

비가 오는 와중에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444. 구급대원들이 계속 심장마사지 하고. 444, 숨을 쉬지 못하게 쓰레기봉투로 얼굴을 감싸 목에 매듭지었는데, 교도관이 얼굴 중간에 급하게 찢어 구멍을 냈다. 가슴팍에 붙은 빨간 명찰 444가 선명히 보인다.

상담사(E) 그래서 종종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서트. 상담실 (낮)

수아, 상담사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상담사는 뒷모습만 보이는 상태.

수아 그럼 사팔육... 아니, 강민중 씨는 어떨까요? 제가 꼭 알아야 해서...

S#54. 강당(낮)

#51. 이어서

상담사(E) ...강민중 씨... 디에스엠포(DSM-IV) 진단 결과에 따르면 망상장애에 해당합니다. 자진 사형수가 아니고, 그래서 언젠간 여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적 수준이 낮고 망상장애를 가졌다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진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자막. DSM-IV :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강당. 수감자들이 수군거린다. “하긴, 언제 죽을지 기다리라는데 나 같아도 그냥 죽어버리겠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 “날씨 봐봐. 집행하기 딱 좋네.” 등등. 그 와중에 혼자 창밖의 하늘 바라보며 히죽거리며 좋아하는 민중. 수아가 그런 민중을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상담사(E) 그러니까... 강민중 씨 아마도... 사형수 신드롬은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강민중 씨한테 이 상황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S#55. 구치소 운동장(아침)

#50. 이어서

비가 내려 추적거리는 운동장에 구급차가 저 멀리 거친 소리 내며 사라진다.

S#56. 구치소장실(저녁)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나고. 교정관 들어온다. 구치소장, 말없이 교정관을 노려본다. 교정관, 묵묵부답.

구치소장 (열 뻐치는데 꼭 참고) 눈물겨운 구치소 짬밥 이십 년 먹었으면. 이제 눈물 젖은 밥이 짜고 맛없다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냐. 근데... 왜... (점점 열받아서) 혼자 구치소 짬밥 처음 떠먹던 그때 그 시절로 회귀를 해!

교정관 ...할 말 없습니다.

구치소장 오늘까지 해야 할 거, 읊어봐.

교정관 시말서 써서 올리겠습니다. 경위 조사서랑 결과 보고서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구치소장 ... 나 정년퇴임 얼마 안 남았어. 조용히 좀 갈 수 있게 도와주라. 응?

교정관, 꾸벅 인사하고 나간다. 구치소장,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 읽어 보다가 바닥으로 집어던진다.

S#57. 수아 기숙방(밤)

수아, 행정실 전화 받고 있다.

행정실(E) 최수아 씨, 상담 결과가 아주 좋아요. 사실상 무기 전환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수아 네, 알겠습니다...

S#58. 구치소 운동장(낮)

수감자들 족구를 하거나 운동하고 있다. 민중, 또 홀로 구치소 벽돌 벽 근처에 서서 뭔가를 보고 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 민중의 어깨를 툭툭 친다. 민중, 뒤 돌아 보면. 교도관, 따라오라는 손짓한다.

S#59. 밀실

낮은 조도의 조명 때문에 어둑한 밀실. 밀실 한가운데 책상 하나 가운데 놓여 있고, 민중과 교도관이 마주 보고 앉아 있다. 교도관이 서류 하나를 내민다. 민중이 서류를 받아들다.

교도관 (꼬드기듯이) 별 건 아니고. 강민중 씨한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주려고 하는데.

민중 맛있는 거?

교도관 응. 혼자서 맛있는 거 다아 먹을 수 있지. 거기다가 (펜 주며) 이걸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 봐.

민중이 신난 표정으로 흥얼거리며 펜을 받아들다.

S#60. 단체 교도 작업장(오후)

수감자들이 모포, 침낭과 같은 자기 보급품에 실로 이름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787과 811, 858의 모습도 보인다. 수감자1이 갑자기 작업장으로 뛰어

들어온다.

수감자1 (호들갑) 빅뉴스다! 넥타이 공장에 청소부 떴다!!
수감자들, 일제히 웅성거리고.

811 (작은 목소리로 다급히) 뭐야? 지금 사사사는 병원 갔구. 남은 건...

시선 돌리면. 저 멀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민중의 모습이 보인다.

858 행님. 사팔육은 이거 아는 거예요?

787 (담담히) 모르겠지.

858 그럼 가마이 있을 거예요? 마 우리라도 얘길 해줘야...

787 목소리 깔아. 입 놀리다가 걸리면...

교정관(OFF) 가중 처벌이겠지?

교정관이 787과 811, 858에게 냉소하며 다가온다. 787, 811, 858. 고개 수그리고 일하는 척. 교정관이 둘에게 어깨동무한다.

교정관 (냉소) 빨간 명찰에게 집행일을 미리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규칙 알지? 뭐 여기서 나랑 더 오-래 한술밥 먹구 싶으면 입나발 붙어도 좋고. 응?

손으로 둘의 어깨를 위협적으로 툭툭 치더니 이내 사라지는 교정관. 787과 811이 시선 돌리면. 해맑은 표정의 민중이 보인다.

선화(OFF) 오더!

S#61. 구치소 주방 안(밤)

홀로 앉아 있는 수아 앞에 오더 종이 놓여 있다. 황당한 표정의 수아.

S#62. 구치소 전경(새벽)

자막. 1997년 11월 30일, 강민중 사형 집행 당일.

S#63. 구치소 내 일인 식당 + 참관실 / 식당 앞 복도 교차(새벽)

일인 식당

민중이 청바지, 셔츠의 평상복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다. 평화로운 표정. 책상 위에 민중이 벗어둔 수감복이 놓여 있다. 잠시 후, 수아가 들어와 식판을 민중 앞에 내려놓는다. 식판 클로즈업 하면, 식판이 비어(!) 있다.

참관실

교도관과 서기. 텅 빈 식판을 보고 당황한다. 교도관, 당황해서 서류 뒤적거린다. 서류에 ‘마지막 식사 메뉴 - 땅콩 아이스크림 (두 줄 짝씩 그어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일인 식당

수아 ... 진짜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민중 ...

수아 이유가 뭐예요?

적막이 흐른다. 짹짹 소리만 방 안에 가득 찬다. 수아는 앉지도 않고 민중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민중도 수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가 민중, 고개를 돌려 창밖의 하늘 바라본다. 평안한 표정.

수아 (사무적으로) 알아서 잘해봐요, 그럼. 전 나가 있을게요.

구치소 복도

수아가 복도로 나와 식당 문을 닫는다. 문에 기대고 눈을 감는 수아.

수아 (나지막이) ... 못 해먹겠다, 진짜.

참관실

서기 (오더 종이 보며) 겨울에 웬 땅콩 아이스크림? 이걸 또 뭘데 썼다 지웠대?

교도관 나야 모르지. 교정관님은 사팔육 이감 자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정관 ...

구치소 복도

이내 적막함을 깨우는 구둣발 소리들. 수아, 고개 돌리면. 교정관과 경호원 둘, 보안관, 구치소장이 민중을 사형장에 데려가기 위해 무리 지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일인 식당

민중이 사형장으로 떠나간 뒤, 텅 빈 식당에 수아가 들어선다. 민중이 벗어놓은 수감복 챙기는 수아. 찡찡한 표정인데. 그때, 수감복의 주머니에서 뭔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수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빼낸다. 알약 봉지다. 무언가 생각하는 수아의 얼굴. 그 위로.

인서트.
플래시백.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444.

수아 !!! (사형수 신드롬?!)
교정관(OFF) 야! 정신 차려! 사팔육, 이 새끼!

수아가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된다. 봉지를 든 손이 덜덜 떨린다.

S#64. 구치소 주방(낮)

정신없이 멍한 상태로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수아.

주방 식구2 무슨 일이야. 사팔육 실러갔다며?
수아 ... (눈에 초점 없다.)
주방 식구2 넌 괜찮아?
선화 근데 선배... 지금 여기도 난리 났어요.

S#65. 몽타주

TV 화면 ‘대한민국, 곧 사형 폐지국가 된다.’ 헤드라인.
“아나운서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있으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지하철 역사 안. 시민들이 TV 뉴스 보고 있다.

아나운서(E) (이어서)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지막 사형 집행 날짜를 정하고, 사형 폐지 국가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지원 기잡니다.

교정관실. 교정관, 모자 벗으면 모자 안이 땀으로 흥뻑 젖어 있다. 맥주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수아 기숙방. 수아 홀로 앉아 (무죄를 주장했던) 사형수2의 식사 사진 보다가. 괴로운 듯 머리 감싸 친다.
4번 방. 787과 811, 858. 낫 나간 채로 말없이 앉아 있다.
구치소장실. 심각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벨 울린다. 구치소장,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는다.

구치소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 위경련... 그럼 같이 보내드린 약도? 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S#66. 구치소 내 복도(저녁)

한눈에 들어오는 긴 복도. 사람들로 다소 북적거리고 시끄럽다.

복도 오른쪽에서부터 수아와 주방 식구2가 걸어오고 있고, 복도 왼쪽에서부터는 교도관과 민중이 걸어오고 있다. 민중, 다소 수척한 모습.

걷다가 복도 중간에서 마주치는 수아, 주방 식구2. 교도관, 민중.

그냥 계속 걸어가는 주방 식구2. 민중 보고 발걸음 멈춘 수아. 수아, 뒤돌아보면 민중이 걸어가는 모습 보인다. 무표정이었던 수아. 순간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살짝 웃는다. 그 옆을 계속 지나쳐가는 사람들. 주방 식구2, 뒤돌아선 채 그런 수아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S#67. 구치소 주방(저녁)

수아가 뛰어 들어온다. 선화가 주방에서 야채 다듬고 있고. 바로 옆에 교정관이 주방 식구들과 뭔가 대화 중이다.

수아 (선화에게) 돌아왔어? 강민중 씨!

교정관 ?! (이름을 불러?)

수아 (교정관 보고) 오셨어요?

교정관 ... (차갑게 지나쳐 나가버린다.)

S#68. 4번 방(저녁)

민중, 4번 방으로 들어온다. 다소 수척한 모습. 저녁 먹던 787과 811, 858. 787, 말없이 미리 받아둔 민중의 식판 내민다. 민중, 빙긋 웃는다.

S#69. 구치소 복도(저녁)

교정관. 주방 앞 아직 떠나지 않고 행정실에 전화 거는 중.

교정관 어, 근무 기록일자 좀 봐줄 수 있나? 응. 주방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아... 어... 아. 재계약 날짜가 언젠데?

S#70. 4번 방(저녁)

787과 811, 858, 민중 다 같이 떠들면서 저녁 먹는다. 식판에 사과도 보인다. 민중, 맛있게 사과 몇 입 베어 물다가, 문득 사과 조각 손에 집어 들고 요리조리 살펴본다.

S#71. 수아 기숙방(밤)

책꽂이에 '사진작가 되는 법', '포토그래픽의 기술' 등 사진작가와 관련된 책들이 잔뜩 꽂혀 있다. 허름한 책상 앞에는 수아가 찍은 다양한 풍경 사진, 구치소에서 만든 음식 사진 등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잠시 후, 수아가 치킨 몰골로 들어온다. 그래도 (민중이 돌아와서) 기분이 좋다. 기쁜 표정 그대로 침대에 엮어지는 수아. 그때, 수아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벨 울린다. 핸드폰 액정 보면 '그분'. 수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고.

수아 (전화 받으며, 무뚝뚝) 무슨 일이야?

엄마(OFF) (명랑) 딸! 잘 지내고 있어?

수아 무슨 일이냐구.
엄마(OFF) 일은. 보고 싶어 전화했지.
수아 (한숨) 아빠 혹시 또 사고 쳤어?
엄마(OFF) ... (침묵)
수아 (한숨) 돈 없어. 이번 달 기숙사비랑 카드 값도 겨우 냈구.
엄마(OFF) 그래. 근데... 당장 길가에 내쫓길 판이라. 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수아(O.L) 도대체 이게 몇 번째! (하다가 울컥) 이번에는 제발... 엄마가 날 좀 도와줘봐. 삼십 년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구, 난.

수아가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내 핸드폰 벨소리가 다시 울린다. 수아, 핸드폰 배터리를 확- 빼 버리고 바닥에 집어 던진다. 그때, 누군가 푹푹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수아, 문에 난 구멍으로 바깥 내다보면. 교정관이 서 있는 모습 보인다.

S#72. 구치소 옥상(밤)

수아와 교정관. 마주 보고 서 있다. 교정관, 차가운 표정.

교정관 최수아 씨.
수아 ... (갑자기 이름을?... 긴장한다...)
교정관 여기 구치소 벽 너머에 사는 사람들 말이야. 빨간 명찰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알아?
수아 아마... 좋아하진 않겠죠...
교정관 그래. 빨간 명찰들이 얼른 골로 가줘야 대한민국 기강이 확립되고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김대중이가 대통령 당선되고, 북

한이 핵으로 갈짝대지 않고, 아이엠에프도 터지지 않고...

수아 그게 무슨...
교정관 밖에선 그렇게들 생각한다고. 사실 그게 틀린 얘기도 아니고. 잘 들어. 빨간 명찰들 골로 갈 때 십자가나 염주 들고 눈물 뿜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이나 나처럼 빨간 명찰들 골로 데리고 가서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랑 나까지 천국행 열차 타려 들면... 천국도 미어터지지.
수아 근데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민중 씨가...
교정관(O.L) 난!!! 최수아 씨 좋아해. 왜냐. 주방에서 물을 제일 잘 지키거든. 그러니까 지금껏 살던 것처럼 살아. 여기서 끝까지 버티라고.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핸드폰 울리는 소리 들린다. 수아와 교정관, 소리 나는 쪽 보면. 환풍기 뒤에서 선화가 쭈뼛쭈뼛 나온다.

선화 그게 저...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교정관, 선화 보더니 천천히 나가버린다. 수아, 잠시 뭔가 생각하다가 뛰어서 교정관 따라 나가는데.

S#73. 구치소 계단(밤)

빠른 걸음으로 계단으로 내려오는 교정관. 뒤이어 뛰어 내려오는 수아.

수아 (교정관 뒤에서 따라가며) 저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 햄버거 시켰던... 그때 그 사형수가...

선화 (어느새 뒤에서 따라오며) 선배님!
교정관 (계속 빠르게 걸으며) 빨간 명찰들이 입 털어대는 걸 믿어?
수아 저 최수아예요. 제가 오 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꼬였어요. 저도 양심이란 게...
교정관 당신 양심 하나 지키자고 룰 깨고 여기 다 박살내자고?
수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화 (뒤에 서서, 보다 못해) 선배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아시죠!
수아 ... (그 소리에 멈춰 선다.)

교정관, 그런 수아를 두고 가 버린다. 수아, 멍하니 교정관 바라보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입술 꼭 깨문다.

S#74. 서류 자료실(밤)

어두운 자료실. 수아가 서류 몰래 뒤적거리고 있다. 서류 찾아낸다.
 '여주 구치소 이감 자료 - 강민중'

S#75. 구치소 복도(밤)

수아, 어디론가 빠르게 걷는다.

상담사(E) 최수아 씨. 그때 뭘 보신 거예요?
수아(E) 땅콩 아이스크림. 보육원 가기 전에 먹은 거래요. 열 살 땀가 열이나 서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얘기했대요.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 아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육원 가 달라고.

수아가 어느새 민중의 땅콩 아이스크림 그림 앞에 서 있다.

수아(E) 그래서 즐랐대요. 시원한 땅콩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상담사(E) 그래서... 먹었대요?
수아(E) 네. 근데 진짜루 땅콩 넣은 아이스크림... 엄마가 슈퍼에서 그냥 땅콩 이랑 아이스크림만 잔뜩 사왔대요.
상담사(E) 그래서요?
수아(E) 그래서 열심히 먹고, 먹고, 먹고 (그림 속 아이스크림 먹는 어린 민중 클로즈업) 그리고 화장실 가서 몰래 토하고, 다시 먹고 (그림 속 화장실에서 토하는 어린 민중 클로즈업)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인서트. 이불 덮고 곤히 자고 있는 민중.

상담사(E) 아마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S#76. 구치소 주방(저녁)

민중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고 있다. 옆에서 시시덕거리던 수감자들. 민중 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위에 다른 설거지거리 잔뜩 쌓아놓는다. 민중, 아랑곳없이 다시 설거지 시작한다. 그 모습 지켜보던 수아, 민중에게 다가간다.

수아 강민중 썬 그거 그만하고 (채소 내밀며) 이거 같이 다듬어요.

선화, 선배가 이름을 불러? 놀라서 수아를 쳐다본다. 민중, 수아 말 듣더니 고분 고분 고무장갑 벗고 해맑게 웃는다. 수아, 무표정으로 채소 다듬는다.

민중 ...에이, 지지. 나는 봤지.

수아 ...네?

민중 (수아 손 가리키며) 최수아가 손 안 씻었다. 더럽다. 너-무 더럽다.

키득거리는 수감자들.

수아 ...씻었어요.

민중 나는 봤다.

수아 아까 씻었다니까요?

민중 찰칵찰칵하는 거 봤다.

수아 !! (날 언제 봤단 말이야?)

그때, 갑자기 찰칵 터지는 플래시. 어느새 주방에 놓여 있던 수아 카메라 들고 민중이 사진 찍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에서 당황한 수아의 얼굴이 인화된다.

민중 (사진 보며) 최수아는 찰칵찰칵 할 때가 예쁘다. 계속 웃으니까 예쁘다. 근데 평소엔... (수아 무표정 따라하며) 디게 못생겼다. 너무너무 못생겼다.

수감자들, 더 큰 소리로 키득키득 웃는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이 민중의 다리를 툭 건다. 순식간에 넘어지는 민중. 어느새 교정관이 와서 서 있다.

교정관 버릇이 너무 없네. (웃던 수감자들 노려보며) 즐거운 것도 때와 장소

를 가릴 줄 알아야지 말입니다.

정적 흐른다. 민중,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 삐끗했는지 절룩거리고. 수감자들, 서로 눈치만 본다. 이때, 수아, 망설임 없이 민중에게 다가간다. 선화, 놀란 눈빛. 교정관, 입술 콧 깨문다. 수아, 민중 천천히 일으켜 세우다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인다.

수아 (작게) 당신... 진짜 사람 죽였어?

민중 ...

수아 ...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는...)

민중 ... (빙긋 웃기만 한다.)

S#77. 구치소장실(밤)

창밖으로 눈 내리는 것 보인다. 심각한 얼굴로 공문 읽고 있는 구치소장. 그 앞에 교정관 서 있다.

교정관 올해를 끝으로 사형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기 전에... 우리 구치소에서도 최소 한 명 이상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사사는 아직 혼수상태고...

구치소장 (공문 보며) 공문이 벌써 내려온 거야?

교정관 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S#78. 구치소 복도(낮)

교도관 (소포 가득 든 수레 들고 돌면서) 물품 들어왔습니다!

S#79. 4번 방(낮)

창밖에 내리는 눈. 4번 방으로 소포 들어온다. 811, 소포 받아가지고 신나서 방 한구석에 앉는다. 787과 858, 민중도 모여 앉는다. 다들 들뜬 표정.

811 (신나서 소포 뜯으며 흥얼) 드디어~ 물품이~ 왔습시다아~
858 (787보며) 행님, 영치금으로 저희 것도 다 시켜주시고. 행님은 진짜 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이십니다...
787 니들... 나 사랑하냐?
811,858,민중 (일동 팔로 하트 그리며) 사랑합니다.
811 (소포 뜯어서) 자자, (냉동 훈제 닭 꺼낸다.) 훈제 닭이 왔습시다아. 와, 이 다리 근육 튼실한 거 봐라. 이걸 내꺼. 그리고... (털 귀마개 꺼낸다.) 오오, 대박. 이거 겁나게 비싼 건데!
858 (획 뺏어가며) 마, 내 껍니다. 탐내지 마십쇼.
811 ...빌려 쓰는 것도 안 되냐?
858 네.
811 쪼잔한 새끼. (소포에서 호랑이 그려진 고급 팬티 꺼내며) 뭐야 이 건?
787 (획 낚아채며) 내꺼다, 인마.
811 (피씩) 와, 우리 방장님. 역시 속옷도 남자답게 박! 응? (소포에서 여성용 보라색 손수건 꺼낸다.) 이걸 뭐야...

민중 (방방 뜨며) 우와! 내 꺼다!! 내 꺼!! (811에게서 손수건 획 낚아채고 소중히 꺼안는다.)

일동 ... (뭘지?)

787 ...사팔육... 너 혹시 취향이...

민중 엄마 선물! 여기 나가면 이거 엄마한테 줄 거다. 엄마가 보라색 엄청 좋아한다!

787,811,858 ??!!!

S#80. 구치소 주방(오후)

구석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놓여 있다. 전구에 불 켜지고. 주방 옆에 둔 시디 플레이어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울려 퍼진다. 흥겨운 분위기. 주방 식구들, 요리 하며 캐롤 따라 부르고 있다.

일동 산타클로스 이스 커밍 투 타운~ (이후 가사 잘 몰라서 다들 허밍.)

선화, 신나서 몸까지 들썩이며 제일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다. 수아, 크리스마스 트리 멍하니 바라보는데. 기분 좋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는 것 보이고. 구치소장, 커피 한 잔 들고 죽치고 있다.

구치소장 (창밖 보며) 지긋지긋한 눈. (절레절레) 완전히 망했네, 망했어.

수아 네? 예쁜데... 왜요?

구치소장 눈 땀에 사형장 점검 어렵다잖아. 집행들 다 못하게 생겼어. 이러다가 올해 넘어가면 그냥 사형장 문 닫는 거지 뭐.

수아 !! (달력 쳐다본다.)

인서트. 1997년 12월 22일자 달력.

수아 !! (아직 희망이 있다!)
주방 식구1 (박스 들고 들어오며) 신상 보급품이 왔습니다! 뜨끈뜨끈한 군고구마랑 국수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기념이랍니다!

환호하는 주방 식구들. 수아, 잠시 망설이다가.

수아 (조금 들떴다.) 이거... 수감동 쪽에도 나눠 주면 안 돼요? 좀 있음 크리스마스이븐데...

S#81. 혼거실 4번 방(밤)

민중이 곤히 자고 있다. 787과 811, 858은 아직 자지 않고 그런 민중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다.

787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811 어휴... 그니까 지금 이 돌대가리는 지 앞날도 모르고...
858 근데 어쨌든 삼십일 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행님들.
787 (끄덕) 일단 애한테 내색하지 마. 알겠지?
811,858 (끄덕)

S#82. 구치소 주방(아침)

창밖으로 눈 내리는 것 보인다. 12월 24일자 달력이 벽에 걸려 있다.

선화 (신나서) 아싸! 와! 이번엔 화이트 크리스마스이븐가 봐요!
수아 그러게. (창밖 보며) 좋네... 눈 계속 왔음 좋겠다.

S#83. 구치소 내부 전경(오후)

구치소장(E) 아아. 마이크 테스트. 그럼 우리 서울구치소의 자랑. 크리스마스이브 연례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S#84. 구치소 내 방송실

구치소장이 신나서 라디오 DJ처럼 방송 중. <별이 빛나는 밤에> BGM 깔린다.

구치소장 (나긋한 목소리로) 지금은 별이 빛나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치소장 이세찬입니다.

S#85. 혼거실 4번 방(저녁)

다들 모여 앉아 화투 치고 있다. 두꺼운 종이에 그림 그려서 만든 화투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중. 858은 787이 사준 털 귀마개 하고 있고. 민중은 여자 손수

건 턱받이로 하고 있다. 옆에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 담아놓고 냉동 훈제 닭 익히고 있다.

811 (위 올려다보며) 뭐라나. 허락도 없이 언제부터 우리의 소장이냐?

구치소장(E)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양말을 걸어두세요.

787 나이가 서른셋인데 뭐 산타 할아버지 타령이야.

민중 (혼자 손 번쩍 들며) 네에!!!

구치소장 물론- 여러분은 선물 따윈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깡빵에 들어올 정도로 나.쁜. 녀석들이니까요.

밖에서 ‘우우!’, ‘꺼져라!’ 야유 소리 들린다. 격하게 야유하는 811, 787.

S#86. 구치소 내 방송실(저녁)

구치소장 그럼 즐거운 이브 되시구요. 오늘 들어온 사연과 신청곡들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정희 교도관님이 팔일일 수감자에게 보낸 사연입니다. (BGM 깔리고/DJ처럼 나긋한 목소리로) 니가 처음에 구치소에서 출소했을 때. 우리 손을 잡고 울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얘기했었지.

S#87. 4번 방(저녁)

‘그렇지! 싹다!’ 넷이 모여서 화투 치며 훈제 닭 뜯고 있다. 방송 계속 들린다.

구치소장 (나긋하게) 그런데 넌 한 달 만에 돌아와 버렸어. 코트를 휘날리며 나타난 너를 보며... 우리끼리 그런 얘길 했어. 넌 물에 빠져도 입만 등등 뜰 새끼라고.

복도에서 들리는 킥킥 소리. 얼굴 벌개진 811.

구치소장 그래도 웰.컴. 이정희 교도관님이 팔일일 수감자를 위해 신청했습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올려 퍼지고. 고개 숙인 811. 신나서 좋아죽는 787과 858. 무슨 상황인지 파악 못하고 혼자 화투 가지고 노는 민중.

S#88. 구치소 내 방송실(저녁)

구치소장 아, 이번엔 익명으로 보낸 편지네요. 사팔육 수감자에게 보낸 사연입니다. 딱 세 문장이네요...

S#89. 혼거실 4번 방(저녁)

구치소장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현재를 살아라. 엄마도 그걸 바랄 것이다...’ 신청하신 곡 들려 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의 <거위의 꿈>.

노래가 사동 전체에 울려 퍼진다. 811과 858, 787, 닭 뜯다 말고 숙연하게 앉아서 노래 듣고 있다. 민중만 상황 파악 못하고 신나게 닭 뜯어먹고 있다.

S#90. 몽타주

다음 화면들이 빠르게 흘러간다.

1. 수아 방 책상에 놓인 달력. X자 계속 쳐져 있고 1997년 12월 23일에 X자 치는 수아의 손. 31일에 크게 별표 쳐져 있다. 수아, 창밖에 눈 내리는 것 본다. 활짝 웃는다.
2. 12월 25일자 달력. 제빵제과 반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같이 열심히 케이크 굽는 민중과 오버랩.
3. 4번 방 벽에 걸린 커다란 달력. X자 계속 쳐져 있고. 858이 다가와 1997년 12월 25일에 X자 치고 기도한다.
4. 12월 27일자 달력. 다음 장면과 오버랩. 구치소 운동장 철조망 근처. 787, 811, 858, 민중이 다 같이 꾸그리고 앉아서 군고구마 까먹고 있다. 눈이 내리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 나온다. 민중, 고구마 먹다 말고 갑자기 혼자서 철조망 근처 벽돌 벽에 바삭 붙는다.
5. 수아 손, 1997년 12월 27일에 X자 친다. 수아, 책상에 놓인 《IMF에 대처하는 자세. 공무원만이 살 길이다》, 책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창문 바라보면 눈이 내린다. 수아, 웃는다.

S#91. 수아 기숙방(아침)

달력에 선명히 붙어 있는 12월 29일. 화면 빠지면.

수아, 자다가 문득 벌떡 일어나 창문 열어본다. 날씨가 화창하다. 좌절된 수아의 표정.

인서트. 4번 방. 811, 787, 858. 창문 틈으로 화창한 날씨 보고 낮게 탄식!

주방보조(OFF) 오더!

S#92. 구치소 내 주방(아침)

주방 벽에 오더 종이 (민중의 마지막 식사 주문) 붙어 있다.

주방 식구들 지나가며 흘끗 수아를 쳐다보는데.

수아, 담담한 표정으로 혼자 앉아서 포대에 담긴 땅콩들 중에 좋은 땅콩들만 골라내고 있다. 가장 예쁜 사발 그릇도 골라 정성스럽게 닦는다. 그 옆에는 카메라와 립스틱도 하나 놓여 있다.

S#93. 구치소 사동 복도(새벽)

약간의 어둠이 깔려 어슴푸레한 사동. 땅콩 아이스크림 두 통이 담긴 접시를 들고 사동 복도를 걸어가는 수아의 뒷모습 따라가면. 양쪽으로 늘어선 철창에 수감자들 몇몇이 바짝 달라붙는다. 몇몇은 묘한 표정. 몇몇은 십자성호를 긋거나 염주를 만지작만지작. 몇몇은 휘파람 불어댄다.

팔짱을 끼고 앉아 무표정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정관. 안 되겠는지 천천히 일어나 옆에 놓여 있는 교정봉 잡아 어깨에 들쳐 맨다. 익숙한 듯 수감자들을 돌며 교정봉을 죽- 굽어대기 시작한다. 수감자들,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수아, 4번 방 앞을 지나는데. 787과 811, 858이 등 돌리고 앉아 있다. 수아, 의외로 (믿는 구석이 있어) 담담한 표정. 동요 없이 사동 밖으로 걸어 나간다.

S#94. 구치소 내 일인 식당 + 참관실(새벽)

일인 식사방 책상에 아이스크림 두 통과 땅콩들 놓인다.
카메라 빠지면. 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민중이 앉아 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창한 날씨. 수감복은 책상 한쪽에 곱게 개어져 있다.

인서트. 불투명 유리 너머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교정관과 서기.
수아, 불투명 유리창을 힐끔 쳐다보다가, 일부러 민중의 바지에 아이스크림을 쏟는다.

수아 아, 미안. (바지에 묻은 얼룩 보며 능청스럽게) 에이, 다 묻었네. 화장실 가서 닦고 와요. 다시 가져올게.

인서트. 불투명 유리 너머로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교정관, 어깨 으쓱. 잠시 후, 민중이 다시 방에 들어오자 수아가 새 아이스크림을 갖다 놓는다. 하나는 민중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는다. 가족석에 앉는 수아.

민중 ? (보면)

수아 혼자 먹음 맛없잖아.

수아가 즐거운 표정으로 땅콩 몇 개를 까서 아이스크림에 넣고 섞는다. 민중, 그런 수아 보더니 빙긋 웃고는 땅콩 몇 개를 까서 아이스크림에 넣는다.

수아 강민중 씨.

민중 (보면)

수아 열심히 사느라 수고 했어요...

민중 ... (빙긋 웃으며) 최수아도 수고했다...

CUT TO. 시계가 여섯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중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다. 수아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이스크림을 떠먹기 시작한다.

CUT TO. 시계가 여섯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중이 미동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다가 창문 밖의 하늘 쳐다본다. 수아가 책상에다 턱을 괴고 편안한 표정으로 즐기고 있다.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크림 두 통이 모두 비어 있다.

CUT TO. 시계가 일곱 시를 가리키고 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나고, 교도관들과 경호원 둘, 보안관, 구치소장 들어온다. 민중과 수아. 담담한 표정.

교도관 사팔육 번, 의무과로 체중 검사하러 간다. 나와!

S#95. 교소도 복도(아침)

구치소장, 교도관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민중.

인서트. 구치소 내 일인 식당
식당에 수아가 혼자 남아 있다. 민중의 수감복을 들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 가만히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다. 짹짹 시계바늘 움직이는 소리 들리고. 수아, 뭔가 초조한 눈빛. 그때, 민중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순식간에 우수수 떨어진다. 떨어진 것들을 클로즈업 하면. (남긴) 땅콩들이다. 바닥에 떨어진 땅콩 주워 드는 수아. 순간, 수아의 눈빛이 흔들린다.

S#96. 교소도 복도(아침)

수아(OFF) 잠깐! 잠깐만요!!

민중과 교도관, 구치소장이 뒤를 돌아보면, 수아가 급하게 뛰어온다.

교정관, 소장 ??

수아 강민중 씨! 혹시 못 봤어요? 거울 못 봤어?!

민중 ? (영문 모른다는 눈빛)

수아 ! (못 봤구나!) 안 돼요! 가지 마! 당신 지금 가면 죽어!

교정관, 소장 !!

수아 당신 사형수야! 지금 가면...

교정관 (경호원들에게) 뭐해! 입 막아!

경호원들 달려가 수아 붙잡고 입 막는다. 수아, 입 틀어 막힌 채 숨 거칠게 몰아 쉰다. 손에 들고 있던 땅콩들 들고 흔들어대는데. 손에서 땅콩들 몇 개 우수수 떨어지고. 민중, 수아의 손에 들린 땅콩 가만히 응시한다.

민중 ... (잠시 보다가) 내 침낭에다가 넣어놔.

수아 ?? (보면)

민중 (빙긋) 나중에 먹을 거야.

수아 ?!!

구치소장이 교정관에게 빨리 가자고 힐끗 눈짓 준다. 교도관들이 다시 민중을 데리고 사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수아, 발버둥치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 당한다. 수아, 경호원들 가까스로 밀쳐내고 소리 지른다.

수아 (뒤에 대고 다급하게) 강민중 씨! 안 돼요!

민중과 교도관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걷는다.

수아 (다급하게) 나중은 없어! (제지당하는데 발악하며) 강민중 씨!!

복도 끝 밀실(사형장) 문이 열리고, 민중과 교도관의 모습이 밀실 안으로 사라진다. 사형장 문이 굳게 닫힌다. 정적이 흐르고, 경호원들, 그제야 수아를 풀어 준다. 수아, 머리에 뒨가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사형장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S#97. 과거. 구치소 내 남자 화장실(아침)

수아가 급하게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다. 립스틱을 꺼내 화장실 유리에 글자를 휘갈겨 써 넣는다. 덜덜 떨리는 손 부여잡고 글씨 쓰는 수아.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쓰러지세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수아, 눈치 보면서 화장실 빠져나간다.

CUT TO. 화장실로 들어오는 민중. 바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물로 닦아내다가 유리에 쓴 글자를 멍하니 바라본다. 그러더니 별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버린다.

S#98. 구치소 복도(아침)

텅 빈 복도. 유난히 맑은 날씨. 수아만 복도에 아직도 홀로 서 있다. 바닥에 흩어

저 있는 땅콩들. 수아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 툭-떨어진다. 지저귀는 새 소리가 점점 커진다. (F.O)

S#99. 4번 방(오후)

자막. 며칠 뒤.
교도관들이 들어와 '486 강민중' 적힌 침낭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확 뒤엎어 털기 시작한다. 그러자 먹다 남은 소시지, 탕수육, 사과 조각 등이 우수수 떨어진 다. 오래된 듯 말라 비틀어졌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다. 황당한 표정의 교도관들. (블랙아웃)

S#100. 블랙 화면

자막.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고,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다.

S#101. 구치소 내 상담실(오후)

앞치마 두른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수아. 열린 커튼 틈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수아 (창밖 보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별루네... (다시 화면 똑바로 보며) 생각해보니까... 전 좋은 대학 가려고 십 대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취직하려고 이십 대를 다 보냈구... 지금은 집 사고, 차 사려고 살

고 있구요. 혹시나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실감하며 살진 않았거든요. 당장 핸드폰 비, 카드 값 내는 게 저한테 더 실감 나는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강민중 씨가 원망스럽고 밉네요. 그리고... 고맙구요.

CUT TO.

수아 사실 전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제가... 룰을 깬거든요. (앞치마 벗는다.)

S#102. 구치소 운동장(해질 무렵)

캐주얼 차림으로 씩씩하게 걷는 수아. 문득 민중이 서 있던 철조망 근처 벽돌 벽이 눈에 들어온다. 수아, 민중이 서 있던 자리에 가서 서 본다. 살펴보니 벽돌에 작고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다! 민중이 눈 댄던 곳이 여긴가? 수아, 벽돌에 뚫린 구멍에 조심스럽게 눈을 갖다 대본다.

CUT TO. 뚫린 벽돌 구멍 바깥쪽. 꺾뺨이는 수아의 눈.

CUT TO. (카메라 수아의 시각처럼 잡는다.) 순간 좌악 넓은 하늘 펼쳐진다. 하늘에 노을 펼쳐진 것이 보이고, 저 너머에는 멀리 마을도 보인다. 눈부시게 아름답다. 수아, 구멍에 눈 댄 채로 신나게 깔깔 웃는다. 바람이 불고 수아의 머리 카락이 흩날린다.

카메라. 점점 뒤로 빠지면서 구치소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수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S#103. 전시회장(오후)

자막. 5년 후.

전시회장 벽에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 카메라, 뒤로 빠지면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 사진들이 보인다. 그중에서 땅콩 아이스크림 사진(민중의 마지막 식사 사진)도 보이고.

전시회장 한쪽 구석에서 얼핏 수아처럼 보이는 희미한 실루엣이 보인다.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다. 수아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웃음 짓는다...

끝.



작가 후기 **박주연**

수정고를 쓸 때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원작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니시리즈가 아닌 단막극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색을 어떻게 맛깔나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작에서 구현하였던 주제나 커다란 플롯, 다소 '전위적인 내용들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원작에서 형상화했던 주제는 현재 2017년에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다만, 본래 단편 소설로 쓰고 있던 작품이었기에 '드라마답지 않은 부분은 드라마답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의 본질은 무엇일지에 대해 꽤 오랫동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정고를 쓰며 점차 균열이 생겨가는 여주인공의 감정의 결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교감을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보강하여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극의 톤을 바로잡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 플레이와 더불어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시청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극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구치소 현장 취재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문헌자료 조사와 촬영 세트장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수정고를 쓸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담당 피디님과 오픈 측,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O'PEN
CJ E&M

비매품 / 무료



9 791187 565222

ISBN 979-11-87565-22-2

ISBN 979-11-87565-21-5 (세트)